# 今时回星,2

오희문 저 | 이민수 역 임진왜란 당시 무관(無官)의 선비였던 오희문 선생의 생생한 피란일기. (난종일기)와 《장비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전시 민간인의 고초와 생활상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쇄미(瑣尾)'는 《시정》의 "瑣兮尾兮 遊離之子(누구보다 초라한 것은,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말이다. 만 9년 3개월간 전쟁을 피해 전국을 떠돌며 남긴 일기를 통해 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후세에 전한다.



# 如四星,2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쇄미록2》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 주신 고(故) 이민수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며, 아울러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신복 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t) 02)720-8278 (h) www.olje.or.kr (e)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 병신일록(丙申日錄)   | 7   |
|--------------|-----|
| 정유일록(丁酉日錄)1  | .55 |
| 무술일록(戊戌日錄)2  | 89  |
| 기해일록(己亥日錄) 3 | 94  |
| 경자일록(庚子日錄) 4 | 92  |
| 신축일록(辛丑日錄)5  | 77  |



# 병신일록 | 丙申日錄

# 정월

1일. 이른 아침에, 아우와 함께 신주 앞에서 차례를 지냈다. 좌우 이웃 사람들이 와보므로 술과 안주를 대접하여 보냈다. 이 지방에 표류해 온 지 4년이 되어 한 번도선조 묘소에 제사도 올리지 못하고, 네 아들이 모두 슬하에 없으니, 비록 아우와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과세한다고 하지만 집에 아무 음식도 없어서 겨우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으로 상하가함께 먹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조(正朝)(설날 아침)보다는 좀 나은 셈이다. 광주(廣州)의 성묘는 윤해를 시켜 가서하게하고, 제물은 평강에서 마련해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하는지 알 수 없으니 걱정이 적지 않다.

2일. 이선춘이 서울에 간다기에 편지를 써서 윤해에게 전하게 했다. 전시(殿武)가이미 지났으니 생각건대 금명간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찌하려는지? 집에 길한 꿈이 없으니 필시 모두 떨어진 모양이니 탄식스럽다. 조응립·최정해·백광염·박봉성이 와 보았다. 함열 딸이 문안하러 보낸 사람이 왔는데, 떡 1행담과 어육구이를 싸서 보냈다.

3일. 식사 후에 조백순(趙伯循)(조희철)의 집에 갔더니 백순이 마침 학질을 앓느라고 나오지 못해서 그대로 돌아왔다. 백순은 오늘 고산현감에 임명되었다 한다. 그길로 백공(伯恭)(조희식)의 집으로 갔더니 역시 집에 없어서 또 군빙(君聘)(조희윤)의 집을 찾았으나 또 집에 없다. 이에 군빙의 아들 조박 및 백익(伯益)(조희보)의사위 최정해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술과 안주를 내어내게 대접한다. 돌아올 때 길에서 군빙을 만나 말 위에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평강 관인이 또 와서, 윤겸·윤함, 두 아들의 편지를 보니 26일에 전시에 들어가보고 즉시 평강으로 간다고 했다. 윤해는 제물을 가지고 산소에 갔는데, 정월 초하룻날 성묘한 후에 수원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전시의 글제는 "擬宋知諫院范鎮請使中書樞密 三司通知民兵財利以制國用表"요, 시관(試官)은 윤두수·김명원·이충원·오억령·심우승·한준겸·조정이라 한다. 평강에서 보낸 물건은 목미 1두

5승, 붉은 팥 2두, 생치 10마리, 대구 7마리, 문어 1마리, 마른 꿩 3마리이다. 5일 이 제 어머니 생일이기 때문에 전인해서 보낸 것이다.

4일. 편지를 써서 평강 관인 및 임경흠(林景欽)의 집 종에게 주어 보냈다. 아침에 언명(아우 오희철)과 꿩을 구워서 술 2잔을 마셨다. 또 상 판관(尚判官) 시손(蓍孫) 과 조 별감 광좌가 와서 보기에 술 3잔을 대접하고, 또 꿩 다리 하나를 구워서 대접했다. 저녁에 최인복이 와서 보므로 술과 꿩을 대접했다. 어두운 뒤에는 흐리고비가 오기 시작했다.

5일. 하루 종일, 저녁내 비가 내리다가 혹 눈도 뿌렸다. 오늘은 곧 집사람 생일이다. 소즐의 아내가 떡 1행담과 두붓국 한 그릇을 사동(使童)과 계집종을 시켜 져보냈으므로 즉시 함께 먹었다. 저녁에 함열 딸이 또한 절병 1행담, 실과 1행담, 절육 1행담, 생치 1마리, 건민어 2마리, 청주 1병을 보냈기에 즉시 이웃 마을 10여 집에 나누어 주고, 또 노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단아(端兒)는 또 이틀걸이 학질을 얻어 앓는다.

6일. 사람과 말을 소즐의 집에 보내서 즐의 부인을 청했더니 즐의 부인은 이미 말을 빌려 타고 오는 길이어서 중로에서 만났고, 즐은 내 말을 타고 그 부인과 함께 도착했다. 이에 술과 음식을 대접했더니 저녁이 되어 돌아갔다. 들으니 전시의 방이 이미 나왔는데 아이들은 모두 떨어졌다 하니, 운명인데 어찌하리오. 그러나 들으니 임금이 정원(政院)에 교서를 내리기를, "붓을 잡고 권리를 부리는 것이 곧 글이니, 이런 무리들은 모름지기 많이 뽑을 것이 없고, 전과 같이 조금만 뽑으라" 해서, 이번 방에는 겨우 15명만 뽑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7일.** 저녁내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일기가 몹시 차서 아우와 함께 화로를 끼고 앉아 있었다.

8일. 세전 20일 이후로 날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고, 또 계속해 비가 내리고 도랑의 얼음이 모두 녹아서 여러 고을에서는 바야흐로 얼음 플 것을 걱정하더니,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눈이 뿌리며, 추위가 깊은 겨울보다 갑절이나 되면서 오늘 밤에는 더욱 몹시 차서 방 안 물건도 또한 모두 굳게 어니, 반드시 이로 인해서 얼음을 떠서 간수할 수 있을 것이다.

9일. 들으니 순찰사가 내일 군에 들어온다기에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서 태수에게 물었더니 태수는 대답하기를 내일 마땅히 올 것이나 문안하는 사람이 아직 와서 보고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다고 한다. 성민복이 와서 보고, 보은사 중 경순도 또한 와서 뵈었는데, 그는 이 고을 향림사에 있는 자이다. 또 단성수(丹城守)가 찾아와서 불의에 서로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단성수는 곧 나의 처육촌으로서 한 마을에 살았는데, 이제 호남으로 가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다 한다. 술 3잔을 대접해서 보냈다.

10일, 지난밤에 눈이 내려서 거의 3, 4치에 이르렀다. 바람 차기가 갑절이나 심한 데 집에 땔나무가 없으니 민망스럽다. 꿈에 자미(이빈)가 보이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다. 깨고 나니 슬프고 불쌍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 나이 60이 되기 전에 어찌해 서 먼저 가서 매양 내 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먼저 일을 추억하게 하고 생각 하는 회포를 그치지 못하게 하는가? 몸이 타향에 묻혀서 원혼이 의탁할 곳이 없어 선산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되지 않아서 그러는가? 처자들이 떠돌면서 굶주림을 보존하지 못하니, 유명 사이에도 생각을 잊지 못해서 여기에 이르는 것인가? 슬프 고 슬프다. 아침 식사 후에 말을 빌려서 향림사에 보내서 땔나무 1바리를 실어 왔 다. 어제 중 경순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익산태수 이상길(李尙吉)이 서울에 가다가 여기에 들러서 편지를 보내 문안하고, 또 소주 3병, 백미 1두, 콩 1 두, 벽어 1두름, 닭 1수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그는 윤겸의 친구이기 때문에 필시 그래서 물건을 보내고 문안하는 것이다. 경순 스님이 또 말린 고사리, 도라 지 및 상지 1묶음, 짚신 1켤레를 보냈다. 마침 떨어졌을 때 보내 주니 몹시 기쁘다. 고사리는 집사람이 보름날 약밥 만들 때 쓰려 한다. 익산에서 보낸 소주는 즉시 언 명(오희철)과 각각 1잔씩을 마셨다. 설 술이 이미 다되어 바야흐로 한스러울 때 또 이 술을 얻었으니 거의 수일 동안은 쓰겠다. 경흠은 오늘 온다고 소식이 먼저 왔는 데 반찬이 없어 바야흐로 걱정스러울 때 닭과 생선이 마침 왔으니. 더욱 기쁘다. **11일.** 덕노가 돌아왔는데. 예로 보내는 쌀 10두, 벼 2석을 임 참봉(임면부) 집 종 의 말과 함께 실어 왔다. 임 창봉 집에서는 대상에 쓸 제물을 얻으려고, 종과 말을 보내서 벼 1석 · 찹쌀 1두 · 밀가루 1두 · 새우젓 5되 · 누룩 5장을 실어 왔다. 저녁 에 임경흠이 들어와서 언명과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전일에 경흠의 종이 가져온 술을 마셨다. 나와 경흠은 몹시 마셔서 나는 먹은 것을 모두 토하고 누워서 잤다. 이제 전시의 방을 보니 성이민이 1등이요, 신률도 또한 합격했으니 기쁘다. 윤철(尹徹) · 윤순(尹珣) 형제도 합격했는데, 우리 집 세 아이는 떨어졌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또 고성 누이의 편지를 보니 아무 병도 없다니 위로가 된다.

12일. 아침 식사 후에 경흠이 떠나 돌아갔다. 이번 작별한 후에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어려우니 서운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이제 함열에 들러 자려고 하므로 덕노가 역시 말을 가지고 경흠을 태워 가지고 갔다. 경흠의 종은 가슴이 아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정해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경흠을 대접하고 돌아갔다. 저녁에 인아가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올 때 나루머리에서 경흠을 만났다 한다. 생치 2마리·노루 다리 1개·알젓 1항아리를 얻어 왔다. 요새 반찬이 없어 바야흐로 걱정했더니 이것으로 15일 차례는 지내겠으니 기쁜 일이다.

13일. 찬 기운이 몹시 맵다. 집에 땔나무와 숯이 없어서 방바닥이 쇠처럼 차니 민 망하다. 말을 빌려서 한복을 향림사 주지 경순에게 보냈더니 즉시 탄 나무 1바리를 실어 보냈으니 기쁘다. 들으니 태수가 사표를 내고 돌아갈 터여서 먼저 식구들을 보낸다 한다.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관청에 나오지 못하더니 부득이 사퇴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을 가장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바야흐로 생업이 편 안하였으나 질병이 더하니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한 고을 상하가 모두 그가 가는 것을 애석해 한다. 그러나 형세가 그러니 어찌하리오. 탄식스럽다.

14일. 권 생원 선각이 찹쌀 1두를 보내어 내일 쓰라고 하니 깊이 감사하다. 오늘 약밥 1두 2승을 찌고 또, 보통쌀 1두를 지었다. 이것은 내일 노비들을 먹일 것이다. 정월 보름이기 때문이다. 소즐이 왔기에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15일. 약밥을 찌고 탕과 구이를 가지고 제사 지낸 뒤에 상하가 함께 먹고, 또 앞뒤이웃 사람들을 불러 술 1잔씩을 먹이고 또 약밥 조금씩을 대접해 보냈다. 태수에게들어가 보았더니, 태수는 방에서 나를 맞아 이야기하고, 벼 1석, 봄보리씨 10두, 보리씨 1석을 준다. 돌아올 때 관청에 들어가서 한산군수(신경행)를 만나 옛이야기를 하다가 서 태수가 준 물건을 내달라고 청했다. 한산군수는 봉고의 책임을 겸해

서 여기에 온 것이다.

16일. 조 훈도(趙訓導) 의(毅)가 왔기에 탁주 3대접을 대접해 보냈다. 또 언명이 공목 1필을 얻었기에 허찬을 보내서 쌀로 바꾸게 했더니 먹을 만한 쌀 16두를 받아왔는데, 다시 되어보니 15두였다. 쌀값이 봄 들어 더욱 올라서 만일 5, 6필의 정목이 있어서 쌀로 바꾼다면 삼춘(三春)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에 1자의 포목도 없으니 어찌하랴.

17일, 지난밤 꿈에 자미와 그 처자를 보았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다. 지난 10일에 도 꿈에 보였고, 오늘 밤 꿈에도 보이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만일 그 식구들이 옮겨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종이 돌아갈 때 편지를 했을 것이다. 계집종 옥춘을 함 열에 보냈다. 함열 딸이 이제 산월이 되었는데. 처음 생각으로는 집사람이 가 보려 했었으나 집에 연고가 있어서 가지 못하고 계집종을 시켜 가 보게 한 것이다. 어두 운 뒤에 성민복의 집에 불이 났는데 이웃 마을에서 와서 구원해서 이미 다 껐다. 18일. 식사 후에 언명과 걸어서 성민복의 집에 가서 어제 불이 나서 끈 것을 위로 했더니 성민복이 숨을 내다가 대접했다. 돌아올 때 보니 길가에 쑥이 새로 났기에 아우와 함께 손으로 뜯어서 소매 속에 가득 넣어 가지고 와서 저녁에 국을 끓여 함 께 먹었다. 저녁에 금성정(錦城正)이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들러서 잤고 조 석 식사를 대접하고 이웃집에서 잤다. 밤 2경이 되어 이시증(李時曾)이 왔다. 진안 으로부터 지난 보름날 함열로 와서 4일 동안이나 머무르다가 오늘 낮에 남당 나루 에 이르렀으나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고 밤에 비로소 건너서 밤이 깊어서야 겨 우 왔다고 한다. 내 처자들이 바야흐로 깊이 잠들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즉시 문을 열게 했더니 곧 시증이다. 말이 없어서 다만 두 종만 데리고 걸어서 왔 다니 몹시 가련하다. 즉시 맞아들여 밥을 지어 대접하니 밤이 반이 지났다. 한방에 서 같이 잤다. 어제 자미가 꿈에 보여서 바야흐로 괴상히 여겼더니 그 아들이 갑자 기 왔으니 곧 이것이 먼저 알린 것이라. 더욱 슬프고 탄식스럽다. 시증은 이 길로 수원 아저씨 경여 아내의 집으로 간다고 한다. 그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무사하 나 다만 그 서조모가 지난 3일에 학질로 죽었다니 애도함을 이길 수 없다. 즉시 진 안 땅에 매장했다고 한다.

19일. 금성정은 일찍 식사를 한 뒤에 한산으로 갔다. 한산은 곧 그 식구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20일. 들으니 태수가 내일 길을 떠난다고 하므로 저녁때 군에 들어가서 그 사위 한 자상과 그 조카 민수경을 만나서 온 뜻을 태수에게 전해 달라고 했더니 태수는 기운이 불편해서 나와 보지 못한단다. 돌아올 때 길에서 권 생원 학(鶴)을 만나 말 위에서 잠시 이야기했다. 마침 비가 뿌려서 옷이 모두 젖었다.

21일. 이시증이 이틀을 머물고 떠나서 수원으로 가기에, 그편에 편지를 써서 윤해에게 전하게 했다. 이광춘이 어제저녁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올 때 윤해에게 들어가 보고 편지를 갖다가 전하기에 펴 보니, 모두 아무 일도 없다니 기쁘다. 그러나 들으니 광주 산소는 모두 나무를 베었다 하니, 필시 묘지기가 한 일이라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이른 아침에 이웃에 사는 윤 봉사 걸(傑)을 청해다가 그 사촌 윤건 딸의 혼인을 물었다. 걸은 곧 무인으로서 박봉성의 집에 데릴사위로 와 있고, 그 사촌 윤건은 정산에 사는데, 그도 또한 무인이다. 지난 임진년에 인천부사가 되었다가 경기순찰사 심대(沈岱)가 해를 당할 때 함몰하고, 그 처자만이 홀로 정산에 사는데, 오직 한 딸이 있고, 윤건의 부모는 아직 모두 생존해 있다고 한다. 다시 걸로 하여금 통혼을 한 뒤에 와서 알리라고 했다. 식사 후에 떠나서 배로 남당을 건너 늦게 함열에 도착했더니 태수는 일찍이 바람과 추위에 상해서 아직 쾌차하지 못하여 바야흐로 새 방에 누워 있다. 즉시 들어가 보니 이 봉사 신성도 역시 와서고을 사람 간인덕과 바둑을 두다가 혹 추자(楸子)놀이도 한다. 나는 즉시 아내(衙內)로 들어가 딸을 만나 보고 저녁밥을 든 뒤에 도로 나와서 태수와 함께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다가 상동헌으로 나와 잤다.

22일. 이른 아침에 태수를 만났더니 땀이 나고 있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아내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나왔다. 마침 신대흥(신괄)이 와서 같이 들으니 해남의 새 태수 유형(柳珩)이 서울에서 내려와 고을로 들어가서 그 집으로 나와 신대흥을 청한다기에 즉시 대흥과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왔다. 들어가 딸을 만나고 도로 새 방으로 나와서 잤다. 체찰사의 종사관 김시헌(金時獻)이 자방에게 편지하기를, 변방 상황이 근래에 더욱 좋지 않아 결말

이 어찌될지 알 수 없어 밤낮으로 가슴 졸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했으니, 놀라고 탄식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집은 종도 없고 말도 없으며 또 갈 곳도 없으니 반드시 구렁에 쓰러져 죽으리로다. 한탄한들 무엇하라?

23일. 신대흥, 이 봉사가 관청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각각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종일 정계번과 언수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했다. 태수의 기운은 여전하니 민망스럽다.

24일. 김 생원 상(錦)을 청해다가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다. 상은 정산에 사는데 태수를 보러 왔다가 태수가 기운이 불평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다. 나는 윤 씨 집의 혼사를 묻고자 해서이다. 전일에 비록 서로 의논을 못 했지만 이 때문에 청해다가 만났다. 태수는 기운이 좀 소복되는 것 같으나 그래도 아직 쾌하지는 못하다. 지난밤에 큰 바람이 불고 큰 눈이 내려서 날씨가 몹시 찬데 임천 집에는 나무가 없으니 찬 방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저녁에는 정계번과 같이 잤다.

25일. 태수는 아직도 소복되지 않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아침 전에 대흥과 함께 상동헌에 나가서 두부를 먹었다. 어제 태수가 두부를 만들게 하여 우리들에게 주게 했기 때문이다. 참석한 자는 이 봉사ㆍ별감 최세옥ㆍ정계번ㆍ박장원 등이다. 식사 후에 남궁영광(남궁현(南宮俔))이 왔으므로 새 방으로 돌아와서 이흠중과 바둑 두어 판을 두다가 헤어졌다.

26일. 덕노를 임천 집에 보내서 나무를 베어 주고 오게 했다. 이 고을 좌수 임덕선 (林德宣) · 별감 최세옥(崔世沃)이 두부를 차려놓고 우리들을 청해서 대접했다. 어제 모였던 여러 사람과 함께 모두 상동헌에서 먹고 파했다. 또 술과 과일을 가져다가 마시고 취하고 배가 불러서 헤어졌다. 딸이 어젯밤부터 기운이 불편하고 산고 기미가 있으므로 즉시 그 고모 방에 들어가 거처하게 했다. 거기에서 종일 머물다가 오늘 밤 2경 해시(亥時)에 출산해서 남자 아이를 얻었다. 온 집안 상하가 모두 몹시 기뻐한다. 나는 정계번 · 이기수와 바야흐로 새 방에서 자다가 해산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방에서 나와 천상을 우러러 보니 시간은 밤 2경이요 정확히는 해시(亥時)였다. 자방은 한질로 앓아 오래 누워 있고 일어나지 못하다가 득남했

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기를 마지않으니 더욱 위로가 된다. 즉시 감초를 달여서 아기에게 먹였다. 말도 또한 별로 딴 병은 없으나 국 먹는 입맛이 달지 않다고 한다. 27일. 편지를 써서 대순(大順)을 시켜 임천 집에 보내어 무사히 해산했다는 것을 알렸고, 태수도 또한 전인해서 서울에 보내어 득남했다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전달하게 한다. 그편에 나도 편지 2통을 써서 하나는 평강에 보내고 하나는 광주 윤해가 있는 곳에 전하였다. 이른 아침에 태수가 나를 안방으로 청하기에 즉시 들어가 보니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고, 웃음으로 입을 오므리지 못하니 병중에 더욱위로가 된다. 그러나 병 증세가 오래되어 이에 이르니 걱정스럽다. 식사 후에 신대흥이 있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여러 번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 보지 않을 수 없다. 저녁에 태수가 새 방으로 나왔으므로 나는 이기수와 함께 상동헌으로 나와 갔다. 기수는 태수의 친척이다.

28일. 일찍 새 방으로 가 보았더니 태수는 아직도 소복되지 않았으니 걱정스럽다. 조금 있다가 대흥이 들어왔는데 마침 향화(向化) 홍합(紅蛤)을 바치므로 태수가 즉 시 이것을 굽게 하여 내다가 숨 2잔씩을 마시게 한다. 딸에게 들어가 보니 몸이 편 안하다. 새 아이를 보니 얼굴이 큼직해서 참으로 천리구(千里駒) 같으니 기쁨을 이 길 수가 없다. 도로 새 방으로 나오니 대흥과 이 봉사(이신성)가 술을 마시고 있다. 나도 2잔을 마시고 조금 취하여 상동헌으로 나가는데 이기수도 역시 함께 갔다. 어두워서 덕노가 돌아왔는데. 임천 온 집안이 모두 무사하단다. 다만 자방이 임천 태수의 망(望)에 올랐으나 되지 않았다니 한스럽다. 낮에 남궁 생원 영(泳)을 데려 다가 태수가 침을 맞고, 또 의관 김준(金俊)을 한산에 가서 데려다가 병 고칠 약을 물었더니 보중익기탕을 먹으란다. 영은 곧 죽은 동지 남궁심(南宮沈)의 아들로서 이 고을에 와 있는데, 자못 침술을 아는 자이다. 태수의 오른쪽 어깨 및 다리 아래 가 좀 부었기 때문에 청해다가 10여 곳에 침을 맞은 것이다. 임천에 새로 온 태수 는 곧 예산현감 박진국으로서 정치를 잘한다고 천거되어 얻은 것이다. 충청도 순 찰사는 조인득인데, 전 순찰사 박홍로가 병으로 사퇴하여 바뀐 것이다. 만일 그가 순찰하다가 임천에 이르렀으면 반드시 급한 것을 도와주었을 것인데. 불의에 바뀌 니 한스럽다.

29일. 자방의 기운은 좀 소복되는 것 같고, 어깨와 다리 부은 곳은 여전하다. 그래서 또 김준으로 하여금 침을 놓게 했다. 딸은 어젯밤부터 머리가 아프고 오른쪽 귀와 눈이 몹시 아프다기에 들어가 보니 눈이 좀 붉고 부어서 몹시 아파하고 식사도역시 줄었다니 필시 감기일 것이다. 옷과 이불을 두껍게 하고 땀을 흘리게 했다. 새 아기는 요새 그 어미가 젖이 나지 않아서 매양 젖 있는 관비를 시켜 젖을 짜게하여 이것을 그릇에 데워 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였더니 이내 토한다고 한다. 태수에게 이 말을 했더니 태수는 즉시 관비를 아내로 들여가서 친히 젖을 먹이도록 했더니, 그런 후로는 토하지 않았다. 대흥 및 이 봉사도 새 방에 와서 종일 이야기하고 또 술을 각각 큰 잔으로 셋씩 마시고 파했다. 저녁에는 이 봉사ㆍ김준ㆍ이기수와 상동헌으로 나와 잤다.

그믐날. 근래에 날마다 눈이 내리고 혹 비도 뿌려서 길이 몹시 질다. 처음에는 오늘 떠나려 했더니 이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 태수가 새우젓 5되, 뱅어젓 5되, 조기 5마리, 청어 5두름을 따로 관인을 정해서 임천 집으로 보냈다. 들으니 요새 반찬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나도 역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딸이 지금은 머리 아픈 증세가 소복되었고, 태수도 역시 점차 나아 가서 음식도 조금씩 더 드니 이로부터 거의 아주 소복되는 것이라, 기쁘다. 태수가 오후에 새 아기를 들어가 보고 나와서 신대흥, 이 봉사와 종일 이야기했다. 어두운 뒤에 또 김준, 이기수와 함께 상동헌에 나가서 잤다.

#### 2월

1일. 어제 보낸 관인이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집 편지를 보니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다니 몹시 기쁘다. 오늘은 곧 속절이다. 관청에서 약밥과 국수와 떡, 술과 안주를 대접했다. 마침 왕 생원 위(煒)가 와서 신대흥 존장(尊丈)과 종일 새 방에서이야기했다. 어두운 뒤에 딸에게 들어가 보니 머리 아픈 중세는 조금 나으나 다만붉은 꽃이 몸에 가득하고 음식이 달지 않다고 하니, 필시 찬바람을 쏘여서 그런 것이다. 걱정스럽다. 신대흥・왕 생원・이기수・김준과 함께 상동현으로 나와 자는데, 대흥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마셨다. 또 노래하는 관비를 불러 혹 술을 마

시고 혹 노래를 부르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고 잤다.

- 2일. 태수의 수족 부은 곳이 여러 번 침을 맞았는데도 여전히 덜하지 않으니 걱정이다. 딸은 오늘은 나아 간다고 한다. 처음에는 오늘 돌아가려 했더니 태수가 두부를 만들어 놓고 만류하기 때문에 덕노를 시켜 먼저 양식을 가지고 임천 집으로 보냈다. 양식은 벼 1석, 쌀 10두이다. 어두운 뒤에 사위에게 들어가 보니 별로 아픈 곳은 없으나 음식이 달지 않고, 두 다리 위에 종기가 나서 좌우로 누울 때에 쑤시고 아프다 한다. 또 신대흥·왕생원·김준·이기수와 상동헌에서 잤다.
- 3일. 태수의 증세는 여전하니 걱정스럽다. 신·왕·김·이 여러 사람과 새 방 태수가 누워 있는 곳에서 이야기했다. 이기수는 먼저 완산으로 돌아갔다. 어두운 뒤에 태수가 그 아들을 보기 위하여 안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다. 또 신·왕 및 김준과 함께 상동헌에서 잤다. 마침 별감 최세옥·도장 정신립 및 박장원이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지고 와서 마시므로 신·왕과 나도 또한 참석했다가 밤이 깊어서 파했다. 덕노가 돌아왔는데 집 편지를 보니 아무 일도 없단다.
- 4일. 오늘은 집에 돌아가려 했으나 태수가 만류하여 말하기를, 오늘 한 고을 인부를 내서 꿩과 노루를 잡게 했으니 고기를 먹고 가라고 하기 때문에 더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태수가 여전히 소복되지 않으니 걱정이다. 식사 후에 딸에게 들어가 보니, 기운은 별 병이 없으나 종기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음식도 여전히 달지 않다고 한다. 중국 장수가 고을에 들어와서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 몹시 까다로워서, 심지어 정목 10필, 모시 1필, 두꺼운 유지(油紙) 7목, 장지(狀紙) 2권, 흰 부채 2자루를 받은 후에야 나갔고, 도처에 이와 같아서 모든 고을에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다 하니 탄식스럽다. 종일 신·왕과 새 방 태수 누워 있는 곳에서 이야기했다. 저녁에 사냥해서 잡은 노루 6마리, 여우 1마리, 꿩 34마리를 가져왔다. 이에 태수는 즉시 노루 간을 회 치게 해서 내므로 술 3잔을 마시고 파했다. 어두운 뒤에는 왕 및 김준과 상동헌에 나와 잤다. 신대흥은 기운이 불편해서 오지 않았다.
- 5일. 이른 아침에 신과 왕 및 나는 함께 새 방 태수가 누운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데 꿩을 구워 내와서, 각각 술을 큰 잔으로 둘씩 마시고 파했다. 왕은 작별하고 서천 집으로 돌아갔다. 왕은 곧 내 처사촌 평양수(平陽守)의 사위요, 태수와 한 마을

에 살던 사람이다. 나도 또한 딸에게 들어가 본 뒤에 나와서 태수와 작별하고 용안 (龍安) 길로 향했는데, 생각으로는 용안태수(정경(丁敬))에게 들러 보려 했더니, 문에서 금하는 것이 몹시 엄해서 비록 함열 관인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통하게 했는데도 또한 만날 수가 없다. 이에 무수포 가에 이르러 배로 건너가 달려서 집에 돌아가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올 때 자방이 나에게 꿩 2마리, 노루 다리 1짝과 내장을 주었기에 저녁 식사에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에게 주었다. 꿩과 노루 다리는 시사(時祀) 때 쓰려고 간직해 두고 먹지 않았다.

6일. 권 생원 학이 찾아왔기에 권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동송동(冬松洞) 조 좌랑 (趙佐郎) 백익(조희보)의 집에 가서 물었더니. 조 좌수 군빙(조희윤)과 조백공(조희 식)의 집에 갔다고 한다. 이에 즉시 말을 달려 백공의 집으로 갔더니, 그 이웃에 사 는 친족들과 한 방에 모여 피란할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백공은 우리에게 수 반을 대접해 준다. 해가 기울어서 또 권과 함께 돌아왔다. 백익은 서울에서 내려 온 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소식 및 적의 행동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는 말하 기를, 들으니 적의 왕 수길(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이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 다고 해서 먼저 심 유격(沈遊擊)(심유경)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 들어오라고 해서 심(沈)이 지난달 보름께 먼저 일본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뒤에. 중국 사신이 들어갔 다 한다. 그러나 그 사이의 간사한 꾀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중국 사신이 적의 병 영에 도착한 지가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바다를 건너오지 않으니 필연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이 시끄러워 모두 피 란할 계획을 세워서, 혹은 먼저 관동·관북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고. 혹은 소와 말 과 선척을 준비하는 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집은 종도 없고 말도 없 고 또 갈 곳도 없으니, 밤중에 이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민망하나 어찌하리오. 오 직 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7일. 덕노·한복을 시켜 나무 2바리를 베어 오게 했다. 내일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함열 관인이 평강으로부터 매를 팔려고 왔는데, 곧 관청 매를 먼저 보낸 것이다. 매의 크기는 9촌이요, 이미 길들여 놓아서 몹시 재주가 좋다고 한다. 윤겸과윤함 두 아이의 편지를 보니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다만 윤함은 안질(眼疾)이 도

로 났다고 하니 걱정이다. 윤겸은 내가 결성(結城)으로 옮겨간다는 말을 듣고 결성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어 거기에서 나는 곡식으로 내가 먹게 하라고 했다. 윤겸은 또 생치 3마리, 마른 꿩 4마리를 보냈는데, 생치 1마리는 중도에서 매에게 먹였다고 한다. 이 사람이 올 때 광주 윤해의 집에 들러서 잤기 때문에 윤해가 편지를 했는데 역시 모두 무사하다고 하니 기쁘다.

8일. 조백공(조희식) · 백익(조희보) 형제가 지나가다가 먼저 종을 보내서 나를 청해 같이 가자고 하여 쑥탕 하는 곳으로 갔다. 곧 전일이 이 별좌 덕후와 약속하여 매를 날리고 서촌 냇가에서 쑥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말고삐를 같이하고 따라갔다. 이 별좌 형제는 와 있어서 같이 둘러앉아 있는데, 마침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일기가 차다. 먼저 술과 안주를 내어 각각 몹시 취하고 배불러 가지고 저녁때 각각 헤어졌다. 여기에 참석해 모인 자는 10여 명인데, 이 공은 내게 꿩 1마리를 준다. 돌아올 때 이 진사 중영의 집을 찾았으나 마침 집에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이날 나는 비록 미리 약속한 바는 없으나 여러 사람들은 모두 평일에 서로 가깝게 아는 터이기 때문에 사양치 않고 같이 간 것이요, 여러 사람들도 또한 내가 온 것을 기뻐했다.

9일.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천식을 앓으시므로 모과를 달여서 드렸다. 이른 아침에 집주인 최인복이 와 보았다. 덕노를 함열에 보내서 제사에 쓸 포와 식혜 및 간장 콩을 얻어 오게 했다.

10일. 함열 관인이 서울에서 돌아오다가 율전(栗田) 윤해의 집에 들러서 잤기 때문에 윤해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니 기쁜 일이다. 그러나 춘이를 일찍이 내려보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오늘은 석전 (釋典)이다. 교생들이 번육(膰肉)(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으로 닭 1마리와 술 1병을 보냈으므로 즉시 아우와 함께 1대접씩 기울였으니 깊이 감사하다. 조금 있다가 교생 3인이 와 보고 돌아갔다. 오후에 집을 해 이었다. 저녁에 함열 아노가 간장 콩 1석ㆍ찹쌀 1두ㆍ밀가루 5되ㆍ녹두 4되ㆍ위어 식혜 10개ㆍ조기 1묶음을 가져왔다. 덕노는, 딸이 부득이한 일로 태인(泰仁)에 보냈기 때문에 아노를 시켜 실어 보낸 것이다. 자방은 전세(田稅)를 친히 바칠 일로 군산(群山)에 가고 집에 없는데,

기운은 오히려 전보다 차도가 없고, 수족 부은 것도 아직 쾌히 낫지 않았다고 하니 걱정이다.

11일. 새벽에 아우 및 인아와 함께 시사(時祀)를 지냈다. 집에 저축해 둔 물건이 없어서 다만 면(麵)과 떡, 삼색 육탕(肉湯), 삼색 고기구이 및 포·식혜뿐이다. 희철(希哲) 아우가 마침 와서 또 꿩 2마리와 노루 다리 1짝을 얻었기 때문에 차린 것이다. 식사 후에 집주인 최인복이 왔기에 술을 큰 잔으로 7잔을 대접했다. 어제 청해서 온 것이다. 나는 대순을 데리고 소즐에게 갔더니 즐은 익산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길로 또 유선각(柳先覺)의 집에 갔더니 유(柳)는 내게 좋은 술 3잔을 대접하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또 조 첨지 응린의 집에 들러서 잠시 이야기하다가도로 대조령(大鳥嶺)을 넘어서 돌아왔다. 올 때 대조사(大鳥寺)에 들어갔더니 절에 있는 중들이 판사승(判事僧) 능인의 침해에 못 견디어 모두 딴 곳으로 흩어져 가서절이 비어 있은 지 오래이다. 창문도 모두 없어졌으니 탄식스럽다.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왔더니 함열에서 전인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조기 1묶음ㆍ건민어 1마리ㆍ청어 1두름을 보냈다. 이는 곧 어제 보낸 제물이 처음에는 1위인줄 알았더니 이제 3위라고 듣고 보니 필시 부족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또 보낸 것이다. 정목(政目)을 얻어 보니, 남고성(남상문)이 익위에 임명되었으니 이제 식사는 계속할 수있을 것이다. 몹시 기쁘다.

12일. 남 생원(南生員) 일원(一元)이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토옥을 혈고 그 혈은 나무로 장을 달였다. 이영해(李寧海) 수준(壽俊) 씨가 와서 전세 쌀을 요구하는데, 찧은 쌀이 없어서 정조(正粗) 31두를 찧는 값을 계산해서 주어 보냈다. 연전에 이(李)의 논 3두락을 그대로 지어 먹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다.

13일. 이웃에 사는 조자(趙磁)가 와 보고 돌아갔다. 덕노는 오늘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윤해의 종 춘이도 기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 역시 걱정이다.

14일. 꿈에 빙군(聘君)(이건수(李建秀))과 자미를 보았다. 근래 봄꿈을 자주 꾸지만, 빙군은 전에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더니 오늘 밤 꿈에 보이니 필시 봄꿈이겠지. 아니면 혹시 종자(宗子)가 깊은 산골짜기에 떠돌아 있어 여러 조상의 신위도

역시 타향에 와 있는데, 좋은 때나 절일에 제사를 궐하는 때가 많아 여혼(旅魂)이 감상(感傷)해서 꿈에 들어온 것인가?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가까운 이웃에는 고양이가 없어서 쥐들이 장난을 하니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밤에 덫을 해 놓았더니 지난달부터 날마다 20여 마리씩 잡혀서 지금은 좀 드물어지니 마음이 쾌하다. 무료해서 언명과 걸어서 향교(鄉校)에 갔으나 조광문(趙廣文)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한 내금(韓內禁) 백복(百福)이 와 보았다.

15일. 식사 후에 언명과 걸어서 이복령의 집에 갔더니 마침 유선각(柳先覺)도 또한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또 복령과 바둑을 두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조금 있다가 조의(趙毅)·성민복이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윤해의 종 안손이 율전으로부터 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춘이를 내려보냈더니 가지고 오던 말을 중도에 중국 군사에게 빼앗겨 진위까지 따라가서 간신히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매를 맞고 중상해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안손을 보냈다고 한다. 이제 윤해의 편지를 보니잘 있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그러나 편지 속에 피란하는 일에 대해서 갈 곳을 모르겠다고 하여, 또 우리 집과는 같이 피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형세인 걸 어찌하랴. 슬프고 탄식스러울 뿐이다.

16일. 이른 아침에 함열에서 사람을 보내어 나를 청한다. 오늘은 곧 신대흥의 생일 이어서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하고 나를 청한 것이다. 즉시 말을 달려가서 배로 남당을 건너서 늦게 함열 관아에 도착하니 자방은 이미 여러 사람과 새 방에 모여 앉아, 이미 과일과 면과 떡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 참석한 자는 신대흥ㆍ이 별좌 덕후ㆍ이 봉사 신성(愼誠)ㆍ소 진사(蘇進士) 영복(永福) 및 윤응상ㆍ태수 그리고 나다. 서로 술잔을 권하는데, 이용수(李龍守)는 가야금을 타고 조덕(曹德)은 노래를 부르니 밤이 이미 깊었다. 크게 취해 가지고 파했다. 나와 이 별좌 및 윤응상은 상동헌으로 나와 잤다.

17일. 관청에서 내는 이른 식사로 흰죽을 이 · 윤과 함께 먹은 후 아내에 들어가 딸과 유아를 보았다. 자방은 요새 하루거리 학질에 걸려 오늘이 세 번째라고 하니 걱정스럽다. 나는 또 이 별좌와 약속하고 오늘 돌아올 때 같은 배로 함께 건너서 왔다. 이 · 유은 먼저 태수와 작별하고 웅포(熊浦)가 최극검(崔克儉)의 집으로 가고.

나와 신대흥은 뒤따라 떠나서 역시 최(崔)의 집에 도착하니 최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또 만두와 꿩구이를 내다 대접한다. 술에 취하여 파해 헤어져서 나룻가에 도착하니, 이 별좌의 종이배를 가지고 언덕에 대고 있는데 조수가 이미 반이나들어와 있다. 이 봉사도 역시 도착하여 함께 배에 올라 조수를 타고 올라와서 이별좌의 집 앞에 이르러 육지에 오르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해가 저물어 두려워서이(李)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말을 달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날이 어두웠다. 낮에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아서 저녁밥도 먹지 않고 그대로 잤다.

18일. 들으니 홍 주서(洪注書) 준(遵)이 내일 온 집이 모두 돌아간다고 하기에 언명과 함께 걸어서 찾아갔더니 마침 나가고 집에 없다. 그길로 권 생원 학의 집으로 갔더니 권(權)은 나에게 수반을 대접한다. 또 들으니 이 별좌 덕후가 홍 생원 사고의 첩의 집에 와 있다 하기에 권과 함께 가서 같이 방 안에 둘러앉아 조용히 이야기했다. 큰 바람이 불고 눈이 뿌려서 추운 기후가 엄동과 같은데 권이 말 2필에 안장을 갖추어 우리 형제를 태워 보내 주었다. 또 덕노를 함열에 보내서 봄보리씨 및 전일 가져오지 않은 벼 1석을 실어 오게 했다.

19일. 상 판관 시손이 와 보고 돌아갔다. 백인화(白仁化)가 말값 남은 것 쌀 9두, 붉은 팥 1두 4승을 갖다 바쳤다. 이것으로 끝이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왔는데, 벼 2석 및 함열에서 주는 봄보리씨 9두와 한식 제사에 쓸 조기 2묶음, 새우젓 5되, 뱅 어젓 5되, 간장 2두를 싣고 왔다. 옥춘도 역시 돌아왔다.

20일. 오늘 떠나서 결성에 가려 했으나 덕노가 어제 늦게 와서 말도 피곤하고 종도 지쳐서 떠나지 못했다. 오후에 홍 주서(洪注書) 준(遵)에게 갔더니 내게 좋은 술을 큰 잔으로 셋을 준다. 어제 바람을 쐬여서 왼편 귀가 안 들리고 바람과 빗소리만 귀에 가득하여 바야흐로 민망해 했다. 밤에 머리를 싸고 잤더니 아침엔 조금 덜하나 그래도 아직 쾌하지 않다. 새 태수 박진국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21일.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지 못해 일이 모두 지연되니 민망스럽다. 종일 비가 뿌렸다. 태수가 공자(孔子) 사당에 가 뵈었다.

22일.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니 비가 올까 걱정이다. 그러나 결성은 제때에 갔다 오

지 않을 수 없어서 일찍 식사를 한 뒤에 덕노와 한복을 데리고 떠나서 오후에 정산 가질지의 집에 도착하여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감동을 데리고 정산현(定山縣)에 도착하여 먼저 감동을 시켜 이름을 통했더니 태수가 사람을 시켜 나를 아헌으로 맞아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나에게 상하 조석 식사를 주고, 또 백미 1두, 중미 1두, 콩 2두, 말장 2두, 봄보리씨 3두, 간장 5되를 주니 깊이 감사하다. 사사 주인의 집에 와서 잤다. 태수의 성명은 김장생(金長生)이다.

23일, 사람을 시켜 김상(金鐺)을 현 5리 밖으로 오라고 했더니 김은 즉시 왔기에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윤씨가(尹氏家)의 혼사를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난리 초에 몸을 더럽혀서 할 수 없다고 하고, 태수도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한다. 김과 작별하 고 아헌으로 와서 잠시 태수를 만나고, 그길로 청양(靑陽) 길로 향했다. 또 감동으 로 하여금 간장과 말먹이 콩을 그 집에 갖다 두게 하고, 5리 밖에 이르러서 감동을 먼저 보내어 두 종으로 하여금 보리와 쌀을 나누어 지게 하고 이불보는 말에 싣고 서 청양 현내(縣內) 옛 주인 두응토리(豆應吐里)의 집에 이르러서 말에 먹이를 먹 이고 점심을 먹었다. 주인은 마침 보리받을 간다고 들에 나가고 집에 없다. 즉시 말을 달려 이 생원 익빈(翼賓)의 집에 이르렀으나 이(李)도 역시 집에 없어서 도로 광석(廣石) 이삼가(李三嘉) 댁에 이르렀더니 마침 박정자(朴正字) 탄(坦) 형제가 와 있었다. 또 박 생원 효제(孝悌)를 청해다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삼가댁에서 내게 상하 저녁밥을 대접하고 거기에서 자게 한다. 이익빈의 집에서 올 때 전일 머물던 계당(溪堂)에 들러 보았더니 창문과 마루짱을 모두 떼어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은 채 네 기둥만 우뚝 서 있다. 뒷마을 인가도 역시 모두 헐리고 하나도 낚지 않았다. 4년 사이에 사람의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감탄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 계당(溪堂)에 머무를 때 큰 병을 앓아 거의 죽다가 살아났고. 한 집 상하가 병에 걸려 앓은 자가 많아도 모두 죽음을 면했으니 이는 또한 다행한 일이다.

24일. 일찍 식사를 한 후에 상하 점심을 싸 가지고 삼가댁(三嘉宅)을 작별했더니, 나를 맞아 안으로 들어가 보게 하는데, 박부여(朴扶餘)(박동도(朴東燾))도 역시 와 있다. 잠시 이야기하다가 밖으로 나와 두 박(朴)과 작별하고 말을 달려서 결성 땅 냇가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이서면 윤겸 농사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이 집을 보니, 결성현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긴 골짜기가 거의 반식 남짓한데, 좌우 길가 전답이 개간한 곳이 몹시 적고 인가도 역시 드물어서 몹시 적막하다. 윤겸이 살 때에는 겨우 풍우만 가리고 용슬(容膝)할 뿐이었지만우리 집 같은 많은 식구로는 하루도 살 수가 없겠다. 금손의 집으로 가서 잤다.

25일. 사람을 보내서 이대수(李大秀) · 이팽조(李彭祖)를 청했더니 모두 와 본다고한다. 바다 사람이 장에 와서 굴을 판다기에 즉시 벼 2두를 주고 5사발을 바꾸었는데 거의 1말이나 된다. 식사 후에 이팽조 · 이대수가 와 보았다. 전에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여서 예부터 서로 아는 것 같았다.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금손(今孫)이 술과 안주를 올려서 각각 3잔씩을 마셨다. 팽조가 나를자기 집으로 청하고 먼저 작별하고 돌아가기에 뒤따라서 대수와 함께 갔더니 역시 술과 안주를 내서 각각 오래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그 집은 비록 새로 옮겨 왔으나 몹시 크고 넓은데 바다가 머지않아 해물이 많이 나고 산나물도 또한 많아서 살 만한 곳이다. 두 이(李)는 또 나를 청해서 바다 어구로 걸어 나가서 안민도(安民島)를 바라보니 몹시 가깝다. 만일 배만 갖추어졌다면 또한 이 섬에 피란할수 있을 것이다. 저녁 무렵에 각각 헤어져 돌아왔다.

26일. 이른 아침에 기록할 것과 편지를 써서 덕노를 시켜 홍주통판(洪州通判) 앞으로 보내서 기록한 것과 편지를 올려 결성 고을 안에 있는 공가(公家)를 빌려 살고자 했다. 마침 결성태수는 자리가 비어 있고, 홍주에서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두 이(李)가 가르쳐 준 것이다. 새벽부터 비가 내려 비록 많이 쏟아지지는 않아도 처마 물소리가 나면서 저녁내 개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잤다. 무료하던 차에 마침 이팽조가 바둑판을 가지고 와서 종일 두면서 적막함을 소견하니 몹시 위로가 된다. 덕노가 오지 않으니 괴이하다.

27일. 부슬부슬 가는 비가 밤새 개지 않고 아침에도 오히려 걷히지 않으니 민망스럽다. 그러나 돌아갈 생각이 몹시 급해서 다시 체류할 수가 없어 금손을 데리고 비를 맞고 떠나서, 고을 안에 있는 평강 종 금선의 집에 들어가서 와서 살 만한 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또 이팽조를 청하여 같이 와서 먼저 죄를 짓고 피해 달아난 사람 장윤공(張允公)이 있던 집을 보니 안팎이 갖추어졌고 방이 셋이 있어 와서 살 만하

다. 그러나 태수가 없어서 청해 빌리지 못하겠고. 어제 덕노를 홍주에 내서 기록한 것을 올린 것도 역시 여의치 않으니 한스럽다. 별감 김종립(金宗立)을 불러서 와서 살려는 뜻을 이야기하고 딴 사람이 와서 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자 김은 이를 허락 했으나 되지 못할까 걱정이다. 금선이 점심을 지어 상하에게 대접했다. 이팽조는 먼저 작별하고 돌아가고 나도 뒤따라 떠나서 고을 안에 사는 서주(徐澍)(서경림(徐 景霖))의 집을 찾았더니 그는 나를 맞아들여서 서로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 다. 각각 오래 격조했던 뜻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하의 저녁밥을 대접한다. 그 집 에서 잤다. 어두운 뒤에 김담명(金聃命)이 와 보았다. 김은 언명의 처남이요. 경림 (景霖)은 서(徐)의 아들이다. 늦은 후에 날이 따뜻해지니 길 가기에 지장이 없겠다. 28일. 이른 아침에 경림에게 들어가 보니. 경림은 억지로 만류하고 상하 아침 식사 를 대접하고 또 점심을 싸서 보냈다. 전 생원(田生員) 흡(治)이 와 보고, 또 술 1병 을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해서 각각 큰 잔으로 3잔씩 마시고 파했다. 김담명(金聃 命)도 역시 와서 나에게 행량(行糧)으로 쌀과 콩을 각각 1두씩 주고, 또 그 친가에 보내는 편지름 써서 언명에게 전하여 공인(恭仁)에게 보내라고 한다. 늦게 떠나서 처음에는 순성령(順城令)에게 들릴까 했더니 해가 늦기 때문에 걸어서 안현(鴈峴) 을 넘다가 길가 소나무 밑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말을 달려 광 석(廣石)을 지났다. 또 걸어서 큰 고개를 넘어 청양의 옛 주인 두응토리의 집에 도 착하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29일. 이른 아침을 먹고 떠나서 금정역(今井驛)을 지나 부여 땅 도천사(道泉寺) 아래 시냇가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임천 집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는 상하가 모두 편안하고 집사람과 단아의 학질은 모두 떨어졌다. 오늘은 곧 외조모 제삿날이다. 잠시 밥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집에 와서 들으니 새 태수 박진국이 김자정(김정남)의 부탁으로 문안을 했고, 체찰사의 종사관 김시헌(金時獻)도 역시 이 고을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또 윤해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윤해가 여기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영남은 어제 임실에 사는 그의 서매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봄을 지내겠다고 한단다.

그믐날. 최인복이 와서 보기에 탁주 3대접을 대접했다. 윤해의 편지가 왔는데, 충

아(忠見)가 바야흐로 두통을 앓는다니 걱정이다. 평강에서 물건을 보냈는데 꿩 10 마리, 말린 꿩 10마리, 대구 10마리, 포도 2되, 도라지 정과 1항아리, 백지 1묶음, 상(常) 2묶음이다. 오는 사람이 중로에 중국 군사를 만나서 매를 맞아 몸을 다치고 간신히 왔는데, 꿩 1마리를 뺏겼다고 한다. 윤겸이 그 고을의 큰 폐단 3가지를 써서 올렸다고, 그 소초(疏草)를 보냈기에 보니, 시의(時宜)에 깊이 합당하다. 만일 이것이 채택되어 실시된다면 한 고을 백성이 거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윤겸은 역시 한갓 먹기만 하지 않으니 몹시 기쁘다.

#### 3월

1일. 언명이 덕노를 데리고 태인(泰仁)으로 떠났는데, 아침 후에 비가 뿌렸으니 필시 옷이 젖었을 것이다. 한스럽다. 대구 1마리 · 말린 꿩 1마리를 언명이 갈 때 주었다. 이는 곧 윤겸의 뜻이다. 말린 꿩 1마리는 또한 함열 딸에게로 보냈다. 또 언명이 집에 도착하거든 즉시 처자들을 데리고 이 집에 와서 살라고 했는데, 반드시사람과 말을 빌린 뒤에라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평강에서 온 사람은 병을 칭탁하고 함열로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2일. 평강과 율전에 편지를 썼다. 온 집안 아녀(兒女)들이 모두 각각 편지 한 장씩을 써서 한 권 종이를 다 썼으니 우스운 일이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생병어 및 평강에 보낼 답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태인에서는 사람과 말을 빌릴 수 없다는 소식이 들리니 몹시 걱정스럽다.

3일. 평강 사람이 새벽에 돌아갔다. 그편에 윤해에게 보내는 편지 및 제사에 쓸 대구 2마리, 말린 꿩 1마리를 주어서 율전에 들러서 전하라고 했다. 아침 전에 권 생원 학이 와 보고 돌아갔다. 오늘은 곧 삼삼가절(三三佳節)이다. 제물을 갖추어 신주 앞에 차례를 지냈다. 최인복이 왔기에 꿩고기와 술 1그릇을 대접했다. 성민복도 또한 왔다. 이에 최인복의 말을 빌려서 한복을 데리고 떠났더니 성 공(成公)은그 매부 유수(柳珠)와 함께 뒤따라온다. 그들과 함께 남당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모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함께 남당 나룻가에 이르니 나룻가 큰 언덕에 높이 차일을 치고 술과 안주를 크게 차려놓고 억지로 나를 청해다가 자리에 들게 한다. 여

기에 와서 모인 자는 조광철·광좌 형제, 장계선 및 성(成)·유(柳)로, 아직 다 모이지 않고 있다. 내가 먼저 일어서려 하자 여러 사람들이 안주 1상을 차려 먼저 큰 잔에 술을 부어 억지로 3잔을 권한다. 이에 크게 취하여 먼저 작별하고 언덕에 내려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 말을 달려 함열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이르다. 먼저 새 방으로 가서 자방을 만나 조용히 이야기하고 또 아내로 들어가 딸과 유아를 보니, 유아는 난 지 겨우 한 달 남짓한데 눈에 보이면 벙글거리고 웃으니 예쁘다. 조금 있자니 자방도 또한 들어와서 같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 결성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뜻을 간절히 말했더니 자방은 억지로 이를 말려 사람과 말을 빌리려 하지 않으니 몹시 민망하다. 당초에는 사람과 말과 선척(船隻)을 모두 빌리기로 허락했었는데 지금은 핑계 대고 허락하려 하지 않으니, 지금 만일 가지 않으면 피차를 모두 잃고 일이 모두 와해될 것이니 민망한 일이다. 그러나 내일 마땅히 힘껏 말할 계획이다.

- **4일.** 함열 아내에서 머물렀다. 김백온이 와서 자방과 함께 새 방에서 밥을 먹었다. 백온은 대흥과 함께 남궁의 집에서 바둑을 두기에 나는 먼저 나왔다.
- 5일, 이른 아침에 아내에 들어가 유아를 보고 무릎 위에 안아 보았더니 눈이 마주치면 소리를 내어 웃으니 참으로 예쁘다. 오늘 떠나 돌아오려 했더니 비가 그치지 않아 부득이 그대로 묵었고, 온 집안이 말을 빌리는 일로 귀결되었는데, 오는 15일로 허락하고 그전에는 연고가 있다 한다. 늦은 후에 신대흥이 들어오고, 정 생원 회(晦)도 역시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뱅어탕을 내다가 술을 마시는데, 김백온이 뒤에 와서 취한 뒤에 파하고 동헌으로 나가 잤다. 자방의 새 아이의 이름을 중진(重振)이라고 지었다. 그 고조부 문경공 이후로 중간이 미약하고 떨치지 못했는데, 일문(一門)을 떨쳐 일으켜서 능히 선인의 사업을 계승할 자가 이 아이이고, 또한 자손이 진진(振振)하라는 뜻을 취해서 지은 것이다.
- 6일. 처음에는 오늘 일찍 돌아가려 했더니, 내일 웅포에서 뱅어를 잡기 때문에 자 방이 날더러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한 후에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와서 돌아오자고 하므로 그대로 머물렀다. 그러나 말을 빌려 가지고 오래 머무르고 있으니 걱정스 럽다. 식사 후에 정회와 종일 바둑을 두었다. 저녁에 김백온이 와서 대흥과 함께

등불을 밝히고 자방이 자는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각각 소주 1잔씩을 마셨다. 붕아가 태인에서 들어와서 언명의 편지를 보니, 처자를 거느리고 오는 10일 사이에 임천에 당도한다고 했다. 또 결성으로 가는 일은 사람과 말을 빌리는 것이 겨우 두셋이요, 그나마도 요새는 연고가 있어서 15일 사이에 하라고 하니, 만일 그렇게 하면비단 사람과 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결성으로 간 뒤에 농사지을 시기가 이미 늦어서 형세가 장차 맞지 않아 피차가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때문에 부득이 아직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여름을 지난 후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일은 의사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항상 많은 법이니 어찌 기피할 수 있으랴? 이곳 농사짓는 것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기가 없어서 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걱정이다.

7일. 덕노를 시켜 예로 주는 쌀 10두를 보내고, 또 붕아(鵬兒)를 말에 태워 먼저 임천으로 보낸 다음 나는 즉시 신대흥 · 민 주부(민우경) · 정 생원(정회)과 함께 먼저 웅포 고기 잡는 곳으로 가고, 자방은 뒤따라서 김랑(金郎) · 김 봉사(김경)와 함께 떠났다. 나룻가에 이르러 배를 타고 중류에 이르러 배를 세웠더니 홍요보(洪堯輔) 숙질도 또한 온다. 관청에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먼저 내고, 숭어회와 뱅어탕을 만들어 서로 권하니 술이 반이나 취했는데 또 점심이 나왔으나, 나는 취해서 한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해는 이미 기울었다. 돌아올 길을 재촉하여 먼저 배를 준비시키고 드디어 작별한 다음 순풍(順風)에 돛을 달고 조수를 타고 올라가 남당 나룻가에 이르니 해가 이미 떨어졌다. 즉시 뱅어를 여러 노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늘 잡은 뱅어가 거의 2백여 동이는 된다고 한다. 오는 길에 뱅어 3사발을 따로 싸가지고 최인복의 집에 들러 들여보냈다. 이때 덕노가 말을 가지고 중로에 마중 나왔기에 내 말로 바꾸어 타고 최의 말은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

8일. 한식절이다. 윤해가 광주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겠다. 또한 평강에서 제물을 마련해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곳에서는 뱅어·숭어탕·위어·숭어·생치구이로 신위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일찍이 죽고 자식이 없는, 공이 있는 노비들의 제사도 지내 주었다. 권 생원·성 생원 두 집에 각각 뱅어 1사발씩을 보냈고, 소즐의 집에도 역시 1사발을 보냈다. 남은 것은 것을 담그고 또한 식혜도

만들었다.

9일. 자미(이빈)의 종 한손이 수원으로부터 장차 장수로 가는 길에 여기에 들러서 종윤(宗胤)의 편지와 경여 부인의 편지를 보니 모두 잘 있다고 한다.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시윤(時尹)의 한 집에서 또 절인 뱅어 3사발을 보냈다. 덕노가 병으 로 누워 있어서 부득이 한복을 시켜 깨진 솥을 싣고 편지를 써서 정산태수(김장생 (金長生))에게 보내고. 그편에 가질지의 집에 두었던 물건을 실어 오게 했다. 전일 에 정산태수가 깨진 솥을 다시 부어 만들어 준다고 허락했기에 보낸 것이다. 아침 식사 후에 무료해서 붕아를 데리고 걸어서 성 생원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그 길로 성 공(成公)과 함께 걸어서 그 집 이른 벼 못자리를 가 구경했다. 이때 마침 향교 교생 4, 5명이 지나가다가 밭가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다가 조금 후에 각각 헤 어졌다. 나는 조응개(趙應凱)와 함께 이복령의 집에 가서 종일 바둑을 두었다. 올 때 이(李)가 말에 안장을 갖추어 태워 보내기에 신경유(申景裕)에게 들러 밭 갈 소 를 빌려 가지고 돌아왔다. 어두운 뒤에 한복이 돌아왔는데, 깨진 솥은 소질지로 하 여금 정산으로 보내고, 저는 거기 두어둔 마태 2두 5승 · 목미 1두 · 말장 2두 및 장기 1틀을 모두 실어 왔다. 말장은 겨우 1두 2승이니 필시 감동이 훔쳐 먹은 것이 다. 밉살스럽다. 오면 전에 값을 준 것을 개질지로 하여금 사 오게 할 것이다. 개질 지의 아비 유량이 또 6월태(六月太) 5되 및 채소씨를 보냈다. 들으니 새 태수 박진 국의 정령(政令)이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멀다고 하지만, 부임한 지가 오 래지 않았으니 서서히 끝을 본 뒤에라야 알 것이다.

10일. 새벽부터 비가 내려 저녁내 개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는 내리지 않고 부슬부슬 티끌만 적실 뿐이다. 농사를 위하여 비를 바라는 마음이 바야흐로 간절한데 오지 않으니 탄식스럽다. 이 때문에 채소밭을 갈려다가 갈지 못했다. 그리고 어제 한복이 가져온 쟁기는 나무가 썩어서 밭 가는 데쓸 수가 없다고 한다. 그대로 쌀 5되만 허비했으니 한스럽다. 내일 장에 다시 사다가 써야겠다. 속명으로 이것을 가작(假作)이라고 한단다. 또 요새 두 못이 가득 차 있고, 밀과 보리가 무성하니 기쁘나 다만 논에 부족하다.

11일. 덕노·한복을 시켜서 채마밭을 갈고 각종 채소 씨를 뿌렸다. 또 삼씨 3되 반

을 뿌렸다. 오후에 상 판관(상시손)이 마침 진남의 집에 왔다고 하기에 즉시 가 보았더니, 조 훈도(조의)도 역시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광춘이 술을 가져 와서 각각 2잔씩 마시고 헤어졌다.

12일. 고조 제삿날이다. 종손들은 모두 죽고 오직 말질남이 있을 뿐인데, 멀리 해서에 있으니 필시 제삿날을 알고 제사 지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다만 떡과 면만을 마련하여 새벽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차마 그대로 넘길 수가 없어서 정성을 바쳤을 뿐이다. 오늘 소를 빌려다가 둔답(屯畓)을 갈려고 하자 조윤 공(趙允恭)이 어제 소를 주기로 허락했었는데 오늘은 연고가 있다고 빌리지 않아서 얻어 온 사람이 이미 아침밥까지 먹었는데도 일을 시키지 못하니 깊이 한스럽다. 이에 두 종을 시켜서 소와 말을 가지고 마른 나무 2바리를 베어 오게 했다. 식사 후에 걸어서 권평(權平)의 못가의 논 가는 곳에 갔더니 마침 조 좌수(조응립)가 감관(監官)으로 와서 감독하기에 같이 못가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광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청해다가 종일 조(趙)ㆍ이(李)와 이야기했다. 이(李)는 나에게 술 3 잔을 대접했다. 마침 임 별감 백(柏)도 역시 왔다.

13일. 조윤공(趙允恭) · 신강유(申康裕) 두 집 소를 빌려다가 한복 · 덕노와 품으로 얻은 사람을 시켜서 둔답을 가는데, 늦은 후에 비가 내려서 낮이 되어도 그치지 않는다. 신(申)의 소는 도로 빼앗아 가서 종일 갈 수가 없어서 겨우 5두락을 갈았다. 어제는 사람 셋을 얻어 가지고 아침밥만 먹이고 소를 얻지 못해서 갈지 못했고, 오늘은 소를 얻었는데 비가 내려서 또 못 하고 한갓 양식만 허비하여 일이 모두 뒤틀리고 하늘이 또한 돕지 않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오늘은 김매(金妹)(김지남의 처)의 대상이다. 처음에는 친히 궤연에 가려고 했었는데, 종과 말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한다. 누이가 죽은 지 2년이 되었는데 겨우 이틀거리에 종과 말이 여의치 않아서 한 번도 영전(靈前)에 가서 울지 못하고 이미 3년이 되었으니, 비록 형세라고는 하지만 애통한 마음이 더욱 지극하다. 덕노를 시켜 보내려 했으나 덕노는 학질을 앓고 난 뒤에 또 이질을 앓아 여러 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서 역시 보내지 못하니 더욱 한스럽다. 늦은 후에 진남의 집에 가서 조 좌수 응립과 이야기하는데, 마침 조 판관 대림 부자가 또한 와서 종일 같이 이야기했다. 언명이 처자를 데리고

오후에 비를 맞고 왔다. 만나서 기쁘기는 하지만 상하가 우비가 없이 옷이 모두 젖었으니 애석하다. 들으니 조응립이 홀로 빈 사랑에 앉아 있다 하므로 술과 안주를 보내서 마시게 했다. 내가 먼저 돌아왔기 때문이다. 조대림(曹大臨)에게 들으니 도원수(都元帥) 권율이 명령을 받고 영남을 가다가 어제 홍산에서 자고 오늘 한산을 지나 나시포(羅時浦)를 건너서 금성(錦城)으로 가다가 좌도(左道)로 향하여 팔랑치를 넘어 진산(晋山)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원수(元帥)는 조(曹)의 매부인데, 어제 홍산에 가서 만나고 돌아왔다 한다. 들으니 영변절도사(寧邊節度使)가 죽었다고하니 깊이 탄식스럽고 애석하다. 강한 적은 물러가기도 전에 장사(壯士)가 먼저 죽었으니 이것도 또한 국운(國運)이란 말인가? 절도사는 곧 변응규(邊應奎)로서 장수가 될 만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차례를 초월해서 이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14일. 아침 전에 최인복이 찾아왔기에 큰 그릇으로 술 2그릇을 먹여 보냈다. 오후에 동송동(冬松洞)으로 말을 달려갔더니, 마침 조백익 형제 및 조군빙 형제와 세소년이 길가 소나무 밑에 둘러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조희열이 술을 내다가 내게 먹여서 저녁때 돌아왔다. 조 좌수 윤공을 들러 보고 논 가는 소를 빌리고, 또 이복령의 집에 들어가서 먼저 내 종과 말을 보내고 나서 바둑을 두었다. 어두운뒤에 주인의 종과 말을 빌려 가지고 돌아왔다. 언명 처자는 오늘 비로소 이웃집을 얻어 나가서 잤다.

15일. 태수(박진국)가 권평지(權平池)의 씨 뿌리는 감독을 하여 친히 와서 못가에 앉았기에 내가 가서 보았더니, 조금 있다가 한겸·홍사고·윤대복·조대림·유렴·이복령 및 군훈도 조의·좌수 조응립이 와서 모였다. 종일 이야기하는데 관청에서 수반을 낸 것을 두 사람이 1그릇 가지고 먹고, 저녁 무렵에 각자 헤어졌다. 16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다. 연일 비가 뿌리는데 비록일이나 보리에는 적합하지만 논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다. 오후에 이복령이 이광춘의 집에 와서 나를 청하기에 즉시 가서 이야기하고 또 바둑을 두다가 저녁때 돌아왔다. 장수 이자미의 집 계집종 환이가 9월에 서울로 가다가 여기에 들러 잤는데, 이경백(李慶百)의 아들도 역시 함께 가니 몹시 가련하다. 조석 식사를 해서 대접했다. 경백은 곧 자미의 처남으로서 지난 임진 난리 처

음에 함께 환난을 맛보아 청의가 몹시 두터웠었다. 그 아들이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해서 장수로 돌아와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올라가는 것이다. 또 들으니 최목천(崔木川) 경선(景善)이 지난달에 병으로 죽었다 하니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 난리 후에 남원 농촌에 와 있었다 한다.

17일. 조 좌수 군빙이 종과 말을 보내서 나를 청하기에 즉시 말을 달려갔더니 술자리를 차리고 있는데, 일찍이 이 별좌 덕후 형제와 약속을 했던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자는 조백익 형제, 홍사고, 윤대복, 조대림, 주인 형제와 나였다. 거문고를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파했다. 나는 또 종과 말을 빌려 가지고 돌아오니 밤이 이미 깊었다. 마침 오후에 비가 크게 내려 밤새 그치지 않으므로 주인이억지로 붙들어서 머물러 자라고 했으나 내일은 소를 빌려 논을 갈아야겠으므로 비를 무릅쓰고 크게 취해서 돌아왔다. 오늘 단자를 올리고 환상곡 2석을 받아 왔다. 18일. 소를 빌릴 수가 없어서 논을 갈지 못하겠으니 한스럽다. 식사 후에 들으니조용립이 권평지 씨 뿌리는 감독을 한다기에 걸어서 못가로 가서 조와 이야기하다가 이광춘의 사랑으로 갔더니, 앉은 지 얼마 안 되어 조 훈도 의가 역시 왔다. 또사람을 보내서 이복령을 불러다가 종일 이야기하고 또 복령과 술내기 바둑을 두었는데, 복령이 끝내 한 판도 이기지 못하니 가소롭다. 마침 화전을 지쳐 대접하므로 또 백주 각각 3잔씩을 마시고 파해서 헤어졌다.

19일. 한복을 보내서 사람 셋을 얻어 가지고 도합 네 사람이 쟁기로 논을 갈았는데 겨우 6두락을 갈고 못다 갈았으니 한스럽다. 품으로 산 두 사람은 품값으로 각각 벼 1말씩을 주었다. 늦은 후에 언명·허찬과 논 갈은 데를 가 보고 돌아왔다. 어제저녁에 덕노가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예로 보내는 양식 벼 2석·쌀 12두를 싣고 왔다. 자방이 전에 보낸 찹쌀 1두·잡곡 2두·참기름 반 되로는 화전을 지져서 천신했다. 덕노를 이 별좌 덕후와 조김포 백공에게 보내서 편지로 볍씨를 요구했더니, 덕후는 7두·백공은 5두를 주어 보냈다. 이것은 모두 이른 볍씨로서 전일에 승낙을 얻은 때문이다. 또 사람 6명을 얻고 두 계집종을 시켜 보리밭을 매어 일찍 끝났다.

20일. 사람을 사서 품값을 주고, 한복, 덕노와 함께 논 두둑을 만지게 했다. 늦은

후에 비가 내렸으나 많이 내리지 않으니 한스럽다. 그러나 비가 부족한데 만일 한 보습의 비를 얻으면 씨를 다 뿌릴 것이다. 그런데 저녁내 비가 그치지 않으니 반드 시 부족한 탄식은 없을 것이니 기쁘다.

21일. 어제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종일 내리고 밤새 내려 아침에도 또한 개지 않으니 농사에 흡족할 것이라, 이 비로 씨를 다 뿌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집은 농노가 없어서 겨우 사람을 사도 오히려 부족하여, 이 때문에 남보다 늦어져서 아직도 이른 볍씨를 뿌리지 못했으니, 한 힘이 농사철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다. 늦은 후에 한복・덕노와 눌질비를 거느리고 이영해(李寧海)(이수준(李壽俊))의 병작 논을 손질했다. 비가 비록 크게 내리지는 않아도 부슬부슬 가 랑비가 저녁내 개지 않는다. 이영해는 곧 전 통진 이수준인데 지금은 영해부사로 있다.

22일. 성민복이 와 보았다. 오늘 환상곡을 나누어 준다기에 단자를 올리고 정조(正祖) 1석을 받아다가 한복에게 10두, 덕년에게 5두를 나누어 주고 보니 2두 5승이남았기에 한복에게 1두, 덕년에게 5승을 더 주고, 남은 1두는 집에서 쓰련다.

23일. 사람을 얻고 집의 노비 등 모두 6명을 시켜 논을 손질하고 씨를 뿌렸다. 이 영해의 논에는 중조(中租) 4두, 둔답에는 이른 벼 3두를 뿌리고 그 나머지는 해가 저물어서 다하지 못했다. 식사 후에 아우와 함께 길가에서 농사짓는 것을 구경하는데, 마침 이복령 · 권학 · 최인복 · 조응개가 모두 모여서 버드나무 그늘 밑에서 이야기하다가, 권학 · 이복령과 이광춘의 사랑으로 가서 종일 장기를 두었다. 조대림도 따라왔다. 그 집에 백주가 있어서 각각 4잔씩을 마셨다. 이복룡은 마시지 않기 때문에 녹두죽을 주었다. 마침 이 별좌 덕후가 지나가므로 맞아들여서 한동안이야기했다. 그에게 들으니 이 봉사 신성(愼誠)이 수일 전에 불의에 죽었다고 하니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이 공은 난리 후에 함열 고을 안에 와 있어서 서로 알고 지냈는데, 못 본 지 오래지 않아서 이제 그 부음을 들으니 사람의 일이 덧없는 것이 어찌 여기에 그치랴? 불쌍한 일이다. 경명(京明)은 권학의 자이다.

24일. 전에 조 좌수 응립 및 조 훈도 의와 약속하고 산성 동루에 모여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오늘 마침 모였기로 또 상 판관 시손과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산으로 올랐더니 두 조(趙) 형제는 누(樓)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 언명도 또한 뒤따라 올라왔는데 각각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서로 권하면서 마셔서 각각 몹시 취하여 혹은 노래도 하고 혹은 춤도 춘다. 마침 김강(金鋼)이란 자가 또한 왔는데 그가 데리고 온 종이 피리를 불어 또한 기쁨을 돕는다. 해가 기운 뒤에 취한 몸을 부축하고 같이 걸어 내려오는데 혹은 앞서고 혹은 뒤져서 성문 밖까지 이르니,돌 하나가 있는데 평평하고 넓어서 앉을 만하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또 남은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해서 각각 헤어졌다. 나는 집에 이르자 인사를 차리지 못하고 모두 토한 뒤에 잤다. 이 역시 객지의 무료한 것을 풀어본 것이니 다행하다. 또 여러 사람과 후일을 약속하여 고사리를 지져 먹기로 했지만 사람의 일이 마(魔)가 많으니 기필할 수가 없다.

25일. 저녁내 비가 내렸다. 이복령이 바둑을 가지고 와서 종일 두었는데, 이(李)는한 번도 이기지 못하니 우습다. 밥을 대접해 보냈다. 황 첨지 신(慎)이 서울에서 내려와 영남으로 가다가 이 군에 들러서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태수에게 청해서 찹쌀 1두, 대구 2마리, 생치 1마리를 보냈다. 또 자기가 친히 찾아왔는데, 난리 후에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그러나 오늘 함열에 가서 잔다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행색이 총총하여 다만 보았을 뿐, 회포를 풀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황(黃)은 지난해 여름부터 심 유격(沈遊擊)(심유경)의 접반관으로서 적의 진영에 가 있었고, 심(沈)이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간 뒤에는 명령을 받고 올라가서 그 어머니께 근친한 뒤에 이제 비로소 돌아간다면서 장차경주에 머물러 심(沈)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는 그 공으로 당상에 승진되었다. 또 유 생원 선각이 호두 2두를 전인해서 편지와 함께 보냈으니 몹시 감사하다

26일. 도원수 종사사인(都元帥從事舍人) 신흠(申欽)이 군(郡)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문안했다. 신(申)은 곧 윤겸의 친구이다. 정산 태수(김장생)가 윤겸의 종 소질지편에 편지를 보내고 누룩 2장을 보냈다.

**27일.** 집의 노비 및 품으로 산 사람과 도합 8명이 두 논에 씨를 뿌리는데 마치지 1 근천(觀親)하다: 시집간 딸이 천정에 가서 부모를 봐다. 못했다. 먼저 위 논 4두락에 뿌리는데, 1두 7승을 더 뿌려서 모두 5두 7되를 뿌렸고, 아래 논은 반도 뿌리지 못했는데 종자도 또한 모자라니 내일 2말을 구한 뒤에라야만 거의 끝낼 것이다. 식사 후에 언명과 씨 뿌린 곳에 가 보았다. 함열에서 사람이 와서 자방의 편지를 보니 인아의 혼사를 의논해 정하자고 했기에, 서서히 의논해서 처리하자는 뜻으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요새 어머님께서 코끝에 종기가나고 해수(咳嗽)도 그치지 않아 지금까지 차도가 없으시며, 집사람과 두 딸이 또한 않은 지 여러 날이 되어 음식을 전혀 폐하는데, 집사람은 또 학질까지 얻어서 겸해서 앓으니 더욱 걱정이다. 이광춘을 시켜서 통문을 써서 술쌀을 거둬 가지고 조용립의 집에 해 넣게 했다.

28일. 저녁내 비가 내렸다. 요새 두 못이 자주 차서 비록 논에는 흡족하나 전곡은 필시 잘 되지 않을 것이요, 보리와 밀도 또한 상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며, 봄비가 만일 흡족하게 내리면 한여름에 가물까 걱정이다. 이 별좌 정시(挺時)가 와 보고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또 이웃에 사는 할미가 새 고사리 1묶음을 바치는데, 새로 보는 물건이어서 즉시 지져서 천신하고 어머님께 드렸다. 아침에 눌은 개를 조백익·조군빙에게 보내서 편지로 어제 뿌리다 모자란 씨를 요구했더니, 백익은 2두, 군빙은 1두를 보냈다.

29일. 덕노를 함열에 보내서 쌀 4두 5승을 가지고 웅포(態浦) 제주상선(濟州商船)에 가서 감곽(甘蕾)을 바꿔 오도록 했다. 허찬도 역시 같이 가서 함열에서 양식을 얻어 가지고 그길로 영암(靈岩) 임매(林妹)의 집으로 간다 하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늦은 후에 이복령이 우리 형제를 청하므로 즉시 말을 달려가서 종일 장기를 두었는데 이(李)가 한 판도 이기지 못하므로 내가 포(包) 하나를 떼고 두었어도 때로는 이기지 못하니 가소롭다. 그 집에서 밥을 지어 우리 형제에게 대접하고 노루고기 구운 것을 어머님께 드리게 해서 아우는 먼저 돌아오고 나는 해가 진 뒤에 돌아왔다. 오후에 소나기가 크게 내리다가 금시 그쳤다. 저녁에 안 생원(安生員) 사눌(士訥)의 큰아들이 지나다가 들러서 잤는데,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잘 방이 없어서 이웃집 방을 빌려서 자게 했다. 암탉이 병아리 4마리를 깠는데 2마리는 강아지가 물어 가고, 1마리는 솔개가 채 가고, 겨우 1마리가 자랐는데 크기가 메추리만

했었다. 그런데 그놈을 어제 또 솔개가 채 가서 끝내는 1마리도 기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소롭다.

# 4월

1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저녁내 계속한다. 요새 비가 지나쳐서 매일 그치지 않아 농부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아직 씨도 뿌리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어머님께서는 요새 코에 난 종기가 나으시고, 두 딸도 역시 나았으나 다만 집사람이 지금까지도 쾌하지 못해서 밤이면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신음하다가 아침에야 좀 덜하고, 오후면 혼미해서 누워 있으며, 또 맛있는 음식이 없어 음식이 또한 감해져서 원기가 아주 없어졌으니 크게 아프지나 않을지 몹시 걱정스럽다.

2일. 늦은 후에 이복령이 종과 말을 보내서 나를 청하기에 즉시 말을 달려 가다가 조 혼도(趙訓導)(조의(趙毅))에게 들러 따라오게 하고, 나는 먼저 가서 바둑을 두는데 조 좌수 윤공 및 구섭이 들어와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갔다. 구(具)는 곧 구 별좌 덕후의 조카요, 조 첨지 응린의 사위다. 복령이 나에게 흰죽을 대접했다. 종일 바둑을 두다가 저녁때 종과 말을 빌려 가지고 돌아왔다. 덕노가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예로 보내는 쌀 10두 · 벼 1석을 싣고 왔다. 또 볍씨 7두 · 쌀 4두 및 예로 보내는 1석을 양산(良山)의 집에 맡겨 놓았다. 짐이 무겁기 때문이다. 허찬은 쌀 1말을얻어 가지고 비 때문에 하루를 머물렀다가 오늘 아침에 비로소 남쪽으로 떠났다한다. 미역은 이미 다 팔리고 남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왔다. 들으니 왜적이 군사를 거두어 모두 바다를 건너갔다 하니 한 나라의 경사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나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또 들으니 함열 태수의 어머니가 오늘 떠나서 익산 농사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방이 바야흐로 벼슬을 내놓고 전원으로 돌아가려하기 때문에, 먼저 그 어머니를 보내고, 새달 열흘 후에 또 그 처자를 남포로 보낸단다. 장성태수 이옥여(李玉汝)(이귀(李貴))가 벼슬을 내놓고 돌아가다가 함열에 들러 비때문에 이틀을 묵으면서 편지를 나에게 보내어 문안한다.

3일. 무료한 중에 식사 후에 언명과 붕아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씨 뿌린 곳을 돌아보고 왔다. 들으니 2일 고사리 삶아 먹기로 한 모임은 조 좌수가 6일로 물렸는데,

약속하지 않은 자도 역시 많이 모여서 크게 술자리를 베풀었다고 한다. 저녁에 운해의 집 편지가 진위에서 왔기에 펴 보니 집안이 모두 잘 있고, 충아의 병도 역시다 나았다고 하니 몹시 기쁨을 어찌다 말하라. 그편에 들으니 양산 농촌에는 판관인들이 부역을 피하여 와서 사는 자가 몹시 많아서 윤해도 내년 가을에는 역시들어가 살겠다고 하니 기쁘다.

4일. 노비와 품으로 산 사람 도합 5명을 시켜 전일 씨를 못다 뿌린 논을 손질하게 했더니 일찍 끝났다. 전일 뿌린 것까지 모두 7두이다. 저녁에 군수가 문안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곧 전 감사 박홍로가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박의 부탁은 누구에게 서 들은 것인지 모르겠다. 오늘 씨 뿌린 논은 언명으로 하여금 김을 매서 수확하라고 했다.

**5일.** 언명과 함께 이복령의 집에 가서 바둑을 두다가 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주 인집에서 나에게 수반을 대접했다. 오늘 비로소 누에 1장을 쓸었다.

6일. 이 별좌 덕후가 찾아와서 함께 진남의 사랑으로 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별 좌를 청해 가지고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성루로 올라갔다. 오늘은 일찍이 조응립 등 여러 사람과 모이기로 약속한 터로 여러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참석한 자는 상 판관 시손·조 훈도 의·이 별좌 덕후·조 좌수 희윤·조 좌랑 희보·홍 생원 사고·윤 생원 대복·이 부장 시호·조 판관 대림·주 별감 덕훈·조 좌수 응립과 우리 형제이다. 노래 부르는 관비와 사비 각 5명, 7명이 있고 또 피리를 부는 자, 저를 부는 자가 있어 종일 놀다가 저녁때 각각 헤어졌다. 다만 술이 조금 시어서 마실 수 없어서 그것이 한스러웠다. 하지만 무료한 객지에서 하루 동안 웃고 취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7일. 상 판관이 진남의 사랑에 와서 사람을 시켜 청하므로 즉시 가서 만났다. 그에 게 들으니 오늘 환상곡을 나누어 준다기에 즉시 단자를 써 가지고 친히 가서 사창 (司倉)에서 태수(박진국)를 만나 청해서 정조(正租) 2석을 얻었는데, 언명과 각각 1 석씩을 나누어 먹기로 했다. 그러나 1석은 거칠고 좋지 않으니 필시 황조로 받아 온 것이다. 다시 되어 보니 1석은 16두로, 거친 것은 18두이다. 태수가 내게 큰 잔으로 술 3잔을 대접한다. 돌아올 때 권경명(권학) 및 남 생원 근신의 집에 들렀더

니 모두 집에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남은 태수의 매부로서 서울 있을 때 알던 자이다.

8일. 속절이어서 엽병을 쪄서 천신했다. 마침 임 참봉의 종 복금이 생도미 1마리를 보내서 탕을 만들어 함께 올렸다. 종일 흐리고 비가 뿌린다. 덕노를 함열에 보내서 전에 두었던 쌀과 벼를 실어 왔다.

9일. 한복이 생선 바꿔 올 일로 비인에 가는데, 우리 집에서도 역시 쌀 6되를 주어 바꿔 오게 했다. 집사람은 어제부터 기분이 좀 나아 가고 음식도 조금씩 더 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 하지만 이로부터 아주 쾌할 것으로 보이지만 병의 내왕이 대중이 없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저녁에 들으니 상 판관이 이광춘의 집에 와 있다고 하므로 가 만나서 이야기했다. 들으니 공주목사가 이 군에 전령하여 태수로 하여금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즉시 달려와서 공산성을 지키라고 했다니, 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미리 준비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달리 변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이 까닭에 인심이 소란하고 놀라니 몹시 걱정스럽다. 응익이 와 보고 돌아갔다.

10일. 들으니 어제저녁에 변보가 세 번이나 왔다기에 즉시 달려 군(郡)으로 들어가서 서헌에서 태수(박진국)를 만났더니, 마침 도사가 군에 들어와 있고, 또 이 별좌 덕후, 한 진사 겸(謙)도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전통(傳通)을 보니, 지난 4일에 온동래・양산 두 고을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 군사가 불의에 석교(石橋)로 나와 주둔하고, 뒤따라서 적장 청정(淸正)의 군사가 무수히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이곳 인심이 경동하여 각각 가벼운 장비를 갖추고 모두 피해 달아날 계획을 한다. 그러나우리는 종 하나에 말 1필밖에 없고, 갈래야 갈 곳이 없으니, 몹시 민망하나 어찌하리오. 저녁에 조의・성민복이 와 보았다. 덕노가 돌아왔는데, 태수가 콩 3두, 육장과 미역을 보냈다. 전일 두었던 벼 1석 7두, 쌀 4두도 싣고 왔다.

11일. 날이 밝기 전에 달려서 조 좌수 희윤의 집으로 가서 조 좌랑 희보를 청해다가 피란할 일을 상의했더니, 그들은 이미 소와 말을 준비해 놓고, 모레 길을 떠나서 강원도 양구현(楊口縣)을 향해서 떠난다고 한다. 그러나 변방의 소식이 그 뒤로는 다시 오지 않았고, 오늘은 꼭 올 터이므로 다시 소식을 들은 후에 떠나겠다고

한다. 또 그들에게 들으니 중국 사신 이종성(李宗城)이 밤에 중국 사람 2명을 거느 리고 비밀히 도망해 나와서 즉시 서울로 올라갔고, 부사 양방형(楊方亨)은 거기에 잡혀 있다고 한다. 이 말은 고산군수(高山都守) 조희철(趙希轍)이 편지로 전해 온 말이다. 이에 나도 또한 즉시 돌아와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에 떠나서 배로 남당을 건너 함열 관아로 달려들어 가니, 자방(신응구)은 환상곡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창(司倉)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들어가 딸을 만 나, 비로소 적의 소문이 헛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때 자방이 돌아왔기에 그 곡 절을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오늘 아침 순찰사, 영리(營吏)의 고목(告自)에 의 하면 중국 사신이 지난 3일에 청정(淸正)과 밤에 술을 마시다가, 중국 중에게 속아 서 밤에 비밀히 도망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었다. 이에 거느리고 있던 중 국 군사 및 청정(淸正) 휘하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찾느라고 혹은 산골짜기를 헤매면서 찾아다녔으며. 차비통사(差備通事) 남 동지 호정도 또한 경주 길로 가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로 해서 동래·양산 두 고을에 달려가 알렸기 때문에 인심이 소란해졌다고 하는데 이 말이 확실하다고 하니, 몹시 기쁜 일이다. 순찰사 의 관문도 또한 와서 여러 고을로 하여금 민심을 진정시키라고 했다 한다. 이로 인 해서 원근이 차츰 안정되었다. 그러나 그 말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모두 내다가 가벼운 물건으로 바꾸는데, 값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으며, 심한 자는 혹 간장까지 따라서 이웃 마을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혹은 보리를 다 베어서 소와 말에게 먹였다고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저녁에 신대흥 및 김 봉사가 와서 자방과 함께 새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각각 헤어졌다. 나는 상동헌으로 나와 서 잤다.

12일. 남의 말을 빌려 타고 익산으로 달려가서 신상례(신발(申撥))를 만났더니, 이 장성(李長城) 옥여(玉汝)(이귀(李貴))도 역시 거기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옥여가 내게 말하기를, "변방 소식이 비록 좀 늦추어졌지만, 오래지 않아 도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 이런 때를 타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를 권하여 속히 평강으로 가라 하고, 자기는 내일 그 처자와 형제들을 거느리고 혹은 걷고 혹은 말을 타면서 바로 안협으로 가겠노라고 하면서 날더러도 역시 함께 가

자고 하는데, 말이 장황하다. 이곳 사람들은 이옥여(玉汝)의 말로 인해서 모두 올 라가려 하고, 신 상례(申相禮)도 또한 오는 16일 사이에 올라가겠다고 했다. 옥여 (玉汝)는 이 군(郡)의 태수가 청해서 먼저 나가고. 상례가 나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상례도 또한 태수가 청해서 가기에 나도 또한 나와서 옥여(玉汝)가 있는 집에 들러 서 옥여(玉汝)의 모친을 뵌 후에 도로 함열에 이르니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다. 오 늘 들은 것도 어제 들은 것과 다른 것이 없고. 다시는 전해 온 소식이 없다. 저녁에 는 또 신대흥 · 김 봉사와 자방이 자는 새 방에서 이야기했다. 또 평강(지겸(之謙)) 의 문안 관인(問安官人)이 어제 임천으로 갔다가 오늘 이곳으로 왔기에 윤겸의 편 지를 보니, 모두 무사하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그편에 꿀 3되 · 대구 5마리 · 건치 (乾雉) 10마리를 보냈다. 윤함(允誠)이 서쪽으로 돌아갈 때 편지를 써 두어서, 윤 함의 편지도 역시 가지고 왔다. 이 관인이 올 때 광주의 생원(오윤함(吳允誠))에게 들러서 또한 생원의 편지도 가지고 왔는데, 모두 잘 있다고 했고, 그날로 떠나서 평강에 갔다가 20일 전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나 생원이 간 뒤에 들으니 적의 소문이 급하다고 해서 피차가 모두 낭패하고 있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또 여기 와 서 들으니 이종윤(李宗胤)이 수원으로부터 여기에 들러서 자고, 적의 소문을 듣고 서 곧 진안(鎭安)으로 갔기 때문에 길이 어긋나서 서로 만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또 자방의 새 아이는 전에 중진이라고 이름했더니 이번에 진업(振業)으로 고쳤다. 13일. 자방이 전주(全州)의 성을 지킬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어제 순찰 사의 관문(關文)이 왔는데. 근처의 열 관청으로 하여금 모두 완산(完山)으로 들어 와 성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완산부사(完山府使)가 사람을 시켜 글을 보내서 자방 을 청해다가 함께 성 지킬 일을 의논하는 것이라 한다. 점심 식사 후에 나도 또한 평강에서 온 사람을 데리고 떠나오다가 길에서 신대흥과 김 봉사(김경)를 만났더 니 이흠신의 묏자리 잡는 일로 산 밖에 간다고 하므로 그들과 같이 오면서 말 위에 서 이야기하다가 반식경(半息頃)이나 와서 신(申)과 김은 산으로 올라가므로 나는 홀로 와서, 배로 남당을 건너서 집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다. 자방이 올 때 나에게 생숭어 1마리, 굴비 4묶음을 주어서 가지고 왔다. 지난밤에 마침 안 순(安錞)이 와 보고 같이 잤다. 순(錞)은 곧 안민중(安敏仲)의 아들이다.

14일. 새벽부터 큰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비로소 개었다. 종일 평강과 생원(오윤해)에게 편지를 썼다. 내일 평강에서 온 사람이 돌아가겠기 때문이다.

15일. 평강 사람을 보내는데 두 아들과 남고성(남상문) 누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함열에 있을 때 쌀 1두를 주도록 청하고 이곳에서 또 2되 및 간장 1사발을 더 주 어서 머무는 날 조석 밥을 먹여 보냈다. 또 평강에서 보낸 물건을 마침 자미(이빈) 의 아들 종윤이 여기에 들렀기에 건치 1마리와 꿀 9홉을 주어 보냈다. 또 임 참봉 의 종이 돌아와서 건치 1마리, 대구 1마리를 가져왔기에 남고성 누이에게 건치 1마 리를 보냈다. 늦은 후에 조응개의 말을 빌려 타고 성민복과 함께 조군빙의 집에 갔 더니, 마침 백공(조희식) · 백익(조희보)이 그 삼촌 조은 씨(趙磤氏)와 소년 5. 6명 이 모여서 술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일 놀면서 백익의 계집종 금단 으로 하여금 가야금을 타게 하고 저녁이 되어 크게 취해 가지고 성 공(成公)과 함 께 먼저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술에 취해서 저녁밥을 먹지 못하고 잤다. 들으 니 중국 사신 이종성(李宗城)이 적진에서 나온 후로 남원(南原)에 와서 자고, 전주 (全州) · 여사(礪山)음 거쳐서 올라갔는데, 서울에는 들어가지 않고, 밤으로 비밀히 지나가서 바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길가 여러 고을에서도 모두 중국 사신인 줄 은 모르고 다만 중국 장수로만 대접해 보냈다 하니 무슨 까닭으로 이 같은 망령된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천자의 명령은 적중(賊中)에 두고 비밀히 나와 서 도망갔으니, 위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고 아래로는 강화(講和)의 길을 막았 으니, 이다음 날의 혼단이 이로 인해서 생기지 않을지 모르겠다. 만일 인마(人馬) 만 얻을 수 있다면 이때를 타서 피해서 평강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 니 탄식하면 어찌하리오. 그러나 평강에서 온 사람이 돌아갈 때 윤겸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달 안으로 사람과 말 2필만 보내면 비록 온 집이 다 가지는 못해도 먼저 어머님을 모시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우리 한집 식구들은 초가을을 기다려 갈 계 획이다.

16일. 덕노를 결성에 보내서 그곳 곡식을 쌀로 찧어서 소금으로 바꿔 가지고 오도록 일렀다. 늦은 후에 언명과 함께 씨 뿌린 곳을 돌아보았더니, 옥송(獄松) 앞 논의물이 말랐기 때문에 새 떼가 싹을 뽑고 씨를 까먹어 모두 없어져서 뽑은 싹만 두둑

에 가득하다. 필경 씨가 드물게 생겼으니 몹시 아깝지만 어찌하랴? 집사람이 그저 께부터 도로 기운이 편안치 못하니 걱정이다.

17일. 언명과 함께 여러 논을 돌아보고 물을 대고 돌아왔다. 이광춘의 집에 들어가서 활 만드는 장인이 낡은 활을 수리하는 것을 보는데, 마침 조 판관(曹判官) 대림 (大臨)이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안민중(안사눌)의 아들 순이 지나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잔다기에 저녁밥을 주어 보냈다. 또 영암 임경흠이보낸 중이 홍성으로부터 돌아왔기에 저녁밥을 먹여 재웠다. 편지를 써서 언명(오희철)의 처에게 보냈다. 집 종이 태인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언명의 장인(김철(金轍))의 병세가 위태로워 오래지 않아 일이 생기겠다고 한다. 이내 결성 김담명의집으로 가서 한복으로 하여금 절구의 돌이 잘못된 곳을 고치게 하여 절구를 바르게 하도록 했다. 전일에는 절구의 돌구멍이 맞지 않아서 방아가 찧어지지 않았기때문이다.

18일. 영암에서 온 중이 새벽에 도로 내려갔다. 성민복이 와 보았다. 오후에 무료해서 언명과 함께 걸어서 이복령의 집에 가서, 집사람이 요새 기운이 몹시 불편하니 길흉이 어떠하냐고 물었더니, 돈을 던져 점을 쳐보고 말하기를, 길하고 흉한일이 없으니 의심치 말라고 한다. 거기에서 바둑을 두는데 마침 훈도 조의가 오고, 또 김상(金錦)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같이한동안 이야기하다가 김과 조는 먼저 돌아가고, 나는 종일 바둑을 두다가 돌아오려하는데 윤대복(尹大復)이 또한 와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먼저 일어서니 해가 이에 기울었다

19일. 이복령이 바둑판을 가지고 와서 두기를 청하더니 계속해서 여덟 판을 지고 돌아가니 우습다.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함열 딸이 사람을 보내서 제 어머니 안부를 묻고 생도미 1마리, 절인 조기 5마리, 순채(蓴菜) 1사발을 보내고, 뒤따라서 또 약밥 1행담을 보냈다. 제 어머니가 먹고 싶어 한단 말을 듣고 만들어 보낸 것이다.

**20일.** 늦은 뒤에 언명과 함께 걸어서 성민복의 정자에 가다가 길에서 조 훈도 의를 만나서 함께 가서 민복을 청해다가 숲 밑에 벌려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광춘 ·

조인남·조용개 등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는데, 마침 교생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훈도에게 바치므로 그 자리에서 함께 먹었다. 이시윤(李時尹)의 장인 이언우 (李彦祐)가 또한 찾아와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녁때가 되어 이언우를 청해 가지고 먼저 돌아와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또 언명과 함께 이웃 사람 고동(古同)을 불러 가지고 씨 부친 논의 씨가 어떻게 섰는지를 돌아보게 했더니 고동이 살펴보고 나서 말하기를, 비록 새가 먹어 씨가 드문 곳이 있지만 빈 곳에서 옮겨 심으면 좋겠다고 한다. 고동은 노농(老農)이어서 물어본 것이다. 요새 집사람이 기운이 몹시 불편하더니 어제부터 좀 덜하다. 그러나 무당을 불러서 기도했더니 오후에 도로 불편하니 걱정이다. 무당이 헛것이라는 것을 역시 알 만하다.

21일, 네 사람을 사서 풀을 맸다. 먼저 이른 벼의 논을 매고, 그 후에 이통진의 논 을 맸으나 끝내지 못했다. 어제 이통진의 종이 와서 올 요역가(徭役價) 쌀 1두 2되 를 가지고 갔다. 식사 후에 언명과 함께 논 매는 곳을 가 보았더니. 마침 상 판관 시손이 이광춘의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청하므로 즉시 가 보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한복이 와서 전어 1마리, 도미 1마리를 바친다. 이 것은 전일에 쌀 6되를 주어 비인(庇仁) 생선 가게에 가서 사 오게 했더니, 오늘 돌 아온 것이다. 그러나 들으니 시장에서 전어 큰 것 1마리 값이 쌀 3되라고 하는데. 한복은 다만 1마리만 사 왔으니, 이는 필시 나를 속인 것이다. 몹시 분하고 분하 다. 그러나 이미 배를 갈랐기에 즉시 끓이게 하여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다만 집 사람이 아침부터 종일 기분이 답답하고 편안치 못하여 겨우 구운 고기 반쪽과 좁 쌀밥 반 숟가락을 먹었는데, 이 때문에 가슴이 막혀 답답해 하고, 먹은 것이 내려 가지 않고 두통이 또한 몹시 심하더니. 3. 4차 구토한 뒤에 좀 덜하다. 하지만 두 통의 증세와 답답한 증세가 밤새 그치지 않아 잠을 못 자고 신음하여 원기가 점점 떨어지니 걱정스럽다. 먼 타향에 떠도는 처지여서 의원을 찾을 길이 없고, 세 아 이는 또한 모두 멀리 있어 2. 3일 이내로는 불러 올 수가 없고 병세가 이와 같은데 어찌할 수가 없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저녁에 함열 딸이 사람을 시켜 전어 3마리. 큰 망어 1마리, 위어 12마리, 겨자 1주먹을 보내왔다. 이는 곧 전일에 제 어머니가 몹시 위어 회를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병으로 괴로워해서 먹 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22일. 아침에는 집사람의 증세가 어제저녁에 비하면 조금 소복되었으나 두통은 아직도 쾌차하지 않고 전혀 음식 생각이 없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식사 후에 언명을 이복령의 집에 보내서 길흉을 점치게 했더니, 이복령은 써서 보내기를, "출생한 월령(月令)이 무인(戊寅)을 당했고, 행운(行運)이 또 임신(任申)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寅)과 신(申)이 상충되어 명령(命令)을 깨쳐서 상해 가지고 조그만 병을 얻은 것이니, 이치와 형세가 그럴 수밖에 없다. 또 금년이 병신(丙申)이기 때문에 명령(命令)이 거듭 해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신음할 때이다. 그러나 본래의 명(命)은 반드시 경오(庚午)에 이를 것이요, 그 안에는 끝내 큰 병이 없을 것이니 근심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했다. 경오(庚午)의 운이라면 곧 76세이다. 또 돈을 던져 점치기를 했더니 말하기를, "귀신과 뱀이 함께 움직이니 크게 길하고 흉한 것은 없는 조짐이다. 하물며 자손이 복덕(福德)의 신(神)이 되어 또 움직이니, 전혀이는 공연히 놀라는 상이라, 끝내 길하고 흉한 것이 없으니 전혀 근심하지 말라. 오는 신유일(辛酉日)이면 반드시 평복(平復)될 것이다"했다. 신유일이라면 오는 25일이니 마땅히 후일을 기다려 시험해 볼 일이다.

23일. 집사람의 증세는 아침에는 덜한 것 같으나 두통은 여전하고 음식을 전혀 폐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아침에 보령에 사는 이성헌(李成獻)이 와서 보았다. 그는 곧 윤함의 처족으로서, 윤함이 여기 왔는가 생각했기 때문에 마침 고을 안 종의 집에 왔다가 찾아온 것이라 한다. 그는 집사람이 편치 않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어제 노루 1마리를 잡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만일 사람을 보내면 고기 1덩이를 보낼 것이니, 병중에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다. 이에 즉시 계집종을 딸려 보냈더니 노루의 태(胎)를 베어 보냈으니 몹시 감사하다. 병인이노루고기를 얻어 왔다는 말을 듣고 먹고 싶어 하므로 즉시 죽을 끓여서 먹였더니 10여 점을 먹다가 가슴에 걸리고 내려가지 않아서 토하고자 해도 토해지지 않아,이 때문에 기운이 몹시 괴롭고, 두통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오후에는 두통이 좀 덜해서 눈을 뜨고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러나 가슴이 답답해서 비록 조그만 음식이라도 모두 얹히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 덕노는 지

금까지 오지 않으니 괴상한 일이다.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전일 매다 만 논을 매게 했다.

24일. 집사람의 두통 증세는 아주 덜하다. 다만 어젯밤에 가슴에 얹힌 것을 3. 4 차나 토했으나 아직도 아주 쾌하지 않아 계속해서 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 니, 이는 필시 위(胃)가 몹시 나빠져서 먹은 물건이 위에서 편안치 못하고 문득 거 슬러 올라와 토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만일 양위(養胃)의 약을 얻으면 좋아질 것 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두 먼 곳에 있고, 가까운 곳에는 물어볼 의원이 없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어제 조 좌수 응립 및 유수(柳洙)가 와 보고 돌아갔다. 그편 에 들으니 조백익이 딸을 잃고 또 그 삼촌 조은 씨의 복제를 당했다고 하니 놀랍 고 슬프다. 조은 씨는 전일 조군빙의 집에서 술자리를 얻었을 때 상좌에 앉아서 음 식을 보통 때와 같이 들고 별로 편안치 않은 증세가 없었는데, 겨우 수 3일이 지나 서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사람의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더욱 슬픈 일이다. 늦은 후에 진사 겸(謙)과 홍 생원 사고가 와서 보았는데, 마침 이복령이 먼저 와서 바야흐로 바둑을 두고 있는데, 홍(洪)이 우리 형제 및 복령을 청해서 같이 성민복 의 정자로 갔더니, 같이 참석한 자는 권 생원 학·조대림·태수의 아들 박천기(朴 天機) · 지 별감(池別監) · 이광춘 · 조인남 · 조응개 및 상인(常人) · 짐꾼이 술과 실 과를 바친다. 또 단옷날로 약속하고 성민복의 집에서 먼저 술과 안주를 내고, 홍 (洪) · 이(李)도 또한 술 1항아리와 안주 1행담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종일 활을 쏘 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고 각각 헤어졌다. 나는 복령과 종일 나무 밑에서 바둑 을 두다가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해서 집에 돌아와 다 토한 뒤에 잤다. 또 오늘 두 계 집종을 시켜 송전 논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함열 딸이 사람을 보내서 제 어머니 병을 문안하고, 또 생조기 2마리와 전어 1마리를 보냈다.

25일. 집사람의 증세는 점점 소복되어 비로소 흰죽을 먹는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증세는 아직도 아주 없어지지 않으니 걱정이다. 전일 함열에서 사람을 빌려다가 생원에게 보내려 하여 그 사람이 오늘 왔으나 집사람이 날마다 점점 소복되어 가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또 네 사람을 시켜 어제 매다 남은 논을 매게 했는데, 그논을 다 매고난 뒤에 아래 논을 매게 했으나 다 매지 못했다. 저녁에 덕노가 소금

을 사 가지고 비로소 돌아와서 말하기를. "가까운 곳에는 소금이 없어서 안면도(安 眠島)에 들어가 쌀을 가지고 바꿔 왔는데, 6두의 쌀로 소금 25두를 바꿔 왔다"고 한다. 결성에 두었던 거친 벼 1석을 찧어서 그 쌀로 소금을 바꿨고. 그 나머지 왕 래에 쓰는 양식으로 쌀 8두 5승, 마태 1두 6승, 팥 1두 5승, 녹두 1두는 가지고 왔 다. 이에 소금 24두를 도로 덕노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포목을 바꾸게 했다. 변중 진(邊仲珍)의 둘째 아들 언황이 찾아왔는데, 보니 가련하다. 중진은 곧 나와 동갑 으로서 소년 시절 친구요. 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만나던 터인데, 난리 전에 병으로 먼저 죽어서 항상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터에, 이제 그 아들을 보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더욱 가슴속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언황(彥 璜)의 아명(兒名)은 중신(中伸)으로서 인아의 친구이다. 지금 직산(稷山) 농촌에 사 는데, 그 형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한다. 점심을 대접해 보냈다. 언황이 들으니 그 친가의 종 수두지가 살아 있어 지금 직산 모곶리(茅串里)에 그 아버지의 종 종해가 사는 집에 있는데, 그 아내가 낳은 계집종 단춘은 아내가 11, 12세쯤 되 었다고 한다. 수두지는 비록 소경이지만 세 번이나 아내를 바꾸다가 지금은 무당 을 얻어서 살고 있고, 그 딸 단춘은 첫 아내가 낳은 것이라 한다. 언황의 집이 그 이웃이어서 자세히 아는 것이다. 그전에 송노(宋奴)가 와서 말하기를. "수두지는 일시에 그 어미와 함께 병으로 죽었으며, 또한 자식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들으 니 그 어미도 역시 살았다고 하니. 더욱 몹시 송노가 괘씸스럽다.

26일. 아침에 덕노를 함열에 보내서 제수를 얻어 오게 했다. 함열 관아의 종 복환이 어제저녁에 왔기에 생원(오윤함)에게 보내서 그 어머니의 병을 기별하려 했더니 마침 어제부터 나아 가고, 오늘은 더욱 차도가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고 돌려보냈다. 눌은비를 시켜 이 별좌 덕후의 집에 보내서 볍씨 3두를 얻어 왔다. 씨를 뿌렸다가 싹이 드문 곳을 때울 생각이다. 별좌는 또 생치 반 마리를 보내서 병으로 있는 아내를 주라고 한다. 함열의 관인이 자방(신응구)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집사람의 병을 묻고, 또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5첩을 보내서 먹게 하고, 생 망어 1마리도 또한 보냈으므로 즉시 국을 끓여 저녁에 아우와 함께 먹었다. 김 봉사 경(職)이 편지를 보내기를, "혼인을 이미 정했으니 어길 수 없다"고 하고, 새달 6일과 12

월 16일로 택일해 보냈다. 그러나 집사람의 증세가 그 안에는 필경 아주 낫지 못할 것이니, 모든 일을 반드시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장을 써 보냈다. 제사를 지낸 후에 내가 친히 가서 의논해 결정할 계획이다.

27일. 덕노가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제수로 백미 1두·찹쌀 3되·목미 3두·황각 (黃角) 1두·미역 5동·김 2첩·감태(甘笞) 3묶음·참기름 5홉·생위어 1두름을 보냈다. 허찬이 영암에서 역시 왔는데, 임매(林妹)는 학질을 앓다가 지금은 소복되었다 하니 기쁘다. 쌀 1두, 건숭어 1마리를 어머님께 보내왔다. 평강에서 사람이 요새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다.

28일. 최심원(崔深源)의 아들 정해(挺海)가 내일 아내를 데리고 영암으로 돌아간다고 이른 아침에 사람을 시켜 와서 고하므로 즉시 편지를 써서 임매에게 전하도록했다. 내일 제수(祭需)는 두 딸로 하여금 계집중들을 데리고 친히 마련하도록 했다. 마침 집사람은 병으로 누웠고, 언명의 처도 역시 그 아버지 상사를 당해서 아직 성복(成服)도 하기 전인 때문이다. 지난달 초승에 평강에 편지를 보내어 이번 제사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마련해 보내라고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무슨까닭인지 모르겠다. 장수(長水) 이자미(李子美)(이빈)의 부인이 네 아들을 데리고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여기에 들러서 집사람이 병중인데 불의에 만나니 슬프고 기쁜 마음을 어찌 다 말하랴. 수원의 경여(敬興) 부인이 살고 있는 농촌에 가 있다가가을을 기다려 자미를 이장(移葬)하려 한다고 한다. 시윤(時尹)의 처자는 먼저 그아버지가 있는 서촌으로 가서 내일 올라갈 때 와서 본다고 한다.

29일. 새벽에 아우 및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자미의 처자는 그대로 여기에 머무르고, 중자(仲子) 선윤(善胤)은 함열로 양식과 반찬을 구하러 갔다. 덕노는 포목 바꿀 일로 산현(山縣)으로 떠났다. 늦은 후에 최인복을 불러 술 5그릇을 대접해보냈다. 평강에서 사람이 지금 비로소 와서 말하기를, "서울까지 와서 말이 병이나서 오지 못하고, 부득이 말을 버리고 두 사람이 지고 왔다"고 한다. 제물은 목미5두 · 적두 5두 · 잣 1두 · 개암 1두 · 석의 11두 · 참버섯 1두 · 건치 10마리 · 노루포 10조각 · 마른 여항어 10마리 · 녹두가루 2되 · 꿀 3되 · 생치 식혜 4마리 · 여항어식혜 5마리 · 소주 2병 · 배 20개이다. 다만 적두는 짐이 무거워서 지고 올 수가 없

어서 쌀로 바꿨는데, 곧 쌀이 2두 8되인데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몹시 한스럽다. 참버섯도 또한 4, 5되밖에 되지 않는다. 거친 포목 2필도 또한 보냈는데, 여름옷을 만들게 해서 계집종에게 줄 작정이다. 만일 일찍 왔던들 덕노를 산현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즉시 답장을 써 주어 평강 사람을 돌려보냈다. 또 이 도의 순찰사가 이 군(郡)에 온다고 한다. 장수 식구들은 그대로 머무르게 했다.

그믐날. 장수 식구들은 역시 머물렀다. 네 사람을 시켜 전일에 못다 맨 논을 매게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아침 늦은 후에 언명과 함께 논 맨 곳에 가 보고 여러 논을 둘러보았더니, 모두 모는 드물고 물이 말랐다. 장차 보충해 심고자 해도 모가 자라지 않으니, 그때가 늦을지 걱정이다. 또 이른 아침에 언명이 순찰사를 들어가 보았더니, 순찰사는 첩지를 써서 홍산 감영(監營)에 저축되어 있는 쌀 5두를 주고, 서산(瑞山)의 어전 1수(水)와 소금 1석을 내주도록 관문(關文)을 써 주었다. 또 송노를 잡아 다스릴 일로 직산(稷山) 관청에 공문을 또한 써 주고, 허찬을 의논해 보낼 일도 또한 만나서 부탁했으니, 법에 의해서 죄줄 것을 홍산 관청으로 하여금 비밀히 잡아 가두도록 첩보(牒報)했다. 이리하여 바라던 일이 모두 이루어졌으니 기쁘다. 순찰의는 이정엄(李廷麓)으로, 서울 있을 때 언명이 스승으로 섬겼기 때문에 전일 호남의 방백(方伯)으로 있을 때도 역시 주선해서 준 것이 많았다. 오후에 시윤(時尹)이 처자를 거느리고 그 장인 집으로부터 옮겨 왔다. 저녁에 그 장인이 역시 그 딸을 와서 보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잤다. 선윤(善胤)이 함열로부터 돌아왔는데, 자방이 쌀 2두ㆍ콩 1두ㆍ뱅어젓 5되를 보냈는데, 그 적은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 5월

1일. 장수 식구들은 그대로 머물렀다. 두 계집종을 시켜서 풀을 매게 했다. 언명이 허찬을 데리고 홍산으로 가다가 중로에서 들으니 태수가 연명신사(延命新使)로 이 미 한산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므로 즉시 돌아왔다. 오후에 함열에서 사 람과 말을 보내서 나를 청해 왔기로 곧 남당을 급히 건너가 함열에 다다랐다. 먼저 자방을 새로 꾸민 방에서 만나 보고 안에 들어가서 딸을 만났다. 어두워지면서 김 백온이 내려왔기로 같이 혼사를 상의하였는데 기일이 촉박하므로 곧 물러가서 29일로 혼례를 행하는 것이 무방하겠다고 말한다. 소상히 들리는 바로는 처녀가 현철(賢哲)하고 꼭 성혼(成婚) 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나 비록 혼수는 극진히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소한 일조차 처리할 방도가 없이 궁핍하니 답답하다.

2일. 아침 뒤에 대흥(신괄)이 와서 자방과 같이 앉아 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 후에 김백온이 또 왔기에 노어회(蘆魚膾)를 장만하여 술상을 차렸는데 이생원 근성(謹城)이 뒤따라오니 서로 술잔이 오가다 저녁나절에는 다 취해서 헤어졌다. 나는 취해 누웠다가 밤이 깊어 가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주어 동헌으로 돌아왔으나 먹은 것을 토해 내고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3일. 식전에 김백온을 보러 갔더니 마침 이근성이 당도하여 서로 혼사를 의논하였다. 백온이 술을 내와 각자 큰 잔으로 3잔씩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신대흥 집에 들러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서 관아로 돌아왔다. 기력이 고달파 종일토록 누워서 졸다 일어났다 하는데 마침 박장원(朴長元)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어제 임천에 보냈던 사람이 포목을 가지고 왔다. 오늘 장날에 언수를 시켜 포목을 팔아 쌀 15두와 바꾸어 양씨가(梁氏家)에 맡겨 두었다가 후일에 청모시로 바꾸어 사서 혼수로 써야겠다. 포목이 매우 추하고 길이가 짧은데도 쌀 15두와 바꿀수 있었으니 포목 시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제 뱅어젓 1두를 구해서 임천에 보냈는데 순채 1병을 딸이 또 구해서 같이 보냈다. 장수 식구들은 어제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한다.

4일. 아침 식사 후에 군마를 빌려 타고 웅포에 도착했다. 홍요보(洪堯輔) 집에 들러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반을 대접받고 나룻가에 도착하니 마침 조수가나가 버려 배를 못 탔다. 해안(海岸)에서 조금 쉬었다가 저녁 밀물을 기다려서 배를 띄워 조수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별좌 덕후 집 앞에서 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다가 문중(文仲)(이덕후)을 만났다. 그때 마침 소즐이 왔다. 좌석 위편에는 문중의 아우 덕수(德秀)와 그의 조카 윤웅상(尹應商)이 자리하였다. 서로 격조했던 회포를 펴매 문중이 먼저 이화주(梨花酒)를 내서 마신 다음 청주를 마시고 저녁 대접도 받았다. 바다 어귀 쪽을 바라보니 고깃배가 돛을 올리고 밀물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다. 문중이 고깃배를 붙잡아 진어(真魚)를 구해서 싣고 돌아왔다. 나에게 생선 3마리와 염장어(鹽藏魚) 2마리를 주었다. 하인들이 와서 달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모두 3마리씩을 나누어 주고 보냈다. 소즐도 자기 몫으로 내게 준 만큼 챙겼다. 내가 올 때 자방이 순채 1병과 미선 1자루를 문중에게 보냈다. 저녁때 즐과 같이 돌아오는 도중에 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집에 돌아오니 해는 이미 어두워졌다. 자방이 또 나에게 미선(尾扇) 2자루와 흰 가죽신(白鞋) 1켤레를 주었고 인아의 혼인에 쓸 채단(宋織) 구하기가 어려운데 자방이 청단(靑緞) 3승 1필을 먼저 주면서 홍단(紅緞)은 추후에 구해 보내겠다고 한다. 참으로 기쁘고 기쁘다. 신부 댁에 채단 보내는 날은 16일로 정했다. 집에 돌아와서 언명에게서 들으니 그의 처남과 같이 그저께 태인에 갔었다고 한다.

5일. 단오절(端午節)이다. 사당에서 차례를 올렸다. 아침 후에 이복령이 와서 바둑을 같이 두고 송편을 대접했다. 오후에는 성민복이 사람을 시켜 나를 청해서 복령과 같이 송정(松亭) 밑으로 걸어갔다. 전날 여럿이 모이기로 약속했었는데 모두 일이 생겨 다 오지는 못하고 다만 조 판관 대림 부자(父子)와 성민복·이광춘·조웅개·성민복의 사촌 동생과 나를 합쳐 6, 7인인데 권 생원 학이 뒤이어 왔다. 서로술과 안주를 권하니 크게 취해서 나는 먼저 돌아왔으나 모두들 밤늦게야 끝났다. 활을 쏘았다. 집사람이 요새 기운이 떨어져 아픈 데가 없으면서도 몹시 고달퍼서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둘째 딸이 지난 그믐날부터 저의 어머니 증상과 같이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여러 날 누워 지쳐 버려서 잠만 자니 더욱 답답하고 걱정이다. 두 계집중은 오늘부터 동네 두레 풀매기에 내보냈다.

6일. 정산현감(김장생)이 평강 종 소질지에게 편지와 솥을 고쳐서 보내왔다. 그런데 솥뚜껑이 없고 너무 두꺼운 데다 용량이 적어 겨우 네다섯 되밖에는 밥을 지을수 없으니 우리 집과 같이 식구 많은 집에는 소용이 닿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또 들리는 바로는 정산현감의 임기가 만료되어 벼슬을 마치고 연산 농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오후에는 동남풍이 크게 불어닥쳐 저녁때까지 비가 내리더니밤늦도록 그치지 않아 처마 물소리가 시끄럽다. 오랜 가뭄 끝에 오는 이번 한바탕비로 보리와 밀이 거의 소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다. 그러나 논물은 아직

도 흡족하지 못하니 유감이다.

7일. 조 판관 대림이 왔다가 돌아갔다. 저녁에 조의·조응립이 서당에 와서 종을 내게 보내 청해 왔기로 종과 같이 걸어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조했던 회포 를 풀었다. 마침 조응개가 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들 마시고 잤다.

8일. 아침 전에 조응립의 말을 빌려 타고 집에 돌아왔다. 말더듬이 계집종이 풀을 매다 말고 머리가 아프다고 늦은 아침에 되돌아왔으니 후일 물건으로 품삯을 주고한 사람 몫은 꼭 감해야겠다. 유감이다.

9일. 말더듬이 계집종이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므로 딴 사람을 풀매는 곳에 보냈다. 허찬이 함열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어제 나루터에 도착하니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고 해가 저물어 나룻배 사공 집에서 자고 지금 무수포로 돌아 건너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침저녁도 먹지 못하였다니 딱한 일이다. 8승(升) 모시 40자와쌀 22두를 서로 바꾸었는데 전날 맡겼던 쌀이 부족해서 태수가 5두를 보태 주어사게 된 것이다. 함열 딸이 흰떡 1상자ㆍ청주 1단지(壺)ㆍ염진어 2마리를 전인해서져서 보냈다. 이는 자방의 뜻이다. 저녁 식사를 하인들과 같이하느라고 좀 미흡하게 됐다. 남 생원 근신이 왔기로 떡과 술을 대접하여 보냈다. 남 공은 태수의 매부(妹夫)이고 서울에 있을 때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찾아온 것이다. 또 이광춘을 초대해서 술과 떡을 대접했다.

10일. 조 좌수 응립이 관청 논의 풀매기 감독 차 이광춘 사랑에 와 있으면서 사람을 시켜 나를 청했기에 바로 나아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 훈도 의ㆍ신 별감 몽겸도 또한 왔다. 오후에는 김 봉사 경ㆍ이 생원 근성 등이 함열에서 올라와 찾았다. 집에 마침 술이 있어 같이들 마시다가 취기가 돌 만하자 떠나갔는데 수반도 대접해서 보냈다. 또 김ㆍ이 두 사람이 돌아가는 편을 따라 조 좌수 말을 빌려 타고이 진사 중영을 찾아갔으나 마침 밖에 나가 집에 없었다. 돌아올 때 이 생원 유립을 방문하여 그 집 뒤에 있는 괴목(槐木)(회화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이 진사 만아들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웃에 사는 전문(田文)이 왔다. 유 씨가 나에게 이화주를 마시게 해서 저녁나절에야 집에 돌아왔다.

11일. 관청 논 풀매기가 어제 끝나지를 않아서 조 좌수가 이광춘 사랑에 또 왔으니

곧 나아가 만나 보고 돌아왔다.

12일. 품삯 일꾼 25인을 얻어서 4군데 논의 풀을 맸는데 저녁 전에 끝이 났다. 이 것이 모두 15마지기이다. 막걸리 1동이 · 명태전 1소반을 다섯 차례가 넘게 일꾼들에게 먹였다. 그러나 두 군데 논은 물이 말라서 모가 드문 것이 유감이다. 오후에는 풀매고 있는 곳을 돌아보고 왔다. 허리에 찼던 장도를 잃어버렸다.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칼은 매우 품질이 좋아서 오랫동안 차고 애용했는데 이번에 잃어버리고 보니 물건의 득실도 또한 운수인가 보다. 집안에 쓸 만한 칼이 없으니 참으로 아깝다.

13일. 오늘은 허찬 어머니의 대상날인데 찬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말하기가 어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온 집안이 모르고 있다가 저녁때에야 비로소 사실을 듣고 밥과 국만을 장만해서 찬으로 하여금 제사를 올려 곡하게 하였다. 애처롭기 그지없다. 누에가 아침부터 익어 가기 시작하여 섶에 오르고 있는데 뽕잎을 구하기 어려워 하루에 네다섯 번밖에 먹이지 못하고 있다. 계집종 향이 매일 뽕을 따고 있으나 따오는 양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 언명(오희철)이 이달 초순에 장인상을 당해서 태인에 갔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돌아왔다.

14일. 누에가 다 올랐다. 정산에 살고 있는 평강 계집종 남편인 유량이 찾아와서 정산현감 정천경(鄭天卿)이 우리 집에서 후처 얻어 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로 술과 밥을 먹여 보냈다. 혼사 이야기는 시일을 두고 후일에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생원 윤해가 저의 어머니 편찮은 소식을 듣고 또 저의 아우 혼삿날에 맞추어 광주에서 달려왔다. 만나 보지 못한 지가 반년이 됐는데 오늘 갑자기 상면하니 온 집안이 기뻐서 말을 못한다. 들으니 충아가 시(詩) 삼장(三章)을 암송하고 또 〈사미인곡(思美人曲)〉 사설(辭說)을 노래하며 육갑(六甲)을 모두 기억하여 모든 문자를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남다른 총명한 재능이 있다 한다. 저의 외조부 최경수(崔景綏)(최형록)가 나에게 보낸 편지에 이 아이의 남달리 뛰어난 재주를 깊이 축하는 글을 보니 더욱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만날 수가 없으니 다만 스스로 기뻐하며 위안하는 도리밖에 없다. 또 생원이 가지고 온 남씨가(南氏家) 누이동생 편지를 보니 요즘 모두 무고들 하다고 하니 더욱 기쁘다. 덕노가 오늘 비로소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돌아왔는데 포목 값은 산골이 더 비싸서 사 오지 못하고 쌀 9두 5승·곶감(乾柿) 10접·베적삼(布衫) 1벌을 사 가지고 왔다. 베적삼과 곶감 2접을 덕노에게 도로 주었다. 여름옷으로 입게 하려 함이다. 또 함열에서 정례(定例)로 보내 주는 쌀 18두와 먼저 맡겨 둔 염망어 2마리를 찾아 싣고 왔다.

15일. 증조 제삿날이다. 국수와 떡 · 밥 · 국만을 갖추어 올렸다. 나는 마침 작은 종 기가 여러 군데 생겨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언명과 인아를 시켜 제사를 올리도록 했다. 방 생원 수간이 와서 오래도록 이야기하다 저녁나절에 돌아갔다.

16일. 덕노를 시켜서 곶감 5접을 가지고 함열 웅포에 가서 미역과 바꾸어 오도록했다. 듣건대 제주도에서 온 장삿배가 웅포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감 1접에 미역 30동과 맞바꾼다는 것이다. 어제 이 별좌 덕후가 전인해서 생진어 4마리를 보내왔는데 저녁에 탕(湯)을 끓여 처자와 같이 먹었다. 후의가 참으로 고맙다.

17일. 허찬이 이광춘 사랑에서 화살을 만들고 있기에 언명과 같이 가서 보고 돌아왔다. 종일 비는 뿌렸는데 큰비가 오지 않으니 오래 말랐던 논은 아직 풀만 자랄뿐이다. 정산에서 온 이진춘이 마침 이곳 군청에 왔다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정산 혼사는 나이가 맞지를 않아 사양한다고 한다. 소주 3잔을 대접해서 보냈다. 진춘은 이회춘의 동생으로 서울에서 서로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내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일 것이다. 정산현감이 청탁한 혼사의 말을 전해 온 것이다. 저녁에 곡성현감 정순복이 임기 만료로 서울에 올라가는 역로에 이웃집에서 쉬게 되었다. 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의동에서 살았을 때 그 이름을 들은 지가 오래이다. 사람을 시켜 말구유통을 빌려갔기로 나도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그가 묵는 곳에 나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왔다. 권생원 학도 또한 곡성현감을 와서 보고 내게도 들렀다가 격조했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다 보니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18일.** 식후에 언명 그리고 두 아들과 더불어 이광춘의 사랑에서 허찬이 화살 만드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오후에는 가랑비가 자욱하게 저녁때까지 내렸다. 누에고 치름 15두 땄다.

**19일.** 하루 종일 언명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한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덕노가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20일. 오늘은 죽전 작은 어머니 제삿날이다. 국수와 떡 그리고 밥과 국만을 준비해서 밝을 녘에 인아를 시켜 행사토록 했다. 늦게 덕노가 왔는데 미역을 큰 것으로 25동 들여왔다. 먼저 이야기로는 30동을 바꾸어 온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5동을 또 줄여 산 것이, 틀림없이 속이고 있는 것이다. 괘씸하다. 정례적으로 보내오는쌀 8두ㆍ제수용 찹쌀 3승ㆍ목미 3승ㆍ미역 5동ㆍ황각 1두ㆍ벼 12두는 딸이 보내왔고 진어 5마리ㆍ순채 1병과 양산에서 보낸 건전어 2마리를 갖고 왔다. 진어 1마리ㆍ미역 1동ㆍ전어 1척을 곧 언명 집으로 보냈다. 늦게 관청으로 들어가서 태수(박진국)를 만났다. 마침 이 별좌 덕후도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을에 상환할 환상곡 대여를 요청하고 명단을 바쳤다. 정품 4석의 지령으로 좌수가 출고하는데 내가 창고에 가서 직접 받아 냈다. 먼저 덕노를 시켜서 실어 오도록 하고 나도 같이 따라서 집에 돌아왔다. 곧 말을 되어 보니 모두 17두이다. 2석은 곧 언명이 쓰도록 지급했다. 저녁에는 언명 및 두 아들과 같이 성민복 집으로 걸어가서 위로를 했다. 성(成)은 어제 본군의 존몰감관으로서 순찰어사로부터 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골에 사는 양반이 매양 뜻밖에 봉욕을 당하니 가탄할 일이다.

21일. 이른 아침 내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허리춤칼(패도(佩刀))을 길가에서 주웠 노라고 이광춘이 갖고 왔다. 영영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얻었으니 기쁜 마음 형용할 수가 없다. 만일에 딴 사람이 주웠으면 결코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미역 2동을 바로 보내고 감사한 뜻을 표했다. 또 덕노를 시켜서 안손네의 2마리 말로 성민복 선산에 있는 마른 나무를 베어 두 번 싣고 오게 했다. 그리고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길가의 가을보리를 보게 했는데 늦게 언명 및 두 아들과 더불어 걸어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았다. 함열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와 생원(오윤해)을 청해 와서 곧 떠났다. 또 들으니 홍 생원 사고가 권평지에 와서 낚시를 한다기에 나아가 구경하는데 마침 이복령과 조대림이 또한 오게 되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령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바둑을 두다가 보냈다.

22일. 아침 전에 이 진사 중영에게 편지를 보내서 납채에 쓸 함과 금띠를 빌려 왔다. 아침을 먹고 이 별좌 덕후 집을 가 보니 별좌는 마침 가을보리 타작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하여 집 뒤 괴목 나무 밑 길가에 자리 잡고 있기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

었다. 이화주를 먼저 마시다가 수반을 먹고 보리 두들기는 것을 보니 15명이 넘는 일꾼들이 좌우로 줄을 지어 동시에 두들기며 지르는 소리가 땅을 흔들었고 보리는 마당에 가득했다. 어제 수확한 것이 45석이라며 오늘도 그만큼 될 것이라 한다. 웅장하다고 할 만하다. 인아가 혼인 때 입을 옷을 빌려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해는 저물었다. 그러나 빌려 온 옷이 모두 짧고 좁아서 입을 수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 고 답답한 노릇이다. 집에 돌아올 때 별좌가 콩 3두를 주었다. 고마운 뜻에 감사한 다. 그런데 오늘은 장인의 기제 날인데 잊어버리고 고기반찬을 잘못 먹었으니 우 습고 우습다. 또 저녁때 생원의 종 안손이 함열에서 왔는데 생원이 왜적의 동태를 알리는 현지 내용에는 이달 7일에 일본 배 1척이 일본에서 곧 부산으로 온 연유인 즉 평행장(平行長)에게 관백(豐臣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이 보낸 서신에 말하기 를, "명나라가 우리를 매우 의심하고 있으니 청정(加藤淸正, 가토 기요마사)을 우 선 철군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0일에는 청정(淸正)의 철군 배가 떠나면 부 장 3인이 성을 맡게 되고 집은 파괴하여 불을 지른 후에 돌아갈 것이며 행장은 명 나라 사신(양방형)을 따라 일본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이다. 또 김해에서 왜적과 가 까이 지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죽도로 내려가는 것을 듣고 본 바로는 왜적들 은 15일까지는 남김없이 철수하고 물건은 반이나 배에 실었으며 타고 다니던 말 은 내놓고 팔기 위해서 부산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헛소문 이 아닐 것이고 이 나라의 경사가 아니겠는가.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도적의 꾀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안전한 보전책은 없을지? 또 들리는 바로는 왜적 진영 안에는 우리나라 남녀가 잡혀가 있고 행장이 명령하면 당장 빚을 모두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책을 펴 놓고 있으며 벼 종자를 갖다 쓴 사람은 포목으로 거둬들인다고 한다. 길 가 밭에서 거둔 보리 수확이 16두이니 가소롭다.

23일. 꼭두새벽에 안손이 광주 집으로 돌아갔으나 생원은 인아 혼사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종을 먼저 보낸 것은 밀과 보리 수확을 하기 위해서이다. 또 두 계집 종을 시켜서 보리를 베게 했다. 내일 타작해서 수확할 계획이었으나 반밖에 베지 못하였다. 늦게 허찬을 함열에 보내서 자방(신응구)의 검은 관복을 인아 혼인 때입히기 위해서 빌려 오게 했다. 저녁에 영암으로 출가한 임씨가(林氏家) 누이동생

집 종이 들어왔다. 들으니 누이동생이 매일 학질을 앓느라고 음식을 전폐하고 있 단다. 걱정을 금할 수가 없다. 경흠이 미선 1자루를, 그리고 누이동생은 건민어 1 마리·수어란 1손을 보냈는데 어머님께도 똑같이 보낸 데다가 백미 3두를 더해서 드렸다. 내일이 어머님 생신이라 떡을 만들게 하여 어머님께 올렸다.

24일. 두 계집종은 보리를 베게 하고 3인은 타작을 시켰는데 소출이 집 앞밭에서 38두이고 최연의 밭에는 17두였다. 최연이 타작하는 것을 와서 보았다. 또 아침후에 조군빙과 백익을 가서 만났는데 마침 유수도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빙이 나에게 수반을 대접하여 해 저물어서야 돌아오다가 조백공을 심방하여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공이 이화주를 나에게 대접했다. 저녁에 생원과 허찬이 함열에서 왔다.

25일. 아침부터 큰비가 내린다. 저녁 내내 밤새도록 그치지 않으니 가뭄 끝에 만나는 단비이다. 삼농(三農)(平地農・山農・澤農)의 희망이 흡족하니 기쁘다. 또 오늘은 어머님의 환갑이어서 흰떡・차와 면・어탕・포와 식혜를 만들어 먼저 사당 신주전에 바치고 인아 혼사에 대한 경위를 고유한 뒤에 어머님께 올리고 상하 식구들이 같이 먹었다. 그런데 단아가 왼쪽 목덜미 귀 밑에 어린이 주먹만큼 부어서 이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서 신음하니 답답하고 걱정이다. 오후에는 함열 딸이 흰 떡 1상자・청주 1항아리・연한 순채 1항아리・강물고기 1마리를 전인해서 짊어 보냈다. 어머님 생신에 올리기 위해서이다. 내일은 집사람하고 함열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비가 이와 같이 쏟아지면 같이 가기는 어렵겠다.

26일. 비가 비로소 갰다. 구름이 덮었다가도 양지가 나고 때로는 비도 내리는 날씨다. 늦게 집사람은 이복령과 성민복 말을 빌려 타고 두 아들을 대동하여 함열로 떠났다. 함열에서 어제 미리 보낸 2척의 배가 남당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배에 타면 곧 웅포로 내려가서 가마를 타고 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단아는 목덜미에 부기가 있어서 데리고 가지 못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써 주니 눈물이 나올뿐이다. 딱하고 딱하다. 아침 전에 오이와 가지 모종을 동쪽으로 옮겼다.

27일. 덕노가 돌아왔다. 들어 보니 집사람은 무사하게 함열현에 도착했다고 한다.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복남이 밭보리를 보도록 하여 타작해서 서로 11두씩 나누었

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28일, 어젯밤에 큰비가 쏟아지더니 아침까지 그치지 않는다. 내일 혼사가 매우 걱 정스럽다. 권경명이 내일 사위 맞이를 한다고 한다. 단아 부증이 아직 차도가 없 어 아침에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의원(女醫員)을 불러 보였더니 비로 인해서 습기가 많아 침으로 파종할 수가 없다고 한다. 관청 노복 복지의 배우는 침으로 종 기를 고쳤다. 아침 식사 후에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났는데 퍼붓는 비로 가는 길 에 물이 넘쳤다. 간신히 남당에 도착했으나 배가 없어 건널 수가 없어 이 별좌 덕 후 집에 다다르니 문중 형제가 모두 집에 있다가 나가 정자 위로 맞아 조용히 이야 기를 나누었다. 먼저 벽향주를 마시고 다음에 탄반을 대접받았다. 비바람이 크게 이니 조금도 휴식할 수가 없다. 문중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비바람에 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 이곳에서 자고 내일 새벽에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다. 그러나 내일 혼사에는 가지 않으면 아니 되고 혼서도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 득이 배를 빌려 타고 강을 건넜다. 도강할 때는 풍랑이 조금 가라앉았으나 비는 여 전히 쏟아져 의복은 모두 젖어 버렸다. 배는 더욱 흔들거리고 정신은 두렵고 두근 거려 간신히 강을 건너서 함열현으로 급히 당도했다. 자방과 김백온이 신방에 모 여 앉아 나오기를 기다리며 오래도록 이야기들을 하다가 백온이 먼저 일어나자 나 도 또한 관아에 들어가서 딸을 만났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로 신방으로 나와 생 원을 시켜 혼서지를 마르고 쓰게 했다. 저물어서 인아와 같이 나와 상동헌에서 잠 을 잤다. 현의 관속이 공무로 전주에 갔다가 와서 보고하기를 중국 명나라의 사신 부천사(副天使)(양방형)가 상사가 되고 심 유격(심유경)이 부사가 되었다는 통지문 이 영남을 지났다고 말한다.

29일. 새벽에 채단을 보내는데 양산이 함을 지고 갔다. 아침에도 바람은 더하고 비가 내리니 오늘도 비는 개지 않을 것 같다. 답답하다. 검은 비단은 이미 자방이 준비하여 주었으나 붉은 색이 비 때문에 습기가 많아 물이 안 드니 겨우 색깔이 나타날 뿐이다. 저희들 일이나 내 일이나 모두 자방이 처리하고 준비하여 준다. 어젯밤생원과 자방이 신방에서 같이 자다가 오른쪽 손을 지네한테 물렸다. 중상에 이르지는 않고 좀 붓는 것으로 그쳤다. 즉시 때려죽이라고 했다. 늦게 큰비가 쏟아지더

니 오후에는 비로소 개긴 했으나 안개 자욱한 날씨이니 개지 않는다. 점심 후에 자방과 같이 상객(上客)이 되어 인아(오윤성)를 거느리고 김 봉사(김경)의 집에 장가를 들이러 갔다. 모두 비옷을 입었고 신랑도 우비를 착용했으니 유감이다. 새 종은 피차 딸리지 않기로 했다. 그 집 친족 대표로는 신대흥 · 민 주부인데 관에서 제공한 과실로 행사를 치르고 술잔을 부어 돌림으로서 행례를 끝냈다. 생원도 뒤따라들어와서 행사에 참여했다. 또 집사람은 옥춘 모녀로 하여금 신부를 보러 가게 했으나 봉사가 거절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창틈으로 바라보니 멀어서 자세히 분별할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죽전 숙부님 기제일이어서 후행을 가지 않으려고했으나 김백온의 강요로 마지못해 참석을 했다. 밤에는 생원과 같이 나와서 상동한에서 잤다.

그믐날. 느지막이 김 봉사 집에서 찬을 갖추어서 소주 1항아리·수단 1동이·절편 1상자·약과 1상자·건어 1소반·앵두 1소반·영계 3마리·관비주와 국수를 받쳐 보내왔다. 이고 온 사람들에게 쌀 3두를 주어 나누어 쓰도록 했다. 오후에 신부가 왔기로 나는 자방 및 생원과 같이 들어가서 보고 나온 뒤에 잔칫상이 벌어졌는데 참석한 사람은 다만 집식구와 김 서방댁 그리고 자방의 두 소실뿐이었다. 김백온 부인을 간절히 청했으나 오지 않았다. 자방이 백온을 청해서 신방에다 다시 술상을 차려서 각각 술잔을 돌리고 파했다. 저녁에 신부는 옮겨 갔다. 모든 일이 잘준비되어 난리 속의 사람 같지가 않은 것은 김 봉사의 힘이라고 할 것이다. 신부의행동을 보건대 결코 어리석고 용렬하지 않은 것 같아 기쁘다. 마침 비가 잠시 들어서 신부가 왕래하는데 우비를 갖추지 않았다. 거느리고 온 계집종들에게 집사람이 또 쌀 3두를 주어 나누어 쓰도록 했다.

## 6월

1일. 오후에 신괄의 집에 가서 자식의 안부를 물었다. 대흥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름철 술을 큰 잔으로 1잔 마셨다. 곧 김백온을 만나 보고 신부도 나와서 절을 했다. 백온의 집에는 마침 술이 없었고 메밀국수를 대접받고 저녁때 돌아왔다. 관아에 들어가서 자방과 같이 식사를 하고 밖에는 생원과 같이 동헌에 나아가

잠을 잤다. 임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비가 그치지 않아 강물이 넘쳐서 건너가 기가 매우 어려워서 머물고 있다.

2일. 아침 뒤에 신대홍과 김 봉사가 찾아왔다. 같이 동헌에 올라가서 자방 · 신 · 김 그리고 두 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 후에 출발해서 웅포에 도착하여 배에 올라 돛을 올리고 곧장 남당 가에 다다라서 육지로 내려와 집에 도착하니 해는 아직도 저물지 않았다. 떠나올 때에 자방이 갈치 30마리 · 미역 20동 · 소금 2 항아리를 구해 주었고 딸은 또 염장병어 10마리 · 소금에 절인 청어 10마리를 주어서 싣고 돌아왔다. 임경흠의 종이 홍산에서 돌아왔다.

3일. 아침 일찍이 권 생원 학을 찾아가서 신랑을 만났다. 신랑은 김사포의 양손으로서 나의 7촌 조카가 된다. 지난 29일 권씨가의 데릴사위로 온 것이다. 권이 철술(時酒) 1대접을 주어 마셨다. 오는 길에 남 생원 근신과 홍사고를 찾았더니 뒤따라 권학이 남씨가에 왔다. 추로 3잔을 마시고 헤어졌다. 오후에는 평강 문안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왔다. 그 글을 보니 우선 이 사람을 보내고 뒤이어 사람과 말을 보내서 우리 식구 모두를 모셔 가겠다는 말이었다. 이와 같은 더위와 빗속에서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병든 집사람을 거느리면서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일이니 사람과 말만 부질없이 왕래하게 될 것이므로 안타깝다. 그러나 왜적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있다면 더위와 비로 인한 고통을 헤아릴 바가 아니겠으나 요즘 듣건대 왜병이 머지않아 군대를 철수하여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 청정(淸正)은 먼저 출발해서 돌아갔다고 한다. 아직은 이곳에서 더 머물렀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떠나고 머무는 것을 결정할 계획이다. 평강에서 보내 온 마항어 5마리 · 문어 6죽 · 노루포 5조각 · 괘포 2조각이다. 덕노를 시켜서 뒷간을 만들었다. 전날 비바람에 부서져서 나무를 베어 새로 지었다.

4일. 함열 관아 종들이 새 누에고치를 사려고 아침 전에 말 2마리에 쌀을 싣고 들어왔다. 집사람이 보낸 편지를 보니 요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실로 걱정이다. 자방이 보낸 거친 소금 2말을 헤아려 보니 겨우 1말 남짓한 것이 필경 훔쳐 먹은 것이다. 가증스럽다. 함열 관아 종들이 돌아갈 때 평강에서 온 사람도 같이 보냈다. 영암 임경흠의 종이 돌아 내려가는데 편지를 써서 전하게 했다. 또 최연의

밭을 갈고 콩 5승 5합을 그루갈이로 심었다. 저녁에 이통진의 종이 왔기에 밭에서 거둔 보리 소출에서 종자 4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어 보냈다. 오늘 장에 덕노로 하여금 미역을 가지고 나가서 보리와 바꾸게 했다. 미역 20동 보리 10두를 바꾸어 그중에서 2두로 말더듬이 계집종의 도롱이를 샀다.

5일. 집사람을 모시고 오게 하기 위하여 덕노를 함열로 보냈는데 늦게 평강에서 온사람이 도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집사람은 내일 오지 않고 8일경에 나온다는 것이다. 덕노를 보낸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오후에 조 좌수 응립이 이광춘 사랑에와서 사람을 시켜 나를 청해왔다. 내가 곧 나아갔더니 조 별감 광좌도 또한 와 있었다. 두 조씨가 독한 술 1단지를 구해와서 쇠고기 1상자를 요리하여 같이 마셨다. 쇠고기 못 본지가 오래다. 1첩을 구해서 어머님께 보내 올렸다. 언명과 허찬이 뒤따라 들어와서 같이 참석했다.

6일. 평강 사람이 이른 새벽에 돌아가는데 편지를 써서 보냈다. 미선(尾扇) 1자루를 평강에 보내고 또 이곳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남고성(남상문) 누이동생에게도 편지를 써서 전해 주도록 부탁했다. 오늘 그루갈이 밭을 갈려고 했는데 사람과 말을 얻지 못하여 못 하고 말았다.

7일. 연 3일을 풀을 맸다. 통진의 논은 오늘 비로소 끝냈다. 씨앗이 드물게 난 곳은 모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날짜가 일러 일찍 심은 논의 풀매기가 끝나지 않았다. 밤에는 꿈속에서 우계(牛溪)(성혼(成渾))를 보았고 또 잉어 2마리를 얻었다. 우계는 전에 만나 본 일이 없는데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생각건대 평강에서 사람과 말이오는 것이리라. 요즘 집사람이 부재중이라 집안에 주관자가 없으니 모든 일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오후에 함열 관인이 씨앗 콩 5두를 짊어지고 왔다. 자방이 보낸 것이다. 저녁에 덕노가 또 당도했다. 이달 정례적으로 보내 온 벼 2섬과 소주 4선에다 생원이 상경할 때 소용될 양식과 찬 그리고 말이 먹을 콩을 싣고왔다. 들으니 집사람은 요즘 도로 몸이 불편하여 내일 무리해서 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보낸 것이다. 또 들리는 바로는 생원이 하루거리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걱정이다. 집사람은 자방이 더 머물게 권했다고 한다. 자방은 이달 11일경에는 처자를 먼저 남포로 보내고 임기 만료로 벼슬을 내놓은 뒤에 돌아갈 계획인

데 자방의 아버지는 이와 같은 더위와 비를 무릅쓰고 젖먹이를 거느리고 길을 떠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아직까지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해서 오래 머물 수 있으랴. 언짢은 마음 그지없구나.

8일. 최인복의 집에 덕노를 보내서 씨앗 콩 3두와 그루갈이 콩 6승을 가져오게 했다. 내일은 그루갈이 밭을 꼭 갈아야 되겠기 때문이다. 인복이 오후에 와서 추로 3 대접을 마셨다. 종일 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렸다.

9일. 조윤공과 성민복의 소 2마리를 빌리고 쟁기질하는 일꾼은 보리 2두를 주고 얻어서 그루갈이 밭 2군데를 갈게 했다. 최인복 밭에는 콩 3두, 이통진 밭에는 콩 1두와 팥 3승, 복남 밭에는 녹두 4승을 심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지주와 반타작할 것들이다. 오전에는 비가 오다 개다 하는 날씨였으나 오후에는 비로소 갰다. 그래서 근근이 밭갈이를 끝낼 수 있었다. 오늘 5인이 먹은 쌀이 2두인데 1인은 쟁기잡이, 2인은 소몰이, 1인은 씨뿌리기, 1인은 이장 덮기이다. 또 오후에는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내일은 집사람이 온다는 기별을 하러 온 것이다. 이달 정례로 보내는 쌀 4두를 짊어지고 왔다. 곧 편지를 써서 주고 돌려보냈다.

10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그치지 않는다. 집사람이 필경 비를 무릅쓰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비 내리는 상황을 살피니 종일토록 밤새 거두지 않는다. 어제 만약에 밭을 갈지 않았던들 말해서 무엇하리오. 뒤꼍 처마에서 뭇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나기에 창문을 열고 올려다 보니 처마 끝에 뱀이 걸려 있었다. 덕노를 시켜때려죽였더니 길이가 무려 몇 자 되는 검붉은 반점 무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독사가 분명하다. 새 집을 찾아서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것이다. 만약에 잡아 죽이지 않았으면 사람을 상하게 했을 터이니 다행스럽다.

11일. 비가 늦게 갰다. 덕노로 하여금 말 2마리를 이끌고 남당 나룻가에 가서 기다리게 했으나 집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니 출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12일. 아침 일찌감치 권경명(권학)의 사위 김식이 와서 단선에 그림을 그렸다. 식은 김 사포의 양손으로서 봉선의 둘째 아들이고 나에게는 7촌 조카가 된다. 겨우나이 17세인데도 용모가 단정하고 또 글씨를 잘 쓰며 그림을 잘 그린다. 그 부모는

반리 전에 사망했고 양할아버지댁 많은 식구들도 난리 후에 모두 먼저 돌아갔으니 홀로 그의 형 김집과 같이 살아남았으니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몸으로 측은하고 불쌍하다. 늦게 덕노로 하여금 말을 빌려 타고 남당에 가서 집사람 오는 것을 기다리게 했다. 집사람은 두 아들을 거느리고 웅포에서 배를 타고 조수를 따라 올라와 남당에 도착하여 육지에 내려서 말을 타고 들어왔다. 건강 상태가 편안하다. 그러나 그저께부터 오른쪽 팔뚝이 거북하다고 한다. 걱정이다. 인아가 타고 온 말을 곧돌려보냈다. 자방 처자를 오는 15일에 남포로 먼저 보내고 벼슬이 해직되는 대로집에 돌아갈 계획이라고 한다. 올 때에 국수 1동을 보내왔다. 내가 타는 말이 며칠전부터 배 밑에 손바닥 크기만큼 큰 부기(浮氣)가 생겨 몇 차례 침으로 터뜨렸으나아직도 가라앉지 않는다. 걱정이다. 생원(오윤해)이 타는 말도 또한 발을 절어서부리지 못하니 더욱 걱정이다.

13일. 들으니 조백익이 하관랑에 임명되어 며칠 안으로 서울에 올라간다고 한다. 조대림의 말을 빌려 타고 가서 보니 마침 여러 소년들이 종정도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다. 조군빙이 나에게 수반을 대접하여 저녁때가 다되어서야 돌아왔다. 올 때 이복령을 심방하여 바둑 3판을 두고 돌아왔다. 군빙의 집에 오죽(烏竹)이 있기에 덕노를 시켜 2개를 잘라 오게 했다. 지팡이로 쓰련다. 유선각에게 전인해서 편지를 보냈다. 또 보리 6두와 청참외 30개를 보냈더니 후의에 깊이 감사해 왔다.

14일. 풀매기 돌아가는 차례가 오늘 비로소 끝났다. 24인이 와서 매는데 먼저 올 벼 논을 매고 다음에 언명이네 논을 맸으나 반절밖에 못 했으니 유감이다. 이복령이 왔기에 이광춘 사랑으로 청해서 종일 바둑을 두다 수반을 대접해서 보냈다. 오후에 말을 다루는 의원을 불러서 말 배 밑에 생긴 부증을 치료했다. 함열 사람이오늘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다. 내일 떠날지도 모르겠다. 한산으로 딸을 쫓아가서만나 보고 싶으나 예정과 같이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되었을까.

15일. 오늘은 계절 따라 차례를 올리는 속절이다. 간신히 얼음 덩어리를 구해서 수단을 만들어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고 차례를 올렸다. 평강에서 종 세만이 왔는데 가지고 온 편지에 무고하다고 하니 기쁘다. 사람과 말은 빗물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 가을에 서늘하여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상의해서 보내겠다는 것이다. 꿀 2 승·말린 꿩고기 8지·송화 가루 2승을 구해 보냈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말을 들으니 딸의 더위 병은 치유되었으나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수단과 상화병 1상자를 딸이 준비해서 보내왔다. 소주 3선도 또한 보냈는데 병이 새서 반은 잃었으니 안타깝다.

16일. 종일 음산하게 비가 내린다. 말더듬이 계집종과 개금 그리고 품 일꾼 두 사람을 합쳐 4인으로 하여금 전날 끝내지 못했던 풀을 매게 했으나 또 끝내지 못했다. 밤에 창 앞에 누워 있는데 처마 끝에서 잠자던 새들이 놀라 지저귀기로 이상해서 올려다 보니 뱀이 새 집을 찾으며 처마에 걸려 있었다. 덕노를 시켜서 갈고리로 걸어 내려서 때려죽였다. 얼룩진 무늬가 먼저 죽였던 뱀과 똑같은 것으로 독기 있는 물건이 성하게 다니는 것이 매우 두렵다. 집사람은 어제부터 오른팔의 아픈 중세가 별로 없는 것 같으나 그전만은 못하다고 한다.

17일. 두 계집종을 시켜서 어제 끝내지 못하였던 곳의 풀을 매게 했으나 또 끝내지 못했다. 오전에는 음산한 비가 내렸다. 오후에는 비가 들기 시작하기에 풀매는 것을 가 보려고 나막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걸어가다가 진흙 빗길에서 미끄러져 무논 가운데로 주저앉아 발은 흙투성이가 되고 밑 옷이 젖어서 간신히 집으로돌아왔다. 우스운 일이다.

18일. 두 계집종과 덕노, 그리고 품삯 일꾼 두 사람을 합쳐 4인이 어제 못 끝낸 풀을 다 매고 나서 덕노의 논으로 옮겨 풀을 맸다. 소즐이 찾아왔기로 소주 1잔과 수반을 대접하였다. 저녁때에나 돌아갔다. 또 이분의 서신이 함열로부터 전해 왔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함열로 왔는지 모르겠다.

19일. 소즐이 와서 빗 만드는 묵은 대와 방각을 가지고 와서 주기에 가져갔던 환상 보리 6두 6승을 군에 갖다 바쳤다. 연전에 즐 이름으로 받아 썼으나 아직도 갚지 않아서 관에서 나온 사람이 독촉한다 하기로 갚아 버린 것이다. 저녁에 송인수가 전인해서 문안 편지를 보내고 또 노란 참외 25개도 보내왔다. 전에 빌려 왔던 《삼 국사》는 아직 다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답장을 써서 보냈다.

20일. 송인수의 종 세량이 돌아가는데 임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책을 안 가지고 돌

아가면 필경 무거운 매를 맞을 것이며 사세를 돌이킬 수도 없을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도망을 쳐야겠다고 한다. 인수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어서 틀림없이 노여움을 그 종한테 옮겨 무거운 중벌을 내릴 것이 두려워서 부득이 《삼국사(三國史)》 20권을 세어서 보냈다. 또 덕노를 함열로 보냈는데 함열에서는 저녁때 사람이 당도했다. 망어란 대 2쪽·간장 2병을 딸이 구해 보냈는데 소주도 구해 보냈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은 것은 필경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내용은 모르고 받아 오지 않은 것같다. 매우 유감이다. 인아의 처도 온 집안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인아는 사람과 말을 못 구해서 근친을 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들으니 자방의 모친은 병으로 집에 돌아가려하나 모시고 갈 심부름꾼을 못 구해서 떠나지 못한다고 한다.

21일. 소즐이 종과 말을 보내 우리들을 청했기로 언명 및 윤해와 더불어 달려갔다. 조 좌수 군빙, 조김포 백공 및 경담이 여러 소년 3, 4명과 같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바로 소즐의 망형은(隱)의 제삿날이어서 손님을 청하고 술상을 차려 대접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서야 끝났다. 즐이 우리 부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수반을 대접해 주었다. 오는 길에 유 생원 선각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저녁에 인아가 덕노를 거느리고 들어왔다. 함열에서 보낸 말장 3두·새우젓 5승·황각 3두를 덕노가 짊어지고 왔다. 또 저녁 무렵 한산골 전 태수였던 신경행이 순사종사관으로서 우리군에 도착하여 사람을 시켜서 안부를 물어 왔다.

**22일.** 동리의 젊은이들이 성민복의 송정에서 활을 쏘면서 나를 청해 왔기로 곧 나아가서 같이들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욱륜·조광철·성민복 등이 같이 모였다.

23일. 아침 일찍 군에 들어가서 신경행을 수락현에서 만나 보았다. 권 생원 학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주 4잔을 마시고 돌아올 때 태수를 서헌에서 만나 보고 집에 오니 취해서 장시간 잠을 잤다. 잠을 깨고 들으니 신 군은 이미 한산으로 돌아갔다기에 곧 뒤따라가서 바로 한산에 다다랐다. 신 군은 한산태수 강 공덕서와 같이 동헌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내가 왔다는 기별을 듣고 맞아들였다. 서로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군 사람들이 5, 6명 와서 신 군을 알현하고 간다. 신 군이 일찍이 이 골 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향교에서 술과 안주를 갖추어 올리니 나도 또한 같이 참석했다. 강 공이 관청의 계집종 4, 5인과 피리 부는 사람을

불러서 노래도 부르게 하고 피리도 불게 하여 밤 깊어서야 끝이 나 헤어졌다. 나와 신 군은 같이 동헌에 있는 방에서 잤다. 의원 김준도 또한 우리와 같이 자는데 집 사람 오른팔 불편한 사실을 상의했더니 대답하기를, "불가불 침을 맞아야 되겠는데 침놓는 경혈을 정하고 또 침놓는 좋은 날짜로는 내달 2, 4, 7일이 좋으니 이때에 가서 임천군 여의원 복지로 하여금 경혈을 정하고 침을 놓도록 하겠다"고 한다.처음 생각하기로는 김의가 같아 와 주었으면 했는데 아직 정한 그 날짜가 멀었으니 두고 볼 일이다.

24일. 태수 강 군이 동현 방으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아침을 먹었다. 아침 늦게 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신·강 두 사또가 굳이 만류하는데 마침 이 별좌 덕후가 신후(字侯)를 만나기 위해서 당도했다. 읍취정에 모두 앉아서 강 태수가 신후를 위해서 집에 장수단을 베풀고 군 관리들이 호과를 가지고 와서 신후에게 잔을 올렸다. 종일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 무렵 해서 이문중이 먼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오려고 하였으나 날이 저물어서 유숙하기로 하였다. 또 신 군과 이 고을 전사 박대봉 등과 같이 갔다. 이복령은 신 군이 불러서 왔다가 같이 갔다.

25일. 날이 밝자 신 군에게 작별하고 떠나왔다. 오는 길에 이문중 집에 들러서 아침밥을 먹었다. 문중이 내게 메밀 종자 2두를 주는데 이것은 전날 약속이 된 것이었다. 곧 말을 달려 집에 왔더니 해는 아직 한나절이 아니 되었다. 인아 처가에서 종과 말이 그저께 왔는데 내가 집에 없기 때문에 아직 머물고 있었다. 곧 그들을 함열로 돌려보냈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자방 편지에 말하기를, "요새 벼슬을 그만두기 위해서 이미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람과 말을 보내서 양식과 물건을 가져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 내일은 생원(오윤해)이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내일은 내가 함열에 가서 딸을 만나 보아야겠다. 자방이 보낸 것은 뱅어젓 2두·생마 2단이다. 집에 와서 들으니 어제 새집을 더듬어서 새 새끼를 문 뱀이 처마 끝에 걸린 것을 인아와 허찬이 때려죽였는데 먼저 죽인 놈보다 배는 컸다는 것이었다.

**26일.** 생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또 뱀이 새 새끼를 물고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허찬을 시켜서 때려죽였다. 먼젓번에 죽인 것까지 해서 모두 4마리가 다 같

이 얼룩무늬 독사였다. 뒤편 처마 지붕이 두꺼워서 뭇 새들이 새끼를 기르기 때문에 뱀들이 모여 드는 것이므로 죽여도 그치지를 않는다. 꼭 초가지붕 밑에서 뱀을 기르고 있는 것 같으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아침을 먹고 떠나서 남당 나루턱에 도착하니 때마침 바람과 물결이 크게 일고 있었다.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니 물결은 뱃전을 넘나들어 옷은 젖어 물이 흐르고 배 밑으로 엎어질 듯 두렵다. 근근이해안에 배가 닿자 급히 달려 함열 관아에 도착하니 해는 이미 기울었다. 마침 신대 흥ㆍ김 봉사ㆍ민 주부가 다 모여서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물어지자 각각 헤어졌다. 나는 딸을 만나 보고 인아와 같이 나와서 동헌에 올라가서 잤다.

27일.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딸을 만났다. 같이 아침을 먹고 한참 후에 김 봉사 집을 찾았더니 마침 이효성이 와 있어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씨 집에서 새로 만든 국수 대접을 받았고 또 소주 2잔을 마셨다. 인아 처를 만나 보고 저물어서야 돌아오다가 신대흥 집에 들러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관아로 돌아와서 자방과 같이 저녁을 먹은 후에 인아와 더불어 상동헌으로 나와서 잠을 잤다.

28일. 아침 일찍 들어가서 딸을 만나 보고 같이 아침을 들었다. 인아도 같이 있었다. 한참 뒤에 딸과 헤어져서 자방을 나가 보고 작별하고 길을 떠나왔다. 오는 길에 김백온에게 들러 또 인아 처를 만나보고 신대흥 집에도 들러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출발했다. 남당 나루턱에 도착하니 때마침 배가 북녘 기슭에 머물고 있어 한참 동안 강을 건너지 못하고 폭양 밑 강기슭에 앉았으려니까 여름 햇볕이 불과 같이 뜨거워서 그 고통이란 형언키 어려웠다. 해가 기울어서야 강을 건너 집에 당도하니 기력이 매우 편안치 못하다. 함열에 있을 때 경상좌병사의 서신을 본 바로는 명나라 부사 심유경이 지난 15일 희생으로 쓸 짐승을 잘 익혀서 해신제를 지내고서 명나라 벼슬아치 25명과 평행장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갔다고 하였다. 그런데 적진은 아직도 다 철수하지를 않고 평조신은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통신사 독촉을 한다 하니 참으로 걱정이다.

29일. 덕노를 두 말을 몰고 언세와 같이 함열로 보냈다. 빈궁 구제를 위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이다. 자방이 벼슬을 사퇴하는 뜻이 굳어졌음은 어제 말한 바이거니와 그래서 종과 말을 거두어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저녁에 생원의 종 안손이 광주로부

터 내려왔다. 듣건대 집안이 모두 무고하다고는 하나 충모의 머리 아픈 병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 차도가 없다니 염려스럽다. 생원이 종이 없어서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답답하던 차에 안노가 마침 당도하니 즉시 종을 거느리고 떠나게 되었다. 기쁘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저께부터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니 실로 걱정 이다. 또 들리는 바로 함열 사람이 시를 지어 자방을 조롱하였다 하는데 그 시에서 말하기를, "바닷가 빈 집들 쓸쓸한 모양 함라태수 어진 치적이란다. 반세상 갇힌 회포 수각을 찾고 평생 닦은 맑은 덕은 남전에 있네. 채찍질 면하려고 쌀 갖다 바 치고 탐관오리 약탈질로 시중 돈 거두어 가니 전날 약속한 선정 육조는 자취가 없 네. 곰곰이 생각하니 그대 부친 공로비 꺾이는 해일세"라고 하였는데. 진사 이명남 이 지은 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명남은 곧 나주목사 이복남의 사촌이고 복남은 일찍이 자방으로부터 배운 바도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많아 글을 지어 조롱한 것 이다. 그러나 명남은 이곳에서 살지 않았으며 자방이 왔을 때에도 이곳에는 없었 던 사람이다. 복남이 남원부사를 사임하고 왔을 때 그에게 얹혀서 오랜 동안 살아 온 사람으로 글도 잘하기 때문에 필경 이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다. 이 사람은 성품이 교만하여 사대부를 멸시하는 자이기에 그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시는 지난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올랐던 글이나 들은 바 없었는데 이번에 이 별좌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다.

## 7월

1일. 덕노가 오지 않는 것이 필경 어제 함열에서 구자를 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루턱에 와서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였을 것이다. 요즘 말더듬이 계집종이 정강이를 앓느라고 풀을 못 맸다. 개금이 혼자 매 봐야 두루 미치기가 어렵다. 비단 콩밭에 풀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두 군데 논은 네 번이나 풀을 매 주지 않아 인력이 곱절이나 들 것이니 참으로 고민이다.

2일. 생원(오윤해)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말을 가지고 함열에 간 덕노가 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자방(신응구)이 전인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새로 도임하는 감사 박홍로가 오늘내일 사이에 도계에 당도하는데 꼭 통정할 일이 있으

나 연고 없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만나 보고 그 뜻을 전하라는 것이다. 오늘은 종과 말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또 해도 저물어서 떠날 수가 없었다. 내일 제사를 지낸 후에 함열로 달려가서 만나 볼 계획이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왔다. 자방이 보낸 쌀 1석ㆍ밀 2석ㆍ보리 1석ㆍ갈치 17마리ㆍ새우젓 5승ㆍ막장 5두ㆍ찹쌀 5승을 싣고 왔기에 쌀 1두ㆍ밀 7두ㆍ갈치 2마리를 언명에게 주었다. 다음에는 자방이 본가로 돌아간 뒤에 살아 갈 길이 없다. 이달까지는 근근하게 이어오기는 하였으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다. 함열 관아에서 온 심부름꾼에게서 들으니 오늘도 딸은 떠나가지 못하였다는데 자방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요즘 같이 지독한 더위에 떠나온다는 것은 불가하다"하여 강력하게 말려서 아직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3일. 밝을 녘에 아우와 제사를 올렸다. 집에는 찬거리도 없어서 다만 메와 국 · 면 과 떡 · 씨가지탕에다 적(象)뿐이었다. 생원이 밝기 전에 떠나갔다. 요사이 종이 여 가가 없어서 오랫동안 집에 올라가지 못하였는데 오늘 비로소 떠나갔다. 마음이 매우 좋지 않다. 아침을 마치고서 나도 길을 떠나 남당에 도착하니 배가 없어 바 로 건널 수가 없다. 북쪽 기슭에 있는 소나무 정자 밑에 앉아서 민 참봉 철을 불러 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함열 사람이 배를 가지고 건너 왔다. 곧 강을 건너서 가는데 찌는 듯한 더위로 간신히 함열 아문에 도착했다. 먼 저 딸을 만나 보고 수반을 먹은 후에 태수를 상동헌으로 나가서 만났다. 저녁때 다 시 관아로 돌아왔으나 뜨거운 열기를 견딜 수가 없다. 태수가 나를 청해서 같이 관 청 누각에 올라가 저녁을 먹었다. 허전과 같이 먹었다. 밤 깊어서야 각자 헤어졌 다. 전은 자방의 매제이다. 민철은 감사 민기문의 서자로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남 당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 와서 들으니 자방의 아버지가 전인해서 보 내 편지에 "이렇게 지독한 더위에 젖먹이를 데리고 떠나오면 반드시 큰 병이 날 것 이니 가을철 서늘할 때를 기다렸다가 돌아와도 늦지 않다" 하여 강력히 말려서 아 직까지 출발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오는 감사가 도계에 당도하는 날을 여 산에 사람을 보내서 수소문하여 알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만나야겠다.

4일. 아침 식사를 하고 자방과 같이 상동헌에 나아갔다. 신대흥, 김 봉사를 청해서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 주부도 또한 왔다. 대흥·김백온이 재미로 바둑을 두 는데 관에서 해독제로 먹는 토장을 갖다 주었고 이어서 소주를 각자가 4배씩 마시 고 해어지려는데 마침 체찰사 별장 김경로가 왔으나 곧 헤어졌다. 자방은 별장 대 접하느라고 밤 깊어서야 돌아왔다. 나와 인아는 사랑 청지기 방에 나와서 잤다. 오 늘 평강 고을에 대한 포폄을 보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매우 괴이한 일이 다. 전에 들은 바로는 도의 관찰사가 모든 공사 처리에 훼방을 놓고는 문책을 한다. 고 하는데 필경 이로 인해서 욕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다. 호남도로 부임할 새 감사(박홍로)가 도계에 도착하는 시기를 탐문하러 간 사람 이 확실한 시기를 알릴 수 없다고 한다. 구 감사는 여산에 도착했다고 한다. 듣건 대 황사숙(황신)이 이번에 공조참판으로 승진하여 통신상사가 되었고, 그 부사에 는 권황 그리고 종사관은 박홍장이 되었다고 한다. 권황은 문벌이 있는 사람이고 박홍장은 무신이라고 한다. 사숙이 급기야는 일본 가는 것을 면할 수 없을 터이고 무사히 돌아오리라는 기약이 아니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평상시 뱃멀미를 한다는데 머나면 뱃길 풍랑을 건너서 왕복하면 분명히 큰 병을 얻을 것 이고, 또 흉악한 왜적들의 간사한 꾀는 헤아릴 수 없는데 그의 안전한 보장이, 그 들의 호의만으로서 꼭 기약될는지 모르겠다. 둘을 싣고 적의 나라에 가서 근무하 는 고통이 막심할 것이고 오늘 또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신하가 거역해서 하루아침 에 변고가 생기면 필연 죽을 땅에 놓일 것이니 죽은 뒤에야 만사가 끝나는 것이 아 닌가. 더욱 한탄스러우나 어찌하리오. 하늘은 이 사람이 다른 나라 땅에서 헛되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5일. 아침 전에 관아에 들어가서 딸을 만나고 아침을 먹었다. 늦게 나와서 상동현에 갔더니 자방은 먼저 나와서 앉아 있었다. 종일 대화를 나누다가 자방이 먼저 나왔고 나는 김백온 집에 가서 인아 처를 만나 보았다. 저녁때 돌아오면서 신대흥 집에 들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마침 조 감역 수륜이 와서 자방과 대화를 하는데 나도 같이 참견하게 되었다. 밤에는 인아와 같이 상동헌에 나와서 잤다. 또 듣기로는 새로 오는 감사가 틀림없이 내일 여산에 들어온다고 한다.

6일. 아침 후에 조 감역 수륜의 간찰을 받았다. 이 사람은 도의 부감사 조의 아우

로서 여산에 와 있는 사람이다. 순찰사의 면회가 거절될까 두려워서 그가 써 준 편지를 가지고 여산에 달려갔다. 순찰사는 이미 자기 자리에 좌정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나의 이름을 들여보낼 수가 없었다. 조 감역 편지를 도사에게 바치니 곧 사람을 시켜서 문안인사를 한 뒤에 말하기를, 순찰사께서 근무를 마칠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라는 것이다. 종일 주인집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관에서 상·하 사람 모두에게 저녁밥을 제공해 주었다. 어두워지자 순찰사는 내가 온 것을 물어보고 사람을 시켜서 맞아들였다. 들어가 보니 도사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나도 같이 참견하였다. 각자가 활달하게 오랜 동안 대회를 나누는데 마침 이장성 옥여와 변정, 이중이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옥여와 같이 감사 방에서 잤다.

7일. 아침 식사 후에 옥여와 같이 은진 땅 이 판결사가 묵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판결사는 우리들이 왔다는 전갈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마중을 나왔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옥여는 그곳에서 머무르고 나는 판결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판결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잡고 하는 말이 "훗날 꼭 다시 만날 것이오"라고 하니오래도록 마음이 아팠다. 말을 달려 여산으로 돌아오니 날은 이미 어두워 있었다. 들어가서 순사를 만났는데 마침 이익이 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익은 옛 동리 사람으로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감사와는 소년 시절 친구이기도 하다. 감사의 친족 두사람이 술과 과일을 가져와서 불을 밝히고 술상을 차려 각자 소주를 큰 잔으로 2잔씩 마셨다. 안주로 쇠고기 삶은 것이 1상자인데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터라 여럿이 다 먹었다. 밤늦게야 파했다. 감사와 자청 그리고 내가 한방에서 같이 갔다. 자청(子淸)은 익의 자(字)다. 감사가 나에게 동당 명지 6장ㆍ부채 1병ㆍ종이 1속ㆍ필묵 각 1개를 선사하며 과거 보는데 쓸 좋은 종이를 후일 준비해서 함열로 보내서 내게 전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군관 설간은 감사의 7촌질이고 나하고도 친하니 행차를 호위하는 하인들이 혹시 잊을 염려도 있으니 설(薛)로 하여금 함열로 보내 드릴 일을 챙겨 고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했다.

8일. 아침 식사 후에 순사는 완산을 향해서 먼저 출발했다. 마침 윤우가 와서 같이 말을 달려 함열로 돌아왔다. 처음 듣기로는 임천 · 홍산에서 역적이 일어났다고 하

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또 어머님께서 학질로 편찮으시다고 들린다. 점심 후 에 말을 달려 남당을 건너서 집에 돌아오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와서 들으니 역적 의 두목은 이몽학이라는 자로서 홍산에 피란 와서 살다가 지난 6일 방에 불량배들 을 불러 모아서 갑자기 홍산 관아에 들어가 에워싸고 태수를 붙잡아 현중의 군사 를 동원하고 관인을 빼앗아 허리에 차고 태수는 결박해 버렸다. 다음 날 늦게 군사 를 동원하여 용기(龍旗)를 세우고 임천으로 달려와서 역시 태수를 붙잡아 관인을 탈취하여 영을 내려 군사를 모집하니 군민 가운데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니 다만 두려울 뿐이다. 동네에서 말을 가진 사람으로 이덕후·한렴·홍사길· 권학 · 성민복 · 이덕의 등 모두가 빼앗겼고 우리 집에도 칼을 찬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찾으니 마침 타고 나갔다고 하여 그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역적 두목은 큰 문을 만들어 놓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태수를 마당 밑에 내리고 얼굴에 재를 발라 몇 번씩이나 목을 벤다고 하였다. 또 관청의 쌀을 출고해서 군사들 양식으로 나누 어 주고 다시 창고를 봉했다. 홍산 사람을 임시 대장으로 정하여 관아를 지키게 하 고서 군사를 이끌고 정산을 향해서 떠났는데 두 고을 태수는 말 탄 기마병의 앞에 서 길 안내를 시켜 가면서 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이 고을에서 일어 났으니 그 종결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으나 답답하고 걱정스럽기 한량이 없다. 이 동네에서 따라간 자는 이광춘 · 조응개 · 전상좌 · 정복남 · 만억 · 담이 등이고 집주인 최인복 형제도 또한 따라갔다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어찌하리오.

9일, 아침 전에 이 진사 훈영을 급히 찾아갔다. 한겸·홍사고·권학이 모두 모여서 의논하였으나 결론은 못 내리고 홍은 완산 원수부로 달려가고 권학은 곧 공산 (공주(公州)) 감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고 속히 대책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기로 했다. 식후에 각기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성민복이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주 1배를 마시고 보냈다. 논에 가서 보니 5마지기뿐인데도 네 번이나 풀을 때 주었고 그루갈이 밭은 전혀 매지 못했는데 말더듬이 계집중은 정강이가 아파서 오래도록 풀을 못 매고 다만 개금 혼자서 일을 하니 당해 낼 수가 없다. 장차 폐농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또 오후 3시 이후에 어머님 학질 고통이 심해져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니 답답하고 민망스러울 뿐이다. 해가 진 뒤에는 조금

멎는 듯하시더니 밤 깊어서는 소생되었으나 열이 매우 높아 더욱 답답하고 망극하 다. 함열에서 배 2척을 전인해서 남당 상류까지 보내서 나로 하여금 식구들을 모 두 거느리고 강을 건너오도록 하려는데 어머님 하루거리 병환 때문에 같이 갈 수 가 없어 함열 가는 일을 중지하였다. 며칠 사이에 급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몸은 액적의 소굴 속에 있으니 마음 놓고 오래 머무는 것은 매우 염려스런 일이다. 그러 나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찌하겠는가. 다시 며칠간 관망해서 어머님 하루거리가 떨어지신다면 곧 서둘러서 온 집안이 이사할 계획이다.

10일. 아침 전에 공주 판관 홍경방과 선봉장 조광익·감사 군관 이시호 등이 군사 를 이끌고 우리 고을로 들어왔다. 이는 순사 : 감사가 보내 온 군사로서 역적들이 임시로 임명한 가수(假守) 백원길을 잡아 오라는 명령이라고 한다. 원길은 곧 홍산 의 전 좌수인데 적에게 후하게 함으로써 이 고을 관아와 향교 등을 원길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던 것이다. 적에게 후하게 한 일이 의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진대 몹시 마음 아픈 일이다. 원길은 어사가 관문으로 돌아와서 적을 토벌한다는 기별 을 듣고 곧 저희 집으로 도망을 쳐서 잡지를 못했다. 아침 식사 후에 군에 들어가 보니 조백공(조희식) · 권경명(권학) · 조군빙(조희윤) 등이 다 모여서 수락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대림이 원수부로부터 당도했다. 그에게서 들으니 원수가 군 사를 거느리고 내일 사이로 공주로 오는 길을 향해서 곧장 오고 전주 판관도 또한 용안까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병사는 온양으로 직진하고 수사는 한산 · 서천 · 비인 · 남포 · 보령 · 결성의 병력을 거느리고 홍성 가는 길로 향한다는 것이 다. 또 본군 관청의 종인 언홍이 그저께 저녁때 적진에서 나왔는데 적들은 정산에 도착하자 초계하는 관리를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베어 죽였다. 또 청양에 도착하 여서는 군사들이 군기고에 서로 다투어 들어가서 무기를 찾아내 오려다가 화약에 불이 붙어 군기를 모두 태워 버렸고 타 죽은 사람도 매우 많았으며 불에 덴 사람도 있어서 진영을 남원으로 옮겨 야숙을 하고 내일은 대흥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 11일. 아침 전에 언명과 같이 성민복 집에 가는 도중에 소즐을 만났다. 순사의 처소 로부터 전령을 가지고 달려오는 길이다.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적들이 수긍하여

도망 오도록 하고 각 동리 이장에게 영을 내려 그 부형이나 처자를 타일러서 틈을

엿보아 빼내 오라는 것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적중으로 사람을 보내서 편지로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식후에 언명 및 성민복과 같이 걸어서 군에 들어가 보니 한 시골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다. 순사는 또 전 현령이었던 조희식을 의병장 으로 삼아 바야흐로 향토 병사를 모으고 있다. 또 들으니 원수(권율)는 고부군수와 전주판관으로 하여금 병사를 이끌고 이 고을에 와서 진을 차게 하기 위하여 지금 무수포를 건넜다고 한다. 또 들리는 바로는 순사는 조광익을 이 고을 태수로 임명 하고 이영남을 홍산군수로 임명한다는 말도 있다. 오늘은 어머님이 하루거리 앓으 실 날이어서 아우와 같이 먼저 집에 돌아왔다. 얼마 후에 전라도 양읍의 태수가 거 느린 군사들이 이 고을에 들어왔다. 또 적진에서 도망 나온 사람의 이야기로는 그 저께 대흥에 들어갔는데 관청이나 마을이 모두 비어 빈 관청에서 잠만 자고서 다 음날 아침 홍성으로 가는 길을 향하게 되고 병사의 수도 겨우 천여 명인 데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데다가 대군이 닥쳐왔다는 소 식을 들으면 얼음 녹듯이 와해될 것이다. 또 오후에는 어머님 학질 통증이 어제보 다도 배는 더하신 것 같다. 답답하고 딱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오늘이 세 번 째 직날인데 좋다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효험은 못 보고 있다. 원기는 날로 쇠퇴하시고 진지는 줄어드시니 망극하고 망극하다. 다만 어제는 날이 저문 후에도 쾌하게 소생하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통증이 일찍 멎으셨으니 지금부터 떨어져 물 리쳐질 것이다.

12일. 아침 일찍 군에 들어갔다. 한 시골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의려를 결성하였다. 또 들으니 어제 적의 괴수(이몽학)가 참살을 당했다고 한다. 적중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지난 10일 적이 홍성 밖에 진을 치고 성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홍성목사가 문을 닫고 성을 지키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자 청양 땅으로 퇴각해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어제 새벽에 임천 출신 병사들이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자체 내에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짰다. 부여 출신 병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적의 괴수를 베고 목을 들고 나오니 모든 군사들이 무너져 흐트러지니 두 고을 태수도 풀려 나왔는데 임천 태수는 홍산의 적 3인을 베어 죽이고 그길로 순찰소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한다. 임천군에서 적당에 들

어가서 가담했던 자로서 혹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았고 혹은 숨어 도망 나오다가 잡혀서 갇혀 있는 사람 혹은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나타난 사람은 모두 용서하여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다. 그 가운데 적과 마음을 같이하였던 자는 즉시 잡아들일 설비를 하고 있다. 또 함열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호남감사 박홍로가 용안에 순찰하러 왔다고 한다. 그래서 오후에 말을 달려 무수포 나루를 건너서 곧장 용안에 도착하여 감사에게 이름을 알렸더니 곧 맞아들여 상동헌에서 서로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을 같이 먹었다. 어두워지자 용안태수[정경지]가 나와 보고 들어갔다. 순사와 같이 잤다. 이광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관 설한을 보냈는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면 동내에 근심을 끼칠까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집에서놀랄 것 같아 간절히 당부해서 군관 1명과 병졸 2명만을 보내게 했다. 또 덕노를 먼저 집으로 보내서 미리 알려 둠으로써 두려움이 없게 하였다. 한 또한 나와는 절친한 사이여서 부탁해서 보낸 것이다.

13일. 설한은 밤새 말을 달려 우리 집 근처에서 말을 머물게 하고 먼저 덕노를 집에 들여보내 집안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타일러 놓고 한이 들어갔다. 알고 보니 이 광춘은 홍성에서 잡혀 수금되었다 하므로 그냥 돌아오는데 광춘의 종 대난이 어젯밤 적속에서 달아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잡아 가지고 돌아왔다. 대난은 본래어리석고 못나서 동서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광춘이 겁을 주고 꾀는 바람에 떠나갔다가 마침내 죽을 땅에 들어간 것이다. 불쌍하고 불쌍하다. 순사가 적당에 가세한 근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발바닥 15대를 때린 뒤원수 있는 곳으로 보냈다. 순사가 들은 바로는 광춘은 자기 스스로가 자청해서 적군에 들어가서 많은 임천 군민을 꾀어 적을 따르게 하고 적의 군관이 되어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하니 꼭 잡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이다. 또 순사와 겸상으로 아침을 먹었다. 순사가 나에게 명지 금폭 · 백지 2속 · 백필 3자루 · 소묵 3개 · 백첩부채 2자루 · 특제 부채 2자루 · 보통 부채 2자루 · 대유지 1장, 또 함열에서 바친봄 세금 감급으로 납품한 초주지 2권 · 황모 2조 · 염소털붓 20자루를 돈으로 바꾸어 쓰라고 주었다. 그리고 옥구에서 관영으로 만든 상품 식염 2석을 상하 관리를통해서 주었다. 순사가 공무 집행으로 나가 앉았기로 나는 밑으로 와서 도사를 만

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는 후 이 고을 태수를 서현에서 만났는데 삼례찰방 이정화와 심약 등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나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을 먹고관원의 사령부를 보니 임천태수 신충일이고 홍산태수는 이응익이었다. 저녁때가임박해서야 말을 달려 무수포에 와서 나루를 건너 집에 도착하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어머님의 병환이 오늘은 늦게서야 약간의 통증이 왔다. 또다시 쉽게 멎으실 것이며 꼭 쾌차하실 것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와서 들으니 인심이 시끄러워 동내의 어리석은 여자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피란을 온다는 것이다. 가엾고 불쌍하다.

14일. 선봉장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 입적자를 사로잡고 기를 앞세워 병사를 지휘하며 동내를 수색하니 아이와 여자들은 숲 속으로 달아나 숨고 만약 남자를 만나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묶어 데려가니 마을은 비고 살림살이는 모두 없어졌다. 이 동네도 들어와서 수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내가 집에 있어서 근근이이를 막아내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늦게 군청에 들어갔다. 한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의리로 결연한 병사를 모집하여 남은 적도의 무리를 잡기 위하여 조회식을 의장으로 하고 이중영·한렴·홍사고를 종사로 하였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더니 동네의 모든 남녀가 우리 집으로 몸을 숨기러 와서 벌벌 떨고 있다. 잡혀갈 것이 두려워 정복남의 어머니와 처는 잠자는 방으로 뛰어들어 왔으니 내보내고 싶어도 궁지에 몰린 절박한 사정이 불쌍하여 측은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

15일. 아침 일찍 군청에 들어가 보니 고을의 어른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각 동리의 병사들을 집합 인솔해서 적의 괴수를 도와 같이 참여했던 이업을 잡으려고 막 떠나려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이미 부여에서 이업을 사로잡았다 하여 떠나는 것을 멈추었다. 오후에 순사 휘하에 있는 군관 이시호가 가지고 온 통문을 보니 조정의 뜻이 담긴 내용인즉 좌수 조응립 등은 적의 위협에 복종하여 백성 다스리는 도리를 흐리게 하여 죄를 주어야 할 것이나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고 금후에 적으로부터 돌아오는 자도 그 죄를 묻지 말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도록 놓아 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잡아 가두었던 사람도 다 석방하고 의병도 해산하여 고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다. 나도 집에 돌아오면서 임시로 관리에 임명된 두춘무를 들어가

서 만나 보고 집사람이 침을 맞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다. 오늘은 철따라 제사 지내는 절사 날이어서 차례를 올렸다. 집에는 반찬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술과 송편 그리고 오이김치뿐이었다. 순사 통고를 들은 고을 사람들은 다 같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곳 출신 오 선각ㆍ김준은 적도 가운데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일한 자들로서 어제 목을 베어 매달았다고 한다. 이 동네에서 적에 가담했던 조응개ㆍ만역ㆍ전상좌ㆍ이광춘 등은 모두 군수와 같이 홍성 관아에 갇혔고 기타이 고을 사람 32명도 다 같이 갇히게 되었다는데 다만 정복남의 생사는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꼭 죽기로 한 남편과 어리석은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에 빠져들었으니 한결같이 불쌍하고 불쌍하다. 어머님께서 오늘은 약간 편찮으셨다가 곧 나아지셨다.

16일. 한산태수 강덕서가 이 고을을 겸임하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사람을 보내서 나를 청했기로 곧 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을 같이 나누어 먹고 한 겸ㆍ이유립도 와서 같이 바둑을 두다가 한산태수가 술을 찾더니 가지고 온 소주를 각각 3배씩 마셨다. 한산태수가 전복 1꾸러미를 주어서 이를 요리하여 어머님 께 올리게 했다. 또 소주 3배를 얻어서 집사람에게 보냈다. 집사람이 새벽부터 배가 아팠기 때문에 고쳐 보려고 보낸 것이다. 저녁밥은 관에서 준비해서 내왔다. 내게 자고 가라 하기에 순사군관 이시호와 조희윤과 같이 잤다. 한산태수 숙소로 밤에 조방장의 군관이 비밀 통문을 가지고 왔다. 들으니 조방이 부여에 와서 적당의 참모 6, 7명을 사로잡아 목을 먼저 베고 그 목을 매달았는데 오는 길에도 적을 찾아 처벌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고을 인심이 조정의 뜻으로 겨우 가라앉았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 모두 놀라서 피해 숨어 버릴 터이니 안타까운 일을 어찌하리오.

17일. 새벽에 순사가 비밀로 연락한 바로는 별감 조광좌를 잡아 가두었다는 것이다. 광좌는 적이 정해 준이 고을 수령으로서 군에 있을 때에 좌수 조응립과 같이 감사가 있는 도에 한 번도 통문을 올리지 않고 오직 적의 명령만을 듣고 군사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조절하여 적진으로 보내는 일을 하였다. 응립은 조정의 뜻으로놓아 보냈으나 순사가 도로 가두게 되어 이로 인해서 광좌까지 같힌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 온 사람이 목에 칼을 쓰고 수갑을 찬 채 굳게 간혔으니 차마 쳐다볼 수가 없다. 아침에 관에서 제공하는 흰죽을 한산태수와 같이 나누어 맛보고 소주 1배를 마셨다. 얼마 후에 나와서 집에 왔더니 집사람 복통이 아직도 차도가 없으니 걱정이다. 오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언명과 같이 보행으로 풀 뽑는 곳을 돌아보았다. 원(院)집 모퉁이의 소나무 정자 밑에 가서 백광염을 불러서 위문을 했다. 광염은 전날 적들이 임명했던 가수령과 동성인 친족이라 하여 선봉장 등이 그를 사로잡아 갔었다. 가수령을 잡으려고 집에 가서 물어보고서는 그를 잡아갔다가 도로 석방하였다. 저녁에 한산태수 강득길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청해 왔기로 곧 말을 타고 달려갔더니 새 태수 신충일이 곧 당도하여 관아에 나온다는 것이다. 관아가 뒤숭숭하게 시끄러워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두워진 뒤에 한산태수가 또 사람을 보내서 같이 자자고 청해 왔다. 곧 들어갔더니 새로 임명된 태수는 이미 관아에 나와 있었다. 나와 한산태수 그리고 이시호와 상방에서 같이 잤다. 어머님께서 오늘 기력이 정상이시니 하루거리는 완전하게 물러갈 것이다. 참으로 기쁘다.

18일. 새벽에 한산태수가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머지않아 사람과 말을 보내서 재물을 구해 보낼 것이니 하인들에게 우리 집 종이 문에 당도하더라도 못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일러두라"는 것이다. 들으니 한순이 적과 더불어 역모에 참여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 밀통 편지가 이몽학의 허리끈에 매어진 것이 발견되어 잡혀 갔다 하니 가슴 아픈 일이다. 한순은 이미 서울로 잡혀 이송되었다고 한다. 한산태수는 아침 일찍 군으로 돌아갔다. 덕노를 용안에 보냈는데 어두워서 돌아왔다. 용안태수 정경지의 편지에 밀 1석·새우젓 2승·굴비 2속을 보낸다고 하였다. 전일에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기로 약속한 일이 있었다. 집사람이 어제부터 복통이 일어나서 밤새 신음하더니 오늘에야 통증이 멎은 듯하나 아직 완전한상태가 아니어서 걱정이다. 오늘은 언명의 환갑날이다. 떡을 만들어 사당에 천신하였다. 마침 소즐이 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며 술도 1잔씩 마셨다.

19일. 집사람의 복통이 아직도 쾌하지 않는다. 발열하기 쉬운 물건이나 떡을 잘못 먹은 탓으로 곽란이 틀림없는데 쉽게 낫지 않을 것 같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실로 걱정이다. 상 판관 시손이 찾아와서 혼서지를 구하니 마침 준비해 둔 것이 없

어 주지를 못하니 섭섭하게 됐다. 며칠 안으로 채단을 보낸다고 한다. 오늘로 논 풀매기는 비로소 끝냈다. 모두 네 번을 매준 것이다. 그러나 그루갈이 밭은 아직도 며칠 더 매야만 끝이 나겠다.

20일. 집사람이 오늘은 조금 소생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음식 드는 것이 평상과 같지 않다. 걱정이다. 도원수가 한산에서 우리 고을로들어오는데 집 앞을 지나게 되어 나와 언명이 나가서 구경을 했다. 행렬의 위세가 당당하고 빛나는 것이 대장부의 행차라 할 만하다. 처음 원수가 완산에서 적도의 변고를 듣고 석성으로 달려와서 적의 괴수를 잡아 처치하고 남은 잔당들이 무너져 흐트러지자 완산으로 돌아갔었는데 조정에서 원수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각고을의 적당을 잡아 가두고서 그 죄상을 물어 경중을 가려 무거운 죄인은 죽이고 가벼운 자는 방면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원수의 성명은 권율이고 종사관은 사인(舍人) 신흡(申欽)이다. 저녁때 함열 관아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자방의 지시에따라 상화병 1상자ㆍ건어 4마리ㆍ가지 15개ㆍ수박 2개를 보내왔는데 수박은 주먹만 한데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 웃고 말았다. 그러나 오랜 동안 잘 못 먹은 아이들이 모두 먹어 없앴다.

21일. 아침 일찍 신사인(신홈)이 사람을 시켜서 문안을 해 왔다. 곧 말을 빌려 타고 군에 들어갔더니 신은 이미 원수 방에 들어가서 죄인을 신문하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다. 마침 홍 생원 사고와 남근신이 들어와서 같이 행랑채 방에 앉아서 잠시 인사말을 나누고 헤어졌다. 오는 길에 홍택정과 같이 임피태수 조수현의 집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먼저 일어나서 집에 돌아왔다. 오는 도중에 조군 방을 만나 말안장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오후에는 언명과 같이 만수네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정자 밑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침 조구공ㆍ신경유 형제와 성민복이 모여 와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들으니 도원수가 죄인들을 신문하고서 부여에 나가 중으로서 적에 가담했던 사람 1명을 목 베어 매달았고 군별감 조광좌는 무릎을 꿇려 신문하고 그 나머지는 불러들였다가 도로 가두었다고한다. 비가 내릴 것 같아 모두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비가 내리기시작했다. 아침에 덕노를 한산에 보낸 것은 전일 한산태수와 약속한 생활에 도움

될 물건을 찾아오기 위해서이다. 어두워진 후에 비를 맞고 덕노가 돌아왔다. 한산 태수가 보내 온 것은 벼 10두 · 민어 1마리 · 진어 5마리 · 새우젓 5승 · 잔고기젓 3 되 · 미역 1동 · 소금 1두였다. 후하게 보내 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한다.

22일. 덕노를 함열에 보냈다. 또 들리는 바로는 승지가 조정의 지령을 가지고 군에 당도하여 적에 가담했던 무리들을 모아 놓고 각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타이른 후 모두 특별 사면하고서 부여로 향했다고 하는데 승지의 성명은 유희서라는 것이다. 저녁에 조응개의 종이 홍성으로 양식을 가지고 갔었는데 오늘 돌아와서하는 말이, "이광춘은 이미 서울로 잡혀 올라갔고 최인복·조응개 등은 전일에 각각 나누어 갇혔었는데 이번에 목에 칼을 걸고 중죄인 감옥에 굳게 갇혔다고 한다. 필경 서로가 깊이 연관된 사연이 있는가 보다. 참으로 측은하고 불쌍하다.

23일. 군관 두 사람이 1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기에 나와 언명이 나가서 맞 아들이며 물었더니 말하기를. "우리는 원수의 군관인데 적을 잡으러 홍산으로 가 는 도중인데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왔다"는 것이다. 고동으로 하여금 복남이네 집 에서 아침을 지어 대접하게 하고 우리 집에서도 김치와 젓갈 2가지를 준비해 보 내서 접대하게 했더니 곧 돌아와서 사례를 했다. 각자가 양식을 내놓고 먹었다 한 다. 아침 후에 늦게 언명과 같이 성민복을 찾았더니 마침 집에 없어 돌아왔다. 오 후에 시작한 비가 저녁내 왔다. 저녁때 평강에서 문안차 보낸 사람이 왔다. 적도의 변고를 듣고 급히 보냈는데 18일에 떠나온 사람이 오늘에야 6일 만에 당도한 것이 다. 오는 도중에 광주 생원(오윤해) 집에 들러서 그곳 편지도 또한 가지고 왔다. 윤 함의 편지도 해서로부터 광노네 집으로 전해 온 것을 또한 가지고 왔다. 아들 셋이 보낸 편지를 일시에 같이 보게 되었으며 모두 무고들 하다니 기쁘기 한이 없다. 그 런데 윤겸과 윤해는 이 고을이 적의 수중에 넘어가고 태수가 잡혀 갔다는 소문을 듣고 집 소식은 알 수 없는 데다 적들이 동네를 쳐들어와서 우리 집에까지 화가 미 치지 않았나 하여 놀라고 걱정이 되어 윤해는 곧 안노를 보냈었는데 중간에서 길 이 막혀 도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다. 평강에서 보내 온 물품은 붉은팥 3두 · 진 말 3두 · 목미 3두 · 맑은 꿀 3승 · 생청 3승 · 말린 노루고기 반 짝 · 말린 꿩고기 3 마리 · 여항어 5마리 · 소주 12선이고 광노에게는 가자미 3속을 보내왔다. 모레가 내 회갑일이어서 겸사겸사 보낸 것이다. 평강에서 온 사람 중 한 사람은 계집종 봉화의 남편인 소한에서 온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겸해서 광주 생원에게도 보냈다. 또 해주 윤함에게도 편지가 가도록 했다. 평강에서 윤함에게로 전송하도록 명지 6장·초잡을 때 쓰는 종이 10장·부채 2자루·황모와 백모 붓 각 1자루씩을 같이보냈다. 저녁에 덕노가 며칠을 묵고 오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괘씸하다. 함열에서 새우젓 5승·진어 5마리를 보내왔을 뿐이다.

25일. 오늘은 내 회갑날이다. 상화병을 만들고 닭 3수를 잡아서 탕과 적을 만들어서 신주전에 차려 올렸다. 늦게야 이 진사 중영이 찾아왔기에 술과 떡을 대접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때 돌아갔다. 함열에서 딸이 상화병 1상자·소주 1병·수박 3개·참외 6개·생민어 1마리를 준비해 보냈다. 인아의 처도 또한 흰떡 1상자·소주 1병·닭 1마리를 가지고 왔으니 불안하기만 하다. 어두워서 한산태수가 창고 조사 일로 군에 도착하여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묻고 나를 청해 왔기로 곧 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잠을 잤다. 마침내 선전관이 급변을 알릴 때에 제시하는 표신을 가지고 호남을 내려가다가 이곳 소요가 아직도 완전히 가라 앉지를 않아서 들린 것 같다.

26일. 식후에 할 일이 없어서 언명과 같이 걸어서 성민복 집에 갔더니 집에 없어서 이복령을 찾아가서 같이 바둑을 두었다. 조 좌수 구공도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이 고을 태수가 사람을 보내서 복령을 부르러 보냈다. 복령은 곧 나아갔고 우리도 헤어져 돌아왔다. 이충의 언우가 찾아왔기에 소주 2잔을 대접해서 보냈다.

28일. 권 생원 학이 찾아왔기로 소주 2잔을 대접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그로부터 들으니 이 고을 먼저 태수 박진국이 잡혀 갔는데 적과 연관됐다고 말하는 자의 수가 매우 많아 심지어는 김덕령도 그 화가 미쳐서 오늘 잡혀 갔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마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퍼져나갈 영향이 매우 넓을 터이니 이 안타까운 일을 어찌하리오. 그는 비록 적을 모른다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을 핑계 삼아서 위협하고 속여서 군사들은 의심 없이 따랐을 것이다. 덕노가 돌아왔는데 호남 감사가 지필 값으로 쌀 13두를 주어서 실어 왔는

데 2두는 추후에 보내 주겠다고 전곡 출납을 맡은 아전이 말하더라는 것이다. 전날 가져오지 못했던 쌀보리 7두도 실어 왔다. 쌀 2두 · 보리 1두를 바로 언명에게 보냈다. 오후에 언명과 같이 덕노 · 한복을 거느리고 앞내에서 고기를 잡았다. 작은 고기 1첩을 잡아서 탕을 끓여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와 같이 먹었다.

29일. 식후에 할 일 없이 무료해서 언명과 같이 이복령의 집에 걸어가서 바둑 내기로 가을날을 보냈다. 내기에 이겨서 장난으로 허리칼을 차지했다. 마침 유선각이들어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가 기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이가(李家)에서 국수를 만들어 우리들을 대접했다. 아침에 빈궁을 구제하라는 편지를 써서 조백공에게 덕노를 보냈더니 밀 10두, 생붕어 20마리를 보내왔다. 전날 약속했던 일이나 그 후의가 참으로 고맙다. 곧 밀 2두를 언명 집으로 보냈다.

그믐날. 이웃에 사는 전 상좌(田上佐)가 홍성에 갇혀 있다가 오늘 풀려 돌아와서 나를 만나러 왔기에 풀려 나온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말하기를, "어제 원수가 고을에 들어와서 저희들 45명을 신문한 후에 모두 방면했으나 그 나머지 조응개ㆍ최인복 형제는 그 관련된 사연으로 해서 더욱 굳게 가두고 오늘은 엄한 형벌로 국문하기 때문에 형틀이 마당에 무섭게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다. 만약 그 무서운 형벌을받는다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날 도리가 있겠는가. 다행이 죽음을 면한다 하더라도 필연코 온전한 모습은 아닐 터이니 불쌍하고 측은하구나. 상좌들이 또 이야기하는 바로는, "처음 이광춘의 꾐과 협박 때문에 입적을 했고 그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광춘을 미워했다"는 말이다. 광춘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아까울 바가 없다. 두 고을 태수 박진국과 윤영현 또한 모두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비밀리에얻어들은 바로는 박진국의 소행에 대하여 상감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하교를 내려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적에 가담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엄형으로 국문하라" 하셨다니 애석하고 애석한 일이다. 저녁때 소즘이 왔었다.

## 8월

1일. 식후에 집을 떠나서 무수포에서 나루를 건넜다. 도중에 용안현에 들러 태수 정경지를 만났는데 마침 만경태수 이방준이 차원의 죄를 사하는 일로 왔는데 나와 는 일찍이 면식이 있는 사이여서 조용히 서회하다가 점심을 같이 먹었다. 만경태수가 먼저 나간 뒤에 경지와 같이 오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작별하고 함열까지 말을 달려서 도착했다. 들으니 자방은 향교의 추전 재계 때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안에 들어가서 딸을 만났는데 인아도 내가 온 것을 듣고서 들어왔다. 신대홍과 왕 생원 위(煒)가 상동헌에 있다가 내가 온 것을 듣고 바로나와서 만나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들 잠을 자는데, 밤중이 좀 안 됐을 무렵에 금부도사와 선전관 일행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처음에는 졸다가 막 달콤한 잠이 들었을 때 소리가 나니 놀라 일어나서 거꾸로 옷을 입다시피 당황했는데 도사등은 이미 문밖에 나가 있다. 신·왕두 사람이 잡혀 나가는 뒤를 따라 나도 나갔기에 끌려 나가는 욕은 면했다. 신·왕은 계단 중간에 서서 성명을 물으니까 대답하고는 내보냈다. 죄인을 잡기 위해서 바다 연안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라 한다. 우리들은 새 방에 앉아서 도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도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 또상감께서 내리신 사문을 보니 적의 괴수가 잡혀서 잡범, 사형죄, 노역형과 유배형, 지정처에서 노역을 하는 부처, 유배지에서도 가두어 두는 안치, 유형지의 병영에서 받는 노역형인 충군 등 모두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2일. 저녁때까지 큰비가 내렸다. 자방은 석전재계를 마치고 돌아왔다. 상동헌에서 신·왕과 더불어 종일 이야기를 하다가 어젯밤 놀랐던 일을 말하고는 배를 쥐고 웃었다.

3일. 자방의 부친이 남포에서 오는 도중에 민 주부 집에 들린 것을 알고 자방은 곧 말을 타고 달려갔다. 대흥과 왕 공도 뒤따라갔다. 나는 김백온 집에 가서 인아의 처를 만나 보고서 백온과 같이 민 주부 집에 가서 신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다가 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들었다. 마침 성 진사 노 씨가 들어와서 오후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서 먼저 나와 익산으로 돌아갔다. 여러 사람들도 모두 헤어졌다가 동현에서 도로 모여 관에서 제공한 수단으로 술상을 차려 소주 3, 4배씩을 마시고 헤어졌다. 또 신·왕과 더불어 상방에서 같이 잤다. 종일 비가 오다 개다 했다.

4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 미진한 일 때문에 머물렀다. 자방과 여러 사람

들이 상동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변정 이중도 왔다가 먼저 돌아갔다. 오늘도 또 왕 공과 같이 동숙하고 대흥은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감사(박홍로)가 문서로 보내는 소금이 옥구로부터 실려 왔다. 덕노로 하여금 두량해 보았더니 1석 15두인데 1석은 10두를 말한다고 한다. 이달 초하루 정례 양식으로 백미 10두 · 겉보리 2석을 받았고, 또 서울로 보낼 백미 2두 · 콩 2두 · 백어젓 1두 · 새우젓 4승 · 민어 2마리 · 굴비 2두름 · 밴댕이 2동음 · 돗자리 1장 · 미투리 2부 · 말굽 쇠 2부도 또 받았다.

5일. 아침 일찍 덕노로 하여금 인아의 말을 타고 오게 하여 먼저 잡물들을 싣고 먼저 웅포에 와서 기다리는데 마침 소즐이 익산에서 당도하여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즐과 같이 뒷산 고개를 넘어 떠나왔다. 아직 조수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최 별감 극검을 찾으니 극검이 나와서 만나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주 4배를 마시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루턱에 오니 그제야 조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배를 타고 노를 젓게 하여 남당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육지로 내렸다. 즐은 조수따라 더 올라가서 멀지 않은 자기 집 앞에서 배를 멈추게 하려고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나는 말이 넘어질 정도로 채찍질하여 달렸으나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오랫동안 내린 비 끝이라 길은 험악해서 물이 길 위에 가득하여 간신히 집에 도착하니 밤은 이미 깊었으나 굴러 넘어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런 일이다. 기운이 편안하지 못하고 복통까지 일어나니 곽란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녹두 가루를 마련해서 마셨다.

6일. 아우와 같이 콩 밭을 돌아보니 새삼풀이 밭을 뒤덮어서 캐버릴 수가 없겠으니 콩 여물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겠다. 아까운 일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태수신충일이 면직되고 새로 임명된 태수는 이유함인데 집은 영남이고 단성이 본관이라고 한다. 전연 아는 바 없는 처지이니 한스럽다. 또 집주인 최인복과 조응개가형을 받았다고 들리는데 한탄스러운 일이다. 모든 것이 스스로가 지어낸 경과이니누구를 허물하리오. 가증스럽다.

**7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충용장 김덕령이 적진에서 나왔으나 오늘 잡혀 갔다고 한다. 병조판서 이덕형도 또한 적의 우두머리 있는 곳에서 나왔으나 적과 내통하였

다 하여 대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덕형은 적을 맡아 다스리기 위하여 왕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감께서 그 거짓을 아시고 매우 마음 아파하시면서 따뜻한 조칙을 내리셨다고 한다. 그러나 신하된 사람의 마음으로서 어찌하여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적과 내통하였다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윗사람 노릇을 아니한 사람은 그 감사함을 더욱 미워할 것이나 사실이 아닌 허물없는 환난이 전날보다 더 많이 생기니 안타까운 일이나 어찌하리오. 또들리는 바로는 이광춘이 살아났다고 한다. 죄가 있는데도 다행스럽게 면책이 되었다니 우스운 일이다. 소금 품 일꾼 다섯 사람과 집에서 부리는 남녀 종을 합쳐서 9명으로 하여금 관청의 군량미 논에 올 벼 수확을 해서 각각 나누었더니 모두가 2석 8두다. 조군빙·조백공이 군에서 나오다가 마침 남쪽 길옆에서 만나 무성한 풀위에 앉아서 잠시 막혔던 회포를 풀었다. 듣기로는 조백익이 이 고을 도사가 되고 유근신이 순찰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저녁때 함열 딸이 관청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왔고, 또 쇠고기 1당어리, 소 심장 1개를 보냈는데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던 뜻밖의 물건을 얻었으니 곧 어머님께 잡수시도록 해 드렸다. 참으로 기쁘고 기쁘다. 모 레는 서울을 가야겠기로 여행 준비를 하였다.

8일. 함열 딸이 관아 종을 시켜서 어제 잊고 보내지 못한 물건을 또 보내면서 삶은 고기 1덩어리를 보내 와서 곧 어머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언명과 같이 나누어 먹고 추로도 한잔 마셨다. 내일은 꼭 서울에 올라가야겠는데 인아의 말이 좌측 발을 저는 것 같아 가지 못할 것이다. 걱정이다.

9일. 새벽에 일어나서 인아 말을 보니 저는 다리가 낫지 않았으니 부득이 놓고 왔는데 함열·관아 종이 끌고 돌아갔다고 한다. 내 말에 짐을 싣고 올라탄 후 새벽에 출발했다. 덕노가 식량을 짊어지고 허찬은 말을 몰며 부여 땅에서 달려오다가 한 냇가에 도착했다. 물 깊이가 말을 탄 채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어서 나도 옷을 벗고 알몸으로 물을 건넜다. 깊이가 가슴까지 올라오는데 짐은 덕노가 모두 어깨에 걸고서 내를 건넜다. 냇가에 앉아서 말먹이를 주고 점심을 먹은 후 떠나오다가 정산현 송치를 넘고서 말먹이를 주었다. 반지원에 달려오니 해는 넘어가려고 한다. 인가에 투숙했는데 마침 함열에 사는 상제가 처자를 거느리고 서울로부터 내려오는

도중에 하루 저녁 자고 가게 되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여행은 임천에서 부터 이곳까지 세 번 쉬었다가 올 정도의 길이었으나 물건을 모두 버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온 것이다.

10일. 밝기 전에 출발해서 각걸치 고개 밑 개천에서 말먹이를 주고 아침을 먹은 후에 고개를 넘어 온양 서쪽을 지나서 온천탕에 들어갔다. 마침 순찰종사 신경행이 목욕을 하려고 와 있어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위로 되는 바가 컸다. 신 공이 목욕하는데 같이하자고 권하는데 나는 병이 없는 터라 사양하고 다만 머리를 감고 발만 닦는 데 그쳤다. 신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저녁을 대접하게 하고 나와 같이 숙박했다.

11일. 날이 밝으면서 길을 떠나 아산 땅 이시열 집으로 말을 달려 당도하니 시열은 마침 온양에 가서 없고 그의 어머님과 누이동생이 우리를 맞아들여 상하의 조석 대접을 해 주었다. 그러나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데 찢어진 도롱이만을입었기 때문에 옷이 다 젖었으나 식후에 또 출발하였다. 말을 달려서 진위 최 참봉경수 집에 도착하니 경수는 마침 서울에 올라갔고 그의 수양아들도 율전으로 돌아가서 모두 없었으나 경수의 아들들 넷이 나와서 맞아들여 술과 과일을 내오고 또상하 모두에게 저녁 대접을 해 주었다. 경수의 큰아들과 같이 잤다.

12일. 어제 밤새도록 내린 비가 아침에도 그치지 않는다. 장호원 앞내가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부득이 머무르기로 했다. 오후에 날씨가 개기 시작하였고 경수가 마침 서울에서 내려왔다.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되는 바가 컸다. 오랜 격조를 풀어 가며 작은 술상을 차려 놓고 술을 마시다가 내가 가지고 갔던 소주 1병까지 내놓고 모두 마셔 버렸다. 경수와 같이 잤다.

13일. 아침을 일찍 먹고 길을 떠났다. 큰 냇물 두 군데를 간신히 건너서 수원 땅 독산성 밑에 다다르니 냇물이 넘쳐흘러 물 깊이가 가슴 위까지 올라온다. 옷을 모두 뱃고 좌우의 부축을 받으면서 내를 건넜다. 냇가에서 말먹이를 주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여 부득이 수원부에서 세운 비 앞에 있는 사삿집까지 달려가서 점심을 든 후에 떠나왔다. 말을 달려 생원 집에 도착하니온 집안 식구가 또한 며칠간을 기다리다가 내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상하 식

구들이 모두 기쁘게 맞아 주었다. 충아를 보니 크고 씩씩하게 생겼으며 글을 잘 외우고 또 〈사미인곡(思美人曲)〉을 노래하는 것들이 참으로 사랑스럽다. 그러나 나를 보면 부끄럼을 타서 숨어 나오지 않는 꼴이 우습기만 하다. 의아도 또한 크고 총명하게 생긴 것이 더욱 사랑스럽다. 생원의 처자, 그리고 그의 양어머니와 함께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14일. 새벽부터 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아침을 일찍 먹고 떠나오는데 내가 타고 온 말은 등 위에 부스럼이 생겨서 이를 생원이 잘 먹이도록 하고 생원 말을 타고 달렸 다. 길은 진흙이고 인덕원 냇물을 간신히 건너서 냇가에서 말먹이를 주고 점심을 먹고 나서 달리니 토당의 선영 산소에 도착한 것이 해 기울기 전 풀이 무성하고 빗 물에 젖어 산소까지는 도저히 날아갈 수가 없어서 먼 데서 바라보고 절을 올리는 데 그쳤다. 평강의 종 세만이 제물을 가지고 도착하였는데 평강은 모두 무고하다 하며 감사의 순찰이 박두해서 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지까지 보내지 않 았으니 유감이다. 또 해주 윤함의 편지를 받아 보니 지난달 24일에 쓴 것이다. 저 희들 식구들은 모두 무고하나 다만 임천의 역도들이 일으킨 변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 처조부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들리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평강에서 가지고 온 제물은 떡과 밥 지을 쌀 3두 · 목미 1두 · 말린 꿩고기 4마리 · 문어 1마리 · 노루포 10가닥 · 잣 4되 · 호두 3되 · 꿀 5합 · 감장 5되 · 간장 2되 · 제주 4선인데 제사에 쓰고도 남음이 있으나 탕적(湯炙)거리가 모자란다. 또 베 1필도 보내왔는데 내가 서울을 가게 되면 이것을 팔아서 어육을 사 가지고 오겠 는데 비 때문에 상경을 못했다. 세만이 미련해서 역시 못 사 가지고 왔으니 대구 1 마리를 물에 적셔서 적편을 만들고 또 2마리는 탕을 끓여서 제수로 올릴까 한다. 종 광진네 집에서 자기로 하였는데 산지기 종 억룡이 저녁상을 갖추어 차려서 올 렸다. 난리 이후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옛날 살던 곳에 돌아와 보니 마을은 모두 없 어져서 전에 살던 터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겨우 10분의 1이고 아래위 마을에 있는 좋은 논이 황폐해져서 경작할 만한 곳이 거의 없다. 산소를 모신 산은 당초에 산불로 타 버려서 소나무는 말라 죽었고 참나무도 사람들이 벌목해서 숯 굽는데 써 버려서 묘전에는 서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 한심한 일이지만 어찌하리오. 선 영에 대한 감회가 가슴을 찌른다. 이번에 와서 보니 묘지기 계집종 마금이 올해로 78세인데 백발에 가냘픈 몸이지만 기력은 강건해서 옛 모습과 다름이 없다. 선대에서 내려온 노비는 모두 죽어서 오직 이 계집종 한 사람만이 살아 있는데 바로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동갑인 것이다. 오늘 만나 보니 그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치지 못한다. 내 마음도 슬픈 감회에 잠겼다.

15일. 새벽부터 내리는 비가 개기를 기다렸다가 묘사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늦게까 지 비는 그치지 아니하고 또 날씨가 갤 징후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득이 묘소에 올 라가서 돗자리로 상석 위를 가리고 제물을 차렸다. 먼저 조부모에게 올리고 다음 은 아버님께 올린 후 죽전 숙부에게 올리는 순서로 상하 3위의 진설을 끝내고 절 을 올렸다. 삿갓을 쓰고 제례 행사를 혼자 하려니까 의복은 모두 젖었고 또 기력 이 떨어져 고달프다. 죽은 아우의 묘소에는 석린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고 또 묘 지기를 시켜서 증조의 전 어머니 권 · 이 양위분께 행사토록 하였다. 또 세만으로 하여금 죽은 손자 막아의 묘에. 그리고 덕노로 하여금 죽은 누이동생과 경흠의 아 들 지생의 묘에 진설케 하여 망전으로 끝냈다. 물린 제물로 계집종 마금과 덕노의 아비 덕수의 묘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모두 끝난 후에 묘하에서 물러가는 절 을 올리고 묘지기 억룡의 집으로 돌아와서 먹고 남은 것은 묘지기 노비와 이웃 사 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석린 · 허찬과 더불어 음복을 하였다. 처음에는 오늘 서울에 올라가려고 했으나 비 내리는 것이 오후에는 더 심해지더니 저녁때까지 그 치지 않으므로 부득이 유하기로 하고 또 광진네 집에서 유숙하였다. 묘사를 올릴 때에 비록 비는 오지만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뿌릴 뿐이어서 의복은 모두 젖었더 라도 행사를 강행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오후와 같이 쏟아지는 비라면 도저히 행 사를 올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못 다행스럽기만 하다.

16일. 새벽닭 울 때부터 큰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아침 늦게까지 그치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오래 머무르면 상하 몇 사람이 먹는 식량이 어려운 문제여서 생원의 종 희봉을 짐 싣는 말을 끌고 율전으로 먼저 보낸 후 오후에 비가 조금 그치는 듯해서 우비를 입고 출발했다. 한강에 이르니 강물은 아직 넘쳐흐르지는 않고 다만 백사장만 묻혔을 뿐이다. 곧 강을 건너서 서울로 달려들어가 보니 눈

에 띠는 것은 모두가 처량하고 벼와 기장은 멋대로 자라 헝클어져서 비통한 눈물을 참을 길이 없다. 남고성 누이동생 집에 당도하니 누이는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곧 고성(남상문)과 같이 마중을 나왔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이 극에 이르니 누이는 눈물만 흘린다. 서로 못 본 지가 7년이라 오늘 비로소 만나 보니 기쁘고 행복한 심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랴. 저녁을 먹고서 밤을 세워 광노의 집으로 돌아와서 잤다. 오는 도중 사평원 앞에서 임천 서원 전흡을 만났는데 내려가는 길이라 하기로 내가 무사히 서울에 왔다는 뜻을 우리 집에 전하도록 그에게 부탁했다. 그에게서 들으니 전 태수 박진국은 석방되고 이광춘도 살아 있다고 한다.

**17일.** 아침 먹은 후에 임 참봉댁에 가서 집사람 편지를 전하고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 남고성 집에 갔더니 마침 민 주부 우경이 고성을 만나려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関)이 먼저 돌아갔다. 나도 또한 와서 기성군을 찾아갔더니 기성군은 곧 출영을 하면서 서로 만난 것을 기뻐하며 조용히 옛 정을 풀고 술 3배씩을 마셨 다. 기성은 막 성주 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난봄부터 중풍을 앓고 있었으 나 지금은 겨우 소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색을 살펴보니 고달 프고 여윈 모습이 심상치 않으니 애석할 뿐이다. 또 상관동으로 인해서 공성수(功 城守)를 먼저 찾고 또 의성 도정(都正)을 맞아 서로 만나니 기쁘기 한량없다. 또 자 미의 옛 집에 올라가 보니 불에 타고 부서진 정도가 극심하였고 구기(舊基)에는 당 나라 기장이 두루 퍼져 생장하고 있었다. 더 들어가서 향나무 있는 언덕을 올라가 서 보니 쑥대만 수북하여 슬프고 처량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이 향나무는 본시 세 가지가 나왔던 것을 가운데 가지는 잘라 가고 나머지 두 가지도 긴 부분은 찍어 내서 근간만 홀로 서 있으나 그것도 허리 밑으로는 제향용으로 쓰기 위해서 반 이 상은 깎아 갔다. 수백 년 동안 가정의 보배로 가꾸어 온 나무가 하루아침에 이 몰 골이 되었으니 그지없이 아깝다. 서반 물 아래 윗동네에는 기둥이 서 있는 집이 한 채도 없고 동편에는 다섯 내지 일곱 집 정도가 남아 있었다. 홍 통례 인헌 씨 · 영 성도정(永城都正) 형제가 들어와서 사는 곳이기에 홍 통례 집을 심방하였더니 곧 맞아 주어서 서로 만나니 그 기쁨이야 어디에 비기랴. 또 영성을 청해서 옛 정을 조용히 나누면서 소주를 2잔 마셨다. 저물어서야 그들과 작별하고 돌아오다가 남 씨가(南氏家) 누이동생 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광노 집에 돌아와서 잤다. 덕노가이틀 동안 학질로 앓고 있으니 걱정이다.

18일. 덕노가 어제 앓았던 학질의 여독이 아직도 남아서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 다. 느지막하게 강제로 덕노를 일으켜서 주자동에 데리고 갔다. 먼저 이 장령(掌 令)(사헌부의 정4품 벼슬) 철(鐵)을 찾았으나 집에 없어서 평릉수 집에 들어가서 수씨(嫂氏)[형제의 아내]와 누이동생을 만나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리 후에 오늘 처음 만났으니 수씨와 누이는 나를 보고는 한없이 눈물만 흘린다. 그곳에서 작별하고 묵사동으로 가서 양성정(陽城正)을 찾았더니 그의 세 아들 파릉 · 파흥 · 파계가 모두 집에 있었다. 같이 지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을 대접받고 저물 무 렵에 일어났다. 돌아오는 길에 신 직장 순보의 집에 들렀으나 신은 집에 없었다. 그의 아들 신율과 이신이 마침 와 있어서 서로 만나고 보니 기쁘고 반갑다. 그러나 순보의 부인이 가슴앓이로 누워서 나를 청하기로 들어가서 만나 보았다. 시주를 2 잔 마시고 날이 저문 후에 광노 집에 가서 잤다. 오늘 왕래하는 길에 종가와 죽전 동 본가를 바라보니 담장은 모두 허물어지고 풀만 가득히 만연하였으니 집터의 동 서를 알아볼 수 없어서 한동안 말을 세운 채 비탄에 잠겼다가 돌아왔다. 대체로 남 산 기슭에는 인가들이 많고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보전된 집이 있어서 들어와서 사 는 사람들이 많다. 또 문수의 처가 생존해서 이웃에 살고 있다는 말을 아침 전에 들은 바가 있었기로 그를 불렀더니 곧 와서 만나 보았다. 나를 보고는 지난 이야기 와 그의 남편이 두 사위와 같이 난리가 나자 배를 타고 급히 피란을 가다 파선으로 물에 빠져 죽은 연유를 말하고는 한없이 통곡하니 비참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 평 강에서 온 사람이 돌아가는데 편지를 보냈다. 평강의 형편을 살펴서 근친 오도록 말로도 일러서 보냈다. 나도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니 이곳에 머물러서 기다리 련다. 나는 24, 25일 사이에 집에 내려갈 것이다.

19일. 아침 전에 의성 도정을 찾아가서 잠시 이야기하다 돌아왔다. 덕노가 어제 또학질을 앓았다. 참으로 걱정이다. 가이지가 와서 인사하고는 내일 집으로 내려간다 하기로 임천으로 보내는 편지를 직접 전하라고 하고 두 딸아이에게 줄 작은 거울을 갈아서 같이 보냈다. 또 식후에 의금부에 나가서 홍삼척 인걸과 김 평사 흥국

의 이름을 대고 박임천이 수용된 임시 막사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 박천기를 만났다. 나의 이름을 대고 박임천과 윤영현을 위문하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 천기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는 길에 건천동 유 직장 영근 집을 방문하였으나 마침 출타해서 집에 없기로 돌아오는 도중에 남 익위 집에 들어갔더니익위는 숙직으로 집에 없어서 누이와 더불어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 광노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허찬이 토당에서 왔다. 같이 자면서 들으니 임천에 새로 부임할 군수에 박춘무가 어제 임명되었다고 한다. 춘무는 전날 변란이일어났을 당시 임시로 군수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다.

20일. 조반 후에 민 동지 요령공을 찾으니 반갑게 맞으며 두 아들 우안·우중도 또한 모두 나와서 묵은 회포를 풀었다. 공이 술을 내 오게 하여 같이 마시다가 작별하고 나와서 권 지사 징령공 집에 지나다가 들러서 들어가 보니 중풍으로 폐인이된 지가 오래고 모습이 전과 같지 않으니 애석하기만 하다. 서로 옛 일을 이야기하니 슬픈 감회가 어린 뜻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이나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 무렵에 작별하고 나왔다. 또 남씨 누이 집에 들어가서 익위와 갓을 내기로 걸고 바둑을 두었다. 익위가 두 판을 패하니 우습다. 저녁을 먹고 광노 집에 돌아와서 허찬과 또 동숙했다. 허찬이 아침에 허 동지 진(晋)의 집에 가서 듣고 온 바로는 그의 동생 영필이 살아 있는데 지금 고성 땅에 살고 있다니 뛰도록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데 영필이 그의 모친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도 아직까지 오지를 않으니 인도에 어긋나는 무식한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가증스럽고 가증스럽다. 또 이시증이 어제저녁에 용인 산소의 묘제를 마치고 올라왔다가 오늘 아침에들어와서 인사를 한다. 마침 문수의 처가 나를 위해서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가지고 와서 먹는 중이어서 시증과 같이 마셨다. 그리고 아침을 그와 같이 겸상해서 먹었다. 시증은 내일 노비의 신공을 받기 위해서 평양으로 떠난다고 한다.

21일. 새벽에 시증이 와서 관서지방으로 간다고 인사를 했다. 식전에 이 장령 강중 (剛仲)을 찾아갔더니 나와서 반갑게 맞으면서 한동안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침 대접을 받고 늦게 광노 집으로 돌아오니 덕노가 풀을 베러 말을 몰고 들에 나갔기 때문에 종일 집에 있었다. 무료하기 짝이 없어 기성군 자경 공에게 사람을 보내

서 안부를 묻게 하고 또 임 참봉 댁에도 사람을 시켜서 안부를 물었다. 저녁에 율전의 생원의 종아이가 와서 전하는 편지를 보니 아직도 학질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제도 매우 심하게 앓았는데 쇠고기가 먹고 싶어 쌀 1두를 광노에게 보내니 고기를 사 보내라는 것이다.

22일. 생원의 종이 내려가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마침 김제에 사시는 숙모의 계 집종 여향이 남편과 같이 와서 인사하고 바치고 간 소주 약간과 낙제(落蹄) 10여 개가 있어서 생원에게 보냈다. 식후에 남씨 누이 집에 가서 익위[남상문]와 같이 바둑을 두었다. 그리고 내 말을 최 생원 기남에게 보내서 그를 청해 왔다. 최는 연 달아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상을 당하여 아직 발인도 못한 처지여서 서로 만나고 보니 슬프고 불쌍한 심정이 간절하다. 종일 익위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을 먹고 나왔다. 오는 길에 기성 공을 찾았더니 마침 박정자 원이 와 있어서 한동 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이 먼저 나가고 나도 뒤따라 광노의 집으로 돌아오 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충용장 김덕령이 전날 역적의 말에 연루되어 잡혀가서 갇힌 이후에 계속해서 엄한 형벌을 6차례를 받고도 끝내 불복 하여 어제 죽었다고 한다. 별다른 의혹의 실마리도 없는데 다만 적이 말하는 이유 만으로 마침내 곤장의 희생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원통해 하는 것이다. 대체 로 덕령은 비록 종전에 세운 공이 없다 하여도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이름을 오랑 캐들이 들어서 왜적들은 몹시 그를 꺼렸고 서쪽 오랑캐도 또한 그의 나이가 몇인 가를 물었다고 한다. 만약에 추호라도 반역할 흔적이 있었다면 만 번 죽어도 아깝 지 않으나. 그와 같이 애매한 이유로서 지금 국경에 도사리고 있는 적이 있고 서쪽 오랑캐가 날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장사를 죽이는 것이 어찌하여 적국의 기쁨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덕령은 이와 같은 난세에 스스로 구해 나와서 그 이름만이 실상 위로 지나갔으니 용기를 유용하게 베풀지 못하고 다만 역도의 입에 올랐을 뿐이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거둔 바이니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리오.

23일. 덕노가 어제부터 오른쪽 발을 말한테 밟힌 곳으로 마독이 들어가서 많이 부어올라 거름을 옮길 수 없어서 침으로 파종하였으나 아직도 차도가 없으니 큰 걱정이다. 아침 식사 후에 사람을 빌려서 말을 몰게 하고 남씨 누이동생의 집에 갔

다. 익위와 같이 바둑을 두는데 마침 이 첨정 맹연이 와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임 참봉댁으로 인해서 마침 김곡성 집에 왔는데 사람을 시켜서 나를 청했기로 바로 나아가 보니 마침 그 집주인 생일이어서 술과 밥을 대접받는데 임 별 좌 경원도 또한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해 기울 무렵에 남씨 누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 후에 광노 집으로 왔더니 평강에서 사람이 와 있다. 평강의 편지를 보니 순찰사의 도습진 일로 지금 금화에 와서 이질을 앓게 되어 몸을 움직일수가 없어 부득이 근친을 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놀랍고 걱정스러운 바 비길 데 없다. 평강에서 보내 온 것은 콩 3두ㆍ백미 2두ㆍ귀리 1두ㆍ소주 4선이고 또 최보덕 관이 못 바친 대구 25미ㆍ다시마 5동은 내가 받아쓰라는 것이기에 집에 내려갈때가지고 갈계획이다. 전날 평강 종 개질지가 공물 거두기 위하여 명천에 들어갔는데, 명천태수가 최상지에게 대구 1동ㆍ다시마 10동을 주어 보내도록 했다. 최는 먼 길을 싣고 오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각각 반은 바꾸고 반을 우리 집에 보내 온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24일. 내일은 집에 내려가야겠는데, 덕노의 발이 차도가 없으니 큰 고민이다. 아침 전에 사람을 시켜서 이장령 철의 집에 편지를 보내고 또 대구 1마리도 보냈다. 오늘이 사위를 맞이하는 날이어서 부조를 하기 위해서다. 또 다시마 2고리를 남씨 누이에게 보냈다. 편지를 써서 평강에서 온 사람 돌아가는 데 보냈다. 어제 강건너 종 광진ㆍ계집종 근개 등이 양식할 쌀 1두씩을 가지고 왔다. 우리 집 밭과 논을 해 먹는 사용료로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내려가는 노자로 써야겠다. 명년에는 전답 경작을 배메기(지주가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매기는 일)로 하여야겠다. 허찬이 와서 같이 잤다. 운산태수가 와서 인사를 하고 그의어머니가 술과 과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같이 마셨다. 잠시 후에 유 직장 근지가 또한 찾아와서 한동안 구정을 나누었다. 그와 같이 소주 4, 5배를 마시고 작별했다. 저녁때 생원의 종 춘기가 율전에서 왔다. 가지고 온 생원의 편지를 보니 학질의 고통이 배는 더 심해서 음식을 완전히 폐했다고 한다. 걱정과 답답함을 어찌 말로 다 하리오. 오늘 소를 사려고 했으나 베 값이 가을이 되면서 매우 낮은 상태여서 소를 사지 못하였으니 매우 유감이다. 오늘도 또 허찬과 같이 동숙했다. 찢어진

갓을 고쳐서 칠을 하느라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종일 집에 있었다.

25일. 아침 일찍 남씨 누이를 가서 만나고 아침 대접을 받았다. 작별하는데 누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 나의 감회도 매우 좋지 않다. 광노 집으로 돌아와서 여행 차비를 하였으나 덕노의 발병이 낫지 않으니 부득이 내일 춘기가 올 때에 말을 타지 않고 내려오게 했다. 아침 늦게야 개질지와 묘하에 사는 종 환이만을 거느리고 떠나왔다. 남대문 안에서 우연히 김자정의 솔자를 만나 자정의 상경 여부를 물어본즉 며칠 전에 상경하여 지금 서소문 밖에서 임시 거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 길이 바빠서 부득이 오기는 했으나 안타깝기 그지없다만 어찌하리오. 동작나루틱까지 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여우고개를 넘었다. 과천현 앞에 있는 돌다리 밑에 당도하여 말에게 먹이를 주고 점심을 먹은 후 말을 달려 율전에 도착하니 해는 이미 저녁때였다. 자정은 오늘 시교에 임명되었으리라.

26일. 생원[오윤해]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침나절 늦게 천영의 모친이 나에게 줄 쌀 1두, 표주박 1개를 가지고 찾아왔다. 저녁때 이웃집에 조정의 관원이 와서 유숙한다기에 물어보았더니 곧 그는 사복정 정사조였다. 전에 비록 알지 못하는 사이기는 하나 그의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이다. 생원과 같이 찾아갔더니 구면과 같이 환영해 주어서 가지고 간 술을 같이 마시고 돌아왔다. 또 덕노가 서울로부터 춘기 말을 타고 왔다. 발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부득이 내일 내가 가는 길에 같이 돌아갈 수가 없어서 머물렀다가 병 조리 후에 내려오도록 하였다.

27일. 아침 전에 정정림 행차가 와서 인사하고 돌아갔다. 덕노의 발병이 낫지 않아서 이곳에 머무르며 조리하여 뒤따라 내려오게 했다. 식후에 생원의 종 안손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수원 사창 동면의 경여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당도하니 장수의 한집 식구가 모두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 곧 두 수씨와 시윤 3형제를 만나 보니 기쁨을 가눌 길이 없다. 저녁 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깊어가도록 잠을 못 잤다. 그런데 두 수씨가 임시 기거하는 곳이 겨우 한 몸 용신할 정도로 좁고 누추하며, 살아 나가는 일이 걱정인 듯하다. 장수 수씨는 자녀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 곤궁한 생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근근이 소금을 팔아서 날을 보낸다고 한다. 참으로 불쌍하고 슬프다. 대구 2마리·다시마 2묶음을 주었으니 서로 나누어

서 절반씩을 쓸 것이다.

28일. 아침을 일찍 먹고 길을 떠났다. 빌려 온 종 명윤이 길을 가리켜서 사창을 지나 항관교를 건넜다. 또 평택 삽교나루를 건너서 길가 민가에서 말먹이를 주고 점심을 먹은 다음 명윤은 돌려보내고 아산 땅의 모친이 계신 집에 당도했다. 이씨 집에서 유숙키로 하였는데 나의 일행 상하에게 닭을 잡아 찬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었다. 시열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친과 매씨가 나와서 영접해 주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미역도 주었다.

29일. 아침을 일찍 먹고 길을 떠나 난쟁이 고개에 이르렀을 때 흩어진 머리와 때 낀 얼굴을 한 사람이 떨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험한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물어보 니 홍산에 사는 향교의 유생 손승조인데 뜻밖에 역도의 재앙을 만나 잡혀가서 왕 실의 감옥에 갇혔다가 이번에 사면을 받아 내려오는 길이라고 한다. 불쌍하기 이 를 데 없다. 지고 있는 양식용 쌀을 내 말에 나누어 싣고 오다가 들으니 아직 아침 을 못 먹었다 하기로 곧 냇가에서 말을 내려 점심을 나누어 주었다. 밥을 먹이고 오다가 온양군 앞을 지나서 시흥 역참 앞 냇가에 서 있는 소나무 정자 밑에 당도하 여 말의 먹이를 주고 점심을 먹으면서 또 손생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찢어 진 옷을 벗게 하여 개질지가 입은 옷 한 가지를 벗어서 입히게 하고 또 패랭이를 씌워서 거느리고 왔다. 각걸재를 넘어 공주 땅 추곡에 도착하여 자기로 했다. 고인 이 된 현감 김공이의 서자 김정개의 서자가 사는 집에 갔더니 정개가 추수하러 덕 산 본가에서 이곳에 왔다가 곧 나와서 맞아 주었다. 전날 서로 만난 일은 없으나 그의 부친과 나의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동갑이시고 친분이 매우 두터운 처지였으 므로 옛 친구와 같이 서로를 알고 있었다. 곧 복숭아를 따서 내왔다. 그러나 따뜻 한 방과 연결되지 않은 찬 마루에서 자는 것이 유감이었다. 밤중에는 냉기가 뼛속 까지 스며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앉아서 밝기를 기다렸다.

## 윤8월.

1일. 밝기 전에 출발하였는데 새벽안개가 사방을 막는다. 반지원 앞에 있는 괴목 나무 밑에 이르러서 아침밥을 먹은 후 송치를 넘어 정산현 앞에 사는 김상을 찾았 다. 김상은 서울에 거주하던 선비로서 유랑 끝에 이곳에서 살게 된 사람으로 조응립의 사위다. 일찍이 서로 알고 있는 터여서 나에게 떡과 실과를 대접하고 감주를마시게 해 주었다. 곧 앞을 달려서 개질지의 집에 도착하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개질지가 작년 섣달에 공물 거두는 일로 명천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로 오늘 처음으로 왔으니 그의 집안사람들은 필시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갑자기 들어오니 그의 부친은 부둥켜안고 서로 슬피 우니 참으로 슬프고 불쌍하구나. 손승조와 같이 갔다.

2일. 식후에 감동을 데리고 길을 떠나왔다. 부여 백마강 나루턱에 당도하니 손승조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감사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홍산의 자기 집을 향해서 돌아갔다. 꼭 후일에 찾아뵙겠다고 하였다. 임천 10리 밖에 냇가에 당도하여말에게 먹이를 주고 집에 도착하였다. 어머님을 뵙고 상하가 모두 여전하나 단아가 그저께 저녁부터 편치 못하다고 하니 아마도 학질이 아닌가 싶다. 이 진사 중영의 큰아들과 성민복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갔다. 또 도착하자 즉시 이광춘의 편지를 그의 처에게 전했다. 광춘의 편지는 손승조가 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서 손에게 부탁해서 전송하려던 것이었는데 손이 또한 나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들으니 광춘은 이번에 삼수군으로 귀양가게 되었다고 한다.

3일. 아침 먹은 후에 무료해서 언명과 같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권평지 주변에 있는 큰 언덕을 보러 갔다. 전달에 큰물이 부딪쳐서 언덕이 무너져서 못 속이 흙으로 메워졌고 못 밑에 있는 많은 논들이 또한 모래로 뒤덮였었다. 아까운 일이다. 마침 감목관 이정시가 찾아와서 서로 언덕 위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돌아왔다. 조금 후에 좌수 이원길이 또한 와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이웃에 사는 만억이 술을 가지고 인사하러 왔다. 아우와 같이 마셨다. 또 어제 올 때 길에서 만난 집주인 최인복의 아우에게 물으니 그의 형 인복은 홍성에 갇혀 있다가일차 형벌을 받고서는 병이 나서 죽었는데 오늘 시신을 싣고 오기 위해서 종과 말을 거느리고 홍성에 가는 길이라고 한다. 들려오는 소리가 놀랍고 슬픈 소식이다. 인복은 평상시에 나를 지극히 후하게 대해 주었고 사람의 꾐과 위협으로 적중에들어갔으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사면되었는데 저만 혼자 죽었으니 비록 스

스로 만든 죽음이라 하더라도 다만 불쌍하고 불쌍할 뿐이다. 또 부여(夫餘)에서 남 궁(南宮) 영광태수(靈光太守)를 만나 말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으니 자방(신 응구)이 1일자로 관직을 고만두고 곧 익산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4일. 자방이 익산에서 왔는데 하는 말이, "무수포 나룻가에서 함열 관리들이 술과 과일을 준비하여 그곳까지 와서 대접해 주어 날이 저물었다"고 한다. 과일과 구운 고기, 그리고 편육 등 각각 4상자씩을 가지고 안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관원들이 성찬을 가져다 주기로 어른에게 올려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먹었다.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오로지 자방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가 벼슬을 그만두었으니 의뢰할 곳이 없다. 이 괴로움을 어찌하리오.

**5일.** 자방이 이복령을 청해서 신수점을 쳤다. 아침을 먹고 자방은 남포로 돌아갔다. 이복령을 만류하여 술과 밥을 대접하고 종일 바둑을 두며 놀았다. 그는 저녁때돌아갔다.

6일. 신경유·소즐이 찾아왔다. 즐은 손수 산 게 6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저께도 10여 마리를 보내 주고 또 이렇게 갖다 주니 그 뜻이 너무 후하구나. 술 1잔을 대접해서 보냈다. 오후에 조군빙(조희윤)·조백공(조희식)이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저녁때 덕노가 돌아왔는데 생원(오윤해)의 편지를 보니 학질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다니 걱정이다. 새로 부임한 순찰사 유근이 어두워서 이 고을에 오는 역노에이 별좌 덕후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영접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서 이곳을 지나가야 하건만 길을 분별할 수 없는데 횃불을 켜 놓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원수(권율)도 역시 어제 이곳을 통과해서 호남으로 총총하게 돌아갔었다. 비밀리에 들은 바에 의하면 호남 지방에서도 또 역적의 변란이 있었다고 하나 아직 그 상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또 듣기로는 상감께서 왕위를 동궁께 물려주신다 하여 지금 대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앞에 엎드려서 상소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자세한 실상은 알 수가 없다.

7일. 한산태수(강덕서)가 순찰사의 배종관을 겸임해서 이 고을에 들어와 사람을 보

내서 나를 청했다. 조반 후에 말을 빌려 타고 군청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군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오후에 순찰사가 떠난 후에 한산태수가 상하사(上下事) 갈무리를 하기 위하여 군청에 도착하였기로 나도 들어가서 만났다. 마침 이문중·조백공·군 관리 등도 모였다. 일을 마치고 한산태수가 먼저 나가서 돌아갔다. 좌수 이원길이 우리들에게 술과 과일을 대접해 주어서 2잔씩을 마시고 헤어졌다. 저녁에 인아가 한복·환이 등을 거느리고 말 2마리에 곡식을 싣고 들어왔다. 전날 함열(신응구)이 재직 당시 주었던 보리쌀 1석·벼 2석·겉보리 2석과 아우에게 주었던 벼 1석을 인아에게 맡겨 놓았었는데 그것을 종과 말에 실려서 인아가 같이 따라온 것이다. 함열의 물건은 이것 외에는 다시 얻어 볼 수 없게 되었다. 겉보리 1석은 짐이 무거워 싣고 오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아가 그곳에서 쓰도록했고 벼 5두도 그렇게 사용토록 했다.

8일. 식후에 무료해서 언명과 같이 서원 모퉁이 기슭에 서 있는 소나무 정자까지 걸어가서 백광염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조인민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적중의 기별을 듣고 온 이야기인데 통분할 일들이 너무나많다는 것이다. 해가 넘어간 뒤에 집에 돌아왔다. 인민(仁民)은 군내에 거주하는 서자로서 적의 위협으로 그 무리에 동조했던 자이다. 좌수 이원길이 찾아와 보고서 돌아갔다

9일. 환노를 도로 올려 보내는데 율전과 광노가에 전할 편지를 부쳤다. 또 조백공이 전인해서 살아 있는 게 15마리를 보내왔다. 너무 고맙다. 소즐도 또 게 5마리를 보내왔기로 즉시 젓을 담았다. 덕노가 녹두 3동을 수확해서 쌓아 놓았었는데 가을 비로 반이 넘게 감수되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10일. 영암 임 진사의 계집종의 남편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데 보니 누이동생의 글이었다. 하루거리가 아직도 완쾌하지 못하고 있으나 심하게 아플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 기쁘다. 간고등어 10마리를 보냈고 어머님께 벼 1석 · 식해와 새우젓을 각각 1항아리씩 구해서 보내왔으니 요즘 반찬이 없어서 실로 민망하던 차인데 기쁘기 한량없다. 벼는 여산 땅에 있는 것이라 하니 하인과 말을 보내서 싣고오게 해야겠다. 구림 사람이 어물을 싣고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한다니까 임경흠이

그편에 물건을 구해서 보낸 것이다.

11일. 식후에 언명과 같이 걸어서 성의숙의 집에 가니 부재중이어서 이복령 집을 찾았으나 역시 집에 없었다. 또 조윤공을 찾았더니 나와서 맞아들여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아오는 길에 신경록의 집에 들르니 마침 조욱륜 씨가 와서 같이이야기를 나누는데 점심이 나와서 같이들 대접을 받고 해가 기울어서 돌아오는데들으니 이복령이 집에 와 있다고 하기에 들러서 같이 바둑 3판을 두었다. 복령이 삶은 밤을 내오고 또 생율 몇 되를 주어서 소매에 넣어 가지고 와서 어머님께 드렸다.

12일. 아침에 들으니 원수의 군관 조대림이 어제저녁에 완산 원수 진영에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기에 곧 나아가서 만나 보고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완산 사람이지초반동(芝草反同)의 일로 해서 영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숨어 기다리던 병사에 의해서 잡혔는데 그들에게서 찾아낸 문서 하나가 역모의 내용이었다. 그래서다그쳐 물으니 그 문서는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말하여 여기에 연관된 자 10여 인을 서울로 잡아 올렸으나 아직 확실한 단서는 잡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27일부터 주상께서 동궁께 양위하시겠다 뜻을 밝히신 후로는 모든 분야의 공사(公事)가 문을 닫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매 대신들까지도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앞에 엎드린 채 아직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을에 새로 도임한 태수 박춘무도 아직 상감께 숙배를 들이지 못하여 서울에 머물고 있는 중이니 상하가 모두 우울하고 민망할 뿐이라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권 생원 학을 찾아보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왔다.

13일. 변응익(邊應翼)이 찾아왔기에 술 1잔을 대접해서 보냈다. 오후에 무료해서 이 진사 중영을 심방하여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오는 길에 신몽겸(申夢謙)을 찾고 돌아왔다. 덕노의 복통이 아직도 낫지 않아서 목화를 구하러 황간 · 영동 땅에 못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가을일 전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병세가 이러하니 일은 많은데 꼬여서 모든 것이 계획과 같이 되지를 않는다. 어찌하리오. 다만 한탄할 뿐이다.

14일. 식후에 소즐을 찾아갔더니 마침 부재중이어서 조백공을 찾아가 보니 즐과

성덕린이 와 있었고 백공의 사위 이시호도 또한 같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수반을 대접받고 해가 기울어서야 일어났다. 돌아오는 길에 조군빙 (조희윤)을 심방했더니 이질 때문에 사양해서 나오지 않으므로 돌아서 오는 도중 에 한 진사 겸(謙)을 만나 말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15일. 무료해서 언명과 같이 보행으로 성민복의 소나무 정자 밑으로 가서 성(成)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이 대추를 1상자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

16일. 덕노로 하여금 소금 7두 · 대구 22마리 · 다시마 10묶음 · 고등어 4마리를 가지고 황간, 영동에 사는 사촌들에게 보냈다. 목화를 사오기 위해서이다. 게젓 45 마리도 나누어서 사촌들에게 주도록 같이 보냈다. 또 남포의 자방(신응구)네 하인이 와서 딸의 편지를 전해와 읽어 보니 무고하다 하여 기쁘다. 철인 은어 10마리를 구해서 보내왔다. 늙으신 어머님 공양하는 데 요긴하겠으니 기쁘고 또 기쁘다. 그리고 김백온의 편지도 와서 보았다. 오늘 신대흥과 이 별좌 덕후의 집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를 맞이하는 언동이 매우 정중했다. 자방의 종이 오늘 와서 권세가 없고 더구나 노비나 말도 없어서 좋은 일이 없다 하니 한심한 일이나 어찌하리오. 날이 어두웠는데 홍산의 유생 손승조가 항아리에 담근 과실주와 찰떡 1상자를 가지고 찾아왔다. 떡은 안에 들여보내고 주과(酒果)는 언명과 같이 달빛 아래에서 먹었다. 손은 전날 서울에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내올 때 도중에서 만나게되어 그 처지가 불쌍해서 거느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17일. 자방(신응구)의 종 몽숭이 덕개를 거느리고 남포로 돌아가는데 편지를 써서 부쳤다. 아침 늦게 무료해서 지팡이를 짚고 언명과 같이 수산도 위로 올라갔다. 눈앞에 펼쳐진 사방 들녘은 벼로 논두렁을 채웠고 이미 노랗게 익어 버려서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 동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앉아 있는 아래쪽에서 손 별감 몽겸이 와서 수확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아우와 같이 둑 위에 둥글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 돌아왔다.

18일. 한복이와 두 계집종을 시켜서 이통진 네 논의 벼를 베어 말리게 했다. 작년 보다는 작황이 조금은 양호하다. 그러나 진흙이 솟아오르는 곳이 많아서 결실이 부실하니 안타깝다. 언명과 같이 벼 베는 곳을 두 번 가 보았다. 요새 식량이 떨어 져 가는데 돌아다보아야 도와줄 곳은 없고 논농사를 지어 봐야 모두 병작이라 전체를 거둬들이지 못하니 소출이 적어서 답답할 뿐이다.

19일.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최연의 밭에 심은 콩을 뽑아서 작동(作司)을 시켰다. 모두 4동이 나왔는데 집에 남자 종이 없어서 타작은 못하고 방칫돌 집에 실어 들 여쌓아 놓게 했다. 덕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겠다. 오늘 장에서 닭 2마리를 파 는데 1마리는 쌀 1두 3승으로 쳐서 체를 사고 1마리는 쌀 1두 2승을 받았으니 처음 체를 산 가격보다는 부족하게 쳐졌다고 한다.

20일. 신임 태수 박춘무가 부임하는데 고을 안 관리들이 모두 모여서 신고하였다고 한다. 새벽부터 음산한 안개가 끼어 사방이 가려졌다. 늦게야 개기 시작했으나종일 을씨년스러운 날씨여서 자칫하면 비가 내릴 기미가 보였다. 만약 비가 내리면 전날 펴 놓고 말리고 있는 벼를 오랫동안 거둬들이지 못하겠으니 걱정이다. 또집 앞 밭에 그루갈이로 뿌린 조를 수확해서 서로 나누니 2두 6승씩이었다. 최인복의 막내아들이 와서 타작하는 것을 감독했다.

21일. 비가 내릴 것 같아 밤새 도둑 걱정이 되었는데 새벽에는 달이 나오고 음산한 기운은 걷혀서 밝은 아침 해가 돌아오니 참으로 기쁘다. 품삯 일꾼 두 사람을 얻고 두 계집종을 시켜서 먼저 길가 밭 그루갈이 콩을 거두고 펴 놓았던 벼를 거둬 묶어서 집으로 짊어 들였다. 모두 헤아려 보니 180속이었다. 또 죽림수(竹林守)가 은진으로부터 찾아와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 후에 한산으로 떠나갔다. 죽림진사는 청성군의 막내아들로서 집사람의 당질이 되는 사람이다. 돌아갈 때에 쌀 1수레를 맡기고 가면서 말하기를 남포에 돌아가서 종과 말을 보내 가지고 싣고 가겠다고 하였다.

22일. 저녁때까지 음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죽림수가 종과 말을 보내서 어제 맡겨 놓고 간 쌀을 싣고 갔다. 또 말더듬이 계집종을 시켜서 청량속을 베어서 묶으니 4속이었다. 여기에서 거둔 조가 2두 6승이었다.

23일. 오후에 진잠태수 이창복이 차사 임무를 띠고 본군에 도착하여 편지로 안부를 물어 왔다. 곧 말을 빌려 타고 군청에 들어가서 만나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무렵 본군의 신임 태수 박춘무가 와서 인사하고 간 뒤에 진잠태수가 또 나를 청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과 같이 저녁을 먹는데 나는 술 5잔을 마셨다. 본군 태수는 먼저 관아에 돌아갔고 나와 진잠은 방에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서 진잠의 말을 빌려 타고 집에 돌아왔다. 진잠태수는 신우봉(신홍점) 형의 사위고 평강의 소년 시절 친구이기도 하다. 들으니 우봉(牛峯)의 막내아들 환성(環成)이 지난달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니 실로 애처롭고 슬픈 일이다. 기재(企齊)(신광한)의 친손자는 다만 신홍점뿐인데 후사가 없으니 개탄할 일이로 다.

24일. 식후에 진잠태수가 어머님을 뵈러 찾아왔다. 집사람과 같이 나가서 만나 보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손님 대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웃집 붉은 대추를 사정해서 따다가 내놓고 같이 씹어 먹었다. 오전에 군으로 돌아갔는데 소임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내일 한산으로 간다고 한다. 그가 받은 차사의 임무는 역적 농민으로부터 상응한 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한다.

25일. 아침 일찍이 이 고을 태수 박춘무가 사람을 보내서 문안을 하고 진잠태수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나를 청해 왔다. 곧 말을 빌려 타고 군에 들어가서 본군 태수와 진잠태수, 그리고 내가 같이 상동헌에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침을 먹은 후 진잠은 먼저 나와서 한산으로 돌아갔다. 나는 태수와 같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올 때에 권경명(권학)을 찾았더니 부재중이어서 조대림 집에 들르니 조(曹)는 보리밭 가는 일을 밭둑에 앉아서 감독하고 있었다. 길가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성민복이 지나다가 들렀기로 성(成)의 말을 빌려 타고 먼저 집에 돌아왔다. 오후에 조대림이 찾아왔기로 아우와 같이양지 곁에 모여 앉아서 저녁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두워서 집주인 최인복의아우와 아들이 와서 문안을 하였는데 그들에게 들으니 홍성에 갇혀있는 조응개 등의 전체 가족이 삼수로 유배된다는 관문이 오늘 군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의 부친최인복은 이미 죽었는데도 이름이 그 관문에 게재되었으니 자손들이 두려워서 그연유를 와서 물어보는 것이다. 인복의 아우 인융도 또한 그 가운데 있다고도 한다. 스스로 택한 길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26일. 자방의 종 덕수가 남포에서 왔는데 익산으로 가는 길이라 한다. 자방의 편지

와 딸의 글도 같이 부쳐 왔는데 모두 무고하다고 하니 기쁘다. 간 절인 숭어 1마리를 보내왔으니 늙으신 어머님께 공양하게 되어 기쁘다.

27일. 계집종 옥춘이 자방의 종을 따라서 함열로 돌아가게 되어 편지를 써서 인아에게 전하도록 부쳤다. 식후 무료해서 아우와 같이 걸어서 이복령의 집까지 갔더니 집에 없어서 신경유를 찾아가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申)의 집에서 수반을 대접받았다. 해가 기울어서 집에 돌아왔다.

28일. 식후에 조대림의 말을 빌려 타고 개방바위 이 별좌 덕후의 집을 찾아가니 마침 별좌가 집에 와서 보리밭을 갈아서 씨 뿌리는 일을 감독하고 있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점심 대접을 받고 또 봉친하라고 병아리 1수를 주어서 저물 무렵에 말을 달려 돌아왔다.

29일. 품삯 일꾼 셋과 집에 계집종 셋을 시켜서 두 군데 밭에 벼를 베어서 말리게 했으나 한군데는 다 베지 못 하고 말았다. 아우와 같이 소나무 정자 밑까지 걸어가서 감독관 신경유와 권학·조대림·성민복·윤흔 등이 모여 앉아서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둔전을 병작하는 작인이 점심과 술 그리고 찬을 차려서 받쳐 내왔다. 여럿이 같이 먹고 있는데 권경명이 또 술 단지와 게를 사와서 먹었다. 집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오른쪽 무명지에 종기가 생겨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체찰종사관 강점이 어제 군에 올 때 의원 김준도 또한 거느리고 왔다 하기에 곧 말을 빌려 타고 군에 들어가서 김준을 보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군의 관비로서 학침의(學針醫)로 있는 복지를 불러서 15군데에 침을 놓았으나 종처의 부기(浮氣)가 가시지 않고 독기가 남아 있는 것 같다.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상처가 더 악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아무래도 차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9월

1일. 새벽닭이 울면서 퍼붓기 시작한 폭우가 시간이 가면서 멎었다. 어제 펼쳐 놓은 벼가 다 젖어서 한동안은 묶어서 거두어 내지 못할 것 같다. 한심스럽다. 그러나 아침에 비가 멎기로 다시 계집종을 시켜서 어제 다 베지 못한 벼를 베어서 펼쳐 널게 했다. 집사람 종기가 밤새 미미하게 통증이 오더니 아침이 되면서 좀 멎는 듯

하다. 아침 전에 말을 빌려 타고 가서 태수를 만나 보고 문의하였더니 즉시 복지로 하여금 3일의 말미를 주면서 환자 옆에서 떠나지 말고 간병하도록 지시했다. 또 침놓을 경혈 3개 처를 가르쳐 주어 복지가 즉시 집에 와서 침을 놓았다. 태수 박 공(朴公)은 침술로 유명한데 마침 이 고을 태수로 도임한 것이 또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또 태수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에 친구가 각별히 부탁한 사람은 권 지사ㆍ 징령공(微令公)ㆍ남익공 상문ㆍ조 정랑 응록ㆍ이 주부 수의(緩義)ㆍ임 별좌 경원 (慶遠)이다. 저녁에 복지가 또 와서 침을 세 군데 놓았다. 평강이 뜻밖에 들어오니온 집안에 기쁨이 넘친다. 한자리에 모두 모여 앉아서 밤중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지고 온 물건은 말린 꿩 9마리ㆍ노루포 3첩ㆍ붉은 팥 5두ㆍ좁쌀 2두 5 승ㆍ목미 6두ㆍ꿀 1두ㆍ소주 2병ㆍ잣 6두ㆍ잣떡과 약과대계 등이다.

2일. 성민복·신경유·한겸·권학이 평강(오윤겸)을 찾아와 보고 돌아가는데 소 주를 대접해서 보냈다. 이번에 평강에서 온 사람들과 말이 올라갈 때에 아우가 어 머님을 모시고 먼저 서울로 돌아가고 우리 집 일가는 뒤따라 결성으로 가서 겨울 을 난 후에 거취 문제를 생각하기로 의논이 결정되었다. 또 저녁때 덕노가 돌아왔 는데 목화가 그곳에서도 매우 귀해서 근근이 12근을 구해서 가지고 왔다. 이곳에 서 가지고 갔던 대구 2마리 · 다시마 2묶음은 다시 가지고 돌아왔다. 안타깝다. 사 촌들이 들깨 2두 · 붉은 팥 3두 · 대추 2두 · 호두 4백 개 · 홍시 1백 개를 보내왔다. 조정에서 반포한 통보문을 보니 상감께서는 아직도 정청으로 돌아오시지 않아 대 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앞에 엎드려서 월여를 지내고 있으나 아직도 상소에 대한 윤허가 없어서 모든 공사가 승정원에 쌓였다고 한다. 심지어 역적모의를 한 무리들에 대한 심문조차 못하고 있으며 동궁께서는 이번 일로 해서 심신이 편안치 않아. 식사를 아니하시는 지가 오래 되었다 하니 장차 큰 병환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여 온 조정이 허둥지둥하여 할 바를 모르고 있다 한다. 나랏일이 장차 어떻게 되 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답답하고 걱정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일 본 화천현에서 지난 8월 방과 집이 무너지고 기우는 지진이 한때 일어나서 관백의 병사들 수만 명이 압사했으나 양국 대사와 수행했던 명나라 관원은 한 사람도 상 하지 않고 모두 안전하다고 한다. 평수길(平秀吉)의 죄악이 온 누리에 차 있으니 이와 같은 혹독한 재앙이 내린 것이리라. 이는 곧 하늘의 참뜻일지니 흔쾌한 마음 금할 바 모르겠으나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다.

3일. 아침에 평강이 군에 들어가서 태수 박춘무를 만나 보고 돌아왔다. 오후에는 해운판관 조존성이 군에 왔다가 평강이 이곳에 온 것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 왔다. 따라와서 그를 만나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이중영이 왔다. 관에서 제공하는 술과 과일을 밤이 깊어질 때까지 마시고 파했다. 판관은 평 강과 같이 잤다. 판관이 쌀과 콩 각각 2두·새우젓 5승·게젓 10개를 구해 보냈다. 감사할 뿐이다.

4일. 이 고을 태수 박춘무가 판관이 여기에 와 있으므로 해서 자기도 또한 와서 외 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살피게 했다. 나도 나가서 태수를 만나 보고 소주 1잔과 잣떡을 대접했다. 판관이 평강과 더불어 활을 쏘는데 조대림도 와서 같이 쏘았다. 관에서 제공하는 주과(酒果)를 들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활은 85번씩 쏘 아 평강은 45개를, 판관은 32개 그리고 조대림은 18개를 맞혔는데 판관은 흡족하 지 않은 마음으로 먼저 한산으로 떠났다. 또 어제는 잣 3승·생청 1승·오미자 1 승·송화 가루 1승을 태수 박춘무에게 보내고 잣 2승·생청 1승·문어 1가닥·다 시마 1주지를 유선각에게 보냈다. 들으니 내일이 그 집의 담제 날이라고 해서 보낸 것이다. 소즐이 또한 찾아왔기로 소주와 찰떡을 대접하고 또 생청 1승·잣 1승· 다시마 5잎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은 평강에서 온 하인과 말을 이용해서 두 군데 논에 깔아 놓은 벼를 묶어 들였다. 상답(上畓)에서는 93뭇이 나왔는데 1뭇에서 2 말이 나온 셈이나 간혹 더 소출된 것도 있었다. 하답(下沓)에서는 167뭇이 나왔고 1뭇에 1말 꼴로 수확되었으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있었다. 또 집사람이 오늘 은 날이 음산해서 침을 맞지 못했으나 더 심하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부기는 아직도 가시지를 않는다. 자방의 하인 춘수가 전하는 편지를 보니 집안이 모두 무고하다는 소식이어서 매우 기쁘다. 살아 있는 게 20마리를 보내왔다.

**5일.**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 늦게야 개기 시작했으나 둔답 벼 타작을 하려던 것이 습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으니 걱정이다. 춘억이 익산으로 돌아가는데 생청 1 승과 편지를 써서 신상례에게 전하도록 부쳤다. 또 평강 하인과 말을 함열 인아에

게 보내는데 생청 1승은 김백온에게, 그리고 반 되는 인아 처삼촌 이효성에게 전하도록 실려 보냈다. 또 아침 후에 평강이 견암 이 별좌의 집을 가는데 편지와 잣 3 승·다시마 1속을 보냈다. 어두워서 돌아왔는데 별좌가 편지를 받고 감사하더라는 것이다. 집사람 수종이 아직도 차도가 없어서 복지가 와서 10여 군데에다 침을 놓고 갔다.

6일. 평강 하인들이 언명(오희철)이 지은 둔답 벼 타작을 해서 4석 2두씩 서로 나누었으나 검불은 손대지 못했다. 유선민이 오늘 담제를 끝낸 후 편지를 보내서 우리 부자를 청했다. 한나절 지나서 말을 타고 달려가 보니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 마음껏 먹고 마신 뒤에 돌아왔다. 저녁때 평강이 태수를 만나러 군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밤늦게 돌아왔다. 인아가 근친을 왔다.

7일. 신경유가 편지와 콩 1두 · 닭 1수를 평강에게 보내왔고 경담도 또한 편지와 같이 모과 10개 · 토란 1두를 보내와서 곧 답장을 써 보냈다. 마침 한겸이 와서 평강을 만나 보고 돌아갔다. 집사람이 침을 맞았는데 밤새 아파서 고생했다.

8일. 장모 제사를 평강과 인아가 같이 올렸다. 나는 고단해서 참사하지 않았다. 아침에 허식이 평강을 찾아보고 돌아갔다. 평강에서 온 하인들 5명이 둔답 벼 타작을 하고 보니 모두 5석 10두였다. 검불은 손대지 못했다. 인아가 종과 말을 거느리고 함열로 떠나는데 내일 제 처를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평강은 성민복의 소나무정자 밑에 가서 권학·조대림과 같이 활을 쏘러 갔다. 나는 타작 일 때문에 같이가지 못하였는데 들으니 태수 박춘무가 오늘 우리가 둔전에서 거둬 타작한 전량을 우리 집에서 쓰도록 하게 하였다니 감사한 마음 이를 데 없다. 전 장성태수 이옥여 (이귀)가 노모를 모시고 처자가 같이 익산으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라 하여평강이 어두워서 군에 들어가 보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나는 내일 시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가보지 못하였다. 어두울 무렵 평강 관원이 팔뚝에 매를 앉혀서들고 왔다. 그 생김새가 매우 날카로운 새매인데 8치 반은 되는 듯하다. 또 약과 1상자·돌버섯 3두·참기름 2승·말린 꿩 5마리·대구 2마리를 가지고 왔고 간 절인 송어 2마리는 삼척태수 김권(金權)이 보내 온 것이라 하여 같이 가지고 왔다.

람을 보내서 우리 부자를 청해 왔기로 평강이 먼저 가고 나는 뒤따라 군에 들어가 보니 태수가 초장 과녁을 치게 하여 평강과 이장성(이귀) 그리고 조대림과 태수가 짝이 되어 활을 쏘고 있는데 그곳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학 · 이중영 · 이자 등 7. 8명이었다. 그런데 신대흥 · 김 봉사(김경)와 남당 나루터에서 만나기로 미 리 약속한 바가 있었으나 태수가 굳이 못 가게 만류하므로 부득이 가지 못하게 되 었다. 이에 사람과 말을 보내서 신과 김을 모셔오게 하였으나 약속 어긴 것을 책망 하고 사람과 말은 그냥 돌려보내면서 오지를 아니하였다. 우리 부자가 곧 달려가 려고 하니 태수가 말하기를. "내가 초청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곧 아 전 우두머리를 시켜서 태수 편지를 가지고 말을 달려 타고 굳이 초청을 하여 신. 김, 그리고 이 별좌 덕후가 군에 들어오니 서로 기쁘게 만나게 되었다. 관에서 차 려 나온 술과 안주가 산해진미를 고루 갖추었고 또 국수와 떡도 차려 내니 서로 주 고받으며 마음껏 먹고 마시니 만취가 되어 나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평강은 다 시 상동헌에 가서 여러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밤중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 왔다. 언명도 또 신경유 삼형제와 같이 성민복의 소나무 정자 밑에서 만취가 되도 록 마시다가 돌아왔다. 전날 이들과도 만나기로 약속된 지가 오래인데 이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사세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나 실로 약속을 지키지 못 하였다. 사세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나 실로 미안하고 또 미안한 일이다.

10일. 아침 일찍 소즐·유선민이 호과를 가지고 전별하러 왔고 신경유·성민복도 또한 다녀갔다. 신·김두 분도 또한 군에서 나와 이곳으로 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아침 일찍 집사람 가마를 타고 군에 들어가서 장성의 어머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다. 이분은 집사람의 고모이기도 해서 종기의 차도가 없어 불편한 몸이지만 꼭 뵙고 작별의 인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늦게 이 별좌가 편지와 쇠고리를 보내오면서 매가 보고 싶다 하여 매를 팔뚝에 앉혀서 가지고 갈 사람을 보냈기에 곧 딸려 보냈더니 평강에게로 말먹이 콩 5두를 보내왔다. 또 용안태수(정경지)가 사람을 보내서 문안 편지를 전하고 평강에서 가지고 온 매를 사고 싶다는 뜻을 알려왔으나 이미 이 별좌에게 보낸 뒷일이라 그러한 사정을 편지에 적어서 답장을 보냈다. 집사람은 오늘 침을 맞았다. 소즐이 왔었고 평강과 같이 잠을 잤다.

11일. 아침 일찍 성민복·소즐이 술과 실과를 가지고 와서 평강을 전별하고 조대림 도 또한 왔다. 좀 늦게 태수도 평강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기로 언명과 같이 나가서 맞았다. 관에서 주과를 가지고 왔다. 조김포(조희식)가 또한 술과 실과를 가지고 전별하러 와서 각자 술잔을 돌린 후 태수와 백공이 각각 자리에 나가서 작 별의 술잔을 나누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서 평강이 먼저 자리에서 나왔다. 안 에 들어가서 고별인사를 하고 남포를 향해서 떠나갔다. 남포에서 자방을 만나 본 후 보령에서 그곳 농사일을 살피고 난 뒤에나 돌아간다 하니 이달 스무날 후에나 서울에 당도할 것이 아니겠는가. 세전 섣달에 한번 와서 겨우 3일을 유숙하고는 과거 때문에 떠나 버린 후에 10여 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또 와서 겨우 8일간을 머 물렀다가 돌아간 것이다. 8일간은 일이 많고 뒤숭숭한 매일이어서 하루도 조용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떠나보냈으니 심사가 허전하여 만나보지 않은 것만 같다. 평강 이 문을 나가는데 불현 듯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산란하여 총총하게 시간을 보냈다. 세상 돌아가는 대세의 탓이라고는 하지만 자식이 4명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같이 살지 못하고 각각 먼 곳에 있으니 한심스럽 고 개탄할 일이다. 그러나 어찌하리오. 본군 태수(박춘무)가 둔답 벼 타작하는 것 을 제방 위에 나와 앉아서 감독하고 있었다. 오후에 그곳까지 걸어 나가서 태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대림이 또한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먼저 작별하고 돌아왔다. 태수가 물벼 2석·콩대 3동을 보내주었다. 참으로 뜻밖의 후의로서 감 사할 뿐이다.

12일. 덕노로 하여금 관에 바칠 둔전도 조로 평말 3석 3두를 싣고 둔전사령 도질손의 집에 갖다 놓게 하여 그로 하여금 관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평강에서 온 하인들을 시켜서 집주인네 밭 병작한 콩을 타작하게 하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일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또 소즐이 부인과 같이 술과 떡을 준비해 가지고 어머님을 뵈러 왔다. 어머님께서 15일 상경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그때마침 랑성정이 와서 그와 같이 소즐이 가지고 온 술을 취하도록 각자가 마시고 먹었다. 집사람이 나와서 랑성정을 만나 보고 또 상하의 점심을 마련해서 대접했다.비 멎기를 기다렸다가 작별하고 연산을 향해서 떠났다. 나와 언명은 아침을 안 먹

은 빈속에 술만 마셔서 취해 쓰러졌다. 랑성은 평양 수령의 아들로서 나의 처오촌이 되는 사람이고 재수 시험에서 승정(陞正)되었었다. 그의 매씨가 임천 개바위에살고 있어서 만나러 왔다가 역로에 찾아온 것이다. 내가 그의 조부모께서 평상시족친들에게 후하셨다는 말을 하였더니 랑성이 취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줄줄 흘리니 긴 수염이 모두 젖어 버릴 정도였다. 그는 평일에도 술이 취하면 문득우는 성품이었다. 아들과 여자들이 모두 웃어댔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처가 난리가 난 처음에 일시에 모두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선대의 일을 생각하면 취중에 문득울음이 나오게 되는 처지가 불쌍하기만 하다.

13일. 송인수가 전인해서 문안 편지를 보내고 겸해서 삶은 우족 2짝, 무 70개를 보내왔으니 그 후의가 무척 고맙다. 평강에게 편지를 써서 오래 전에 와 있던 종을 보령 땅 평강 있는 곳을 지적하여 쫓아 보냈다. 또 품삯 일꾼 셋과 평강에서 온 하인 셋, 그리고 덕노로 하여금 두 군데 보리밭을 갈게 했다. 소는 이 진사·조 판관두 집 것을 빌려 모두 갈았으나 낙종을 끝내지 못하였고 씨보리 역시 부족했다. 조대림이 와서 구경하매 밭둑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14일. 보리밭 씨를 다 뿌리고 두둑도 다시 지었다. 전날 비 때문에 끝내지 못했던 연(淵)의 밭 콩 타작을 마치고 서로 나눈 것이 6두였다. 연이 와서 타작하는 것을 보고 나누어 갔다. 상 판관 시손이 찾아왔기로 소주 1잔을 대접하고 돌버섯 2승을 주었다. 이 진사가 오후에 찾아왔기에 그에게도 돌버섯 2승을 주었으나 술이 없어서 대접하지 못하고 보내니 매우 유감이다. 집사람 손에 종기가 아직도 차도가 없이 손바닥까지 터져서 검은 색깔을 띠게 되었으니 그 증세가 오래 갈 것 같다. 실로 걱정이다. 또 복지가 와서 침을 놓았다. 짐 싣는 말이 발을 절고 있는 것을 저녁 때에야 알았으니 어머님 상경시에 타고 가시지 못할 것 같다. 떠나실 날자는 임박했으나 어찌할 바가 없으니 큰 걱정이다.

15일.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오늘 떠나시기로 예정했었으나 여러 가지 준비하지 못한 일이 많아서 20일로 미루기로 했다. 또 아침 전에 발을 절고 있는 말을 손수 끌고 조백공(조희식)의 집으로 갔다. 백공이 말 고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별로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필경 너무 부려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놓을 필요가 없다

고 한다. 그래서 백공과 같이 소즐을 초청해서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다. 식후에 회지에서 군수 박춘무가 둔전 벼 수확 감독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만났다. 태수는 집사람 종기 차도를 묻고 굳이 만류해서 그와 같이 점심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마의를 불렀더니 절고 있는 말에게 침 한 대를 놓고 다시 살펴보고는 상처가 전혀 없다고 한다. 또 복지가 와서 집사람 종처에 침을 놓았다. 덕노가 거둬들인 장지의 벼를 각각 나는 것이 21두다. 노년에 부지런히 고생한 소득이 이렇게 오죽잖으니 한심스럽다. 어두워서 성민복이 술을 가지고 왔기에 언명과 같이 마셨다.

16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니 내일은 어머님께서 떠나기로 하셨는데 큰 걱정이다. 아침 늦게부터 비가 들기 시작했다. 성민복이 쌀과 콩을 각각 2두씩 언명에게 보 내왔는데 서울 가는 노자에 쓰라는 것이다. 이복령이 또 탁주 1동이를 어머님 행차 에 따라가는 하인들 먹이게 하기 위하여 보내왔다. 후의가 참으로 고맙다. 언명은 종일 덕노를 시켜서 여행에 필요한 행구를 다듬어 손대고 있었다. 나는 별도로 들 깨 1두 · 쌀 7두를 내일 어머님께서 상경하시는 데 필요한 식량으로 드리고 또 행 차 양식 1두·행차중 반찬용 자반·젓갈도 올렸다. 평강에게 가지고 온 약과와 이 곳에서 만든 찰떡도 드려서 중간에 시장하실 때 잡수실 것으로 준비해 올렸다. 언 명에게도 녹두 1두·팥 1두를 주어 노자에 쓰도록 했다. 평강에서 온 하인들에게 는 말 먹일 콩 3두를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말먹이를 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 들에게 아침 · 저녁을 대접했다. 짐 싣는 말이 발 절던 것이 좀 차도가 있으니 기쁜 일이다. 집사람 수종이 더 부어올라서 팔뚝 위까지 물집이 생겼던 것이 스스로 터 져서 세 번이나 백즙을 짜냈으나 차도는 없고 점점 더 부어서 정신까지 혼미한 상 태이고 약간의 두통도 있어 음식을 전폐하게 되었다. 어머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박두하는데 병세가 이러하니 실로 걱정이다. 오후에 복지가 와서 먼저 놓았던 곳 을 또 침으로 타종하고 별도의 몇 군데에다가 더 침을 놓았다. 저녁에 송인수의 종 이 보령에 가서 평강을 만나 편지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평강의 편지를 보니 이 곳에서 떠나던 날 자방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고 남포현에 들리고 학림 · 죽림 형제 들의 만류로 오늘에야 비로소 보령에 있는 제 장모집에 도착하매 또 하루를 유한 후 내일 결성으로 향한다 하였고 저희들 상하 일행이 무사하다고 한다. 그러나 결성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또 수 3일은 필경 묵게 될 것이므로 이번 여행이 23, 4일이 걸려야 서울에 당도한다는 계산이니 어머님께서 아마도 먼저 서울에 올라가실것 같다.

17일, 아침 일찍 신주 전에 차례를 올리고 주머니 속에 신주 상자를 넣었다. 덕노 로 하여금 등에 짊어지게 하고 내가 배행하여 정산 개질지의 집에 도착했다. 인아 는 성민복의 말을 빌려 타고 중간까지 따라오다가 돌아갔다. 아침 전에 성(成)이 왔다가 가는데 언명이 따라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와 식후에 어머님을 되시고 길을 떠났다. 어머님은 지난 갑오년 9월에 태인으로부터 모셔온 이래 이곳에서 3 년을 머무르셨고 아우 언명 일가도 금년 3월 이곳에 왔다가 오늘 9월에 상경하기 에 이른 것이다. 처음에는 온 집안 식구가 일단 결성 농막으로 가려 하였으나 많은 식구들의 호구책이 극난하고 또 어머님께서 서울의 옛 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 라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다달이 양식과 찬을 준비해서 보내 드리기로 하여 하 인과 말이 있는 계제에 부득이 아우로 하여금 처자를 거느리고 어머님을 서울로 먼저 모셔 가게 한 것이다. 우리 일가는 이 고을에서 얻어 쓴 채무를 상환한 후에 새달 중에 결성으로 돌아가서 평강이 장만해 놓은 양식으로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명년 상경하게 된다면 집안 식구가 모두 서울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만약 여의치 못하면 1년간을 그곳에서 더 머물고 오이를 가꾸며 양곡을 저축하여 가을을 기다 렸다가 토당의 선영 산하에 먼저 초가집을 짓고 미리 돌아갈 곳을 마련한 후에 온 식구가 올라갈 계획이다. 그러나 사람 일이 어긋나는 수가 많고 조정은 다사다난 할 뿐만 아니라 흉악한 도적들이 아직도 국경에 웅거하고 있으니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우 일가와 더불어 늙으신 어머님을 오래 오 래 모시고 싶었으나 그는 떠나가고 나는 여기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배고픔과 추 위를 같이 주선해서 대처해야 할 형제간인데 사세가 이와 같으니 아우가 먼저 어 머님을 모시고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집사람의 종기가 심해져서 고통이 가중되어 기동을 못하므로 어머님께서 떠나시기에 앞서 친히 집사람 누워 있는 곳으로 오셨 다. 집안 아이들까지 모여 앉으니 근심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눈물을 그치 지 못한다. 사람의 정이 어찌 그러하지 않으리오. 어머님 슬하에서 멀어지고 소식 도 또한 드물게 듣게 될 터이니 더욱 슬프고 답답하리라. 가는 도중에 개질지가 마 중을 나와 있다가 길을 가리켜 주매 정산 개질지의 집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유숙 했다. 개질지의 부친 유량이 저녁을 준비해서 상하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 말먹이 콩도 1두를 가져다 주게 한다. 믿음직하고 후한 사람이나 그가 학질로 매우 고통을 겪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무사하게 목숨을 보존해 나갈지 매우 염려된다. 가엾고 가여울 뿐이다. 18일. 비 올 증후가 보이니 큰 걱정이다. 아침을 일찍 먹고 언명이 어머님을 모시 고 북쪽을 향해서 떠나갔다. 나도 따라서 동구 밖에까지 나가 배웅하고 일행이 걸 어가는 먼지를 멀리 바라보니 절로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 했다. 개질지와 덕노가 모시고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내 말은 절던 발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여 먼 길을 걸어올 것 같지가 않아서 감동을 말몰이로 거느리고 인 아의 말을 타고 떠나왔었다. 그 말의 성질이 매우 노둔하고 용열하여 큰 채찍으로 뒤따라가며 매질을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걸음걸이가 더디고 더뎌서 근근이 돌아오는 길의 반가량 와서 비가 내리니 옷이 젖어 부득이 상 판관 시손의 집을 찾 았으나 판관은 집에 없었다. 또 권경명이 집에 있는가를 알아보니 그도 추수하러 나갔다. 마침 판관의 소실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 나와서 나를 사랑으로 안 내하기에 들어가 앉았다. 술을 가져와서 마셨으나 주인 없는 집에 무료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비는 계속해서 내리니 우비를 갑자기 구할 도리도 없어 큰 걱정이 었다. 판관의 소실이 또 나와서 하는 말이. "진사께서 곧 돌아오실 터이고 날은 또 저물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서 올리겠으니 여기에서 유하십시오"라고 하나 주인 없는 집에 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비가 좀 멎는 듯하기로 곧 출발해 나와 서 동구까지 왔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판관을 만났다. 말 위에서 서로 인사하고 찾 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오는 사연을 말하니 굳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역권 하였으나 이미 떠나온 길이므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판관의 우비를 빌려 입 고 말을 몰아 집에 달려오니 날은 아직도 어둡지 않았다. 집사람이 어제 두 번 침 을 맞았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맞지 않았으나 손바닥이 더 부어올랐고 팔뚝에 구

멍이 난 곳에서는 백즙을 두 번이나 짜냈으나 좀처럼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걱정되는 마음 어찌 말로 다하랴. 그리고 판관의 소실과 조응립의 소실과는 비록 친척은 아닐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그들의 이웃에서 우거하였기 때문에 평상시 만 나도 피하는 일이 없을 만큼 무관한 처지여서 오늘 판관이 없는데도 그와 같이 후 대하였으리라. 오늘 비는 저녁때까지 그치지 않으니 어머님 행차가 필경 중도에서 멈추었을 것인데 미루어 헤아려 보니 정산 송치 넘어 농막에서 쉬셨을 것이다. 19일, 아침에는 비가 오더니 늦게는 개기 시작했다. 어머님 행차가 필시 늦게 출발 하였다 하더라도 온양에는 도착하였을 것이다. 집사람이 아침을 먹고 침을 맞은 후 저녁때 또 맞았다. 오늘은 종세(腫勢)가 좀 멎는 듯하고 음식도 들었다. 기쁘다. 또 조응개·최인우가 홍성 감옥에서 이 고을로 옮겨 왔기 때문에 집에 와서 자고 오늘 군에 들어가는데 나를 와서 본 응개는 소리를 내며 슬피 우니 참으로 애처롭 고 불쌍하다. 들으니 명년 봄에는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는 하나 상감께 글을 올려 죄를 면하게 해 달라고 하니 그걸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응개 · 인우는 모두 역 적의 협박으로 부역한 자들인데 전 가족이 삼수로 유배된 벌을 홀로 받게 되었다. 소주 2잔을 대접해서 보냈다. 밤에 자방이 남포에서 왔다는 소리를 잠자다가 듣고 일어나 나가서 맞았다. 오래 적조했던 터에 뜻밖에 만나서 기쁘고 위로됨이 어찌 말로 다하랴. 비가 들은 뒤에 출발하였는데 소를 1마리 이끌고 오느라고 행보가 늦 어져 10리 밖에서 날이 저물었다고 한다. 딸이 보낸 물건은 찰떡 1상자ㆍ청주 1단 지 · 염전어 5마리 · 숭어 1마리 · 청각 1꾸러미이다. 전어 맛이 매우 좋아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을 하니 슬픈 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 자방과 같이 대화를 나누 다가 밤중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또 들으니 중아가 물건을 의지해서 서기 도 하고 손뼉을 치면서 논다고 하니 사랑스런 모습이 간절히 보고 싶다.

20일.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서 가겠다는 자방을 극구 말렸으나 모레가 문경공의 기제일이어서 비를 무릅쓰고라도 그날까지 가야겠다고 한다. 밥을 새로 지었으나 밥상에 먹을 것이 없어 닭을 잡아 찬을 만들어 대접한 후 비를 맞고 떠나갔으나 필시 중도에 더 걸어갈 수 없는 어려운 경지에 다다르지 않았는지 매우 걱정이 된다. 소를 이곳에 버리고 나에게 맡기면서 내일 사람을 보내 가지고 끌어가겠다고 하였

다. 또, 오늘 같은 세찬 비에 어머님 행차가 분명히 중간에서 머물고 있을 터인데 당초 예정보다는 수 3일 늦어질 것이고 노자는 부족하지 않을지라도 길은 질고 말은 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답하고 걱정되는 심사, 비길 바 없다. 저녁 무렵에 날이 개기 시작했으나 날씨는 음산하다. 인아의 처가 아침부터 약간의 두통이 있으면서 오한이 일어 종일 그치지 않으므로처음에는 학질 증후가 아닌가 하였는데 밤중이 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감기인 듯하다. 어두워지면서 단아도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그 고통이 극열하여 구토까지 계속하니 집사람은 귀신이 범한 것 같다고 하매 늙은 계집종을 시켜서 돈과 밥을 바쳐 귀신을 물리치게 했으나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밤을 새우며 진통으로 신음하니 답답할 뿐이다. 집사람은 또 침을 맞았는데 차도가 있는 듯하니 기쁘다.

21일. 비록 비는 내리지 않으나 음산하고 바람이 분다. 어머님 행차가 오늘은 평택쯤 당도하였을 것이나 요사이 같이 진흙길에 어려운 고초가 많았을 것이니 내가 먹고 자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다. 또 인아의 처와 여식의 통증이 아직도 멎지 않는다. 답답하고 걱정이다. 자방의 하인 춘복이 돌아왔기에 물어보니 어제 자방은 빗속을 떠나간 후에 무수포에 이르렀으나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고 상류로 올라가 은진 넘어 강변에 간신히 도강하여 여산 땅에 인접한 곳에서 유숙하였다 한다. 자방은 오늘 익산을 향해서 떠나가고 춘복은 소를 끌어가기 위해서 돌려보낸 것이다. 종일 빗속을 갔으니 행장은 모두 젖었을 것이다. 어제 그렇게 간곡히만류하였는데도 막무가내 돌아가더니 끝내 어려운 고초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한편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다. 복지가 와서 집사람에게 침을 놓았다. 조백익이 술국이 있다고 편지로 청해왔기로 조의 집에 갔다.

22일. 종일 바람이 불고 때때로 눈도 뿌려서 첫 추위가 몹시 차갑다. 이러한 때에 어머님 행차가 진위에 당도하였을 것으로 추상된 길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다. 아우가 오늘 같은 찬 비바람이 이는 날은 행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자방의 종 춘복이 소를 끌고 떠나갔다. 오후에 복지가 와서 집사람의 종 처에 침을 놓았다. 그러나 두 여아의 두통은 차도가 없으니 답답하고 걱정이다. 그

런데 인아의 처는 나아지는지 밥을 먹었다.

23일. 음산하고 차가운 날씨에다 비까지 내린다. 어머님 행차가 오늘은 율전 생원 (오윤해)의 집에 도착하였는지 이렇게 일기가 불순하니 그 여부가 더욱 궁금하구나. 초조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아침에 들으니 한산태수 강덕서가 차사 임무를 띠고 이 고을에 왔다기로 말을 빌려 타고 군에 들어가서 만났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권경명이 당도하여 서로 대화를 하고, 이 고을 태수가 들어와서 겸상으로 아침을 먹었다. 내가 복지를 태수 앞에 불러서 매일 집사람 종기 때문에집에 와서 침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고했다. 아침 후 늦게 한산태수는 떠나갔다. 나와 경명은 각각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사람 종처가 아직도 차도가없고 인아의 처와 딸아이 단아가 밤새 진통을 겪었다. 인아 처는 왼쪽 귓구멍이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볼은 부어올랐으며 목젖은 내려앉아서 신음하는 소리가 멎지 않으니 답답하고 걱정이다. 복지가 와서 집사람에게 침을 놓고 난 뒤에인아의 처를 살펴보게 했더니 태수에게 보고하고 경락(經絡)에다 침을 놓아야겠다고한다. 날씨는 추워지고 밥상에는 환자의 구미에 맞는 것을 장만해 주지 못하매 양쪽 방에서는 병자의 신음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알지못하겠다. 답답하고 한심한 심사를 어찌하리오.

24일. 새벽부터 비가 뿌리고 바람이 분다. 어머님 행차가 오늘은 토당의 선영 산지 기집에 당도하였을 것인데 일기가 불순하여 길을 떠났는지 모르겠다. 답답하고 걱정스런 마음 그지없다. 날씨가 아침 늦게부터 들기 시작한다. 권경명이 찾아오자 뒤따라 조대림도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와 더불어 말을 같이 타고이 진사 중영을 찾아갔더니 마침 함열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때 이유립이 따라와서 우리들을 방으로 맞아들였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집사람은 오늘 또 침을 맞았고 인아의 처는 귀에다 침을 놓았는데 병세가 어제와같이 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직 차도가 보이지를 않는다. 단아 역시 극심한 두통으로 신음하다가 오후에는 인사불성이 되고 말의 조리를 잃으면서 수족이 차가워지고 안색이 또한 변해 가므로 약황으로 부둥켜안고 마침 오래 묵은 청심환 1개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갈아 가지고 동변에 섞어 먹이고 또 두 번 먹

인 후 얼마 동안 지나서 마침내 소생하였다. 목덜미와 온몸에서 땀이 나고 차차 수족이 더워지기 시작했으나 말하는 것이 아직도 분명하지 못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속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 조임피 수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김 참봉 담령이 태인에서 상경하는 역로에 들어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김 참봉은 언명의 처남인데 매씨가 상경한 것을 모르고 들어온 듯하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저녁을 대접하고 유숙하게 했다. 조임피가 우리 집 식구들의 병고 이야기를 듣고 청심환 1환, 소합원 3환을 주고 돌아갔다.

25일. 단아의 증세가 약간 소생한 듯하나 말을 하고 싶어도 뜻과 같이 아니 되고 밤새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린다. 우리 부부는 서로 교대 하여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어서도 어제와 같이 또 인사불성이므로 청심환과 소 합원을 동변에 개서 먹이니 한참 만에 깨어났다. 정신이 아득해져 망극할 지경이 다. 곧 향비를 관아로 보내서 청심환과 소합원을 구해 오게 했더니 태수가 새로 조 제한 청심환 1환을 그리고 조임피가 또 청심환과 소합원을 각각 1환씩하고 녹두 2 승을 보내 주었다. 깊이 감사한다. 또 인아로 하여금 이복령에게 달려가서 길흉점 을 치게 했는데 글로 써 오기를 "괘효가 순수하게 길하여 흉한 징조가 조금도 없 으니 오는 7, 8일경에는 차도가 있을 것인 즉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병세가 이와 같이 위급하니 답답하고 걱정스러울 뿐이다. 아픈 여식 아이가 석류 를 먹고 싶어 하는데 이곳에서는 구할 길이 없어서 편지를 써서 아침에 말더듬어. 계집종을 이 별좌에게 보냈다. 인아의 처는 어제에 비해서 조금 소생의 기미가 보 이나 귀 아픈 증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다. 걱정이다. 새벽에 김 참봉(김담령) 이 떠나갔다. 병자들의 우화이 있으니 아침을 일찍 해서 대접해 보내지 못했다. 형 편이 이러하니 어찌하리오. 편지를 아우한데 써서 전해 주도록 부탁했다. 또 어머 님 일행의 행차가 도중에 비록 비에 막혔다 하더라도 오늘은 서울에 도착할 수 있 는 날인데 당도 여부를 알 길이 없다. 일기는 몹시 추운데 걱정스런 마음 놓을 수 가 없구나. 저녁에 말더듬이 계집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별좌 댁을 가는 도 중에 출타하는 별좌를 만나 편지를 보였더니 즉시 말더듬이 계집종을 자기 집으로 보내면서 전하라는 말이 석류 4개 · 쇠고기 1근 · 퇴미 1꾸러미를 주어 보내라고 하 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하다. 여식 단아가 석류를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즉석에서 반개를 먹었다. 함열 인아의 처가 부리던 계집종이 상전의 병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편에 김백온이 안부를 물어 왔다. 집사람이 침을 맞았고 인아의 처도 또한침을 맞았다. 유선민·조광좌가 우리 집 병 우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잠시 앉았다가 돌아갔다. 단아가 또 인사불성이 되어 청심환을 먹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차 회복되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체상이 상감 분부로 서울로 돌아가게 되어 금명간 은진에 도착하므로 감도사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게 되어서 이 고을 태수도새로 도임한 명을 받들기 위해서 오늘 은진 순찰사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한다.

26일, 새벽닭이 울면서 단아가 어제와 같이 한기를 하고 살갗이 일어나더니 인사 불성이 되었다. 또 청심환을 먹이고 나서 한동안 있다가 깨어났다. 아침에도 또 같 은 증상을 일으켰다. 답답할 뿐이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정신을 잃었 을 때 눈앞에 이상한 불빛이 빛나고 번쩍이더라는 말을 하는데도 매우 힘이 드는 듯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 뒤쪽 옆머리가 찌르듯 아프고 심신이 어두워 지며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혹은 잠깐동안에 증상이 멎어서 깨어나도 할 말이 길면 표현을 못하니 큰 걱정이다. 인아의 처 증세는 여전하여 두 번 침을 맞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오늘 맞지 않기로 하고 집사람만 또 침을 맞았다. 팔뚝 위에 생긴 묵은 종기 구멍에서 또 고름을 짜냈다. 응어리진 네 군데를 침으로 파종했으 나 피는 조금 나왔다. 상 판관 시손이 어제 편지를 보내서 나를 청해 왔다. 이는 혼 인을 끝낸 후에 술자리를 만들어 대접하려는 것이리라. 나는 우환 때문에 가지 않 았었는데 오늘 오정에 친히 와서 안부를 묻고 조 좌수 희윤의 집에 같이 가자고 끌 어서 어울려 이야기하다 우리 집 우환 이야기도 나왔다. 또 어머님 행차가 서울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아직 듣지를 못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유선민이 편지로 안 부름 물어 오고 또 배름 3과 보내오면서 평강에게 보낼 편지름 전해주겠다 하므로 즉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먼젓번에 매를 사기로 하고 가져간 일이 있었는데 그 값 을 갖다 주기 위한 것이라 한다. 저녁 무렵에 또 그 증세가 발작하여 밥 세 번 지을 시각쯤이 지나서 밤이 된 후에야 비로소 깨어났다. 새벽닭 우는 시각에 또 발작하 였다가 잠시 후에 멎었으나 음식을 전폐하는 상태는 아니어서 메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간간이 먹고 있으며 입이 쓸 때에는 으레 석류를 찾으나 이를 구할 길이 없으니 안타깝다. 아침에 성민복이 석류 1개를 구해 보냈다. 지금까지 몇 개를 먹었는지 금후에는 다시 더 구할 도리가 없다.

27일. 인아의 처 아픈 귀에서 어젯밤 처음으로 고름이 나왔다. 필시 귀젖인가 보 다. 새벽이 되면서 붉은 고름이 귓구멍에서 많이 나왔는데 비로소 통증이 멎는가 하였으나 두통이 여전해서 차도가 없다고 한다. 답답한 일이다. 단아는 아침 늦게 부터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멎는 듯하나 기진한 상태가 어제보다 더하고 머릿속이 은근히 아프다고 한다. 아침을 먹고 태수가 집안의 병 우환에 대하여 묻 고는 술상을 내와서 나에게 4잔을 마시게 하고 파했다. 그러고 나서 새우젓 3승ㆍ 게젓 5마리를 보내 주었다. 이는 인아 처가 병석에서 게장을 먹고 싶어 하기에 내 가 부탁해서 가져오게 된 것이다. 또 세동에서는 조 좌수 욱윤 씨가 환자를 위해 서 석류 1과·작은 배 2개·홍시 2판을 보내 주었다. 깊이 감사할 뿐이다. 집사람 이 오늘은 침을 맞지 않았다. 저녁때 조대림이 이 별좌의 집에서 돌아올 때 들어와 서 이 별좌의 편지와 생꿩 1마리 · 배 10개를 전해 왔다. 이는 전날 앓고 있는 아이 들이 찾는 것을 알고 가서 대림의 오는 편에 구해 보낸 것이다. 두 아이에게 곧 꿩 다리를 구워서 물 말은 밥과 같이 먹게 했다. 또 꿩고기로 만두를 만들어 먹었다.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그런데 인아 처의 아픈 귀가 터져서 이미 고름이 나왔으니 차도가 있으련만 도리어 통증이 여전하다 하니 또다시 곪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답 답하다. 단아는 또 그와 같은 증세가 나타났으나 한참 있다가 멎었다. 어제와 같이 심한 증세는 아니었다.

28일. 어젯밤 인아의 처 귀에서 귀젖과 고름이 터져 나왔다. 단아는 밤새 잘 잤으나 날이 밝아지자 그 증세가 또 발작하였다가 잠시 후에 멎었다. 오후에도 두 번 잠깐 발작했다가 멎었다. 이것으로 완전 유해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랴. 또 어제이 별좌가 글을 보내서 나를 청한 것은 그의 아우 덕수의 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내용으로서 오늘이 덕수의 생일이라고 한다. 술상을 차려 놓고 손님을 청했으나 나는 딸아이 병이 심상치 않아 처음에는 사양하기로 하였으나 마침 병세가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성민복의 말을 빌려 타고 달려가 보았더니 권학·이중영·

조대림 · 윤용상 등 그의 집안 조카들까지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상 판관도 또한 따라 들어와서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그의 자제들이 대행과와 산해의 각종 진미에다 배 · 밤 · 감 · 대추 등 과일을 상에 그득히 갖다 바치니 모두입에 맞는 음식이다. 이 별좌가 나를 위해 과일과 어적 · 육적 등을 상자 그득하게 봉송으로 싸 주었다. 여러 소년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마음껏 즐겼다. 어두워질 무렵에 나는 권 · 이 · 조 등과 같이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밤은 이미 깊었다. 딸애 병세를 물어본즉 크게 악화될 중세는 멎은 듯하다고 한다. 참으로 기쁜 일이다. 가지고 온 봉송을 여러 아이들에게 나누어 먹였다. 그중에서 단아가 먹고 싶어 하는 석류는 일부러 행과소에 가서 모두 가져온 것이다. 단아가 보고 기뻐하며 흡족하게 먹으니 오늘 생일잔치에 갔던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목적이다. 돌아오는 길에 이 좌수 원길을 만났기에 역시 석류를 부탁하였더니 찾아서 구해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에게 들으니 그의 형제들이 석류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오늘 이 별좌 형제가 나에게 말하기를 환상곡 벼를 준비해서보내겠다고 하였다.

29일. 지난밤에는 단아가 날이 샐 때까지 잘 자고 두통도 가라앉았으며 그 증세도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인아 처의 아팠던 증세도 역시 회복되었다고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어제 집사람이 침을 맞았는데 오늘도 또 침을 맞았다. 식후에 이중영이 찾아와서 모과 5과·참용(眞茸) 1대를 내게 주었다.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술을 큰 잔으로 4잔을 마시고 해가 기울 무렵에 돌아갔다. 저녁에 이시윤 형제가 수원에서 장수로 내려가는 역로에 유숙하기 위해서 들렀다. 그의 일가가 모두 무고들 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들으니 생원(오윤해)의 학질이 아직도 쾌차하지 못하고 그 모습이 매우 여위었다고 한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내려올 때에 아산의 모친이 사는 집에 들러오는 길인데 모두 무고하였고 말린 대추 2 승을 보내왔다. 시열에게도 역시 4승을 보냈다. 시윤 형제가 장수에 가는 것은 그의 부친(이빈)의 묘소 이장 때문이다. 단아는 저녁내 밤이 될 때까지 그 증상이 발작하지 않았으니 기쁘다.

그믐날. 앓던 아이들이 오늘은 크게 차도가 있어서 단아는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평상시와 같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시윤 형제가 머무르면서 시윤은 그의 장인이 군내에 살고 있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집안에는 땔 나무가 한 단도 없어서 시윤의 종과 말을 시켜서 나무를 베어 오게 했다. 평강(오윤겸)의 종 정이가 결성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 평강의 글을 보니 지난 22일 그곳을 떠나 서울로 돌아갔는데 그곳 농사는 올 가을 비가 많이 내려서 결실이나빠 수확한 양이 불과 수십 석인 데다가 전에 저장했던 곡식도 많이 잃어버렸고모든 일이 소략하여 볼 수 없는 모양이어서 가슴 아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양곡을 저장하기 위해서 집을 세웠고 모든 시설을 변통해서 마련해 놓았으니 일가가모두 와서 살라는 것이다. 비록 초가에다 누추하기 이를 데 없다 하더라도 임천은오래 살 곳이 아니니까 오는 10월 20일 후에는 모두 결성 농막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시윤이 장수로 돌아갈 때 전라도 순찰사(박홍로)에게 전할 편지를 썼다.

## 10월

1일. 시윤이 새벽에 돌아와서 제 아우와 같이 완산을 향해서 떠났다. 감사를 만나서 저희들 부친 이장사에 대하여 부탁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곳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비가 쏟아지는데 떠난 사람들의 주종들이 모두 우비를 갖추지 않았으니 필시 흠뻑 젖었으리라. 걱정이다. 오후에 자방이 익산으로부터 비를 맞고와서 하는 말이, "어제 용안에 와서 자고 아침 늦게 출발해서 오는 길"이라고 하며 "함열에 새로 온 태수 이류가 며칠 전에 부임했다"고 말한다. 사람을 시켜 이 진사중영을 청했다. 자방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저녁때비가 개기 시작했다. 이 고을 태수(박춘무)가 편지로 문안하고 또 게젓 5개ㆍ새우젓 1옹기를 보내왔다.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말하는데 매를 구하기 위해서 관원을 평강에 보낼 때 편지를 부쳤다고 말한다. 별감 임진지가 소매 속에다 석류 2개를 가지고 와서 주고 갔다.

2일. 자방이 아침을 일찍 먹고 남포로 떠났다. 비 온 뒤에 바람이 몹시 찬데 걱정이다. 성민복의 아들이 며칠 전부터 역사의 개요를 매일 와서 배우고 있다. 집사람은 오늘도 또 침을 맞았다. 어머님 상경하신 뒤에 노정(路程)을 헤아려 보면 덕노

가 거의 돌아올 때가 되었건만 아직 오지를 않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3일. 이 고을의 하인 상복이 태수의 명을 받들고 사냥매를 구하러 평강에 가는데 편지를 써서 부쳤다. 오후에 조김포 희식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매를 사러 종에 게 값을 가지고 평강에 보내려고 하니 편지를 써 주어 가지고 가게 했으면 좋겠다" 고 간절히 부탁하기로, 즉시 편지를 써 주었다. 요즘 매를 구해 주라는 편지를 3번 이나 써서 부쳤는데 평강이 어떻게 이들을 대해 줄지 모르겠다. 매우 걱정이다. 또 이 고을 태수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보내 준 2개의 반제 초는 모레 기제에 쓰겠 으며, 또 부탁할 것은 오이지와 가지 그리고 김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더니 태수 가 답장과 같이 구해서 보내 주었다. 단아가 병중에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가까운 이웃에서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태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어제는 자방이 떠나면서 우리 집에 먹을 만한 찬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게젓 20마리를 놓고 갔다. 이것은 용안태수(정경지)가 자방이 올 때에 선물 로 준 것이라고 한다. 또 단아가 새벽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여전히 음식을 먹 지 못하고 종일 누워 있으니 답답하고 걱정이다. 큰 병을 겪고서 겨우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깥출입을 조심성 없이 하였으니 찬바람에 감기가 겹쳐서 마침내 도로 아 프게 된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낭패라 하겠으나 워기가 탈진한 상태여서 큰 걱정 이 아닐 수 없다.

4일, 단아가 밤새 진통을 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하니 큰 걱정이다. 아침에 집사람하고 내가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 하여 한참 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한심스럽다. 유선민이 전인해서 오이지 1항아리를 보냈다. 참으로 고맙다. 딸애가 병석에서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가 보낸 것이다. 내일 제사에도 제수로 써야겠다. 집안에 땔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울타리 밑을 긁어모아 쓰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저녁때 자방이 거느리고 갔던 종이 남포에서 익산으로 가는 길에 유숙하러 들렀다. 딸의 편지를 보니 모두 무고들 하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계집종 덕개의 가슴앓이가 심상치 않아 거의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니 참으로 걱정이다.

**5일.** 먼동이 트자 인아와 같이 제시를 올렸다. 삼색 과일, 네 종류의 탕과 소적만으로 진설하였고 제수로 올렸던 떡은 이웃집에 나누어 보냈다. 단아는 아침부터

조금 차도가 보이는 듯하여 기쁘다. 그러나 집사람은 어제 침을 맞지 않았는데 밤새 진통하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종처를 살펴보니 어제보다 더 부어 있으니 걱정이다. 오후에 복지가 와서 침을 놓았다. 또 보령 태수 황응성이 군에 일을 보러 왔다가 나를 찾아보고 돌아갔는데 매우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그는 윤겸과 동갑으로서 평강에서 서로 교대했던 사이이기도 한 처지이다. 조대림이 찾아왔기로 같이 권평지 못가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권학이 내려왔고 또 남근신도 벼베는 일 감독 차 못가 서쪽에 앉아 있다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청했다. 모두 진남의 사랑에 모여 앉게 되었다. 집에서 박주를 내다가 같이 마시고 또 권 생원이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다. 저녁 무렵에야 각기 헤어졌다. 함열 이 봉사(이신성)의 맏아들이 자기 선친의 유골을 선산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모레 발인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인을 보내서 인아의 말을 빌려 갔다. 이의 아들은 나이도 어리고 세도도 없어서 애로가 불소할 것이나 극력 주선해서 마침내 그의 부친 유해를 선산으로 이장하게 되었다. 타향에서 외롭게 떠돌 고혼이 아니 되게 하였으니 매우 가련하고 측은한 사정이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6일. 어제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새 그치지 않고 어느새 큰비로 변하더니처마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한 것이 마치 2, 3월 봄비 오듯 아침에도 개지 않는다. 거둬들인 콩을 쌓아 놓은 지가 오래인데 지난 2일 이후로는 비가 오락가락하여 연일 해 나는 날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콩 바심을 못하였다. 작동해 놓은 콩 단속에 습기가 스며들어 필시 썩어 버렸을 터이니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 또 조 도사 백온이 군에 와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안부를 물어 왔기로 말을빌려 타고 군에 들어가 보니 이 고을 태수와 조임파 수현이 대작 중이어서 나도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본군 태수는 체찰부사의 순찰 일행이홍산에 도착했다 하여 공사 집행을 위해서 먼저 나가 떠나갔다. 백익과 임파가 대화를 나누다가 종노(宗奴)에 대하여 부탁을 하였다. 마침 상 판관ㆍ권 생원ㆍ조 판관이 와서 도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사가 먼저 나간 뒤에 나도 돌아왔다. 권ㆍ조와는 내일 상 판관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문중(이덕후)도 매를 가지고 역시 오겠다고 한다.

7일. 조반 후에 조대림의 말을 빌려 타고 조와 같이 권 생원 집을 찾아가니 권이 술 을 내와서 마시고 있는데 신경유가 또한 내방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뒤이 어 권과 조는 한 말에 같이 타고 상 판관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데 도중에 뒤에 타 고 가던 조가 거문고를 안고 있는 것을 본 말이 놀래서 어거하지 못하게 되니 몇 차례나 떨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낙마는 면했으나 거문고 안족 16개가 모두 떨어져 버렸다. 말에서 내려 주워 모았으나 15개는 줍고 1개는 끝내 찾지 못하였다. 나와 권은 먼저 와서 길가에 앉아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권 생원의 사위 집 에 들어갔다. 그 집에서 새로 만든 떡을 내오고 또 백주를 마셨다. 이 별좌는 이미 상 판관 집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일행은 모두 상 판관 집으로 모였다. 술상 을 차려 놓고 마침 이웃에 거문고 타는 사람이 있다 하여 청해 오고 떨어진 안족은 조대림이 아교로 붙였다. 청해 온 사람으로 하여금 거무고를 타게 하고 또 피리 부 는 관아 하인 종복을 불러 피리를 불게 하여 서로 술을 권하며 마음껏 마셨다. 저 녁때가 임박해서 주인은 자기 소실을 나오게 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니 서로 즐 거움이 절정에 달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왔다. 주인의 소 실은 서울에 살던 사람으로서 본래 노래를 잘 부르던 처지이라. 그 자리에 불러서 노래를 시켰던 것이고 거문고를 탄 사람도 역시 서울에서 살던 사가의 계집종으로 서 거문고를 잘 타고 노래와 춤 솜씨가 뛰어나서 일찍이 홍 참의 혼 씨의 소가(小 家)였는데 난리 후에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어 지금은 권 생원의 사위가 부리는 하 인의 처가 되어 손수 쟁기질을 한다고 한다. 좋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상사람의 지 어미가 된 것을 모두 아까워했다. 우리들은 그 자리를 파하고 권 생원의 사위 집으 로 다시 와서 또 거문고를 타게 하고 피리를 불도록 하여 모두가 각자 노래를 불렀 다. 정사현도 역시 나와서 술을 마셨다. 사현은 정 박사 사신의 아우로서 이곳에 와서 임시 살고 있는 것이다. 밤중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집사람은 오늘 침 을 맞았다.

8일. 아침 일찍 주인집에서 국말이밥을 만들어 내왔다. 상 판관 집에서도 역시 조 반을 이 별좌에게 내왔으나 별좌는 먹지를 아니하고 우리들 있는 곳으로 와서 같 이 먹었다. 나는 조와 같이 나누어 먹고 둘이 먼저 돌아왔다. 조와 같이 집에 달려 와 보니 덕노가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다. 아우(오희철)의 글을 보니 상경 중간에 비를 만남으로써 여러 날을 체류하였기 때문에 지난달 27일에야 비로소 토당 남 고성[남상문]의 집에 당도하니 어머님께서 서울로 가시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시고 아우와 같이 그곳에 머무시니 마음을 놓으시더라는 것이다. 평강 일행은 역시 갈 원에 도착하여 마침 어머님 행차와 만나게 되어 진위현의 숙소에 도착하여 그곳 태수의 식사 대접을 상하 모든 사람들이 받았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큰비를 만나 상하 의복이 모두 젖었고 어머님께 새로 지어드린 장옷도 다 젖어서 입지 못하시 게 되었다니 아까운 일이다. 다음 날 수원부에 도착하여 그곳 부사로부터 역시 일 행 모두가 식사 대접을 받고 율전 생원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 하고 평강 윤겸은 먼저 서울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고 나서 지난 28일 평강현을 향 해서 떠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생원의 글을 보니 하루거리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 았다니 참으로 걱정이다. 덕노는 서울에 들어갔다가 2일을 묵고서 내려왔는데 그 때 평강이 사준 청색 장옷 1벌을 가지고 내려왔다. 저의 어머니가 입을 옷이 없으 니까 사 보낸 것이다. 또 광노가 씨 발라 낸 솜 1근을 사서 보냈고 절인 방어 1마 리ㆍ당석 2승을 평강이 또한 사 보냈다. 또 집사람이 어제저녁부터 몸이 불편해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필시 감기에 걸린 것 같다. 걱정이다. 오늘도 침을 맞았다. 들으니 한전부가 세상을 떴다고 한다. 한 감찰이 모친상을 당한 지가 얼마 아니 되는데 또 부친상을 당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오후에 들으니 남근신이 수 확 감독 차 제방 기슭에 와 있다기에 곧 걸어 나가서 만나 보고 같이 둑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경담 · 이중영이 지나다가 들러서 같이 대 화를 나누다가 저녁때 돌아왔다.

9일. 아침 일찍 김 찰방 덕장이 군에 왔다가 편지를 보내서 문병을 하고 또 하인과 말을 보내면서 나를 청했다. 곧 말을 타고 들어가 보니 태수는 상동헌 방에 나와서 김을 맞이하고 있기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침을 먹었다. 태수는 먼저 나가고 나와 김 찰방은 김의 본가로 나와서 조용히 묵은 회포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남근신이 찾아왔다. 김이 나에게 소주를 대접하고 무 6개·새우·미역 약간을 주어서 해가 넘어간 뒤에 집에 돌아왔다. 또 오늘 품삯 일꾼과 계집종들이

이영해의 논에 심은 벼를 거둬 타작한 것을 4석씩 나누었다. 한용이 지나는 길에들어왔다. 인아의 집에서 유숙하는데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져서야집에 돌아왔다. 횡성에서 태인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집사람은 오늘도 침을 맞았다.

10일, 아침 전에 김 찰방의 아들 승용이 인아를 만나 보고 돌아갔다. 서울에 살 때 한 동네에서 살았으나 난리 이후에 서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와서 만나 보고 간 것이다. 가상한 일이다. 적과 떡을 대접해서 보냈다. 어제저녁 생원의 종 춘기 가 율전에서 왔다. 생원이 저의 모친이 수종으로 앓고 있는 소식을 듣고 종을 보내 서 문안을 한 것이다. 보낸 편지를 보니 하루거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 혹은 매 일 혹은 하루걸러 통증이 그치지 않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있다고 한 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답답할 뿐이다.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근친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찬이 어제저녁에 왔다. 해미에 가서 10여 일을 체류하 다가 이번에 비로소 온 것이다. 그에게서 들으니 용궁 숙모님께서도 안녕하시다고 한다. 또 집주인 최인복이 죽은 후에 그의 처자 전 가족이 유배를 갔었는데 그 아 들이 애매한 일로 해서 순찰사가 한산태수(강덕서)를 차사로 하여 최의 시체를 검 시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오늘 한산태수가 친히 현지 매장 한 곳에 나와 검시한다고 한다. 그의 아들 연(淵)이 와서 하는 말이 "만약에 무덤을 파헤쳐서 검시를 한다면 자식 된 도리에 망극한 마음을 어찌하겠나이까. 저의 부 친이 죽음을 당한 것은 세인이 모두 아는 바이니 직접 현장에 가셔서 무덤을 파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도록 부탁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그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지 못하고 즉시 말을 달려 묘지로 가 보니 이곳에서 한 식정 떨어진 곳으로부터 깊은 산골짝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한산태수는 와 있지 않기에 그 까닭을 물어보 니 "지금 홍산에 있다"라고 한다. 즉시 홍산을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홍산에서 오 는 사람을 만나 한산태수가 관아에 있나 없나를 알아보니 대답하기를 "한산태수는 지금 일 때문에 부여에 갔다"라고 한다. 해는 이미 넘어가려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물러설 수도 없는 난처한 사정이어서 곧 집으로 돌아오는데 반도 못 와서 날이 어 두웠다. 집에 당도하니 밤은 이미 깊었고 시장기를 몹씨 느꼈다. 오직 우습기만하 다. 집사람은 오늘도 침을 맞았다.

11일. 생원의 하인 춘기에게 편지를 주어서 돌려보낼 때 닭 3마리를 붙잡아 보냈다. 자웅은 충아로 하여금 기르게 하고 1마리는 삶아서 먹도록 하라고 일러서 보냈다. 또 집사람이 오늘도 침을 맞았다.

국은 종 막정에 대해서는 이미 그 문권을 올린바 있거니와 보령태수(황응성)가 원래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일 찾아왔을 때 말하기를 "관청을 경유해서 보내면후일 찾아서 팔겠다"고 하였는데 그저께 문권의 안을 얻어서 오늘 복지에게 부탁하여 태수의 아들로 하여금 부친에게 갖다 바치게 했다. 황보령의 아들은 침을 맞기 위해서 복지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일 거둬들여서 쌓아놓았던 이영해의 콩을 오늘 두들겨서 계량하니 방콩이 6두 2승·종콩이 1두 8승씩나누었다

12일. 집사람이 오늘도 또 침을 맞았다. 그러나 단아는 어제부터 다시 아프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가라앉는 듯하였으나 아직 쾌차하지 못했다. 조금만 촉랭(觸令)해도 바로 아프기 시작하는 인아의 처 역시 완쾌되지 않고 항시 누워서 앓고 있으니음식을 먹는 것도 전과 같지 않으니 답답하고 걱정이다.

13일. 단아가 도로 아프기 시작하여 밤새 신음하였으니 큰 걱정이다. 또 들으니 한산태수(강덕서)가 부여에 머물고 있는 것이 부여 관청에 일이 또 있는 듯하니 살펴달라는 최연의 간청으로 식후에 말을 달려 백마강 나룻가에 당도하여 들으니 한산태수는 어제저녁에 홍산에 돌아갔다고 한다.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현에 들어가서 나의 이름을 알렸더니 부여태수(박춘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곧 나를 맞아들여서 서로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얼마 후에 본도 아사(亞使) 조백익이 순찰차도착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도 또 통명을 하였더니 사람을 시켜 맞아들였다. 뜻하지 않았던 상봉이라 서로 반갑고 기뻤다. 도사는 또 임천ㆍ부여 양 태수를 청해서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무렵에 해운판관(조존성)이 직접 도사 방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가 판관은 상방으로 나가고 도사와 나는 겸상해서 저녁을 먹었다. 어두워진 뒤에 또 도사가 판관 방으로 가서 부여태수를 청하고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서야 각자 파했다. 도

사와 같이 갔다.

14일. 아침을 도사(조희보)와 겸상해서 같이 먹고 난 후에 또 판관 방으로 나아가서 임천의 삼공형 감관 등의 죄를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곤장 형벌의 면책을 얻어 내니 모두 와서 기쁨에 넘치고 매우 감사하였다. 또 도사와 아침을 먹었다. 부여태수는 판관·도사를 또 청해서 자온대에 술상을 차렸다. 나와 김 진사 복흥도 또한 참석했다. 백마강 나루에서 배를 타고 물 흐름을 따라 내려오다가 자온대 밑에서 배를 멈추고 서로 술을 권하며 마셨다. 어부로 하여금 강을 가로지르는 어망을 치게 했으나 끝내 1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우스운 일이다. 내가 타고 간 말이너무 말라서 걸음걸이가 더디기 때문에 나는 먼저 떠나서 홍산에 도착하니 한산태수는 성 진사 중임과 같이 저녁을 들고 있었다.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곧 맞아들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때 운판이 따라 들어와서 취해 누었다가 잠시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중임과 운판이 취중에 한동안 말다툼을 벌였다. 나는 한산과 더불어 관아 숙소에 나갔더니 중임도 따라와서 3인이 같이 잤다. 들으니 중임이오는 20일경에 일이 있어서 영암에 내려간다 해서 그곳에 사는 누이에게 편지를써서 부쳤다. 또 부여에서 올 때 태수가 나에게 잉어 1마리를 주어서 사람을 시켜서 먼저 집으로 보냈다.

15일. 한산(강덕서)이 중임과 같이 노루 내장을 구워서 술을 마시며 먹었으나 나는 오늘이 제삿날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침 늦게 객사로 와서 한산과 겸상해서 아침을 먹은 후 해운판사를 만나 보고 도로 한산태수 자리에 돌아와서 벼 1석ㆍ찹쌀 2두ㆍ게장 20마리ㆍ생율 5승ㆍ모과 6개ㆍ홍시 15개ㆍ고리짝 1부를 요청해서 얻었다. 실로 감사하다. 또 앓고 있는 집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노루고기를 부탁했더니 중국 사신이 올 때 쓰기 위해서 고기를 말리기 때문에 노루 1마리를 모두 줄 수는 없다고 하며 머리와 등뼈를 주어서 살펴보니 등에 붙은 살은 다 저며 내서 남은 것은 뼈뿐이었다. 웃을 수밖에 없구나, 덕노로 하여금 벼 섬은 인아의 처가 계집종이 사는 근처에 갖다 맡기고 나머지 물건은 짊어지게 했다. 곧 한산과 작별하고 말을 달려 집에 당도하니 아직 저녁때가 안 되었다. 와서 들으니 집사람은 어제와 오늘 침을 맞았고 인아 처와 단아는 좀 잠잠한 듯하나 아직 완쾌되지 않

아 가끔 아프다고 하매 음식도 달게 먹지 않는다고 한다. 참으로 걱정이다. 또 들으니 신상례가 익산으로부터 남포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자고 갔다는데 새가 마침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집주인 최인복의 파묘 검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산태수를 면담해서 간곡히 청탁하였더니 관을 빼내지 않고 다만 아전으로 하여금 죄인의 자백을 받게 하고 삼색상과 이웃의 왕래를 금하는 조치만을 하기로 했다.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다. 또 들으니 어제 상 판관 시손이 편지를 보내면서 배 5두를 같이 보내왔다고 하니 그 후의가 너무 고맙다. 아침에 홍산 공방에 있는 김한철을 불러서 지난여름에 전 태수가 근무할 당시 파손된솥을 고치러 보냈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미 장인으로부터 받아서 곧 찾아가도록 공문을 발행했으나 난리 후에 영영 잃어버린 줄알았는데 지금 들으니 찾아갈 사람이 생존해 있으니 곧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쁜 일이다.

16일. 첫새벽에 인아와 허찬으로 하여 제사를 올리도록 하고 나는 연일 이불을 덮지 않고 자서 몹시 기운이 떨어져 부득이 참사하지 못하였다. 밤새 비가 내렸는데 아침에도 음산한 날씨다. 덕노로 하여금 어제 얻은 벼를 홍산에 말을 가지고 가서 싣고 오게 했다. 덕노가 저녁때 돌아왔다.

17일. 집사람이 오늘도 침을 맞았다. 단아는 아직도 쾌하게 소생하지 못하고 있으나 큰 불은 끈 것 같다. 인아 처는 매일 첫 새벽에는 진통을 하는 것이 필경 학질인 듯 싶다. 걱정이다. 식후에 허찬과 같이 김익형을 걸어서 찾아갔다. 마침 신경유가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김익형은 양지로부터 어제 저녁에 비로소 온 사람인데 그로부터 들으니 양지의 우리 집 옛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추수가 매우 잘 되어 곡식을 충족하게 쌓아 놓고 매일 술을 빚어넣어 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으로는 명년 봄에는 이사해 들어가고 싶으나일을 주간할 종도 없고 농사지을 양식도 없으니 모든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어두워서 이광춘이 왔기에 술 2잔을 대접했다. 광춘은 이번에 삼수로 유배를 떠나게 되어 자기를 인솔하는 역리에게 뇌물을 주어 처를 만나보고 떠나는 길이라 한다. 불쌍하고 측은하다.

18일. 집사람이 또 침을 맞았다. 품 일꾼 5명을 사서 전에 반을 남긴 벼 타작을 했더니 모두 3석이 나왔으니 먼저 거둬들인 것이 16두이므로 합계 3석 16두다. 지주측에는 4석이 갔으니 우리 수확이 5, 6두 부족한 셈이다. 안타깝다. 이것이 이영해의 논에서 거둔 벼이다. 저녁에 이 별좌ㆍ이 진사 및 성민복ㆍ소즐이 와서 놀다갔다. 소즐은 며칠 사이에 매를 사러 평강에 가는데 나의 편지를 미리 써놓으라는 부탁이다. 또 이 별좌가 전인해서 환상곡 벼 15두ㆍ팥 3두를 실려 보냈고 그의 아우 덕수도 역시 벼 10두를 보내왔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19일. 오늘은 나무를 베어다가 울타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덕노가 아프다는 핑계로 일어나지 않으니 못 하고 말았다. 괘씸하다. 상 판관 시손이 김익형과 더불어 찾아왔다. 허찬으로 하여금 기르는 닭 3수를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팔게 했는데 쌀 5 두와 바꾸어 왔다. 식후에 무료해서 이복령한테 가서 바둑을 두는 데 연포 내기를 걸었으나 이는 연거푸 3국을 패했다. 우습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 돌아왔다.

20일. 상 판관이 찾아왔다. 아침 늦게 조백공을 찾아갔더니 백공이 좋은 술을 내왔기에 연달아 5배를 마셨더니 매우 취해 버렸다. 금계가 또한 그 자리를 같이하여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물 무렵에 돌아왔다. 오는 길에 조군빙을 찾았다. 감기가 들었다고 하여 나와 보지 않고 그의 아들이 대해 주기로 문밖에 잠시 섰다가 돌아오니 날은 이미 어두웠다. 오는 길에 말안장이 풀려서 기우는 바람에 진흙 속에떨어져서 오른쪽 소매가 모두 젖어 버렸다. 어린 종이 안장 멜 줄을 몰라 내가 손수 바로잡아서 간신히 집에 돌아왔다. 또 요즘 집안에 찬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터인데 들리는 바에 제주도에서 온 장삿배가 미역을 싣고 가까운 갯가에 와서 정박하고 있다기에 허찬으로 하여금 어제 장에서 닭과 바꾼 쌀을 가지고 가서 미역과바꾸어 오도록 했더니 이미 다 팔렸다고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안타깝다. 오늘은복지가 오지 않아서 집사람이 침을 못 맞았다.

21일. 권 생원(권학)·조 판관(조대림)이 찾아오고 김식이 또한 와서 조용히 담화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종일 음산한 날씨였다. 집사람은 침을 맞았고 단아는 며칠 전부터 아픈 증세가 없고 완전 소생되어 먹는 것이 평상시와 같으나 맛있는 음식이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오늘 비로소 머리를 빗었다.

22일. 지난밤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렸는데 지붕이 겨우 흰 정도다. 오늘은 나무를 베어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일기 탓으로 또 하지 못했다. 이렇게 미루다보니 지금까지 온 것이다. 한심한 일이나 어찌하리오. 성민복이 벼를 평말로 1석을 보내왔다. 이는 언명(오희철)의 환상곡을 상환하기 위한 것인데 언명과 일찍이약속된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상곡을 상환하기에는 절반이 부족한 형편이라종과 말을 유선민 씨 집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구조를 청했더니 거친 벼 2석을실어 보냈다. 소망한 양은 1석이었는데 2석이나 도와주니 그 후의가 너무나 고맙다. 곧 검불을 날려 정곡으로서 환상곡 상환량으로 두량하니 26두가 나왔다. 조김포가 후일이 근방에서 나오는 자기 소관 벼가 있으면 찾아 보내겠다고 하였다. 다만 토란김치 3사발과 마른 잎 1부대를 얻어 왔다.

23일. 요즘 집안에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굴을 지고 와서 파는 자가 있기에 쌀 3승을 주고 바꾸어서 저녁에 국을 끓여 같이 먹었다. 그런데 장사하는 여인의 되는 2되가 들어갈 만큼 큰 줄 알았으면 사 먹지 않았을 것이다. 안타깝다. 오후에 덕노로 하여금 콩 1두 5승을 가지고 향림사에 가서 두부를 만들어 오게하였다.

24일. 지난밤에는 쥐 잡는 구덩이를 설치하여 2마리를 잡았다. 가을 이후에 잡은 쥐가 20마리고 지난봄과 여름 사이에 잡은 것이 31마리니 도합 51마리를 잡았으니 쥐가 한없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이련이 청양으로부터 뜻밖에 찾아와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혼사 때문에 왔다고 한다. 해운판관 조존성의 처남으로서 연전에 상처를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재취할 규수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래서조 판관이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써서 이련을 보낸 것이다. 조의 처남은 고인이된 정랑 이신층의 아들이고 이름은 이영인이며 나이가 21세인데 청양에 와서 임시살고 있다고 한다. 혼인할 만한 처지이기는 하나 자식들이 모두 먼곳에 나가살고있으니 집안에서 상의하여 통보하겠다고 곧 답장을 써서 보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이해 안에 혼사를 치렀으면 하나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아 도저히응할 수가 없겠다. 그러나 형편을 보아가며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은 전실 자식이 둘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절대 부당하다고 한다. 또 조백공이

전인해서 좋은 벼 1석을 보내왔는데 다시 두량해 보니 19두였다. 그 후의가 너무나고맙다. 평강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사람을 보낼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아니 오니 괴이한 일이다.

25일, 종을 시켜서 신경유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거친 벼 10두를 보내왔다. 거칠어 서 쓸모가 없을 정도여서 다시 두량해 보니 8두 5승이었다. 검불을 부쳐내어 정곡 으로 근근이 6두였다. 언명이 이곳에 있을 당시 신과는 서로 약속이 있어서 환상 곡 1석은 갚아 주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언명이 상경할 때 오로지 신의 말을 믿었던 것인데 오늘 이와 같이 배신을 하니 신의 불신은 가히 알 만하다 하겠 다. 또 환상할 곡식을 정미로 7석을 우선 싣고 나가서 내가 직접 창고에 가지고 갔 다. 태수는 마침 자리에 없었다. 좌수 조광철이 1석만을 뽑아서 두량해 보고서 그 나머지는 모두 입고시켰다. 그런 후에 남는 미납량이 2석이고 더 내야 할 모곡이 13두 5승이다. 오는 길에 권 생원을 방문했더니 마침 조대림이 또한 와서 얼마 동 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구섭에 왔다가 곧 먼저 돌아갔다. 태수가 두 아들을 대 리고 내방하니 주인집에서 술상이 나와 마시는데 옆집에 사는 서울 상인이 또 술 과 안주를 가져다 바치고 같이 마셨다. 이는 권이 내일 음관으로 벼슬길을 떠나는 데 이 사람이 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한다. 저녁때 집에 돌아왔다. 단아가 어제부터 도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어제 밤새 그리고 오늘도 종일 그치지 않으며 음식도 전폐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다. 집사람은 오늘 침을 맞았다. 복지가 유고(有故)해서 연 3일을 오지 않아서 오 늘은 사람을 보내서 불러온 것이다. 수종이 더 붓지는 않았으나 부어오른 곳이 아 직도 가라앉지를 않는다.

26일. 단아가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니 그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답답하고 걱정스러움을 무엇으로 표현하리오. 덕노와 한복으로 하여금 소와 말을 이끌고 울타리 만드는 데 쓸 소나무 가지를 찍어 오게 해서 두 번을 실어 날랐다. 저녁에 김익형이 찾아왔기에 탁주 2잔을 대접하여 보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데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밥을 지어서 대접하고 싶었으나 반찬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딸애는 아파서 신음 중이고 계집종도 하루거리로 누워 있으니 내 마음

과 같이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한심한 일이나 어찌하리오. 김은 동향 사람은 아니지 만 8촌 척분이 되는 사람이다.

27일. 바람은 불고 날씨는 차가워 오늘도 울타리 만들 나무를 베어 오지 못하고 다만 덕노로 하여금 울타리를 만들게 했다. 단아의 두통은 어제와 같고 덜하지 않아답답하다. 아침 늦게 이복령을 찾아가서 딸아이 병세에 한 길흉을 물었더니 즉석에서 돈으로 점을 치고서 하는 말이 "그 괘상을 보니 반드시 한기가 범한 것이 틀림없으나 흉한 허물이 하나도 없으므로 동지가 지난 후에는 차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복령과 같이 바둑을 두다가 저녁때 돌아왔다. 저녁 대접도 받았다. 덕노가 집 뒤 울타리는 세웠으나 집 앞은 솔가지가 모자라서 내일 가지를 더 베어다가 만들어야겠다. 집사람이 침을 맞았으나 근간 딸아이 병으로 말미암아 침식이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해서 더 부어올랐다.

28일. 단아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조금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괴롭고 답답하다. 집사람은 오늘도 침을 맞았다. 덕노와 한복으로 하여금 울타리 지을 솔가지를 베어서 두말에 싣고 오게 했다. 이 고을 도장 이정효가 와서 나를 보고 갔다. 또 언명 몫으로 군인 복남이 환상 벼 5석을 가지고 와서 납입했다. 집안에 반찬거리가 없는데 마침 새우젓을 팔러 소리 지르고 다니는 자가 있어서 불러들였다. 좋은 벼 1두를 주고 4종지와 바꾸었는데 겨우 반 사발이나 되겠다. 쓰임새도 없는 새우젓 값이 이와 같으니 딴 것은 미루어 알 만하다. 곤궁한 가운데 조석을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항차 새우젓을 반찬으로 이야기하다니 말이 아니 된다. 집안 형편이 이와 같으니 아픈 아이들이 더욱 먹으려 하지 않는다. 답답하고 안타까우나 어찌하리 오. 금계정이 찾아왔었다.

29일. 새벽부터 비바람이 치고 가끔 큰비가 쏟아져 내리기도 하더니 종일 그치지 않는다. 집에는 땔나무가 하나도 없으니 걱정이다. 단아는 여전히 밤새 신음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그리고 목과 볼의 좌우에 한 줄기 부기가 생겼는데 마치 손가락처럼 굳어 있으면서도 찌르듯이 아파서 목을 굽히지도 펴지도 못하고 돌아볼 수도 없다. 두통이 심한 것도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 답답하고 심사가 괴로울 뿐이다.

## 11월

1일. 지난밤에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 지붕이 모두 하얗다. 바람 기운도 몹시 차가운데 나무도 없어 싸늘한 밤에 앓는 아이가 있으나 울타리를 만들 길은 없고 곤궁하기가 또한 박두하니 탄식한들 어찌하라? 단아는 여전히 고통스러워 조금도 덜한 형세가 없이 밤새 신음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식사 후에 태수(박춘무) 를 관청으로 가서 보았으나 시끄러워서 조용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만 딸의 병세 를 물었더니 날더러 아헌으로 가서 허 교수(許敎授)에게 보고 물어보라고 하고, 또 한 침을 맞게 하라고 한다. 이에 즉시 의녀 복지를 불러서 그 점혈을 가르쳐 주고. 나는 즉시 먼저 돌아오고, 복녀는 따라오게 했다. 침으로 그 좌우 손 15여 곳에 놓 게 하고 저녁밥을 먹여 보냈다. 소위 허 교수란, 그 이름은 임(任)이니, 침술을 배 위서 종기를 고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한다. 그 아버지는 곧 전악 허억봉(許億鳳)이 다. 임은 처신하기를 양반같이 해서 태수의 자제들까지도 역시 양반으로 그를 대 접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는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서로 읍하고 들어가서 마주 앉아 존칭을 쓰는데 조금도 사양하는 빛이 없더니. 물러나와 복지에게 물어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억봉의 아들임을 알았으니, 너무 지나치다. 몹시 분하다. 억봉은 피리를 잘 불어서, 나도 평일에 역시 남고성의 집에서 피리 소리를 들은 일 이 있었다. 남은 매양 그를 불러다가 피리를 들었는데, 이제 빈주의 예를 행하고 읍양하고 당에 올라서 마치 나와 대등한 사람처럼 대했으니 욕을 당한 것이 가볍 지 않다. 더욱 몹시 분하다. 다만 또한 태수의 대접이 지나치다는 것을 모른 때문 이다. 또 지난번에 어머니를 위해서 헌수할 때 억봉이 전악으로 기공(妓工)을 데리 고 남고성의 집에 와서 학춤을 추었는데 그때 손에 박달나무 판을 들고서 여러 기 공(妓工)의 앞에 서서 공정(公庭)에서 훨훨 춤을 추었으니, 그 아들의 사람됨을 알 만하다. 생각건대 난리를 치른 후에 군공으로 해서 동반(東班)(문반(文班))의 직함 을 제수받은 것인지 모르겠다.

2일. 저녁내 음산하고 흐렸다. 단아는 여전하여 밤새 고통스러워하니 몹시 걱정이다. 오후에 양쪽 귀 밑에 땀 기운이 조금 있더니, 이 때문에 통증이 좀 감했는지 아프다는 소리가 좀 덜하다. 덕노가 나무를 하기 위하여 말을 끌고 산으로 갔으므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불을 때려는데 날이 어두워도 오지 않으니 몹시 괴이하다. 밤이 초경이나 되어 돌아와서 말하기를, "오는 길에 말이 실족하여 물에 빠져서 싣고 오던 나무가 모두 젖어서, 이것을 건져 내어 몹시 젖은 나무는 모두 버리고 그중에서 젖지 않은 것 여섯 묶음을 싣고 왔다"고 한다. 내일이 동지여서 이 나무를 기다려 팥죽을 쑤려 했던 것인데,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탄식스럽다. 언명은군인 만수·고동 등을 데리고 벼 각각 6두씩을 가지고 왔다.

- 3일. 단아의 증세는 어제와 같고, 밤사이에는 때로 편안히 자기도 했다. 이제 이로부터 조금씩 차도가 있을 것 같으니 깊이 위로가 된다. 그러나 목이 아픈 것은 전과 같단다. 오늘은 동지이다. 팥 1말로 죽을 쑤어서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나무가 없어서 겨우 나무를 주어다가 끓였다. 집사람은 침을 맞았고, 아이는 날이흐리고 눈을 뿌리기 때문에 침을 맞지 못했다. 덕노는 어제 버렸던 나무를 실어 왔기에 집 앞 울타리를 만들게 했다. 또 편지를 써서 눌은비를 시켜 이 별좌에게 보내서 앓는 아이의 먹을 것을 얻어 오게 했더니, 생치 2쪽과 포장·배·무 및 흰새우젓 1사발을 보냈다. 단아는 국밥에 꿩고기를 구워서 먹었는데 두통은 비록 조금감했으나 목 좌우 뺨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 4일. 지난밤에 눈이 내려 거의 반 자에 이르렀다. 단아의 증세는 어제와 같아 아직 쾌차하지 못하고, 두통도 때로 다시 생기니 걱정이다. 소즐이 와 보았다. 편지를 써서 태수(박춘무)에게 보내서 약탄을 구해 달라고 했더니 즉시 3두를 보냈다.
- 5일. 단아의 증세는 어제와 같고, 음식 먹는 것은 좀 나아졌다. 다만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앓는 입에 맞는 것이 없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눈이 내려 춥기가 갑절이나 더한데 찬 방에 나무가 없이 방 안에 둘러앉았으니 무료하기 짝이 없다. 이광춘이 소를 추심할 일로 와서 한산태수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갔다. 최인우가와 보았으니 그는 인복의 아우로서 삼수(三水)의 전가(全家)이다.
- 6일. 단아는 어제와 같이 아직도 쾌히 차도가 없으니 걱정스럽다. 언명이 군인 전 상좌를 시켜 환상조 각 6두를 가지고 왔다. 신경유의 아들 상건이 와서 보고, 그 아버지의 말을 전하면서 별감의 책임을 면하고 싶다 하므로, 나는 이 말을 태수에게 전했다. 덕노를 시켜 도끼・칼・낫 같은 연장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벼리어

오게 하고 값으로 벼 2두를 주어 보냈다. 복지가 와서 집사람의 손에 난 종기에 침을 놓았다.

7일. 환상곡 중에 남은 것 2석을 친히 사창에 갖다가 바쳤다. 전일에 바친 것과 합쳐서 모두 9석을 다 바친 셈이다. 다만 말이 축간 벼는 아직 바치지 못했다. 마침 좌수 조광철이 곡식을 받기 때문에 되어 보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넣었다. 돌아올때 태수(박춘무)에게 들어가 보려 했으나 가 있는 곳에 공사가 바빠서 필시 조용치 못하겠기로 그대로 돌아왔다. 들으니 홍 생원 사고가 어제저녁에 호남으로부터 왔다고 하기에 찾았더니, 마침 권학도 또한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홍이 나에게 큰 잔으로 술 3잔을 주었다. 그가 올 때 영암 임경흠을 찾아 수일 동안 묵었는데, 임매(林妹)가 편지를 보냈기에 펴보니 잘 있다고 했으나 다만 앞에 두고 부리던 동비 원옥이 불의의 병으로 죽었다 하니 애석하다. 사고에게 단아의 먹을 것을 요구했더니 녹포 2조각, 전복 3개를 준다. 부채 3자루와 백지 10장도 역시 얻어 가지고 왔다

8일. 해운판관(조존성)이 군에 들어와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묻기에 즉시 들어갔더니, 마침 한 진사 겸, 권 생원 학도 역시 왔다. 같이 상방(上房)에서 이야기하다가 판관은 점심 후에 떠나가고, 나는 돌아올 때 태수에게 들어가 보고 권경명과 같이 돌아왔다.

9일. 어제저녁부터 비가 내리더니 밤새 그치지 않고 안개가 자욱하다. 오후에 천 린이 한산으로부터 찾아왔는데, 수일 전에 수원에서 내려왔다 한다. 그편에 생원 (오윤해)의 편지를 보니 초학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언 명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펴 보니 어머님 기후도 편안하신데 이번에 누이의 강청으로 서울로 들어가셨다 한다. 저녁에 평강(오윤겸)에서 문안인이 왔는데, 오는 길에 들러서 어머님 편지 및 언명과 누이의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펴 보니 모두 무사하고, 어머님은 아직 고성 누이의 집에 계신데 마음이 매우 편안하다고 하시니 몹시 기쁘다. 평강에서는 양식과 반찬거리를 계속 보낸다고 한다. 또 생원(오윤해)의 편지를 보니 학질이 지금까지 가감이 없어서 원기가 아주 떨어졌다고 하니 걱정 스럽다. 이 때문에 정시도 가 보지 못했다 하니 더욱 한스럽다. 윤함은 왔을 것 같

은데 들으니 아직 오지 않았다니 몹시 괴이하다. 정시에서는 20인을 뽑았는데, 직 장 안종록이 장원을 했고, 안사눌도 또한 합격했다 하니 기쁜 일이다. 안 공은 곧 나의 소년 시절의 친구이다. 젊었을 때 영락해서 여러 번 과거에 낙방했는데 늙어 서도 뜻을 게을리하지 않고 과거만 있다면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쫓아가서 시험 을 치러서 마침내 이름을 얻었으니 가위(可謂) 뜻이 있는 자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 지는 것이다. 평강은 멀리 간 지가 오래지 않아서 다시 관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시 서울에 오지 못했다고 하니, 그 게으르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가 있다. 평강에서 보낸 물건은 생치 2마리 · 생노루 1마리 · 생방어 1마리 · 생은어 25두름 · 건치 10마리 · 잣 20두 · 백미 3두 · 꿀 3되 · 생대구 2마리 · 알젓 1항아 리 · 절인 전복 96개 · 오미자 4되. 아내에서 보낸 건치 12쪽 · 작은 문어 1마리 · 내가 입을 옷감으로 보라색 비단과 남색 명주 · 제 어머니가 신을 노루털 버선 · 제 두 누이에게 보낼 버선 · 노루가죽 2개이다. 이에 이 고을 태수(박춘무)에게 편지 와 생은어 2두름을 보내고, 의녀 복지에게도 또한 은어 2두름과 생치 1마리를 보 냈다. 저의 어머니 손의 종기를 고쳤기 때문이다. 이 별좌(이덕후)가 말하는데 그 곳에 사는 종에게서 매 1마리를 사 가지고 왔다기에 또 생은어 2두름과 오미자 2 되를 보냈다. 이제 평강(오윤겸) 편지를 보니 매를 구해 달라는 편지가 하루에도 4. 5차 이상 오고, 때로는 친히 잡아가는 자도 많아서, 비단 매의 먹이를 대기 어 려울 뿐 아니라, 행량도 역시 댈 수가 없다고 하니 말할 수가 없다. 평강에서 보낸 옷은 생각건대 필시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것을, 전일에 와 보았을 때 내가 옷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낸 것일 테니 한편 슬프고 불쌍하다. 그 러나 저도 역시 입은 옷이 몹시 얇은데 이 같은 풍설에 혹시라도 먼 길을 가게 되 면 몹시 걱정이 된다. 보내 온 꿩은 즉시 2마리를 굽고, 생대구 반 마리로 국을 끓 여서 아이들과 같이 먹었다. 오래 먹지 못하던 끝에 이런 맛있는 음식을 얻으니 참 다행한 일이다. 다만 술이 없으니 이것이 하나의 흠이로다. 그러나 스스로 족한 것 을 알지 못하고 또 좋은 술을 바라다니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오충일이 마침 와서 또한 함께 먹으니 다행한 일이로다.

10일. 간밤에 새벽까지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그치지 않는다. 오후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려서 길이 질다. 그래서 충일은 여기에서 체류했다. 아침 먹기전에 평강에서 온 편지와 보내는 물건을 덕노가 가지고 임천아문에 가게 하는데 나도 또한 편지를 써 보냈다. 또 생대구 반 마리와 알젓 1그릇을 보냈으니, 그것은 이곳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또 눌은비를 시켜서 생은어 20마리와 생치 2쪽을 소즐에게 보내고, 집의 노비들에게도 은어 각 5마리씩 나누어 주었다. 또 태수에게서 빙고의 퇴목 1바리를 얻어 왔다.

11일. 눈이 내려 거의 반 자에 이르렀다. 유선민에게 꿩 1마리, 은어 2마리를 소즐의 계집중 편에 보내고, 성민복에게도 또한 은어 15마리를 보냈다. 또 평강에서 온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가지고 이 별좌에게 가서 새우젓을 얻어 오게 했다. 전일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충일은 한산으로 돌아갈 것이나 눈이 내리기 때문에 하루를 더 머물렀다. 단아는 어제부터 좀 나은 것 같더니 오늘 저녁에는 도로 머리가 아파 밤새 고통하니 몹시 걱정이 된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생치를 사서 나누어 먹고자 하므로 집사람이 2마리를 즉시 내주었더니 1마리는 쌀 1두 8되를 받고, 1마리는 마태 4두를 받았다. 종일 세 곳에 편지를 쓰다 보니 밤이 깊어서야 끝났다.

12일. 어제부터 일기가 몹시 차가워 졌다. 밤은 차고 이불은 얇은데 단아는 고통이 종일 그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어두울 무렵에야 조금 덜한 것 같다.

13일. 은어 12마리와 꿩 1쪽을 이복령의 집에 보냈다. 단아의 증세는 비록 어제 아침 같지는 않으나 두통이 아직도 쾌히 낫지 않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평강에서 온관인은 어제 이 별좌(이덕후)의 집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들으니 이 별좌가 전일 피란할 때 주인으로 정했던 집인데, 매를 가지고 그 집을 팔려고 왔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라 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홍산 손승조가 술과 실과를 가지고 와서 마시고 돌아갔다.

14일. 단아의 증세는 별로 가감이 없다. 아침에 부득이 군에 들어가 아헌에서 태수 (박춘무)를 만나 보고 한참 이야기하노라니, 그는 나에게 술 3잔을 대접한다. 올 때는 권 생원 학을 찾고 돌아왔다. 권은 나에게 새우젓 1그릇을 주었다. 이에 나는

생은어 16마리로 갚았다. 이 별좌도 새우젓 1항아리와 콩 3두를 보냈다.

15일. 지난밤에 큰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그치지 않는다. 평강에서 온 사 람은 이 때문에 체류하고 떠나지 않았다. 덕노는 소금을 사올 일로 남포에 가려다 가 떠나지 못했다. 단아는 여전하고 가감이 없다. 평강 사람이 올 때 어머님이 다 려서 잡수시던 모과 2덩어리와 대나무 기름 및 생강 1되 반을 평강으로 보내는 것 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려서 보냈다. 여기에는 꿀이 없기 때문이다. 어머님께는 새 우젓 1항아리를 보냈다. 평강에서 온 사람은 같이 온 사람의 매를 팔 일로 해서 윤 응상의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함께 3일을 머물다가 어제저녁에 비로소 돌 아갔다. 그는 또한 별좌의 인질이 되고. 매를 팔려고 온 사람은 곧 내윤의 종으로 서 평강에 사는 자이다. 전일에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가지고 오는 길에 또한 별좌로 해서 매 하나를 가지고 와서 판 것이라 한다. 처음에는 비가 그치지 않아서 떠나려고 하지 않다가 늦은 후에 비가 개었기 때문에 떠나갔다. 임 참봉(임면부)의 계집종 복금이 난리를 피하여 그 어미 및 조카 덕수와 함께 이 군내에 살다가 기관 (記官) 임무(林茂)의 화처(花妻)가 되었는데, 임무가 태수에게 죄를 짓고 온 집이 도망갔기 때문에 복금은 갈 곳이 없게 되어 여기에 와 있은 지 이미 4, 5일이 되었 다. 어제 이 일로 해서 군에 들어가 태수를 보고 임무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더 니, 태수는 말하기를, "임무는 죄를 지은 것이 몹시 무겁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가 없으니. 원근의 일족을 모조리 잡아 가두어야 나타날 것이다" 한다.

16일. 단아의 증세는 조금 나았으나 아직도 쾌히 낫지 않아서 음식을 비록 조금 더 먹지만 역시 때로는 달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은 제 어머니가 백 가지로 구해서 먹이느라고, 오직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야로 옷을 벗지 않고 앉으나 누우나 부축해 안아서 조금도 게으른 빛이 없으면서, 오직 그 뜻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가위 자모(慈母)의 끝이 없는 은혜이다. 남의 자식 된 자가부모의 마음처럼만 마음을 쓴다면 효도 아닌 자가 없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덕노는 날이 밝기 전에 떠나서 남포로 갔는데, 소금을 사기 위해서이다. 가는길에 함열 농촌에 들러 자고 간다기에 생치 1마리, 건치 2마리, 생은어 30마리, 방어 조금을 보냈다. 이 딸도 한 집에 있었으면 같이 먹을 것인데, 같이 먹지 못하므

로 매양 반찬을 먹을 때마다 갑자기 이 생각을 하면 문득 목이 메어 오랫동안 수저를 놀리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17일. 단아는 전과 같아 별로 가감이 없다. 들으니 이 별좌(이덕후)가 병이 중하여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전일에 먹어 본 포도와 정과(正果)를 먹었으면 하는데, 마침 평강에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눌은비를 보내서 보내오지 않았다는 말을 통지하고, 그편에 알젓 1접시를 보냈다. 그러나 눌은비가 그 집에 도착하니, 역시 기절했다가 오랜 뒤에 비로소 깨어나서 자연히 해가 저물어서 오다가 그 족인의 집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또 아침 늦은 후에이 진사가 사람을 보내 편지하기를, "이 별좌가 병세가 몹시 중한데 청심환을 얻을수가 없으니, 다행히 남은 것이 있으면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했으므로 즉시 남아 있는 반 알을 보내 주었다. 또 소즐이 사람을 시켜 편지하기를, "그저께 조 도사백익이 집에 왔다가 즉시 공산으로 돌아가면서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강화를성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으니, 흥적이 오래지 않아서, 군사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피란 갈 준비를 한다고 한다. 허실은 비록 확실히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 한 집은 다만 말 한 필에 중하나로 피란을 하면 장차 어디로 간단 말인가. 말할 수가 없는 일이다.

18일. 눌은비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오는 길에 들으니 이 별좌가 새벽에 별세했다고 하더란다. 이 말을 들으니 비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평일에 나를 대하기를 몹시 후하게 하여 만일 구하는 것이 있으면 어려워하는 빛이 없이 응해 주었다. 비단나에게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몹시 후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모두 감사히 여겼는데, 이제 그 부음을 들으니 비통하기 끝이 없다. 지난달에 내집을 찾은 뒤로는 일이 있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아주 헤어졌으니 인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더욱 비통한 일이다. 수일 전부터 날씨가 몹시 찼는데, 오늘이 소한이기 때문이다. 늦은 후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조대림을 찾았더니 마침군에 들어가고 집에 없다. 오는 길에 성민복에게 들어가 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성(成)은 나에게 좋은 술을 큰 잔으로 2잔을 대접했다.

19일. 아침 식사 전 남포 딸이 지나는 사람 편에 편지를 보냈기에 떼어 보니 잘 있

다고 하고, 진아는 이제 비로소 성립되었으며, 또 밥도 찾고 젖도 찾는다고 하니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다만 서로의 거리가 하룻길 밖에 되지 않는데집에 종과 말이 없어서 오래도록 가서 만나 보지 못하고 있으니, 다음 날에 멀리간다면 소식을 또한 듣기 어려울 것이라, 탄식한들 무엇하리. 제 어머니는 편지를보고 울기를 마지않는다. 성민복은 시사를 지내고 나서 사람을 시켜 나와 허찬을청했기에 즉시 가서 술을 마시다가 크게 취해서 돌아왔다. 저녁에 민 주부 자경(字慶)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말하기를, "자방과 같이 오다가 자방은 대흥까지 오다가남포로 향했고, 여기에서 자고 함열로 가겠다"고 한다. 그에게 들으니 적의 소문이몹시 급해서 주상께서도 역시 이미 치행을 차려, 근일에 먼저 내전을 해주로 옮길예정이요, 또 사대부의 처자들도 피란하기를 원해서 서울 안은 흥흥하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또 들으니 안사눌은 주소를 쓰지 않아서 방(榜)을 붙이는 날 간원(諫院)의 보고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하니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20일. 이른 아침에 한 진사 용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 율전 생원(오윤해)의 집에 들 렀더니, 생원이 편지를 보내기를, "학질은 덜한 것 같으나 변방 소문이 이와 같으니 임천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근일 중에 평강에서 반드시 인마를 보내올 것이니, 모름지기 속히 올라오십시오"했다. 단아가 아직도 아주 쾌하지 않은데, 비록 인마가 온다고 해도 형세가 버리고 갈 수 없는 일이니 더욱 걱정이다. 또들으니 언명의 계집종 개금이 도망갔다고 하니, 생각건대 필시 복비에게 구박을 받아서 달아난 것이리라. 다만 한 계집종이 있을 뿐인데 지금 또 도망갔으니 조석식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걱정이 쳐지지 않는다. 늦은 후에 말을 빌려 혼자 타고 소즐의 집으로 가서 만나 보고 잠시 이야기하는데, 나예게 술 3잔을 대접한다. 소와 함께 조김포 백공을 찾아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그 피란할 계획을 물었더니, 저들은 혹 배를 타고 대산ㆍ이산 물가로 피해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에 대장장이를 불러 바야흐로 마철과 전촉을 만들고 있다. 나에게 술을 큰 잔으로 둘을 대접한다. 안주는 송아지 갈비를 구운 것이다.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21일. 단아의 증세는 지금은 조금 덜하고, 음식도 역시 좀 더 든다. 그러나 조금만 찬 기운을 쐬면 금시에 도로 아프니 말할 수 없다. 요새 날씨가 몹시 차서 남쪽 강 이 반쯤 얼어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한단다. 전일에 인아의 처가 계집종을 함열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필시 이 까닭일 것이다. 아침 식사 후에 유선 민이 찾아왔다가 그길로 이 별좌의 성복하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 오늘은 곧 문중 [이덕후]의 성복이다. 처음에 가서 조상하려 했으나 덕노가 오지 않아서 종과 말을 얻을 길이 없으니 뜻은 있어도 어찌할 수가 없다. 평일에 서로 좋게 지내던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탄한들 무엇하리? 또 들으니 그 집에는 전염병이 크게 번져서 그 손자도 바야흐로 앓아누워 고통받고, 온 집안이 누운 자가 역시 많은데, 문중의 죽은 것도 또한 이 까닭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유(柳)도 역시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조상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또 그저께 밤에 이웃에 사는 진남모의 집에 닭이 8마리가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가서 모두 훔쳐가고, 1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남모가 울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하니 애석한 일이다. 닭 1마리의 값이 쌀 2두이니, 8마리면 쌀이 16두니, 그 우는 것도 의당한 일이라 하겠다.

22일. 단아가 아침에 만두를 조금 먹더니 갑자기 전일에 아프던 두통이 다시 일어서 몹시 아파하고 괴로운 소리를 하며, 먹었던 것을 다 토해 버리고 말도 분명하게 하지 못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허찬은 일이 있어서 한산에 갔다. 늦은 후에 서천태수 한공술이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묻고 그편에 꿩 1마리를 보냈으니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또 이 별좌(이덕후)의 집에 보낸 매를 요구하니, 이는 내가 값을 받고준 것을 모르는 까닭이다. 이제 들으니 별좌가 죽었다고 하니 반드시 내가 도로 찾을 줄 알 것이다. 하지만 이 고을 태수(박춘무)가 이에 빌려 왔다고 하니 형세가 부득이하게 되었다. 즉시 이 뜻으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어제저녁에 덕노가 소금을사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식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고, 또 절인 게 5개와 생전복 10개를 보냈다. 유자와 정과도 조금씩 보냈는데, 이것은 단아가 병중에 먹으라는 것이었다. 아침에 이복령이 벼 1석을 사 보냈으니 이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23일. 덕노를 시켜 최인복의 밭에서 난 콩을 두드려 각각 13두 5되씩을 나누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는 것이니, 탄식스럽다. 늦은 후에 무료해서혼자 말을 타고 조대림ㆍ권학을 찾았으나 모두 집에 있지 않다. 또 홍사고의 집에들어갔더니 마침 이 진사 중영이 와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의 복지가

술 2병을 가지고 와서 각각 큰 잔으로 4, 5배씩 마시고 저녁때에 돌아왔다. 이 진 사에게 이문중(이덕후)의 병은 전염병이 아니라, 상한과 범색(犯色)으로 높은 열이 거듭 나서, 이내 구하지 못한 것인데, 정실(正室)에게 범색한 것이라 한다. 인아의 처의 계집종 막비가 함열로부터 돌아왔는데 강물이 반쯤밖에 얼지 않아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널목에서 자고서야 겨우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김백온 이 편지를 보내 문안했는데, 서울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다.

24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다. 해가 오늘부터 비로소 길어진다. 단아의 증세는 아프고 덜한 것이 일정치 않아 끝내 쾌히 낫지 않으니 몹시답답하다. 계집종을 보내서 침과와 침청을 이 진사(이중영)의 집에 가서 구해 오도록 했다. 앓는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다.

25일. 단아의 증세는 여전하다. 머리를 여러 달 빗지 않아서 뭉쳐진 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득실거려 스스로 손으로 이를 훔쳐서 던진 것이 그 수를 알지 못하겠다. 이 때문에 머리가 헐어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니 가련하다. 아침에 계집 종을 홍 생원에게 보내서 김치 1사발을 얻어 왔는데 단아가 이것으로 수반을 조금 먹었다. 요새 집사람은 10여 일 동안 침을 맞지 않아서 손의 종기가 도로 부기(浮氣)가 생겼다. 이에 복녀를 불러 침으로 째게 한 뒤에 술 2잔을 먹여 보냈다. 환상곡 소모된 것을 아직 바치지 못해서 아전이 날마다 와서 독촉한다. 이에 어제 태수에게 편지를 했더니 회답하기를, "서서히 그 사무 처리하는 곳으로 하여 감해 주겠노라"고 한다. 그래서 아침에 덕노를 그곳으로 보내어 이 뜻을 알고 재촉하지 말도록 전했다.

26일. 덕노로 하여금 막비를 데리고 남당나루로 가서 강을 건너게 해 주고 돌아왔다. 이는 내일 인아의 처가 함열에 간다기에 먼저 김 봉사(김경)에게 통지해서 내일 아침에 종과 말을 나룻가에 보내어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또한 남의 말을 빌려 가지고 나룻가까지 보낼 작정인 것이다. 식후에 군에 들어가서 태수(박춘무)를 보고 내일 신부가 돌아가는데, 무사히 건너가도록 남당 나루에 보내어 부탁해 달라고 청했다. 이 진사(이중영)가 편지를 보내 나를 청했기에 갔더니, 신 별감 몽겸이 먼저 와 있고, 홍 생원(홍사고)·조 판관(조대림)도 따라서 왔

다. 이에 술자리를 마련했고, 홍 생원도 또한 술과 떡과 안주를 장만해 가지고 왔는데, 몹시 풍성하다. 오늘은 곧 이 진사의 생일인데, 홍 생원의 딸이 그 집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련해서 바친 것이다. 서로 수작하노라니 몹시 취하고 배부르다. 어두울 무렵에 나는 먼저 작별하고 돌아오는데, 쇠고기 구운 것 3꼬치를 싸주면서 앓는 딸에게 주라 한다.

27일. 남의 말을 빌려 가지고 이른 아침에 인아의 처를 함열로 떠나보냈다. 덕노는 소금을 살 일로 한산으로 가고, 향비가 남당 나루까지 갔다가 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단아는 어제부터 도로 아프니 걱정스럽다. 어두운 뒤에 자방(신응구)이 남포에서 왔는데, 익산으로 가서 근친할 것이라 한다. 그에게 서울 소식을 자세히 듣고 밤이 깊어서 잤다. 소금 4바리를 실어다가 여기에 쌓아 두었다. 이것을 익산으로 실어다가 피란 갈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작정이라 한다.

28일. 이른 아침에 자방이 떠나니 남당길로 향해 갔다. 무수포는 얼음이 반쯤 얼고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린이 한산으로부터 와서 잤는데 내일 수 원으로 향해 간다고 한다. 밤에 편지를 써서 평강(오윤겸) 및 생원(오윤해)에게 보내고, 또 어머님께도 올렸다. 일기가 몹시 찬데 자방이 무사히 강을 건너 이미 익산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29일. 이른 아침에 천린이 떠나갔다. 한복은 다리에 종기가 나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허찬이 그저께 혼자 왔다. 그러나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간신히 이복령에게서 말을 얻어 가지고 허로 하여금 말을 가지고 가서 데려오라고 했다.

그믐날. 복지가 와서 집사람 손의 종기에 침을 놓기에 큰 잔으로 술 3잔을 먹여 보냈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건시 1접을 가지고 와서 병아리를 구하므로 즉시 바꾸어서 앓는 딸에게 주었다.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12월

1일. 어떤 사람이 원통한 일이 있다고 날더러 태수(박춘무)에게 들어가 보고 뜻을 말해 달라고 청한다. 이에 저녁에 관청으로 들어가 태수를 보고 그 일을 갖추어 말했더니 원하는 대로 들어주마고 대답하고. 술 3잔을 대접하여 돌려보낸다.

- 2일. 상 판관 시손이 와서 보았는데 집에 막걸리가 있기로 큰 잔으로 3잔을 대접하고, 눈이 내리기 때문에 나의 삿갓을 빌려 주어 돌아가게 했다. 최인우가 역시 와서 만나 보았다.
- 3일. 눈이 내린다. 올 겨울은 추위가 심한 것이 근년에는 없던 일이다. 집에 나무가 없고, 방은 차고 이불이 얇아서 밤에 잠잘 때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단아의 증세는 비록 조금 덜한 것 같으나 머리에 가득히 종기가 나고, 종기가 터져서 고름이 흐르며, 이가 머리 틈에 있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이에 종기 난 자리의 머리털을 깎고 물로 씻겼으나 원기가 몹시 약한 터에 이제 큰 병을 만나고 보니, 파리함이 더욱 심해서 비록 이제부터 아주 낫는다 해도 수개월 이내로는 제 모습을 찾지 못하겠으니 슬프고 불쌍함을 이길 수 없다.
- 4일, 이른 아침에 영암에 사는 임경흠의 조카 현이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어제는 홍 사고의 집에서 자고 아침에 찾아왔다. 일찍이 이는 뜻밖이라. 만나니 기쁘고 위로 가 된다. 그러나 길이 바쁘다 해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술 3잔을 대접해 보내고, 집 사람을 시켜 펴지를 써서 누이에게 보내도록 했다. 나는 손님 만나느라고 틈이 없 었기 때문이다. 조백남도 함께 왔는데, 그는 곧 경흠의 사촌 매부 조 도사 기서의 아들이다. 나는 현에게서 서울 소식을 들었는데, 중국 사신은 아직 바다를 건너가 지 않았고, 전번에 변을 처음 들었을 때 사대부의 처자들은 미리 피란할 계획으로 관동으로 향해 가다가 중도에서 토적을 만나서 해를 입은 자가 많았는데. 이는 모 두 조정에서 기른 포수들이 도둑이 된 것이라고 한다. 만일 변이 생긴다면 반드시 토적에게 약탈을 당한 것이라 하니 말할 수가 없다. 또 들으니 서울에 있는 포수들 은 모두 무뢰배로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붙어 있는 자가 거의 3천여 명에 이르 는데. 이들은 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백성을 죽일 염려가 있으니. 만일 주상께서 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거둥하는 날이면 서울은 적의 소굴이 될 것 이니. 피란하는 사자(士子)들이 만일 미리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무리 들의 화를 당할 것이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저녁에 자방이 익산에서 돌아왔는데. 어제는 은진에서 자고 이제 여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잤다.
- 5일. 자방은 이른 아침에 남포 농장으로 떠났다. 일기가 몹시 찬데 걱정이다. 자방

에게 들으니 윤겸은 지난달 보름께 우계를 만나고 갔다고 은진태수의 자제들에게 들었다고 한다. 조군빙의 아들 박이 와서 보고, 한산군수(강덕서)에게 청할 일이 있다고 내 편지를 받아 가지고 갔다. 저녁에 윤함이 황해도로부터 왔다. 오래 소식이 끊겼던 나머지에 갑자기 만나니 온 집안이 모두 기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처자들도 모두 무사하고, 올 때 서울에 들러 어머님을 뵈었으며 율전에 있는 윤해도 또한 모두 잘 있다고 한다. 방 안에 둘러앉아 서로 보고 이야기하느라고 밤이 이미 깊었다.

6일, 어제 두부 만들 콩 2두를 보광사에 보내서 두부를 만들어 왔다. 다만 그 수가 몹시 적으니 밉살스럽다. 종일 무료해서 아이들과 함께 방 안에 둘러앉아 이야기 했다.

7일. 평강에서 인마를 개질지가 데리고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펴 보니 잘 있다고 했다. 들으니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풍진이 오래지 않아 다시 일어날 것이라 하니 만일 변이 생긴 후에는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인마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날씨가 이렇게 차고 단아의 병도 아직 아주 쾌하지 않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하지만 지금 가지 않으면 인마를 다시는 얻기 어려울 것이므로 서서히 5,6일만 기다려서 보름께 떠날 작정이다. 백미 3두, 피쌀 2두, 생치 13마리, 약과, 중박계, 잣떡 각각 조금씩 행담 하나에 담고, 소주 4병, 목말 등 물건을 보내왔다.

8일, 군에 들어가 태수를 만났더니 마침 한겸·홍사고·조대림도 역시 와서 같이 아헌에서 이야기하는데, 태수가 우리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이에 윤함이 산 계집 종 문서를 달래 가지고 돌아왔다. 아침에 평강에서 온 사람을 함열 인아에게 보내어 내일 그 형에게 와서 보고 서울 갈 일을 의논하라고 했다.

9일, 이복령·성민복·신몽겸이 찾아왔기에 구운 꿩고기를 대접하고 또 소주를 냈다. 관비 복지가 또한 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대접했다. 복령에게는 또 수반을 대접했다. 그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내 바둑을 두다가 저녁 무렵에 헤어졌다. 저녁에 인아가 오고, 덕노도 또한 한산에서 소금을 사 가지고 왔다. 올 때 진잠(이창복)에 들러 편지를 바쳤더니, 벼 1석·백미 3두·찹쌀 1두·목말

2두 · 말장 2두 · 건시 1접 · 조기 2묶음 · 대추 3되 · 백지 1묶음 · 법유 1되를 보냈다. 자방이 준 소금 13두를 팔았더니 쌀 12두 6되이다.

10일. 이른 아침에 두 아들과 떠나서 두 아들은 바로 남포로 가고, 나는 한산군수 [강덕서]를 만나려고 한산 길로 가는데, 중로에서 들으니 한산군수가 아침에 홍산에 갔단다. 이에 이 별좌(이덕후)의 집에 들어가서 조상하려 했더니, 또 들으니 그집에 전염병이 바야흐로 한참 번져서 그 아우 덕수가 방금 괴롭게 앓는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윤웅상을 만나 잠시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술을 대접하고 그 며느리로 하여금 나와 보게 한다. 그는 곧 처사촌 평양수의 딸이다. 여기에서 나와서 홍산 길로 향하는데, 꾸불꾸불한 험한 길을 거쳐서 겨우 홍산에 도착했더니 한산군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마침 전일 한산군수가 이곳에서 남포로 왕래할 때 상하의 식사를 대접하라는 첩지가 주머니 속에 있기에 이 첩지를 장무에게 보였더니 상하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저녁에 한산군수가 와서 같이 아방에서 자는데, 마침 김계가 또한 와서 같이 잤다. 김은 곧 언명의 처족으로, 조형연의 동서이다

11일. 먼저 허찬을 한산에 보내어 비자의 수공할 일로 패자를 받아 가지고 오게 했다. 한산에서 첩지로 주는 물건은 미역 2동·새우젓 5되·뱅어젓 5되·청어 3마리·조기 2묶음인데·허찬으로 하여금 받아 오게 했다. 또 홍산 물건으로는 백미 2두·콩 11두·참기름 1되·감장 2두·간장 2되·밤 5되·홍시 10개·숯 1석인데, 종으로 하여금 인아의 처갓집 종의 집에 두게 했다. 늦은 후에 떠나서 남포로 가느라고 큰 고개를 넘고 큰 내를 4, 5곳이나 건너서 어두울 무렵에야 겨우함열 자방의 집에 도착했다. 들어가서 딸을 만나 보고, 자방과 두 아이와 함께 방안에 둘러앉아 밤이 늦도록 이야기하다가 자리에 들었다. 중진(신응구)의 아들을 보니 단정하고 예쁜데,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일어서니 몹시 귀엽다. 중간에 진업(振業)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처음 이름으로 다시 고쳤다.

12일. 늦게 아침을 먹은 뒤에 두 아들과 함께 딸을 작별하고 길을 떠났다. 딸을 보지 못한 지가 이제 5, 6삭이 되었는데, 어제 어두워서 왔다가 오늘 아침에 도로 작별하게 되었다. 우리 집이 서울로 올라간 뒤에는 그 집도 역시 세후에 서울로 갔다

가 황해도로 가고자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후일에 서로 만날 것도 기필할 수가 없는 일이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오늘 온 것도 또한 갈 길이 바빠서 하루도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니 심사가 울적하다. 어제 왔던 길로 해서 저녁 무렵에 홍산에 도착하니 한산군수는 이미 그 고을에 돌아와 있다. 저녁밥은 다만 나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관청에서 준비해 대접해 주었고, 두 아이는 부득이 전일 받아둔 쌀로 인아의 처갓집 종에게서 밥을 짓게 하여 먹으니 밤이 2경이나 되었다. 따뜻한 아방에서 자니 이것은 다행하다.

13일. 또 우리 쌀로 아침밥을 짓게 하여 먹었다. 전일 대장간에 둔 마철 73개를 겨우 찾았는데, 절반은 훔쳐서 쓰고 주지 않으니 밉살스럽다. 또 깨진 솥 고치는 일은, 아직도 고치지 않았다 해서 버려두고 돌아왔다. 한낮이나 되어 임천 집에 당도하여 들으니 단아가 어제부터 도로 두통을 얻어 밤새 고통스러워하다가 지금은 비록 잠시 덜하나 아직도 아주 쾌하지 못하고 음식도 역시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한다. 길 떠날 기일은 이미 박두했는데 병세가 또 이같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수일 전부터 일기가 화창하니 기쁜 일이다.

14일. 한산군수가 군에 도착하여 사람을 시켜 나를 청하므로 즉시 윤함과 함께 군에 들어가니 한산군수는 이 고을 태수와 함께 동헌에 앉아 있다. 같이 이야기하고 다담(茶啖)을 대하고, 또 점심을 먹은 후에 한산군수는 먼저 떠나고, 나도 윤함과함께 돌아왔다. 소즐이 마침 왔기에 소주 4잔을 대접해 보냈다. 덕노로 하여금 소금을 팔아 쌀 12두 5되를 받아 왔는데. 이것은 행량으로 쓰려 한다.

15일. 날이 밝기 전에 조 도사 백익의 집을 찾았더니 소즐이 먼저 와 있다. 어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라갈 때 여러 고을에서 자게 해 주도록 사사로이 주선해줄 것을 청했더니, 대흥·신창 두 고을 태수에게 백익이 편지를 써 주었다. 돌아올때 유선민에게 들어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술 3잔을 대접한다. 백익도 또한 나에게 술을 주고 아침밥도 대접했다. 저녁에 허찬이 한산에서 계집종을잡아 가지고 와서 날더러 그 종을 때리라고 한다. 이에 즉시 결박해서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5,60차 때린 다음,입고 있는 치마를 벗기게 했다. 전일에 허찬이 갔을 때는 전혀 만나 주지 않고, 또한 수공도 하지 않고서 피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니

몹시 밉다. 그래서 한산군수에게 청해서 그 주인을 만나게 되어서 비로소 나타난 것이다. 황사숙(황신)이 일본에서 이미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 장계를 보니, 중국 사신이 오는 것을 더딜지 빠를지 알기 어려워서 아직 머물러 있어 중국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일본에 있을 때 들으니 청정(淸正)(가토기요마사)은 올 겨울에 나온다고 하고, 먼젓번에 평행장이 박대근에게 이르기를, 청정이 비록 급히 가고자 하나 모름지기 병기도 수선하고 양곡도 주선해 가지고 가야 하므로 모든 것을 수습하려면 일자가 필시 많이 걸릴 것이므로 마땅히 1, 2월 사이에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다. 적이 다시 오고 안 오는 것은 지금 비록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그 형세가 또한 내년 봄을 넘기지 못할 것이므로 아직 행장(行長)이 오는 것을 탐지한 후에 다시 장계를 올리겠다 운운했다.

16일. 단아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종일 고통스러워한다. 떠날 기일은 이미 박두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 몹시 걱정이다. 덕노와 개질지를 시켜 쌀 15두를 싣고 한산장에 가서 패랭이 35개를 사게 하고, 또 황납 8냥쭝으로 쌀 7두를 바꾸어서 모두 패랭이를 사 오게 했다.

17일. 인아를 먼저 함열로 가게 했다. 만일 서울로 올라가려면 종과 말이 없어서 필시 떠나지 못하겠기에 먼저 보낸 것이다. 우리 집이 올라간 뒤에 즉시 사람과 말을 보내서 데려갈 계획이다. 또 소즐을 불러 단아가 쓸 토끼털 목도리와 남바위 등을 만들게 했다. 단아가 오늘은 좀 덜하니 기쁘다. 다만 아프고 덜한 것이 대중이 없고 또 음식을 들지 못하니 몹시 걱정이다. 오후에 들어가서 태수(박춘무)를 보고 올라갈 뜻을 말하여 작별하고, 또 하루 쓸 인마를 빌려 달라고 청했더니, 마땅히 관청 말을 빌려 주겠다고 허락하니 기쁜 일이다. 그리고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해서 전별의 뜻을 표한다. 돌아올 때 홍 생원 사고에게 들러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들으니 이 별좌의 아우 덕수가 지난 12일에 전염병으로 죽었다니 몹시 슬픈 일이다. 한 달 안에 형제가 모두 죽다니 참혹한 일이로다. 또 들으니 이 진사 중영의 첩은 곧 평강 기생인데, 지난가을에 진사와 서로 다투다가 공주에 사는 그 동생의집에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李)는 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만 그는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종을 첩에게 보내서 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첩은 슬피 울다가

소복 차림으로 머리를 풀고서 통곡하면서 왔다. 마침 그가 오던 날이 장날인데 곡을 하면서 시장 안을 뚫고 가니 사람들이 모두 괴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길에서 그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야 비로소 그 말이 거짓인 것을 알았다 하니 우스운 일이다. 신경유가 와서 보았다.

18일. 아침 식사 후에 조군빙(조희윤)에게 가서 작별하니 조는 나에게 소주를 대접한다. 올 때 조백공(조희식)의 집에 들렀으나 마침 집에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소즐의 아내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집사람을 보았다. 모레 떠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즐이 패랭이 14개를 보내서 노자에 보태 쓰라고 한다. 저녁에 또 이중영의 집에 갔더니 이는 술에 취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 아들 장이 나와서 인사한다. 성민복·조응개가 와서 보았다. 집사람은 경쟁이를 불러서 경을 읽어 잡귀를 쫓게 했다. 딸의 병 때문이다. 비록 헛일인줄 알면서도 민망한 중에 형세가말릴 수가 없으니 탄식한들 어찌하랴?

19일. 내일 마땅히 떠나야 한다. 두 종과 허찬으로 하여금 행구를 준비하게 했다. 성민복이 마태 2두를 보냈으니 몹시 감사하다. 소즐이 와 보았다. 유선민의 부인이 떡을 만들어 보내 전별했다. 오후에 들어가 태수(박춘무)를 보고 종 만억을 데리고 갈 것을 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태수는 나에게 술과 떡을 대접했다. 오늘이곧 입춘이어서 관청에서 술과 반찬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태수가 쌀 4두, 조기 1 묶음, 새우젓 5되, 감장 2되를 주니 후의에 몹시 감사한다. 또 조희윤이 마태 2두와 감장 반병을 보냈다. 저녁에 성의숙(成毅叔)이 술과 과실을 가지고 와서 마시는데, 마침 홍사고가 와서 같이 먹었다. 어두운 뒤에 자방이 종을 보내서 문안했다. 딸의 편지를 보니 무사하다고 하여 기쁘다. 떡을 만들어 보내와서 집사람이 상하이웃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들으니 임태(任兌)가 김제군수(金堤郡守)가 되어부임한 지 열흘도 못되어 파면당해 가지고 온 집이 도로 남포현(藍浦縣)으로 돌아갔는데, 임태(任兌)의 한 집 및 면부(免夫)의 처자도 역시 따라갔다고 한다. 이 같은 심한 추위에 오래지 않아서 북쪽으로 갈 것이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20일.** 이른 아침에 이중영 및 복지가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전별하는데 소즐 도 역시 왔다. 위아래 이웃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본다. 단아는 조그만 교자에 담요

를 깔고 탔다. 늦은 아침에 온 집안이 모두 떠나는데, 나는 태수가 준 공마(公馬)를 타고 떠났다. 중로에 이르러 집사람이 탄 말이 짐짝이 기울어서 사람이 부축하기 전에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부여 도천사에 이르니 아직 해가 기울지 않았 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 잤다. 단아는 점점 차도가 있다. 절에 이르러 교자에서 내 려 방으로 들어가는데 혼자 걸어가고 부축을 받지 않았으니 기쁨을 어찌 다 말하 랴. 떠돌다가 임천에 와서 산 지가 이미 4년이 되어 이제 비로소 북쪽으로 돌아가 니 떠나기에 앞서 모두 슬픈 생각이 있으니 인정(人情)에 어찌 그렇지 않으랴? 옛 사람이 이른바 "桑卜荳無三宿念"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나는 오래 여기에서 산 것 임에랴 또 집에서 먹인 개가 3마리인데, 제일 큰 놈은 암캐로서 이름이 흑순(黑 脣)이요. 그 다음은 수캐로서 이름이 미백(尾白)이요. 작은 개의 이름은 족백(足白) 이다. 그런데 흑순은 도로 들어가고 오지 않으므로 10리쯤 가다가 덕노를 시켜 살 던 집에 가서 끌고 오게 했더니. 덕노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개가 오려고 하지 않으므로 목을 끌었으나 끝내 따라오지 않아서 부득이 도로 소즐의 집에 주고 왔 다"고 한다. 그 개는 성질이 용맹스러워서 능히 쥐도 잡고. 때로는 참새도 잡으므 로 꿩 잡는데 쓰려고 조석으로 밥을 덜어 주어 길렀던 것인데 이제 버리게 되었으 니 몹시 아깝다. 모든 집안에서 쓰던 그릇 같은 물건은 모두 소즐에게 주었고, 솥 이 둘인데 하나는 크지만 깨졌고. 하나는 작지만 깨지지 않았기로 역시 소즐에게 주어 다음날 도로 찾을 작정이다. 그 나머지 소용없는 물건은 모두 이웃 사람들에 게 주었다.

21일. 콩 2두를 중에게 주고 두부를 만들어 상하가 함께 먹었다. 그러나 중들이 절반이나 도둑질해 먹어서 모두 실컷 먹지 못했다. 떠날 때 중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보니 두부 덩어리가 상에 가득히 쌓여 있으니 몹시 밉살스럽다. 그러나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도로 나왔다. 아침 늦은 후에 떠나서 꾸불꾸불한 얼음길 험한곳을 지나고 물을 건너면서 겨우 무사히 청양현 옛 주인 두응토리의 집에 도착했다. 들으니 해운판관 조존성이 오늘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여기에 와서 자는 것은 전혀 조를 믿고 온 것인데, 이제 들으니 떠나갔다고 하니 서운함을이길 수가 없다. 땔 나무가 몹시 구하기 어려워서 미역 3동을 주고 사서 땠다. 향

비의 남편 만억이 임천으로부터 따라왔는데, 그에게 들으니 이 봉사 복령이 어제 죽었다 하니, 슬픔을 참지 못하겠다. 복령은 지난 10일에 내가 북쪽으로 돌아간다 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종일 이야기하고 바둑도 두었는데, 집으로 돌아간 이튿날 풍질을 얻어 이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니 더욱 슬프다. 또 들으니 이문중(이덕후) 의 아들도 역시 병으로 죽었다 한다. 두어 달 만에 한 집의 형제 및 아들까지 모두 죽었으니 사람의 일이 탄식한들 무엇하라. 주인에게는 미역 2동을 주고 떠났다. 22일, 단아는 날로 더욱 차도가 있으니 기쁨을 어찌 말하랴. 지난밤에는 종들이 모 두 노숙을 했는데 일기가 춥기가 갑절이나 더 심한데 가련하다. 윤함은 아침 식사 후에 먼저 대흥으로 가서 미리 잘 집을 마련해 주도록 도사 조희보의 사사 편지를 그곳 현감에게 바치게 했다. 아침 늦은 후에 떠나서 대흥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기 울었다. 바람이 몹시 차서 상하가 모두 얼었고, 단아는 기운이 도리어 불편하니 걱 정이다. 이 고을 태수가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첩지를 써서 쌀 2두 · 중미 1두 · 콩 1두·감장 1두·간장 1되를 주고, 땔나무와 마초도 역시 많이 주었다. 우리가 잔 사삿집은 따뜻하고도 커서 여럿이 쓸 수 있으니 깊이 감사하다. 태수의 이름은 이질수로서, 전에는 비록 알지 못했으나 그의 집은 신관상동에 있어서 이름을 들 은 지는 오래고, 또 도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함이 먼저 가 보고 또 예산 군수에게 보낼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왔다. 내일 예산에 가서 잘 계획이기 때문이다. 윤함의 처갓집 종 운이 팥죽 1동이를 쑤어 보냈고. 전 남평군수 강종윤이 백주 1동 이를 보내와서 즉시 종들에게 먹였다. 저녁에 그도 또한 와서 보았으니, 그 후의에 몹시 감사한다. 마침 태수가 술과 안주를 보내서 다 함께 마시고, 밤이 깊어 돌아 갔다. 윤함도 역시 남평을 따라갔다. 처리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강남평은 곧 윤 함의 처삼촌이다. 들으니 통신사 황신이 이미 돌아와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중국

23일. 강남평의 종과 말을 빌려 가지고 내가 먼저 길을 떠나서 중로에 이르러 우연히 안 좌랑 경용을 만나 말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다가 남북으로 갈려 예산 유제촌 김 내한 자정(김지남)의 집에 도착했더니, 자정은 지난 초승에 이미 서울에 가서 집에 없고, 그 장형 업남은 바야흐로 전염병을 앓아서 나와 보지 않으며, 그 나

사신 양방형은 역시 지난 17일에 바다를 건넜다 한다.

머지 명남·계남·종남 3형제는 역시 일이 있어 현에 들어갔단다. 다만 자정의 딸성원 및 그 유모 진기의 어미가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보고 울 뿐이다. 이에 가지고 간 술과 과일로 누님의 신주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참 동안 슬피 울고나왔다. 또 이 참봉 은신을 불러 이야기하는데, 은신은 그 아들 행(行)으로 하여금 밥쌀과 반찬 등을 가져오게 하여 진기 모로 하여금 점심을 지어 대접하게 했다. 성아에게 줄 물건이 없어 겨우 대추 2되, 대계(大桂) 10여 개를 주었다. 그 아이는 강보에 있을 때로부터 총명하기가 남과 다르고 안색이 그 조카 무적(無赤)과 똑같다. 그의 손을 잡으니 슬픔을 참을 길이 없다. 강남평의 말을 즉시 돌려보내고 또 이은신의 종과 말을 빌려서 달려오다가 중로에서 김명남 3형제를 만나 말 위에서 한참이야기하다가 예산현에 도착하니, 한 집이 이미 사삿집에 도착해 있다. 이에 대흥태수 이질수의 편지를 올렸더니 군수는 즉시 땔나무와 마태를 주고 또 첩지를 써서 우리에게 식사를 주게 한다. 명남 3형제가 현에 왔을 때 우리 한 집, 여기에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윤함을 찾았으므로 마태 1두를 주었다 한다. 둘째 딸은 중로에서 말이 자빠져서 두 번이나 말에서 떨어졌다.

24일. 이른 아침에 태수가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마태 2두를 주었으며, 또 종들 13 인의 아침 식사를 주었다. 전에 알지도 못하던 터에 생각 밖의 후한 대접을 해 주니 몹시 감사하다. 또 그 아우 노사염을 보내서 위문한다. 아침 늦은 후에 떠나서 중로에 이르러 먼저 윤함을 신창현에 보내서 도사의 편지를 바치게 했더니 신창군수는 즉시 하인을 시켜서 그 쉬고 잘 곳을 골라서 마련하게 하고, 또 상하의 식사를 대접했으며, 마초와 땔나무도 많이 주었다. 우리 6명에게는 각 7홉, 하인들 8명에게는 각 5홉씩 쌀을 주고, 마태는 4되를 주었다. 그러나 잠잘 방은 비록 따뜻했지만 위가 싸늘해서 단아에게 찬 기운이 엄습하니 걱정스럽다. 나는 윤함과 함께 딴 집에서 잤다. 방이 좁아서였다.

25일. 이른 아침에 태수가 와서 보고 3잔 술을 대접한다. 등유 5홉을 얻어 가지고 식사 후에 떠나서 중로에 이르렀을 때 단아의 기운이 도로 불편하다. 난항 고개 밑에 이르렀을 때는 두통이 몹시 심해서 아프다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린다. 간신히 이시열의 집에 이르러 교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자 거의 인사(人事)를 차리지

못한다. 이에 청심환을 조금 먹였지만 고통이 또 전일보다 갑절이나 더하니 몹시 걱정이다. 마침 시열이 여기에 와서 땔나무와 마초를 주었다. 그러나 일기가 몹시 찬데 종들은 들어갈 방이 없어 겨우 빈 집을 얻어서 거처했다. 만일 병세가 오래도록 차도가 없으면 세안에는 돌아가지 못하겠으니 더욱 걱정이다. 시열의 어머니가우리들의 저녁밥 및 계집종들 4명의 식사를 대접한다. 그 나머지 종들은 가진 양식으로 밥을 지어서 먹었다. 집사람은 시열의 집 앞에 와서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아산에서 머물렀다.

26일. 처음에는 먼저 떠나려 했으나 단아의 병세가 위급해서 떠나려다가 중지하고, 다만 윤함의 종 옥지만을 보내고, 내일 좀 덜하기를 기다려 율전으로 갈 계획이다. 다만 양식과 반찬이 모두 떨어져서 몹시 걱정이다. 지금은 주인집에서 먹여주지만 만일 오래 머무르고 보면 형세가 그럴 수만은 없을 것이니, 행량으로 밥을지어 먹는 것을 내일부터 시작할 작정이다. 단아의 증세는 저녁에는 좀 덜하나 전혀 죽조차 먹지 못하고 목 아픈 것도 여전하다. 또 오철 · 윤우가 와 보았는데, 이들은 시열의 사촌으로서, 나에게는 팔촌척이 된다. 그대로 아산에서 머물렀다.

27일. 나는 또 먼저 떠나려 했더니, 아침밥을 겨우 마치자 단아의 증세가 위증해서 떠나기에 임하여 또 중지했다. 허찬도 역시 가는 것을 중지했다. 모든 일이 꼬여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모두 떨어졌다. 부득이 개질지를 시켜 평강(오윤겸)의 계집종 업성개가 사는 천안으로 보내서 수공해 오도록 패자를 써서 주었다. 또 향비의 남편 만억이 임천으로 돌아간다기에 고맙다는 편지를 써서 임천태수에게 보냈다. 아침 늦은 후에 단아를 데리고 시열의 집으로 옮겼다. 아무래도 세전에는 떠나지 못할 것 같고, 아랫집 주인 형수는 세찬 및 제물을 장만하느라고 몹시 바쁘고 시끄러워서 병자에게 마땅치 않겠기로 부득이 옮겨온 것이다. 또 들으니 평택 김자흠의 처가에 어제 불이 나서 다 타고 의복만 간신히 밖으로 내왔고, 그 나머지 곡식들은 절반이나 탔으며, 혹 밖으로 내놓은 것도 도둑을 맞았다 하니 가련한 일이다. 그대로 아산에 머물렀다.

28일. 시열의 집은 새로 짓고 아직 수장하지 않아서 방은 비록 따뜻하나 사면 벽에 구멍이 많아서 찬 기운이 뼈를 엄습하여 자리에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니 탄식스

럽다. 다만 병든 딸은 아랫목에 누웠기 때문에 몹시 춥지는 않다. 이른 아침에 윤함은 이로 사동에 있는 그 처가로 가서 구제의 곡식을 얻기로 했다. 또 오던 날 조석 식사는 주인 형수가 우리 한 집의 윗사람 및 종들을 먹여 주었고, 이튿날 조석은 정종경의 아내가 주었으며, 어제저녁 및 오늘 아침은 시열이 주었다. 또 정의 아내가 백미 1두ㆍ시열의 아내가 쌀 5되ㆍ붉은 콩 1두ㆍ검은 콩 5되를 주었다. 저녁에 윤함이 돌아왔는데, 백미 1두ㆍ마태 3두ㆍ무 2묶음을 얻어 왔다. 또 단아의 중세는 가감이 없고 비단 두통이 몹시 심할 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으며 눈이 더욱 아파서 빠지는 것 같고, 날이 어두운 때에는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다가 오랜 뒤에야 비로소 그치니 슬프고 불쌍하다. 호흡도 또한 때때로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여 참을 수 없다고 한다. 중로에서 병세가 이와 같으니 가도 오도 못하고 양식과 반찬이 모두 떨어졌으니, 만일 오래도록 차도가 없으면 비단 우리 집이 민망하고 절박할 뿐이 아니라, 평강의 인마가 오래 중도에 체재하고 있으니 그민망함이 더욱 지극하다. 그저께 쌀 2두, 콩 3두를 나누어 주어 근일 나누어 먹도록 했다. 그대로 아산에 머물렀다.

29일. 오 습독 댁에서 무김치 1그릇, 간장 1사발을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윤우 (尹宇)가 또한 삶은 마태 5, 6되, 마초 10여 묶음을 보냈다. 유탁이 와서 보았으니, 그는 곧 시열의 사촌이다. 또 윤종(尹宗)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 사촌 윤우 · 윤주 형제와 함께 시열의 방에 모여 이야기했다. 종은 곧 나의 총각시절 동문 친구이다. 시골로 와서 살았기 때문에 못 만난 지 이제 40년이 되는데, 어제 윤함에게서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와서 만난 것이다. 각각 소년 시절일을 이야기하니 친하기가 옛날과 같다.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이루 말하랴? 우 (宇)와 주(宙)는 또한 종(宗)의 동성 사촌이다. 종도 또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이 겨우 15세로서 예쁘고 빼어나게 사랑스럽다. 사는 곳은 여기에서 10여 리의 거리가 되는데, 그곳 지명은 항동이라 한다. 데리고 온 하인들은 내가 객지에서 과세한다고 한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집사람으로 하여금 술 5되를 빚게하고, 또 팥떡 2두 어치를 보내서 노비 및 평강에서 온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 위로하게 했다. 단아의 증세는 비록 좀 덜한 것 같으나 두통이 여전하고 신음 소리가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끊어지지 않으며, 매양 찬 것을 생각하므로 쌀을 넣고 콩죽을 쑤어 냉수에 식혀서 조금씩 먹이건만 전혀 먹을 생각이 없으니 걱정스럽기 끝이 없다. 처음에는 율전 생원의 집에 가서 과세하려 했더니, 병으로 인하여 여기에 이르러 해가 바뀌게 되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저녁에 개질지가 돌아왔는데, 쌀 6두, 마태 5두를 얻어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4, 5일은 먹을 수 있겠다. 업성개도 또한 세찬을 보내왔다.



## 정유일록 | 丁酉日錄

## 정월

1일. 시열의 어머니가 떡국으로 이른 아침을 우리 상하에게 준다. 우리 집에도 또한 더운밥을 만들어 노비 및 평강 사람에게 각각 1사발씩 주고, 또 술 1동이를 주었다. 오늘은 곧 대명일인 때문이다. 또 어제 윤종이 모과 7개를 갖다 두었다. 딸이 앓는단 말을 듣고 먹이기 위해서다. 또 날더러 내일 사람을 보내면 마땅히 구제하는 물건을 보내줄 것이라 한다. 생원의 종 춘기가 왔다. 그대로 아산에 머물렀다.

2일. 정 서방댁(정종하)이 떡국을 마련해 이른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 사람을 윤종에게 보냈더니 종이 백미 2두, 마태 4두, 감장 및 김치 등 물건을 보냈다. 마초 2 동과 모과 3개도 역시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오후에 윤우·윤주 형제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마셨다. 단아의 증세는 전에 비하면 좀 덜하나 다만 두통이 그치지 않고, 온몸이 피곤하여 신음하는 소리가 입에서 그치지 않으며, 먹을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니 깊이 걱정된다. 오 습독댁에서 술 1병을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3일. 시열의 어머니가 떡국을 만들어 이른 아침에 보내서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단아의 병세를 보니 앞으로 열흘 전에는 떠나지 못하겠는데, 양식과 반찬이 모두 떨어졌으니 몹시 걱정이다. 부득이 개질지를 결성에 보내서 양식과 간장을 가져오게 했다. 춘기는 도로 율전으로 보내고, 그편에 평강 및 서울 집에 계신 어머님께 편지를 전하게 했다. 또 대추와 패랭이를 광노에게 전하여 쌀과 바꾸도록 했다. 아침에 오 부장 철이 우리 부자를 청해서 아침을 대접했다. 매일 이른 밥을 지어서하인들에게 주던 것을 오늘은 양식이 떨어져서 주지 못하니 한스럽다. 수일 전부터 찬 기운이 갑절이나 사납고 또 바람이 불어 괴로운 추위를 견딜 수가 없다. 그대로 아산에 머물렀다

4일. 시열의 어머니가 또 떡국과 아침밥을 보냈다. 비록 타향에 나그네가 되었지만 이곳에 왔기 때문에 4일 동안 계속해서 이른 밥을 얻어먹고 있다. 단아의 증세

는 어제와 같아 별로 쾌차한 모습이 없고, 다만 죽과 미음을 비록 조금씩이나마 계속 마시고 있다. 평강에서 온 사람에게는 말 1필에 콩 1두씩 나누어 주었고, 개질 지가 데리고 간 인마는 그곳에서 콩 1두씩 나누어 주도록 일렀다. 양식은 실어 온 뒤에 내줄 계획이다. 아산에 머물렀다.

5일. 덕노를 인아에게로 도로 보내려 했더니 마침 말이 병이 나서 보내지 못하고 낫기를 기다려서 내일 떠나보낼 작정이다. 단아의 증세는 가감이 없고 아프다는 소리가 여전하니 민망스럽다. 아침 늦은 후에 전에 있던 증세가 다시 생겨서 두통이 더욱 심하여 종일 눈을 감고 뜨지 않다가 어두울 때 마침 국수와 떡을 과식해서 가슴이 막혀 호흡이 막혀서 거의 구원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창 황망조하다가 청심환과 소합환을 동변에 개어서 3, 4차례 먹이고, 또 달걀노른자를 먹였으나 그래도 오히려 소생하지 않고, 손으로 입을 가리키더니 4, 5차례 거의 두어 사발이나 토한 다음에야 조금 덜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위태로울 뻔했다. 이런 후로는 밤새 곤하게 잤다. 그러나 청심환은 다 쓰고 남지 않았고, 다시 구할 곳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오늘은 집사람의 생일이다. 정 서방 종경이 떡을 만들고, 시열은 행과를 갖추어 놓고 우리 내외와 윤함을 아랫집으로 청해다가 대접하고 나머지는 노비들에게 주니 깊이 감사하다. 마침 김자흠의 부인이 평택으로부터 왔고, 저녁에는 생원(오윤해)의 종 의수가 진위로부터 왔다. 생원의 편지를 보니 그저께 비로소 그 처가에 도착했다고 하기에 종을 보내서 물었더니 학질이 떨어진 지가 이제 2, 3일 된다고 하니 기쁜 일이다. 아산에 머물렀다.

6일. 단아의 증세는 어제에 비하여 좀 덜한 것 같으나 두통과 정신이 흐린 것은 여전하니 몹시 걱정이다. 덕노는 인아에게로 보내서 거기에서 남포 신함열의 집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윤함의 종 옥지는 안산으로부터 정조 제사를 지낸 후에 돌아와서 어제는 진위 생원에게서 자고, 생원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와서 전하기로 편지를 보니 변방 소식이 요새 몹시 좋지 못하니 속히 올라오라고 했다. 그러나딸의 병이 이와 같아서 여기에서 체류하고 있으니 몹시 걱정이다. 중국 사신이 오늘 진위를 지나 수원부로 들어가 잤는데, 옥지가 올 때 갈원에 온 것을 친히 보았다고 한다. 아산에 머물렀다.

7일. 단아의 증세는 날마다 점점 더해 가고 또 배가 붓는 기운이 있어 호흡이 짧고 가빠서 정신이 희미하고 가슴이 답답해하기에 또 동변에 달걀노른자를 타서 먹였다. 오 부장 철의 집에서 만두와 술과 실과를 준비해 보냈다. 앓는 딸이 만두 5개를 먹더니 이 때문에 가슴이 막혀서 구토한 뒤에 조금 안정되었다. 종일 큰 바람이 불고 눈이 뿌렸다.

8일. 흐리고 또 바람이 불었다. 단아의 증세는 어제와 같다. 비록 음식이 있어도 배가 부풀고 호흡이 급해서 먹지 못하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모레쯤 다시 조금 덜하기를 기다려 떠나려 했더니 이제 병세를 보건대 전혀 덜할 조짐이 없어 억지로 떠날 수가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한갓 스스로 슬피 울 뿐이다. 오철의 아우 윤이 쇠고기 구운 것 2꼬치와 술 1사발을 보냈다. 심회가 몹시 근심스러워 아침도 먹지 않았더니 술 1그릇을 마시고 가슴이 좀 화락해지니, 가위 시름을 없애는데는 술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윤에게 깊이 감사한다. 허찬으로 하여금 죽력을 구해 두게 했다. 앓는 딸의 불시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다. 저녁에 생원이 진위로부터 와서 근친한다. 못 본 지 이제 일곱 달이 되었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온 집안이 모두 기쁜 마음이 있다. 오 부장의 누이 원 서방댁이 만두 한 상을 차려 보내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 또 들으니 중국 부사 심유경이 근일에 역시 서울로 간다고 한다. 아산에 머물렀다.

9일. 윤우가 와서 보았다. 개질지가 결성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쌀 16두 · 적두 3 두 · 콩 4두 · 녹두 5되 · 감장 1통 · 굴 3사발을 가져왔다. 벼 2석을 찧어서 2두는 왕래 양미로, 2두는 굴 값을 주었다 한다. 또 단아의 증세는 대개 어제와 같으나조금 덜하다. 그러나 병이 왕래가 무상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죽 마시는 것도 역시드무니 몹시 걱정이다. 모레 떠나려 하여 시열의 집에 있는 옥교를 빌려 가지고 담요로 두르고 단아 어머니로 하여금 함께 타고 단아를 안아 보호하고, 말 2필이 끌게 하려고 했다. 평강에서 온 사람에게는 양미 1두 5되와 콩 6되를 나누어 주었다. 10일. 생원은 먼저 진위로 돌아가게 하고, 향비는 병이 있어 또한 먼저 따라갔다. 김자흠의 부인이 마태 2두를 보냈다. 단아의 병세는 갑절이나 더한데, 눈동자 쑤시는 것이 더욱 심하고 두통도 또한 몹시 심하여 스스로 견디기 어려워하니 슬픈

눈물이 날 뿐이요, 차마 볼 수가 없으니 망극한 일이다. 내일 떠나려 했으나 병세가 이와 같으니 떠날 수가 없다. 이 정회는 말로 할 수가 없고, 한갓 슬피 울 뿐이다. 또 네 계집종이 모두 학질을 앓아서 조석 식사도 제때에 하지 못하니 더욱 몹시 민망하다.

11일. 논금이로 하여금 먼저 집 2바리를 진위 생원이 있는 곳으로 보냈더니, 생원이 역시 두 종과 말을 보내서 중로에서 서로 전하고 돌아갔단다. 들으니 여울의 얼음이 굳게 얼지 않아서 다음날 갈 때는 마땅히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하니, 가는 길이 좀 멀어지는 셈이라 걱정이다. 단아의 증세는 점점 더 위중하여 어제부터는 하루 종일 밤새 두통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아프다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니 참혹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 민망해서 울면 어찌하리오. 망극한 일이다. 아산에서 머물렀다

12일. 새벽부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단아의 증세는 어제와 같고, 미음 마시는 것도 역시 드물다. 정신이 혼미하고, 말도 때로는 제대로하지 못한다. 지금 그 병세를 보건대 보름 전에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겠다. 양식과 반찬이 모두 떨어져서 부득이 윤함이 그 종 옥지를 대홍에 보내서 양식과 콩을얻어 오게 했다. 사람과 말이 몹시 많은데 오래 머물러 있자니 마초도 또한 어려우니 더욱 걱정스럽다. 저녁에 단아가 불의에 인사를 차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 이에 겨우 꿀에 죽력을 타서 생강탕을 끓여 두 번 먹였더니 조금 안정되었다. 밤중에 또한 이러하여 증세가 날로 더욱 위중해지니 몹시 걱정스럽다.

13일. 아침 식사 전에 단아의 증세가 또한 어제저녁과 같기에 또 청심환을 물에 타서 먹였더니 좀 안정되었다. 그러나 정신이 혼미하고 말도 또한 하기 어려워한다. 위급하기가 이에 이르니 어찌할 바를 몰라 한갓 슬피 울 뿐이다. 청심환과 소합환도 또한 떨어졌는데 다시 구할 곳이 없으니 더욱 몹시 민망하다. 늦은 후에 저녁에 이르러 인사를 차리지 못하기를 4, 5차 계속하는데, 혹은 속히 그치기도 한다. 새 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늦게는 눈이 되어 종일 그치지 않는다. 만일 녹지 않았으면한 자나 쌓였을 것이다.

14일, 단아는 지난밤부터, 새벽까지 두통으로 괴로워하니 아파하는 소리를 참혹해

서 들을 수가 없다. 늦은 후에 또 어제와 같이 인사를 차리지 못하기를 여러 번 하고, 미음도 또한 조그만 숟갈로 혹은 2, 3번 혹은 6, 7번을 먹고 많아도 10여 번에 지나지 않으며, 종일 먹는 것이 또한 두세 차례에 지나지 않으니, 이래서야 어찌 오래 보존하겠느냐. 망극한 일이다. 또 마초가 이미 떨어졌는데 달리 구할 곳이 없어서 아침 후에 친히 대동에 사는 윤 생원 종의 집을 찾아갔더니, 종은 즉시 나와보고 술과 밥을 대접하고, 종들에게도 또한 저녁밥을 주었다. 또 벼 12두ㆍ마초 2동ㆍ등유 5흡ㆍ모과 3개를 주니 깊이 감사하다. 마침 오 부장 철이 역시 와서 돌아올 때는 함께 왔다. 오늘은 단아의 생일인데, 병으로 괴로워서 그 날짜도 모르고 있으니, 슬프고 불쌍함을 이길 수가 없다. 아산에 머물렀다.

15일, 오늘은 곧 속절이다. 시열의 어머니가 약밥을 만들어 보내서 처자들과 함 께 먹었다. 오 습독댁에서도 역시 1사발을 보냈다. 단아는 지난밤에는 몹시 아프 지 않고 또한 어제처럼 인사를 차리지 못할 때와는 같지 않아 미음을 3. 4차 마시 니 몹시 기쁘다. 다만 증세의 진퇴가 대중이 없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오래 여기에 머물러 있어 상하가 모두 괴롭고, 양식과 찬도 또한 떨어졌는데, 윤겸은 아득히 먼 곳에 있어 반드시 이곳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침 늦은 후에 평강의 관인을 시 켜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곳 사정을 갖추어 알리고 행자를 얻어 오게 했다. 옥지가 대흥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쌀 6두 · 마태 6두 · 감장 2사발 · 말장 5되를 얻어 가지 고 왔다. 근일은 이것을 가지고 지내겠다. 저녁에 윤해가 진위에서 단아의 병이 중 하단 말을 듣고 들어왔다. 그에게 들으니 윤겸은 중국 사신의 시차원으로 서울에 와서 문안하는 사람을 진위로 보냈으므로 윤해는 편지를 써 주어 돌려보냈다고 한 다. 평강의 편지 및 어머니 편지를 갖다가 전하므로. 보니 모두 잘 있다고 한다. 몹 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평강에서 보낸 물건은 포목 1필 · 생치 1마리 · 건치 2마 리 · 꿀 2되 · 소주 1병 · 잣 1두 · 건은어 5두름 · 방어 1조각이다. 생원의 장모가 또 약밥 1행담을 보냈으므로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또 이웃에 사는 유수가 마태 7되, 시열이 마태 1두를 역시 보냈다. 또 꿩 1마리, 잣 5되를 시열의 집에 보냈다.

**16일.** 단아의 증세는 어제와 같더니, 늦은 후에는 또 인사를 차리지 못하는 증세가 생겼다가 잠시 후에 그친다.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병자의 생기복덕일(生氣

福德日)을 가려서 글 아는 중을 불러 가지고, 정한 쌀 3되로 밥을 지어 1그릇에 담고, 정화수 1그릇에 백지 1장으로 깃대 5개를 만들어 벌여 세우고, 징을 치고 경을 외우면서 빌면 자못 효험이 있다고 한다. 비록 이것이 허탄한 일인 줄은 알지만 민망하고 박절한 중에 그대로 말 수가 없어서, 사람을 시켜 중을 불러다가 물었더니 내일이 생기일이라고 한다. 이에 말대로 준비해서 그 암자로 보내고, 내일 새벽에 빌도록 하고, 개질지를 시켜 가지고 가게 하는데 등유 반 종지도 역시 보냈다. 중의 이름은 인천(印天)인데, 호남의 중으로서 이 암자에 와 있으면서 자못 이것으로일을 삼는다 한다. 아산에 머물렀다.

17일. 생원은 진위로 돌아갔다. 또 윤겸의 계집종 광덕의 남편은 본래 □□에 사는데, 광덕의 신공(身貢)을 바치겠다고 광덕에게서 편지를 가지고 왔으므로 아침에 개질지로 하여금 편지와 말을 가지고 그 집에 가게 했더니, 백미 7두 · 적두 3두 · 마태 5두 · 마초 30여 묶음을 받아 왔으니, 근일 동안은 걱정 없겠다. 광덕의 남편은 무인으로서, 그 성명은 오천운이라 한다. 단아의 증세는 좀 덜해서 어제와 같이 때로 미음도 마시나 다만 한 몸이 피곤하여 능히 지탱하지 못할 것처럼 뒹굴면서 편안치 못하고, 말도 또 하기 어려워서 비록 심상한 음식까지도 말을 하지 못하니 이것이 걱정이다. 아산에서 머물렀다.

**18일.** 개질지가 정산에 가서 앓는 제 아비를 보고 즉시 돌아온다고 해서 보내면서 하루만 머무르고 돌아오도록 일렀다. 평강에서 온 사람들이 마태가 떨어졌다 하므로 각각 1두씩을 주어 머물러 두고 먹이게 했다.

단아는 새벽부터 다시 전에 있던 증세가 생겨서, 눈 속에 또 전일에 보이던 빛이 보이고, 두통이 몹시 괴로워서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잠시도 쉬지 않으니 참혹함을 차마 볼 수가 없어 망극하다. 처음에는 이로부터 날마다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이제 또 전에 있던 증세가 생기니, 5, 6일 이내로는 필시 덜하지 않을 것이라, 더욱 몹시 민망하다. 오후에 말이 통하지 않고 인사를 차리지 못하므로 청심환을 죽력에 타서 먹였더니 한참 만에 도로 소생했다. 그러나 원기가 점점 없어져서 비단 두통뿐이 아니라, 온몸이 모두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아, 신음하는 소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으니 차마 들을 수 없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저 슬피 울 뿐이다.

19일. 단아의 증세는 어제같이 아프지는 않고 조금 차도가 있지만 온몸이 아픈 것과 신음하는 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조금도 먹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이 억지로 권한 뒤에야 겨우 물에 탄 죽을 조금 마실 뿐이니 몹시 걱정이다. 저녁에 허찬을 인천이 있는 암자에 보내서 다시 한 번 기도를 하게 했다. 평강에서 보낸 관인이 약을 가지고 왔기에 편지를 보니, 아직 서울에 머물러 있는데, 전일 생원이 적어 보낸 병 증세를 가지고 양 동지(양예수(楊禮壽))에게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이는 담열이 간(肝)에 뭉쳐서 난 병이니, 먼저 사청환 3알을 먹어서 그 간열(肝熱)을 쏟아 내리고 그 후에 안신환 반 알씩 상복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윤겸이 사정환 6알과 안신환 6알을 얻어서 보냈고 또 청심환 1알과 소합원 3알을 보냈으며, 또 포목 1필을 보내어, 이것을 팔아서 양식을 하게 했다. 또 들으니 개질지의 아비가 병으로 죽었다는 기별을 평강에서 온 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 들었다면서 와서전하니 필시 거짓은 아닐 것이다. 가련한 일이다. 개질지는 모레 돌아오기로 했는데 만일 그 아비가 죽었다면 필시 여러 날 머무를 것이다

20일. 답장을 써서 새벽 머리에 평강 사람에게 보냈다. 이틀이 걸려 오고 이틀이 걸려 가니, 아무리 멀지만 겨우 이틀 길 밖에 되지 않는데, 병으로 해서 오래도록 여기에서 오래 체류하니, 바라보며 마치 천 리를 격한 것과 같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단아는 어젯밤에는 새벽까지 편안히 자고 아파서 괴로워하는 소리도 없다. 그러나 늦은 후에는 한쪽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도로 편안치 않다고 한다. 아침 식사 후에 사청환을 먹였으나 다만 음식 생각이 없어서 억지로 권해도 들지 않는다. 오후에는 기분이 점점 덜해져서 비로소 조밥 1종지를 먹으니 몹시 기쁘다. 허찬이 황납을 가지고 시장에 팔아 깨를 바꿔 가지고 황납 5냥쭝에 쌀 3두 5되를 받아 왔다. 만일 깨가 없었으면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 김 서방댁이 인마를 빌려 가지고 돌아갔다.

1 양예수(楊禮壽): 1565년 어의(御醫)로서 명종의 신임을 받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명종을 임종까지 간호했다. 1586년(선조 19년) 가의대부(嘉義大夫), 1595년 중추부동지사(中樞府司知事)가 되었으며, 이듬해 태의(太醫)로서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편집에 참여했다. 선조 초에 박세거(朴世舉), 손사명(孫士銘) 등과 《의림촬요(醫林最要》)를 저술하였다.

21일. 단아는 어젯밤에도 역시 편안히 잤다. 아침이 되자 기분이 비록 보통 때와는 같지 않아도 깊이 아파하지는 않다. 늦은 후에 밥을 먹고 싶어 하므로 즉시 잡곡밥을 지어 주었더니 두 번이나 먹었다. 그러나 모두 한 종지에 그치고, 비록 더 먹으려 해도 체할까 두려워서 말렸다. 때로는 일어나 앉기도 하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말하랴? 다시 내일 증세를 보아서 기분이 만일 점점 차도가 있으면 모레는 떠날계획이다. 어제 사청환 2알을 먹은 후에 별로 설사를 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또 2알을 먹었는데도 역시 설사를 하지 않고 다만 입이 조(燥)해서 마실 것을 생각할뿐이니, 이 약의 효험이 이에 이르러서도 설사를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내 생각으로는 설사를 한 뒤에 안신환을 먹이려 했던 것인데, 두 번이나 먹여도 설사를하지 않는다. 저녁에 안신환 반 알을 물에 개어 먹였다. 아산에 머물렀다.

22일, 단아는 밤에 자는 것이 어제와 같고, 증세가 점점 차도가 있다. 그러나 아직 도 오히려 쾌히 낫지 않은 채 불안한 증세가 길이 한 몸에 있어 한쪽 머리가 때로 조금씩 아프다고 한다. 아침 식사 전에 안신환 반 알을 6개로 만들어 원미(元米)죽 에 개어 먹였더니 아주 적게 삼켰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으므로 그대로 시험해 보는 것이다. 아침 식사 후에 오 부장 철이 와 보고 나에게 이르기 를, 오늘 친구들과 개현사에서 두부를 만들어 먹기로 했으니 같이 가서 이야기하 는 것이 어떠냐고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일 떠날 터여서 행장도 준비해야 하고, 또 제공(諸公)들의 얼굴도 모르는 터이니 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ㆍ 이 두 사람이 억지로 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늦은 후에 윤(尹)과 함께 뒤따라갔 다. 절은 앞산에 있는데, 후면은 산허리이고, 여기에서 거리가 10여 리는 된다. 여 기에 사는 품관(品官) 10여 명이 각각 술병과 실과를 가지고 와서 단란하게 놀아서 각각 모두 취하고 배불렀다. 저녁에는 또 연한 두부를 주었다. 저녁밥을 먹은 후에 나는 먼저 돌아와 집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어두웠다. 내일 떠나려고 하는데 개질 지가 오지 않아서 인마가 부족하고 또 비가 올 기미가 있어서 중지했다. 단아는 아 침에는 흰죽 한 숟가락을 먹었고, 늦은 후 에는 잡곡밥을 두 번 먹었다. 그러나 배 가 부푼 기운이 있어. 비록 조금 먹어도 갑자기 배가 부르고 가빠서 한참 동안 일 어나 앉았다가 도로 눕는다. 아침밥은 시열의 어머니가 지어 주었고, 저녁은 시열

이 지어 주었다.

23일. 새벽에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날이 흐리다. 눈은 다 녹아서 길이 몹시 지니 내일 가려면 반드시 자빠질 염려가 있으니 걱정이다. 단아의 증세는 어제와 같고, 두통의 증세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며, 한쪽 골도 때로 또한 아프다고한다. 배가 부푸는 기운도 그대로 그러하나 대세는 절반이나 덜하니 몹시 기쁨을어찌 말로 옮기랴. 그러나 개질지가 말을 가지고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몹시걱정이다. 아침 식사 전에 안신환 1알을 먹은 후에 밥 한 숟가락을 물에 말아 먹었고, 저녁에도 또 먹었다. 아산에서 머물렀다.

24일. 단아는 기분이 도로 편안치 않고. 두통이 다시 일었으나 그다지 심하지는 않 다. 밝기 전에 밥을 먹고 해가 뜨자 떠나서 중로에 이르러서 들으니, 중국 사신 양 방형이 어제 □□에서 자고 오늘 진위로 들어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수원부에 들 러 잔다고 한다. 또 들으니 겨울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얕고 진흙이 없는 곳으로 걸어서 건널 수가 있다고 한다. 이에 바로 여울가로 가서 즉시 물을 건너니 물이 겨우 말의 배에 찰 뿌이다. 건너편 언덕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단아의 병세는 별로 더 아픈 데가 없어 때로 조금씩 아파하고 가슴이 막히고 답답 하다 한다. 수반을 조금 먹은 뒤에 또 떠나서 진위에 이르러 최 참봉의 집에 잤다. 최경수(최형록)은 현에 들어갔다가 저물어 돌아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우리 상 하의 식사를 대접한다. 경수에게서 들으니. 적장 청정은 지난 13일에 이미 바다를 건너 양산 땅에서 진 치는 것을 익히면서 병세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전일에 들 으니 청정이 바다를 건널 때는 통제사 이순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엄습해 막아서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불의에 바다를 건너서. 미처 수전을 하 지 못하고 이미 적을 막을 시기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순신을 잡아 가두 고 그 대신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다 한다. 또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 사신 양방형으 로 하여금 서울에 머물러 지키게 하고. 부사 심유경은 도로 부산으로 가서 지키게 하여, 그 기별이 어제 직산에 도착했는데, 부사는 말하기를, 들어가 국왕을 만나 보고 일을 의논한 뒤에 도로 내려왔다고 하더란다. 두 사신이 왕래하기에 여러 고 을에서 대접할 물자가 이미 다되었는데, 이제 또 내려온다고 하니 또 고통을 받게 되었다. 길가 백성들은 우마를 잃은 자도 몹시 많고, 또 길에 쓰러져 죽은 자도 많다고 한다.

25일. 최경수(최형록)가 또 상하 식사를 대접하고, 상하 점심도 또 싸 보냈다. 또 콩떡 1행담을 만들어 탁주와 함께 보내어 하인들을 먹이게 하니 폐가 적지 않아 미안하기 한이 없다. 단아의 증세는 별로 가감이 없이 어제와 같기 때문에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진위현 앞을 떠나 수원 땅 냇가에 이르러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다시 떠나서 수원부 앞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어 간다. 종들은 들어가 자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더 가게 하여 뒤뜰에 이르니 해가 이미 떨어졌는데, 생원의 집까지는 반 식정이나 된다. 어두워 길을 분별하지 못해서 비탈길로 들어서서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다. 간신히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니 밤이 2경이나되었다. 오늘은 말이 피곤하고 길이 진 데다가 또 멀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것이다. 그러나 단아는 더 아프지는 않으니 기쁜 일이다. 네 계집종들은 뒤에 떨어지고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수원부 앞집에 들어가서 자고 내일 오게 했다.

26일. 그대로 율전 생원의 집에 머물렀다. 단아는 늦은 후에 또 눈 속의 붉은 빛이 보이더니 이 때문에 기분이 도로 불편하고 음식 먹는 것이 아주 감해졌으며, 때로 는 배도 아프고 가슴이 막혀 답답하다니 몹시 걱정스럽다. 그러나 전일처럼 심하지는 않다. 생원의 집에서 상하 조석 식사를 해 냈다.

28일. 그대로 율전에 머물렀다. 윤함은 먼저 떠나서 서울로 갔다. 단아의 병 증세를 양 동지에게 물어보기 위해서다. 또 생원의 인마를 빌려서 짐 1바리를 보냈다. 단아는 새벽부터 아픈 증세가 더하기 시작하더니 아침에도 여전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이 때문에 내일 떠나려던 것을 못 떠나게 되었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시윤형제는 돌아갔다. 어제 아침부터 하인들은 가지고 온 양식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생원이 가난해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원의 종 논동이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마태 2두와 벼 2두도 역시 바쳤다. 천린의 어머니가 또한 떡을 만들어 보내고, 또 마태 2두와 콩 5되를 보냈다. 이웃에 사는 충의위(忠義衞) 박용(朴容)이 어제 와 보더니 또 마태 2두를 보냈다. 생원의 종 산수ㆍ희봉과 계집종 막덕ㆍ춘월이 각각 콩 1두씩을 바치니 모두 10여 두가 되어 콩은 남겠으나 양식 쌀은 만일 여러 날 머무르면 부족하겠다. 이웃에 사는 노향이 삶은 콩을 갖다 바쳤다. 저녁에 논동이 또 쌀 1두를 바치고, 아침 식사를 또한 스스로 준비해서 내니, 그 후의에 감사한다. 개질지는 그저께 제 처를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 들으니 그 아비 홍유량이 병으로 죽었다 하니 슬픈 일이다. 이에 오늘 그 처를 데리고 먼저 서울로 보내서 내일 즉시 돌아오도록 했다. 종일 눈이 내리고 또 날이 흐리다가 때로는 비도 뿌렸다. 저녁에 춘기가 돌아와서 들으니 윤함은 그저께 토당 종의 집으로 갔다가오늘 아침에 서울로 들어갔다 한다.

그믐날. 율전에 머물렀다. 지난밤에는 큰 바람이 땅을 흔들어 지붕을 걷어 올리고 울타리를 뽑더니 새벽에는 비가 내린다. 단아는 밤새 두통으로 몹시 괴로워하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덜하지 않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오후에는 좀 덜하여 수반을 조금 먹어 거의 1접시를 먹고, 때로는 말도 하니 몹시 기쁘다. 그러나 초경이 되자다시 두통이 시작되어 밤새 멎지 않아 아프다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몹시 걱정 스럽다. 아산 시열의 집에서 28일 동안 머물면서 겨우 조금 덜했는데, 그곳을 떠나 여기에 와서 또 닷새를 있는 동안 병세가 이와 같고, 행자도 다 떨어져서 다시얻을 길이 없으며, 평강의 인마들은 모두 피곤하여 원망하는 말이 많으니, 더욱 몹시 걱정스럽다. 마태 1두를 또 평강 사람에게 주어서 말을 먹이라고 했다.

#### 2월

1일. 단아는 지난밤 초경 후에 다시 두통이 시작되어 아침까지 아프다고 소리친다. 전일에도 역시 이와 같았으므로 심상히 여기고, 이른 아침을 먹고 수원부사를 가 보려 했더니, 새벽이 지난 뒤로부터 병세가 몹시 더해진다. 내가 들어가 보니 인사 를 차리지 못하고 애태우고 괴로운 것이 몹시 심하다. 생원이 껴안고 앉았는데 내

가 양쪽 손을 잡았더니, 조금 있다가 기운이 위로 치밀면서 담(痰) 증세까지 겸해 서 말이 통하지 못한다. 이에 죽력 · 청소 · 달걀노른자 · 동자변 등을 무수히 썼으 나 약 기운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담과 엉켜 끓어서 소리가 나면서 끝내 내려가 지 않고 콧구멍으로 도로 나오고 역시 말 한 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사시(已時)에 이르러 엄연히 가 버리니, 붙들고 통곡하니 망극함을 어찌하리오. 지난해 9월 20 일에 졸지에 이 병을 얻어 여러 달 동안 고생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아주 가 버리니 애통한 마음이 더욱 지극하여 가슴과 창자가 찢어지는 것만 같다. 평상시에 보면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아하며, 총명함이 특별히 남과 달라, 비록 나이는 어려 도 자못 사리의 경중과 시비를 알고. 또한 문자에도 능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는 것이 또한 천성에서 나왔었다. 심상한 의복이나 음식이라도 반 드시 남의 뒤에 했고. 그 입는 옷이 제 형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 문득 바꿔 입었 으니 천성이 이와 같았다. 그런 때문에 우리 내외가 몹시 사랑하고 몹시 소중히 여 겨 항상 내 이불 속에서 자다가 지난해로부터 비로소 딴 자리에서 잤다. 내가 나갔 다가 돌아오면 문득 먼저 나와서 맞아 내 손으로 옷을 벗지 않았는데. 애통하면 무 엇하리오. 비록 병세가 몹시 중해도 오직 조그만 희망은 있었던 터인데, 중로에 오 래 체류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마침내 구원하지 못했으니, 사람의 수요(壽天)는 하 늘에 있어서 비록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장 통한스러운 것은 객지에 있기 때문에 의약을 전폐하고 오직 천명만 기다리고 사람이 할 일은 하지 못했으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마침 율전 생원의 집에 와 있었으니. 이것은 불행 중 하나의 다행한 일이다. 저녁에 목욕을 시키고 염습을 하는데, 유리하는 중에 의 복을 갖다 줄 수가 없어서 다만 평시에 입던 옷 한 벌을 입혔으니 슬프고 슬프다. 내 딸이 평시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의복과 음식을 남과 같이 해 주지 못하다가 죽 어서도 좋은 옷 하나를 얻어 염습하지 못하니 하늘에 닿는 남은 한스러움이 이에 그 지극함을 다하는도다. 내관은 마침 생원의 종 산석의 집에 있다기에 이것을 빌 려서 쓴 다음에 뒤에 값을 따져 줄 작정이다. 논동을 시켜 목수를 불러다가 관을 만들게 하고, 또 금이를 서울로 보내서 윤함에게 부음을 전하고, 그편에 염습할 물 건을 가져오게 했다. 이것은 전일에 먼저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또 이웃에 사는 박충의 용 씨를 수원으로 보내어 부사 유후(柳侯) 영건(永健)에게 보내어 상용(喪 用)에 쓸 물건을 구해 오게 했더니. 겨우 유지 2장과 백지 1묶음. 송연 조금을 보냈 을 뿐이다. 그편에 들으니 이시윤의 아내가 오늘 산후에 또한 죽어서. 부사에게 목 수를 빌려 갔다니 슬픈 일이다. 슬하에 어린 딸만 많고 이에 이르니 더욱 슬픈 일 이다. 그 집 일은 날로 점점 흐트러지고 수습할 길이 없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저 녁에 개질지가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중로에서 논금이를 만나지 못했다니 필시 길 이 어긋난 것이리라. 제 형이 염습에 쓰라고 흰 모시 적삼 1벌ㆍ초록색 치마저고리 1벌·아청색 장의 1벌·홑치마 1벌·곁치마 1벌을 보냈고, 소렴에 쓸 것으로는 제 어머니가 장의 1벌. 저고리 1벌을 내놓았고. 제 셋째 조카가 단금 하나를 주었다. 2일. 율전에 머물렀다. 목수가 서툴러서 관 만드는 것이 지체되어 입관할 시간에 미치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하루 종일 애통해 한들 무엇하며 망극해 한들 무엇하 랴. 면목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가슴과 창자가 찢어지는 것만 같아 다만 스스로 통곡할 뿐이다. 이웃에 사는 김윤세가 쌀 1두, 콩 1두를 부의로 보냈고, 산 석도 또한 백미 1두름 보냈다. 햇량이 떨어져 가는데 이제 2두의 쌀을 얻으니 깊이 감사하다. 저녁에 윤함이 약을 지어 가지고 왔으나 이미 미치지 못했으니 더욱 몹 시 통곡할 일이다. 저녁내 눈을 뿌렸다.

3일. 율전에서 머물렀다. 식전에 들어가 시체를 보고 어루만지면서 애통했다. 비록 하루에 세 번을 이렇게 하지만 이미 끝났는데 무엇하랴? 통곡할 뿐이다. 어제부터 충모가 기분이 몹시 불편하니, 필시 태기가 있은 지 오래지 않은 터에 이제큰 변을 당해서 놀라고 애통한 나머지 찬 곳에서 분주하다가 촉한해서 그런 것이라 걱정된다. 또 이른 아침에 수원부사(유영경)가 사람을 시켜서 목수와 짚자리 4장을 보냈으며, 심지어 산성에 가서 역사할 목공까지 뽑아서 보내고, 편지를 써서물었으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이 목수는 솜씨가 좋아서 관 짜는 데 매우 익숙하다니 필시 흠이 없을 것이다. 기쁜 일이다. 지난밤에 큰 눈이 내려서 거의 반자나 쌓여 길이 험하니 몹시 걱정이다. 포목 반 필을 팔아서 쌀 9두를 사 왔다. 행량에 보충하기 위해서다. 저녁때 입관하고 성빈(成殯)한 다음, 평일에 쓰던 조그만실꾸리, 분첩, 은반지 3개를 넣어서 관 속 아래쪽에 넣어 주었다.

4일. 집사람과 둘째딸을 데리고 먼저 떠나고, 윤함을 머물러 두어 오는 6일에 발인해 가지고 오도록 했다 과천현 앞에 이르러 말에 먹이를 먹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또 떠나서 토당 산소 앞의 종의 집에 도착하니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길이질고 미끄러운데도 간신히 자빠지는 걱정을 면했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시체는 버려두고 먼저 왔으니 애통하고 망극한 일이다. 저녁밥은 계집종 근개가 지어올리고, 또 찰떡 1행담을 바치므로 즉시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어제 율전에 있을 때 논동이 마태 1두를 바쳤고, 천린 어미가 역시 2두를 보냈다. 이웃에 사는 노향도 흑태 1두를 갖다 바쳤다. 생원도 또한 콩 2두를 평강에서 온 사람에게나누어 주었다. 들으니 마태가 떨어진 때문이다.

5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의치 않고 겸해서 큰 바람까지 분다. 오늘 천광을 시작하려 했는데 일기가 이와 같으니 몹시 걱정이다. 아침 늦은후에 비로소 개므로 종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조부모 산소 위 산등성이 서쪽 정남향의 자리를 골라 묘 터를 닦고 광중을 파기 시작하여 절반이나 팠는데, 종일 큰바람이 불고 때로 눈이 뿌려서 사람들이 모두 떨어서 다마치지 못하고 일찍이 중지하고 돌아와서 토당 산소에 머물렀다. 또 여기에 묘터를 잡아 두었다가 다음 날우리 내외도 여기에 들어가고자 한다.

6일. 정손鄭孫)의 소 및 자근복의 소를 빌려서 종 광진을 시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과천현 앞에서 발인해 가지고 오게 했다. 오늘은 비록 개었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일기가 몹시 차니 몹시 걱정이다. 새벽에 집사람이 꿈에 죽은 딸을 보았더니 완연히 평일과 같다고 하므로 나는 집사람과 서로 보고 애통했다. 오늘 발인을할 터이므로 그 혼이 먼저 와서 꿈에 보인 것인가. 통곡할 일이다. 둘째딸도 역시두 번이나 꿈에 보았다고 한다. 아침 식사후에 종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혹 떼도 뜨고 혹 광중도 파고서 일이 끝나자, 먼저 조부모 및 아버님과 죽전 계숙의 산소에 고유하는데 다만 떡과 채소, 양색 실과와 탁주로만 지냈다. 음식은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후에 발인해 오므로 먼저 광중에 제사를 지내고 곧 하관하는데, 관을 어루만지면서 애통해하나 무엇하랴. 반쯤 흙을 채우다가 제가 평일에 가졌던 소총 1개·분합 1개·칼 1개·큰 빗 2개·참빗 1개를 조그만 반짇고리에 넣

어 광중 오른쪽에 묻었다. 차마 그가 쓰던 물건을 볼 수가 없어 순장하게 했다. 언 명(오희철)이 부음을 듣고 달려와서 역시 일을 보고 있다. 평토한 후에 성분하는 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체모에 맞게 할 뿐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쓴 때문에 해가 아직 떨어지기 전에 역사를 마치고, 사면에 층계 있는 뜰을 쌓고 모두떼를 입히고 나서 묘제를 지내고 통곡하고 나서 돌아왔다. 평일에 슬하를 떠나지 않던 것을 이제 산골짜기에 묻었으니 외로운 넋이 반드시 명명(冥冥)한 속에서 슬피울 것이니 더욱 애통할 일이다. 그러나 선산 밑에 와서 장사지낸 것만은 불행한중에 하나의 다행한 일이다. 또 자근복이 콩 1두, 쌀 5되를 바치고, 복룡도 또한 백미 3되를 바쳤다.

7일. 아침밥은 억룡이 준비해 왔다. 여기에 와서 2일을 머물렀다. 일찍 떠나서 배로 한강을 건너 먼저 고성 누이에게로 들어가서 어머님과 누님을 뵈었더니 마침고성(남상문)은 번에 들어가고 집에 없다. 종일 여기에 있노라니 누님의 집에서 저녁밥을 지어 준다. 어두운 뒤에 처자들과 함께 광노의 집으로 와서 잤다. 다만 죽은 딸이 매양 다시 서울을 보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못 보게 되었으니 애통하고 망극하다.

8일. 서울에 머물렀다. 후에 고성의 집으로 가서 어머님을 뵙고, 바로 기성군의 집을 찾았더니 기성은 중병으로 나오지 못하고 나를 안방으로 맞아서 만났다. 마침 허 직장 영, 이풍덕 중광이 와서 조그만 술자리를 만들어 마시다가 파하고 광노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신 직장의 부인이 와서 집사람을 보았고, 신률도 역시 와 보았다. 직장댁에서 잤다. 남 첨지의 수씨가 와서 집사람을 보았다. 또 평강에서 사람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다. 다만 차원으로 오는 11일에 떠나간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다. 평강에서 보낸 것은 백미 4두·조미 3두·간장 2되·꿀 2되·청주 5병·대구 2마리·노루 1마리·은어 10두름·건치 2마리·배 3개·생치 6마리·방어 2마리·감장 5되·약과·빙사과 1행담·개암 5되이다. 양식과 찬이 모두 떨어져서 바야흐로 민망할 때에 이 물건이 마침 도착하니 이것으로 일행이 쓸 수 있겠다. 생치 1마리는 신 직장댁에 보내고, 또 1마리는 고성 누이에게 보내고, 은어 2두름과 건치 1마리는 생원에게 보내고, 은어 2두

름은 또 아우에게 보냈다. 또 신 직장이 와서 잤기 때문에 나와 함아는 광노의 형의 집을 빌려서 잤다. 오늘 아침부터 식구와 종들의 조석을 광노의 집에서 차려 냈다. 노루와 꿀은 광노를 시켜 팔아 오도록 했다.

9일. 일찍 아침밥을 먹고, 상하가 점심은 싸 가지고 길을 떠나서 고성 누이에게 들어가 어머님을 모시고, 또 아우의 딸 선아를 데리고 떠났다. 다만 남매(南妹)와 어머님은 작별에 임하여 비통해 하여 차마 서로 떠나지 못하니, 인정에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만일 난리가 다시 일어나면 관서로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니 팔십 노친을 다시 만나 볼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 그 망극한 마음이 어떠하랴. 아우의 일가는 뒤따라 종과 말을 보내서 데려갈 계획이다. 아우는 교외까지 따라왔다가 돌아갔다. 누원 앞내에 이르러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점심을 먹은 후에 또떠나서 양주를 지나 고을 경계 천천리에 이르러 잤다. 홍 참봉 매가 역시 서울에서 내려와 연천의 농사로 가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보고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므로 술 1잔을 대접했다. 함아와 같이 잤다. 또 올 때 김 평사 홍국 및 홍명남을 만나서 말에서 내려 잠시 이야기하다가 작별했다. 김은 일가를 거느리고 평산 땅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10일. 흰죽을 쑤어서 어머님 및 처자들에게 주었다. 일찍 떠나서 양주 땅 가정자리에 도착해서 아침밥을 먹었다. 홍 참봉(홍매)도 역시 같이 왔는데, 먼저 아침을 먹고 와 본다. 이에 술 2잔을 대접했다. 그는 먼저 떠나가는데 마침 빈 말이 있기에, 빌려서 옥춘을 태워서 보내고, 뒤따라 떠나서 배로 대탄진을 건너서 우음대리에이르러 갔다. 여기도 역시 양주 땅이다. 주인집에서 좋은 김치 1사발을 보내왔기에 은어 1두름으로 갚았다.

11일. 흰죽으로 이른 식사를 하고 길을 떠났는데, 비가 올 조짐이 있으니 걱정이다. 연천현 앞 냇가에 이르러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아침밥을 먹었다. 오늘부터 흰 옷을 벗으니 비통한 마음이 더욱 심하다. 비록 조석으로 먹는 밥을 가지고 죽은 딸에게 제사는 지내지만 초초한 행로에 미흡한 점이 많으니 형편이 그런데 어찌하랴. 슬프구나, 내 딸이여! 어찌해서 먼저 죽어서 나로 하여금 무궁한 비통이 있게 하는 가? 또 떠나서 5리도 가지 못해서 비가 뿌림으로 부득이 연천군의 관노 걸이의 집

으로 달려들어 갔다. 상하가 모두 우비가 없으므로 중로에서 큰비를 만나 젖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간 지 오래지 않아 비는 도로 개고 해가 나니 길을 가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그러나 해가 이미 기울었으므로 그대로 자는데, 집주인이 점심을 지어 대접하고, 또 좋은 김치를 주니 깊이 감사하다. 이에 겨우 방어 반쪽으로 갚고, 저녁밥 쌀은 감했다. 이 고을 태수가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두 사람 분의 식사와 마태 5되와 마초를 주었다. 이 때문에 저녁밥은 짓지 않았더니, 태수가 또 중미 1두를 보냈다.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때문이다. 홍매가 마침일이 있어 현에 왔다가 즉시 와 보고 돌아갔다.

12일. 흰죽으로 이른 밥을 먹고 중로에 이르러 말에게 아침을 먹이고 또 떠나서 철 원부사가 있는 곳에 갔더니, 부사(이선정)가 이 말을 듣고 조석 식사를 내도록 하고, 생치 1마리도 보냈다. 밥쌀 7되, 콩 3되, 하인들에게 좁쌀 1두 2되, 콩 4되, 마태 1두를 첩지를 써서 보내서 밥을 지어 먹도록 한다. 그러나 천천에서부터는 길이 질고 몹시 험해서 겨우 넘어지는 것을 면했다. 집사람은 두 번이나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저녁에 호장이 생치 1마리를 갖다 바친다. 그 겸관의 가속이 여기 왔기 때문이다.

13일. 지난밤에는 눈이 뿌리더니 아침에는 비가 내릴 기미가 있다. 잔 곳에서 아침을 먹고 떠나서 5리도 오지 못해서 어머님이 타신 말이 잘못하여 돌 틈에 빠져서 넘어졌는데, 개질지가 어머님을 업고 나왔기 때문에 다치시지는 않았다. 말은 거의 다리가 부러지게 된 것을 힘을 다하여 구원해 내서 겨우 상한 데는 없으니 다행하다. 즉시 딴 말로 바꿔 타고 궁예의 옛 대궐을 지나는데 대궐터가 완연하고, 임금이 먹던 우물도 역시 길가에 있다. 먼저 사람을 관아로 보내서 온 뜻을 통지하고현에 들어갔더니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다. 다만 평강은 영군차원으로 어제 이미원주의 방백이 있는 곳으로 떠났는데, 중로에 지응하도록 보낸 사람이 영평대로로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기다렸고, 평강도 역시 종일 머물러기다리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김화로 갔다고 한다. 이리하여 먼저 보낸 사람이잘못 전한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또 현에 이르자 신주앞에 차례를 지낸 후에 다담(茶啖)을 내오고, 또 저녁밥도 내왔는데 풍성하고 맛이

있어서 먹을 만하다. 비록 탕패한 쇠잔한 고을이지만 부자로 사는 사삿집에서 준비한 물건보다는 사뭇 다르다.

14일. 관청에서 이른 밥에 과일을 갖추고, 각각 잣죽을 사발 가득히 냈다. 낮이 되자 각각 다담을 내고, 국수와 떡도 갖추었다. 다 먹은 후에 즉시 데리고 온 비복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죽은 딸이 매양 이 고을이 보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는 볼 수없게 되었으니, 여기에 도착한 후에는 애통한 마음이 더욱 심하다. 늙으신 어머님이 방에 계시므로 비록 애통함을 참고 울지는 못하지만, 밤중 고요한 중에 그 모습이 눈앞에 있으니, 슬픈 눈물을 스스로 금할 수가 없고, 가슴과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때가 많다. 슬프다, 내 딸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고 먼저 가서 나로 하여금 이 지극한 데에 이르게 하는가? 애통하구나.

15일. 편지를 써서 평강에서 온 문안인에게 전했다. 오늘도 또 흰죽으로 이른 아 침을 갖추어 내므로 자금지로 하여금 어머님께 드리게 하고. 그 나머지는 조석밥 을 차려내지 못하게 했다. 또 자금지로 하여금 오늘 아침밥은 쌀과 찬을 관아로 가 지고 들어가서 밥을 먹도록 하고, 따로 차려 내지 못하게 했다. 만일 여기 머물러 서 평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자면 시일이 필시 오래 걸려서 폐를 끼치는 것이 적 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님께는 따로 갖추어 올리게 했다. 또 아노 세만이 한 식에 쓸 제물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서울로 올라가게 하고, 편지를 써서 언명(오희 철) 및 율전 생원(오윤해)에게 보내서 다섯 분의 제물로 밥쌀 1두 · 떡쌀 1두 5되 · 찹쌀 3되 · 면미 1두 · 제주 5병 · 잣 5되 · 개암 5되 · 건치 3마리 · 노루포 5조각 · 생치 2마리 · 대구 3마리 · 절인 방어 2조각 · 우심(牛心) 1보 · 꿀 1되 · 감장 3되 · 간장 1되를 보냈다. 우심은 마침 촌사람의 소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 가지고 오다 가 다리가 부러져 죽었기 때문에 반 짝과 우심 1보를 관아로 들여왔기 때문에 제용 (祭用)으로 보낸 것이다. 다섯 분이란, 조부모의 묘, 아버님 묘, 죽전 숙부모의 묘, 풍덕 아우의 묘. 죽은 딸의 묘다. 제물이 비록 갖추어지지는 못했으나 난리 후에 겨우 잔을 올릴 뿐이니, 하필 풍성하게 갖추어야 하겠는가. 최 판관 응진이 여기에 피란 와서 있는데, 그는 곧 서울에 있을 때 한 동리에 살아서 서로 아는 자이다. 내 가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고 제병 1행담

을 보냈으므로 즉시 답장을 써서 사례했다. 오늘은 곧 보름이다. 음식을 장만하여 죽은 딸에게 제사 지내니 애통하기 끝이 없다.

16일. 평강 관아에 머물러 있은 지 이제 이미 3일이 되었는데, 윤겸이 멀리 가서 마을 집으로 옮기려 해도 갈 곳을 알 수가 없어 아직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상하의 지공이 매우 번거로우니 마음이 몹시 미안하고, 무료하기도 또한 심하다. 한복이 도착했다. 올 때 가슴이 아파서 뒤에 떨어졌다가 이제 비로소 온 것이다.

17일. 평강 관아에 머물러 있었다. 종일 눈이 많이 내렸는데, 만일 녹지 않았으면 1 자가 넘을 것이다. 본래 길이 질었는데, 또 이번에 눈이 내렸으니 진흙이 질기가 갑절이나 심할 것이다. 인마가 빠져서 다니기 어려울 것인데, 세만이 제물을 가지고 오늘 서울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깊이 걱정스럽다. 낮에 관아에서 송병(松餅)을 만들어 각각 1그릇씩 주어서 상하가 함께 먹었다.

18일. 윤함의 종 옥지가 떠나서 율전으로 향했다. 전일에 아산에 이르렀을 때, 말을 가지고 오던 사람이 말을 판다고 하므로 윤함의 어린 말과 바꾸고 의복과 포목을 더 주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들으니 그의 말이 아니고 도둑질한 말이라는 것이다. 이에 즉시 하리(下東)를 불러다가 잡아 가두게 하고 그때 바꾼 어린 말이 발을절기 때문에 임시로 율전 생원의 종의 집에서 기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옥지를 보내서 도로 끌어오게 했다.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은 곧 경시공의 종으로서 주인에게서 도망해 와서 그 사는 곳이 일정치 않고 상업을 일삼는데, 이 말은 곧 마전 사람의 말로서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았다 한다.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역시 승복하고 숨기지 않으니 몹시 밉다. 역시 평강 관아에 머물렀다. 저녁 무렵에 어머님께서 기분이 불편하시어 조금 추운 기운이 있다가 도로 열이 나고 속머리가 조금 아프시더니, 새벽에 이르러 땀을 내시고 좀 나으셨다. 그저께도 역시 조금 아픈 증세가 있어 이와 같았다고 하시니, 필시 학질의 증세이다. 음식이 달지 않아 전보다 사뭇 감하시니 몹시 걱정스런 일이다.

19일. 곧 한식절이다. 관아에서 떡과 국수를 준비하여 먼저 신주 앞에 차례를 지내고 나서 과일과 떡과 국수를 내와서 상하가 함께 먹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어제 아프신 후에 비록 좀 덜하기는 하나 기운이 곤하시어 아직도 누워 계시고 일어

나지 못하시어 죽만 조금 드시니 몹시 걱정스럽다. 집사람도 또한 그저께부터 좀 불편한 증세가 있더니, 오늘은 가슴이 막혀 답답하고 일신이 피로한 것이 어제보다 더해서 음식을 전혀 폐하니 또한 걱정스럽다. 이는 필시 여러 달 여행 중에 또 사랑하던 딸을 잃고 주야로 울기를 그치지 않아서 이 때문에 생긴 병이라 더욱 걱정스럽다.

20일. 어제 들으니 중인데 학질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기에 그를 불러서 쫓는 법을 써 보게 했으나 끝내 낫지 않는다. 오후에 어머님의 아프신 것은 여전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저녁에 그 중이 와서 말하기를, 한두 번에 물리쳐 지는 것이 아니니, 후일에 다시 이 법을 쓰겠다 한다. 까닭에 마음을 써서 하도록 말하고, 만일 떨어지고 보면 마땅히 그 공에 대해서 많은 상을 주겠다고 말해 보냈다. 집사람은 스스로 편안하여 음식은 비록 옛날과 같지 못하나 자주 자주 먹고 있으니 이로부터 아주 나을 것이라, 기쁜 일이다. 요새 오래 평강 관아에 머물러 있는데, 윤겸이 없기때문에 아직도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에 몹시 미안하다. 또 이 고을의 경주인이 어제저녁에 들어와서 아우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하니 기쁘다. 다만 들으니 인아가 아직도 서울에 오지 않았다 하니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다. 어찌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것인가. 몹시 걱정된다.

21일. 이 고을에 사는 품관 심사인 납명이 와 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22일. 평강은 횡성에 도착했다고 마침 문안인이 왔기에 즉시 편지를 써서 도로 보냈다. 편지를 보니, 내일 원주(原州)로 들어가 거느리고 간 군인을 내주고 그길로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본 뒤에 평강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 날짜는 내달 열흘 후가되겠다고 했다. 비단 즉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여기에 머물러 있자니 미안하다. 오후에 세만이 돌아와서 아우의 편지를 보니 잘 있고, 제물도 보낸 대로잘 받아서 그대로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위로가 된다. 변방 소식은 아직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는 물리지 않고 그대로 본다고 한다. 이 까닭에 윤함은, 모레 서울에 올라올 계획이요, 윤해도 또한 20일 후에 식구들을 데리고 율전을 떠나서 집 2바리를 먼저 광노의 집으로 실어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자방〔신응

구)의 식구와 인아의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또 윤겸의 처숙모의 계집종 말질개가 이 고을 사람에게 시집와서 사는데, 우리 식구들이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떡 1행담을 가지고 와서 뵈었다. 또 현의 아전들이 청주 1동이 · 탁주 1 동이 · 양색 떡 2그릇 · 국수 1그릇을 갖다 바쳤다. 필시 태수의 부모가 여기 왔다고 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다. 물리치고 받지 않다가 또한 미안하고 인정에 못 이겨 그대로 받아서 즉시 안팎의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어머님은 오늘이 학질 차례이므로 먼저 왔던 중으로 하여금 다시 쫓는 법을 써 보라고 했다. 또 이곳에는 여러 가지로 학질 쫓는 방법이 있어 다행히 떨어졌으니 다행한 일이다.

23일. 윤함은 별시를 구경하러 서울에 가겠다고 행장을 차리고 또 명지(名紙)를 만들었다. 저녁때 현의 장무가 연포를 차려다가 바친다. 어머님에게도 또한 7곶을 올렸다.

24일. 윤함은 서울로 가서 과거를 구경한 뒤에 그길로 서쪽으로 간다고 한다. 죽은 딸은 말할 것도 없고, 눈앞에 아이 하나도 없는데, 윤함도 역시 멀리 가서 소식도 필시 얻어듣지 못할 것이니, 작별에 임해서 서운함을 이길 수 없어 눈물을 금할 길 없으니 이 사는 것이 몹시 한스럽다. 토당의 종 성금이도 역시 따라갔다. 집사람이 은어를 얻어 그곳 노비들에게 주고, 죽은 딸의 묘 앞에 화초를 심게 했다. 또 실과와 건치 2쪽을 싸 보내면서 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영혼이 아는 것이 있어, 만일 그 종이 여기에서 갔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기꺼이 맞고 슬퍼할 것이다. 그런 때문에 하찮은 물건으로나마 제사를 지내어 무궁히 애통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더욱 몹시 슬프다.

25일. 윤함이 데리고 간 하인들이 중로에서 도로 와서 말하기를, 어제 연천 홍 참 봉 매의 집에서 자고 일찍 떠나서 모시고 가사야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저 녁에 이 고을 아전이 태수를 모시고 원주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편에 윤겸의 편지를 보니, 지난 2일에 데리고 간 군대는 넘겨주고, 22일에 서울로 떠났는데, 들으니 영남의 변보가 몹시 급해서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자가 무수히 많다고 한다. 우리 한 집안은 비록 여기에 와 있지만, 인아 및 자방의 식구들은 아직도 서울로 오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 몹시 걱정스럽다. 윤해는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근래에 반드시 올 것이라 기다려진다. 또 둘째 딸은 어제부터 하루거리를 앓으니 걱정이다. 즉시 초학(初瘧) 쫓는 중을 불러 밥을 먹이고 내일 쫓는 법을 시행하도록 말해 보냈다.

26일. 지난 밤중에 이 고을 관비가 범에게 물려 가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는 소리가 몹시 간절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가 보지 않았고, 물고 갈 때 관아 뒤를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들었는데도 종시 구원하지 않아서 주린 범의 배를 채워 주었으니 불쌍하다. 요새 나쁜 범이 많이 돌아다녀, 혹은 대문을 부수고 울타리를 헤치고 들어온다고 하니 몹시 걱정이다. 윤함은 오늘 서울에 왔을 터인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연연(燕燕)한 회포를 잠시도 늦출 수가 없다. 이 고을 경주인이 내일 서울에 간다고 와서 작별하기에 편지를 써 주고 전하도록 했다.

27일. 이제 이 도의 방백의 회관을 보니 적장 행장(行長)(고니시 유키나가)이 일본 정부에 군대를 청하여 청정(淸正)(가토 기요마사)과 함께 좌우로 길을 나누어 올라 온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인아의 소식은 아직 들을 수가 없다. 자방의 가족도 어디로 갔는지 또한 들을 수가 없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장무가 절병을 만들어 낮에 내왔다.

28일. 별시 입장하는 날인데, 세 아이들이 이미 입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과거가 당치 않으나 평일에 바라던 일이어서, 억지로 전해서 들어가 보도록 했다. 합격하고 못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도외에 둘 뿐이다. 다만 변방 소식이 요새 몹시 급하다고 하는데 과거 시험을 끝냈는지 멀리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저녁에 현의 하인이 윤겸과 서울에 갔다가 26일에 떠나왔다고하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변방 소식은 아직 아무런 급한 일이 없고, 인아도 역시 이미 율전 생원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생원의 집 식구와 함께 내달 초승에 오겠다고 한다. 생원은 과거 보는 일로 26일에 올라왔다고 한다. 함열의 식구들은 지난 보름께 떠났으니 오늘이나 내일쯤 서울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영변으로 갈것이라 한다. 영변판관이 박동열인 때문이다. 두 집 소식을 오래도록 듣지 못해서바야흐로 몹시 걱정이던 차에 이제 얻어들으니 슬픔과 기쁨이 몹시 엇갈린다. 다만 함열이 서쪽으로 가고 나면 피차에 소식이 막혀 듣기가 어려울 터이니, 만일 난

리가 다시 일어나면 죽고 사는 것을 또한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서로 만나는 것을 어찌 기필할 수 있으랴? 죽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산 자도 역시 이와 같으니 비통한 회포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 윤함은 26일에 이미 누원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고을 사람들이 나왔을 때 길에서 만났으니 응당 일찍이 서울에 들어 갔을 것이라 한다. 또 이 고을 장고산에 사는 중 의현이 와서 뵙기에, 조용히 피란할 곳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비록 깊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라도 흉적이 들어가 찾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심상한 평탄한 곳에서 또한 편안히 지낼 것이지, 험한곳에 가서 머무를 일이 아니니, 마땅히 그때그때 변하는 것을 보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 역시 이치가 있다. 저녁밥을 대접하고 같이 잤다.

29일. 내일이 철원 장이라고 하므로 개질지로 하여금 패랭이 15개를 갖다가 팔아오게 했다. 종일 무료히 관아의 방에서 허찬의 화살 만드는 것을 보았다. 또 서울에 보낼 편지를 썼다. 고을 사람이 내일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 3월

1일. 아침에 관원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윤해의 편지를 보니 삼형제가 과거 보는일로 해서 광노의 집에 모였다고 한다. 들으니 인아가 지난 19일 율전에 당도하여 머물고 있으며 율전에 오기 며칠 전에는 그의 처가 산소가 있는 금천에 와서 유숙하기로 하였는데 금명간에 서울에 갔다가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올 날은 멀지 않은 것이다. 어제 이 고을 교생 강백령이 와서 인사를 하고 술과 안주를 안에 들여보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지고 온 술을 각각 2잔씩 마시고 헤어졌다. 백령은 윤겸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있으며 또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한다.

2일. 현에 근무하는 사람이 오늘 비로소 상경하는데 제일 먼저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게 한 것은 이것을 윤겸이 받아서 내려올 때 저의 죽은 누이 묘소에 가서제사를 지내 주고 오라는 것이다. 또 어제 장무가 노루 1마리를 잡아서 관아에 들여왔는데 다리 하나를 상경하는 사람에게 보낸 것은 아우와 남씨집 누이가 같이나누어 먹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홍정(洪正) 인헌(仁憲) 씨가 최 판관(최응진)의

종이 오는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매를 또 구해 달라고 하니 이곳 관아에 있었던 매는 일전에 날아가 버렸고 오래 묵은 매 1마리는 있으나 세월이 다 간 것이다. 아무리 구하려 해도 구할 길이 없으니 어찌하리오. 둘째 딸애가 지난 20일 후부터 약간 몸이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몹시 편치 않은 것 같다. 걱정이다.

3일. 삼월 삼짇날 명절이다. 관아에서 준비한 떡과 면·삼색 실과와 편육·노루고 기 적 등 제물을 먼저 신주 전에 바치고 다음에 죽은 딸애 앞에 갖다 놓으니 애통한 심사가 더욱 간절하다. 차례 후에 과일과 떡·국수를 소반에 받쳐 상하 식구들과 같이 먹었다.

4일. 현에 근무하는 아전이 상경하는 편에 편지를 써서 부쳤다. 승려 의현이 와서 인사하기로 아침저녁을 먹이고 같이 유숙했다. 저녁에 인아(오윤함)가 제 처를 거 느리고 왔다. 몹시 기다리던 끝에 오늘 갑자기 나타나니 기쁘고 위안됨을 말로써 표현할 바 있으랴. 생원(오윤해)의 글을 보니 모두 무고들 하고 제 형과 아우가 같 이 머무르면서 과거의 결과가 출방(出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소는 2일에 나 오고 1소는 3일에 나온다고 한다. 인아는 2일에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르고 온 것이다. 또 자방(신응구) 일가의 편지를 보니 지난달 20일 후에 떠났다 고 하였으나 아직도 서울에는 당도하지 않았다고 하니 무슨 연고로 이렇게 늦어지 는지 실로 걱정이다. 이천(李蔵) 역시 처자를 거느리고 인아와 같이 들어왔다. 이 곳에는 그의 처가에 있던 계집종이 사는 곳이어서 난을 피해 임시로 살기 위해서 왔으나 지금 들으니 모두 죽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한 사람도 살아남 은 자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이천에 간다고 한다. 그리고 인아가 올 때에 거느리고 오던 계집종 명월과 일비가 청양에 도착해서 달아났다고 한다. 괘씸한 것들이다. 그래서 막비만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이다. 허찬이 서면에 가서 앞으로 임시 살아 야 할 집을 보고 돌아왔다. 그 집은 방이 2개뿐인 데다가 노비가 거처할 곳과 마구 간도 없고 왕래하는 길도 매우 험악하다고 한다. 또 큰 냇물을 일곱 군데나 건너야 되고 만약에 비가 내리면 통행할 수가 없다고 하니 큰 걱정이다. 그러나 평강이 관 아로 돌아온 후에나 생각해서 처리해야겠다. 혹 말하기를 유진 땅이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곳이 확실하게 좋은지는 알 수가 없다.

5일. 허찬과 중 의현이 장고산 절에 올라갔다. 사고가 있을 때를 위해서 간 것이다. 아침에 이천을 청해서 이야기하다가 아침을 겸상해서 먹었다. 그러나 요즘 늙은 매가 꿩을 잡지 못해서 아침저녁 먹는데 찬이 떨어졌다. 안타깝다. 이천의 부인을 관아 안으로 청해서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하고 어두워서야 주인집으로 돌아갔다.

6일. 이 고을 호장 전운룡이 서울에 갔다가 돌아왔다. 두 아이들의 편지를 보니 모 두 무고히 머무르고 있으며 3일에 나온 방(榜)에 윤겸과 윤해 형제가 각각 차상(次 上)급으로서 2등에 올랐으나 윤함만이 홀로 글 짓는 데서 낙방을 하였다니 이 일 을 어찌하리오. 어제 해주로 이미 돌아갔다고 하니 이제는 그 애 소식을 듣기가 참 으로 어렵게 되었다. 딱하고 가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구나. 또 새달 초순에는 상 감께서 문묘로 납시어 알성(謁聖)의 행사를 치르신다 하니 이때에는 꼭 상경하겠 다고 말하고 내려갔다니까 그때에나 만나 보기를 기대하여야겠다. 10일에는 경서 (經書) 강송(講誦)이 있고 15일에는 상감께서 친히 참석하시는 마지막 전시를 본다 고 한다. 만약 강경(講經)에서 뽑히면 전시를 본 후에야 근무지로 돌아오게 된다니 25일간을 이곳 관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미안할 뿐만 아니라 농사철이 늦어져서 더욱 걱정이다. 윤해의 편지에 말하기로는 초시에 3중(三中)을 함으로써 다시 차 상으로 바뀌겠다고 한다. 1소에서 논의할 제목은, "장자방(張子房)이 능히 한(漢) 고조(高祖)에게 쓰이다"라는 것이었고 시제(詩題)는 "연안(研案)"이고 2소의 논제 는 "공명(孔明)(제갈량)은 장수 재목에 미치지 못한다"이며 시제는 "금포송행(錦飽 送行)"이었다. 1소 장원은 정홍익이고 2소의 장원은 신린이었고 생원(오윤해)의 처 남 최진은 형제도 역시 급제하였으니 반가운 일이다. 또 아침 일찍 이천을 청해서 겸상으로 아침을 먹은 후 자기 종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종 2명이 생존하였다 고 한다. 천(蔵)은 처음에 종의 집에서 임시 살아 보겠다고 하였으나 종의 집이 너 무나 작고 누추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모두 가난해서 살 만한 곳이 못되므로 이 천으로 가서 살기 위하여 우선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7일.** 아침에 관원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두 아이 편지를 보니 다 무고들 하며 윤함 은 5일에 서쪽 길로 돌아갔다고 하였으며 저녁때 고을 아전이 또한 서울에서 내려 와 하는 말이, "강경하는 날은 8일로 정해졌고 전시(殿詩)의 날은 10일로 정해졌다"고 한다. 만약 강경에서 뽑힌다면 과거 급제를 바라볼 수 있으련만 그것이 과연 기약될는지 모르겠다. 또 이천을 청해서 종일 대화를 나누고 아침저녁도 같이 먹었다. 들리는 바로 사나운 호랑이가 어젯밤 뒷산 인가에 들어와서 자는 사람을 잡아갔는데 뺏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찾아가 보니 반을 먹어 버렸더라고 한다. 분통하고 분통할 일이다. 악독한 맹수가 성하게 다님으로써 사람을 상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것을 잡아 없애지 못하고 사람마다 두려움에 질려서 해가 넘어가자마자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를 않는다. 지난밤에는 비가 내렸는데 아침에는 개고 종일 바람이 몹시 불었다.

8일. 인아가 데리고 온 종 돌종이가 새벽에 달아났다. 괘씸하고 가증스럽다. 올 때 벗었던 옷을 입고 만들어 놓은 홑치마까지 입고서 오래 머물게 하려 했는데 온지 며칠 만에 달아나 버렸다. 오는 도중에 두 계집종이 도망쳤고 종 하나가 또 달아났으니 이제 계집종 하나뿐이다. 이천 처자를 거느리고 여기에 와서 3일을 머물렀다가 오늘 아침 이천으로 떠나갔다. 또 오늘 진시(辰時)에 계집종 향춘이 여아를 분만했다. 어제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였는데 밤새 극심한 진통을 하고도 출산 못하고 있었다. 그 방이 차고 번잡한 탓이라고 생각되어 문밖의 흙집으로 산모를 내보내고 따뜻하게 불을 지피니 곧 분만했다. 오늘도 역시 큰 바람이 저녁내 불었다. 9일. 아침에 현에 근무하는 사람이 상경하기에 편지를 써서 부치고 또 콩 3두를 아

9일. 아침에 연에 근무하는 사람이 상정하기에 편시를 써서 무지고 또 공 3두들 아우 언명(오희철)에게 보냈다. 요즘 생각하니 필경 양식이 떨어졌을 것이므로 보태 먹도록 보낸 것이다. 식후에 인아·허찬을 데리고 북면 목전에 있는 최윤원의 집에 가서 보니 비록 초가집이기는 하나 집이 매우 넓고 커서 가히 우리 집 같은 많은 식구를 수용할 만하다. 앞뒤 이웃집들이 10여 채 있고 현에서 겨우 2식정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우거하기에 매우 가합하나 집주인이 거처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평강이 환관한 뒤에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최윤원이 점심을 제공하고 좌수 권유년이 또한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룡사를 가기로 하고 동구에 들어서니 산의 모양이 기괴하고 높으나 또한 예쁘고 사랑스럽다. 채 좌수와 근처에 있던 교생들 5, 6명이 또한 와서 인사를 한다. 권 좌수와 그의 두 아

들 호덕·호의도 모두 모여 와서 다 같이 숙박했다. 권이 술을 가지고 와서 어두워 서야 각기 2잔씩 마시고 파했다.

10일. 권 좌수와 최윤원이 두부콩을 가지고 와서 두부를 만들어서 포식한 뒤 돌아왔다. 처음에는 폭포를 가서 구경하기로 하였으나 비가 내릴 기미가 보여 돌아오는 길에 허찬으로 하여금 최수영의 집에 들어가서 기와를 덮은 최의 집이 윤원의 집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나 집주인이 상경해서 집에 없었고 사방에 이웃집이 하나도 없어서 매우 고적하고 적막하여 윤원의 집만 못하다. 그 면의 권농(勸農)이 꿩 1수를 갖다 바쳤다. 어제 잡은 2수와 같이 가지고 왔다. 어제 중로에서 매를 놓아 주었더니 늙은 매는 3수를, 새로 길들인 매는 1수를 잡아 왔다. 그런데 추련(秋連)이 장끼를 보고도 쫓지 않으니 가증스럽다. 꿩 1수는 두부를 넣어 만든 연포국을 만드는 데 썼다. 현에 도착하니 아직 저녁때가 아니 되었다. 현의 장무가 다면 (茶麵)을 내와서 아중(衙中) 사람들이 모두 같이 먹었다.

11일. 내일은 고조의 기제일이다. 장무로 하여금 제물을 준비하게 하는데 마침 평 강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다만 제상에 국수와 떡만을 올리게 되겠다. 또 중흥사에 있는 중 덕혜가 와서 문안 인사를 하였다. 평강과는 소시에 글을 읽을 때에 한 방을 쓰면서 정진했던 깊은 사이인지라 오늘 함경도로 돌아가는 길에 이 고을에 들어왔다가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뜻을 관찰하건대 양식과 찬을 얻고자하는 듯하나 마침 태수가 자리에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12일. 동이 트자 인아와 같이 제사를 올렸다. 국수와 떡·삼색 실과·밥과 국·삼색 뿐이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늦게 개기 시작했다.

13일. 밤 꿈에 평강이 들어왔다. 분명히 평상시와 똑같은데 창문 앞에서 갓을 벗고 절을 한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필경 과거에 급제해서 갓을 벗고 관모를 쓸 징조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명간에 환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요즘 비각증 병이 크게 번져서 상하가 모두 앓고 누웠다. 인아 내외도 밤새 앓더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 나를 배종하는 아이가 진달래꽃을 꺾어 왔는데 가지마다 꽃이 만발한 것을 보니 작년에 임천 살던 때 생각이 난다. 죽은 딸아이가 꽃가지를 얻어서 병에 넘치게 물을 부어 꽃을 꽃아 놓고 좋아하던 모습이 문득 눈앞에 나타나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생각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종일 슬픔 에 잠겨 버렸다. 왜 네가 세상을 일찍 떠나가서 나로 하여금 물건을 보면 문득 너 를 생각하게 하여 이 한없는 아픔을 끼치고 갔단 말이냐. 슬프고 또 슬프구나. 현 의 아전이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두 아들의 편지를 보니 지난 6일에 시행한 강경의 두 글을 간략하게 갖춤으로써 합격하였다고 한다. 기쁜 말을 무엇으로 다하랴. 앞 으로 넘어야 할 큰 목이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두 아들이 다 등과하기를 바랄 수 는 없으나 하나만이라도 얻어진다면 이 또한 한 집안의 경사요 행운이라 할 것이 다. 또 들으니 이천안(李天安) 수씨께서 지난 5일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애통함 을 금할 바 없다. 이천이 이곳에 왔다가 이천으로 갔기 때문에 곧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렸다. 돌아가신 수씨는 집사람의 숙모이고 집사람하고는 평상시 각별 한 친분으로 지내온 처지이라 오늘 그 부음을 듣고 집사람은 통곡을 하며 슬퍼한 다. 두 아이가 경서에서 강송한 것이 윤겸은 《시전(詩傳)》의 〈제풍(齋風)〉편 〈동방 미명(東方未明)〉이고《논어(論語)》는 〈자위소진미(子謂韶盡美)〉와 〈진선(盡善)〉이 고 유해는 《시전》의 〈정풍(鄭風)〉편 〈야유만초(腎有蔓草)〉이고 《대학》은 10장이었 다고 한다. 또 들으니 상감의 문묘 알성이 오는 8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만약에 그와 같이 실시된다면 함아는 그때에 꼭 상경할 것이다. 그러나 종도 없고 말도 없 는 데다 시절이 마침 농사철인지라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상경할는지 걱정이다.

14일. 인아의 처가 밤새 신음하더니 오늘 저녁때까지 여전하다. 참으로 답답하고 걱정이다. 비단 이것뿐이랴. 관아 안에 비각증이 크게 번져서 상하 관원들이 모두 누워서 앓고 있다. 그러나 인아 처는 더욱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위로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이 고을 전 태수 황용성이 지금 보령태수로 있는데 그의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이름을 신고하였다. 나는 아방에서 그를 만나 보고 술을 대접해서 보냈다. 전에 임천군에 있을 때 한번 만나 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좌수 권유년이 찾아왔었다.

15일, 평강이 돌아오는 것을 맞기 위하여 관원이 상경했다. 또 한복도 삯을 받고

같이 내려오기 위하여 상경하므로 편지를 써서 부치고 또 꿩 1수를 구해서 남씨(남 상문) 집 누이에게 보냈다. 인아 처는 밤새 신음하였는데 조금도 차도는 없이 더해지는 것만 같다. 답답하고 걱정될 뿐이다. 비단 인아 처뿐만 아니라 관아 계집종 막종도 또한 앓기 시작한 지가 오늘로 5일이 되었으나 아직 차도가 없으니 반드시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 손 쓸 바를 모르겠다. 어머님을 모시고 외부에 있는 방으로 나갔다. 아직 며칠을 기다려 보다가 이 병의 상황이 여전하다면 관아를 떠나 사가로 피할 계획이다. 오늘이 전시를 치르는 날이다. 평강이 전시를 끝내면 곧 내려올 터이니 18일 만에 임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근심 가운데이와 같은 질병의 환난을 당하니 사가 피신 문제도 평강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처치해야겠고 이 병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자못 걱정될 뿐이다.

16일. 인아 처의 병세가 여전하니 답답하다. 그래서 덕노를 시켜서 말을 가지고 금 천에 가서 계집종 은개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환자 옆에서 시중 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아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김부솔 창일에게 보내서 약을 알아 오도록 보냈다. 김 공은 인아 처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다. 저녁에 생원의 하인 춘기가 왔다. 공물 거두는 일로 안변을 가는 길이란다. 두 애 편지를 보니 별 다른 일 없이 서울에 머무르고 있으며 15일의 전시가 지나면 곧 평강은 파주에 가서 우계(성혼) 를 뵙고서 환관하고 생원(오윤해)는 율전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요즘 변방 소식을 들으니 긴급한 환란은 없다고 한다. 또 양 포정(양호(楊鎬))이 대 군을 거느리고 근간에 강을 건너 와서 서울을 진압. 안정시킨다고 하는데 왜적의 동정은 결코 빨리 움직일 기세가 아닌 듯하다. 양 포정을 모시고 다닐 접반관 장운 익이 이미 현지에 나아갔고 연도에서 환영할 영위사도 모두 차출되었다고 한다. 17일. 인아 처의 증세가 여전하지만 전날과 같이 혹독한 진통이 오는 상태는 아니 다. 그러나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그치지 않으며 구역질도 계속하니 실로 걱정이 다. 평강의 막내딸 덕임이 지난 섣달 그믐날 출생하였는데 그 용모가 단아하고 겨 우 몇 달 밖에 안 되었는데도 사람은 알아보면서 소리 내고 웃는 짓이 한없이 사 랑스럽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 어린아이에게서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젖 을 한 모금도 못 먹고 증세가 가볍지 않으며 기침이 급하게 나오고 숨을 몰아쉬는 것이 살려내기 어려울 듯하다. 안타깝고 불쌍하다. 관아 안이 온통 비각증에 걸려 상하가 모두 앓고 있다. 선아도 아프기 시작한 것이 오늘로 3일이고 어머님께서도 어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더니 숨찬 증세가 심하시고 기침이 멎지 않으니 큰 걱정이다.

18일. 어머님께서는 아침에 차도가 계시고 선아도 덜한 것 같으나 기침은 여전하다. 인아 처는 조금도 가감이 없다. 답답하다. 평강의 젖먹이가 어제 기절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숨은 쉬고 있으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숨이 곧 끊어질 듯한상태가 가망이 없어 보인다. 슬픔과 불쌍한 생각으로 차마 지켜볼 수가 없다. 정오께 되더니 끝내 가고 말았다. 애처롭고 안쓰러움을 어찌할꼬, 어찌할꼬. 곧 덕노로하여금 염습을 하게 했다. 저의 아비가 오늘은 올 듯한데 오지 않는 것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다.

19일. 인아 처가 전날 같은 진통은 없으나 아직도 쾌하지 못하여 죽도 많이 못 먹 는다. 걱정이다. 죽은 애를 관에 넣어 빈 방에다 빈소를 차려서 아비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했다. 또 현 앞뜰에서 사는 노루가 여염집에 뛰어들었다가 동네 개가 물 어 죽이니까 개 임자가 이 노루를 관아에 갖다 바쳤다. 즉시 이것을 구워서 먹었 다. 오후에 성균관(成均館) 사람 5명이 서울에서 달려왔다. 과거 급제를 공고하는 방을 가지고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내며 와서 알리기를. "그저께 저녁때 방이 나오 고 평강(오윤겸)이 급제했다"고 한다. 가지고 온 방목(榜目)을 보니 조수인(趙守寅) 이 장원이고 윤겸은 7번째로 급제하였다. 온 집안의 기쁨임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 와 윤해가 실패한 것이 유감이라 하겠으나 한 집에 한 사람이 등제한 것으로도 만 족하여야겠다. 어찌 두 사람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겠는가. 전전해서 기별이 오나 사 실 같지 않다. 강경한 사람은 2백여 명인데 뽑힌 사람은 19인 뿐이라고 한다. 오씨 문중의 5대조 이하는 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의 아들이 처음으로 이겨낸 것이 다. 지금부터는 뒤를 이어서 일어날 희망이 있으므로 일문의 경사를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리오. 한없는 기쁨이 넘친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의 영혼이 필경 어둡고 어두운 저승에서도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비감한 마음을 누를 길 없다. 무과는 초시의 방식에 의해서 다만 석차만을 정했다고 한다. 저녁때 평강이 돌아왔다. 이

고을의 서울 주인이 보낸 기별을 받고 보니 비로소 그 사실이 믿어질 것 같다. 온집안 식구가 방 안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난리 난 세상에서 과거급제가 상관 있으리오만 새벽닭이 울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마도 기쁨이 절정에 이른 탓이리라.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늦으면 음관(蔭官)만도 못하겠지만 이미 환로(宦路)에 나와 있으므로 필시 원방으로 배치될 것이니 떨어져 살아야 할 걱정이 미리 앞서기만 한다. 그러나 이미 나라에 바친 한몸이니 앞날이 평탄하거나 험난한 것은 모두 신하된 사람의 분수 안에서 일어나는일이므로 금후는 나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 서글픈들 어찌하리오.

20일. 어머니께서 며칠 사이로 비각증 증상으로 매우 중태이시다. 오늘은 괴로움이 배는 더하신 듯하여 진지도 못 잡수셨다. 근심스럽고 답답한 심정이 극에 달하는 것 같다. 저녁에 땀을 내시더니 조금 가라앉으시는 듯하다. 인아 처는 오후부터땀을 흠뻑 내고 난 후에 조금 차도가 엿보인다. 참으로 기쁘다. 또 관에서 화전을제공해 주어서 먼저 신주 전에 바치고 식구들이 같이 먹었다.

21일. 등과한 사람이 창방(唱榜)할 때 입을 흑삼(黑衫)을 만들기 위하여 세만을 상경시켜서 남씨가(남상문) 누이에게 보냈다. 편지와 같이 산 꿩 1수를 구해서 보냈다. 어머님 기력은 점차 회복되시는 듯하나 머릿속이 은근히 아프다 하신다. 아직 완쾌되지 않으신 탓이니 걱정이다. 인아 처는 일어나 앉아서 음식 생각이 조금 나는지 아침 일찍이 흰죽을 조금 먹었다. 매우 기쁘다. 아침 늦게 최 판관 응진이 찾아왔기로 윤겸과 같이 모정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을 대접해서 보냈다. 내일 매를 날려서 노루 사냥을 냇가에서 하기로 약속했다. 최는 서울 살때에 한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지면이 있었는데 피란해서 이 고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또 성균관 사람들이 2일을 머무르고는 평강이 입고 있는 천익과 흰 모시행의를 강제로 벗겨 갔다. 또 꿀 3승· 잣 1두·베 5필·양식할 쌀 등을 주고 내일돌아가게 했다. 나는 옷을 벗어 주고 싶지 않았으나 평강이 두 옷을 벗어 주기에 모시 행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여 주지 않았다. 경축 잔치를 할 때에 재주 부리는 광대에게 벗어줄 심산이다.

22일. 어머님 기력이 아직도 쾌차하지 못하시다. 근심스럽고 걱정이다. 인아 처도

아직 완쾌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먹을 마음이 생기는 듯 계속 죽을 먹고 마신다. 참으로 기쁘기 한이 없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몹시 몸이 무겁고 머릿속이 아프매 맛있는 음식이 없고 콧물이 끊이지 않 는다. 평강도 또한 이와 같은 증세이니 걱정이다.

23일. 어머님께서 병환 증세가 여전하시고 잡수시는 것이 갑자가 줄고 숨이 몹시 가쁘며 가래와 기침이 그치지 않으시니 실로 답답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 나 역시 저녁내 골이 아픈 것이 어제보다 배는 더한 것 같다. 걱정이다. 또 두모포에 사는 어부 한복이 와서 인사를 했다. 이는 평강과 동갑으로서 어렸을 때 강정에서 글을 읽을 무렵 서로 친숙하게 지낸 사람으로 등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건어 6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줘 보낼 물건이 없어서 평강이 매우 걱정을 하였다.

24일. 어머님께서 기력이 차차 회복되시는 듯하나 아직 완쾌하지 못하셨다. 잡수 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니 걱정이다. 나도 여전히 머리 아픈 것이 더 심해지니 답답하다. 저녁에 덕노가 은개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우의 편지를 보니 모두 무고하니 철 따라 발생하는 병이 크게 번져서 신아와 계집애 종이 방금 앓고 있다고 한다. 걱정이다. 남중소 씨가 역시 축하의 편지를 보내왔다.

25일. 어머님 기력이 여전히 미령하시고 나 역시 고통이 가중되어 음식 맛을 잃고 땀을 조금씩 끊이지 않고 흘린다. 답답하다. 또 안협군수 유담이 와서 문 앞에 말을 세운 채 새 사람 나오라고 불러대면서 평강에게 강제로 굴레를 잡히려고 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자 웃으며 들어와서 앉았다. 나의 앞에서 성명을 고하고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만나 주기를 바랐으나 기력이 빠지고 마침 땀을 내고 있는 중이어서 나가 보지 못했다.

26일. 어머님 병환이 날로 회복되시고 음식도 조금씩 잡수시니 기쁘기 이를 데 없다. 나 역시 병증이 멎어간다. 세만이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평강이 입을 흑단령을 사려고 하였으나 값이 비싸서 사 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왔다. 아우 편지를 보니 무탈하다고 한다.

27일. 어머님 기력이 차차 회복되시기는 하나 비록 진지는 드신다 하여도 입맛이

써서 모든 음식이 달지 않으시고 때로는 미미한 두통이 일어난다고 하신다. 평강은 오후에 상경했다. 2일에 행하는 창방 때문에 쫓아 올라간 것이다. 찬 역시 한복을 거느리고 같이 해미로 떠났다. 그의 외조모가 지난 정월에 떠났는데 이제 비로소 소식을 듣고 가는 것이다. 허찬의 외조부는 나의 숙부 후실인 용궁댁이다. 그는 난리 후에 생질 이 첨지 의를 따라 해미 땅에서 우거하였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다가 실명까지 하였고 자녀도 없어서 인간 고초가 여기에 더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문중에 이 숙모만이 계실 뿐이었는데 세상을 뜨셨으니 애통한마음 금할 바가 없다. 용궁 숙부의 본실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계집종 소가(小家)에서 다만 1남 1녀가 있었을 뿐인데 아들은 난리가 나자 온 식구가 몰사하고 말았으며 딸의 소생도 4남 2녀이었으나 다 병사하고 오직 허찬 하나만 남은 것이다. 한심스런 일이다. 그 아들 이름이 윤남이고 딸의 남편이 허탄인데 곧 찬의 부친이다. 계사년 여름에 진주성에서 세상을 뜬 것이다. 찬이 가는데 편지를 써 주고 돌아올때 남포 신함열 집에 들러서 우리 집 상하의 소식과 같이 전하고 그동안의 지나온 곡절을 알리라고 했다.

28일. 어머님 기력이 오늘은 평상시와 같으시다. 나 역시 완쾌되었다. 기쁘다. 또 내일은 서면의 살 집을 가 보려고 소한으로 하여금 매를 가지고 먼저 가서 도중에서 기다리도록 예정하였었다. 그러나 집안 상하 식구들이 모두 만류하면서 경축 잔치를 끝내고 같이 가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들어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계획이다. 또 덕노와 개질지가 반동을 사기 위해서 안변으로 떠났다.

29일.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오랜 가뭄 끝에 비를 기다리던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오늘 이와 같이 단비를 만나게 되었다. 만약 종일 개지 않고 내리면 논밭을 한번 갈아엎을 비가 흡족하므로 삼농의 기쁨이 될 것이다. 비록 큰비는 아니나 저녁내 비가 내려 주어서 밭농사는 흡족하겠으나 논은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다. 다시 하루만 더 내려 주었으면 거의 남묘지망(南畝之望)이 이루어진 만족스런 상태가 되겠다.

그믐날. 아우(오희철)가 눈앞에 부리는 노비가 없다고 어머님께서 항시 걱정하시므로 어머님 뜻을 받들어 모시기로 했다. 광주 선영 밑에 사는 성금, 직산에 살고

있는 계집종 단춘, 서울에 사는 계집종 복지의 소생 복일 등 세 사람을 보내 주기로 하였다. 평강으로 하여금 노비 권리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내가 서명하고 또 남고성(남상문)이 서명하여 아우에게 보내 주도록 조치한 문서를 어제 평강이 상경하는 데 가지고 올라갔다. 아침을 먹고 출발해서 서면 정산탄에 당도했다. 큰 냇물을 일곱 번이나 건너야 하니 만약에 비가 내리면 통행할 수가 없겠다. 임시 살집은 크고 방이 많아서 우리집 많은 식구를 수용할 만하겠으나 노비가 있을 곳이 없다. 집주인 이름은 김언보와 민시중 두 사람인데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사는집이 있으나 지금은 두 사람 모두가 타처에 나가서 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쳐다본다. 서쪽 이웃에 살면서 고기잡이를 전업한다는 사람이 민물고기 1사발을 갖다 주었다.

## 4월

1일. 아침 일찍 집주인 언보가 국수를 만들어서 바치고 이웃에 사는 전풍이 민물고기 50여 마리를 가져다 바친다.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살을 엮어서 앞 여울에 쳐 놓았는데 어젯밤에 잡힌 것이라고 한다. 신선하고 팔팔하다. 큰놈 10마리를 골라서 관아로 보내고 나머지는 썰어서 포식하였다. 빙어가 많이 살고 있다니 자반을 만들어야겠다. 술을 대접해서 보냈다. 낮에는 이 고을 후전리에 사는 전에 별감을 지낸 김린·교생 허충·김애일 등이 와서 인사를 하고 그들세 사람과 더불어 동쪽 큰 언덕에 걸어서 올라갔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집주인 시중이 국수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이 언덕 위에는 7,8인이 앉을 만한 자리가 있고 큰 냇물은 굽이쳐 흘러서 깊은 못과 소담을 언덕 밑에 만들어 놓았다. 물 깊이가 여러 길이 되겠고 언덕 높이는 수십 길이 넘겠다. 언덕 북쪽에는 암벽이 가로 둘러서 내려질리고 다시 크게 일으켜서 이 언덕이 만들어진 것이다. 마치 누에머리 같이 생겼는데 반은 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앞에는 큰 들을놓고 있어서 참으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이다. 언덕 가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정신이 무섭고 떨려서 언덕 가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바람도 조용하고 물결도 잔잔하여 티 하나 없이 맑은 데다 햇빛이 내려 비치니 물속에서 노는 고

기를 헤아릴 정도로 보인다. 마침 물가에서 무리 지어 놀던 고기 떼가 물속에서 뛰 어 올라 번득이고 있기에 따라온 아이에게 그물을 쳐서 몰게 하였다. 몰기가 무섭 게 번득거리고 엎어지는 것이 마치 은 부스러기 같이 날고 뛰어 오르는 모습이 무 던히 즐겁다. 60여 마리를 잡고 아이에게 또 낚싯대를 가지고 오게 하여 40여 마 리를 낚았는데 줄이 끊어져 낚시를 잃어서 다시 낚을 수가 없게 되었다. 유감이었 다. 큰 놈을 골라서 편을 지어 말리고 남은 잔 것들은 탕을 만들어서 밥과 같이 먹 었다. 그러나 술이 없어서 부득이 회를 만들어 그들과 같이 먹었다. 매우 유감스러 웠다. 해가 기울어져서 각자 헤어졌다. 편을 지어서 말린 고기를 간수하지 않아서 서편에 사는 강아지가 반은 물어 가 버렸다. 몹시 가증스러우나 어찌하리오. 저녁 때 소한 등이 매 사냥을 하고서 돌아왔는데 겨우 꿩 2마리를 잡아 왔다. 유감이다. 2일. 비가 새벽부터 쏟아져 내린다. 무논도 충분하게 씨앗을 붙이겠으니 매우 다 행스럽다. 그러나 오늘이 창방하는 날이다. 비가 이와 같이 쏟아지는데 행사를 강 행한다면 새로 등과한 사람들이 입은 옷들이 흠뻑 젖어 버려서 그 몰골이 말이 아 니겠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아침에 전풍이 쏘가리 4마리 · 빙어 6마리를 갖다 주 고 갔다. 앞 여울에 쳐 놓은 살에서 잡은 것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없어서 갚을 수 가 없었다. 매우 유감이다. 마침 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큰 놈으로 6마리 를 골라서 관아 내실로 보냈는데 어제 편 지어 말린 고기 40여 마리도 같이 부쳤 다. 아침 늦게부터 비가 개기 시작하자 소한이 매를 팔뚝에 앉히고 꿩 사냥을 앞산 으로 나갔다가 2마리를 잡아 가지고 돌아왔다. 어제는 종일 사냥한 것이 2마리였 는데 오늘은 잠깐 동안에 또 2마리를 얻었으니 득실의 많고 적음도 모두가 운수소 관인 듯하다.

3일. 식후에 지팡이를 짚고 냇가에 걸어 나가서 발을 씻고 동쪽 언덕에 올라가 고기 노는 것을 내려다보며 시중으로 하여금 그물을 치게 하였다. 30여 마리를 잡아올렸다. 이웃에 사는 김억수가 점심을 제공해 주었다. 부석사의 중 법회가 와서 인사를 하고 돗자리 2매를 가지고 와서 들여 놓았다. 관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와 폭이 모두 짧고 좁다. 유감스럽다. 김언신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보낸 편지를 보니 집사람의 건강이 요즘 불편하다고 하였으니 걱정이다. 그 나머지는

관아 안이 모두 무고하다고 한다. 오늘은 매 사냥을 했으나 저녁때까지 1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유감이다. 꿩을 모는 개가 냄새를 맡지 못하는 어린 개를 시켰기 때문이고 또 풀과 나무가 무성해서 여러 번 놓쳐 버렸다고 한다.

4일. 언신으로 하여금 비로소 조밭을 갈게 하였는데 소가 매우 피로하고 싫증을 내는 듯하여 잘 달리지 못해서 반도 갈지 못했다. 유감이다. 오후에 내가 가서 보고 돌아왔다. 무료해서 동쪽 언덕에 걸어 나갔다. 배행한 아이에게 그물을 치게 하고 고기를 잡았으나 몇 마리밖에 못 잡았다. 그러나 저녁에 지지고 구워서 먹었다. 또 집주인 김언보가 점심밥을 지어 내왔다. 미안한 일이다. 소한 · 사견 등이 매를 가지고 북면으로 갔다. 이곳은 풀과 나무가 우거져있고 상북면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사이 북면에서 매 사냥을 하려고 한 것이다.

5일, 이웃에 사는 박언방이 현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딸애 편지를 보니 저의 어 머니 병이 아직 쾌차하지 않아서 입맛을 잃은 상태라고 한다. 걱정이다. 평강의 편 지도 역시 서울에서 전해 왔는데 창방에서 물러 나온 것이 9일이라고 한다. 서울 에 오래 머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관 후에 경축 잔치를 베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야겠는데 미흡한 일들이 많아서 큰 걱정이다. 생원의 편지도 또한 도 착하였기로 읽어 보니 모두 무고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4일에 는 북도의 정예병이 서울에 도착하여 특별히 과시를 베풀어서 인재를 얻기 위하여 문과 시험을 본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은 대궐 안에서 유생들을 위한 정시가 열리 기 때문에 평강이 사람과 말을 생원(오윤해)에게 보내서 데려온다는 것이다. 아마 도 지금 서울에 와 있을 것이다. 또 방자 춘금이로 하여금 말을 가지고 아중에 들 어가서 재를 싣고 오게 하였는데 그편에 서울로 보낼 편지를 써서 부쳤다. 내일 아 침에 상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또 들으니 근간 근친하러 온다고 하니 고대하게 된다. 이곳은 비록 빈 밭을 얻는다 하더라도 재를 넣지 않으면 많이 경작할 수가 없는 것이 유감이다. 전풍이 큰 냇물고기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 고 갔다. 1마리는 쏘가리로 좀 큰 편이다. 부석사 중이 와서 문안하고 그로 하여금 벽칠을 하게 하고 보냈다. 또 늦게 김린 · 허충이 술병을 들고 와서 같이 마시는데 가까운 마을에 사는 박문자가 또한 와서 내게 수인사하고 돌아갔다. 전업ㆍ김언 보·민시중 등이 매일 조석으로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이들은 모두가 아주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이다. 언보가 아침 전에 술과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는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 조보를 보니 통제사 원균이 일본 배 2척을 사로잡았고 65명의 적수를 베었다 하니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오늘 밭갈이도 다 끝내지 못했다. 모든 것이 소가 수척해서 일을 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안타깝다.

6일. 북쪽 이웃 동네에 사는 막동이라는 자가 냇물고기 30여 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살을 매서 잡았다고 한다. 곧 술을 먹여 보냈다. 아침 식사에 큰 놈을 구워 먹고 나머지는 조각을 내어 말렸다. 오후에 최 판관 응진이 찾아와서 얼마 동안 이 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전관실이 와서 인사를 하고서 무 백여 개를 바치고 갔다. 이것으로 종자를 하여 무씨를 채취해야겠다. 매우 기쁘다. 이는 전업의 형이되는 사람이다. 고한필이 와서 문안하고 목미 1두를 바쳤다. 모두가 늙고 이 고을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서 5리 밖에서 살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온 것이다. 줄 만한 물건도 없고 먹여 보낼 술도 없으니 갚을 방도가 없구나. 안타깝다. 또 언신이 어제 갈던 밭을 마저 다 갈아버렸다. 언보의 밭 조금을 옮겨 갈았다.

7일. 재가 없어서 씨를 뿌리지 못하고 언신이 재를 구하러 나갔기 때문에 가는 일을 거두었다. 원적사중이 돗자리 1매와 막짚신 1부를 바치고 큰 과일 1상자도 또한 같이 바쳤다. 이것은 수륙재를 지내고서 남은 물건이라고 한다. 동쪽 이웃에 사는 박언방이 점심에 밥을 지어서 내왔다. 근일 사나운 호랑이가 성하게 돌아다니는데 어제 아침에는 해가 뜬 후에 산을 지나서 인가 앞까지 왔다가 산골짝으로 들어 갔고 해 지기 전에 또 앞내를 건너서 사라졌다고 한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녹용채취로 산에 다니는 사람 말로는 매일 호랑이를 보는데 그저께는 한 골짜기에서 4마리가 같이 일어나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실로 두려운 일이다. 저녁때 춘금이가 돌아왔다. 딸애 편지를 보니 아중이 다 무고하고 저희 어머니도 쾌차해 간다고 하니 기쁘다. 마침 관비 매화가 교대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왔다. 소주 1단지 가자미 1속을 가지고 왔다.

8일, 먼저 들어왔던 관비 평개가 교체해서 혐으로 들어갔다. 추금이로 하여금 무 90여 본을 씨로 심게 하고 또 오이 구덩이 60여 개를 파서 파종하고 또 가지씨도 뿌렸다. 후일 가지 묘를 옮겨 심기 위해서이다. 오후에는 언신이 같은 밭에 나가 보고 박문자의 집 뒤 큰 언덕에 올라갔다. 말에서 내려 땅에 앉은 채 얼마 동안 사 방을 바라보니 언덕 밑에 긴 내가 띠처럼 비쳐서 흘러내려가니 가히 경관 좋은 승 지라 하겠다. 또한 정자를 세울 만한 곳인데 어리석은 주민들이 언덕 위에 솟아 있 는 아름드리 푸른 소나무를 베어다가 널을 만드니 참으로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문자(文子)가 점심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다. 돌아올 때 또 집 앞 냇가에 가 보니 절벽이 깎아질러서 그 높이가 가히 백여 길이나 되겠다. 긴 냇물이 그 아래 로 흘러들어서 고여 담긴 물이 못을 이루었는데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 눌 치 · 쏘가리 등이 모두 그 속에 모여서 물속을 헤엄쳐 놀고 있다. 흰 모래사장이 깔 린 물가에는 푸른 버드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으니 참으로 절승의 고장이다. 마침 바람이 크게 불고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대로 말을 세워 놓고 잠시 바라보다가 돌 아왔는데, 다음 날 술을 가지고 가서 구경할 계획이다. 저녁에 고한필이 와서 보고 또 생황용(生黃茸) 4덩이를 바치는데, 1덩이는 크기가 대접만 하니, 기제에 쓸 작 정으로 꿰어서 말리게 했다. 한필에게 묻기를, "봄여름 사이에도 이것이 나며, 그 것도 먹을 수 있는가?" 했더니 대답하기를. "봄 버섯은 유목(榆木)에서 나는데, 먹 을 만하고, 그 맛이 제일 좋다"고 한다. 소주 1잔을 주어 보내고, 한 잎으로 국을 끓여 먹었더니 과연 맛이 몹시 좋다.

9일. 오늘은 마침 창방인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 다행이다. 아침 식사 전에 전업이 앞 여울에서 잡은 붕어 1마리를 갖다 바치는데 그 크기가 반 자나 되고 아직도 살아 있어서 펄펄 뛴다. 마침 춘금이가 누에 칠 종을 데려올 일로 말을 가지고 현에들어가 아내에 보내서 어머님께 바치도록 했다. 늦은 후에 소근전에 사는 전 주부 김명세와 별감 김린 등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찾아와서 오래도록 이야기하다가 함께 그 술을 마시고 두 김과 함께 걸어서 동대에 올라가 또 한바탕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 파하고 돌아왔다.

10일, 언신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 간 밭에 참깨를 심겠다고 하기에 즉시 반 되를

주고, 또 쌀 6되를 주어 깨 심는 사람들을 먹이게 했다. 또 정병 박춘이 와서 목과 5되와 당귀 1묶음을 바치는데, 술이 없어서 대접해 보내지 못하니 한스럽다. 박귀 필·김언희도 역시 와 보고 당귀초 3묶음을 바친다. 모두 집이 서면 10리 밖에 있 어, 박춘과 같은 마을에 사는데, 귀필은 지장의 호주라고 한다. 관비 매화를 시켜 서 동과를 심고, 또 유월두도 심었다. 이는 곧 최 판관 응진이 준 것으로서, 6월 초 에 딴다고 한다. 김언보의 아내는 곧 신 별좌 종원의 계집종인데, 적두 4, 5되를 가지고 왔다. 그는 내가 신과 같은 마을에서 친하게 지냈단 말을 듣고, 매일 와서 보더니 이제 또 물건을 가져왔다. 저녁에 춘금이가 양잠비(養蠶婢) 강춘 · 향춘 등 을 데리고 왔다. 누에는 아직 한 잠도 자지 않았는데 크고 작은 것이 5그릇이다. 11일. 아침에 비가 뿌렸다. 전풍이 천어 30여 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는데 이것은 곧 앞 여울 결전에서 잡은 것이다. 소주 1잔을 대접해 보냈다. 그중에 비늘이 비단 같은 것 1마리를 구워 오라 하여 먹으니 맛이 몹시 좋다. 그것을 안주로 하여 소주 1잔을 마셨다. 전업은 또 마태 1두를 보냈다. 박문자가 또 와서 보기에 소주 1잔을 대접해 보냈다. 언신이 어제 갈기 시작한 밭은 오늘에야 비로소 끝마쳤다. 두 밭이 사흘갈 이에 지나지 않는데 소가 피로하고 힘이 없어서 6일 만에 겨우 마치고 그 래도 오히려 씨는 뿌리지 못했다.

12일. 박언방의 집 앞 밭을 빌려서 언신으로 하여금 갈고 참깨를 심게 했는데, 이 밭은 반의 반일 갈이이다. 윤겸의 고을 사람이 말을 끌고 왔는데, 내일 돌아가기때문이다. 윤겸의 글을 보니 9일에 방(榜)을 보고, 12, 3일 사이에 고을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4일 정시(廷武)에 9명을 뽑았는데, 이호의(李好義)가 장원을 했고, 무과의 장원은 박천생(朴天生)이라고 했다. 다만 별시에서 비록 먼저 뽑았으나 방붙이는 것은 뒤에 있기 때문에 별시는 뒤에 발표한다고 했다. 홍명원(洪命元)도 역시 과거에 급제했다니 기쁜 일이다. 또 권 판서 징(徵)의 아들의 글을 보니 글 속에 동예의 경사라고 말하고, 멀리서 글을 보냈으니 가위 후한 일이다. 그는 곧 나의 7촌 족장으로, 젊어서부터 서로 가깝게 지내는 처지이다. 이웃에 사는 김억수가 녹두 4되를 갖다 주기에 종자를 하려 하니 기쁜 일이다. 언신이 어제 간 밭은 오늘 비로소 다 씨를 뿌렸다.

13일. 전업이 천어 큰 것으로 6마리를 갖다 주었다.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소근전을 거쳐 김린을 불러 함께 부석사에 도착했다. 이는 곧 어제 김언보가 먼저 두부콩을 보냈으므로 두부를 해 먹을 계획이다. 민시중도 또한 따라왔다. 절의 중이 먼저국수를 내고, 조금 있다가 두부를 냈는데 나는 20덩이를 먹었다. 다 먹고 나서 절뒤 고개를 넘어서 바로 고개 위에 올라 바라보니 동남쪽은 눈 닿는 데까지 끝이 없다. 말에서 내려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돌아와 현아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저녁이되지 않았다. 저녁에 안협태수 유담이 차원으로 이제 영동에 가기 위해서 지나다가 여기에서 자고 사람을 보내서 나의 안부를 묻기에 나도 또한 가서 찾았더니 마침 이 주부 배달・안 진사 극인도 역시 왔다. 이는 곧 안협태수와 함께 통천에 가기 위해서이니 모두 윤겸과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다. 또 안극인은 내가 일찍이 함열에 있을 때 두어 차례 서로 만난 일이 있는데 모두 안협에 와서 피란하고 있는 터이다. 같이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어두워서야 돌아갔다.

14일. 안협태수와 안·이 두 사람은 모두 돌아갔다. 권 좌수 유년이 와 보기에 소주 1잔을 대접해 보냈다. 관아의 종 세만이 병으로 누운 지가 이제 이미 6일인데 아픈 증세가 몹시 중하니 걱정스러움이 그치지 않는다. 낮에 언명이 서울에서 들어왔다. 고대하던 끝에 이제 갑자기 만나니 십분이나 기쁘고 위로가 된다. 그편에 들으니 이번 알성시에 8인을 뽑는데, 거기에 윤해가 거의 참여할 뻔했으나, 다음 번에 사람 뽑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가 지은 표문을 다음번에 내기로 했다니 몹시 한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역시 하늘의 뜻이니 어찌하랴. 한 집에서 계속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유역 형제 이외에 어찌 다시 얻을 수 있으랴. 들으니 심열이 서울에 왔는데 돌아갈 때 노친(老親)께 근친한다고 하니 거의 만나 볼 수 있겠으니 위로가 된다.

15일. 세만의 아픈 것은 전과 같아서 몹시 괴롭다 하니 걱정스럽다. 향소에 왔던 서면에 사는 교생 김애일이 와서 보았다. 집주인 김언보·민시중이 역시 와 보았다. 저녁에 덕노가 서면 집에서 왔는데, 전일에 통천에서 산 소금을 이천 장에 팔고, 남은 소금은 서면 집 근처에 두고 돌아왔다. 다만 소금 1두에 조 3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덕노는 2두 5되를 받아 왔으니 밉살스럽다.

16일. 늦은 후에 윤겸이 왔는데, 5리 밖에서 장막을 치고 옷을 갈아입고서 꽃을 세우고 음악을 갖추고 왔으니, 쇠문의 경사가 어떠한가. 우리 문중에서 비로소 어사화를 보았고, 이로부터 계속하여 일어설 자도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어머님께서는 슬픔과 기쁨이 겹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신다. 먼저 신주 앞에제사를 올렸다. 또 들으니 오극일도 이번 알성 무과에 또한 뽑혔다 하니 더욱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극일은 곧 봉사하는 종손으로서 비록 무과라고 하더라도 묘하에 계속하여 영예스러운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랴. 재주부리는 사람의 이름은 서순학인데 임파에 살고, 광대의 이름은 유복인데 은진에산다. 이들로 하여금 마당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구경하고 나서 정포 2필, 모시두루마기 1건, 백목 반 필, 포 반 필을 주었다. 이는 곧 처음 와서 홍패를 맞는 예급으로 주는 것이다. 마침 비가 내려서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파했다.

17일. 이른 아침에 윤겸은 향교에 가서 공자 영정에 뵙고 돌아왔다. 오후에 재인을 시켜 놀이를 하게 했더니 구경하는 자가 수없이 많다. 생원의 종 춘이가 안변으로 부터 공물을 받아 가지고 왔다. 21일에 경연(慶筵)을 베풀고자 해서 사람을 보내어 손님을 청했는데, 손님은 유 판교 공진·회양부사 민충남·금성수(金城倅) 니(起), 철원부사 윤선정, 은계찰방 김태좌이다. 유 판교는 안협에 임시 와 있었기 때문에 청한 것이다. 다만 청한 손님이 다 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들으니 윤겸의 서생 이백도 또한 알성시에 뽑혔다고 한다. 언실의 외아들로서 또 적자가 없고 다만 서출이 있을 뿐이니, 비록 무과이지만 다행이 급제했으니 또한 위로가 된다

**18일.** 전 양덕태수 심열이 왔다. 못 본 지가 이미 7년인데 우연히 서로 만나니 십 분이나 기쁘고 위로가 된다. 함께 어머니 방에서 잤다. 종일 비가 내렸다.

19일. 조그만 대나무를 세우고 재인으로 하여금 재주를 부리게 하다가 오후에 파했다. 심열이 미역 5동, 마른 붕어 9마리, 송어 1마리를 갖다 주었고, 어머님께도 역시 이와 같았는데 거기에 절인 방어 1마리가 많았다.

**20일.** 최 판관 응진이 왔기에 모정에서 이야기하다가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장차 경연에서 남은 물건을 가지고 23일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다. 내일 장차 잔치를 차

려야 하겠으므로 장막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사람을 시켜 설치하게 했다. 다만 기공을 아직 얻지 못했으니 민망스럽다. 윤겸의 장모가 여자를 데리고 오늘 낮에 오는데 윤겸은 관대를 갖추고 5리 밖에 나가 맞았다. 저녁에 철원부사 이선정이 먼저도착했다.

21일. 경연을 베풀었다. 회양부사 민 공 충남이 왔으므로 나도 또한 나가 보았다. 은계찰방 김태좌도 역시 왔다. 금성현령 차운로는 암행어사로 떠나서 오지 못했 고, 유 판교 공진도 역시 집에 제사가 있어 오지 못했다. 다만 회양ㆍ철원ㆍ은계 세 분만 참석했다. 철원 관비 5명, 피리 부는 사람 1명을 불러왔는데, 비록 노래와 북에는 능하지 못해도 혹 노래도 하고 혹 장구도 쳐서 여럿이 있는 속에 오히려 즐 거욲을 이룬다. 황강진 수가 철원 땅에 피란 와 있는데, 들으니 그 집에 노래 잘하 는 계집종이 있다고 하므로 사람을 시켜 빌려 왔더니 늦은 후에 또한 두 계집종을 보냈다. 만일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거의 불성모양일 뻔 했다. 재인들은 각각 백 가 지 재주를 보여주고 선생들도 역시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축하하는 놀이로 혹 얼굴에 온통 먹칠을 하기도 하고, 혹 아름다운 여인을 업기도 하고, 땅에서 한 치를 떨어져 노래도 하고 혹 춤도 추니 구경꾼이 구름같이 모였다. 이들과 수작하 노라 내가 먼저 취했다. 회양부사는 곧 나의 7촌 친척이 되므로 안에 들어가 어머 님께 술잔을 올렸고, 찰방도 역시 발 밖에서 술잔을 올렸는데, 나는 취해서 미처 술잔도 올리지 못하고 먼저 안대청으로 들어갔으니 한스럽다. 안대청의 과일은 어 머님과 윤겸의 장모, 내 아내에게 차렸는데, 약과는 높이 고였고 그 나머지는 다 만 평평하게 담았는데, 15여 가지에 맛(味) 수는 8미로 했다. 구경꾼들에게는 탁주 4동이를 나누어 주어 마시게 했다. 마침 이장성 귀가 와서 보고. 언명·심열과 울 타리 안에서 숨어서 구경하므로 역시 과실 두어 가지를 대접했다. 저녁이 되기 전 에 철원이 먼저 일어나 달아나고. 나는 다시 민ㆍ김 두 사람과 각각 3잔씩 마시다 가 저녁이 되어 파하고 헤어졌다. 우리 문중에서 과거에 급제한 경사 잔치를 지금 처음 보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어떠하랴. 다만 죽은 딸이 자리에 없어서 때 로 생각하면 기쁨이 극도에 이른 나머지에 도리어 비통한 마음이 나서 혼자서 슬 픈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또 이 고을 백성 김환이란 자가 역시 무과에 올랐 는데, 윤겸과 동갑이어서 그 아비를 모시고 와서 참석했으니 또한 가위 영화롭고 다행한 일이다. 또 난리를 겪은 뒤로 많지 않은 종들이 거의 다 흩어지고 죽어 없어지고 겨우 장흥에 사는 종 천수와 강진에 사는 종 사금 두 집에만 따로 주고, 어머님께서도 역시 주었다. 계집종 복지 및 전해에 난 계집에 등 두 집에도 주었고, 다만 윤겸의 장모의 종 17가구에게는 연안에 있는 논 넉 섬지기와 광주 정자 터 및 그 앞의 전답 두어 섬지기를 따로 주었다. 복지의 딸 이름은 생수개이다.

22일. 일찍 민회양이 있는 곳에 갔더니 김 찰방도 역시 왔다. 또 이장성을 청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함께 조반을 먹었다. 나는 장성과 함께 먼저 물러나고, 윤겸이 혼자 두 사람과 조반을 같이하고 작별하고 나서 관청으로 들어갔다. 나는 옥여 · 언명 및 심열과 모정에 모여 앉았는데, 옥여가 기어이 돌아가려 하는 것을 억지로 만류해 가지고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하고 또 재인을 시켜 재주를 부리게 하고 이를 구경했다. 언명과 심열은 각각 좋은 술 5대접씩을 마시고 취한 뒤에 파했다.

23일. 처음에는 최 판관 응진과 황강진 수를 청해다가 이야기하려 했으나 마침 암행어사의 기별이 들려서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 옥여는 먼저 돌아가고 나도 또한 떠나서 서면의 머무는 집으로 왔다. 집을 수리한 후에 오는 26일에 처자를 데려오려는 때문이다. 올 때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다가 최 판관 중운을 찾아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주인집에서 나에게 수반을 대접한다. 오후에 비로소 집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저녁이 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고, 전풍은 또 천어 및 눌어 1마리를 가져왔기에 국을 끓여 먹었다.

24일. 언신을 시켜 변소를 만들고, 또 원적사중을 불러서 온돌을 바르게 했다. 박문자·고한필이 와서 보았다. 한필이 꿩의 알 7판을 가져왔으므로 삶아서 어머님 깨드렸다. 두 계집종이 뽕을 따려고 한필의 집 근처에 갔더니, 한필이 들어오라고 청하여 술과 밥을 주었다 한다. 김린이 왔기에 소주 2잔을 대접해 보냈다. 그에게 은계찰방 김태좌가 준 옥동역의 계집종 중금이 적어 보낸 토지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난 13일에 밭을 갈았다고 하고, 오는 가을에는 10여 석의 곡식을 수확할 것이라 하니 기쁜 일이다. 밭은 김린의 집 근처에 있다고 한다. 저녁에 전업의 사위 박언수가 천어 60여 마리를 가져왔는데, 이는 곧 앞의 여울에서 잡은 것이다. 큰

놈으로 골라서 소금에 절여 말리고, 나머지는 국을 끓여 먹었다. 또 전업은 마태 5 되를 가져왔다. 수철장 조언희가 솥 2개와 농기 2벌을 가져왔으니, 이는 곧 관청 명령이다. 또 이웃에 사는 박언방이 꿀 2되를 가져왔고, 김억수는 마태 5되를 가져왔다.

25일. 덕노가 말을 가지고 현으로 돌아갔다. 내일 집사람이 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채억복이 벌 1통을 갖다 주니 몹시 기쁘다. 즉시 소주를 주고, 줄 물건이 없기에 패랭이 1개를 주었더니 사양하고 받지 않는다. 억지로 주었으나 끝내 받아가지 않았다. 저녁에 정세당이 천어 75마리를 갖다 주었다. 앞내에서 낚시질한 것인데, 그는 곧 전업의 사위이다. 소주 1잔을 주고 또 소금 1되를 주어 보냈다. 종일비가 내리고 때로는 많이 내렸다. 비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더니 이제 비로소 얻으니, 삼농에 흡족하다. 콩 심을 것도 필시 쉽게 날 것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기뻐한다. 일찍이 김린에 의해서 옥동역의 종 중금이 기록해 올린 토지에 대해서 마침찰방 김태좌가 경연에 참석했을 때 윤겸이 그 수확을 받아 올 뜻을 말하자, 찰방이즉시 패자를 써서 나에게 주면서 피란 와 있는 동안 받아먹으라고 했다. 까닭에 어제 기관(記官) 김응경을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패자를 가지고 삼장관에게 전유해서 추심해 주도록 했다.

26일. 지난밤 비가 새벽까지 그치지 않고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니 집사람은 필시오지 않을 것이다. 북쪽 이웃에 사는 박막동이 생선 3마리를 가져왔는데 낙전에서얻은 것이라 한다. 하나는 몹시 커서 거의 한 자가 넘으니 몹시 기쁘다. 아우와 심열이 오늘 오면 필시 함께 올 것이나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으니 필시 오지 못할 것이다. 생선을 회 쳐서 먹으려 했으나 겨자도 없고 또 술도 없어서 먹지 못했으니한스럽다. 적은 것은 아침 식사 때 구워서 먹었고, 가지고 온 계집에게는 소금 7흡을 주어 보냈다. 정세당이 생선 2마리를 가져왔고, 고한근은 장끼 1마리를 가져왔으니 덕필의 아우이다. 술이 없어 먹여 보내지 못했으니한스럽다. 전풍이 비단 잉어중 1마리를 오늘 또 가져왔으므로 중질과 적은 것 3마리는 소금에 절여 말리고, 큰 것은 오후에 회를 떠서 먹었다. 겨자를 마침 향비가 얻어 왔기에 회를 치게 했으나 다만 술이 없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셨으니 우스운 일이다. 저녁에 언신이

탁주 1병을 가지고 왔고, 김린은 유기(柳器)<sup>2</sup> 하나를 보냈으니 몹시 기쁘다. 마태를 얻지 못했더니, 김은 필시 그 소식을 듣고 보낸 것이리라. 개질지와 소한이 말 3마리에 양식을 싣고 왔다. 집의 글을 보니 그날 날이 흐려서 오지 않았다고 했다. 백미 10두·중미 20두·전미 5두·소금 15두를 실어 왔는데, 소금은 장을 담그게 했다.

27일. 흐리고 가랑비가 뿌렸다. 그러나 모레가 대기(大忌)이므로 비를 맞고 떠나서 현에 도착했는데, 요새 비로 인해서 냇물이 불어 넘쳐서 필시 발을 빼고 건너고 억지로 위험한 산허리에 올라 길을 돌아서 왔다고 한다. 저녁에 정 진사 몽열이 안변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들렀기에 모정에서 회포를 풀다가 파했다. 이 고을에 사는무인 최수영이 이번 알성시에 급제해서 서울에서 처음 와서 보았는데 재인(才人)을 보니 전일 윤겸이 데리고 온 자들로서 경연 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수영이 오기를 기다려 또 따라가려 했던 것인데, 수영은 집이 가난하다고 사양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왔다.

28일. 이 도의 아사(亞便) 임정이 순행하다가 들렀는데 그는 윤겸의 친구이다. 마침 집에 기고(忌故)가 있어서 나가 맞지 못했더니 친히 모정에까지 왔으므로 부득이 나가서 만났다. 그는 스스로 활을 쏘다가 저녁에 관(館)으로 돌아갔다. 또 내일은 제사를 지내야겠으므로 아우와 함께 재거하고 모정에 진설했다. 아중은 좁아서 제사 지낼 곳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날이 밝을 무렵에 아우 및 두 아들, 심열 등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고기와 반찬을 갖추어 지냈다. 광노 및 재인 등은 오늘 비로소 돌아갔고, 내일 아우와 심질도 또한 서울로 돌아가기 때문에 행구를 마련하고, 단오의 제물도 또한 갖추어서 아우에게 보냈다. 또 전미 3두, 콩 2두를 주어서 아우가 쓰도록 하고, 또 재인이 여기 와서 얻은 포목 12필·콩 3석·기장 3석은 모두 포목으로 바꾼다고 한다. 홑옷 6벌·속옷 2벌, 최수영이 홑옷 3벌, 김환이 1벌을 벗어 주고, 나도 또한 속옷하나를 벗어 주었다.

그믐날. 아우와 심열이 떠나서 서울로 가는 길에 개질지가 모시고 갔다. 경연을 치 2 유기(柳器): 껍질을 벗겨 버린 키버들의 하나, 옷 따위를 담는 상자나 키 따위를 만드는 감으로 쓴다. 른 후에 관청 창고가 비어서 구자(救資)도 얻어 가지 못하고 다만 말장 4두·소금 1두를 윤겸이 주어 보냈다. 그러나 말 하나에 짐을 싣고 타고 가노라면 비록 물건을 얻는데도 짐이 무거워, 싣고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침 심열이 짐을 실은 말에 합쳐서 싣고 갔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또한 가져가지 못할 뻔했다. 다만 여기에 반달을 머물러 있다가 아우는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이지만 심질은 집이 먼 곳에 있으니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기 어려우니 서글픔을 이길 수가 없다. 어제 사슴 1마리를 사로잡아 실어 왔다.

## 5월

- 1일. 새벽부터 비가 내려 종일 개지 않으니 언명의 일행은 반드시 중로에 체류하고 있을 것이다. 단오가 멀지 않은데 만일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 내일 온 집이 서쪽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 역시 기필할 수가 없다. 관청에서 만든 청절병과 수단으로 죽은 딸의 혼에 제사를 올렸다. 온 집안이 대청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는데 노루고기를 구워서 먹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께부터 입안에 종기가 나서 음식을 먹을 때 여기에 닿으면 몹시 아프니 걱정스럽다.
- 2일. 아침에도 아직 흐리고 때로 비를 뿌린다. 온 집안이 이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늦은 아침에 나 혼자 먼저 돌아오는데, 오후에 비로소 비가 개므로 말을 달려 서면 집에 도착하니 해가 서쪽 산에 걸려 있다. 올 때 씨할 콩 1섬을 싣고 왔다.
- 3일. 덕노가 말을 가지고 관청으로 돌아갔다. 내일 온 집안이 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풍이 천어 10마리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비단 비늘을 한 고기로서 좀 크다. 정세당이 40여 마리를 역시 가져왔기에 소금에 절여서 말렸다. 오후에 김 주부 명세가 찾아왔기에 술 2잔을 대접해 보냈다. 부석사의 중 법희가 또한 와서 보고 백혜(白鞋) 1켤레를 주었는데 마침 술이 없어서 대접해 보내지 못하니 한스럽다. 어제 아침을 먹을 때 돌을 깨물어 왼쪽 이를 다쳐서 아프고 괴롭다. 오늘 아침 식사때 건드려서 흔들리고 반쪽이 부서졌기로 뽑아냈더니 좀 편안하다. 그리고 굳고단단한 물건을 씹어 먹지 못하고, 입의 종기도 아직 낫지 않아서 음식을 먹을 때 닿는 곳이 모두 아프니 비록 기갈이 몹시 심해도 많이 먹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 4일. 집사람이 오늘은 꼭 올 텐데 오지 않으니 필시 내일이 단오이기 때문에 데리고 올 하인들이 제사 일을 폐할까 두려워서 아직 머무는 것이리라. 이 마을에서 마중 나갔던 사람이 중로에서 그대로 돌아왔다. 춘금이를 시켜서 안팎 마당의 풀을 매게 하고, 또 변소를 해일게 했다. 입안 종기가 몹시 아파서 음식을 뜻대로 하지 못하니 하루 종일 기분이 몹시 불평스럽다. 김억수가 장독 1개를 가져오고, 김귀실은 백주 1양푼과 집 채소 2단을 가져왔다.
- 5일, 단오가절이다. 연전 오늘에는 내가 함열에서 배를 타고 웅포에서 물을 거슬 러 올라와 바로 남당 나루에 이르러 좌우로 바라보니 남북 두 언덕의 인가에서 곳 곳에서 그네를 타고 젊은이와 어른이 모두 모여서 놀이를 했는데. 이제 협중에 와 서 보니 한곳에서도 그네 놀이를 하지 않으니 산중 사람들의 풍속이 가위 순박하 여 번화한 기상이 없다고 하겠다. 이웃에 사는 전업 · 김언보 · 김억수 등이 술과 떡과 실과를 가져왔기로 계집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지난해 오늘에 임천에 있을 때는 죽은 딸이 울타리 안 복숭아나무 가지에 그네를 매고 언명과 두 아이들 과 함께 놀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슬픈 눈물이 옷깃을 적 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슬프다. 네 어찌 먼저 죽어서 나로 하여금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가슴 아픈 마음이 더욱 심하게 하느냐. 낮에 조금 자고 깨었더 니 현리 전의양이 편지를 가지고 갑자기 왔기에 즉시 보니 윤겸의 편지인데, 절일 이어서 술과 떡과 반찬을 갖추어 보냈기에 일일이 받았다. 그러나 입안의 종기가 곪아서 닿는 데마다 모두 아파서 다만 볼 뿐이요 먹지는 못하니 그림 속의 떡과 다 를 것이 없다. 탄식한들 무엇하랴. 즉시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가지고 온 현리 에게 주면서 탁주 2잔을 먹게 했다. 저녁에 박문자가 와서 보고 술 1양푼과 말린 천어 10여 마리를 가져왔다. 마을 사람 5. 6명이 역시 따라와서 보므로 모두 술 1 그릇과 떡 조금씩을 먹여 보냈다.
- 6일. 북쪽 이웃에 사는 박막동이 큰 눌어 1마리를 가져왔는데 앞 여울 낙전에서 잡은 것이라 한다. 오늘 온 집안이 어머니를 모시고 올 것이니 저녁 반찬으로 할 것이라 몹시 기쁘다. 즉시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온 집안이 어머님을 모시고 무사히 도착했는데 윤겸이 모시고 왔다. 그러나 일기가 몹시 덥고, 낮부터는 여러 번

큰 냇물을 건너고 산길이 험해서 어머님께서 기운이 몹시 번열이 있으시더니 여기 도착하신 후에 한동안 편안히 누워 계시더니 좀 편안해지셨다. 어머님은 교자를 타시고, 그 나머지는 모두 말을 타고 왔다. 김언보가 술 1항아리 · 떡 1행담을 가져왔다. 술 2그릇을 내다가 교군과 모시고 온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7일. 이웃에 사는 민시중·김억수가 각각 누른 콩 2두와 붉은 팥 2두씩을 가져왔는데 모두 종자로 쓸 것이다. 몹시 기쁘다. 전업이 술 1동이와 떡 1채반과 안주 등을 가지고 왔다. 아침 식사 후에 박언방의 송정(松亭)에 나가 앉았는데, 전 주부 김명세, 전 별감 김린 및 교생 허충·김애일 등이 와서 보았다. 전일에 김린·민시중이 나를 따라 부석사에 갔을 때, 그 절의 중 원민·태현 등과 내기 바둑을 두고 다음 모이기로 기약했는데 중들이 모두 졌기 때문에 청주 1항아리를 가져왔고, 김린도 또한 과실을 갖추어 가져왔으며, 민시중이 또 탁주 1항아리를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마침 입의 종기가 차도가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두 김은 큰 그릇으로 마시고 나머지는 아랫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안협 사람에게서 어망을 찾았다가 앞 못에서 눌어를 잡게 했으나 헛수고뿐 1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그저 술을 대접하고 파했다. 윤겸은 그길로 활을 쏘다가 또 사람과 말을 최 판관 응진에게 보내서 맞아다가 종일 이야기하고 점심을 대접해 보냈다. 최는 마침 북촌 10리 밖에 있는 첩의 집에 와 있기 때문이다.

8일. 윤겸은 이른 식사 후에 현으로 돌아갔다. 옥동역에 있는 진귀선이 와서 보았다. 그에게 그 역의 계집종 중금의 밭이 있는 곳 및 묵은 것을 갈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술과 떡을 대접해서 보냈다. 덕노 및 방자, 이웃 사람 정세당 등이 말 2필을 가지고 뽕을 따서 가득히 싣고 왔다.

9일. 언신이 와서 말하기를, 팥밭은 이미 다 갈았으니 오늘은 쉬고, 내일 비로소 콩밭을 간다고 한다. 팥은 씨 15두를 심어 4일 동안 갈아야 한다. 하지만 어찌 15 두까지야 되겠는가. 필경 거짓말일 것이다. 또 들으니 큰 사슴 1마리를 사로잡아 서 녹용을 쓸 만하다고 하니 기쁘다. 사냥을 시작한 지 반달이 되어도 잡지 못했는 데, 전에 윤겸이 여기에 와서 엄교하기를, "앞으로 10일 안에 잡지 못하면 마땅히 영원성(鶴原城) 방비로 벌하겠다" 하더니, 수일 안에 사슴을 잡았으니 호령을 엄 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겠다. 원적사중이 망혜 2켤레를 가지고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또 장은 2독을 담갔는데, 한 독에는 콩 2두를 삶아서 먼저 담갔고, 말장 12두에 소금 4두를 물에 타서 담갔다. 또 한 독은 비지 1항아리 반을 먼저 넣은 후에 말장 13두와 소금 4두를 물에 타서 담갔다. 또 항아리에는 말장 6두와 소금 2두를 물에 타서 담갔다. 또 남은 말장이 10여 두 있는데 독도 없고 소금도 또한 부족해서 담그지 못했으니 소금과 독을 얻은 후에 다 담글 작정이다.

10일. 무료해서 인아 및 두 어린 종과 함께 냇가를 천천히 걷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다. 저녁에 붕아가 서울에서 어제 현아에 도착했다가 오늘 왔는데, 그편에 편지를 보니 모두 잘 있고, 단오 제사도 역시 무사히 지냈는데, 윤해도 역시 와서 참사했다고 한다. 허찬이 남포로부터 서울로 돌아와서 그편에 자방의 편지를 보니 지금 잘 있고, 충아는 날로 잘 자란다고 하니 몹시 위로가 된다. 딸의 편지는 애처로운 구절이 많아서 다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더구나 자방의 큰딸이 지난 4월 9일에 죽었다 하니, 저와 나의 정회가 무엇이 다르리오.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백이 이제 붕아와 함께 왔는데, 윤겸이 사슴 고기를 보냈으므로 즉시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던 끝에 혹 굽고혹 삶아서 먹었다.

11일. 죽은 딸의 백일기(百日忌)이다. 집사람이 무당을 불러 이웃집에 자리를 차리고 징과 북을 치면서 굿을 했다. 분명히 그것이 허사인줄 알면서도 애통한 나머지자애의 정에 쫓겨서 그대로 허락하고 금치 않았다. 집사람도 역시 친히 가서 무당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돌아왔다. 이 고을의 품관 및 교생 등 15명이 모여서 술자리를 베풀고 우리 부자를 맞아다가 위로해 주었다. 이 면의 품관은 김명세·채세번·김린이요, 교생은 임충성·김애일·허충·권호고 등으로, 먼저 소주 1병, 병아리 1마리, 국수 1태반, 찹쌀 1두, 산자라 1개를 먼저 바치고, 북면의 품관은 채인언·권유년·최수영·김충서요, 교생은 채숭환·권호덕·이집 등으로서 청주 2병·백병 2행담·국수 1채반·닭 1마리·건어 1마리·계란 10개를 모두 이른 아침에 바치고 나서, 뒤에 동쪽 이웃 박언방의 송정에 잔치를 베풀었다. 붕질도 역시참석했다. 그러나 나는 입종기가 아직 다 났지 않은 데다가 또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시어서 마실 수가 없다. 이는 모두 좁쌀로 빚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골 인심이 순박하고 음식도 역시 이와 같으니, 가위 옛 풍속과 가깝고 후하다 하 겠다. 저들은 모두 먼저 취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정자에 가득하고, 혹 노래도 하고 혹 춤도 추면서 술을 마신다. 해가 기울어서 우리 부자는 조금 얼근해서 먼저 돌아 왔는데, 저들은 그대로 남은 술을 다 마시고 헤어졌다. 오늘부터 비로소 누에가 오 르기 시작했다. 춘금이를 시켜서 섶을 베어 오게 했다.

12일. 무료한 중에 중진 어미의 글을 보니 죽은 딸의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흘러 옷 깃에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세월이 흐르듯 하여 또 백 일이 지났으니 비통한 마음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지극하다. 죽은 자는 말할 것이 없고, 산 자도 또천 리 밖에 있어서 소식을 또한 얻어듣기 어려운데, 하물며 만나 보기를 바랄 수 있으랴. 윤함이 서쪽으로 간 지가 이제 여러 달이 되건만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하겠으니,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부자 형제가 같이 있지 못하니 비록 형세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생각하는 심정을 스스로 금할 수가 없다. 매양 다음 날에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까 생각된다.

13일. 현아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윤겸의 글을 보니 잘 있다고 했고, 백미 2두 · 직미 2두 · 녹두 1두 · 잣 1두 · 개암 5되 · 석이 2두 · 잡이 3되 · 간장 3되 · 감장 2두 · 쌀가루 1두 · 녹포 20조각 · 순채 4사발을 보냈다. 그러나 짐을 가지고 오는 자가 중로에 물을 건널 때 말이 넘어져서 짐을 자빠뜨렸기 때문에 모두 적셔 가지고 왔으니 한스럽다. 김백온의 종이 현아에 왔으므로 같이 와서 백온의 편지를 인아의 처에게 전했고, 처의 아우의 편지도 역시 왔다.

14일. 백온의 종은 관인과 함께 현으로 돌아갔다. 내일은 증조 기일이므로 찬을 갖추어 제시를 지내도록 했다. 다만 기름이 없어서 약과를 만들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15일. 새벽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아침 식사 후에 상하 마을 사람들을 불러 술과 떡을 대접했다. 전풍이 천어 대·중·소 도합 10여 마리를 가져왔는데 비단 비늘을 가진 빙어도 역시 그 속에 있다. 즉시 구워서 어머님께 바치니 몹시 기쁘다. 따로 술과 떡을 대접했다. 북쪽 마을에 사는 박영호가 장독 1개와 참버섯 4

덩어리를 가져왔기에 술과 떡을 대접했다. 김린이 와서 보기에 소주 2잔을 주었다. 민시중이 앞 여울에서 낚시질을 해서 30여 마리를 잡았는데, 인아도 역시 따라가서 낚시질을 했다. 저녁에 서쪽 이웃에 사는 조인홍이 앵두 1그릇을 가져왔는데 새 음식이므로 즉시 천신하고, 소주 1잔을 대접했다. 세 계집종 및 방자를 시켜조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이제 처음 매 주는 것이다.

16일. 네 사람을 시켜서 김억수의 집에 품을 팔도록 했다. 내일 모두 풀을 매게 하 기 위해서다. 아침에 김언보 · 민시중이 소리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집 뒷산 위에 모정을 짓고 활 쏘는 터도 수리하게 했다. 정자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동 남쪽은 넓은 들이요 서북쪽은 산이 버텨서 있는데. 긴 내가 가로질러 그 밑으로 내 려가고 있어 비록 찌는 듯이 더운 때라도 시원해서 막힐 것이 없겠으니. 이 근처의 경치 좋은 곳으로는 여기에 지날 곳이 없겠다. 윤겸이 여기에 온 뒤로 활을 쏘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정자를 짓고 또 활 쏘 는 터도 수리한 것이다. 또 현의 일수(日守) 김담(金淡)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말하 기를. "어제 오는 길에 두 범이 길가에 쭈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 길을 돌아서 오다가 마침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인가에서 자고 이제 비로소 오는 것"이라고 한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고, 다만 김담이 의지할 곳이 없 어 새 일수(日守)를 자원하므로 춘금과 바꾸어 여기에서 일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 나 춘금도 역시 여기에 있기를 원하고 가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담을 보니 건 장하기가 춘금보다 나아서 밭도 갈 만하겠기 때문에 바꿔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요새 밭을 맬 때이므로 춘금도 아직 머물러 두련다. 도끼 1, 호미 5자루도 또한 보 내왔다. 다만 들으니 어제 고을 안에 우박이 북쪽으로부터 와서 큰 것은 오리알만 했고, 큰 바람이 또 불어서 나무를 뽑고 넘어뜨려 보리가 태반이나 상했고, 채소 도 소금에 절인 것 같아서 다시 먹을 만한 것이 없는데, 고을 북쪽 산속은 더욱 심 하다고 한다. 지난해에 이곳에 우박의 재앙이 있더니 이제 또 이와 같으니 민생이 실로 탄식스럽다. 또 고한필이 와서 보기에 소주 1잔을 대접해 보냈다. 전일에 한 필이 좋은 밭 이틀갈이를 주기에 거기에 누른 콩 6두를 심었으나 값을 줄 것이 없 었는데,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다음 날에 만일 들어주기 어려운 일을 청하면 어찌할지 몹시 걱정스럽다. 그러나 이미 콩을 심었으니 지금은 다시 물리치기도 어려운 일이다. 집사람이 14일부터 소변을 자주 누어 그 수를 알지 못하겠고, 소변을 볼 때는 아파서 몹시 괴로워하며 겨우 두세 숟갈을 누고 그만두는데 빛이 또한 붉으며, 잠을 자도 눕지 못하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고, 음식이 달지 않은 지가 이제 나흘이 되었는데도 조금도 낫지 않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이 증세는 젊었을 때 얻은 것인데 약을 먹고 효험을 보았더니, 그 후로 때때로 이 증세가 생겨 수 3일이 지나면 그쳤는데, 이것이 10년 전의 일이었다. 윤겸이 이름난 의원에게 물어서 약을 지어 먹인 후로 다시 도지지 않더니 요새 냉방에서 거처했기 때문에 필경 이 때문에 다시 튀어나온 모양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낫지 않으니 뭐라 말할 수 없다. 저녁에 현리가 일이 있어 안협으로 가는 길에 윤겸의 편지가 또 왔는데 생붕어 5마리를 보내왔으므로 저녁 식사에 쪄서 같이 먹었다.

17일. 집안사람 5명, 품 산 사람 3명, 도합 8명이 조밭에 전일 매다 남은 곳을 매게했으나 또 끝내지 못했다. 어제 인아가 민시중과 함께 낚시질을 하여 80여 마리를 잡았기로 소금에 절였다가 25일 차례에 쓰려고 했더니, 오늘 김언보 · 민시중 · 김 억수 등이 백여 마리를 낚시질로 잡아 왔으므로 또 식혜를 담았다. 이른 아침에 현리가 돌아가므로 편지를 써 보냈다. 또 옥동역의 이상이 와서 보고 마른 천어 60 마리를 주므로 소주를 먹여 보냈다. 그러나 요구하는 일이 있었으나 응해 주기 어려우니 한스럽다. 어두운 뒤에 상하가 모두 아직 취침하기 전에 문밖의 꼬리가 흰개가 범에게 쫓기기에 물려간 줄 알았더니 한참 만에 돌아왔으니 어떻게 면했는지 모르겠으나 다행한 일이다. 필경 삼밭으로 피해 들어갔을 것이다.

18일. 언신을 시켜 소 3마리를 얻어서 근전리 중금의 밭을 갈고 콩을 심도록 온 집 안 다섯 사람이 점심을 싸 가지고 함께 가도록 했으니, 곧 사흘갈이 밭이다. 오전에 현리가 문안할 일로 달려 왔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윤겸이 제 어머니가 편지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문안한 것이다. 집사람의 병세는 전에 비하면 좀 나은 것 같으나 그래도 밤에는 몹시 괴로워, 소변을 볼 때는 문득 피가 조금씩 나오며 피가 나올 때에는 몹시 아파 빠지는 것 같아서 앉아서 아침을 거르고 잠시도 눕지 못하니, 이 때문에 근심스럽다. 채억복·이인방이 와서 보았는데, 억복

은 콩 2두, 인방을 녹두 5되와 병아리 1마리를 갖다 주었다. 소주 1잔씩을 먹여 보냈다. 억복은 전일에 벌 1통을 가져오고 이제 또 이와 같이 하니 미안하다. 민시중이 물고기 30여 마리를 낚아다가 주어서 저녁 식사 때 국을 끓여서 모두 함께 먹었다.

19일. 오늘 언신 등이 소 3마리로 간 받은 하루갈이에도 미치지 못하고 콩 씨는 3 두를 심었다니 이는 때가 늦어서 풀뿌리가 엉겨서 쉽게 갈지 못한 까닭이라 한다. 말이 없어 가 보지 못하니 한스럽다. 언신이 소 1마리로 어제 못다 간 곳을 갈았으나 그래도 끝내지 못하고 겨우 콩 2두를 심었으니 탄식스럽다. 소근전에 사는 김 광수가 와서 보고 새 나물과 햇보리쌀 4되를 주는데, 새 물건이어서 곧 천신한 뒤에 소주 1잔을 먹여 보냈다. 저녁에 개질지가 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조미 1석을 실어 보냈고, 내일 제사에 쓸 미나리 3단과 도라지 조금도 역시 보냈다. 김희묵이콩 3두를 갖다 주는데, 그는 곧 김린의 서제이다. 안협에 살면서 윤겸에게 가서 일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다. 역시 소주를 대접해 보냈다.

20일. 날이 밝을 때 인아와 제사를 지내고, 제사 후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을 불러 술과 떡을 대접했다. 북쪽 마을에 사는 박춘 숙질이 깨진 독을 각각 한 짐씩 져다준다. 내가 독이 없다는 말을 듣고 가져온 것이다. 춘(春)은 붉은 팥 2두를 또한 가져왔다.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또 오늘 언신이 김광수의 밭을 갈고 콩 1두 5되를 심었다. 광수가 어제 와서 보고 내가 경작하는 밭이 이래 묵어서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기 밭 2, 3일 갈이를 주어서 갈아먹으라 했기 때문이다. 오후에 현 사람이 인아의 말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덕노가 통천에서 와서, 철원 장을 보고 오느라고 가지고 있던 패랭이로 생선을 바꾸지 못하고 도로 가지고 왔다 한다. 윤겸이 얻은 어물을 실어 보냈고, 묵은 미역 5동ㆍ새 미역 9동ㆍ절인 고등어 15마리ㆍ반쯤 말린 고등어 5마리ㆍ말린 방어 4마리ㆍ생복 백 개ㆍ해삼 15개, 말린 고등어 50짝ㆍ가자미 5묶음을 보냈다. 이는 곧 통천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얻은 것이다. 말린 고등어와 묵은 미역 조금은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민시중 김억수가 물고기를 낚아 가져왔고 인아도 또한 그물로 30여 마리를 잡아 왔으므로 저녁 식사에 탕을 만들어 먹었다. 붕질이 인아를 따라서 동대 위에 앉았다가 무료

해서 바지를 벗어 이를 잡다가 마침 그 바지가 잘못하여 대 밑의 깊은 못에 떨어져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이것을 건지지 못하면 어머님께 몹시 꾸중을 들을 것이 두려워서 소리를 내어 울고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박언방을 시켜 긴 막대기로 건져 냈다.

21일. 언신이 또 김광수의 밭을 갈았으나 끝내지 못하고 콩 1두 5되를 심었다고 한다.

22일. 언신이 또 소 1마리로 어제 못다 간 밭을 갈고 콩 2두 5되와 팥 2두를 심었다 한다. 민시중과 전풍이 물고기 60여 마리를 낚아 왔으므로 저녁 식사 때 탕을만들어 어머님께 올리고 나머지는 내일 쓰려 한다. 박언수가 또 80여 마리를 가져왔기에 소주를 대접하고 미역을 주어 보냈다. 이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 말렸다가후일에 자반으로 먹을 계획이다.

23일. 언신이 와서 보고, 그 어머니가 보낸 적두 4두 3되를 무단히 갖다 주니, 이는 필시 그 아들이 내 부탁으로 관가에 부역을 나가지 않기 위하여 오래 여기에 있었던 것이니 미안하다. 그에게 고등어 1마리 · 미역 2묶음을 주어 그 모자가 나누어 먹게 했다. 두 계집종과 관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일 끝내지 못한 조밭을 매게 하여 끝냈다. 오후에 윤겸이 제 처와 함께 왔다. 내일이 어머님 생신이어서 시사를 지내려 하기 때문에 온 것이다. 백미 7두 · 좁쌀 5두를 가져오고, 콩떡 1행 담 · 찐 새끼 돼지 2마리와 소주 1병도 또한 가져왔다. 즉시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먹었다. 덕노가 또한 소금 2두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윤겸이 준 것으로서 보리로 바꿀 것이다. 안협에 사는 사람 셋이서 금린어 4마리를 가져왔는데 1마리는 몹시 커서 거의 한 자가 넘는다. 찹쌀과 차좁쌀 각각 5되를 또 가져왔다. 즉시 술 2 잔을 대접해 보냈다.

24일. 관인들로 하여금 술과 반찬을 갖추게 했다. 내일이 어머님 생신이므로 먼저 시사를 신주 앞에 지내려는 것이다. 전풍·박언방·박문자 등이 천어를 잡아다가 주므로 술을 대접했고, 문자에게는 미역 1동을 주었다. 언신이 또 천어를 가져왔 으므로 모두 쪼개서 말리게 했다. 김 주부 명세가 와서 보기에 술 2잔을 주었다.

25일, 새벽에 먼저 아버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죽전 숙부모께 제사를 드린

후에 죽은 딸에게 역시 지방을 써 붙이고 제사를 지냈다. 나이 겨우 15세에 네가 먼저 죽어서 나로 하여금 무궁한 애통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이 지극한 데에 이 르는가.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아침 늦은 후에 술과 떡을 내다가 먼저 데리고 온 아전들을 대접하고 다음으로 상하 마을 사람들 10여 명을 대접하는데, 마침 북면에 사는 최인원이 또한 왔기에 함께 대접했다. 또 조반 을 먹었으니, 손님이 온 때문이다. 또 김 별감 린이 왔기에 술과 떡을 대접했고, 원 적사 중이 또한 와서 보고, 겸해서 망혜 2켤레를 가져왔기에 역시 술과 떡을 대접 했다. 오후에 어머님을 위해서 술자리를 베품고 우리 내외 · 삼부자 · 두 며느리 · 딸이 벌려 앉아서 두 아들 및 큰 며느리가 나와 각각 수배(壽盃)를 올리고 파했다. 홀로 죽은 딸이 없으니 비통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저녁때가 되어 집사람 및 여자들이 간절히 동대를 보고 싶어 하기에 집사람은 교자를 타고 딴 여자들은 걸 어서 대에 올라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 마침 동풍이 순하지 않아서 도로 박언방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조금 있다가 풍세가 좀 자므로 집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고 여자 들은 냇가를 보고자 해서 인아와 함께 종들을 거느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그 맑고 깨끗한 것이 좋아서 한참 동안 놀면서 구경했다. 이때 임모(任母)는 잘못해서 치마 를 적시고, 인아의 처도 또 붉은 치마를 적셨으며, 둘째 딸도 잘못해서 버선이 물 에 빠져서 세 아이가 일시에 젖었으니 우습기만 하다. 이대로 돌아와서 현의 사람 이 돌아갈 때 최 판관에게 편지를 보내고 겸해서 떡과 과실도 보냈다.

26일. 윤겸이 안협에 갔다. 들으니 안협군수 유담이 병으로 앓는다고 해서 찾는다고 한다. 그 길에 저전(楮田) 유 집의 공진(拱辰)이 있는 곳에 들러서 만날 것이다. 김귀실이 와서 보고 상치를 주기에 술과 떡을 대접했다. 현에서 문안 온 사람이 새끼노루 3마리를 가지고 왔다. 민시중이 천어를 낚시질해 가져왔기에 쪼개서 말리게 했다. 저녁에 두 며느리와 딸을 데리고 뒷산 모정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올라갔다. 그 넓고 크다는 것을 듣고 모두 보고자 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들에나갔다는 말을 듣고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다. 언신은 소 2필을 얻어서 억수의 밭을 갈고 녹두 1두 2되를 심었다.

27일. 박문자 · 고한필이 와서 보았다. 문자는 햇보리쌀 1두, 한필은 병아리 1마리

와 새 버섯 1꿰미를 가져왔기에 소주를 대접하고, 미역 1묶음을 주었다. 또 집사람이 앞 냇물가가 기이하고 좋다는 말을 듣고 보기를 원하며 여러 여자들이 힘을 다하여 찬성하므로 먼저 민시중 등으로 하여금 차일과 장막을 치게 하고, 집사람은 교자를 타고 먼저 가고 나는 여자들을 데리고 걸어서 가서 종일 놀면서 구경하는데, 시중 등이 낚싯대를 갖다가 물고기를 낚아 와서 보리밥을 지어 점심을 먹는데 천어로 탕을 끓여 둘러앉아서 먹고 또 낚시질한 사람들도 대접했다. 저녁이 되어역시 걸어서 돌아왔다. 또 이인방·채억복 등이 와서 보는데, 인방은 생황이 1꿰미를 가져왔고 억복은 절병 1행담을 만들어 가져왔기에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술이 없어서 점심을 지어 대접해 보냈다. 생이는 구워 먹으니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저녁에 윤겸이 안변에서 돌아왔다. 또 집사람의 증세는 근일에는 나아 가지만아직 쾌차하지는 못하다. 다만 어머님께서 어제부터 서풍(署風)에 걸리고 이질을얻어 어제저녁에는 4번, 지난밤에는 2번, 오늘 오전에는 4번을 쏟으시더니 오후에는 나아가시니 기쁘다.

28일. 지난밤에 집사람이 꿈에 죽은 딸을 보았다 하여 아침에 몹시 울기를 마지않는다. 어제 냇가에 갔을 때 여러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갑자기 딸을 생각하게되어, 우리 내외가 반드시 명명(冥冥)한 속에서도 슬픈 감회가 들어 꿈에 보인 것일 것이니 슬픈 일이다. 늦은 후에 언신을 데리고 간 밭과 씨 뿌리는 곳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기장과 조밭은 이미 풀을 매 주었고, 콩은 이미 싹이 텄으며, 늦게 간곳은 비로소 싹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박문자의 밭은 산에 가까운 곳의 4, 5두둑은 싹이 드물게 났으니 필시 비둘기와 꿩이 쪼아 먹은 것이라, 한스럽다. 녹두는심은 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싹이 나지 않았다. 저녁에 덕노·소한 등이 북면에서 좁쌀을 싣고 돌아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모두 4석 2두이니 이것으로 두어달은 지탱하여 근심이 없을 것이다. 가지고 간 소금 12두로는 보리쌀을 사서 바치고 왔다고 하는데, 아직 수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금 1두에 보리쌀 3두씩 바쳤다고 한다. 미역 11묶음과 생마 3단도 또한 서로 약속하고 넣었다 한다. 절인 고등어 10마리와 꼬치 3두를 받아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겨우 2두였다. 권 좌수 유년이 답장을 보냈는데 목미 2두 ·눌어 1마리를 보냈다. 어머님의 이질은 오늘은 차

도가 있어 종일 변을 보지 않으니 기쁘다. 집사람도 요새 역시 나아 가지만 아직 아주 쾌하지는 못하다. 일기가 몹시 더우니 필시 비가 내리겠다. 요새 오래 가물어서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야흐로 급한데, 만일 한 바지기의 비를 얻는다면 삼농의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29일. 새벽부터 비가 내렸으나 아직 크게 내리지는 않는다. 나는 어제부터 기분이 좋지 않더니 속머리가 밤새 조금씩 아파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인아로 하여금 지내게 했더니 늦은 후에야 비로소 나았다. 윤겸은 제 처를 데리고 현으로 돌아갔다. 비록 비가 내릴 징조는 있으나 아직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말리는데도 억지로 돌아갔다. 아침 식사 전에 덕노로 하여금 외와 가지모를 옮겨 심도록 했다. 덕노도 역시 휴가를 얻어 윤겸을 따라갔다. 소한과 동반하여 통천(通川)에 가서 소금을 팔아서 생마를 바꾸어 겨울을 지낼 차비를 하게 했다. 이에 좁쌀 2두를 주어 고등어를 사다가 반찬을 하게 했다. 아침에 술과 떡을 내다가 현의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마을 안 모모(某某)에게도 주었다. 안협에 사는 사노 연수가 와서 보고, 금린어 1마리를 갖다 주는데 거의 반 자나 된다. 윤겸을 만나려다가 만나지 못했다. 연수란 자는 나이 80에 이르렀고 가계가 몹시 부자여서 근읍에서 제일인데 여기에서 5리 밖에서 산다. 소주를 대접했더니 마시지 못한다고 사양하고 겨우 조그만 잔으로 1잔을 마셨다. 오후에 비가 뿌렸으니, 실내의 일행이 현에 도착하기 전에 비를 만났을 것이다.

## 6월

1일. 오늘은 곧 초복이다. 더위가 몹시 심해서 앉고 눕는데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으니 걱정이다. 집사람이 떡을 만들어 죽은 딸의 넋에 제사 지냈으니 곧 초하루인 때문이다. 비통함을 어찌하랴. 종일 흐리고 때로 소나기가 크게 왔다. 어제 옮겨심은 오이와 가지가 모두 살 것 같기에 춘금이로 하여금 긴 나뭇가지로 다리를 놓아 주어 덩굴이 뻗을 길을 만들어 주었으니 만일 열매가 맺으면 오는 가을에 오이는 실컷 먹을 것 같다.

2일, 혹 개기도 하고, 혹 비도 내리니 전곡에는 흡족하겠다. 아침에 박막동이 금린

어 큰 것 1마리와 빙어 6마리를 가져왔기에 술과 떡을 대접하고 또 미역 1묶음을 주었다. 물고기는 아침 식사 때 탕을 만들어 먹으니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윤겸 이 현으로 돌아간 뒤에 아직 사람이 오지 않으니 반드시 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3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이르러 크게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멎었다. 그리고 종일 혹 비가 내리다가 혹 개기도 했다. 연4일 동안 개지 않으니 필시장마가 되어 오래 개지 않을 모양이다. 김언보가 서울에서 비로소 돌아왔는데 가지고 온 편지는 즉시 광노에게 전했으나 당장은 어제 현리가 봉해서 한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함께 와서 먼저 현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반드시 내일 사이에나 올 것이다. 또 언신을 불러서 미역 20꼭지를 주어 삼으로 바꿔 오도록 했다.

4일. 늦은 후에 개었다. 저녁에 현리가 문안하러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서울 편지도 역시 왔다. 언명의 편지와 남매(南妹)의 편지를 보니 모두 잘 있다고 한다. 윤해의 편지도 역시 왔기에 보니, 중국 군사가 율전 집 뒤를 빼앗아 들어왔기 때문에 온 집이 진촌으로 옮겨서 중국 군사가 도로 나간 후에 들어가려 했으나, 들으니 대군이 나온다 하므로 큰길가의 집은 필시 편안히 지낼 수 없겠기로 아직 정지하고 있다고 했다. 허찬도 역시 어제 현에 도착했으나 비로 인해서 즉시 오지 못한다고한다. 새끼노루 2마리를 보내왔고, 또 1마리는 민시중이 잡아 보낸 것이라 한다. 저녁 식사에 탕을 만들어 함께 먹었다. 작도와 도끼도 또한 만들어 보냈는데, 즉시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오후에 남풍이 크게 불고 검은 구름이 동북쪽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필시 큰비가 내릴 정조이니 걱정이다.

5일. 지난밤 새벽까지 바람이 그치지 않고 때로 비가 내리더니, 새벽에 이르자 큰비가 내려 아침 전에는 마치 들어붓는 것 같더니 늦은 후에 비로소 그쳤다. 나는걸어서 동대로 나가 물 구경을 하는데 냇물이 넘쳐흘러서 모래벌판이 모두 물에 문혔으니 앞으로 열흘 내에는 건너다니지 못할 것 같다. 아내의 소식은 피차에 전하기 어렵고 허찬도 역시 못한다. 전풍이 병아리 1마리를 가져왔는데, 집에서 기르는 것을 고양이가 물었다고 한다. 저녁 식사에 쪄서 먹었다.

**6일.** 지난밤 꿈에 자방이 보이니 이 무슨 까닭인가. 허찬은 돌아간 뒤로 소식이 끊어져서 피차의 안부를 묘연히 들을 수가 없으니 깊이 걱정스럽다. 또 꿈에 자미(이

빈)를 보니 완연히 옛날과 같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외로운 넋이 타향으로 슬프게 떠도는 모양이라, 슬프고 탄식스럽기 그지없다. 날이 개었으므로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집 앞의 깨밭을 매 주게 했더니 절반도 매지 못했다.

7일. 허찬이 현으로부터 처음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하고 새끼노루 1마리·소주 6병·오이 18개를 보내왔다. 허찬을 보고 남포 딸의 소식을 자세히 물었더니, 딸의 모양이 자못 파리한 빛이 있고 누렇게 되어 전만 못하다고 한다. 생각건대 필시 집일을 다스리기에 노심하는 것이 많은 까닭일 것이다. 불쌍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8일. 최 판관 중운(최응진)이 찾아왔기에 점심을 대접하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옷이 비에 젖어서 즉시 돌아갔다. 저녁에 현리가 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새끼노루 1마리·어린 닭 4마리·광어 1마리 반·앵두 1행담을 보내왔다. 노루는 꼭 어린 개와 같다.

9일. 답장을 써서 현리에게 주어 돌아가게 했다. 오후에 또 비가 내리더니 종일 개지 않는다.

10일. 지난밤에 새벽까지 비가 내려 잠시도 쉬지 않더니 아침이 되어도 오히려 이와 같아 종일 그치지 않는다. 냇물이 전일보다 갑절이나 넘쳐서 높은 언덕도 모두물에 묻혔으니 아내의 소식은 4,5일 내로는 서로 통하지 못할 것 같다. 보리밭도 매주지 못하겠으니 한스러움을 어찌하랴. 어제저녁에 새끼노루고기를 나무 그릇에 가득 담아서 냇물 흐르는 데 담가서 차게 했더니 밤비가 크게 내려서 모래 바닥에 모두 묻혀서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다. 만일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나,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서 건져 내면 필시 썩어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네 다리만 먹고 몸 전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11일. 지난밤 큰비가 아침까지 그치지 않다가 늦은 후에야 비로소 개었다. 이에 집 뒤 모정에 올라가 물 구경을 하다가 돌아왔다. 집사람도 역시 교자를 타고 두 딸을 데리고 높은데 올라가서 보았다.

12일. 어제가 중복이어서 요새 더위 견디기가 몹시 어렵다. 또 그저께 물에 담갔던 노루고기를 건져 보니 물이 차기 때문에 썩지는 않았으므로 아침 식사에 삶아 먹

었는데 맛이 좀 변했다.

13일. 언신, 김담을 시켜 보리받을 갈게 했는데 받이 멀리 10리 밖에 있어서 왕래하자면 반드시 해가 늦어져서 많이 갈지 못했을 것이니 한스럽다. 김린이 와서 보고 단행(丹杏) 및 가지를 가져왔기에 수반을 대접하고, 또 해설 2되를 주었다. 저녁에 현리가 왔기에 편지를 보니 윤겸이 내일 와서 본다고 하고, 새끼노루 2마리, 어린 꿩 2마리를 보내왔다. 오이 28개도 역시 보내왔다. 근일 어머님께 드릴 반찬이 없더니 며칠 동안은 쓰겠다.

14일. 새벽부터 소나기가 크게 오더니 아침이 되어 비로소 그쳤다. 답장을 써서 현리에게 주어 보냈다. 또 어제저녁에 수탉이 쾌에 올라 목을 빼고 네 번이나 크게 울었으니 이 무슨 상서로운 일인가. 지난봄 관아에 있을 때 수탉이 이틀 동안 밤에울어서 몹시 괴이하게 여겼더니 필경 윤겸이 과거에 급제했으나 다만 병이 낫지 않다가 심지어는 윤겸의 젖먹이 아이가 요절했으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다. 저녁에 윤겸이 비를 맞고 왔는데 백미 6두, 소주 등 물건을 가지고 왔다. 고한필이 참보리 1두 5되를 가져왔다.

15일. 속절이다. 관에서 상화병 1행담을 쪄 왔다. 이곳에서도 역시 토장수단(土醬水丹)과 포·식혜·탕·구이·과일 등을 갖추어 신주 앞에 차례를 지내고 상하가 같이 먹었다. 또 관인 및 마을 사람들 중에 와서 본 사람에게도 주었다. 마침 김명세·김린·허충이 와서 보기에 술과 떡을 대접하고 두 김으로 하여금 바둑을 두게하여 관을 벗고 놀았다. 또 김명세가 오이 40여 개, 김린이 30여 개, 김광헌이 30여 개를 가져왔다. 김린은 단행을 가져왔기에 차례에 썼다

**16일.** 일찍 식사를 하고 윤겸이 관청으로 돌아가는데 허찬도 역시 함께 돌아갔다. 들으니 광노 집사람이 근일 서울에 간다 하기에 아우 및 생원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다. 심었던 오이에서 오늘 비로소 30여 개를 땄다.

17일. 집사람이 먼저 있던 병이 비록 좀 나은 것 같으나 아직도 쾌차하지 못하여 밤중에 일어나 앉았을 때가 많고, 왼쪽 어깨가 시고 아픈 것이 아직도 낫지 않고 혹 아프기도 하고 혹 덜하기도 하여, 이 때문에 원기가 피곤하고 음식이 달지 않아 누울 생각을 할 때가 많아 이렇게 여러 날 가다 보니 점점 파리해진다. 그러나 산

골에 의원과 약이 없어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식사 후에 무료해서 어린 종을 데리고 조그만 말을 타고 여러 밭을 돌아보고 왔다. 그러나 근일에 동풍이 계속해 불더니 더욱 심하여 여러 곡식이 누렇게 시드는 곳이 많아, 만일근일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상하는 것이 많을 것이니 농사꾼들의 걱정이적지 않다고 한다.

18일. 춘금이가 말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목종 및 회를 실어 오기 때문이다. 또 언신으로 하여금 소 2마리를 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역시 회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오후에는 비가 내려 종일 그치지 않았다. 저녁에 민시중이 현에서 돌아와 윤겸의 편지를 보니 무사히 관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새끼노루 2마리 · 말린 은어 30두름 · 절인 고등어 10마리를 보내왔다. 노루 가죽 2개와 명주 5척도 역시 보냈다. 이는 곧 제 어머니 아픈 어깨를 싸 주기 위해서다.

19일. 밤새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아직 개지 않고, 늦은 후에도 혹 개었다가 혹비가 내려 종일 그치지 않으니 냇물이 또한 넘쳐서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 춘금이가 현에 들어갔는데 수일 이내에는 필시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니 걱정스럽다. 오후에 걸어서 동대로 나가 물 구경을 하다가 돌아왔다. 집사람의 어깨 아픈 것은 비록 전과 같지는 않으나 아직 쾌하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20일. 혹 비가 뿌리다가 혹 개기도 하여 종일 흐리다. 일기가 또한 몹시 더워서 비록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물 흐르듯이 나와서 스스로 견딜 수가 없다. 오후에 개기를 기다려 붕질을 데리고 냇가로 걸어 나가서 목욕하여 더위를 식히고 때를 썼으니 심신이 상쾌하다. 가위 몸이 가벼우니 구름 사이의 봉(鳳)이라 할 만하다. 춘금이가 오지 않으니 필시 물에 막힌 것이다.

21일. 어젯밤 내리던 비가 새벽이 되어도 그치지 않더니 아침이 되자 비가 물을 붓듯이 내리고 남풍이 또 크게 불다가 늦은 후에야 비로소 멎었다. 곡식은 다 쓰러지고 박과 오이 덩굴은 모두 말려서 떨어졌으니 바람의 사나움은 근년에 없던 변고이다. 장맛비가 열흘을 계속하고 지금에도 개지 않아서 백성들이 모두 호미를 껴안고 풀을 매지 못하여 첫 번도 매지 못한 자도 또한 많다. 조도 역시 비에 잠겨서 태반이 상했고 콩도 역시 이와 같아 풍년 들 희망은 이미 없어졌으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봄보리는 비로 인해서 아직 갈지 못했는데 절기는 이미 늦어서 오는 24일이 입추라, 그 외의 곡식도 만일 갈지 못하면 일찍 서리를 맞아 익지도 않을 것이니 더욱 탄식스럽다. 춘금이는 수일 내로는 필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2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또 큰 바람이 아침에는 크게 불다가 늦은 후에야 비로 소 멎었고, 오후에는 비도 개어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검은 구름이 동북쪽으로 달려들어 가고, 남풍이 계속 불어 쉬지 않으니 반드시 비가 오래 내릴 징조라, 걱정스럽다.

23일. 아침에 김언실 · 민시중이 일이 있어 현에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전하게 했다. 비가 개고 해가 나왔기에 계집종들을 시켜 깨밭을 매게 하여 마쳤다. 늦을 후에 춘금이가 와서 말하기를 2일에 떠나서 오다가 중로에 비에 막혀서 부석사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아침에야 간신히 건너서 왔는데 현의 사람과 같이 왔다고 한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도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보내 온 물건은, 마른 고등어 30마리 · 절인 고등어 10마리 · 가자미 15묶음 · 마른 잡어 25묶음 · 광어 5마리 · 대구 5마리 · 도미 3마리 · 쌍어 5마리 · 절인 황어 5마리 · 복피혜 10개 · 고등어식혜 1 항아리 · 마른 면어 1두 · 어린 꿩 4마리인데, 이는 곧 안변에서 가져온 것이라 한다. 다만 잡어 · 고등어는 오래 묵고 좀이 먹어 먹을 수가 없으나 농찬으로는 쓰겠으니 기쁘다. 덕노도 역시 와서 언신의 집에 있는데 물이 막혀 건너오지 못한다고한다. 보리씨 2석, 재 1집을 역시 실어 왔는데, 언신의 집에 두었다 한다.

24일. 이른 아침에 현리가 왔는데, 해주에 있는 윤함의 편지를 서울에서 보내와서 즉시 보낸 것이라 한다. 내용을 보니 윤함의 처자도 모두 잘 있으며, 지난 4월 5일에 득남했다고 하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새끼노루 · 말린 꿩 3마리 · 소주 5병 · 문어 4조각 · 해삼 · 홍합 조금씩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도로 보냈다. 그러나 현리가 중로(中路)에 병이 나서 간신히 물을 건너와서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갔으니 걱정스럽다. 꿀 2되도 또 가져왔다. 덕노가 오후에 비로소 물을 건너왔는데 지난달 초승에 휴가를 얻어 가지고 통천(通川)에 가서 고등어를 샀는데 비와물에 막혀서 이제 비로소 온 것이다. 갈 때 쌀 2두를 주어 보냈더니 고등어 30마리를 바꿔다가 준다. 또 언신이 보리 2석을 실어 왔다. 오는 가을에 환상곡으로 갚는

다는 것이다. 언신도 역시 6두를 주어 보냈으니 종자를 하기 위해서다. 이제 조보를 보니 이곳 도백이 포장(褒獎)의 장계를 올려 윤겸과 삼척군수 김권을 모두 칭찬해서 말하기를, "그 정사를 함에 있어 속리들이 아첨하여 백성들에게 잘 뵈는 일을하지 않고, 영을 내릴 때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습관을 하지 않으며, 구차하게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봉공하여 실지의 혜택을 백성에게 베풀어 안전과 백성들이 사모하고 사랑하여 백 가지 일이 잘 다스려진다"했다. 춘천부사 서인원·양양부사 이홍로도 모두 몹시 아름답다고 칭찬했고 평해군수 윤열은 또한 그 다음이었다.

25일. 소 2마리와 씨 뿌릴 사람 8명, 도합 10명으로 보리밭을 갈게 하고 보리 11두를 가져갔다. 일기가 몹시 더워 사람과 소가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씨를 다 뿌리지 못했다.

26일. 어제 낮에 한복이 뜻밖에 와서 유기 화로를 가지고 즉시 돌아가면서 말하기 를, 개성부 군량포 2필을 바치기 위해서 내일 싣고 간다고 하니 그렇겠다고 생각 된다. 오늘 새벽닭이 세 홰를 운 후에 강비(江婢)를 데리고 도망갔는데 그 즉시 이 를 알고 덕노 및 춘금이 · 김담과 이웃 사람 김억수 · 김풍 등을 시켜 말발굽 자국 을 따라 쫓게 했더니 반 식경쯤 되는 거리 숲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잡아 가지고 돌 아왔으니 몹시 밉고 분하다. 비단 우리 집종만 데리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허찬의 말도 또한 훔쳐 갔으니 더욱 몹시 밉다. 이에 족장을 대장(大杖)으로 7, 80여 대를 때리고 강비도 역시 50여 차례를 때렸다. 한복은 결박해서 덕노 · 춘금이로 하여 금 관청으로 잡아 가지고 가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법에 의하여 형벌로 다스리도 록 편지를 써 보냈다. 또 허찬의 말은 종을 팔아서 산 것으로서, 한복을 주어 판다 는 것을, 나는 일찍부터 한복이 불순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하며, 필경은 말을 훔쳐 가지고 갈 것이라고 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않더니 이제 과연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 사람이 잡혀 오면서도 조금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 잡아오는 종들을 보고 말하기를. "만일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다음날 마땅히 중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 했다니 만일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 한복을 쫓 아가 찾는 일로 해서 보리밭 일을 오늘도 끝내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27일. 아침에 김언보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편지를 보니 아내는 편안하다고 했고 생꿩 2마리를 보냈는데, 하나는 어린 꿩이다. 외 26개도 역시 보냈다. 또 전업이 삼 4묶음을 가져왔고, 그 아들과 두 사위도 역시 각각 2묶음씩을 가져왔다. 또 조 인손도 5묶음을 가져왔기에 각각 건어를 주어 보냈다. 김언보의 2묶음은 그 아내 를 시켜 가져왔다. 또 김 주부 명세가 와서 보고 신 배와 외를 가져왔기에 소주와 수반을 대접하고 건어 1묶음을 주었다. 또 원적사의 중 학인 · 영윤이 와서 보고 망 혜 3켤레와 외 20여 개를 가져왔으므로 수반을 대접했다. 저녁에 덕노 · 춘금이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의 편지에 의하면 한복은 그 일이 있기 수일 전에 갑자기 나쁜 병이 생겨 몹시 중하자. 관인들이 어른 아이 없이 모두 싫어하고 미워해서 멀 리 떠나가고 여기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에 허찬을 속여 말하기를 남면에 가 서 이 말로 좋은 소를 바꿔 오겠다고 하는 것을 허찬은 속을까 두려워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말을 끌고 나갔으나 허찬은 그 도망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시 나 돌아올까 바랐으나, 이튿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 다. 이에 비록 쫓아가려 했으나 하룻밤이 지난 후여서 반드시 찾지 못할 것이라 하 여 바야흐로 서로 보고 후회할 즈음에 잡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쾌하게 여 겨 혹시 도망할까 두려워서 다시 족장을 때려서 가두었다는 것이다. 대개 이 사람 은 성질이 몹시 불순하여 여기에 온 후로 대소 하인들과 다투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욕설을 많이 하여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기 때문에 지난밤에도 단단히 가두고 칼 과 착고를 단단히 씌웠더니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 그 죽은 것은 족히 아까울 것이 없으나 다만 내 집에 온 지가 이제 4년이 되었는데 원래 죽을죄가 아닌데도 갑자 기 죽었으니 심회가 자못 불편하여 마치 더러운 물건을 삼킨 것 같아 밤새 잠을 자 지 못했다. 오늘 보리는 다 갈았는데, 겨우 이틀갈이 밭에 씨 15두를 뿌렸다고 하 니 만일 훔쳐 쓴 것이 아니면 반드시 너무 뿌려서 싹이 뵈면 끝내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또한 많지 않다고 한다. 집에 농사일을 아는 노비가 없고 다만 언신 만 믿는데 언신도 지금은 역시 깊이 터득했다. 탄식하면 무엇하랴.

28일. 삼을 팔아 오도록 김담으로 하여금 소금 3두와 고등어 27마리를 가지고 이 협 땅으로 가게 했다. 요새 일기가 몹시 더워서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는데 이 때

문에 어머님께서 식사를 아주 감하시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오후에 붕아를 데리고 냇가로 가서 몸을 씻었더니 심신이 시원하고 쾌하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더위가 쪄서 도로 고생할 것이니 탄식스럽다.

**29일.** 관노 난수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는 곧 마전 사람이다. 참외 20여 개를 가지고 왔다.

그믐날. 언신이 관의 둔전을 갈았으나 오후에 비가 크게 내려서 마치지 못했다. 저녁에 현리가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상화병 1행담과 산꿩 1마리를 보내왔다. 우중에 무료해서 처자들과 한 방에 둘러앉아 먹을 것을 생각하는데 이 음식이 바로 그때에 왔으므로 즉시 어머님께 올리고 나머지는 상하들과 함께 먹었다. 어머님께서도 역시 이 떡을 생각한 지가 오래여서 즉시 5개를 드렸으니 몹시 기쁘다. 언신이 검은콩 4두를 가져왔기에 온 사람에게 즉시 답장을 써 주어 보냈다.

## 7월

1일. 박언방이 현에 들어간다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채억복이 연계(軟鷄)(영계) 1마리를 가져왔다. 들으니 그 허리 밑에 단독(丹毒)이 났다기에 문어 1조각을 주어 보내서 물에 담갔다가 마시도록 했다. 속방(俗方)에 이것으로 단독을 고친다고 하기 때문이다. 원적사 중이 조그만 독 1개를 지고 왔다. 전일에 장을 담그기 위해서 빌려간 것이다. 박문자가 햇피 3두를 그 아들을 시켜 가져왔기에 건어 1묶음을 주었다. 김억수의 아우가 팥 1두를 가져왔기에 또 건어 5마리로 갚았다. 관청의 둔전을 다 갈고 보리 5두 3되를 뿌렸다. 그 나머지에는 무를 갈았다. 그러나 무를 갈다가 눌비가 자빠져서 크게 다쳐 행보를 하지 못하고 발목이 크게 부어서 요새는 풀을 매지 못하겠으니 걱정스럽다. 또 꿩 반 조각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냇물에 담가 식혀서 오늘 어머님께 드리려 했으나 남에게 도둑맞았으니 몹시 밉살스럽다. 전에도 여러 개물에 담갔어도 도둑맞은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와 같았으니 이는 근처 사람이 한 일은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을 안 어린이들이 훔쳐다 먹은 것이니 몹시 밉다. 근일에 더위가 몹시 사나워서 비단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려고 어둡고 캄캄할 때. 새벽이나 저녁으로 모기떼가 모여들

어 수족을 조금 내 놓으면 문득 물어뜯으니 아프고 가려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것이 좋기가 되어 상하가 모두 걱정을 겪는데 나의 두 발도 또한 이와 같으니 민망 스럽다.

2일. 이 면의 위관이 와서 보고 꿀 2되를 가져왔기에 왜선 1자루를 주었다. 그러나 술이 없어서 대접하지 못하니 한스럽다. 저녁에 허찬이 왔기에 윤겸의 글을 보니 마땅히 5,6일 사이에 와서 근친하겠다고 하고,백미 5두·찹쌀 3되·감장 1두·석이 1두·밀가루 2두·꿀 2되·참기름 6홉·석 1 되·소주 5되·외 60개·면 5단·잣 1되 5홉·호두알 1되 5홉을 실어 보냈다. 내일이 할머님 제사여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이 때문에 제수로 보낸 것이다. 그러나 관에 참기름이 없어서사람을 마전으로 보냈으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약과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때문에 만들지 못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박막동이 외 30여 개와 가지 6개를 가져왔기에 즉시 천신했다.

3일. 날이 밝을 무렵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나는 발에 종기가 나서 겨우 절룩거리면서 행사를 했으니 미안스럽다. 덕노와 소한 및 언신의 집사람이 말 3필을 가지고 목전으로 갔으니 곧 전일에 소금 갖다 둔 곳에서 보리를 실어 오는 일 때문이다. 나는 오후부터 더위를 먹어 속머리가 조금 아프고 기분이 몹시 불편하여, 왼쪽 발에 모기 물린 곳을 긁어서 흠이 생겨서 이 때문에 몹시 부어서 행보하기가 시고 아프니 걱정스럽다. 평강에 포목 1필을 보내서 붕아의 홑옷과 두루마기를 만들어 오게 했다. 더운 때에 오래 입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얻어서 보낸 것이다. 다만 거칠고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다. 아침에 계집종 4명을 시켜서 보리밭의 풀을 매게 하고 콩밭으로 옮겨서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4일. 또 네 사람을 시켜 박문자의 밭을 매어 끝내고, 한필의 밭으로 옮겨 가서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요새는 밤기운이 서늘하여 서늘한 바람이 때로 불어와서 아침저녁으로는 겹옷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고, 심신이 상쾌하니 가위 가을바람에 병이 소복되려 한다는 것이다. 김담이 돌아왔는데 삼 10단을 사 왔으나 그 값을 따지면 많이 부족하다. 또 가져온 삼이 비록 10단이라고 하지만 한 묶음의 수가반 주먹도 못되니 실제로는 6, 7단 만도 못하니 밉살스럽다. 발의 종기는 여전히

낫지 않으니 민망스럽다. 요새 무료해서 〈계사갑오일기(癸已甲午日記)〉를 보니, 그 사이에 유리(流離)하고 병을 앓고 기한(飢寒)에 고생한 모습을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슬하의 7남매가 모두 무고히 살아 있으니 비록 때로 먹기 어려운 탄식이 있어도 비통하고 마음 상하는 마음은 없다. 이곳 협중으로 들어온 후로는 양식과 찬을 계속해 쓰고 또 아름다운 맛도 얻을 수 있어 어머님을 보양하고 아랫사람들도 길러 빠지는 때가 없으니 가히 근심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제는 매양 가신(佳辰)에 좋은 음식을 당하면 문득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이는 다만 막내딸이 먼저 죽었기 때문이다. 갑오 봄과 여름에 바야흐로 굶주려 곤궁한 중에도 길이막내딸과 추자(楸子)놀이를 하면서 무료한 회포를 보냈더니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 애통함이 더욱 지극하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네 어찌 나를 버리고 먼저 가서 나로 하여금 끝없는 비통이 있게 하느냐. 슬프다. 슬프다.

5일. 박언방이 단내 1두를 가지고 왔기에 추로 1잔을 대접했다. 또 네 명의 계집종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매게 하여 끝내고, 녹두밭으로 옮겨 매게 했다. 북쪽 마을에 사는 박영호가 햇좁쌀 5되를 가지고 왔기에 추로 1잔을 대접하고고등어 1마리를 주었다. 서쪽 이웃에 사는 무당이 햇기장쌀 2되를 역시 가져왔기에 소주 1잔을 대접했다. 또 지장감고와 단내 1주머니를 가져왔으나 줄 물건이 없어서 그대로 보냈으니 한스럽다. 현리 김응경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편지를 보니 내일 와서 근친한다고 하고, 꿩 2마리, 닭 2마리를 얼음에 채워서 보냈다. 요새괴로운 더위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혓바늘이 생겨 음식 드시는 것이 전혀 감해졌고, 또 맛을 도울 것이 없어서 바야흐로 민망할 때 마침 가져왔으므로 즉시 흰죽을 쑤어 구운 꿩 다리와 함께 드리니 몹시 기쁘다. 관의 힘이 아니면 이와 같은 때에 꿩고기를 얻어먹는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또 이제 조보를 보니 유정(劉綎)이 승진되어 제독이 되어 군사 2만 5천여 명을 거느리고 오래지 않아 올 것이요,파귀(頗貴)는 참장으로서 2천 5백 명을 거느리고 6월 12일에 요동에 도착했으며,파새(擺賽)는 군사 2천 5백 명을 거느리고 9일에 압록강을 지나갔다고 의주부윤이 장계를 올렸다고 한다. 마귀(麻貴)³ 도독은 군사 6천, 달자(撻子) 1천을 거느리

3 마귀(麻貴): 중국 명나라 신종 때의 장군. 정유재란 때 권율과 함께 도산성에서 싸웠지만 일본군에게

고 이달 27일에 개성부에 도착하여 이 2일에 서울로 들어온다고 한다. 중국 여러 장수가 대군을 거느리고 오니, 이는 필시 흉적들이 오래도록 변경을 점령하고 있어 우리의 허술함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소탕할 계획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식이 극히 어려운데 조정에서 어찌 준비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초야에 있는 노생(老生)이 어찌 나랏일을 간섭하겠는가. 그러나 매양 국가의 대사를 생각하니 근심스럽고 분해서 탄식이 난다. 하물며 큰 원수를 갚지 못하고 종묘 사직은 망해 버리고 민생의 괴로움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심하다. 몸이 골짜기 속에 있어 캄캄한 방의 근심이 잠시도 마음속에서 늦추어지지 않는다. 또 더구나 80세의 늙은 어머니가 방에 계시고 병든 아내가 길이 신음 속에 있으니, 국가가 평정된 뒤에라야 우리 집도 역시 편안할 것인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미리 걱정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만일 남쪽 고을에 있으면 중국 군사가왕래하는 통에 반드시 소요스러운 걱정이 있을 것인데 이 산골 속에 와 있어 남쪽일을 묘연히 들어 알지 못하여 마치 타국에 있는 것과 같으니 비록 군사가 몰려온 대도 놀라 움직이는 마음이 반드시 남쪽 사람에게 뒤질 것이니 이는 다행한 일이다

6일. 집안에 있는 네 사람을 들로 보내어 언신의 밭을 매게 했다. 내일 우리 밭을 매려고 해서이다. 아침에 옥동역의 계집종 중금이 작인 김학룡과 함께 이른 기장 3두 5되를 가지고 왔다. 동쪽 마을에 사는 채억복이 와서 보고 꿀 1항아리를 가져왔는데, 양이 2되는 된다. 썩은 배도 1행담을 가져왔기에 소주 1잔을 대접하고 소금 1되와 말린 은어 1두름을 주었다. 이 사람이 첫여름에 벌 1통을 가져오더니 그뒤로 새 물건을 얻으면 문득 가져오건만 갚을 것이 없어서 한편 미안하다. 김언보가 목미 1두, 능금 1행담을 가져왔다. 아침 식사를 겨우 끝냈을 때 윤겸이 왔다. 현으로부터 일찍 떠나 덥기 전에 달려온 것이다. 아침 식사는 향비가 병을 칭탁하고 일어나지 않아서 밥 짓는 것이 역시 늦은 때문이기도 하다. 쌀 2두 '녹포 10조각'와 '화 등 물건을 가지고 왔다. 둘러앉아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최 판관 응진이 팥 1두를 보냈고 겸해서 글을 보냈다.

패하여 후퇴하였다.

7일. 집안에 있는 세 사람을 시켜서 김광헌의 공밭을 매고. 겸해서 언신의 품 두 사 람을 얻어서 함께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춘금은 이른 아침에 양식과 찬을 가 지고 돌아갔다. 멀리 5리 밖에 있어서 왕래할 때 반드시 더디겠기 때문에 언신의 집에서 자고 밭을 매게 했다. 지난밤 꿈에 죽은 딸을 보았는데 깨고 나니 몹시 비 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즉시 일어나 앉아서 집사람과 함께 꿈속 일을 이야기하 노라니 슬퍼서 울기를 마지못했다. 이에 그 평일에 놀던 일과 유리하는 중에 기한 으로 고초를 겪던 일, 심지어 큰 병을 앓을 때 아픔을 참지 못하던 형상과 그 비참 하던 일을 생각하니 그 뚜렷한 면목이 슬픈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 가슴과 창자 가 쪼개지는 것 같다. 집사람은 소리를 내어 울어서 닭이 세 홰를 울어도 그치지 않으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그 애가 죽은 뒤로 꿈속에서라도 보기를 원했으나 되 지 않더니 오늘 밤에 내 꿈에 보였다. 그러나 희미하고 분명치 않으니, 알지 못하 거니와 정혼(結塊)이 흩어지고 안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슬프고 슬프다. 조 금 있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조목천 형연이 보이니 이 무슨 징조인가. 멀리 남쪽 시골에 있어서 소식을 알지 못한 지가 이제 수년이 되었는데 또한 잘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또 오늘은 가절이어서 관에서 채화(菜花)와 꿩ㆍ닭 각각 2 마리씩을 보냈으므로 즉시 탕을 만들고 구웠다. 또 이곳에서 목말로 전병을 만들 어 먼저 신주에 올리고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어머님은 요새 입술에 종기 가 나고 또 앞니가 셋이나 흔들려 혀 위가 서로 부딪쳐서 쑤시고 아파서 식사를 드 시지 못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선아 · 붕질도 역시 모기에게 물려서 조그만 종기가 생겨 혀밑이 모두 그러해서 역시 이 때문에 음식이 달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또 박 막동이 단내를 가져왔고. 박영호는 두부를 가져왔기에 모두 술과 떡을 대접하여 보냈다. 윤겸이 오후에 인아ㆍ허찬을 데리고 원적사에 양식과 반찬을 가지고 가서 자고 돌아오려 했다. 저녁에 덕노와 소한이 북쪽에서 돌아왔는데, 전일 소금을 팔 아 산 보리쌀 27두 · 참보리 7두 및 관에서 저축해 둔 좁쌀 2석 중에서 1석을 실어 왔다. 1석은 덕노와 소한이 콩으로 바꾸어 나누어 썼는데, 소한은 좁쌀 10두의 값 으로 콩 20두를 가져왔고. 덕노는 좁쌀 5두를 쓰고 콩 6두를 가져왔다. 또 북면에 사는 교생 권호덕이 편지를 보내고 가지 13개와 병아리 2수를 가져왔다.

8일. 곧 아버님 생신이어서, 술과 떡, 탕, 구이를 마련하여 차례를 지냈다. 윤겸은 원적사에서 비로소 돌아왔다. 김 주부 명세 및 김린이 찾아왔기에 술과 떡을 대접했다. 김린은 전날 김 주부와 술내기 바둑을 두어 계속 세 판을 졌기 때문에 오늘 소주 1병과 구운 닭과 외를 가지고 와서 함께 먹었다. 부석사 중 설운이 와서 보고 외 50여 개를 주므로 술과 떡을 대접했다. 안협 땅에 사는 연수가 와서 보고 벼 1석·콩 10두·중노루 1마리·꿩 4마리를 가져왔기로 각각 술과 식사를 대접했다. 연수와 덕손은 모두 사노로서 부자로 사는 자들이다. 연수는 고 참판 유희림의 종이요, 덕손은 판서 정창연의 종으로서 난리 후에 가계가 모두 없어졌고, 연수는 전과 같다고 한다.

9일. 윤겸은 이른 식사 후에 현으로 돌아갔는데, 허찬도 역시 따라갔고, 덕노와 춘금이는 말 2필을 가지고 올라가서 아우의 식구를 모셔 오게 했다. 덕노는 스스로삼 40여 단을 사 가지고 싣고 가서 서울에서 포목으로 바꿔다가 목화를 살 자본을삼는단다. 나도 또한 삼 12단을 주어 포목 1필 반과 바꾸어 역시 목화를 바꿀 밑천을 삼을 계획이다. 또 남포ㆍ해주ㆍ율전 세 곳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 주어 전하게 했다. 또 새끼노루 다리 2개와 어깨뼈 2개, 새끼 꿩 2마리를 그릇에 담아 물에 잠가서 식히게 했는데, 오늘 낮에 담았던 그릇까지 모두 잃었으므로 처음에는 남에게 도둑맞았나 의심했더니 마침 꿩 1마리의 살을 모두 벗겨 먹고 뼈를 버려 물에뜬 것을 보니 이는 필시 수달의 짓이라 마을 사람들의 말도 역시 이와 같았다. 전일 종들이 물에서 목욕할 때 깊은 물속에서 잠겼다 하면서 노는 것을 보았다 하니, 이는 분명 수달이다. 비록 서운하지만 어찌하랴. 이것은 근일 어머님께 드리려고했던 것인데 수달에게 도둑을 맞아서 다시 맛있는 음식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그전에 꿩의 두 다리를 또한 잃어서 남에게 도둑맞았나 의심했더니 이제 이와 같으니 전일에 잃은 것도 역시 수달의 소위였던 것이다.

10일. 김억수의 집에서 술과 떡을 갖추어 가져왔으니, 곧 그 아버지의 죽은 날이어서 제사 지낸 뒤에 보내 온 것이다. 또 마을 사람들을 청해다가 술자리를 베풀고 취한 뒤에 서로 노래를 부르고 떠들어대니 상인(常人)의 일이라도 가소로운 일이다. 고한필이 외 30여 개, 박춘이 외 20여 개와 어린 꿩 1마리를 가져왔기에 술

을 대접해 보냈다. 어제 잃었던 노루와 꿩고기를 담은 그릇은 오늘 아침에 깊은 못에서 떠올라서 앞 여울로 흘러내려 갔는데 건져 보니 다만 다리 하나만 없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있으니, 필시 물에 잠글 때 끈으로 매지 않아서 저절로 깊은 물속으로 잠겨 들어갔다가 비로소 떠올라 나온 것이니, 수달의 소위라고 한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저녁에 현에서 문안사(問安使)가 왔는데 편지를 보니 어제 잘 돌아갔다고 하고, 백미 2두 · 말장 2두 · 소금 3두 · 새끼 꿩 3마리 · 소주 4병 · 자리 1입을보내왔다. 자리는 즉시 인아의 처에게 주었다. 김담으로 하여금 무밭을 갈게 하고세 계집종을 시켜서 씨 3되를 심게 했다.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크게 내리다가 밤중이 지나도 그치지 않는다. 현 사람에게는 편지를 써 주어 보냈다.

11일.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고, 때로 비가 뿌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밭을 매지 못했다. 풀무쟁이 조원희가 관청 명령으로 농기를 만들어 가져오고, 또 목미 3두를 가져왔기에 소주를 대접하고, 또 고등어 1마리를 주었다. 우리가 심은 밭에서 가지 5개를 처음 땄다.

13일. 품 9명을 얻고 집의 노비 5명과 도합 14명을 시켜 김광수의 콩밭을 맸다. 밭이 10리 밖에 있기 때문에 밝기 전에 아침을 먹고 각각 점심을 싸 가지고 갔다. 그 밭을 다 맨 후에 중금의 콩밭을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계집종들은 양식을 싸 가지고 가서 언신의 집에서 자고 내일 마땅히 다 맨 후에 돌아올 것이다.

14일. 민시중이 현에서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고, 어린 꿩 3마리를 보냈다. 시중은 또 꿀 2되 5홉을 가져왔다. 어머님의 입병은 아직 쾌차하지 않아서 식사하시는 것이 줄었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처럼 심하지는 않다. 서울 소식을 들으니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리·진수·어사의세 아문을 설치하는데, 진수아문은 마 제독 귀가 이미 서울에 도착했고, 안찰어사소(蕭)라는 자는 아직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금명간 들어올 것이며, 경리 양(楊)이란 자는 이미 요양에 도착했다고 한다. 황제의 칙서에 말하기를, 한관(漢官)을 섞어서 한정(漢政)으로 다스린다고 했단다. 중국 군사가 와서 서울에 가득하여 국가의 재정이 이미 다 말랐다고 하니, 국가에서 끝내 어찌 대응할지 모르겠으니 근심스럽고 탄식스러워한들 무엇하라. 중국 아문(衙門)을 설치하고 중국 관원

을 제수하며, 또 중국 정치로 다스린다면 우리나라의 일은 중국 사람의 손으로 조종되고 우리 임금은 헛자리만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니 그 종말이 어찌될지 모르겠다. 이로부터 국가에 또 많은 일이 더해질 것인데, 민정(民情)의 곤수(困瘦)함이 심하니 탄식스러움이 더욱 심하다. 또 심 부사 유경이 또한 마 제독에게 잡혀서 이미서울에 왔다고 하니 이는 필시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황신(黃愼)이 또한 돌아와서 전라도 순찰사에 제수되었다 한다. 비변사에서 말하기를, 심사(沈使)를 비록 잡았으나 박하게 대접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 아직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접사를 삼을 것이라 한다. 오늘 어제 매다가 못다 맨 밭을 매어 끝내고, 옮겨 가서 언신의 집 앞의 조밭을 매어 끝냈다. 눌은비는 병을 칭탁하고 먼저 왔으니 밉살스럽다. 중금의 밭은 김현복과 병작하여 기장 6두를 나누어 왔다. 언신이마태 2두를 가져왔고, 김귀실의 아내는 썩은 배 두어 말을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하고 생선을 주었다.

15일. 오늘은 곧 속절이다. 떡 및 실과·구이·탕을 갖추어 신주께 차례를 지내고, 또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초경 후에 관인이 왔는데, 이때 마침 나는 한잠을 자고 났는데 앞마루에 달빛이 들어와 밝기가 낮과 같으므로 집 사람과 함께 일어나 앉아 이야기하는데 관인이 왔다. 요새처럼 나쁜 짐승이 많이나오는 곳에 산골 속 사람이 없는 곳을 관인이 아니면 어찌 감히 때를 잃지 않고 오겠는가? 그러나 물려갈 염려가 있으니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일렀다. 전병 1행 담·새끼 꿩 2마리·수박 2개·가지 21개를 가져왔다. 새끼 꿩은 계속해서 얻어 먹으니 역시 관의 힘을 알겠다. 새끼노루는 이제 이미 컸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

16일. 관인에게 답장을 써 주어 보냈다. 두 계집종은 품을 갚기 위하여 억수의 밭을 맸다. 또 소근전의 보리는 씨를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싹이 몹시 많이 나서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누렇게 키가 짧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이곳에 뿌린 보리는 벌레가 잘라 먹어서 역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17일, 지난밤 큰비가 새벽이 되도록 그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앞내가 넘쳐

서 수일 사이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하겠다. 박언방이 낮에 현에서 왔는데, 어제 내건너 집에 와서 잤기 때문에 온 것이라 한다. 윤겸의 글을 보니 잘 있다고 했고, 노루고기와 창자를 모두 얼음에 재워서 보내고 소금 1두도 또 보냈다. 또 덕노가 간 것은 그 이정(里程)을 따져 보니 그저께쯤 서울에 도착했을 것이니 이제 이틀을 묵는 셈이니, 만일 3, 4일 동안 서울에 머무른다면 아우의 집식구는 마땅히 22, 3일 사이에 올 것이다.

18일. 집안에 있는 계집종 4명과 품 산 사람 3명을 합쳐 도합 7명으로 하여금 억수 네 녹두밭을 매게 하여 끝냈으니, 여러 곳의 씨 뿌린 밭은 오늘에야 비로소 다 맨 셈이고. 이후로는 다시 더 멜 곳이 없다. 다만 무밭 반일갈이는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매지 않았다. 오후에 중 법련이 와서 보고 둥근 부채 1자루와 해의 (海衣)(김) 두어 톳을 가져왔다. 우연히 서로 만나니 몹시 기쁘고 위로가 된다. 법 련은 원래 봉선사에 있었는데 윤겸이 참봉이었을 때 가장 서로 가깝게 사귀었고. 난리 후에 내 집이 임천에 있을 때, 지난 을미 가을에 마침 청양에 왔다가 소식을 듣고 그 상좌를 보내서 소식을 묻고 또 한 번은 친히 오기도 하여 홍시와 목통 열 매를 가져와서 온 집안이 함께 먹은 일도 있어 자못 은근한 뜻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 후 지난해 가을에 판사의 책임을 맡아 홍산 무량사에 와서 있었는데. 역적의 입 에서 모함이 나와서 옥에 잡아 갇혔으나 실상이 애매해서 오래지 않아 석방되어서 그 뒤로 파사성에 있으면서 그 도총섭 의엄과 일을 같이 했다. 이제 그곳으로부터 찾아왔으니 가위 정이 있다 하겠다. 이에 수반을 대접하고 또 저녁밥을 대접한 다 음 저녁내 함께 바둑을 두다가 같이 잤다. 또 억지로 수 3일이라도 만류할 계획이 었는데 장고산의 중 옥청 및 부석사의 수승 법희가 법련과 함께 왔었는데. 대사는 그저께 부석사로 와서 잤으나 큰비로 인해서 물을 건너지 못하고 수일 동안 머물 다가 이제 비로소 두 중과 같이 온 것이라 하면서, 두 중이 망혜 2켤레와 썩은 배 1 그릇을 가져왔으므로 역시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19일. 집사람이 꿈에 죽은 딸을 보았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아서 깨고 나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나도 또한 일어나 앉아 꿈속의 일을 말하면서 서로 마주 보고 슬피 울기를 마지않아 닭이 세 홰를 운 뒤에야 자리에 들었다. 아침 식사

후에 법련과 함께 동대에 올라 종일 바둑을 두는데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법련의 바둑은 비록 묘수는 없으나 수품이 몹시 익어서 한 수도 잘못 두는 것이 없으니 곧 중들 중의 걸출이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와서 편지를 보니 잘 있다 했고, 도사 임진이 군기를 조사할 일로 금명간 현에 오근 것이므로 지나간 뒤에 22, 3일 사이에 와서 근친하겠다고 한다. 노루 다리와 갈비·노루 머리 삶은 것·소주 3되 등의 물건을 보내왔다. 소주가 떨어져서 수일 동안 먹지 못하던 터에 즉시 법련과 각각 1잔씩을 마시고 두부를 내다가 법련에게 대접했다.

20일. 아침에 법련대사와 바둑을 두었는데, 아침 식사 후 법련은 부석사로 돌아가면서 윤겸이 근친 오는 날 함께 온다고 한다. 또 우연히 죽은 딸이 쓴 언문 글씨를 보니 슬픈 눈물이 옷소매를 적시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붓을 잡고 글씨 쓸때의 모습을 상상하니 완연히 눈 안에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슬프고 슬프다. 원적사의 중 사윤이 배 및 망혜 1켤레를 가져왔다.

21일. 밤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이 되어도 그치지 않다가 늦은 후에는 크게 내린다. 생각건대 아우의 일행은 금명간 도착할 것인데 비가 이렇게 내리고 상하가 우비가 없으니 비를 맞고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또 냇물이 필시 넘쳐흐를 터이니 또한 쉽게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양식이 떨어지는 걱정이 있을 것이니 몹시 근심되는 마음 금할 수 없다. 윤겸도 내일 모레 사이에 근친을 오고자 하는데 물에 막혀서 필시 오지 못할 것이다. 올해는 5월 그믐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개지 않고, 그 사이에 비록 흑 갤 때가 있었으나 오래지 않아서 도로 내려서, 이 까닭에 전곡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비는 종일 크게 내리다가 저녁때에야 비로소 잠시 그쳤다.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동대에 올라가 보니좌우 모래벌판이 모두 물에 묻혀서 가득 차고 세차게 흘러내려가니 가위 웅장하다. 전에는 비록 물이 넘칠 때가 있었어도 오늘처럼 크지는 않았다. 게다가 또 큰바람이 때로 몰려와서 비단 보리가 상할 뿐이 아니라, 콩은 이제 바야흐로 꽃이 필때인데 또한 역시 흔들어 떨어뜨릴 근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이것으로 근심을 하니 탄식스럽다.

22일. 종일 흐리고 때로 비도 뿌린다. 일기가 몹시 더우니 반드시 오래 비가 올 징

조이다. 걱정스럽다.

23일. 흐리고 비가 내렸다. 그러나 크게 내리지는 않는다. 민시중과 김언보가 현에서 왔다. 20일에 떠난 것이 비에 막혀 어제야 비로소 왔다고 한다. 윤겸의 편지를보니, 보릿가루 9되·꿀 2되·물레 2틀·등잔걸이 2개를 보내왔다. 김담은 휴가를 얻어 갔다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다. 외 수십 개, 배 1두를 가져왔다.

24일. 날이 개어서 해가 났다. 서쪽 이웃에 사는 정세당의 처가 햇좁쌀 6되·햇콩 3되를 가져왔는데 줄 물건이 없어 다만 탁주 1잔을 먹여 보냈다. 민시중이 배 한 쟁반을 가져왔고, 두부콩 2두를 김담으로 하여금 가지고 원적사에 가서 두부를 만들어 오게 했다. 윤겸은 오늘 올 터인데 오지 않으니 필시 도사가 금명간 현에 오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친히 오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도 보낼 터인데 사람도 또한 오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다. 법련도 또한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지 않으니, 역시 필경 윤겸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오는 것을 기다려 같이 오려는 것이다. 요새 반찬이 없어서 어머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인아가 버들 그릇을 물속에 묻어 물고기 15마리를 잡아다가 저녁 식사에 탕을 만들어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밥을 말아 다 잡수시니 몹시 기쁘다. 아우의 일행은 오늘도 오지 않으니 필경 큰비로 인해서 서울에서 떠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로에 물에 막힌 것인가? 걱정스럽다.

25일. 오늘은 곧 내 생일이다. 상화병 및 양색탕 · 꿩 구이 · 육색실과 등으로 신주 앞에 제사를 지냈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오늘 도사가 현에 온다고 사사로이 기별 이 와서 근친을 오지 못했고, 도사가 지나간 뒤에 곧 집 노루를 갖추어 가지고 올 것인데, 올 때 마땅히 최 판관 응진 및 이토산을 청해 오겠다고 했다. 토산은 곧 이 경운(李景雲)으로서 안협 땅에 임시로 와 있는데, 곧 나의 소년 시절 친구이다. 밀 가루 2두 · 석이 1두 · 녹두가루 1되 5홉 · 호두알 1되 · 잣 5홉 · 개암 5홉을 각각 종이 주머니에 넣고, 잣 5되 · 푸른 콩 8되 · 소주 5되 · 닭 4마리 · 꿩 4마리 · 대구 4마리 · 문어 1마리 · 광어 4마리 · 소전복 1첩 · 홍합 및 전복을 각각 주머니에 넣고, 수박 3개 · 참외 2개 · 가지 5개 · 약과 90개 · 봉과 30개 · 마늘 14통 등을 현 사람이 실어 왔다. 이 물건은 차례에 쓸 것이다. 오후에 소근전에 사는 김 주부 명

세와 김 별감 린이 와서 보았는데, 주부는 소주 1병·삶은 닭·천어·말린 닭·안주 1행담을 가져오고, 린은 삼 1단·꿀 1그릇을 각각 가져왔다.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종일 이야기했다. 한영련이 햇좁쌀 5되·가지 10개·외 15개를 가져왔다. 집주인 김언보, 민시중 및 이웃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과 떡을 대접했다. 저녁에중 법련이 부석사로부터 그 절 수승 법희와 함께 와서 보고, 차좁쌀떡 1행담·탁주 1동이·배 1두를 가져왔다. 역시 함께 종일 이야기하고 술과 떡을 대접했다. 인해서 김명세와 법련이 바둑을 두게 했더니 김이 계속해서 3판을 졌다. 이에 마태 3두를 내기로 걸고 두고서 어둘 무렵에 각각 헤어졌다. 법련은 그대로 머물러 자고서 윤겸이 오기를 기다렸다.

26일. 김언보의 아들은 나이 겨우 7세인데, 어제 아침에 그 아비가 여기에 올 때 쫓아오는 것을 그 아비는 알지 못하고 무심히 여기에 와서 종일 술을 마시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 보니 집에 없더라는 것이다. 그 아내는 아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역시 찾지 않았으니 반드시 물을 건널 때 빠져 죽은 것이다. 오늘 아침에 물이 합류된 곳 상하를 찾아보았더니 하류의 깊은 못에 빠져 있었다. 이에 물에 익숙한 자를 시켜 건져 내게 하고 그 내외는 통곡하기 마지않으니 보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 언보는 전에 남자 아이를 많이 낳았으나 모두 키우지 못하고, 이아이를 낳은 후에 또한 다시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애지중지하여 그 장인 박문자의 집에서 길러 오다가 불행히 또 이 화를 당했으니 슬픈 일이다. 오후에 윤겸이 근친 왔는데, 도사는 물에 막혀 오지 못하고 김화로부터 그대로 철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백미 5두 · 닭 3마리 · 꿩 2마리 · 노루 다리 1개 · 감장 · 간장 등 물건을 가지고 왔다. 종일 비가 내려서 법련은 그대로 머물렀다.

27일. 윤겸은 그대로 머물렀다. 아침 식사 후에 동쪽 집으로 가서 법련과 종일 바둑을 두었다. 비록 비는 오지 않았어도 종일 흐렸다. 찐 고기와 떡을 같이 먹었다. 28일. 법련과 함께 종일 바둑을 두었다. 윤겸은 오늘 현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물이 깊어서 쉽게 건너지 못하겠어서 떠나지 않았다. 민시중이 배 1쟁반을 가져왔다.

29일. 윤겸은 아침 식사 후에 현으로 돌아갔다. 현의 문안하는 사람이 역시 일찍 왔는데, 새끼노루 조금 큰 것 1마리와 새끼 찜 2마리를 가져왔다. 윤겸은 떠나는 길이어서 미처 먹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식사 후에 법련의 말을 빌려 타고 갈고 씨 뿌린 밭으로 돌아보니 조밭은 몹시 좋지 않고 콩밭은 조금 났다. 그러나 그 끝내 열매가 맺을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다. 또 법련과 바둑을 두었다. 저녁에 언명이 왔다. 큰비로 인해서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6일에야 비로소 떠났 으나 중로에 또 비를 만나 간신히 내를 건너서 나흘 만에 비로소 도착했다는 것이 다. 그 아내는 이 때문에 데리고 오지 못했고. 덕노는 가지고 간 말이 발을 절어서 지금 서울에 머물러 있는데, 좀 나으면 호남으로 내려가서 가지고 있는 삼을 팔아 서 목화로 바꾼다고 하더란다. 또 윤해의 글을 보니 지난 6월에 더위를 먹어서 몇 달 동안 차도가 없다가 지금은 나아 가는데, 아직 진촌에 있고 아직 율전으로 돌아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춘금이는 여기에서 보낸 편지와 물건을 가지고 율 전으로 갔으나 윤해의 식구가 없기 때문에 답장을 받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한 스럽다. 이 편지는 지난 6월 초승 및 7월 7일에 광노의 집에 전해 두었기 때문에 언명이 가지고 온 것이다. 또 언명에게서 들으니 한산도의 여러 장수가 진 치고 있 는 곳에 흉적이 불의에 밤에 습격해 와서 모두 함몰되어. 통제사 원균과 충청수사 등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 하니, 놀라고 탄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한산도는 호남 울타리로서, 적들이 오래도록 침범해 오지 못한 것은 또한 한산도에서 막았 기 때문인데, 이제 들으니 빼앗겨서 도리어 적이 점령했다고 하니, 만일 이로 인해 서 바로 호남을 침범한다면 누가 능히 막으리오. 그러나 올바른 소식을 알지 못하 겠다. 선전관이 소식을 탐문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대체로 조정 소식은 중국 장수가 서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밀히 하고 발표하 지 않아서 비록 조정에 있는 관원이라도 역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소 어사 도 역시 서울에 도착했고, 양 경리(양호)와 유 제독(유정)은 아직 서울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오래지 않아서 온다고 한다. 세상 일이 이와 같으니 쉴 곳을 알지 못하겠 다. 탄식한들 무엇하랴.

## 8월

1일. 종일 비가 내려 잠시도 그치지 않는다. 금년에는 쓸쓸한 바람과 차가운 비가

달을 계속하여 쉬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 아직도 이삭이 나오지 않은 곳이 많아서 장차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니 몹시 탄식스럽다. 식사 후에 동쪽 집으로 나가서 법 련과 함께 종일 바둑을 두어 서로 이기고 지고 하여 무료함을 소견했다. 언명은 먼저 돌아왔다.

2일. 법련대사는 아침 식사 후에 원적사로 돌아갔다. 아침 식사 전에 현 사람이 와서 편지를 보니 윤겸은 무사히 현으로 돌아갔다 하고, 소금 1두, 절인 전복 1백 20 개·복장이 24개·송어알 5조각을 가져왔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들으니 소한이 마전으로 간다 하기에 편지를 써서 마전태수에게 주게 했으니 구제 물자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자는 방이 몹시 차서 이웃 사람 송수만을 불러다가 고래 막힌 것을 파서 수리하고 솥을 걸어 아침저녁으로 밥을 지어 군불을 때지 않고따뜻하게 했다. 중솥 1개, 작은 솥 1개를 윤겸이 보내서 쓰도록 했기에 작은 솥은 인아의 방에 걸었다.

3일. 어젯밤 내린 비가 새벽까지 쉬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음산하다. 요새 계속 비가 와서 일할 곳이 많은데도 하지 못해서 손을 놀리고 먹기만 하는 자가 역시 많으니 민망스럽다. 또 집 앞의 깨가 먼저 익은 것 11묶음을 베어다가 털었더니 깨가 겨우 1되이다. 언명과 함께 냇가로 가서 발을 씻고, 깨 베는 것을 구경했다. 또 언명에게 들으니 김자정(김지남)이 황주통판이 되었는데,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서 방백에게 욕을 보고 심지어 장형 40여 대를 맞고, 파직까지 당했다고 하니 놀랍고 탄식스럽다. 까닭은 소 어사가 왔을 때 앉아 있던 의자가 기울어져 자빠진 일이라고 하나 그 사실은 자세치 않다. 김담은 다리 위에 종기가 나서 쓰지 못하니 걱정이다.

4일. 김 별감 린이 와서 보고 연한 무를 가져왔기에 추로 2잔을 대접했다. 윤겸이 현으로 돌아갈 때 새끼노루 가죽 16장을 보내면서 가죽을 익히라고 했는데 이는 모두 올여름에 먹은 것이다. 또 언신이 경작한 기장받은 수확이 겨우 3두이니, 이는 곧 전일에 산돼지가 모두 먹고 남은 것이 겨우 이것뿐이라 한다. 서운하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즉시 와서 제 숙부를 보아야 하겠으나 도사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했다. 참기름 1되를 보내왔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윤겸이 지난봄에 서울에 있을 때 첩을 얻었으니 곧 사비(私婢)로서 여러 번 사람을 겪은 자이다. 지난달 20일쯤 데려다가 사가에 있게 하고,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와서 모두 두 사람 먹을 것을 한 달에 겨우 각각 3 두씩만 준다고 한다. 이는 곧 이은신의 삼촌의 첩의 전 남편의 딸인데, 은신이 중매를 했다고 한다. 내가 자는 방은 골을 파고 솥을 건 뒤로 몹시 따뜻하니 기쁜 일이다.

5일. 역비(驛牌) 중금의 조밭을 수확하는 일로 옥춘을 소근전에 보냈다. 요새 반찬이 없어서 어머님께 드리는 것이 오래 떨어졌으니 민망스럽다. 인아를 시켜 보자기를 싸서 물에 넣어 물고기 10여 마리를 얻어 저녁 식사에 탕을 만들어 드렸다. 들으니 윤겸은 도사를 맞으려고 이천에 가서 거기에서 활을 쏜다고 하니, 돌아오면 반드시 와서 근친할 것이다.

6일. 법련대사가 지금 원적사에 머물고 있는데, 일찍이 찾아가기로 약속하여서 식사 후에 언명과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해서 가는데 골짜기가 깊고 돌길은 구불거렸으며, 또 한 고개를 넘는데 옆으로 기울고 위태롭게 비껴져서 말에서 내려 걸어넘어서 비로소 절에 닿았다. 법련대사는 기꺼이 맞고 함께 한방에서 잤다. 갈 때 두부콩 3두를 가지고 가서 중을 시켜 두부를 만들었다.

7일. 이른 아침에 중이 목말 국수를 만들어 대접하고 조금 늦게 두부를 내왔는데 입에 맞아서 나는 38점을 먹고 언명은 40점을 먹었다. 먹고 나자 즉시 법련과 함께 돌아오는데, 앞 길 골짜기 속에 배·산포도·호두가 곳곳에 열매를 맺었기에 이것을 따오게 하여 싣고 왔다. 올 때 중이 나에게 망혜 3켤레, 언명에게 4켤레를 주었다. 또 원적사를 보니 곧 암자가 조금 큰 것인데, 절 앞에는 압각수가 있어 그 높고 크기가 비할 데 없다. 이 나무는 중 나옹이 손수 심은 것이라 한다. 또 들으니 난리가 나던 처음에 철원태수 김이가 난리를 피해서 와서 살다가 일찍이 토민에게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외병을 인도해서 죽이려 하는 것을 마침 김 태수는 그 기미를 알고 먼저 도망하고, 한 종친이 있었는데 미처 달아나 피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또 들으니 윤겸이 어제 옥동을 지나다가 편지를 써서 역노를 시켜서 전해왔다기에 편지를 보니, 처음에 와서 근친하려 했으나 도사가 현을 지나겠으므

로 부득이 따라가느라고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역노 이상이가 참보리 2두를 가져 왔기에 수반을 대접했다. 안협에 사는 백성 김지학이 와서 보고, 누른 콩 1두, 붉 은 팥 1두를 주기에 상화병을 대접했다.

8일. 식사 후에 법련대사는 떠나서 부석사로 갔다가 그길로 현으로 간다고 한다. 법련은 두부를 가져다가 원적사의 수승을 시켜 갖다 올린다. 또 윤겸은 이천에서 송이 10개를 얻어 편지와 함께 보내왔으니, 이는 내일 고조 기일에 쓰려 한다.

9일. 현의 문안인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전하는데, 어제 도사와 함께 돌아와서 도 사는 어제 바로 금성으로 떠났다 하고, 생송어 큰 것 2마리, 마른 망어 1마리를 보 냈다. 언명은 이른 식사 후에 떠나서 현에 들어가 제물을 얻어 가지고 서울로 돌아 가려 한다. 추석이 가까웠기 때문에 돌아가서 묘소에 제사를 지내고, 그길로 추수 를 한 후에 처자를 데리고 올 계획인 것이다. 추석의 제물로는 여기에 두었던 홍 합ㆍ해삼ㆍ대구 1마리ㆍ문어 2조각ㆍ마른 전복 4꽂이ㆍ절인 전복 90개를 가져갔 고, 생송어 반 짝·마른 망어 1마리·햇기장쌀 7되도 주어 보냈다. 그 나머지 밥 쌀 · 떡쌀 · 목미 · 실과 · 닭 및 그 밖의 부족한 물건들은 윤겸으로 하여금 마련해 보내게 했다. 또 들으니 윤겸이 이천에 있을 때 두루마기를 잃었다고 하니 한스 러우나 이는 모두 데리고 간 나이 어린 것들의 행위일 것이다. 밤중이 되기 전에 현 사람이 뜻밖에 와서, 윤겸의 글을 보니 적장 청정(淸正)이 이달 3일에 7명의 장 수는 상륙하여 호남으로 향하고. 세 장수는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로 향하여 수륙 으로 함께 나가기 때문에. 오늘 순찰사의 전령이 두 번이나 와서 여러 고을 태수 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영원성으로 달려가서 막고 지키라고 해서. 내일 마땅 히 달려가야 하겠으므로 형세가 이러하여 근친하지 못하고 간다고 했다. 이미 몸 을 맡긴 터이니 어찌하리오. 이 글을 보고 놀라 자빠졌다가 계속해서 울고 말았다. 발군차리(發軍差吏)가 사방으로 흩어져 부르는데, 만일 집에 있지 않은 자는 부모 와 처자를 모두 잡아간다. 아우는 오늘 아침에 현으로 들어갔다가 그길로 서울로 갈 계획이었는데, 사세가 이와 같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윤해의 처자 및 신자방(신 응구)의 식구도 또한 어찌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건대 필시 떠나올 것이다. 그러 나 길에 거마가 많이 막혀있다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덕노는 말을 가지고 목화 바 꿀 일로 양호로 내려갔는데, 이런 큰 변을 당해서 또한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가지고 있는 마필을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빼앗겼을까 몹시 걱정스럽다. 적의 형세가 불어나서 참으로 서울로 향한다면 이곳도 역시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니, 종도 말도 아무것도 없어 더욱 몹시 걱정스럽다. 좋지 못한 때를 만나서 6년 동안 전쟁에 하늘이 화를 뉘우치지 않아서 요망스런 기운이 다시 일어나 내가 죽을 곳을 모르겠으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랴.

10일. 새벽에 고조의 제사를 지냈다. 처음에는 오늘 일찍 평강에 가 보려 했으나 가까운 이웃에 말이 없고, 또 소를 타고 가려 했으나 비단 늙은 소가 걸음이 더딜 뿐만 아니라 비가 또 내리므로 부득이 편지를 써서 먼저 춘금이를 보내서 그 떠나는 것을 알아본 뒤에 내일 가볼 계획이지만 그 어찌 기약할 수 있으랴. 김담이 오늘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필경 언명이 데리고 서울에 간 것이다. 어제 채억복이꿀 1되를 사람을 시켜 가져왔다.

11일. 이른 식사를 한 뒤에 억수의 송아지를 빌려 타고 현으로 들어가서 윤겸이 떠나기 전에 만나 보려 했으나 10여 리쯤 갔을 때 길에서 춘금이가 돌아오는 것을 만나 윤겸의 편지를 보니, 군사를 거느리고 영원성을 지키는 일은 이제 순찰사가 다니면서 주선해서 필시 싸움터에는 나가지 않겠고, 나간대도 또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이므로 즉시 와서 근친하지 않고 가는 것이니 모름지기 걱정할 것이 없다고했다. 또 언명의 편지를 보니, 지금 마땅히 떠나서 서울로 향할 것이며, 제물은 마땅히 이곳에서 가지고 간 것으로 다만 주과로 지낼 뿐이라고 했고, 즉시 처자를 데리고 떠나오겠다고 했다. 관가에서 지금 바야흐로 떠나느라고 시끄러운 일이 많고 또한 관인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김담을 데리고 간다고 했다. 내가들으니 윤겸은 이미 떠났다고 하므로 돌아올 때 가까운 곳의 콩밭 보리밭을 돌아보고 왔다. 백미 3두를 춘금이가 가지고 왔다. 또 삭영에 사는 갑사 지윤복이 와서보고 말하기를, 지난달 서울에 갔을 때 덕노를 만났는데, 이달 2일경에 호남으로내려간다고 하더란다. 윤복의 아우 언복이란 자는 본래 평강에 살아서 평강에 역속되었다가 난리 후에는 삭영으로 옮겨 삭영에 역속되었는데 피차가 서로 다투어서 본관에 죄를 얻은 것이 여러 번이어서 오래 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번

에 본도 순찰사의 장계에 의하여 도로 평강에 소속된 뒤로 또 중죄를 지을까 걱정되어 나에게 와 보고, 쌀 1두 7되, 배 12개를 가져왔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 또 민시중이 전일에 재앙을 입고서 북면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서 배 1쟁반을 가져왔다.

12일. 아침에 들으니 윤겸은 어제 떠나지 않고 오늘에야 떠난다고 하니, 어제 가보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민시중이 현에 들어간다고 해서 글을 써서 주어 윤겸이 행차하는 곳에 전하게 했다. 북쪽 마을에 사는 정인국이 녹두 7되를 가져왔다. 전일에 황이를 가져오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니, 비록 후하다고 하겠으나 필시 요구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술을 대접해 보냈다. 전업의 처가 꿀 2되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13일. 정세당을 불러서 박언방의 집 앞에 기름틀을 설치하게 했다. 또 박언방이 현 에서 돌아와서 윤겸의 글을 보니. 어제 비로소 떠났으나 아직 다시 적의 소식이 없 으니 혹 임진년 때와 같이 길에 몰아오지는 않을까 의심한다고 했다. 또 모든 일은 공 형(公兄)과 그 밖의 아는 사람과 함께 거듭 정녕히 깨우쳐 주고, 만일 일이 급하 면 즉시 하인과 우마를 정해서 마땅히 깊은 곳으로 옮기고, 호장을 불러서 그 계획 을 듣는 것도 무방하다고 했다. 또 민시중·박언방 등으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 가까운 마을의 한가한 자 중에 부역에 나가지 않은 자 6, 7명을 거느리 고 한 집을 보호하게 하고 모든 사환 등의 일은 오로지 이 사람에게 맡기고. 이 일 로 해서 관문의 일에는 그 이름을 빼주고, 패자 중에 그 이름을 쓰게 하여 이들에 게는 사화을 시키지 않고 관문에 머물러 기다리게 한다고 했다. 다만 내가 그저께 윤겪이 이미 떠났다는 말을 듣고. 중로에서 도로 돌아왔는데. 만일 그때 아직 있었 던 것을 알았으면 달려가서 만났을 것인데. 끝내 만나지 못하고 보냈으니 몹시 한 스럽다. 송이 15개. 잣 1두를 언방이 오는 데에 보냈다. 김언보가 와서 보고, 꿀 2 되. 차좁쌀 8되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김억수가 군량을 개성으로 실 어 나르고 오늘 비로소 돌아와서 말하기를, 변방 비고의 긴급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곳곳에서 군사를 데리고 떠났다고 한다. 닭 1마리·수박·배를 가져왔다. 저녁에 정세당이 천어 수십 마리를 가져왔다.

14일. 아침에 현 사람이 백미 10두, 거친 쌀 2석을 가져왔다. 이는 곧 윤겸이 떠날때 장무를 시켜서 실어 보낸 것이다. 꿩 3마리도 역시 가져왔다. 내일 제수로 쓰겠으니 기쁘다. 소한이 마전에서 돌아왔는데, 마전태수가 보낸 햅쌀 2두, 밀가루 1두를 갖다 전한다. 그러나 쌀 5되, 밀가루 3되가 줄고, 깨는 전혀 오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까닭을 소한에게 물어야겠다. 김언춘 · 고한필이 와 보았는데, 언춘은 햅쌀 4되, 한필은 차좁쌀 5되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언명이 서울에 갈 때 현에 들어가서 들으니 변방 소식이 몹시 급하고, 윤겸은 순찰사의 전령에 의하여 바야흐로 군사를 모아 장차 영원으로 떠나기 때문에 제물을 갖지 못하고 다만 행량만 가지고 말 1필만으로 달려갔는데, 때가 되면 처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다. 시골 백성들의 추석 제사는 지내지 못하여 필경 궐사하겠으므로 이곳에서 지방만 모시고 술과 떡, 삼색 실과 · 양색 탕 · 양색 구이만으로 먼저 조부모께 제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아버님과 죽전 숙부께 드린 다음에 죽은 딸에게 지낼계획이다. 마침 현의 장무가 산 꿩 3마리를 보내오고, 이웃 사람이 1마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찬을 만들었다. 저녁에 현의 장무가 또 밀가루를 보냈으나 날이 어두워 미처 면(麵)은 마련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15일. 아침 식사 전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낸 뒤에 남은 음식으로 살아 있을 때 공이 있었던 노비 중에서 자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자들의 제사를 지내 주었다. 새벽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비로소 갠다. 적의 소식이 만일 급하지 않았으면 언명이 서울로 올라가서 마땅히 가지고 간 물건으로 반드시 묘하에 제사 지냈을 것이다. 마을 안에서 와 본 사람은 모두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또 떡을 가져다 주는 자도 있고, 황촌에 사는 박원형은 꿀 1되를 갖다 주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16일. 김 별감 린이 와서 보고, 배 큰 것 1행담과 푸른 콩을 갖다 주기에 술 3잔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박원희·박영호가 또한 각각 큰 배를 나무 그릇 가득히 담아 가지고 왔기에 각각 술을 대접해 보냈다. 박문자가 와서 보고 또 구운 닭 1마리, 청주 1병을 가져왔기에 역시 술을 대접해 보냈다.

17일. 춘금이를 보내서 소를 가지고 현에 들어가게 했으니, 곧 보리씨를 받아 오기

위해서다. 이웃에 사는 김억수 · 전풍 등이 영원성에 갔다가 전일 윤겸이 갈 때 개 성으로 갈 것을 미처 함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따라간다기에 편지를 써서 윤겸에게 전하도록 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갈 때 그 늙은 어머니와 처자, 일 가들이 모두 와 모여서 울면서 마을 밖에서 전송했으니, 인정이 어찌 그렇지 않으 랴. 가련하다. 나는 윤겸이 갈 때 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기 어 려워하는 모양을 보니. 피차가 어찌 이같이 다르단 말인가. 슬픈 감회가 스스로 마 음속에 격하다. 그러나 때가 그러하니 어찌하리오. 문안 온 사람들을 시켜 집 뒤 여울에 통발을 놓았다. 다만 전날 밤 비가 더 내려서 물이 축대를 넘어 무너져서 겨우 방비를 이루었다가 다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수리하려 한다. 김언신이 여 기에 왔는데, 김억수를 전송하다가 병을 얻어 인사불성으로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들으니 입과 코에서 피가 나오는데, 사 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화살에 맞은 것이라 한다. 만일 구워하지 못하면 우리 집 일 이 더구나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걱정스럽다. 저녁에 민시중이 현에서 돌아와서 유겪의 편지를 전하기에 보니, 추천 땅에 이르렀는데, 적병은 진영으로 돌아가 뒤 에 아직 아무런 긴급한 소식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윤겸은 본도의 순사의 종사가 되었으므로 두어 달 이내에는 관청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하니 깊이 걱정스 럽다. 그러나 종사는 순사와 함께 주선하는 것이니 반드시 멀리는 가지 않을 것이 니 이는 다행한 일이다. 또 순찰사의 전령을 보니. 임금이 만일 전면에 진주하여 친정하게 되면 호위할 군사를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므로, 조정에서 순 찰사로 하여금 친히 스스로 한 도의 정한 군사 및 먹을 양식과 군기를 모두 준비하 도록 각각 경계 위에서 감독하고 명령을 기다리도록 할 것이며. 징병의 표신이 내 려가면 급급히 달려오도록 했다고 한다. 적이 만일 저들의 소굴로 도로 들어갔으 면 두어 달 안으로는 반드시 분주하고 갈팡질팡할 것이 없을 것이니. 언명의 일행 도 또한 서서히 올 수 있을 것이요. 남쪽 백성들도 또한 가을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적의 출몰이 무상하니 어찌 반드시 오래일 것을 보증할 수 있으랴. 18일. 춘금이가 올 때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 필시 보리씨를 받고 보니 해가 늦 었으므로 오지 못하는 것인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지난밤에 통발에서 잡은 것이 겨우 5마리인데 고기가 작은 손가락만 하니 우스운 일이다. 낮에는 따오기가 통발 머리에 섰다가 물고기가 떨어지면 쪼아 먹으므로 어린 종으로 하여금 쫓으라고 해도 도로 돌아오니 밉살스럽지만 어찌하리오. 반드시 풀을 베어다가 통발 위에 덮은 뒤에라야 그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일. 지난밤에 서리가 내리고 일기가 몹시 찬데, 계집종들이 거처하는 방이 차서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운데 아직 집을 짓지 못했으니 민망스럽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늦게 간 콩과 보리는 미처 열매가 맺기 전에 서리를 맞아 모두 말랐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또 문안 온 사람 8명을 시켜 나무를 해 오게 하여 점심을 대접하고 또 술을 대접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을 다하지 않아 나무가 많지 않으니 한스럽다. 춘금이는 현에서 보리씨 1석과 참보리 4두를 싣고 왔다. 어제 늦게 떠나서 중로에서 자고 지금 비로소 왔다고 한다. 산 꿩 2마리・송이 10개・청주 1병을 가져왔다. 그편에 들으니, 윤해의 온 식구가 어제 낮에 현에 도착했다는데, 윤해의 편지를 보니 13일에 율전을 떠나오다가 현에 도착하기 한 식경 밖에서 그 처가산고 중세가 있어서 겨우 달려왔다고 한다. 그 후에 무사히 해산을 했는지 알 수가없고, 또 심부름꾼이 없어서 알아 올 수 없으니 깊이 근심스럽다. 그러나 온 집안이 난리 전에 무사히 왔으니 이는 다행한 일이다. 이천(李蔵)이 이천에서 찾아왔는데 그는 어머니 상사를 당한 후에 이제 비로소 만나는 셈이다. 서로 옛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깊어서 자리에 들었다.

20일. 이천은 여기에서 현의 종의 집으로 간다기에 쌀 1말과 감장 두어 사발을 주었다. 그가 먹지 못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배 50개도 역시 주어 보냈다. 아이들과 함께 동대에 올라 굽어보니, 가을 못이 맑고 깨끗하여 걸리는 것이 없고, 물가모래 바닥에 물고기가 떼 지어 노는 것이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춘금이를 시켜 그물을 치게 했더니 겨우 빙어 큰 것 1마리, 작은 것 6마리를 얻었으니 곧 그물이 찢어진 까닭이다. 아깝다.

21일. 통발을 쳐서 잡은 천어가 지금 2사발이 넘는데 크고 작은 것이 모두 백 20마리이다. 또 집사람이 마을 부인 14명을 불러서 세 때 밥을 먹이고 술과 국수를 대접하면서 삼게 했는데 쌀만 4두를 소비하고 일을 많이 끝내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저녁에 윤해가 현에서 들어왔다. 만나지 못한 지 오래인데 이제 만나게 되어 온 집 안이 기쁘고 위로되는 것을 어찌 다 말하랴. 또 들으니 그 처가 지난 18일 현에 도 착한 지 오래지 않아 무사히 순산했고, 또 남자아이를 얻었다니 더욱 기쁘고 다행 스럽다. 억수는 철원까지 갔다가 병으로 돌아왔다.

22일. 윤해는 여기에서 머물렀다. 식사 후에 두 아이와 함께 걸어서 뒤 정자를 거쳐 그길로 동대에 올라 구경하다가 돌아왔다. 또 통발을 쳐서 잡은 천어 25마리로 아침 식사에 탕을 끓여서 같이 먹었다. 문안 온 사람들 8명을 시켜 울타리나무를 베게 하고 점심을 대접했다. 오후에 민시중과 함께 나무 베는 곳을 가 보고 돌아왔다. 김언신이 와서 보고 동과 2개를 가져왔다. 처음엔 병세가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필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병이 덜해 가니 기쁘고 기쁘다. 그러나 모양이 누르고 파리하여 겨우 행보를 할 뿐 일은 못하겠다. 김언실이 와서 보고 닭 1 마리ㆍ두부 10덩이ㆍ토란ㆍ달걀 조금을 가져왔기에 저녁 식사를 같이하고 술을 대접해 보냈다.

23일. 윤해는 이른 식사 후에 현으로 돌아갔다. 춘금이를 시켜서 보리밭에 재를 져내가게 했다. 내일 밭을 갈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녁에 들으니 내 건너 안협 땅에서울 사람이 와 있는데, 민시중ㆍ김언실로 하여금 가서 적의 소식을 들어오게 했더니 적은 이미 남원성을 함락시켰고, 중전은 근일에 장차 관서로 간다고 하나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다. 만일 그렇다면 일기가 점점 추워지는데 노모를 모시고 병든 아내를 데리고, 또 상하가 모두 속옷도 없이 깊은 산골짜기로 피해 들어간다면 반드시 얼고 굶을 근심이 있으니 나는 죽을 곳을 모르겠구나. 한갓 하늘에맡길 뿐이다. 6년 동안의 전쟁에 생민이 모두 파리해졌는데도 하늘이 화를 뉘우칠줄 몰라서 흉한 칼날이 또 일어나 양호의 남은 백성들이 또한 장차 도탄 속으로 들어가게 하니 황천은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어루만지는 법이거늘 어찌조선의 백만 창생으로 하여금 모두 불타는 곳으로 몰아넣고 남기지 않는가. 믿기어려운 것이 하늘이라. 크게 탄식한들 무엇하랴.

**24일.** 보리밭을 갈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밭이 박문자의 집 뒤에 있기에 억수의 말을 빌려 타고 민시중을 데리고 가 보고 나서 배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소나기

가 크게 몰려와서 문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문자의 사위는 김언실인데, 언실도 역시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점심을 지어 주고 또 술과 안주도 내왔다. 조금 후에 비가 개므로 달려서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내리므로 말을 달려 집에 들어왔더니 오래지 않아 천둥과 비가 크게 일고 겸해서 우박이 내리다가 저녁이 되어 비로소 그쳤다. 이 까닭에 보리밭은 많이 갈지 못하고 일찍 파했다. 김 별감 린이 와서 보고 배 1상자를 가져왔는데 맛이 달고 물이 많으며 보통배보다 좀 크다. 술 2잔을 대접해 보냈다. 오늘 아침부터 콧병이 나서 무수히 기침을 하고 콧물이 끊이지 않아 기분이 자못 화평하지 못한데, 비단 나뿐이 아니라 전염된 자가 많으니 역시 어머님께 옮겨질까 몹시 두렵다.

25일. 어제 갈다 남은 밭을 갈게 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그러나 재가 없어서 다시 더 갈지 못하고 겨우 보리 9두를 뿌렸다. 현의 호장이 황촌의 학전(學田)<sup>4</sup>을 감수할 일로 왔다가 민시중의 집에서 잤다. 그는 곧 시중의 매부인 때문이다. 술 2 잔을 대접했다. 오늘 아침에 계집종 옥춘을 황촌에 보냈더니 호장이 왔기 때문에 도로 보냈다. 채억복이 와서 보고 두부 20여 모, 계란 20여 개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그는 병으로 영원성에 가지 못했으므로 관청에서 그 병의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와서 사례하는 것이다. 또 윤해가 올 때 햅쌀을 가져왔는데, 우리 집에서 아직 햅쌀을 맛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2두를 보내왔다. 윤경이 영원으로 간 뒤에 현의 장무가 한번 술 3병과 꿩 3마리를 보낸 뒤로 이제 반달에 이르도록 다시 한 번도 보내지 않아서 요새는 반찬이 전혀 떨어져서 다만 채소만 어머님께 드리고 있으니 민망한들 무엇하랴. 소금도 또한 떨어져서 겨우 1되를 이웃집에서 꾸어다가 쓰고 있다.

26일. 현의 호장 김운룡이 황촌에 와서, 민시중은 이제 비로소 현에 들어간다기에 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운룡에게 술 2잔을 대접했는데 시중도 또한 1잔을 마셨다. 전일에 놓은 통발에서 요새는 1마리도 잡지 못하니 이는 곧잘 쌓지 못해서 또 무너진 까닭이다. 오늘 또 돌을 쌓게 하고 높이 통발을 놓는데 인아가 친히 가

4 학전(學田): 조선 시대에, 교육 기관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지급한 토지. 국자감·양현고·성균관· 사학(四學) 따위에 지급하였으며, 후에 성균관전으로 고쳤다. 서 쌓는 것을 감독했다. 김언실이 와서 보기에 술 3잔을 대접했다. 또 들으니 아직 햅쌀을 맛보지 못했다 하므로 햅쌀로 밥을 지어서 먹여 보냈다.

27일. 통발에서 얻은 천어가 크고 작은 것 도합 30여 마리가 된다. 어제 고쳐 쌓았 기 때문에 잡은 것이다. 아침 식사에 탕을 끓여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 에게 주었다. 오후에 현 사람이 왔는데 윤해의 편지를 보니, 내일 처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다. 장무가 새끼 꿩 3마리. 소주 4병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 다. 인아의 처가 딸을 낳았는데, 저녁때 해가 아직 높았으니 필경 신시(申時)일 것 이다. 오늘 일입(日入)이 유시(酉時) 삼각(三刻)이다. 해는 정유(丁酉), 달은 경술 (庚戌), 날은 을유(乙酉)이나 시(時)는 신시인지 모르겠다. 네 아들에게 모두 태기 가 있었는데 윤해. 윤함은 모두 아들을 낳았고. 윤겸과 윤성은 딸을 낳았다. 인아 의 처가 해산하기 전에 아프다고 소리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 온 집안이 황황 하여 걱정하던 나머지 세 식경쯤 하여 몸을 풀었으니. 남녀 중에 무사하게 쉽게 해 산하는 일이 제일이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1년 중에 두 번 손주를 얻었으 니 이만하면 또한 만족한 일인데 어찌 또 남자 얻기를 바라라 다만 한스러운 것은 윤겸이 제일 어른으로서 여러 번 낳아도 키우지 못하더니 이제 또 딸을 낳더니 또 요절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꿩 3마리가 마침 왔으니 이것으로 산부의 미역국 을 끓여 줄 수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또 병으로 영원에 가지 못한 군사를 다시 독 려해서 보내는데, 김언보, 김억수, 채억복은 모두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언보는 내 집주인인데도 또한 도와주지 못하는 형세이니 어찌하랴. 내일 마땅히 떠나간다고 한다. 다만 억복과 억수는 병이 아주 쾌하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이웃 마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다음날에 만일 피란할 걱정이 생기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 민 망스럽다.

28일. 이른 아침에 통발 놓은 곳에서 천어를 얻었는데 크고 작은 것이 도합 80여 마리나 된다. 전일에 잡지 못한 것은 모두 통발이 견고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산부가 복통이 나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므로 어제저녁에 궁귀탕을 먹였으나 한 번 먹어 효험이 없으나 다시 지어다 먹이지 못하니 걱정이다. 들으니 약간의 약이 직동에 있다기에 즉시 사람을 시켜 천궁과 당귀를 가져다가 저녁때나 되어 지어 먹였

으나 기분이 불편하기가 전과 같으니 걱정스럽다. 오후에 천둥과 비가 크게 일다 가 한참 만에 그쳤다. 윤해의 온 집이 모두 왔는데 중로에서 비를 만나 상하가 모 두 젖어 가지고 왔다. 다만 인아의 처는 산고가 있은 지 오래지 않고 또 기운도 편 안치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집으로 오지 않고 박언방의 집으로 옮겨 갔기에 저녁때 내가 가서 아이들을 보고 돌아왔다. 윤해는 잘 곳이 없어 이 집에 와서 잤다. 또 윤 겸이 영원성에서 지난 21일과 23일에 써 보낸 두 편지를 보니. 남원이 함락되었 다는 것은 확실한데. 처음에는 중국 장수가 적을 유인해서 성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여 천여 명을 베었으나 그 후 중과부적해서 함락되어 중국 군사 3천과 우리 군 사 3천, 도합 6천이 모두 도륙당했다고 하니 놀랍고 탄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 다. 그러나 중국 군사 4만이 오래지 않아 서울에 이르러. 계속하여 남쪽으로 내려 오고. 임금도 역시 중국 군사의 뒤를 따라 친정한다 하기 때문에 이 도의 순찰사가 본도 군사를 정하게 뽑아가지고 호종한다고 한다. 윤겪은 역시 순찰사의 종사 책 임으로 모든 영중의 일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형세가 서로 떠나지 못한다고 하 니 걱정스럽다. 고언백이 거느린 용감한 군사 수백 명이 뒤에서 함양의 적을 쳐서 수백 명을 베어 죽였다고 하니 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 위로가 된다. 돌아온 현 리가 말하기를, 지난 23일에 편지를 받아 가지고 24일에 떠나왔는데, 춘천에 도착 하여 전통을 들었다고 하면서 적은 21일에 이미 공주에 이르렀다고 한다. 만일 그 렇다면 양호는 이미 올가미 속에 들었고, 공주 이상은 방어할 곳이 없이 바로 서울 로 몰려올 것이 장차 멀지 않았으니 놀랍고 탄식스럽기가 끝이 없다. 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언명이 생각건대 이미 왔을 것인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윤해의 처가 도 역시 올 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괴이한 일이다. 자방의 가족 소식도 전혀 들을 수가 없고, 윤겸의 편지에 말하기를, 전해 듣건대 신상례 는 익산으로 돌아가서 병으로 누웠고. 자방도 역시 남포에 있어 병으로 올라오지 못하다가 6일 사이에 떠난다고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직도 살던 곳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니, 적봉이 만일 공산에 이른다면 잠시도 지체할 것이 없이 바른 길로 올 것이니, 더욱 걱정스럽다. 또 들으니 완산부백이 성을 지킬 계획은 하지 못하고, 용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량과 군기에 모두 불을 지르고 달아났기 때문 에 적이 이로 인해서 몰려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 호남이 이미 적의 소굴이 되었으니 영암 임매의 가족은 어느 곳에 떠도는지 알 수가 없다. 또 들으니 적이 수로로 돌아온다고 하니, 그렇다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계획도 역시 허사가 되었다. 더욱 몹시 걱정스럽다.

29일. 아노 세만이 현으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는 곧 어제 윤해의 식구를 모시고 온 사람이다. 통발에서 잡은 천어가 크고 작은 것 도합 1백 70여 마 리나 된다. 어제 비가 내려서 많이 잡힌 것이다. 아침에 탕을 끓여서 함께 먹었다. 오후에 유산한 바람이 서쪽에서 오고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더니 비와 우박 이 크게 내리다가 좀 있다가 그쳤다. 인아의 처는 산후에 기분이 자못 불편하고 먹 는 것이 달지 않아서 많이 먹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궁귀탕을 한번 먹이고 또 다려 서 먹였다. 오늘은 딸을 낳은 지 3일이 된다.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혔다. 충아와 의 녀가 오늘 비로소 여기에 왔다. 보고자 한 지가 오래인데 이제 서로 만나 보니 온 집안이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또 해서의 소식은 전혀 얻어들을 수가 없 으니 피차에 서로 생각하는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윤함이 만일 적의 소식을 들었는지 생각하면 이 때문에 몹시 걱정스럽다. 나도 역시 적이 수로로 돌아온다 는 말을 들은 후로 더욱 걱정이 된다. 윤함의 집이 바닷가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 문이다. 다만 윤함이 비록 그 처가에 있어서 조석의 근심은 없지만 따로 자기의 종 과 말이 없어서 출입에 오직 처가의 종과 말에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급하고 어려 운 일이 있어도 임의로 사람을 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을 보내서 문 안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집에도 다만 덕노 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 심부름 보 낼 곳은 몹시 많아서. 초여름 이후로 매양 보내고자 했어도 끝내 보내지 못하고 있 더니 이제 또 요망스런 적이 다시 일어났으니, 장차 다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나뉘 어 흩어질 것이니, 이 속의 피차 민망하고 절박한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가히 알 것이다. 한탄한들 무엇하랴. 만일 적이 바다로 해서 온다면 연변이 반드시 그 독을 입을 것이니, 윤함의 처가는 반드시 배를 타지 않고 피란하여 장차 관서로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관동 근처로 올 것이니. 만일 그렇게 되면 형 세가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 윤함은 같이 있지 못하고 매양 난리만 만 나면 서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니 깊이 탄식함을 금할 수 없다. 언신이 복숭 아 한 쟁반을 가져왔다.

그믐날. 아침 식사 후에 민시중이 와서 말하기를, 하류 곡담에 물고기가 함께 모였 으니 만일 그물을 쳐서 잡으면 많이 얻겠다고 하므로 즉시 두 아이와 그물을 가지 고 걸어가서 그물 2개는 수구에 가로 치고. 하나는 반석을 포위하고서 긴 나무로 돌을 흔들었더니 크고 작은 숨어 있던 어족들이 그물에 걸려 뛰기도 하고. 도망가 는 놈도 있고, 또 작은 그물에 걸리는 것도 있어 잡은 것이 크고 작은 것 도합 3백 여 마리나 된다.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냇가를 돌면서 구경하니, 찬물이 맑고 깨끗 하여 비록 깊은 못 속이라도 철저하게 볼 수가 있고. 곳곳의 단풍 숲은 붉게 물들 어 사랑스럽다. 혹 앉기도 하고 혹 걷기도 하여 저물어서야 집에 도착하여 그 큰 놈 1백 20여 마리를 골라서 둘째 딸을 시켜 회를 치게 하여 나누어 먹고, 또 추로 1 잔을 마셨다. 오랜만에 먹으니 더욱 기쁘고 위로가 된다. 나머지 고기는 저녁 식사 때 탕을 끓여 함께 먹었다. 또 민시중을 불러서 남은 회를 대접하고 소주 1잔을 주 었다. 함께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또 오늘 통발 친 곳에서는 천어 1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제저녁에 비올 기미가 있기에 필시 많이 잡혔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1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누가 먼저 훔쳐 간 것이다. 달리는 의심할 곳이 없고, 오직 이 통발은 지난봄에 박막동이란 자가 만든 것으로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제 나에게 뺏겼으므로 생각건대 반드시 한을 품고 훔쳐 간 것이다. 또 들으니 그 아들 이 안협 땅에서 군역을 피해 왔고. 군사를 뽑는데도 또 피해서 그 아비의 집에 와 있는데. 성질이 몹시 불순하다고 하니 또한 혹 이 사람의 소위인가 의심하는 것이 다. 그러나 아직 현장을 잡지 못했으니 나타내서 말하고 허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춘금이로 하여금 밤에 통발을 친 근처에 숨어 있어 엿보면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 낼 수가 있겠지만 속저고리 속속곳으로 밤에 내리는 서리를 맞는다는 것은 반드시 견디지 못할 것이므로 차마 억지로 보낼 수는 없다. 막동이의 집도 통발을 친 여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못 그를 의심하기도 한다. 저녁에는 현의 호장 전 운룡이 황촌 학전에서 감수한 것을 실어 왔는데, 피가 4석 9두이다. 이 중 4두는 종자로 주는 것이라 한다. 연일 비가 내려 메밀을 다 뚜드리지 못하고 밭가에 쌓아 두었는데, 만일 이것을 다 뚜드리면 역시 1석의 곡식은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위에서 피라고 한 것은 곧 조와 섞어 심은 것으로서 이곳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피라고한다. 윤겸이 현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수확해 쓰도록 한 것인데 집에 감독하여수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호장으로 하여금 와서 보게 한 것이다. 호장에게 생선회를 대접하고 또 술을 큰 잔으로 둘을 주었으며, 곡식을 싣고 온 사람도 역시 술을 대접해 보냈다. 오늘 고기를 잡은 그물은 곧 윤해가 가지고 온 것으로서 한코도 찢어진 곳도 없기 때문에 그물에 닿기만 하면 문득 걸려서 1마리도 도망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 요새 만일 이 그물로 잡았으면 천어를 남김없이 잡을 것인데, 내그물은 모두 찢어져서 쓸 수가 없다. 또 김언신으로 하여금 호미를 모두 가져다가대장간에 가서 낫 2자루를 만들게 했다. 이 고을 대장장이는 안협 땅으로 옮겨 갔는데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호미 1자루는 해가 저물어서 미처 벼리지 못하고도로 가지고 왔다. 또 이 책은 2월에 쓰기 시작해서 7개월 만에 끝이 났는데, 이는곧 종이가 다된 때문이다. 여기에 만일 딴 종이를 더한다면 반드시 책이 두꺼워져서 맞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친다.

## 9월

1일. 윤성의 처가 산후로부터 아직 일어나 앉지 못하고 기분이 몹시 불편하며, 음식 먹는 것이 처음보다도 또 감해지니 근심스럽다. 유아도 또한 항상 울고 젖을 먹지 않아서, 제 어미도 또한 이로 인해서 낫지 못할까 두려워 병이 생긴 것이다. 호장 김운룡이 현으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아문에 보냈다. 지난밤에 통발에 걸린 천어는 크고 작은 것 모두 40여 마리인데, 큰 것이 반이 넘는다. 지금 잡힌 것을 가지고 따져 보니 어젯밤에 도둑맞은 것이 사실이니 밉살스럽다.

2일. 윤성의 처가 오늘 밤에는 기분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밤새 편안히 자고, 유아도 또한 평상시와 같이 젖을 먹고 잠을 자면서 울지 않으니 기쁘다. 통발에 잡힌천어는 크고 작은 것 도합 35마리여서 소금에 절여 조반을 만들고자 한다. 늦은후에 문안 온 두 사람을 시켜 나무를 베어다가 물고기집 네 곳에 담그게 하고 내가 친히 가보니 인아가 동대 밑에 그물을 쳐서 고기 45마리를 잡았으므로 저녁에

탕을 끓여 같이 먹었다. 현의 방자 세춘이 왔는데, 장무가 잣 1두 · 개암 5되 · 꿀 2 되·찹쌀 3두·간장 3되·병아리 2마리·소주 2되를 지고 왔다. 소금 1되도 역시 가져왔다. 근래에 물건이 없은 지 이미 오래이고 관가에도 역시 없기 때문에 겨우 얻어서 보낸 것이라 한다. 김 주부 명세가 와서 보는데, 현의 장무가 □□하니 다 만 이것이 한스럽다. 언명이 처자를 데리고 이제 비로소 왔다. 인아의 처는 몸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임시로 동쪽 집 윤해의 집에서 자게 했다. 고대하던 나머지에 만나니 기쁘다. 들으니 남매도 또한 성문에 나왔다가 그길로 관서로 향하면서 간 절히 함께 갔다 오자고 하는 것을 고성(남상문)이 힘써 안 된다고 말리기 때문에 슬피 울기를 마지않았다고 하니 인정에 어찌 그렇지 않겠느냐. 슬픔을 이기지 못 하겠다. 언명에게 들으니 남원이 함락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고, 성안에 가득한 중 국과 우리 군병이 모두 도륙을 당했으며, □□의 한 집 및 양 총병 접반사 정기원 도 모두 면치 못했고. 양 총병도 역시 칼을 맞고 탄환을 맞았으나 간신히 죽음만은 면해서 서울로 싣고 갔다 한다. 전주는 이로 인해서 성을 지킬 계획을 하지 않고 부윤이 먼저 그 처자들을 내보내서 성에 가득한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도망해 나 갔는데, 바야흐로 나가서 달아날 때 중국 장수가 중국 군사로 하여금 문을 지키고 나가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 군사들이 문 지키는 중국 군사를 찔러 죽인 후에 다투 어 나왔다 하니 가슴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적이 들어가 전주를 점령하자 선봉 은 이미 여산 경계에 이르러 분탕질을 하고, 혹은 공주까지 왔다가 도로 내려갔다 고도 한다. 다만 중국 군사는 수로를 거쳐 6백여 척이 이미 당진 어구에 정박하고 있다고 하니, 적이 만일 이를 들으면 반드시 저희 마음대로 바로 서울로 오지 못할 것이니 이는 좀 위로가 된다. 우리 한 집은 남쪽에 있는 자는 모두 와서 모였으나 다만 자방의 식구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한 번도 어디 있는지 소식도 듣지 못하니 걱정스럽기 끝이 없다. 덕노도 역시 속히 오지 않고 지금까지 그림자도 볼 수 없으 니 더욱 근심스럽다. 필시 적의 소식이 좀 늦추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제 마음 대로 하는 것이다.

3일, 이른 아침에 언명의 처자가 옮겨 왔다. 인아의 처는 어제저녁부터 기분이 도로 편치 않고 음식도 또한 감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김언보, 김억수가 어제 돌아와

서 이제 비로소 와서 보았다. 전일에 이미 영원에 가느라고 중로에 이르렀을 때 그 군량을 바꾸어 도로 보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필경 윤겸이 진영에서 계획한 것이리라. 술을 대접해 보냈다. 김언춘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다. 이는 곧 문안 온 사람이다. 윤겸의 글을 와서 전하는데, 이는 곧 지난달 26일에 쓴 것 이다. 보니 아무 병도 없다고 했으니 기쁘다. 그러나 본도 순찰사가 군사 천여 명 을 거느리고 이미 영원산성으로 내려가다가 원주에 이르러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 인 다음 장차 흥원창으로 행하기 위하여 진을 맺었고, 척후병은 좌우로 나누어서 어제 새벽에 이미 강을 건너서 적의 주둔한 곳에 이르러 정탐한다고 한다. 대개 이 적들이 만일 바로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길을 나누어 조령과 죽령 길을 거칠 것인 데, 두 고개 이외에는 아무 소식도 없으니 이는 필시 양호를 분탕질하여 이곳을 저 들의 소굴로 만들어 혹 전진하거나 혹 퇴각할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여강 남쪽 충 주 서쪽의 백성들은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고 달리고 울면서 계속하여 강을 건너는데 보기에 참혹하고 슬프더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 군사가 수로로 해 서 이미 당진 구십포에 이르렀다고 하니, 몹시 마음 놓이는 바이다. 다만 윤겸이 종사의 책임으로 영중의 모든 일을 모두 처리하게 했으니, 비단 돌아올 기약이 없 을 뿐만 아니라, 노고하기가 갑절이나 심하다고 하니 몹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찬획사 이시발이 3천 명을 거느리고 바로 적이 주둔한 곳으로 향하여, 이 도에 글 을 보내어 후원을 청하기 때문에 순찰사가 강을 건너 성원한다고 한다. 윤겸이 영 동의 수령에게 요구해서 송어 2마리·절인 은구어 10마리·생전복 50개·문어 1 마리 · 복쟁이 5개 · 대구알 5조각을 얻어 보냈다. 어머님께 드릴 반찬이 오래 떨어 졌더니 마침 이때에 보내왔으니 기쁘다. 통발에서 물고기 20여 마리를 얻어 왔으 므로 쪼개 말리게 했다. 그물을 쳐서 또 20여 마리를 얻어 왔기에 역시 쪼개서 말 리게 했다.

4일. 인아의 처는 아침에는 덜한 것 같았으나 음식이 달지 않고, 오후에는 열이 있는 것 같으니 걱정스럽다. 통발에서 천어 25마리를 잡았기에 쪼개서 말리게 했다. 온 집안 노비 5명으로 하여금 조를 베어 펴서 말리게 했으니, 이는 언신이 준 조 밭이다. 늦은 후에 내가 친히 가서 보고 돌아올 때 녹두밭을 보니 열매도 맺기 전

에 서리를 맞아서 모두 말랐으니 아깝다. 언명이 윤해 형제와 함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느라고 내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친히 스스로 그물을 펴기에 나도 또한 올 때 들어가 보고서 함께 고기를 잡아 모두 2백 70여 마리를 얻어 혹 회도 쳐서 먹고, 혹 탕도 끓여 먹었다. 어두울 때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장무가 식초 1되 · 피목 1두 · 미역 1꼭지를 보내왔다. 내일 사이에 영원에 가는 자가 있으므로 편지를 써 보내라고 했다.

5일. 족인 조인손이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현아에 보내왔다. 전업이 지난달에 상번으로 서울에 갔다가 어제저녁에 돌아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적이 전주에 진을 치고 있어, 아직 진퇴의 기별이 없다고 한다. 중전은 처음에 성을 나가 서쪽으로 가려고 택일까지 해 놓았으나 중국 장수에게 막혀 아직도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다가 오직 나인들의 시위를 받아 밤에 비밀히 동소문을 나서서 이미 토산현을 지나 서쪽으로 향해 갔다고 한다. 양 경리가 2일에 서울로 들어오자, 성안 사서인(七庶人) 중에 이미 성을 나왔던 자는 혹 도로 들어간 자도 있고, 나가려던 자는 아직머물러 있고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양 경리가 나가 피하는 것을 몹시 급하기때문이다. 어두울 때 전풍이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현에 들어왔는데, 글을 보니 윤겸은 오늘 낮에 현에 도착했는데, 이는 곧 적의 소식이 좀 늦추어졌기 때문에 여러고을의 수령이나 순찰사들을 모두 돌아가게 했다가 만일, 다시 전령 보낼 때는 각각 즉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겸은 모레 와서 근친한다고 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현에 왔다고 들으니 수일 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온 집안이 몹시 기쁜 것을 어찌 다 말하랴. 온 집안 5명의 노비로 하여금 조를 베어 퍼 말리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6일. 윤해가 토옥을 묻었는데 끝내지 못했다. 중 법련이 와서 보고 여기 머물러 잤다. 산포도, 다래와 좋은 배 30여 개를 가져왔다. 저녁에 조인손이 현에서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내일 와서 근친한다고 한다. 방어 1마리·마른 방어 1마리·문어 1마리·대구 5마리·소금 1두·소주 3병을 보냈다. 두 종을 시켜서 어제 못다 벤조를 베어서 넘게 했다.

7일. 문안 온 사람 등을 시켜서 토옥을 묻었다. 김억수의 처가 차조떡을 쪄서 가져

왔다. 영원에 갔다가 남보다 먼저 집에 돌아온 것을 감사히 여긴 뜻이다. 어느 사람이 참버섯 1행담을 가져왔다. 내일이 곧 장모의 기일인데 마침 이때에 가져왔으니 몹시 기쁘다. 소주를 대접해 보냈다. 법련대사와 종일 바둑을 두어 서로 이기고지고 했다. 오후에 윤겸이 와서 근친했다. 오래 보지 못하던 나머지에 이제 서로만나니 온 집안이 모두 기쁘다. 백미 5두 · 소금 4두 · 법유 1두 · 조기 2묶음 · 절인 전어 15마리 · 말린 황어 2마리 · 산 꿩 4마리를 가져왔다. 들으니 최 판관의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한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8일. 온 집 노비 및 관인 3명으로 하여금 보리를 베어 폈다. 김언신의 어머니가 찐쌀 1두를 가져왔다. 아우 및 윤해의 집에도 역시 각각 햇콩 1두를 가져왔다. 요새 아우의 식구 및 윤해의 처자가 모두 여기에 모여서 여러 아이들이 떼 지어 노는데, 죽은 딸을 추억하니 더욱 애통한 회포를 이기지 못하겠다. 밤중에 자지 않을 때 가만히 슬픈 눈물이 떨어지니 아아, 슬프다. 어두워서 순찰사의 전통 속에 흉적이 은진, 이산, 연산, 석성 경계로 몰려와서 분탕질 하면서 이미 공주 10리 밖에 이르렀는데, 좌위는 임천, 한산 땅으로서 이제 바야흐로 분탕질을 하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뻗친다. 유위군을 정제하여 다시 전령하기를 즉시 달려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윤겸은 관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밤이 깊어서 가지 못하고 내일 새벽에 달려갈계획이다

9일. 윤겸은 날이 밝기 전에 식사를 하고 날이 밝자 떠났다. 오늘은 곧 가절이어서, 처음에는 신주 앞에 음식을 올린 뒤에 어머님께 음식을 갖추어 드려 하루의 즐거움을 삼으려 했더니 뜻밖에 달려가므로 마침내 이루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만일 영원으로 가면 장차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진군해야 한다고 하니 더욱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이 까닭에 음식을 밖에서 준비하지 않고 안에 들어와서 갖추게 했는데, 오직 국수와 떡만을 밖에서 만들어서 먼저 아버님께 드리고 다음으로 죽전 숙부 내외분, 윤해의 양조부모와 그 양부모, 그리고 죽은 딸에게 올린 뒤에 온 집안 상하가 같이 먹었다. 나머지는 찾아온 이웃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중 법련도 역시 와 있기 때문에 대접했더니 오후에 부석사로 돌아갔다. 백미 2두, 찹쌀 2되, 보리 1두 5되, 꿀 2되, 참기름 1되, 약과 20당어

리, 소동계 3되, 대구 3마리, 문어 1마리, 꿩 2마리, 병아리 5마리, 청주 6병, 소주 6병, 생전복 40개, 마른 전복 44개, 감장 5되, 간장 2되, 노루 앞ㆍ뒷다리 각 1, 갈비 2짝, 노루고기 2, 내장 전부, 배 40개, 밤 3되, 계란 20개, 도라지 정과 1되, 포도 정과 2되, 잣 2되 7홉, 개암 1되 8홉, 호두 1되 5홉, 수박 2개, 송이 30개가 들어왔으니, 이것은 밖에서 들어온 물건이다. 김언보가 두부 1담, 청주 1병을 가져왔다. 유진에 사는 백성 한운봉이 꿀 3되, 좁쌀 1두 2되를 가져왔기에 따로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김언희가 배 1쟁반을 가져왔으므로 역시 술과 떡을 대접했다. 인아의 처는 아직 일어나 앉지 못하고 음식을 전혀 들지 못하여 증세가 가볍지 못하니, 매양 일어나지 못할까 의심하여 슬픈 눈물을 금치 못하므로 더욱 걱정스럽다.

10일. 윤해가 현으로 들어갔다. 제 형이 떠나기 전에 만나기 위해서이다. 온 집안의 5명의 노비를 시켜 전일 베어서 펴 놓은 조를 거둬 묶어서 밭가에 쌓아 두게 했다가 다음날 여가에 뚜드리게 할 예정이다. 늦은 후에 친히 가 보았다. 인아의 처의 증세는 전과 같아서 마음이 몹시 쓰이니 지극히 걱정스럽다.

11일. 지난밤에 금보가 현에 와서 전하기를, 윤겸으로 하여금 먼저 달려오게 하고, 방군에 이르기 전에 대장(代將)으로 하여금 데리고 오게 한다고 해서 새벽에 떠나 갔다고 하여 다시 만나 보지 못했다니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군 사를 재촉하는 현리들이 곳곳에서 독촉해서, 이 마을에서 전일에 가지 않은 자들도 또한 모두 떠나갔으니, 필시 흉적들이 가까운 지경에 가득 차 있을 것이니 더욱 민망스럽기 한이 없다. 윤해는 오늘 꼭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제 형이 늦게 떠나갔기 때문에 아직 오지 못하는 것인가. 괴이한 일이다. 저녁에 남매의 종 덕룡이 누이의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어제 누이가 간절히 와서 근친하고자 하여 바 야흐로 떠나려 할 즈음에 들으니 적이 평택 경계에 와서 범한다 하므로 올 계획을 중지하고 종을 시켜 문안한다 하고, 만일 적의 소식이 조금 누그러지면 서쪽으로 갈 때 들러서 어머님께 뵙겠다고 했다. 적이 만일 가까운 곳을 침범한다면 윤해의 처가는 아직 진위에 머무르고 있으니 이곳으로 달려올 것인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으니 그 허실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중전은 금명간 마전군에 들러서 자고 서쪽으

로 간다고 하지만 역시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누이는 지금 적성 땅에 머무르고 있으니 여기에서 이틀 길이다. 전 별감 김런과 교생 김애일이 와서 보았는데, 그들은 본현의 모속유사로서 마을을 돌면서 권하건만 백성들이 많이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콩은 모두 응해서 내주는데, 쌀을 주는 자는 적다고 한다.

12일. 남매의 종 덕룡이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꿩 1마리, 송이 11개. 마른 문어 4조각, 천어 절인 것 1항아리, 감장 2사발 및 약과, 도라지 청과 조금을 보냈다. 또 누이가 서쪽으로 갈 때는 들러 가도록 정녕히 말해 보냈다. 문안 온 사 람과 집의 노비들을 시켜 어제 베어서 말린 보리를 뚜드리게 했더니 모두 4석 2두 가 나왔다. 처음에는 일찍 서리를 맞으면 말라서 여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 치 서리가 내릴 때가 지났어도 이곳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마르지 않아서 사 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근처의 보리는 모두 여물지 않았는데 이것은 많이 난 것 이라 한다. 김 별감 린이 허충과 함께 술과 안주를 가지고 받가로 와서 보고. 김언 보도 역시 함께 와서 종일 이야기하니, 자못 무료함이 위로가 된다. 해가 기울어서 야 각각 흩어져 돌아왔다. 윤해는 현으로부터 쫓아와서 같이 돌아왔다. 그편에 들 으니 제 형은 오늘 아침에 비로소 떠나갔다고 한다. 부석사의 중 법희가 짚신 5켤 레, 당귀 1묶음을 보내왔기에 짚신은 각각 나누어 신었다. 인아의 처는 병세가 전 일과는 같지 않으나 아직도 일어나 앉지 못하여 쾌해질 기약이 없으니 걱정스럽 다. 윤해가 올 때 윤겸이 외주 1필을 보냈다. 그편에 들으니 송인수의 삼촌 송상이 어제저녁에 들러서 자고 그길로 안변으로 갔다고 한다. 인수는 집안 식구를 데리 고 강릉으로 갔다고 한다. 박원형이 햅쌀 5되와 다래 1행담을 가져왔다.

13일. 아침에 집의 노비로 하여금 언신의 밭 조를 베어 깔게 했다. 옥동역의 종 중금의 밭을 병작하는 사람 박은종이 조 2석 2두를 실어 왔다. 일찍이 이미 감수해서 그 집에 두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현의 장무가 쌀 1석ㆍ좁쌀 1석ㆍ잣 5두ㆍ밀가루 2두ㆍ송이 백 개ㆍ백문석 1장을 관노들을 시켜 실어 왔다. 이는 곧 윤겸이 관에 있을 때 첩지를 주어 실어 보내게 했던 것이다. 그편에 들으니 적의 선봉이 수원 독성에 이르렀다가 도로 갔다고 하나 아직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변방 소식이 급해만 가서 이곳도 역시 편안히 있을 수가 없으니 마땅히 북면으로 피

해 들어갈 계획이다. 북면은 우마가 있는 곳이므로 현에 머물러서 장차 패자를 내어 우리 집 양곡을 먼저 북면으로 실어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서울을 지키지 못한 후에나 떠나서 들어갈 계획이다. 일기가 점점 추워지는데 상하가 옷이 얇아서 반드시 얼고 굶을 근심이 있겠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또 함열 한 집의 소식을 아직 얻어들을 수가 없고, 덕노도 또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필경 적 때문에 길이 막혀서 오지 못하는 것인가. 더욱 걱정스럽다. 덕노가 목화를 가져오기를 기다려서 옷을 지을 계획인데, 그 사생조차 알 수가 없고, 입고 있는 것은 다만두 벌의 얇은 옷일 뿐, 다시 입을 만한 것이 없으니 민망한들 어찌하랴. 사환 노릇하는 관노 춘금이는 채억복의 군량포를 감해 주고 겹옷 1벌을 입었는데, 이는 곧 윤겸이 있을 때 시켜서 한 일이다.

14일. 문안 온 사람에게 토산현의 거류(去留)와 중전의 행차가 지나갔는지의 여부를 들으려 하여 토산태수에게 윤해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 또 온 집안 노비들을 시켜 이인방의 밭 콩을 거두었다. 안협에 사는 이진선이란 자가 초여름에 영남 고언백 군상에 나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지나다가 들러서 말하기를, 올 때 길에서 윤겸의 일행을 만났더니 무사히 가더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적이 영남의 좌우도에 깔렸는데, 경주가 함락된 뒤에 저들도 역시 도망해 달아났다고 한다. 하삼도의 도체찰사는 원주에 도착했고, 경상좌도의 감병사도 또한 강원도 경계로 물러갔다고 한다. 이진선은 곧 부자의 사노 연수의 아들로서 일찍이 이미 곡식을 바치고 양민이 되었다. 소주 1잔을 대접해 보냈다. 김억수가 햇콩 1두를 가져왔다.

15일. 인아의 처는 수일 사이에 기분이 자못 좋아지고 음식도 또한 더 먹는다. 그러나 허리 아래를 움직이지 못해서 아직도 일어나 앉지 못한다. 하지만 이로부터 차도가 있을 것이니 몹시 기쁘다. 김억수가 일이 있어 나갔다가 지나는 길에 배50개를 가져왔다. 전업이 콩 1석을 가져왔다. 이는 곧 관가에 바칠 콩과 팥을 각각 1석을 봉해 두었더니, 윤겸이 전일에 떠나면서 우리 집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먼저콩을 가져온 것이요, 팥은 뒤에 마련해서 가져온다고 한다. 윤해의 집에 조 10두,콩 3두를 주어 보냈다. 전일에 피 1석ㆍ팥 5두ㆍ벼 4두ㆍ밭쌀 1두ㆍ백미 5되ㆍ말장 2두를 주어 노비들을 먹이게 했다. 온 집의 노비들을 시켜 김광헌의 밭 팥을 뽑

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다래 1행담을 가져왔는데 달고 시어서 먹을 만하다. 토산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토산태수의 편지를 보니, 내전은 오늘 삭녕에서 본현으로 올 것이요. 동궁도 또한 사당의 신위를 모시고 서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적의 소식은 지난번에 선봉이 도착하여 양성, 진위 경계에서 파유격(頻遊擊)과 서로 만났는데, 적이 우리나라 사람의 옷을 입고 섞여 있는 것을 중국 장수가 그 거짓임을 깨닫고 거의 모두 쳐 죽였기 때문에 적은 직산으로 물러가서 진을 쳤고, 한 떼는 죽산 길로 갔지만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했다.

16일. 날마다 서리가 내리고 아침에는 얼음이 어니,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다. 상하가 옷이 얇아서 말할 수가 없다. 문안 온 사람 및집안의 노비들을 시켜 전일에 거둔 이인방의 밭 팥을 뚜드리게 했더니 2석 4두가났다. 늦은 후에 친히 가 보았더니 곧 박문자의 집 앞이기 때문에 문자(文子)가 닭을 잡아 반찬을 장만하여 점심을 대접한다. 저녁에 남매가 적성으로부터 왔다.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이고, 겸해서 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의외에 서로 만나니 온 집안이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함께 어머님 방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파했다. 요새 적의 소식이 좀 늦추어졌기 때문에 아직 적성에 머물러 있다가 달려온 것이다.

17일. 남매는 머물러 있다. 온 집안 노비들을 시켜 전일에 못다 뽑은 팥을 뽑게 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저녁에 최 참봉의 온 집안 4남매가 왔는데, 상하 모두 25인과 소와 말 7마리를 데리고 왔으나 달리 머물 곳이 없으므로 우선 윤해의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 윤해의 장모는 우리 집에 와서 자게 했다. 상하 식사는 이곳에서는 시끄러워서 밥을 지을 수 없으므로 백미 1두 · 밭쌀 1두 및 찬거리를 윤해의 집으로 보내서 밥을 지어 대접하게 했다. 마침 장무가 보낸 술이 1병 있으므로 최 참봉에게 대접했다. 그에게 들으니 적이 와서 한강을 범하다가 물러갔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피란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이여기에 올 것인데 아직 몰려온다는 소식이 없으니 의심컨대 헛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울 밖으로 양주 연천 지경에는 피란하는 사람이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고모두 관서로 행하다가 마전, 적성, 양주, 연천 사이에 머무른다 하지만, 역시 자세

치 않다.

18일. 남매는 여기에 머물고 있다. 아침에 최 참봉을 청해다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여 역시 머물게 했다. 안협에 사는 연수가 고양이 새끼를 보냈는데 이는 곧 전일에 구했기 때문이다. 어제 최 판관이 찾아와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점심을 대접해 보냈다. 집의 노비 3명으로 하여금 전일에 끝내지 못한 팥을 다 뽑았다. 황촌에 사는 박춘이 머루 1행담을 가져왔다. 또 춘금이를 시켜 산포도 및 머루를 따서 남매에게 주었다. 이는 남 익위에게 주겠다고 간절히 구하기 때문이다. 마태 2두, 팥 1두를 최 참봉에게 보냈다.

19일. 닭 2마리를 잡아서 아침밥을 차려 최 참봉과 그 큰아들 진운을 청해다가 대접했다. 4남매에게 모두 대접하려 했으나 집에 그릇이 없어 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또 저녁 식사도 대접했다. 집의 노비들을 시켜서 언신의 밭 조를 거둬 묶어서 밭가에 쌓아 두게 했더니 모두 53묶음이라 한다. 옮겨서 보리를 거둬서 역시 밭 가운데에 쌓아 두었으니, 이는 곧 집 앞의 관전(官田)이다. 오후에 남매가 집 뒤 정자를 보고자 하기에 함께 올라가 보았다. 윤해의 양모 및 아이들도 모두 따라와서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도로 내려왔다.

20일. 이른 아침에 남매는 적성으로 돌아갔다. 떠날 때 어머님과 함께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는다. 팔십 노친을 다시 만난다는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인정이 여기에 이르면 어찌 슬픈 감회가 없으리오. 우리 형제는 10리 밖에까지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달리 줄 물건이 없어서 다만 적두 2두ㆍ피목 3두ㆍ닭 1마리ㆍ수박 큰 것 1개ㆍ하루 양식으로 백미 5되ㆍ밭쌀 5되ㆍ마태 1두를 주어 보냈다. 포도 정과 1사발도 역시 주었다. 지난 16일에 여기에 와서 사흘을 머무르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가는데, 다시 수일만 더 머물도록 만류했으나 적 소식이 어찌될지 알 수가 없고 또그 대기(大忌)가 임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돌아간다고 한다. 어제저녁에 민시중이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이 간 뒤로 아직 돌아온 자가 없어서 잘 갔는지의 여부를알지 못한다. 현 사람 전거원은 윤겸이 현에서 떠날 때 적의 소식을 탐지하기 위하여 서울로 보냈었는데, 어제 비로소 돌아왔으나 모든 소식을 모두 자세히 알 수가없고, 범연히 길에서 들은 말도 허실을 역시 알 수가 없다. 거원이 올 때 파산에 들

러 우계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우계도 역시 글을 내게로 보내왔다. 그 편 지로 해서 적병이 소사에 이르렀다는 것을 들었다. 중국 군사는 세 번 싸워서 세 번 다 이겨서 수백 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평안병사 이경준도 또한 강한 활로 5.6 백 명을 쏘아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적의 세력은 쇠하지 않고 양안성으로 흩어져 들어갔다가 이제 산 경계로 향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장수는 서울을 지킬 생각 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한 뜻이 없더니. 이제 들으니 중국 군사 수천 명이 수일 내에 서울로 올라오고 유 총병도 또한 대군을 거느리고 오래지 않아 도 착하려고 먼저 소식이 왔다고 한다. 다행이 중국 군사가 크게 모이면 적이 물러간 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대군이 일찍 오지 않아서 적이 만일 강으 로 오게 되면 강에는 오직 우리 군사만이 지키고 있을 뿐이라 하니 어찌 근심스럽 지 않으라. 연전 오늘은 곧 죽은 딸이 병을 얻던 날이다. 우연히 그 일을 추억하니 비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병으로 인해서 마침내 구원하지 못했으니. 어 찌 슬피 울지 않을 수 있으랴. 온 집안 어른과 젊은이가 모두 모였는데 너 홀로 먼 저 죽어서 나로 하여금 무궁하고 애통한 회포를 가지게 하니 더욱 슬픈 눈물이 옷 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아아, 슬프다. 문안 온 사람 및 온 집안사람을 시켜서 김광헌의 밭을 뚜드리게 했더니 적두 2석 8두가 나왔으니 이는 곧 사흘갈 이다. 팥씨 11두를 뿌렸으므로 처음 생각으로는 적어도 7, 8석에 떨어지지 않을 것 이라 했더니 수확한 것이 겨우 이것이니 한스럽지만 어찌하랴. 좋지 않은 밭에 꿩 과 사슴이 집을 짓고서 절반이나 먹었다고 한다. 올해 얻은 팥은 실지로 5석도 되 지 못하니 많은 식구가 반드시 세전에 이르기 전에 떨어질 것이니 걱정스럽다. 경 주인(京主人) 김근보가 현에서 와서 말하기를 오는 길에 우연히 들으니 어제 함 열[신응구]의 행차가 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으니 의심스 럽고 걱정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내 일 새벽에 인아로 하여금 현에 들어가 보게 할 생각이다. 인아의 처가 비로소 일어 나 들어왔으니 기쁘다.

<sup>5</sup> 경주인(京主人): 지방 관청과 중앙 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파견된 향리 (鄕吏), 이들은 그 지방의 공물, 입역(立役) 등의 일을 임시로 책임지고 대행(代行)함.

21일. 인아를 현에 보내서 그 누이를 만나 보게 하고, 문안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의 소 6마리를 빌려서 울타리나무 94차, 24바리를 실어 오게 했다. 최 판관이 찾아왔기에 최형록을 청해다가 함께 배나무 밑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언신이 탁주 1병을 가져왔기에 함께 마시다가 판관은 먼저 돌아가고, 나는 또 최형록과 같이 바둑을 두다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고을 사람이 와서 자방(신응구)의 편지를 전하는데 어제 현에 도착했다고 한다. 딸의 편지를 보니 일행이 무사히 여기에 왔는데, 중도에 자방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빨리 오지 못했다고 한다. 고대하던 나머지에 이제 이 소식을 들으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신상례도 또한 글을 보냈다. 그편에 들으니 허찬과 덕노는 남양 땅에 있는데, 목화를 더 얻어 가지고 온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 조만간 반드시 올 것이니 기쁘다. 저녁에 최정운이 이천에서 와서 말하기를, 고언백군관이 마침 이천에 이르러 말하기를, 중국 군사와 우리 군사가 합하여 적을 차현 밑에서 쳐서 9천 6백을 베어 죽이자 적은 여산 밑으로 물러가 도망쳤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한 나라의 경사스럽고 다행한 것이 어떠하랴. 그러나 아직 허실을 알 수가 없다

22일. 사람을 현에 보내서 자방에게 편지를 전했다. 피목 3두, 백미 5되를 최영록이 있는 집으로 보내고, 적두 1두는 따로 최정운의 부인에게 보냈다. 그는 곧 득원의 딸인 것이다. 윤해의 집에 전일에 피목 5두를 보냈고, 오늘은 적두 5두를 보냈다. 문안 온 사람 춘산이 지초 조금을 캐왔다. 이는 곧 전일에 휴가를 주어 캐오게한 것이다. 윤겸이 갈 때 산양역에 이르러 편지를 써서 김화 사람을 시켜서 보낸 것을 이제야 비로소 와서 전하는데 보니, 역비 중금의 둔전에 대한 일은 이제 은계찰방을 만나서 말했더니, 그는 말하기를, 찰방이 이미 대택에 바치라고 허락했으니 어찌 다시 추심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고, 즉시 패자를 만들어 주어 옥동역자 귀선에게 전하게 했다고 하더란다. 이에 즉시 언신으로 하여금 귀선에게 가서 말하게 했다.

23일. 온 집안 노비들로 하여금 녹두를 거둬 밭가에 쌓아 두게 했다. 그러나 일찍 서리가 내려서 영글지 않았으니 한스럽다. 김언보가 천어 40여 마리를 가져왔기 에 즉시 쪼개서 말리게 했다. 요새 찬이 없더니 어머님께 드릴 수 있으니 기쁘다. 어제저녁에 이 찰방 빈과 그 아우 분이 이천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피란하여 이천 현내에 와서 살았었다. 그들과 같이 잤다. 불의에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됨을 어 찌하랴.

24일. 이 찰방 형제는 하루를 머물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는데, 줄 물건이 없어 다만 피목 각각 2두, 적두 각 1두, 백미 1두, 감장 각 2사발, 꿀 1되를 주어 보냈다. 어제저녁에 함열 딸이 현에서 왔다. 고대하던 나머지에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으니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다만 죽은 딸이 자리에 없어서 서로 불러 앉아슬피 울기를 마지않는다. 들으니 적이 물러가 달아났기 때문에 윤겸은 모레쯤 관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또 딸이 데리고 온 종과 말이 돌아갈 때 마태 5두, 적두 2두, 백미 1두, 닭 1마리를 신상례에게 보냈다. 감장 3사발, 간장 2되도 역시 보냈다. 또 자방에게 편지를 보내서 상례를 모시고 내일 부석사로 모여서 이야기하기로 약속하고, 두부콩 3두를 부석사로 보냈다. 김억수가 팥 5두, 콩 3두를 가져왔다. 박은종이 뚜드린 조 5두, 박춘이 뚜드린 피 1석을 가져왔다. 이는 곧 전일 못다뚜드린 것이다. 최 참봉(최형록)이 온 집을 거느리고 소근전 김희의 집으로 옮겼다. 온 집안 노비 6명으로 하여금 고한필의 밭 콩 및 박문자의 밭 콩을 거둬서 밭 가운데에 쌓아 두게 했다. 진아가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 예쁘다.

25일. 딸이 내 방에 와서 잤다. 어두운 새벽에 깨서 서로 이야기하니 심회가 위로된다. 다만 진아가 요새 날이 차서 밤마다 오줌을 싸니 필시 아래가 냉한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것이 옷에 옮겨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더욱 그 슬프고 불쌍함이 자연히 천성에 근본한다는 것을 깨닫겠으니, 어찌 밖에서 빌려서 되겠는가. 자방의 우마가 많아서 먹이기가 어렵겠으므로 암말 1필을 끌어다가 먹였다. 식사후에 윤해와 부석사에 가는 길에 최형록을 찾아서 함께 가려고 했으나 마침 기운이 불편해서 함께 가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절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 자방이 상례를 모시고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간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각각 두어 잔씩 마시는데 중이 또 연한 두부를 내왔다. 두부가 마침 연하고 좋기 때문에 각각 20여 덩이를 먹었는데, 상례는 14개를 먹었다. 함께 자는데 현의 장무가 술 1병 : 닭 1마리 · 쌀 6되 · 밭쌀 1두 · 마태 3두를 보내서 이것으로 양식을 했다. 이는

어제 장무에게 보내도록 말했기 때문이다.

26일. 아침 식사를 하는데 종이 또 두부를 내왔다. 늦은 후에 자방은 상례를 모시고 돌아갔다. 나도 또한 윤해와 함께 돌아올 때 또 최형록이 있는 집에 들러서 이야기했다. 술을 가지고 오다가 영록과 마시려고 했으나 그가 기운이 편치 못해서마시지 못하고 김린을 불러서 술 2잔을 대접해 보냈다. 들으니 윤겸이 관으로 돌아왔는데 장수 이빈의 식구가 홍천 땅으로 피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윤겸이 돌아올 때 들어가 보고 양식과 찬을 얻어 주었다고 한다. 두 수씨가 모두 걸어서 다니더라고 하니 불쌍하다. 어제 무를 뽑았는데 겨우 4석인데, 김치를 담으려 해도독이 없으니 한스럽다. 김언보가 천어 40마리, 민시중이 백 마리를 가져왔다.

27일. 집안의 노비를 시켜 소근전의 콩 두 곳을 거두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인아가 가 보고 돌아왔다. 들으니 홍주에 사는 이광복의 처자가 난을 피해서 현내에와 있다고 하기에 집사람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고 또 적두 1부, 감장 1사발을 보냈다. 이 공은 그전 임진·계사년 간에 우리 식구가 피란해서 계당에 있을 때 구조의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뒤에 이는 병으로 죽고, 그 처자들이 유리하여 이곳에왔으니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인데 힘이 미치지 못하니 한스러우나 어찌하리오. 이는 곧 유격의 처족이다.

28일. 노비들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콩을 거두게 했다. 식사 후에 언명과 함께 물고기 많은 곳을 둘러보고 왔다. 최 판관이 글을 보내 문안하고 또 가지 씨를 보냈기에 답장을 써서 사례하고 파 씨를 보내 주었다. 저녁에 윤겸이 와서 근친하는데, 매 1마리를 가지고 왔다. 오는 길에 꿩 2마리를 잡아서 가져왔다.

29일. 아침 식사 전에 물고기 집을 찾아서 고기를 잡는데, 위아래에 그물을 펴고 잡은 것이 1동이이다. 날이 몹시 차지 않고 그물도 성기어서 작은 고기는 모두 빠져 달아났기 때문에 많이 잡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온양에 사는 이시열의 처남 이행이 난을 피해서 김화 땅에 와 있다가 와서 그 누이의 있는 곳을 묻기에 아침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최 판관(최응진), 김 주부(김명세) 및 최진운, 김린이 와서 보고 갔다. 관에서 물고기 8두를 얻었다 한다. 저녁에 자방의 종이 말을 가지고 왔는데, 들으니 자방이 어제 서울로 올라갈 때 그 처에게 편지를 보내어 즉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의 병환을 모시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돌아올 계획이라고 한다. 그 어머니가 학질을 중하게 앓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약을 묻는다고 한다. 민시중이 팥 3두를 가져왔다.

## 10월

1일. 윤겸이 현으로 돌아왔다. 윤해도 또한 따라갔다. 그길로 율전촌에 가서 가을 일을 감수할 것이다. 좀 늦어서 큰딸 진의 어미가 역시 돌아갔다. 적두 5두, 피목 5두. 감장과 닭 1마리를 주어 보냈다. 겨우 6일을 머물렀는데 부득이한 일로 돌아 가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그러나 그 시어머니 병이 나아 간다니 오는 12일 윤겸의 생일에 윤겸 처자와 함께 오라고 말해 보냈다. 어제 매를 놓아서 꿩 3마리를 잡았 는데, 오늘도 역시 여기에 머물러 있어 매를 놓았다가 내일 오라고 윤겸이 떠나갈 때 매사냥에게 일렀다. 오늘 잡은 것도 역시 3마리인데 1마리는 최형록에게 주었 다. 춘금이와 문안 온 사람을 시켜 중금의 밭 콩 및 김광수의 밭을 뚜드리게 했더 니 중금의 밭에서는 콩이 1석 5두요. 광수의 밭은 콩 4석, 적두 6두인데, 5두는 최 형록에게 주었다. 늦은 후에 내가 친히 타작하는 곳에 가서 보는데 형록도 역시 왔 고, 언명은 배 놓는 것을 보려고 역시 붕아와 함께 따라왔고, 인아는 그 누이를 모 시고 중도까지 가다가 돌아와서 종일 서로 밭가에서 이야기했다. 소근전에 사는 사람이 매를 얻었으므로 윤겸이 이를 잡아서 내게로 보냈다. 크기는 겨우 7촌 5푼 이지만 모양이 준일하니 필시 좋은 놈일 것이다. 즉시 억수에게 주어서 길들이라 고 했다. 또 민시중이 그물을 친 곳에서 이제 매 1마리가 몇 자가 넘는 것을 얻었 는데 성질이 몹시 길들여져서 사람을 보아도 놀라지 않으니. 생각건대 필시 일찍 이 사람에게 사로잡힌 지가 1, 2년이 아닌데 금년에는 산과 들에 놓았던 것이다. 역시 억수로 하여금 길들이게 했다.

2일. 안협의 연수가 와서 보고 천어 백여 마리를 가져왔으므로 꿩고기와 술을 대접했다. 물고기는 쪼개서 말리게 했다. 어제 콩 타작하는 곳에서 해가 저물고 마당이 멀어서 미처 쓸어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춘금이 등을 시켜 가서 흩어진 콩을 쓸어 모았더니 거의 1석이나 된다. 나도 또한 가 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

니 밤이 이미 깊었다. 저녁에 전풍이 현에서 매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윤겸이 편지하기를, 이 매는 전풍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매를 놓게 하고 찜을 나누라고 했다. 사견이 매를 놓아 꿩 2마리를 가져왔다. 언명과 인아가 걸어서 가 보고 왔다. 또 윤겸의 편지에 의하면, 들으니 적들은 모두 그 소굴로 돌아가고 양호에 모여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좌상이 두 도를 나누어서 거민들을 무휼하고 양곡을 마련해 준다고 한다. 유 헌납 몽인(夢寅)이 가족들을 데리고 지나다가 현내에서 자는데 5, 6일 동안 머물려 한다니 상하의 대접이 필경 어려울 것이라, 걱정스럽다. 윤해는 그 처남 최진운과 함께 오늘 새벽에 현에서 양식과 찬을 얻어 가지고 올라갔다한다.

3일. 어제부터 천기가 화창하고 따뜻해서 삼촌(三春)과 같다. 윤겸이 오늘 제수를 준비해 보낸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다. 윤해의 유아는 형용이 단정하고 눈이 맞으면 웃으니 예쁘다. 이름을 효립(孝立)이라고 했다. 윤성의 딸은 효립보다 겨우 10일 후에 낳았는데, 그 어미의 병으로 해서 남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실하지 못하나 그래도 때로 웃어 보인다. 이름을 후임(後任)이라고 지었다.

4일. 현리가 제물을 가지고 왔다. 어제 늦게 떠나서 중도에서 자고 이제 비로소 도착했다고 한다. 잣 5되·개암 3되·꿀 3되·기름 1되·석이 1두·소금 1두를 보내왔다. 즉시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다. 들으니 한효중 3형제가 가족을 데리고 와서현내에 임시로 있다니 대접을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걱정스럽다. 내일은 곧조부 기일이다. 딸들로 하여금 제물을 준비하게 했다. 관에서 물고기를 잡아 5두를 얻었는데, 그중 2두는 윤겸의 지시에 따라 여기에 보내왔다. 저녁에 딸의 계집 종 덕개가 왔는데, 딸이 명주를 짜 달라고 보낸 것이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구제할 길이 없으니 몹시 민망하다고 했다. 전업이 그물로 꿩을잡아 왔는데 보니 9치가 넘는다.

5일. 나는 어제부터 감기에 걸려 기운이 불편해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언명이 인아와 함께 지냈다. 종일 불편해서 혹 누웠다 혹 앉았다 하면서 음식이 아주 감해지니 걱정스럽다.

6일. 이른 아침에 물고기 두어 말을 얻었는데 모두 커서 전일에 잡았던 것이 아니 다. 그중에 빙어는 크기가 청어만 한 것이 21마리나 된다. 회를 쳐서 먹으려 했으 나 계자가 없고 또 술이 없어서 먹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모두 쪼개서 말리게 하고 그 나머지 큰 것은 구워 먹었다. 어제 언명이 염광필의 밭 타작하는 데 가 보았더 니 피 2석 7두가 났다고 한다. 이는 곧 역비 중금의 밭이다. 종일 기운이 불편해서 문밖에 나가지 않고 문을 닫고 홀로 누워서 음식을 전혀 피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7일. 불편한 증세가 오늘 밤에는 더욱 심해서 사지가 시고 아프며, 허리와 어깨도 역시 아파서 새벽까지 뒹굴면서 혹 땀 기운이 있으면서 크게 나지는 않더니 입이 쓰고 마실 것이 생각나더니 아침이 되자 좀 덜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종일 방 안에 누워서 쉬고 문을 닫고 열지 않았다. 어두운 뒤에 이천(李蔵)이 이천에서 와서 밤 이 깊도록 이야기하니 자못 무료하던 것이 위로가 된다. 밖의 방에서 자게 했다. 그에게 들으니 이 판결사 정호 영공이 난을 피하여 양현 땅에 와 있다가 세상을 떠 났다 하니 애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영공은 인족으로서 소시부터 관동집에서 같 이 여러 해 동안 거처해서 정의가 몹시 두터운 터다. 연전 여름에 내가 마침 임천 에서 그가 있는 은진 땅으로 찾아갔더니 내 손을 이끌고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다 가 작별할 때 나에게 이르기를, 늙은 병이 날로 길어 가서 다음날 서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하고 더욱 몹시 울었는데. 어찌 이 말이 영 영 유명을 따로 할 줄 알았으리오. 더욱 몹시 슬프다. 문안 온 사람들로 하여금 울. 타리를 만들게 했으나 나무가 모자라서 앞쪽은 끝내지 못했다.

8일. 이천이 현으로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윤겸과 함열 딸의 집에 보내고, 빙어 큰 것 10마리를 골라서 두 곳에 나누어 보내고, 피목 2두는 또한 이천에게 주었다. 고기 집을 담가 고기를 잡는데 두 집이 모두 비어서 1마리도 얻지 못했으니 우습다. 소 2마리를 가지고 나무를 실어 왔다. 어두운 뒤에 현에서 문안하는 사람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으나 다만 자방의 어머니의 병이 더하다고 하니 몹시 근심을 더해 준다. 청주 1병ㆍ꿩 1마리ㆍ약과ㆍ유병을 보내왔으므로 즉시 어머님께 드렸다. 근일 어머님께서 감기로 기운이 편안치 않으시어 식사 드시는 것이 몹시 감했으니 근심스럽고 민망하다. 또 들으니 피란 온 손님들이 요새 궁한 것을

구해 달라 하여 혹은 매를 요구하여 시끄럽기가 한이 없는데 조금도 도외줄 길이 없다고 하니 걱정이다. 인아의 처의 계집종 은개의 남편 수이(守伊)가 봉산에서 왔는데, 그 상전을 모시고 난을 피하여 봉산 땅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상전의 편지를 갖지 않았으니 필시 도망 온 것이다.

9일. 편지를 써서 현 사람에게 주어 도로 보냈다. 언신으로 하여금 북면에 가서 좁쌀을 실어 오게 했다. 문안 온 사람으로 하여금 울타리 앞면을 만들게 했다. 그러나 나무가 많이 모자라서 엉성한 데가 많으니 한스럽다. 윤겸이 내가 편치 못하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문안했으나 이미 쾌차하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즉시 답장을 써서 올려 보냈다. 그편에 들으니 자방이 어제저녁에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 병세가 몹시 위독하고 또 부기(浮氣)까지 있다고 하니 구할 수 없을 것이라, 몹시 걱정스럽다. 꿩 2마리ㆍ꿀 2되ㆍ포도 정과 및 배 10여 개ㆍ백미 3두를보내왔다. 지난밤 꿈이 몹시 번거롭고 길하지 못하다.

10일. 어머님 기후가 요새 감기로 인해서 아직도 쾌복하지 못하시고 식사 드시는 것이 줄었으니 근심스럽고 민망하기 끝이 없다. 나는 이제 비로소 쾌차하다. 원적사 수승이 와서 짚신 1, 망혜 3켤레를 가져왔는데, 이는 곧 관혜로 바치는 것이다. 전풍이 매를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말하기를, 길들이기 시작한 지가 이미 3, 4일이라 한다.

11일. 현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12일에 도사의 일행이 도착하여서 아직 근친을 오지 못했는데, 도사가 지나간 뒤에 14일 사이에 와서 근친하겠다 한다. 지난 7월 내 생일에 도사가 여기에 왔을 때 청해 오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또 이와 같으니, 매양 온 집안에서 바라던 것을 소연히 기쁘지 않게 해 주는 것은 모두 도사의 행차에 인연한 것이니 우습다. 소갈비 반 짝, 고기 1덩이를 보냈는데 마침 저녁 식사 때에 구워서 어머님께 드렸다. 이는 곧 한 생원 효중이 이 현에 피해와 있다가 양식을 얻으려고 소를 잡았기에 사서 보낸 것이라고 한다.

12일. 곧 윤겸의 생일이다. 그러나 도사의 행차 때문에 와서 근친하지 못하니 한스럽다. 지난밤에 눈이 내려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산천이 모두 흰데, 아직도 쾌하게 개지 않고 늦은 후에 눈비가 종일 뿌려서 길이 질어 다닐 수가 없다. 현리가 편

지를 가지고 와서 보니, 처음에 어제 여기에 와서 자고 그길로 옥동에 가서 도사의 행차를 맞을까 했더니 불의에 도사가 이미 옥동에 이르러 유숙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배행해서 관으로 돌아갔다 한다. 생방어 2마리·생은어 25마리·생전복 2개·생문어 반 짝이 마침 아침 식사 때 이르러서 방어를 구워 먹고, 현리에게도 식사를 대접하고 답장을 써서 도로 보냈다. 황촌에 사는 박춘이 삶은 닭 1마리·청주1그릇을 가져왔다. 새벽에 집사람이 꿈에 죽은 딸을 보았다면서 일어나 앉아 슬피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슬프다. 나도 또한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현리가 오는 데에 신상례와 자방이 편지를 보내 물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내고 말린 천어 30마리를 상례에게 보냈다.

13일. 관의 둔전에서 소출한 콩 4석 2두, 좁쌀 1석 6두를 가져왔기에 콩 1석은 윤해의 집에 주었다. 언신이 북면의 좁쌀 1석을 가져왔다. 억수가 길들이는 매는 수일 내로 놓아서 꿩을 잡을 것인데, 성질이 본래 유순하고 거역하지 않는다.

14일. 전풍이 일이 있어 현에 간다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권 좌수 유년이 찾아와서 술 1병·닭 1마리·계란 5개·배 8개·꿀 2되·목과 1두를 가져왔기에 큰 잔으로 술 다섯을 대접해 보냈다. 춘금이 등으로 하여금 토옥을 해일케 하고, 또 김장광을 만들었다. 안협에 사는 연수가 와서 보고 천어 90여 마리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윤해의 처남 최정운이 해주로부터 왔는데, 이편에 집 편지를 윤해의 집에 보냈다고 했으나 길이 바빠서 만나 보지 못하고, 다만 들으니 그 집은잘 있다고 한다. 소식을 듣지 못한 지가 이미 반년이나 되었기에 이 편에 소식을얻어들을까 했더니 이번에도 역시 듣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또 들으니 창평수 백유항 부자가 적에게 잡혀 갔다고 하는데, 그는 곧 최흥운의 장인이니 불쌍하다. 처음에 듣기에는 노령 이하는 적의 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니 이제 다시 들으니 광주·나주 여러 고을이 모두 분탕질을 당하여 적의 소굴이 되고 장차 오래 있을 계획을 한다니, 영암 임매(林妹)의 집도 필시 면치 못했을 것이나, 어디를 떠도는지 알 길이 없다. 생각건대 이미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을 것이나 어찌 능히오래도록 근심이 없으리오. 민망스럽고 걱정되기 끝이 없다. 콩 17두를 박언방이꾸어 갔다. 그 집 콩은 아직 타작을 하지 않았는데 환상곡을 독촉하기 때문에 꾸어

간 것이다. 김억수가 작은 매를 저녁 무렵에 비로소 놓았는데 까투리 1마리를 잡아 왔다. 세속에 이른바 명령이다.

15일. 내일은 곧 증조의 기일이다.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지만 집에 반찬 이 없어서 어육으로만 지낼 계획이다. 김언보가 현에서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 니 내일 마땅히 와서 화친할 것인데, 자방과 신대흥(신괄)도 모두 와 본다고 한다. 생연어 반 짝ㆍ절인 은구어 30마리ㆍ생전복 30개. 대구 2마리를 보내왔기에. 언 보에게 술 1그릇을 대접하고 또 은구어 3마리를 주었다. 짐을 지고 왔기 때문이 다. 한 생원 효중이 글을 보내 물었는데, 신대흥도 역시 자방의 집에 와 있다고 한 다. 최 참봉(최형록)이 소금 1두 · 조기 1묶음 · 민어 반 짝 · 대합 3개를 보냈다. 이 는 곧 그 아들이 어제 해서에서 왔기 때문에 얻어 온 것이다. 즉시 답장을 하고 은 순 5마리를 보냈다. 어두울 무렵 민시중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 니 내일 와서 근친할 것인데. 자방도 또한 같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들으니 자방 의 어머니가 날마다 학질을 앓아 조금도 가감이 없고 다만 죽과 미음만을 마시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역시 임의로 못하며, 입이 쓰고 생각이 번다하여 증세가 위태 롭고 그 위에 또 부기까지 있다니 걱정스럽다. 작은 매를 놓아 암꿩 2마리를 잡았 다. 능히 날고 잘 잡으니 비록 적어도 그 큰 놈을 대적할 만하니 기쁜 일이다. 시중 이 올 때 꿩 4마리·좋은 백미 3두·참기름 1두·법유 2되·양색 실과·석이 등 물건을 보내왔다.

16일. 날이 밝자 아우 및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밥·국·떡·면·삼색 실과·포·식혜·삼색탕·오색 어육 구이로 잔을 올렸을 뿐이다. 전업이 관의 콩과팥 각각 1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곧 윤겸의 명령이다. 콩은 전일에 이미 가져왔고팥은 이제 비로소 가져왔다. 전 토산수 이희서가 찾아왔다. 곧 소년 때 서로 알던친구이다. 전에 토산태수로 있다가 파면되어 안협으로 가는 김에 찾아 온 것이다. 점심을 대접하고 조용히 옛이야기를 하다가 최 판관 중운의 집으로 갔다. 그는 곧중은의 매부인데 내일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 작은 매가 꿩 2마리를 잡았는데 하나는 수컷이다. 수컷을 보면 가지 못하더니 이제 비로소 잡으니 기쁘다.

17일. 이른 아침에 전풍이 현에서 왔는데 편지를 보니 오늘 자방과 함께 온다고 한

다. 백미 5두 · 꿩 2마리 · 말린 물고기 10마리 · 소금 2두를 보내왔다. 삼 2배도 역시 보냈다. 이것은 의아(義兒)의 것이어서 즉시 의아에게 주었다. 이희서가 최중운의 집에서 돌아왔기에 점심을 대접하고 꿩 1마리를 주어 안협으로 가게 했다. 오후에 현리가 왔는데, 오늘 꼭 와서 근친하려 했는데, 마침 독운어사 유공진이 내일마땅히 현에 온다고 해서 오지 못한다고 했으니 한스럽다. 생방어 반 짝을 보내왔기로 즉시 구워서 아우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그러나 자방의 어머니 병세가 날로 점점 더해 가더니 이제는 이질의 증세가 있다니 구제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몹시 걱정스럽다. 자방도 역시 이 때문에 오지 못한다. 작은 매가 오늘도 또한 꿩 1마리를 잡았으나 꿩을 잡아 가지고 물에 떨어져서 몸이 모두 젖었기때문에 다시는 날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돌아왔으니, 이는 몸이 얼까 걱정해서이다. 관의 매가 잡은 꿩은 보냈고, 작은 매가 잡은 꿩은 즉시 도로 억수에게 주어 매에게 먹이게 했다. 진의 어머니께 구운 꿩 1마리를 싸서 보냈다. 만일 날것이 변하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구워 보내서 다 먹도록 했다.

18일. 날씨가 너무 차서 견딜 수가 없다. 문안 온 사람 및 춘금이 등 5명을 시켜서 나무를 베게 했으나 날씨가 차고 해가 짧아서 많이 베지 못했다. 문안 온 사람도 역시 많이 베어 오지 않았으니 한스럽다. 작은 매가 꿩 2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는 억수에게 도로 주었다. 최형록이 생은어 20마리를 보내왔다.

19일. 작은 매가 꿩 2마리를 잡았다. 저녁에 윤겸이 왔다. 처음에는 어서(유공진)가 현으로 올 것이므로 수일 안으로는 반드시 오지 못할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들으니 어사가 철원에서 당천 땅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근친 온 것이라 한다. 자방은 그 어머니가 병으로 괴롭기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다고 한다. 백미 5두 · 좋은 술 1병을 가지고 왔다. 신상례는 내일 오고자 한다고 했다.

20일. 최 판관(최응진) 및 최 참봉(최형록)을 청했더니 참봉은 기일이어서 오지 못하니 한스럽다. 저녁에 상례가 왔기에 저녁 식사를 대접한 뒤에 술자리를 마련했더니 관에서 장무가 밖에서 과일과 술안주를 갖추어 와서 각자 술을 권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파했다. 현에 사는 종손이 닭 2마리 · 목미 2두를 가져왔기에 술과 밥을 대접했다. 작은 매가 꿩 1마리를 잡았는데, 풍설이 심해서 다시 날리지 않았다.

조인손·정세당으로 하여금 천어를 잡게 하여 백여 마리를 얻었다. 추워서 더 잡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21일. 신상례는 이른 식사 후에 돌아갔는데 꿩 1마리를 주었다. 최 판관도 역시 따라갔다. 다만 어른이 멀리 왔는데 마침 날씨가 차서 오고 가는데 고생이 많았을 것이니 미안하다. 오후에 작은 매를 앞산에 날려서 꿩 1마리를 잡은 후에 다시 날렸더니 매가 도망해서 찾아도 얻지 못했다. 날은 이미 저물어 매를 찾던 사람은 모두돌아왔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꿩 12마리를 잡은 후에 잃었으니 내일 얻지 못하면 아주 잃는 것이다.

22일. 윤겸은 이른 식사 후에 현으로 돌아갔다. 매 찾는 일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보내서 산을 모두 찾았으나 아침 식사 전까지 찾지 못했으니 필시 멀리 딴 지경으로 간 것이니 한스럽다. 식사 후에 또 춘금이 등으로 하여금 다시 가서 찾게 했다. 대장장이 춘복이 빙어 큰 것 10여 마리를 가져왔기에 6마리는 함열 딸에게 보내도록 윤겸이 돌아가는 편에 보냈다. 잃은 매는 끝내 얻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최정운이 와서 보았다.

23일. 언명이 마을 속의 양조군 13인을 청해서 와서 술을 마시게 했다. 삼과상·삼색탕·대행과, 술 6대접을 주었는데, 사람마다 각각 콩 1두·조 2두·팥 3두·도합 콩 13두·조 26두·팥 39두를 실어 왔다. 억수의 작은 매가 저녁 무렵에 앞산소나무에 와 앉아 있는 것을 전풍이 좁쌀 운반하는 일로 들에 나갔다가 보고 와서알리기에 즉시 억수 등으로 하여금 산닭을 가지고 가서 부르게 했더니, 2일 동안 꿩을 잡아 배부르도록 먹었기 때문에 보고도 돌아다보지도 않는다. 이에 밤이 깊기를 기다려서 불을 밝히고 목을 매어 잡아 왔으니 기쁘다. 그러나 몹시 살쪄서 길들이기 어려우니 5, 6일 안으로는 형세가 날릴 수 없다.

24일. 김억수가 환상곡 바치는 일로 곡식을 싣고 현에 들어간다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작은 매는 춘금이로 하여금 어깨에 올려놓게 했으나 꿩을 보고서도 돌아 다보지도 않으니, 수일 동안 야숙하면서 꿩을 잡아 배불리 먹어 몹시 살쪘기 때문 이다.

25일. 지난밤에 큰 눈이 내리더니 아침도 오히려 개지 않아 거의 반 자가 넘는다.

만일 종일 개지 않으면 한 자가 넘을 것이다. 거둔 조와 콩을 받가에 쌓아 두고서 요새 일이 많아서 미처 실어 오지 못하다가 이제 비와 눈을 만나니 실어 올 수가 없어 걱정이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나무도 역시 베어 오기가 어려우니 만일 오래 녹지 않으면 상하의 아침저녁 밥 짓는데 쓰는 나무 이외에 방에 땔 데도 많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26일.** 눈 내린 후에 일기가 갑절이나 더 춥다. 북면의 품관 권수가 와서 보므로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27일. 바람이 몹시 세게 분다. 아침 식사 전에 김억수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의 글을 보니 잘 있다고 했고 자방의 어머니 병은 좀 덜하다고 했으니 기쁘다. 그러나 들으니 중국 군사의 양식이 떨어졌는데, 대군이 또한 오래지 않아서 올 터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양 경리 미안한 말을 많이 해서 온 조정이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한다. 나랏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걱정스러워 그 종말이 어찌될지 모르겠다. 억수 오는 데에 생문어 반 짝ㆍ절인 전복 40개ㆍ은순어 50개를 보내왔다. 어머님 공양할 반찬이 장차 떨어져 가는 터에 지금 얻으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오후에 현에서 사람이 급히 와서 글을 주기에 보니 자방의 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놀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초상의 모든 일은 윤겸이 담당하겠는데, 고을은 쇠잔하고 힘이 없어서 필경 뜻과 같지 못할 것이며, 우리 집에서도 역시 조금도 주선할 것이 없는 형편이라 어찌하리오. 다만 스스로 슬퍼할 뿐이다. 자방은 본래 약질로서 여러 날 동안 어머니의 병환을 모시느라고 원기가 몹시 없어졌는데 이제 큰 변을 당하니 형세가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더욱 몹시 걱정스럽다. 아침에 좀 덜하다고 들었는데 부음이 저녁에 왔으니 노인의 병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내일 인아와 함께 가서 상사를 볼 작정이다.

28일. 이른 아침에 인아와 떠나서 중로에 최형록에게 들러 만나 본 뒤에 달려서 현에 도착하여 먼저 아내에 들어가 며느리와 두 손녀를 보니, 며느리가 나에게 만두와 꿩 다리를 대접한다. 조금 있다가 자방이 있는 집으로 가서 신상례에게 조상하고, 또 들어가서 자방 및 딸을 보았는데, 오늘 이미 소렴을 했는데, 윤겸이 치상을 했다고 한다. 어두울 무렵에 관아로 돌아오니 마침 한 생원 효중이 역시 와서 초상

을 보고 있는데, 마침 기일이기 때문에 상가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일을 주선 하고 있다. 이에 한 공 및 두 아이와 같이 잤다.

29일. 아침 식사 후에 상차에 가서 인사를 차렸다. 치관한 뒤에 입관하니 해가 이미 저녁때가 되었고 일을 마치니 밤이 이미 깊었다. 나는 인아와 먼저 돌아오고 윤경은 그대로 있다가 성빈한 뒤에 따라왔다. 또 한 공과 같이 잤다. 윤경의 처족 최육이 역시 난을 피해서 이천에 와 있다가 마침 들어와서 역시 같이 잤다. 상복은 이미 말라서 지었는데, 윤경이 준비한 것으로는 제 누이의 상복 감으로 베 1필 및 대소렴에 쓰는 베 2필이요, 그 나머지는 상가에서 스스로 준비했으며 우리 집에서 도 역시 자방이 입을 베옷과 진의 어미의 장의를 만들어서 저녁 무렵에 서촌에서 전인하여 가져왔다. 신대흥도 역시 연천에서 부음을 듣고 저녁 무렵에 왔다. 초상의 모든 일은 윤경이 모두 관에서 준비했는데, 다만 관의 힘이 쇠잔해서 능히 뜻과 같지 못하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리오. 그러나 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힘을 다해서 했다.

그믐날. 이른 아침에 두 아이와 상가에 가서 성복하는 것을 보고, 성복한 뒤에 자방 및 진의 어미를 보았는데, 진의 어미는 모양이 몹시 파리하고 자방도 역시 피로해 보이니 걱정스럽다. 늦은 후에 관아로 돌아와서 아침 식사는 최 및 두 아이와같이 먹었다. 큰 곰 1마리를 북면 사람이 잡아 왔는데, 다만 한 사람이 곰에게 해를 입어 즉시 죽었다고 하니 불쌍한 일이다. 오후에 상가에 가서 상례·신대흥과함께 이야기하는데, 소주 1병을 가지고 가서 같이 먹었다. 또 여막에 가서 상제를본 뒤에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진의 어미는 만나 보는 것이 불편해서 보지 않았으니 한스럽다.

## 11월

1일. 생각에는 서촌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윤겸이 억지로 머무르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무르고 먼저 옥춘만 보냈다. 그러나 아침부터 눈이 뿌리다가 비가 되었으니 필시 옷이 젖을 것이니 걱정이다. 곰의 발바닥을 구워서 두 아이와 같이 먹으니 그 맛이 아주 좋다. 또 잣죽과 소주 1산을 마시고, 또 진아를 불러다가 죽과 고

기를 먹였다. 아침 식사에는 관에서 두부를 준비하고, 상례·대흥을 청해다가 같이 먹었다. 처음에는 상례에게 고기를 권하려 했으나 상례는 고사하고 들지 않았다. 종일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하고 어두울 무렵에 각각 헤어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그치지 않으니 옥춘은 필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비로 인해서 상가에 가 보지 못했다.

2일. 아침 식사 전에 상례와 대흥에게 가 보았다. 대흥은 오늘 연천 집으로 돌아갈 터이므로 와서 작별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상제를 보고 또 진의 어미를 만나 한참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서촌으로 돌아오려 했더니 마침 바람이 몹시 거세고 해가 또 저물어서 형세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윤겸이 몹시 만류해 머물게 했다. 오후에 또 상가에 가서 상제와 진의 어미를 보고 관아로 돌아왔다. 들으니 관이 커서 자방의 옷과 진의 어미의 옷을 모두 넣었다 한다. 저녁에 영변의 문안 온 사람이 상례의 집에 왔는데 미처 만나 보기도 전에 온 집안이 애통했다.

3일. 아침 식사 전에 상제를 가 보고 또 진의 어미를 만나고 돌아왔다. 어제 한 생원 효중 형제가 와서 같이 잤다. 독운어사 유공진이 현에 왔는데, 윤겸이 밤을 타서 가 보고 밤이 깊은 뒤에 돌아왔다. 마침 식사 후에 인아와 함께 떠나서 부석사에 이르렀다. 일찍이 언명ㆍ경수와 함께 여기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으므로 경수의 집에 중을 보내서 내일 올라오라고 편지를 했더니 답장하기를, 마땅히 김린과 함께 내일 아침에 올라오겠다고 했다. 등불을 끄고 자리에 든 후에 언명이들어왔는데, 민시중 등과 함께 매를 가지고 와서 종일 날렸는데도 꿩 1마리도 얻지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해가 저물어서 왔다고 한다. 시중ㆍ억수ㆍ전풍 등도 각각 매를 가지고 왔다. 아침에 상례가 새우젓ㆍ알젓 및 조기를 보냈으니 곧 영변에서 보낸 물건이다. 윤겸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보냈다. 영변판관 박동렬은 상례의 사위이다 콩 3두를 가져와서 중으로 하여금 내일 두부를 만들게 했다.

4일. 아침에 두부를 먹는데, 우리 형제, 인아 및 경수 부자, 품관 김린이 같이 먹었다. 늦은 후에 여러 사람이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떠나오다가 오는 길에 동구에서 매를 날렸는데, 전풍과 민시중의 매는 이제 비로소 날려서 각각 꿩 1마리씩을 잡았고. 작은 꿩은 2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저녁때 꿩을 쫓는 놈이 힘을 내지 않아서 1

마리도 날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잡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어둘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꿩 1마리는 경수에게 주고, 전풍이 잡은 꿩은 전풍에게 주어서 매에게 먹이게 했다. 인아의 딸 후임이 중설이 난 것을 저물어서야 비로소 알아서 거의 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즉시 침으로 짼 뒤에 겨우 소생시켰다. 소리를 내어 우니 위태로울 뻔했다. 여기에 와서 들으니 부석사의 중들이 두부 1동이와 절병 2행담을 가져왔고, 전귀실은 국수와 술, 전업도 또한 술 2병 및 안주와 과일을 각각 가져왔다고 하는데 마침 내가 없어서 대접치 못했으니 한스럽다.

5일. 채억복이 잡았다는 매를 가져왔기에 보니, 모양이 비범하고 형체가 웅장하고 커서 1자가 넘어, 일찍이 보지 못하던 바로서 참으로 애완할 물건이다. 그러나 억복이란 자가 원망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하므로 여기에 머물러 둘 수가 없어서 관에바치게 했다. 관에서 매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패자를 발부하여 잡아 오게 했으니, 그가 필시 나에게 들은 까닭일 것이다. 김언보가 와서 보기에 곰의 고기를 대접하고 또 술을 큰 잔으로 하나를 주었다. 민시중도 역시 대접했다. 오늘 매를 날려서 전풍의 매는 2마리를 잡았고, 작은 매는 4마리를 잡았다. 시중의 매가 잡은 것은 도로 주었고, 전풍이 잡은 것도 역시 1마리를 주었다. 작은 매는 춘금이가 날렸기 때문에 모두 가져왔다. 언명에게와 윤해의 집에도 각각 1마리씩 보냈다. 후임은 아직도 쾌하지 않아 젖을 먹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6일. 언신 등을 우마 3마리를 끌고 북면에 가게 했다. 좁쌀을 실어 오게 하기 위해서다. 박언수가 매를 날려 꿩 3마리를 잡아 왔다. 채억복이 매를 가지고 왔기에 민시중의 매를 주었다. 어제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관에 바치라고 했지만, 김언보 등이 와서 여기 머물러 두게 해 달라고 간청하고, 억복도 또한 매를 가지고 와서 청하기 때문에 딴 매로 바꿔 준 것이다. 새벽에 집사람이 말하기를, 꿈에 죽은 딸의 일을 보았다면서 울기를 그치지 않는데 나도 또한 들으니 슬피 우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다. 인성이라는 것이 오래면 잊는 법인데, 이 딸의 죽음은 오랠수록 더욱 잊지 못하겠으니 어찌하랴. 한갓 스스로 슬프고 탄식할 뿐이다. 작은 매가 꿩 4마리를 잡았는데, 2마리는 도로 억수에게 주었다. 이 매는 몸이 비록 작으나 재주가 몹시 좋아서, 오늘 네 번 날려서 4마리를 얻어, 잘 날고 잘 잡으니

가위 작아도 큰 것만 하니 몹시 사랑스럽다. 전풍의 매가 잡은 3마리 중 1마리는 도로 주었다. 이 매도 익숙해지면 역시 재주가 좋겠다고 한다. 김담으로 하여금 문안 온 사람 4명을 시켜 나무를 베어 겨울을 지낼 땔감으로 하려 했다. 점심을 대접했다.

7일. 현리 무손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오늘 북면에 가서 좁쌀을 얻으려고 한다니 이는 곧 군량이 부족한 때문이다. 탄식스럽다. 곰의 기름 1두 · 곰의 포 60 조각을 보내왔기에 언명의 집에 포 10조각과 기름 1되 · 윤해의 집에 포 5조각 · 기름 1되를 나누어 보냈다. 통인 만세가 가는데 답장을 써서 현으로 보냈다. 작은 매가 꿩 11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는 억수에게 도로 주고, 전풍의 매는 세 번이나 날 렸어도 1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꿩을 쫓는 자가 없어서 많이 잡지 못했다 한다.

8일. 김담을 하여금 현내의 신함열(신응구)의 집에 보내는데, 마태 7되·녹두 5 되·김치 1항아리·숯 반섬 등 물건을 실어 보냈다. 관의 둔전에서 난 보리 1석을 사동이 가져왔으니 곧 관의 명령이다. 작은 매가 꿩 2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는 억수에게 도로 주었다. 전풍의 매도 1마리를 잡았다. 안악에 사는 계집종 복시의 남편 은광이 지난 1일에 신공을 가져왔는데, 세목 1필·목화 4개를 어머님께 바쳤다. 내가 마침 현아에 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주어 대접하기를 후하게 했다. 다만 마전에게서 일하여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또 마전의 매부 윤 진사중삼이 가족을 거느리고 그 집에 와 있어서 상하의 지공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사람을 보내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단 형세가 그렇지 못할 뿐이 아니라, 집에 종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다만 윤겸으로 하여금 윤 공에게 편지를 하여 어머님의 뜻을 말하게 했다. 또 안악태수에게 편지를 하여 그 집을 후하게 돌봐주라고 하고, 하루를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양식 1두 5되·감장 11되를 보내왔다. 어머님께서는 복시가 가져온 의외의 물건을 얻으시니 몹시 기쁘다. 즉시 그 포목으로 속에 입는 저고리를 짓게 했으니 더욱 기쁘다. 큰 매는 오늘부터 길들이기 시작했다.

9일. 이자미의 종 석수가 용인에서 매를 얻으려고 현에 왔다가 그 일로 여기에 왔

다. 관가에는 매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길들인 매로 주어야 한다. 본래 전풍의 매를 주어 보내려 했으나 인정에 몹시 어긋나는 일이니. 이제 바야흐로 길 들여서 재주가 있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주겠는가. 그러나 여기에 있는 오직 1마리 의 매는 남에게 주었고, 다만 억복에게서 바꾼 큰 매는 아직 길들이지 않아서 이달 안으로는 날릴 수가 없고. 오직 억수의 작은 매는 비록 날릴 수가 있지만 이미 시 중의 매와 서로 바꿨으니 이는 내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 아직 1마리도 날릴 만한 매가 없으니, 근일에 어머님께 드릴 찬 일이 걱정이다. 그러나 형세인데 어찌하랴. 윤겸이 전번에 영원으로 갈 때, 마침 자미의 부인이 여러 아들을 데리고 홍천 땅으 로 가는 것을 다행히 서로 만나서 이 일을 승낙했으므로 부득이 보낸 것이다. 그러 나 들으니 경여의 부인이 수원 농사로 옮겨 갔다고 해서 그 소식을 얻어듣기가 몹 시 어렵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아산 이시열도 필시 피란하는 걱정을 만났을 터인 데 어느 곳에 떠도는지 알지 못하겠다. 인천 정 사과댁 소식도 서로 듣지 못한 지 가 이제 여러 해가 되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묘연히 들을 수가 없으니 탄식스러우 나 어찌하랴, 작은 매가 꿩 3마리를 잡았는데, 자기가 2마리는 차지하고 1마리만 가져왔다. 전풍의 매는 11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는 도로 주었다. 박언수의 매가 잡 은 1마리도 역시 가져왔다. 전풍의 매는 장식한 것을 메고 장수댁 종에게 주었다. 이는 곧 그 사돈 이시증의 장인집 종이 장수댁 편지를 가지고 석수와 함께 와서 요 구하기 때문이다.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 부슬부슬 왔다. 김언신 등이 북면의 조를 싣고 왔는데 마침 날이 저물어서 돼 보지 못하고 받았다.

10일. 북면의 조를 다시 되어 본 뒤에 종들의 요(料)를 나누어 주고, 또 언명의 집에 2두, 윤해의 집에 3두와 팥 2두를 나누어 주었다. 좁쌀 4석 3두, 팥 5두를 실어왔다. 어제 비가 내린 후로 큰 바람이 불고 추워서 사람이 출입할 수가 없어서 석수 등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 또 바람 때문에 매도 날리지 못했다. 언명의 처와 붕아는 5일로부터 자최해서 먹는다. 어제저녁에 김담이 현에서 와서 신상례의 편지를 보니 발인은 19일로 정했다고 한다. 또 윤겸은 군량을 구하는 일로 북삼면으로 갔다고 한다. 한 생원 효중의 아내가 집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생은어 3두름을 보냈는데, 3일의 제사 때에 쓰게 되었으니 몹시 기쁘다. 윤겸이 북면으로 간 뒤

로는 관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

11일, 장수댁 종 석수가 매를 가지고 돌아갔다. 달리 보낼 물건이 없어서 곰의 포 5쪽 · 목미 1두 · 꿩 1마리 · 석이 4되 · 천어 · 식혜 조금 · 생은어 1두름을 보내고, 시윤에게 포 12쪽 등을 보냈다. 경여의 부인에게도 곰의 포 5쪽을 또한 보냈다. 윤 겸은 꿀 3되·잣 1두·백지 1묶음을 얻어 보냈다 한다. 지난밤에 표범이 사슴을 물 어 죽인 것을 마침 전풍이 보았는데. 여러 표범들이 다 먹어 버리고 가죽 조금만을 남겨 두었더라고 하니 필시 여러 표범들이 싸우다가 죽인 것일 게란다. 김담으로 하여금 콩 3두를 지고 원적사에 보내서 중을 시켜 두부를 만들어 오도록 했다. 12일. 최 판관이 사람을 보내서 묻고. 겸해서 제사 지내고 남은 흰 떡 1행담을 보냈 으니 깊이 그 후의에 감사한다. 수일 전에도 역시 떡을 보내고 안부를 물었었다. 억수의 매가 꿩 1마리를 잡아서 가져왔다. 박언수도 역시 꿩 2마리를 가져왔으니 내일 차례에 쓰련다. 저녁에 윤해가 왔다. 고대하던 끝에 이제 갑자기 왔으니 온 집안이 모두 기뻐하는 것을 어찌 다 말하랴. 다만 덕노의 간 곳을 알 수가 없고, 춘 기도 역시 나타나지 않는데, 전해 들리는 말에 괴산에서 장가를 들어 산다고 하니 몹시 밉살스럽다. 덕노는 만일 죽지 않았으면 필시 아주 달아나고 오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허찬도 역시 같이 갔으니 조만간 필시 얻어들을 길이 있을 것이다. 일 찍 들으니 영암 임경흠의 일가는 즉시 배를 타고 피해 가지 못하고 적이 가까이 왔 다는 것을 들은 뒤에 비로소 배에 올랐는데 바다 어구로 나가자 적의 배도 역시 바 다 어구로부터 몰려오고, 또 조수가 들어와서 육지로 오르지 못했다 한다. 그런 후 에는 간 곳과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하니 필시 죽은 것이라. 놀라고 가슴 아픔을 이길 수가 없다. 윤해가 서울에 갈 때 마침 민 참판 준 영공을 만나서 들은 말이 라 한다. 민의 사위는 곧 정자 임현으로서 경흠의 조카이다. 현도 역시 배를 타고 바다 어구에 이르렀다가 적을 만나서 재물을 모두 약탈당하고 겨우 몸만 살았는 데. 마침 딴 배를 얻어 타고 남포 땅에 와서 육지에 올라 이미 수원에 이르러 금명 간 서울로 들어갈 것이라 한다. 중국 군사가 남쪽으로 내려가 왕래하는 자들이 연 로의 민가에서 재물을 약탈해서 백성이 살 수가 없어. 낮이면 숲 속으로 도망해 숨

고, 밤에만 와서 자는데, 가재와 곡식은 모두 땅에 묻어 두었다 한다. 만일 단단히

갖추지 않으면 모두 파 간다고 한다. 윤해가 돌아올 때에도 방아 찧어 준비한 곡식과 말린 민어 2마리, 조개젓 등을 모두 빼앗겼다고 한다.

13일. 오늘은 곧 동지이다. 새벽에 아우와 제사를 지내고, 팥죽 2두를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밤에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음산하다. 결성에 사는 윤겸의 종금손이 마른 민어 1마리를 보내고, 집사람에게도 또한 1마리를 보냈다. 늦은 후에최 참봉이 와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같이 바둑을 두었는데,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날이 저물어서 그대로 잤다. 김린도 또한 찾아왔다. 현의 방자 춘세가 현으로 돌아가기에 진의 어미에게 두부 30모를 만들어 보내 주었다.

14일. 최 참봉은 아침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에 술 2잔을 대접해 보냈다. 아침 식사는 전업이 대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먹지 않고 갔다. 춘금이로 하여금 밭 가에 쌓아 두었던 콩을 동을 지어 실어 왔다. 늦은 후에 내가 친히 가서 보니 들쥐가 집을 짓고 모두 물어다가 그 집에 가득히 감추어 두어, 그것을 파내 보니 두어 말이 넘는다. 곳곳이 이러하니 손실된 것이 몹시 많다. 한스러우나 어찌하리오. 마침 해가 저물어서 미처 실어 오지 못했다.

**15일.** 아침에 채억복이 꿩 2마리를 가져왔다. 콩과 녹두를 실어 왔다. 요새 집사람이 학질 기미가 있는 것 같아 편안치 못한 증세가 많으니 걱정스럽다.

16일. 아침에 현에서 사람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북면에 무사히 갔다 왔고, 또한 남면에 가서 조를 얻고자 한다고 했다. 북면에서 얻은 것은 거의 백여 석이된다고 했다. 백미 5두·조미 10두·방어 반 짝·송어 1마리·흰 새우젓 2그릇·마른 은어 10두름·소주 3병이 마침 떨어졌을 때에 왔으니 기쁜 일이다. 언명 및 윤해의 집에 각각 쌀 1두·은어 1두름을 나누어 보냈다. 타작하는 날에 실어 온 황태 6두·적두 6두·녹두 5두·적태 1석 4두 중에서 동서 집에 각각 1두씩 보냈다. 생원 허열이 와 보았다. 전에는 비록 알지 못했으나 노비를 추심하는 일로 현에 왔다가 여기를 지나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어 자고 가고자 하므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이웃집에서 자게 했다. 장단 땅에 피란해 있다고 한다. 곧 허찬의 동족이다.

17일. 집사람의 병은 밤새 신음했는데 비록 크게 아프지는 않으나 기분이 자못 불 안하다고 하니 깊이 걱정된다. 오후에 현의 방자 연금이가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함열은 모레 발인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알린다고 한다. 이곳에서 기르는 소 2마리를 발인할 때 양식을 싣고 가고 싶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언신의 집에서 먹이는 소를 먼저 보냈다. 우리 소는 내일 내가 갈 때 끌고 갈 계획이다. 수철장이 장눌은동이 와서 보고 적두 16두·좌철 1벌을 가져왔기에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또 대구 1마리를 주어 그 후의에 보답했다. 억수의 작은 매는 그저께가지고 황촌에 가서 날렸더니 달아났고, 박언수의 매도 어제 또한 잃었는데 모두찾지 못했다고 하니 아깝다. 저녁에 현리가 또 왔기에 편지를 보니 함열가의 발인은 처음에 모레 하려고 했으나 그 집에서 서울에 간 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물렸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도 역시 정지했다.

18일. 어제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밤새 잠시 그치지 않더니 오늘 아침에 이르러서도 아직 내린다. 만일 이대로 얼면 밀보리가 반드시 모두 얼어 죽을 것이니 탄식스럽다.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으나 다만 냇물이 부풀어 다리가 모두 떠내려갔다.

19일. 김언보가 매를 가지고 와 보는데 이 매는 모양이 기이하고 등은 모두 희고, 몸은 비록 크지 않고 겨우 8치 남짓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좋은 재주가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팔기에 포목 1필 반을 바꿔서 길들이려 한다고 한다. 어제 비록 비가 내렸으나 일기가 몹시 춥지는 않다. 최 판관이 편지를 보내 물었다.

**20일.** 눈을 뿌린다. 김억수가 그 작은 매를 이천 사람이 잡아갔다는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찾아갔다.

21일. 억수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천 사람이 잃었다고 핑계 대고 주지 않더라고하니 밉살스럽다. 내일 현으로 보내서 윤겸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서 태수에게 편지를 하여 찾아 돌려오게 할 계획이다.

**22일.** 시중  $\cdot$  억수 등이 현에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억수는 잃은 매를 찾기 위해서이다.

23일. 어젯밤에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는 북풍이 심히 매섭고 일기가 몹시 차다. 올 겨울 추위가 오늘 같은 날이 없었다. 오후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함 열가의 발인은 27일로 정했다고 한다. 나는 마땅히 25일쯤 현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경이 꿩 3마리 · 말린 문어 3마리 · 대구 2마리 · 다시마 2동 · 조기 2마리 · 소어

2두름 · 배 30개 · 생문어 2조각 · 쇠고기 1당이 등과 소주 3병 · 청주 3병을 보냈다. 요새 반찬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 물건을 얻으니 어머님께 드릴 것이 걱정이 없어 몹시 기쁘다. 즉시 답장을 써서 온 사람에게 보내고, 술은 언명과 함께 두어 잔을 마셨다. 아침에 전풍이 현에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24일. 찬 기운이 몹시 혹독하다. 춘금이는 손을 앓고 담이는 옷이 얇아서 모두 나무를 베지 못하므로 일전에 문안 온 사람들을 시켜서 베어 오게 했다. 그러나 두사람 이외에는 모두 듣지 않으니 밉살스럽다. 저녁에 안손이 현에서 돌아왔는데들으니 함열(신응구) 발인은 27일로 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내일 윤해와 함께 가려는데, 다만 전일 다리가 떠내려가고 냇물이 반쯤 얼어서 사람이 쉽게 건너지 못한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딸이 말린 은어 7두름을 보냈고, 윤겸도 또한 꿩 2마리를 보내고, 제 어머니가 신을 신발도 만들어 보냈다.

25일. 식사 후에 윤해와 떠났으나 냇물의 얼음이 굳지 않아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겠으므로 언덕길을 돌아서 혹 걷기도 하고 혹 타기도 하면서 간신히 오다가 멀리 오지 못해서 얼음에 말이 넘어져서 나도 또한 떨어져 오른쪽 다리를 돌에 상하여 시리고 아프나 몹시 상하지는 않았다. 저물 때 부석사에 이르러 잤다. 소는 끌고 왔으나 얼음길에 갈 수가 없어서 못 가지고 갔다. 함열가가 발인할 때 이 소로수레를 끌고 가게 하려 했더니 이 때문에 되지 않으니, 생각건대 필시 이것을 믿고고대할 것이라. 몹시 걱정스럽다. 그러나 형편이 그러한 것을 어찌하랴.

26일. 이른 식사를 하는데 중이 두부를 만들어 내왔다.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이와 같으니 미안하다. 마침 지난밤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고갯길 얼음 비탈이 눈이 두텁게 덮였기 때문에 자빠질 염려가 없이 무사히 현에 도착하니, 한 생원 효중도 역시 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상가에 들어가고 바로 치전을 베풀었으니 이는 관에서 준비한 것이다. 면과 떡·포·식혜·삼색 실과뿐이다. 상가에서는 전혀 내소만 믿고 있으므로 바야흐로 걱정하는데 한 생원 효중의 집에 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소를 빌려 갔다. 저녁이 되어 관아로 돌아왔는데, 오래지 않아 평원수가 서촌에서 돌아왔다. 그는 어제 서촌으로 나를 찾아갔다가 마침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다만 집사람만 만나고 돌아왔다. 그는 집사람의 사촌인데

난리 후에 이제 만나 보니 기쁘고 위로되는 것을 어찌 다 말하랴. 고양 땅에 와 있다 한다. 관아 방에서 같이 자는데 한 생원도 또한 같이 잤다. 허찬과 덕노가 어제여기에 왔는데, 덕노는 바꾼 물건을 모두 잃었고, 심지어 말도 또한 양지의 농가에서 죽었다 하니, 비록 몹시 밉지만 어찌하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더니 죽지 않고살아서 돌아왔으니 한편 다행하다. 내일 발인할 때 사람이 적기 때문에 덕노로 하여금 따라가서 산소에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했다.

27일. 밝을 무렵에 발인했는데, 10여 리쯤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윤해와 허찬은 반쯤 가다가 돌아오고, 윤겸은 바로 철원까지 가서 호송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나는을 때 딸이 있는 집에 들렀다가 왔다. 평원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들었다. 발인에 관한 모든 일은 현에서 마련했으나 힘이 부족해서 하나도 뜻대로 하지 못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여기에서 철원까지는 이 현의 사람과 소가 맡고, 철원으로부터 연천까지는 철원에서 마땅히 맡아서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연천수가 마침 차원으로 관아에 없다니, 그 뒤의 일이 몹시 걱정된다. 다만 나와 두 아이가 밝을 무렵에 상가에 갔으나 상여가 이미 떠나서 마을 밖에 나가서 수레가 떠나기 전에 미쳐 가지 못했으니 몹시 한스럽다. 모두 하인들이 미처 밥을 내오지 못한 까닭이다. 평원수와 같이 잤다.

28일. 윤겸이 철원에서 관아로 돌아왔는데 무사히 떠나보내고 왔다. 철원수(윤선정)가 상하 전부에게 식사를 주었고, 또한 사람과 소도 내어 연천현에 도착했는데, 또 백미 3두에 쌀 5두 · 콩 5두를 주어서 함열이 그 처자가 있는 집에 보냈다. 오후에 관에서 증병을 내오고 또 1행담을 주기에 내가 친히 가지고 딸에게 가 보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녁에 관아로 돌아오니 신상례가 나에게 말린 은어 5두름을 준다. 또 평원과 같이 잤다.

29일. 오늘 떠나려 했으나 윤겸이 억지로 만류해서 머무르고 딸을 불러다가 둘러 앉아 종일 이야기했다. 오후에 이 찰방 빈이 이천에서 들어와서 역시 같이 잤다. 그는 제수를 얻어 가기 위해서다. 광주목사가 윤겸에게 사기 2죽을 주자, 윤겸은 역시 내 집에 사기 사발 8개와 접시 9개를 주었다. 이것을 구하려 한 지가 오래인 터라, 몹시 기쁘다. 오늘이 소한이다.

## 12월

1일. 이른 식사 후에 윤해 및 허찬과 함께 떠났다. 눈이 내려 종일 개지 않는다. 그러나 몹시 젖지는 않았다. 올 때 꿩 3마리와, 꿩고기 조금을 가지고 왔다. 달려서 서촌에 도착하니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와서 들으니 큰 매를 아직도 날리지 못해서 부득이 김업산(金業山)에게 길들이도록 보냈다 한다. 업산은 매 길들이는 법을 익히 알아서 자청해서 길들인다고 하기 때문이다. 김억수가 이천에서 돌아왔는데 매는 찾지 못했다 한다. 매를 잡아간 자를 가두었는데도 아직 바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또 도로 보내서 비록 매는 얻지 못하더라도 만일 매 값을 얻으면 받아오도록 태수 자제에게 윤해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여 내일 보낼 계획이다. 태수의 아들이 윤해와 동년이기 때문이다.

2일. 현 사람 전업, 김언보 등이 와서 보기에 술과 떡을 대접했다. 김업산이 또한 큰 매를 가지고 와서 매 먹이와 등유를 가지고 가기에 역시 술과 떡을 대접했다.

3일. 아침에 관인이 왔기에 편지를 보니 순찰사의 관자로 다시 윤겸으로 종사를 삼아 그 전령을 기다려 떠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야흐로 행구를 차리는데 관인이 몹시 적어서 데리고 갈 사람이 몹시 어려워 부득이 김언신을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일 밭주인들에게 술을 대접할 터인데 언신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머물러 두고 모레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이 몹시 추운데 윤겸의 행장이 쓸쓸하고 또 털옷이 없는데 먼 길을 가자니 반드시 어려울 걱정이 있다. 몹시 근심된다. 허찬은 김담을 데리고 토산에 갔는데, 토산수 허민이 찬의 동족이기 때문에 양식을 얻어 오기 위해서다.

4일. 올해 받을 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대접했다. 삼색탕과 삼색 실과와 면도 갖추었다. 그러나 9인 중에 7인만 와서 마시고 2인은 오지 않았다. 또 이웃 마을의 사환들을 불러서 역시 남은 술을 주었다. 관의 통인 만세가 현으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김억수가 이천에서 왔는데 잃은 작은 매는 부득이 딴 매로 바꿔왔는데 먼저 매보다 좀 큰데 바야흐로 길들여 날리고 있고 또 좋은 재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날려 본 뒤에라야 그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천수가 갇혀 있

는 사람을 독촉했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매로 바꿔 보낸 것이라 하니 미안하다. 저녁에 허찬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토산수가 중국 군사의 양식을 미처 실어 보내지 못한 일로 잡혀가서 겨우 얼굴만 보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하니 우스운 일이다. 신마전 홍점이 지난달에 파면되어 토산현 안에 와 있고, 권 생원 학도 역시 지난 늦은 가을에 임천에서 난을 피하여 여기에 와 있다가 마침 허찬과 만나서 편지를 보내서 나를 물었다. 권은 마침 신의 집에 모였다고 한다.

- 5일. 김언신이 편지를 가지고 현에 들어갔다. 언신 및 전업·박언수 등이 각각 꿩 1마리씩 가져왔다. 저녁에 정세당도 꿩 1마리를 가져왔다. 이는 곧 각 호에서 으레 바치는 것으로서 관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서 내게로 가져온 것이다. 1마리를 반으로 나누어 동서가에 보냈다.
- 6일. 박막동이 현에서 왔기에 윤겸의 편지를 보니 아직 순찰사의 전령이 없어서 아직 머무르면서 기다린다고 했고, 모레쯤 제 누이와 함께 와서 근친한다고 했다. 백미 3두, 소주 2병, 보릿가루 등을 보내왔다. 내가 하혈하는 것은 이제 반달에 이르렀는데도 끊이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 7일. 윤함이 해주에서 왔다. 고대하던 끝에 이제 갑자기 만나니 온 집안 상하가 기쁘고 위로되는 것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처자들도 모두 탈이 없다니 더욱 기쁘다. 해주에 사는 친가의 노비들에게서 공목 2필과 포목 2필을 받아 왔기에 즉시 어머님께 드렸다. 지난봄에 갈 때 패랭이 14개를 가지고 가더니 조기 17두름을 바꾸어가지고 왔다. 그 장모가 또 참깨 1두를 보냈다. 안협에 사는 이명중이란 자가 매를 놓아서 꿩 1마리를 잡아 왔다. 마침 윤함이 왔는데 줄 반찬이 없더니 즉시 이것을 구워서 먹이니 몹시 기쁘다. 온 집이 방 안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뒤에 자리에 들었다.
- 8일. 윤겸이 제 누이와 함께 왔다. 한 집 4남 2녀가 모두 여기에 모여서 장안에 둘러앉아 서로 이야기하다가 닭이 3홰를 운 뒤에 파하고 잤다. 여러 자녀들이 한곳에 모이니 가위 단란한 모임이라, 기쁘기는 하나 다만 막내딸이 홀로 먼저 죽었으니 지하에서라도 만일 아는 것이 있으면 넋이라도 생각건대 명명한 속에서 슬피울 것이다.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니 슬프고 눈물이 옷소매에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슬프다. 슬프다. 윤겸이 올 때 백미 3두 · 세미 3두 · 중미 10두 · 꿩 4마리 · 노루 다리 2짝 · 소주 5병 · 청주 6병 · 법주 2되 · 참기름 1되를 가지고 왔다. 즉시 언명과 함께 꿩을 구워 가지고 각각 1잔씩 마셨다. 박언수의 매가 잡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9일. 윤겸은 그대로 머물렀다. 최 판관 중운 및 최정운, 전 주부 김명세가 와서 만나고 같이 배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수철쟁이 장눌은동이 꿩 1마리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김업산이 큰 매를 길들여서 도로 가져왔다. 전일에 업산이란 자가 길들이기를 자원했는데 지금까지 반달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생기가 있으니, 이는 한갓 근일에 날리지 못할 뿐이 아니라, 파리하기가 심할때 매를 날려 보내야 하는 것이니, 필시 업산이란 자는 밤에 길들이지 못 하고 한갓 가져간 등유만 허비하고 그 매를 길들이기에 몹시 고생만 한다고 하기에, 즉시전풍에게 주어 길들이게 했다. 원적사의 중이 예에 의하여 관에 바치는 짚신 4켤레를 가져왔으니 곧 관에서 시키는 것이다.

10일. 윤겸이 관아로 돌아가는데 허찬도 역시 함께 갔다. 다듬은 명주 1필을 윤겸이 가지고 와서 제 어머니로 하여금 옷을 만들어 입게 했다. 어머님께는 새 옷 하나와 생마 1단을 역시 가져왔다. 전일에 어머님께서 구하셨기 때문이다.

11일. 윤함의 종과 말이 해서로 돌아가는데 꿀 9되·마른 은어 5묶음·문어 반짝·대구 1마리를 보냈다. 윤함이 역시 제 형에게 구해서 잣 1두·석이 1두·꿀 3 되를 역시 제 집에 보냈다. 양식과 콩은 역시 관에서 얻었고, 꿀은 지난가을에 사람들이 만일 와서 바치면 한 그릇에 담아 두어 간직한 지가 오래인데 이제 윤함의 처를 보내서 바꾸어 쓰도록 했다. 그런데 들으니 그곳에는 몹시 귀하다 하므로 수행해 두었다가 그 오기를 기다려서 준 것이다. 김억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군사가 일어난 지 이제 6년에 이르는데 흉적이 아직도 변경에 있어 중국 장수가 계속해 나오는데도 오히려 양식을 대고 민생도 또한 보존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가을에 양호가 분탕질을 당한 후에 경리와 제독이 대군을 거느리고 계속해 나와서모든 준비가 모두 해서와 관동에서 나왔으며, 두 경계의 관용의 말과 민부 및 개성에 사람을 내보내서 중국 장수를 지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또 대병이 장차 남쪽

으로 출정하고 대가가 또한 장차 원주ㆍ제천 두 고을로 거동하여 남쪽 군사를 응원한다고 하므로 호조를 나누어 홍천으로 가서 대궐에 이바지하는 물품도 역시 이도에서 나와야 하겠으므로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그 사는 것이 편안치 않아, 간 자는 돌아오지 않고 또 딴 역사로 나가서 비단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편이 또한 감내할 수가 없어 곳곳에서 도망해 흩어져서 열 집에 아홉은 비어었다. 그 위에 또 군량을 백 가지로 들추어내서 외로이 남은 쇠잔한 백성들이 흩어져 딴 곳으로 가서 잠시라도 보존하려 하니 그 형세가 또한 그러하다. 들으니 이천의 한 백성은 하루에 3가지 역사가 겹쳐 나와서 독촉하기를 몹시 급하게 하므로 그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한 몸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관역이 이와 같아서 그형세를 당할 수가 없지만, 만일 한번 죽으면 너는 편안할 것이라 하고, 즉시 그 아내로 하여금 술을 가져오게 하여 마시고 크게 취한 후에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하니이 말을 들으면 비참함을 이길 수가 없다. 인정이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는데 심지어 죽음을 참고 돌아보지 않으니 민생의 괴로움이 여기에서 더욱슬프다 하겠다.

12일. 덕노와 언신이 말 2필을 가지고 말린 은어를 바꿔 올 일로 안변에 가는데 수이 및 안손 등도 역시 함께 갔다. 정포 2필, 칠승목 반 필을 보냈다. 덕노 등은 함열의 짐 실은 말이 마침 와서 여기에서 기르기 때문에 빌려 보냈고, 언신은 관마를 가지고 갔다. 오늘 현에 가서 자고 양식과 마태를 얻어 가지고 간다고 한다. 포 1 필은 어머님께서 빌려 가지고 갔는데, 이것으로 곡식을 바꾸어 보태 쓸 계획이다. 22, 3일 안으로 돌아오도록 일러 보냈다.

13일. 들으니 소근전의 함정에 큰 범이 잡혔다 한다. 현리가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윤해의 종 춘기가 원주에 와 있는데 병으로 누워 있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을 시켜 말 2필에 목화 60여 근을 실어 보냈기 때문에 윤겸이 현리로 하여금 이리로 가져오게 한 것이다. 지난 초가을에 춘기가 삼척 땅 노비의 수공을 위해서 나갔다가 지금까지 오지 않기에 도망해 가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니 이제 동반해서 먼저 바꾼 물건과 두 말을 보냈으니 가위 상전에게 충성한다하겠다. 탄식하기를 마지않는다. 춘기는 그 병이 낫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14일. 김담이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갔다. 밤 꿈에 이 별좌 덕후가 보이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으니 슬픈 일이다.

15일. 말똥을 주워 모았다. 곧 납향이기 때문이다. 전풍이 기르는 매는 거의 길들 여서 날릴 만하나 콧병이 있어 날리지 못하니 한스럽다. 이는 필시 전일에 김업산이 가져갔을 때 비단 조심히 먹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밤에 관솔을 태워서 이때문에 병이 난 것이니 몹시 밉살스럽다.

16일. 이른 아침에 현에서 사람이 와서 꿩 4마리를 전하고, 채억복·박언수도 또한 각각 1마리씩을 가져왔기에 즉시 1마리는 윤해의 집에 보내서 모레 그 양조모의 기제 때 쓰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즉시 말리게 하여 정조 제사에 쓰도록 했다. 이웃 마을 사람들과 관에서 정해 준 송경의 풀 베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모두 감해 주었으면 하는 뜻을 말하기에 인정을 이기지 못하여 편지를 써서 관인이 돌아가는 편에 이러한 청을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므로 부득이 관에 편지를 했으나, 형편을 보아 좇을 수 있으면 좇을 것이요, 옳지 못하면 내 말로 해서 좇지 못할일을 억지로 쫓지 말라고 편지를 써 보냈다. 그러나 번다한 일이 많아서 비록 부자 사이라도 미안하다. 김업산을 불러서 매가 병난 까닭을 묻고, 가지고 가서 고치라고 했더니 불순한 말이 많으니 몹시 밉다. 도로 전풍에게 주고 요새 보아서 만일구제하지 못하겠으면 산에 날려 보낼 계획이다. 함열가의 중 춘억이 현에서 왔는데, 윤겸이 은어 50묶음ㆍ방어 반 짝ㆍ대구알ㆍ연어알 각각 조금씩을 보냈다. 요새 찬이 없어서 바야흐로 민망하던 차에 이 의외의 물건을 얻으니 몹시 기쁜 것을어째 다 말하랴. 윤해의 집에 4묶음, 언명의 집에 3묶음을 나누어 보내고 또한 계집중들에게 각각 5개씩 나누어 주었다.

17일. 바람 기운이 몹시 차서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는데 방도 역시 따뜻하지 않다. 마침 병에 있는 소주 2잔을 얻어서 언명과 각각 1잔씩을 마시니 가슴이 좀 따뜻하다. 최 참봉이 편지를 보내서 나를 청했으나 종과 말이 없어서 가지 못하니 서운하다. 들으니 그 집에 제사를 지낸 후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춘억이 현으로 돌아갔다가 그길로 서울로 간다기에 꿩 1마리를 상례에게 보내고 답장도 써서 역시 보냈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중미 5두 · 밭 쌀 5

두 · 꿩 2마리 및 침향색인데 다듬고 물들인 명주 옷감을 보내왔다. 이것은 윤겸이 제 어머니의 옷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해 보낸 것이다. 윤함이 현으로 들어갔다. 어제 제 형이 사람과 말을 보내서 청해 간 것이다. 진의 어미가 좌반을 만들어 윤함이 가는데 주어서 함열가에 전하게 했다. 이는 곧 그 종이 내일 서울에 가기때문이다. 전풍이 큰 매를 길들였으나 콧병으로 해서 새벽에 홰에서 내렸으니 비단 미울 뿐만 아니라, 수월 동안의 공력이 마침내 헛것이 되었으니 비록 탄식한들무엇하랴. 김업산이 속인 것이 몹시 밉살스럽다.

**19일.** 윤해 양조모의 기일이다. 윤해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소반에 가득히 보내와서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김언보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이는 곧 그매가 잡은 것이다.

20일. 밤 꿈에 완연히 권 판서를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했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지난해 이날 임천을 떠나서 도천사에 도착하여 잤는데, 죽은 딸의 병이 좀 덜해서 문밖에서 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왔고, 음식도 좀 더 먹으므로 온 집안 상하가 모두 기뻐하더니 신창에 이르자 다시 먼저 증세가 생겨서 마침내 구하지 못했으니 오늘을 돌이켜 생각하면 더욱 스스로 비통해서 슬피 울기를 마지않는다.

21일. 지난밤에 조그만 표범이 뒷마을 함정에 빠져서 여아들이 이를 듣고 모두 보고자 하므로 이를 실어 오게 해서 보니, 모양은 한 살짜리 개와 같았으니, 털이 벗겨진 늙은 표범이었다.

22일. 이른 아침에 전 영월태수 박희성의 아들 준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부모를 모시고 양주 땅에 왔는데 소금을 사려고 마침 이 현에 왔다가 와서 보는 것이라 한다. 그는 곧 처족이다. 술을 대접하고 마태 2두를 주었다. 오늘은 곧 진의 어미에 생일이어서 집사람이 송편을 만들어 같이 먹었다. 윤해도 또한 좁쌀떡을 쪄서 가져왔다. 김언신이 안변에서 왔는데 포 1필로 은어 3동을 바꿔다가 바친다. 처음에는 8, 9동은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더니 겨우 3동을 바꿨으니 계획한 일이 헛일이 되었은즉 탄식한들 무엇하랴. 덕노는 포 2필 반으로 미역 70동을 바꿔 왔는데, 바로 서울로 가서 포목을 바꿔 가지고 세전에 돌아온다고 한다. 패랭이 1개, 생대구 1마리를 바꿔 왔다. 이는 정조의 제사에 쓸 계획이다. 채억복이 꿩 2마리를

가져왔다. 그 매가 잡은 것이다.

23일. 아침에 현리가 왔는데 편지를 보니 윤겸이 이번에 독운차사원으로 금명간이천·안협을 순찰한 뒤에 그길로 와서 근친한다고 한다. 중미 10두·꿀 3되·법유 2되·참기름 1되·초 2되·소금 2두를 보내왔다. 김언보가 꿩 1마리를 가져왔기에 은어 1묶음을 주었다.

24일. 조인손이 관에 바칠 꿩 1마리를 이리로 가져왔다.

25일, 김언신으로 하여금 은어 40두름을 가지고 토산 장에 가서 좁쌀로 바꿔 오게 했다. 저녁에 윤함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정조에 쓸 제물을 가져왔다. 내일은 언 명이 윤해의 말을 빌려 가지고 돌아가려고 바야흐로 관인을 기다리는데. 관가에도 역시 사환이 없어서 여기에서 김언신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나 언신은 마침 토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김담과 춘금이는 옷이 얇고 홑 것이어서 추위에 멀 리 갈 수가 없으니. 형편이 못하여 제사 지낼 수 없다. 슬프고 탄식함을 이기지 못 하겠다. 여기에서 제수를 마련해 가지고 가서 제사 지낼 계획이다. 다만 전일에 허 찬이 갈 때 유격이 포 반 필과 실과 등 물건을 주어 보내서 주과(酒果)를 준비하여 묘하에 제사 지낸다고 했으니 이는 위로가 된다. 윤함이 오는데 윤겸이 그 종 세만 으로 하여금 밭 쌀 1석 · 꿩 7마리 · 청주 · 소주 각 1그릇 · 밀가루 5되 · 목미 1두 · 감장 3되 및 간장 등 물건을 보냈다. 포 반 필도 또한 보냈는데 이는 곧 서울에 갈 때 제사에 쓸 밥과 떡에 쓸 쌀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에 마 제독 [마귀]이 대군을 거느리고 먼저 영남으로 내려갔고, 양 경리도 8일에 따라 내려갔 고, 대가(大駕)도 역시 12일에 남쪽으로 거동하기로 날짜를 정했는데 형군문이 남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아직 멈추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일은 국가 존망에 관 계되는 일인데 하늘 뜻이 어떠한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들으니 대장이 떠날 때 태 백이 달로 들어왔다고 하니 이는 곧 흉적을 섬멸시킬 조집이라. 한 나라 신민의 경 행한 뜻이 어떻다 하랴. 기다려 볼 일이다. 김억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26일. 김 주부 명세가 와 보기에 소주 2잔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현의 통인 만세가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오는 그믐날 와서 근친한다 하고, 꿩 4마리·말린 여항어 4마리·꿀 5되를 보냈고, 또 녹피 버선을 보냈는데 제가 쓰던 것이다.

원적사의 중이 두부 36모를 보내왔다. 이는 곧 어제 콩을 보냈기 때문이다. 다만 너무 적으니 반은 훔쳐 먹은 것이다. 한 모가 겨우 어린애 주먹만 하니 밉살스럽다.

27일. 새벽부터 종일 눈이 내리니 만일 녹지 않으면 거의 반 자가 넘게 쌓이겠다. 김언신이 토산에서 왔는데, 은어 30묶음으로 겨우 팥 11두를 바꿔 가지고 왔다. 쌀은 바꿔 주겠다는 사람이 없고, 팥 1두에 은어 3묶음씩 바꿨다고 한 다. 일이 예산과 맞지 않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부석사 중이 두부 50여 모를 보내왔다. 이는 곧 전일에 콩 3두를 보낸 때문이다. 원적사에 비하면 두부가 많다.

28일. 원적사의 삼보승 사윤이 무 2두를 가져왔다. 마침 제사에 쓰려고 얻으려 할때에 가져왔으니 몹시 기쁘다.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왔기에 편지를 보니 윤겸이 과세할 물건을 보낸 것이다. 떡과 면 각 1고리·백미 3 두·참기름 1되·법유 3되·강정 1두·청주 10병·무 3두·파 4되·김치 1동이·침과 30개·도라지 6사발·제사에 쓸 노루 1마리·작 2되·개알 1되 5홉·호두알 3되·배 40개·토산물 등을 실어 왔기에 동서 집에 나누어 보내고, 또 종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우리 집에서도 역시 떡 3두를 만들고, 또 목말떡 3두 8되를 만들어 집안 노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윤겸은 내일 와서 근친한다 한다.

29일. 지난밤에 꿈이 몹시 나쁜데 글로 쓰면 도리어 길하다고 한다. 저녁에 윤겸이 와서 방 안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밤중이 지나서야 자리에 들었다. 올 때 중미 5두·감장 3되·간장 3두·청주 좋은 것 8병·중청주 11병·말린 꿩 4마리·산 꿩 12마리·말린 노루 반의 반 짝을 가져왔다. 꿩 2마리는 최 참봉의 집에 보내고, 1마리는 또한 윤해의 집에 보냈으니 제사에 쓰라고 하기 위해서다. 둔전의 콩 3석을 이 면의 색장이 가져왔으니 이는 관의 명령이다. 말린 은어 60두름을 김언신을 시켜 곡식으로 바꾸게 했더니 팥 17두, 콩 5두를 가져왔다. 쌀은 바꿀 사람이 없다고 한다. 김억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그 매가 잡은 것이다. 고한필도 역시 1마리를 바쳤다.

그믐날. 윤겸은 데리고 온 관인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제 집에 가서 과세하기 위해 서다. 오는 2일에 돌아오라고 일러 보냈다. 며느리도 역시 2일에 와서 근친한다고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한다. 억수가 꿩 1마리를 역시 가져왔다.



#### 무술일록 | 戊戌日錄

# 정월

1일. 날이 밝기 전에 아우 및 윤겸 3형제와 제사를 지냈다. 먼저 조고비에게 올리고, 다음으로 아버님께 올리고, 그 다음으로 죽전 숙부 내외분께 올리고, 그 뒤에 죽은 딸에게도 지냈다. 다만 집에 인마가 없어서 묘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럽다. 제물은 삼색 육탕·사색 어육구이 각 8, 9꽂이·포·혜·오색 실과·떡·면·반 경을 정하게 준비해서 지냈다. 지난해 오늘은 죽은 딸의 병이 중해서 아산 이시열의 집에 머물러 있었으니 그때의 일이 생각난다. 여러 자녀들은 모두 한방에 모여서 놀고 웃는데 홀로 이 딸만이 없으니 어찌 슬피 울지 않겠는가. 슬프고 슬프다. 늦은 후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보므로 술을 대접해 보냈다. 최 판관 중운과 최 참봉 경수 및 그 두 아들이 찾아왔기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녁 무렵에 각각 흩어졌다. 나는 과음해서 취해 누웠고 심지어 구토까지 했으니 우습다. 김언신이 꿩 2마리를 가져왔다. 저녁에 김린·허충이 왔기에 역시 술을 대접했다.

2일. 김언보가 꿩 1마리, 술 1병을 가져왔다. 역자(驛子) 이상(李尙)이 꿩 2마리, 권 농 고한필도 꿩 1마리를 가져왔기에 각각 술을 대접해 보냈다. 최진운 3형제가 와서 보기에 윤겸이 만두를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윤겸의 처가 왔는데, 서울에서 온 남매(남상문)의 편지를 보니, 영암 임 진사 경흠이 적의 손에 죽었다고 박 내승 동언에게 들었다고 하니 놀라워 슬픔을 이길 수 없다. 내 누이의 생사도 아직 얻어듣지 못했으나 경흠이 사실로 죽임을 당했으면 내 누이인들 어찌 홀로 죽음을 면했겠는가. 더욱 몹시 통곡할 일이다. 근일에 윤겸으로 하여금 민 참판 영공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임정자(林正字) 현(峴)에게 물어보게 할 계획이다. 현은 곧 경흠의 조카로서 한 읍에 같이 살고 있으니 반드시 자세히 들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온 집안이 모두 소복을 입었다. 신상례가 글을 보내 안부를 묻고, 또 새 책력 1권을 보냈다. 1일에 반혼해서 4일에 도착한다고 하기 때문에 딸은 내일 새벽에 가고자 한다. 한 달도 머물지 못하고 불의에 돌아가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랴.

3일. 윤겸이 독운차원으로 이른 아침에 이천현에 갔는데, 내일 돌아온다고 한다. 진의 어미도 또한 돌아가는데 인아가 모시고 가니 서글픈 회포를 이길 수 없다. 진 아는 눈앞에서 놀아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바야흐로 도탑더니 이제 갑자기 돌 아가니 더욱 회포에 잊을 수가 없다. 늦은 후에 일기가 좀 풀리니 반드시 잘 돌아 갔을 것이다. 오늘 신시(申時)에 수탉이 마당을 돌면서 곡식을 쪼아 먹다가 불의에 온몸을 높이 뛰어 뜰을 달리더니 조금 후에 죽었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몹시 괴이 한 일이다. 관의 매가 잡은 꿩 10마리를 가져왔다.

4일. 고한필의 처가 와서 보고 꿩 1마리를 바치므로 집사람이 만나 보고 떡을 대접해 보냈다. 윤해의 처가 절병 1행담을 만들어 가져왔다. 내일이 집사람 생일이기때문이다. 이것을 먼저 준비해 내오고 또 찹쌀술을 빚어서 내왔는데 그 달기가 꿀과 같아서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저녁에 윤겸이 이천에서 돌아오고, 어두워서 현에서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꿩 13마리・말린 꿩 큰 것 3마리・배 40개・ 갓 2되・호두알 1되・청주 9병・약과 90개・꿀약과 25개・얼음사과 1백 20조각・꿩식혜 4마리・떡과 면 각각 1고리・양색 강정 4되를 윤겸이 그 어머니 생일을 위해서 갖추어 가져왔다. 은개의 남편 수이가 내일 서울에 가기 때문에 편지를써서 남고성(남상문)의 집에 보냈다. 그러나 짐이 무거워서 한 가지 물건도 보내지못하니 한스럽다. 오래지 않아 사람을 보내겠기로 오늘은 아직 대강써서 보냈다. 5일. 아침 식사 전에 아버님 신주에 차례를 지내고 다음으로 죽은 딸의 영혼에 지내고 나서, 나머지는 최 참봉・최 판관에게 나누어 보내고, 또 윤겸이 데리고 온하인들과 이웃 마을에서 와 보는 자들에게 나누어 먹였다. 꿩 2마리는 윤해의 집에 보내고, 또 1마리는 아우의 집에 보내서 구워서 아이들에게 먹이게 했다. 이제도목정을 보니 이귀가 토산수(兎山倅)에 임명되었으니 위로가 된다.

6일. 들으니 이 도의 도사가 도망한 군사 붙잡는 일로 이 현에 왔다가 이제 옥동역을 지나 이천으로 향한다고 하므로 윤겸이 옥동으로 달려가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관아로 돌아간다고 한다. 아노들이 말을 가지고 왔다. 내일 윤겸의 처가 현으로돌아가기 때문이다. 들으니 남쪽으로 내려간 중국 장수가 왜의 일진을 깨쳤다 하는데, 아직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한 나라의 경사가 어떠한가. 이로부터 그 소굴

을 모두 소탕하고 요망한 기운을 말끔히 쓸어 버릴 것이니 그 기쁘고 다행함을 어찌 다 말하랴. 그러나 들으니 근읍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정병이 모두 도망해 돌아왔기 때문에 도사가 순찰하면서 불시에 잡아 가두고 심한 자는 베며, 그 나머지는 도로 떠나보내고, 5명 이상이 되면 수령이 친히 데리고 가서 영원성에 넘겨준다고한다. 이 때문에 이 도의 도망간 군사가 10명인데 윤겸이 이들을 데리고 간 것이다. 이같이 눈이 내리고 추운데 불의에 멀리 가니 몹시 걱정스럽다. 자방(신응구)의 짐 싣는 말을 여기에 갖다가 먹이더니 오늘 종을 보내서 도로 가져갔는데 멀리보낼 곳이 있다고한다. 김억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요새 얻은 꿩이 26, 7마리인데, 9마리는 여러 곳에 보냈으며 그 나머지는 수일 내에 거의 다써 버려서 오늘저녁에 그 남은 것을 세어 보니 겨우 5마리가 있다. 그런데도 하나도 배불러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니한집 식구의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집사람이 새벽부터 기운이불편하여 종일 신음하니 걱정스럽다.

7일. 지난밤에 눈이 내려 거의 반 자가 넘는데 아침에 비로소 개었다. 윤겸의 처가 현으로 돌아가는데 윤함이 모시고 갔다. 집사람은 지난밤에 땀을 내더니 기분이 좀 나아졌으나 기운이 몹시 피곤하여 음식을 들지 못하니 걱정이다. 윤해도 역시 현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이 때문에 아직 보류했다가 다시 그 어머니 병 보아서 내일 들어갈 계획이다. 덕노는 발에 동상이 걸려서 행보를 못하더니 지금은 엄지발 가락은 떨어지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상해서 아파서 여기에 오지 못하고 현에 머무른다고 한다.

8일. 집사람의 기운은 전과 같다. 윤해가 현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언신이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해가 늦었으므로 내일 일찍 떠날 계획이다. 언신은 비록 날이 늦었어도 부득이 가야겠으므로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는데, 함열 딸에게 목미 1두를 제어머니가 보냈다. 또 개질지는 이곳에서 꿩을 사다가 서울에 갖다 팔려고 오는 10일 사이에 떠난다 하므로 민 참판 댁에 가서 임정자 현이 있는 곳을 물어 가지고 영암 임 진사 가족의 생사와 가 있는 곳을 알아 오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고, 민 참판에게도 역시 편지를 보냈다. 꿩 2마리와 임정자에게도 1마리를 보냈다. 남고성에게도 2마리를 보내고 한 집의 편지를 모두 봉해서 전하게 했다.

9일. 김언보가 와서 보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들으니 박언수의 매도 역시 홰에서 내렸다고 하니 그 재주가 애석하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윤겸이 오늘 원주에 가려 했으나 그 어머니의 편치 않다 하는 것을 듣고 쾌차한 것을 알고 떠나겠다고 한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윤해는 이른 아침에 제어머니가 평안한 것을 다 알고 떠났다. 꿩 2마리ㆍ방어 2조각ㆍ소금 2두를 보내왔다. 함열 딸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소금 1두는 윤해의 집에 보냈다. 춘금이ㆍ김담등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어제 윤겸의 처를 모시고 갔던 사람들이다. 빈 섬 5장을 가지고 왔다. 늙은 소를 끌고 왔는데 역시 여기에서 먹이다가 내년 봄같이에 쓰고자 한다.

10일. 들으니 윤겸은 오늘 원주로 떠나갔다 한다. 어두워서 자리에 든 지 오래지 않아 안협 길에서 불을 들고 각(角)을 불면서 무리를 지어 오므로 온 마을이 놀라고 황황하여 혹은 말하기를 도망간 군사를 잡기 위한 일이라고 하므로 자기가 죄를 범한 자는 울타리를 넘어 숲 속으로 몸을 숨기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내 집을 찾아왔으니 이는 곧 선유관 이귀이다. 방으로 맞아들여 그 온 뜻을 물었더니, 그는 안협에서 저전에 사는 전 이천수를 찾아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일찍이 이여실과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으므로 생각에 여실이 여기에서 기다릴 것이라 하여 밤이 깊은 것도 따지지 않고 찾아온 것이라 한다. 서로 이야기하노라니 밤이 밤중을 지났다. 김억수의 집에서 자게 하고, 저녁밥은 이천 집에서 이미 먹었다고 하므로 하인 3명에게만 대접했다. 역에서 현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또 서울로 향한다고 한다. 토산에 임명되었으나 미처 부임하기 전에 조정에서 선유가 끝나지 않았다 하여 바꾼 것이라 한다. 황해의 여러 고을을 돌면서 곡식 몇만 석을 모았다고 한다. 수제비를 만들고 또 꿩을 구워서 대접했다.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이른 아침에 옥여(이귀)가 일찍 현으로 들어가는데 현리가 역시 마중하는 일로 아침 전에 와서 말하기를 선문(先文)이 어제 현에 도착했는데, 대접할 일을 미쳐 준비하지 못해서 밤새 달려와서 이제 비로소 도착한 것이라 한다. 대접할 물건은 소근전에 두었다가 행차할 때 점심을 짓는다고 한다. 선문을 지체하는 자는 구

류한다고 한다. 지난가을에 경작한 조는 실어갈 겨를이 없어서 밭가에 쌓아 두었던 것을 이제 비로소 춘금이 등으로 하여금 소 3마리를 끌고 실어 들여다가 다시마당가에 쌓아 두었다가 수일 후에 두드릴 계획이다. 또 들으니 윤해와 그 아우 윤함이 어제 장고사에 올라갔다고 하니 책을 베끼기 위한 것이다.

12일. 입춘이 이미 지나서 해가 점점 길어지니 날로 날씨가 따뜻해질 것인데 요새 추위는 겨울보다 갑절이나 심한데, 윤겸이 추위 속에 멀리 갔으니 몸이 상할까 걱정이다.

13일, 김오십동이 꿩 2마리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그는 곧 업산의 아 비이다. 업산이란 자가 전일에 큰 매를 상하게 한 까닭으로 불순한 말을 많이 해 서 이 때문에 10여 일 동안 잡아 갇히고 마침내 장벌까지 당했으므로 그 아비가 와 서 그 자식의 불공함을 말하고 이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는 것도 옳지 못해서 그대로 받기는 했어도 마음에 몹시 불안하다. 그러나 그 아비 된 자가 간절히 애원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소즐이 일이 있어 현에 왔다가 이제 비 로소 와 본다. 보지 못한 지 오래인데 우연히 서로 만나니 몹시 위로가 되고 기쁘 다. 소즐은 지난가을에 난을 피해서 지금 서울 서강 삼포에 사는데 장사를 해서 먹 고 산다고 한다. 내가 임천에서 지난 병신년 겨울에 떠나올 때 패랭이 30개를 내 게 주면서 말하기를, 만일 세상 일이 다시 어지러우면 마땅히 온 집 식구가 피해서 아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니 이 패랭이로 먼저 양식을 바꿔서 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왔으나 그 후에 오래도록 오지 않아서 내가 사사로이 15개를 쓰고 남 은 것이 겨우 15개이므로 이제 이것을 돌려주고 내가 쓴 것은 포 1필로 값을 갚았 다. 소즐은 또 사발 1·보시기 1·술잔 받침을 준다. 윤겸이 원주로 갈 때 장무를 시켜서 밭쌀 1석 · 중미 5두 · 백미 2두 · 간장 2두 · 찹쌀 7되 · 말린 고사리 · 도라 지 등 물건을 보냈다. 오는 15일에 약밥 만드는 데 쓸 것이다.

14일. 춘금이 등 3인으로 하여금 전일 실어 온 조를 뚜드리게 했더니, 언신의 밭에서 경작한 것이 1석 3두이고 짚은 두드리지 않았으며, 김언보의 밭에서 지은 것이 1석 10두이다. 아우의 집과 윤해의 집에 각각 5두씩 보냈다. 이웃 사람이 앞밭에 꿩의 함정을 묻었는데 마침 숫꿩이 함정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서 가져왔다. 내일 차례에 쓰기 위해서다. 소즐은 그대로 머물렀다. 김충헌이 김치 1항아리를 가져왔다.

15일. 이른 아침에 약밥 · 주과 · 꿩구이 · 꿩탕으로 신주 앞에 차례를 지내고 다음은 죽은 딸에게 지냈다. 또 쌀 두어 말로 밥을 해서 노비들에게 나누어 먹였다. 약밥은 실과를 얻지 못해서 겨우 조금씩 주었고, 찹쌀도 역시 적어서 겨우 차례에만 쓰고 말았다. 소즐이 현으로 돌아가는데, 밭쌀 1두, 마태 2두를 주어 보냈다. 근일에 안변으로 가서 어물을 사 가지고 돌아와서 그길로 서울로 갈 터인데 그때 역시와서 보고 간다고 한다. 아침에 현리가 왔는데, 술 2병 · 잣 1되 · 호두 1되를 가져왔는데 제사에 쓰라고 보낸 것이나 제때에 대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어제가 곧 죽은 딸의 생일이어서 집사람이 떡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 더욱 애통스럽다. 전일에 이장성이 여기에 와서 잘 때 관공이 미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의 조석 식사를 우리 집에서 갖추어 대접했는데, 그저께 현에서 사람이 올 때 장무를 시켜서 그가 먹은 쌀이라 하여 밭쌀 1두 · 백미 2되를 보내왔다. 내 집이 난리 중에 군색하기 때문이니 한편 가소롭다.

16일. 식사 후에 술과 안주를 가지고 최 참봉 경수가 있는 집을 찾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그 세 아들도 역시 집에 있었다. 그 집에서 먼저 술과 떡을 내게 대접하고 다음으로 내 술을 마셨다. 이웃에 사는 김린이 역시 술을 가지고 왔고, 또 말을 김 주부 명세에게 보내서 청해다가 종일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들으니 남쪽으로 내려간 중국 장수가 이미 울산 청정의 진을 함락시켜서 청정은 겨우 7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하여 산 위에 진을 쳤다. 이것을 중국 군사가 포위했는데, 적은 기갈이 몹시 심하던 차에 마침 눈이 내려서 그 덕으로 살수가 있었다. 게다가 적의 구원병이 크게 오자 중국 장수는 그들이 안팎으로 협공할까 두려워하여 포위를 풀고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와 경주에 주둔했는데, 뒤떨어진 절강 군사는 적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놀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또들으니 중국 군사가 중원으로부터 새로 나온 자가 그 수를 알 수가 없는데 모두 급급히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이것으로 위로가 된다. 병가의 승패는 의례히 있는 일이니, 오늘 조금 실수한 것이 다음날 크게 이길 조짐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또 마귀는 용병하는 것이 신과 같다고 하니 이것으로 적의 마음을 놓게 하여 유인하는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서울 안팎의 인심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라고움직인다고 한다. 이 말은 최경수의 차남 흥운이 토산 땅 그 처가에 있을 때 중전의 사자가 서울에서 내려와 토산에 들러 전하는 말을 들은 것이라 한다. 중전은 수안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말의 진위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마땅히 윤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후에라야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저녁에 수이가 서울에서 돌아와서 남매의 편지를 갖다 전하는데 무사하다고 한다.

17일. 눈이 뿌려 저녁내 개지 않더니 밤에는 크게 내려 거의 반 자나 쌓였다. 요새 반찬이 떨어져서 어머님께 드릴 것이 없고 다만 말린 은어만을 조석으로 드렸는데 그것마저 이제는 떨어졌으니 민망하다.

18일. 날씨가 온화하여 쌓인 눈이 모두 녹아서 추녀의 물이 비 내리듯 한다. 그저 께 소근전 사람이 관의 둔전에서 난 콩 12두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곧 관의 명령이다.

19일. 부석사의 수승 법회가 와 보고, 아우에게 감장 1행담을 가져왔다. 피란해 와 있는데 달리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궁한 것을 생각해서이다. 밥을 대접해 보냈다. 김담을 시켜서 콩 3두를 가지고 안협 땅 옹기장이에게 보내서 질동이 2개를 바꿔 오게 했다. 저녁에 아산 이시열이 그 집에서 현에 이르러 수일 동안 머무르다가 지금 비로소 와 보았다. 연전 이때에 죽은 딸의 병이 중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은 지 1달에 이르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죽은 딸을 생각하면 비통하기가 더욱지극하다. 그는 지난가을 난리가 시작되었을 때 온 집안이 피해서 원주 땅에 들어갔다가 적의 군사가 물러갔다는 말을 듣고 옛 땅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윤겸의 처가 인마를 보내왔다. 이는 곧 전일에 내가 현에 들어가서 함열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인데, 이제 들으니 근일에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또 큰 눈이 내린 뒤에 산길이 질고 내의 얼음이 또 녹아서 건너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정지한 것이다. 이곳에는 인마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며느리로 하여금 보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현의 장무가 꿩 4마리를 보내왔다. 신상례가 편지를 보내서 물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사례했다.

20일. 현에서 온 인마를 도로 보냈다. 이 말이 돌아갈 때 진의 어미에게 적두 10두를 보냈다. 이시열은 그대로 머물렀다. 계집종 옥춘이 가슴앓이 병을 얻은 지 이제 4일이 되었는데 밤낮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물도 입에 넣지 않는다. 궁벽한 마을에 의원이 없어 구제할 방책이 없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지난밤 꿈에 임매를 만났는데 완연히 평시와 같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묘연히 알 수가 없으니 비통하기 끝이 없다. 김억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21일, 이시열이 현으로 돌아갔다. 머물도록 만류했으나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바 쁘게 돌아갔다. 윤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즉시 남쪽 길로 떠나가다가 인천 정 사과가 있는 곳을 거쳐서 돌아간다고 한다. 까닭에 정의 집에도 역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집사람이 꿩 말린 것과 산 것 각각 1마리씩 시열의 어머니께 보내고, 또한 꿩 1마리. 말린 은어 2묶음을 3남매에게 보냈다. 집에 있는 것이 없어서 겨우 이것 만을 보내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그러나 이 물건도 역시 내 집에는 없어서 동쪽 집 에서 꾸어다가 준 것이다. 김언춘이 꿩 1마리를 가져왔다. 이는 신역을 감해 달라 고 청하는 것인데. 물리치는 것도 옳지 않아 그대로 두고, 윤겸이 돌아온 뒤에 편 지를 하겠으나 감해 주는 일은 알아서 하도록 할 작정이다. 인정에 못 이겨서 매양 이같이 번거롭게 하니 몹시 미안하다. 박언방 · 김업산 · 채억복 등이 각각 꿩 1마 리씩을 가져왔다. 저녁에 함열이 왔는데, 이곳에 살 만한 곳이 있는지의 여부를 친 히 보아서 살 만한 곳이 없으면 온 집이 모두 딴 곳으로 옮길 뚝이 있다고 한다. 그 러나 이번에 와 보니 가합한 곳이 없다고 한다. 아노 개질지가 역시 모시고 왔다. 저번에 임매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임정자 현의 편지 및 민 참판의 편지를 보니 임경흠이 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고 그 딸 경 온도 또한 잡혀 갔다고 하니 애통하기를 금할 수 없다. 경온은 나이 겨우 10세로서 어려서 아직도 그 어미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데 이제 붙잡혀 갔다고 하니 필시 죽 었을 것이라. 더욱 비참하다. 경흠의 과부 누이 및 그 아들 구생도 역시 모두 죽음 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윤홍산 영현 및 최상사 준은 온 집안이 모두 온전히 보 전되어 내달 사이에 올라온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임씨 집만 이처럼 지극하게 화 를 입었으니 더욱 참혹하고 애통하다. 내 누이는 비록 홀로 살았으나 남편은 죽고 딸은 잡혀가서 달리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 형세가 반드시 홀로 온전할 수 없을 것이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길은 멀고 사람도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묻지 못하니 한탄한들 어찌하랴. 그러나 내달에 온다고 하니, 오면 아우를 보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미음이나 죽이라도 같이 먹으려 하지만 그것인들 어찌 기필하랴. 애통한 일이다. 남매의 답장 및 고성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하니 이는 위로가 된다. 또 들으니 윤겸은 내일 사이에 돌아온다고 한다. 저녁에 자방과 방 안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자리에 들었다.

**22일.** 자방은 이른 식사 후에 현으로 돌아갔다. 머물도록 힘써 청했지만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돌아간다고 한다. 상례에게 꿩 1마리를 보냈다.

23일. 김억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어제 윤겸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만일 왔으면 언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생각건대 제 집에 오고서도 즉 시 와서 보지 않는 것이니 밉살스럽다.

24일. 아침에 김업산이 꿩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어제 관에서 그 매를 바치라고 사람이 집에 와서 제 아비를 잡아갔으니 몹시 민망하다고 한다. 필시 이 때문에 꿩을 가져온 것이리라. 김언신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저녁에 집에 도착했으나 날이 저물어서 즉시 오지 못했다고 한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갔다 오는데 딴일이 없었으나 다만 얼음길에 말이 자빠져서 떨어진 자가 몇이 있다고 하니 후환이 있을까 걱정이다. 또 들으니 중국 군사는 이롭지 못해서 물러갔다고 한다. 대개 적 청정은 도산산성에 삼중의 성을 쌓았는데, 그중 두 성은 쳐서 깨쳤으나 셋째성에 이르러서는 혐하고 몹시 견고해서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형세가 있기 때문에 포위한 지 12일 만에 중국과 우리 군사의 죽은 자는 만여 명인데 왜병의 죽은 자는 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한다. 이렇게 서로 버틴 지 오래되자 사졸들은 기한을 못 이기고 말도 또한 쓰러지는 것이 하루에도 수백 필이 넘는다 한다. 또 왜선백여 척이 수로로 나오고 있고, 육로의 적도 또한 무수히 산 위에 결진해 있으므로 양 경리가 크게 두려워하여 전령을 내려 퇴진시키자 군중이 크게 어지러워지므로 적은 그 어지러운 틈을 타서 크게 소리치고 나와서 중국 군사가 뒤에서 적에게 죽은 자가 또한 그 수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양 경리는 크게 두려워하여 안동

으로부터 서울로 향하여 군사를 나누어 영천·대구·경주·안동 등지에 주둔시켰고, 군량·기계는 모두 저들에게 빼앗겼다고 하니 이 말을 들으면 놀라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으나 어찌하랴. 나랏일이 다시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말하면 통곡이나오고 내가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다. 또 들으니 바야흐로 저들의 성을 포위했을때, 적병이 물이 떨어져서 바야흐로 곤궁하게 되었는데 하늘이 눈을 내려 그 힘으로 살아났다고 하니, 하늘도 또한 순리를 돕지 않고 적을 돕는 것이 이와 같은가.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 이를 참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실로 참기 어렵도다. 최판관이 와서 만나고 한동안 이야기했는데 수제비를 만들어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김귀실이 와서 보았는데 콩 1석을 져다가 주면서 말하기를, 서울의 예초군을 감하게 해 달라고 이것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에 나는 노해서 물리치고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다. 연전 이날은 아산 시열의 집에서 죽은 딸의 병이 좀 덜해서 교자에 신고 떠나던 날이다. 우연히 그 일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이 저절로 옷깃에 가득하다.

25일. 업산의 처가 꿩 2마리를 가져왔기에 1마리는 곧 아우의 집에 보내서 구워서 그 처자들에게 주라고 했다. 우리 집 많은 식구에 비록 꿩을 얻어도 매양 아우에게 보내지 못했으니, 이는 비록 형편이 그렇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다행히 의외의 꿩을 얻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 꿩은 곧 업산이 날린 매로서, 관에서 명령하여 갖다 바치라고 먼저 그 아비를 잡아갔기 때문에 매 뺏기는 것을 면하고자 하여 어제 친히 2마리를 가져오고 오늘 또 이같이 가져왔으므로 받는 것이 옳지 못해서 도로 가져가게 했으나 그 처는 이를 받지 않고 버리고 갔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언신의 밭 조를 두드렸더니 겨우 3두가 났다. 밭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여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인데, 밭 가운데에 쌓아 두었다가 겨울을 지난 뒤에 실어 왔기 때문에 쥐 떼가 다 먹은 것이다.

26일. 식사 후에 최 판관을 찾아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최의 집에서 내게 점심밥을 대접했다. 여러 번 내 집을 찾았는데 한 번도 찾지 못했기에 이제 비로소 가서 사례한 것이다. 서울 종 광이가 난을 피하여 수안 땅에 와 있다가 와서 보았는데 쇠고기를 가지고 왔다. 고기를 보지 못한 지가 오래

인지라, 즉시 굽게 하여 저녁 식사에 온 집안이 같이 먹고, 나머지는 포를 떠서 죽은 딸의 소상에 쓰려고 한다.

27일. 광노가 현으로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늦은 후에 눈이 크게 내리고 바람이 크게 불었다. 인아가 충모를 모셔 올 일로 소근전에 갔는데 반도 가지 못해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다. 오후에 비로소 개었다. 이 면의 권농이 현에서 돌아왔기에 편지를 보니 아중이 모두 아무 일도 없다고 하고, 노루고기 전체를 두 다리만 빼고 모두 보내고, 소주 5병을 함께 보냈다. 즉시 탕을 만들어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또 아우와 함께 소주 1잔씩을 마시니 가슴이 많이 화평해지니, 가위 1잔이 천금이다. 콩 2두 · 조 2두를 최 참봉의 집에 보냈다. 들으니그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지내기 어렵다는데 내 집도 역시 군색해서 한 번도 구제해 주지 못하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랴. 채억복이 두부를 만들어 1동이를 가져왔기에 소주를 대접해 보냈다.

28일. 김한련·김업산이 각각 꿩 1마리씩을 가져왔는데 술이 없어서 그대로 돌려 보냈으니 한스럽다. 아침부터 큰 바람이 땅이 패이게 불고 찬 기운이 갑절이나 추워서 충모에게 또 종과 말을 보내지 못했다.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오는 1일의 죽은 딸 제물을 보낸다고 했는데, 꿀 3되·법유 1되·석이 3되·잣 1되 1홉·개암 6홉·호두 1되·약과 90개 및 중미 5두·밭쌀 1석·은어 30두름·대구 2마리·꿩 1마리를 보내왔고, 함열 딸도 역시 은어 5두름·대구 2마리·백미 1두를 보내왔다. 딸은 그 동생 소상에 떡을 만들어 제사 지내라고 했다. 그러나 관가에 일이 많아서 즉시 와서 근친하지 못하고 마땅히 5, 6일께 일을 마친 뒤에와 본다고 한다. 또 자방의 편지를 보니 오는 1일에 서울로 가서 배를 얻어 가지고 남포에 있는 곡식을 실어 가지고 열흘 후에 돌아온다고 한다. 이 고을 적산으로 옮겨 와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언명에게 은어 2두름과 밭쌀 1두를 보냈다. 29일. 편지를 써서 현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보냈다. 장풍년(張豊年)이 꿩 1마리를 가져왔기에 즉시 아우에게 주었다. 둘째 딸이 지난 24일로부터 기분이 불편하므로 감기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6일에 이르도록 아직도 낫지 않고 더하고 덜한 것이 일정함이 없이 주야로 괴롭게 신음하다가 닭이 운 뒤에야 좀 덜해 가지고 늦은

후에 도로 아파 음식을 전혀 폐하고 있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내일이 곧 죽은 딸의 소상이다. 연전에 병으로 누웠을 때를 생각하니 모습이 눈에 있는 듯하니 애통한 마음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지극하여 눈물을 거두지 못하겠다. 다행한 운수는 돌고 돌아 아주 없어지지 않건만,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비록 유익한 것이 없는 줄 알지만 자애의 정이 실로 가슴속에 격해서 스스로 그 지나친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충모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다. 부석사의 중 법희가 김치 1동이와 감장 1행담을 보내왔다. 우리 집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전인해서 보냈으니 가위 후하다 하겠다. 지고 온 중에게 밥을 대접해 보냈다. 외되들이 누룩 1덩이를 법희에게 보냈다. 역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 2월

1일. 새벽에 인아와 죽은 딸의 소상을 지냈다. 비록 애통하게 곡은 했지만 무엇하랴. 제 어머니가 매일 먹는 밥과 국으로 조석 상식을 올리다가 오늘부터 비로소 철수했다. 정의는 비록 무궁하다 하겠으나 형편이 계속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비록 부모상이라도 행하지 않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 하여금다만 삭망에만 지내게 했으니 비통한 마음이 더욱 지극하다. 이른 아침에 윤겸이그 누이의 병을 듣고 전인해서 와서 묻고, 배 12개 · 말린 꿩 1마리 · 녹두가루 1되를 보냈다. 병든 누이가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즉시 회답을 써서 보냈다. 둘째 딸은 여전히 아파하다가 새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덜한데, 목뼈를 몹시 아파하니 필시 풍한에 상해서 이런 병이 생겨 여기에 이른 것이니 더욱 걱정스럽다. 또 들으니 철원부사가 잡혀 갔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때를 당하여 수령들이 의례히 의외의 걱정이 있으니 걱정스럽다. 이 도의 방백도 역시 바뀌고 정숙하가 대행한다고 한다. 다시 들으니 철원부사가 잡힌 것은 조방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이르렀는데 병을 청탁하고 나가 보지 않은 까닭이라 한다.

2일. 둘째 딸의 증세는 전과 같고 별로 가감이 없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전일 미처 못다 두드린 짚을 되었더니 조 6두 · 피 3두가 났다. 옥동 역자 이상이가 중 금의 밭을 병작했는데, 팔 11두 · 콩 9두를 나누어 왔다. 팥은 일찍 서리가 왔기 때

문에 절반은 여물지 않았는데, 이상이에게는 나누지 않고 그 변과 함께 보내왔다고 한다. 최 참봉이 와서 보기에 먼저 술을 마신 뒤에 점심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윤해가 현에서 왔는데 들으니 윤겸은 철원겸관으로 철원으로 갔다고 하고, 윤함은 절에 가서 글을 읽고자 한다고 한다. 신상례가 글을 보내서 묻고 또 대구 1마리를 보냈다. 자방은 그저께 서울에 갔다고 한다. 세미 1두를 윤겸이 보냈다.

3일. 앓는 딸은 전과 같으니 민망스럽다. 덕노가 어제 왔는데, 발가락 동상이 아직 아주 낫지 않아서 그 어미의 병이 중하다고 듣고서도 오지 못하고, 윤해가 짐 싣는 말을 타고 같이 왔다. 저녁에 소한 · 수남이 매를 가지고 왔는데, 이는 수일 전에 윤겸이 매를 가지고 먼저 가다가 꿩을 잡아서 바치게 하고 뒤따라오게 한 때문이다. 꿩 7마리를 가져왔는데 1마리는 윤해의 집에 주고 1마리는 신상례에게 보내면서 답장을 하여 큰 생선 보내 준 은혜를 사례했다.

4일. 둘째 딸의 증세는 어제저녁부터 나아 가니 몹시 기쁘다. 그러나 아직도 쾌차하지는 못하니 다시 수일 동안 보아야 알 것이다. 춘금이를 현에 보내서 식초 및 도라지 · 모주 등 물건을 얻어 오게 했다. 이는 곧 앓는 딸이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함열 딸에게 피목 2말 · 밀가루 2두를 보냈다. 광노가 현에서 왔는데 윤겸이어제 돌아왔다 하고, 집돼지 삶은 다리 반 짝, 날 다리 반 짝을 보내왔다. 철원에 있을 때 석전을 지낸 제물을 가져온 것이라 한다. 소한 등이 매를 날려 꿩 3마리를 잡아 가져왔다.

5일. 광노가 수안으로 돌아간다 하기에 목미 1두, 꿩 1마리를 주어 보냈다. 수남과 꿩 쫓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다만 소한만 머물러 두어 매를 날리게 했더니 꿩 2 마리를 잡아 왔다. 저녁에 춘금이가 돌아왔는데, 소주 3병·백미 1두·꿀 3되·법 유 2되·참기름 1되·식초 1되·말린 도라지 3사발을 보내왔다. 도라지는 앓는 딸이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얻어 왔다. 간장 4되·청어 3마리도 보내왔다. 청어는 새 물건이기 때문에 내일 마땅히 천신하려 한다.

6일. 둘째 딸은 지난밤에 편안히 잤고, 증세도 점점 차도가 있으나 아직도 아주 쾌하지는 못하다. 나도 또한 어제부터 감기가 들어 기분이 자못 불편하고 밤에는 땀도 나더니 아침에는 나았다. 집에 있는 사람 3명과 마을 사람 3명을 얻어서 여름

나무를 베게 하고 밥을 주었다. 오늘은 곧 지난해 죽은 딸을 매장했던 날이다. 우연히 그 생각을 하니 슬픈 눈물을 금할 수 없다. 애통해한들 무엇하랴. 오후에 언명과 풀 베는 곳에 가 보았는데, 중로에 비와 눈을 만나서 옷이 다 젖어서 달려 돌아왔으니 우습다. 마침 비와 눈으로 인해서 일하는 자들이 피한 자가 많기 때문에풀 베인 것이 역시 많지 않으니 한스럽다.

7일. 둘째 딸이 어제 오후부터 도로 아프기 시작하여 밤새 신음하여 아픈 증세가 전일보다 갑절이나 더하다. 소한이 매를 날려서 겨우 꿩 1마리를 얻었으니 한스럽다. 소 2필로 하여금 어제 벤 나무를 실어 왔는데 겨우 다섯 번을 실어 나르고 그쳤다. 중국 군사 4명이 영남에서 패해 와서 유리걸식하면서 관서로 향하다가 어제 안협에서 잘못하여 이 마을 김언신의 집에 들어가서 닭 3마리를 잡아 가지고 박문자의 집으로 와서 밥을 짓고 닭을 삶아서 먹었다 한다. 그러나 안협태수는 중국 군사와 왜의 군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군사를 내어 뒤를 쫓아서 문자(文子)의 집에까지 가서 데리고 도로 안협으로 향하다가 이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처마을 사람들은 중국 군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발을 벗은 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으니, 만일 인가로 들어갔으면 재물을 필시 많이 잃었을 것이다. 가소로운 일이다.

8일. 소한을 돌려보냈다. 오래 여기에 머무르면서도 꿩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소원에 따라서 보낸 것이다. 둘째 딸이 지금은 차도가 있어 때로 일어나 앉는다. 그러나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피로하니 아직도 쾌한 것이 아니다.

9일. 현리가 와서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고, 요새 와서 근친하려 했으나 마침 이역실이 이천에서 와서 보고 바야흐로 같이 자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버리고 올수가 없어서 즉시 오지 못한다고 하고, 백미 10두 · 밭쌀 9두를 보내왔다. 이에 즉시 답장을 쓰고 아침밥을 대접해 도로 보냈다.

10일. 윤해가 그 처남 최정운 형제와 함께 광주의 농사로 돌아갔다. 양식을 찧어서실어 보내기 위해서다. 갈 때 서울에 들러서 남매를 만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말장 2두 · 말린 꿩 1마리를 보냈다. 역리 이격이 그 아우 이상으로 하여금 꿩 2마리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내고, 또 은어 2묶음을 격에게 보냈다. 이제 비

로소 콩을 두드렸더니, 박문자의 밭에서는 1석 6두, 고한필의 밭에서는 1석 7두가 났다. 둘째 딸은 점점 회복되어 가지만 다만 음식이 달지 않고 눕고 싶어만 하고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눌은비가 누워 앓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고, 향노도 역시 다리에 종기가 난 지 이제 10여 일이 되는데도 아직도 출입을 하지 못하며, 그 어미도 지난달부터 아파서 오래 누워 있고 일어나지 않아서 온 집안에 심부름할 사람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11일. 아침 식사 후에 언명 및 인아와 함께 묵은 밭 가는 곳에 가 보고 민시중으로 하여금 갈 만한 곳을 지시해 주게 한 후 살펴보고 돌아왔다. 전년에 간 밭은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가서 갈 만한 밭이 없는데, 멀지 않은 골짜기 속에 묵은 밭이 있다고 하기에 가 보았더니 상하 동리에 갈 만한 곳이 거의 10여 일 갈이는 되겠다. 밭이 비록 좋지는 않으나 주인이 없는 한가한 밭이므로 바야흐로 갈아 먹고자하나다만 먼저 풀과 나무를 베인 뒤에라야 갈 수가 있을 터이니 인력이 필시 갑절이나들 것이니, 소 얻기가 몹시 어려운 것이 걱정이다.

12일. 둘째 딸이 이제는 날로 회복되어 음식도 더 먹으니 기쁘다. 다만 맛있는 음식이 없으니 한스럽다. 윤겸은 새해에 와 보고 간 뒤에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요새는 와서 근친한다는 소식만 오고 지금까지 오지 않아서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하루 거리인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 관청 사람의 일이 진실로 탄식스럽다. 김담이 윤해를 모시고 철원에 갔다가 돌아왔다. 잘 갔다니 기쁘다.

13일. 둘째 딸은 이제 비로소 머리에 빗질을 한다. 무료한 중에 〈계사일록〉을 펴보다가 마침 죽은 딸이 벼루를 깨고 울던 일을 보니,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점점 잊어 가다가도 때로 추억되니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슬프다. 내 딸이여! 가련하고 가석하다. 요새 날마다 저녁때가 되면 문에 의지해서 윤겸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지 않으니 바라던 눈(眼)만 부질없이 추울 뿐이다. 필경 관청 일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리라. 탄식스럽다. 윤해의 가는 일정을 계산하면 오늘쯤 서울에 당도할 것이나 다만 중 하나에 말 3필이 진흙 속 험한 길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으니 몹시 걱정된다.

14일. 윤겸은 오늘도 역시 오지 않고 소식도 들을 수가 없으니 탄식스럽다. 수이 및 언신 등이 소를 바꿔 가지고 돌아왔는데 포목 1필과 포 반 필을 더 주었다고 한다. 이 소를 보니 비록 이빨은 늙었으나 몸이 커서 만일 잘 먹이면 4, 5년은 쓸 것같으니 기쁘다. 여기 있는 두 소는 하나는 크지만 몹시 파리하고, 하나는 작고서도 힘이 약해서 모두 잘 갈지 못하는데 이 소를 얻으니 비록 4, 5년밖에 쓰지 못한다고 해도 1, 2년 동안은 역시 넉넉할 것이다. 하물며, 인아의 말은 걸음이 느리고힘이 약해서 무거운 짐은 싣지 못하고, 한 식경 거리에도 자주 눕고 앞으로 나가지못하여 바야흐로 버리지 못할 탄식이 있더니 이제 큰 소로 바꿨으니 몹시 기쁜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전 토산 이경담이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15일. 최 판관이 전인해서 떡과 과일 1행담을 보내왔다. 오늘이 공 그 대기(大忌)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남은 것을 보내고 겸해서 편지를 보내 물었으니 깊이 감사하다. 희서는 곧 최의 매부로서 역시 이 제사에 와서 참례했다고 한다. 저녁에 현리 무손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요새 관청 일이 날마다 모여들어서 떠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자방은 역시 근일에 온 집에서 양주 땅으로 옮기게 되어 상례를 모시고 2일 후에 먼저 새 집으로 간 후에 가족을 데려간다고 한다. 딸이 여기에 있어 비록 한집에 같이 거처는 못 해도 소식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만일 멀리 가면 이후에 다시 만나 볼 것을 어찌 기필하겠는가. 슬프고 탄식함을 이길 수가 없다. 요새 들어가 보고 겸해서 상례도 작별하고 싶으나 사람과 말이 없으니 한탄스럽다. 꿩 5마리・생가자미 5마리・배 15개를 보내왔다. 가자미는 저녁 식사에 즉시 탕을 만들어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배는 한식 제사에 쓸 계획이다. 심열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이는 필시 현리로 갔다가 올 때 부쳐온 것이다.

16일. 답장을 써서 현리가 독운어사의 배리에게 보냈다. 김담 등으로 하여금 소 4 필을 가지고 집 해 일 풀을 베어서 실어 왔다. 억수가 매로 잡은 꿩 1마리를 가져 왔다. 김한련은 무 1두쯤 가져왔다.

17일. 또 언신 등 4인을 시켜 풀을 베어서 소 4필에 실어 왔다. 언신은 제 집에 두고 오지 않았는데 뒤에 실어 온다고 한다. 장 담글 콩을 이제 비로소 삶았는데 한가마에 10두를 삶았다.

18일. 저녁에 김억수가 현에서 왔는데, 윤겸의 글을 보니 내일 마땅히 윤함과 와서 근친한다고 한다. 억수·언방 등은 서울 예초군에서 면제되었다 한다. 또 자방의 글을 보니 오는 24일에 먼저 묘하로 가서 집을 지은 후에 돌아와서 온 집안이 올라간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기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불편한 일이 많아서 올라간다고 한다. 거기에서도 역시 일이 있으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묘하 가는 것이 정의에 좀 편안하겠다고 한다. 만일 이곳에 머문다면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소식은 날마다 들을 수 있는데, 한번 가면 거리가 4일 길이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없을 것이니 슬퍼하고 탄식한들 무엇하랴. 상례도 역시 25일에 첩을 데리고 간다고 한다. 그전에 내가 들어가 보고 싶으나 말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간장 콩 11두를 또 삶았다.

19일, 윤겸이 윤함과 함께 왔다. 오래 보지 못한 나머지에 온 집안이 서로 만나니 십분이나 기쁘다. 밭쌀 1석·소금 3두·대구 4마리·방어 1마리·감장 등 물건을 가져왔다. 김억수(馬億守)가 매로 잡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간장 콩 10두를 또 삶았다.

20일. 윤겸이 오늘 현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비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 렀다. 전풍이 꿩 1마리를 가져왔다. 간장 콩 10두를 또 삶았다. 여기에서 관에 바칠 콩 2석 14두 6되를 이리로 가져왔다. 관에 있는 콩으로 보충시킬 것이다.

21일. 윤겸은 아침 식사 후에 현으로 돌아갔다. 김언보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간 장 콩 10두를 또 삶았다. 지금까지 삶은 것이 51두이다. 늦은 후에 관아의 말을 타고 떠나서 최 참봉의 집에 이르러 경수를 청해다가 고삐를 나란히 하여 함께 떠났는데 날이 따뜻하고 얼음이 녹아서 길이 질어 간신히 자빠지는 걱정을 면했으니다행한 일이다. 저녁에 현에 이르러 먼저 함열의 집에 가서 상례를 찾은 후에 들어가서 진의 어미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어두워서 관아로 와서 경수와 함께 잤다.

22일. 이른 식사 후에 다시 함열의 집을 찾았더니 상례도 역시 와서 조용히 이야기 하다가 윤겸은 먼저 돌아오고 나도 상례와 함께 뒤따라왔다. 오늘은 상례를 전별하기 때문이다. 관에서 술과 안주를 갖추어 보내왔는데, 한 생원 효중도 역시 와서 상례와 같이 앉아서 각각 술을 권하다가 저녁에 취하고 배가 불러 파하고 흩어졌

다. 상례가 먼저 돌아오자 나도 또한 와서 딸을 만나 보고 저녁 식사를 지어 오게 하여 먹고 밤이 깊어서 돌아와 또 경수 · 효중과 같이 관아의 방에서 잤다. 또 이은 신을 보았는데 걸식하는 일로 현에 왔다고 한다. 전일 서로 가깝던 사람을 만나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다만 여러 곳으로 떠돌아 주림이 날로 절박하고 의관이 남루하니 몹시 불쌍하다. 그러나 조금도 서로 도울 힘이 없으니 역시 탄식스럽다.

23일. 며느리가 만두를 만들어 이른 아침을 먹은 후에 또 진의 어미와 자방을 가서 만났더니 내일 떠난다고 하므로 서로 작별하고 또 상례의 집에 가서 작별한 다음 관아로 돌아와서 최·한과 식사를 같이하는데 상례가 역시 쫓아 와서 잠시 서로 이야기하다가 또 경수와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떠나오는 데 중간쯤 왔을때 또 비가 올 것 같아서 간신히 부석사에 도착해서 앉아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겸해서 큰 바람이 분다. 처음에는 점심 후에 떠나려 했으나비 때문에 그대로 머물렀다. 다만 점심 쌀 3되를 가지고 가서 자는데 중이 상하 식사를 대접해 주니 미안하다.

24일. 중이 두부를 만들어 주어서 경수와 함께 배불리 먹었다. 비록 큰 바람은 쉬지 않으나 날은 개었기 때문에 또 경수와 함께 떠났는데, 경수는 소근전에 이르러 작별하고 먼저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나는 홀로 정산탄으로 돌아오니 해가 아직한낮도 안 되었다. 여기 와서 들으니 전일에 소를 바꾼 사람이 그 말이 좋지 않다고 무르자고 와서 말하므로 준열한 말로 거절해 보냈다 한다. 현 사람이 한식 제물을 가지고 왔다.

25일. 언명이 이른 식사 후에 서울로 갔다. 한식에 산소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이다. 다만 꿩을 얻지 못해서 겨우 병아리를 대신 보냈는데, 관인이 꿩 1마리를 가지고 아직 떠나기 전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함께 보냈다. 제물은 목미 1두 · 닭 4마리 · 대구 4마리 · 간장 1되 · 감장 5되 · 잣 5되 · 개암 4되 · 꿀 1되인데, 관에 참기름이 없기 때문에 꿀로 대신 보내서 바꿔 쓰도록 했다. 밥과 떡쌀은 전일 윤해가 갈 때 그곳 쌀로 대용하고, 이곳에서 보내는 쌀로 바꿔 쓰도록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말린 꿩 2마리 · 배 14개는 여기에 있는 것이기로 역시보냈다. 남매에게는 보낼 물건이 없어서 겨우 대구 1마리를 보냈다. 전일 현에 있

을 때 한경장에게 들으니 이장수가 첩을 버리고 김화 땅 장언침의 집에 와 있다고 하는데, 언침의 장인 조신창의 첩은 곧 자미의 첩의 형이 되기 때문에 그 형을 따 라서 피란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언침이 장련의 태수가 되었을 때 역시 그 형과 함께 갔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개부(改夫)하기를 권하고 또 첩으로 삼고자 하는 자도 많았으나 모두 쫓지 않고. 강권하자 목을 매어 죽으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끝 내 절개를 굳게 지키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가 이번에도 역시 그 형을 따라서 언 침의 집에 와 있는 것이라 한다. 듣고 보니 슬프고 불쌍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러나 아직 그 허실은 알지 못하겠으나 만일 사실이라면 가위 정절이라 할 것이다. 윤겪으로 하여금 마땅히 사람을 보내서 편지로 물어야겠다. 한(韓)의 아우가 김화 땅에 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들은 것이라고 한다. 후일에 한 것을 보면 정절 이 아니니, 만일 그때 죽었으면 진위를 그 누가 알랴. 천하 일이 이와 같은 것이 많 으니, 반드시 관 뚜껑을 덮은 뒤에라야 아는 것이다. 또 지난 정월 10일에 부산 동 문 밖 산 밑에 옛날로부터 몸이 넓고 큰 돌이 깊이 박혀 서 있었는데, 이 돌이 저절 로 움직여 일어서더니 왜관을 향하여 두 길이나 가다가 그치니, 왜인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고 두려워해서 말하기를, 이번 이 돌이 움직인 변고는 옛날로부터 없었던 일이니 우리들은 반드시 모두 죽으리로다. 중국 군사가 지금은 비록 거짓 물러갔지만 만일 다시 일어나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하여. 혹은 바다를 건너서 갔다고 하고, 혹은 깊은 소굴을 굳게 지키려 한다고 한다. 이 는 곧 경상도의 전통으로서 현리가 어사 행차를 따라 글을 전해 보낸 것인데, 울산 의 적은 이제 바야흐로 다시 산성을 쌓느라고 날마다 나무를 베어 실어 가서 오래 있을 계획을 하고. 우도의 적은 출몰이 무상하여. 초계·단성·함양·거창 근처에 밤을 타고 와서 습격하여 민가를 분탕질하기 때문에 간신히 돌아와서 사는 백성들 이 거의 모두가 흩어져서 길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덕노가 어제 이천에서 돌 아왔는데, 일찍이 들으니 이천은 표피로 벼슬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얻 은 표피를 보내 주고 값을 받으려고 덕노를 보내서 이 찰방에게 편지를 하고 이천 태수에게 말해 달라고 했더니, 찰방이 즉시 들어가 본 뒤에 답장을 하기를, 아직 가합한 표피를 얻지 못했으니 만일 보내 주면 물건을 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고 한다 했다. 이에 오늘 아침에 덕노로 하여금 표피를 가지고 이천에 가게 하여 만일합격이 되면 넉넉한 값을 받아서 이것으로 말을 살 수 있을 것이니 온 집안이 역시그 덕을 보게 될 것이다. 언명의 집 장 담그는 콩이 17두가 드는데, 내가 5두를 보태주었다.

26일. 늦은 후에 비와 눈이 섞여 내려 종일 개지 않으니, 언명이 가는데 우비가 없어 필시 중로에 막혔을 것이니 걱정스럽다. 요새 반찬이 떨어져서 어머님께 드릴 것이 몹시 어려우니 역시 민망스럽다. 나는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겨우 삶은 콩에 간장을 섞어서 먹었다. 암탉이 병아리 14마리를 까서 내렸다. 김언보가 와서 보고 비로 인해서 즉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므로 점심을 대접했더니 저녁에 비가 멎기를 기다려 돌아갔다.

27일. 지난밤에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산천이 모두 희고 늦은 후에 해를 보더니 모두 녹았다. 이같이 길이 지니 언명이 가는 것이 몹시 걱정스럽다. 현리 전거양이 독운어사(유공진)의 배리가 되어 이제 어사의 친가에 편지를 전하는 일로 지나가다가 윤겸의 편지도 역시 가져왔기에 보니, 자방은 지난 25일에 서울에 올라갔고, 상례는 비와 눈으로 인해서 땅이 질어서 떠나지 않고 아직 머물러 있다고 한다. 심열이 보낸 방어 1마리와 언명의 집에 반짝, 어머님께 말린 문어 1마리, 생전복 30개를 가져왔는데, 이는 곧 거양이 강릉에 갔을 때 심질이 보낸 것이다. 윤겸이 또 생전복 30개를 보냈다. 한식 제사 때 쓰련다. 윤해의 집에 간장 콩 24두를 삶는데 내가 7두를 보태 주었다. 관가에서 보낸 반찬이 매양 부족해서 맨밥을 먹을 때가 많으니 이는 모두 식구가 많기 때문이다.

28일. 내일은 곧 외조모의 기일이어서 소복을 입었다. 현의 호장 김운룡이 도망한 관인을 잡으려고 돌아왔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최 참봉의 막내아들 충운이 와서 보기에 점심을 대접해 보냈다. 덕노를 시켜서 이제 비로소 띠를 엮었다. 집을 짓고 해 이기 위해서이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전하고, 생숭어 중질 1마리·청어 4마리·닭 2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으로 내일 한식 제사에 쓰겠으니 기쁘다. 요새 반찬이 없어서 두 계집종을 시켜서 도라지를 캐게 해서 나물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또 이것으로 제사에 쓸 나물을 만들었다. 춘금이 등으로

하여금 집 지을 나무를 베게 했다.

29일. 편지를 써서 현리 편에 보냈다. 옥동역 사람 이상이 병작한 중금의 밭에서 난조 11두를 나누어 왔다. 전일에 진귀선과 짜고 이 밭을 숨겼다가 이제 비로소 발 각이 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두드려서 가져온 것이다. 그 형 이격이 꿩 1마리를 역시 보냈기에 술을 대접하고 좋게 대우해서 보냈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덕 노로 하여금 가지고 부석사에 가서 중 덕보에게 주어 머물러 두었다가 가을에 돌려보내라고 말해 보냈다. 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병아리를 기를 터인데 고양이가 있으면 반드시 해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윤함이 역시 장 담그는 콩을 삶고자 하므로 콩 10두를 주고 그 종으로 하여금 삶아서 쓰게 했다.

그믐날. 한식절이다. 종일 큰 바람이 불었으나 비는 오지 않았으니 생각건대 언명이 이미 무사히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이곳에서도 역시 생선구이와 닭탕으로 신주께 제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죽은 딸에게 제사를 지냈다. 춘금이가 칡을 끓였다.

### 3월

1일. 김언신 등으로 하여금 전일에 베인 집 지을 나무로 메를 만들어 흘러내려 보냈으나 물이 얕고 여울의 돌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으니 탄식스럽다. 지난해에 우리 집에서 경작해서 소출된 것이 기장, 피, 조가 도합 4석 10두요, 콩 8석 13두 · 팥 5석 4두 · 보리 4석 2두 · 녹두 5두 · 이상 도합 24석 12두 5되요, 또 관의 둔전으로 이 면 근처에서 난 것이 피 5석 5두 · 조 1석 6두 · 콩 4석 2두이다. 또 옥동역계집종 중금의 밭을 병작한 사람에게서 난 것이 기장 · 피 · 조 도합 7석 4두 · 콩 2석 5두 · 팥 1석 2두로서, 지난해에 여러 곳에서 난 것을 합계하면 46석이 넘는데, 관가에서 보낸 양식 및 따로 얻은 곡식은 모두 이 숫자에 들지 않는다. 올봄에 이르러 자못 곤궁한 걱정이 있었으니, 이는 모두 지난가을에 난리를 만나 피해 온 자가 많아 식구가 많았던 때문이다. 만일 관청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 집이 몹시걱정스러웠을 것이다. 올봄 농사는 조금도 늦출 수 없는데, 반드시 많이 지어야만비로소 자빠지는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많으니 더욱근심스럽다.

- 2일. 안협에 사는 사람 김지학이 와서 보고 적두 1두를 바치는데,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 데다가 또 줄 물건이 없어서 그대로 보냈으니 한스럽다. 또 언신 등으로 하여금 떼를 띄워 흘러내려 보냈으나 떼 하나가 또 얕은 여울에 걸려다 내려가지 않는다. 말구유 1개도 역시 만들어서 흘러내려 보냈으니 그 나무를 계산하면 많이 부족하여 공연히 수일의 일을 허비했으니 언신이 힘쓰지 않은 것이 밉살스럽다. 지난밤 꿈에 경흠을 만났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으니 깨고 나니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누이는 생각건대 이미 서울에 도착했을 것인데 언명과 서로 만났는지 모르겠다. 어두운 뒤에 현리가 인마를 거느리고 왔다. 내일 집사람이현에 들어간다고 했으므로 윤겸이 보낸 것이다. 백미 1두 · 밭쌀 1석 · 소금 6두 · 대구 5마리 · 청주 2병을 보내왔다.
- 3일. 집사람이 둘째 딸을 데리고 현에 들어가는데, 윤함이 모시고 갔다. 어제 벌통을 역시 가지고 왔는데, 지고 올 때 조심하지 않아서 절반은 떨어져서 새끼 벌이 벌집에 가득하여 모두 버린 물건이 되었으니 올해에는 필시 많이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아깝고 밉살스럽다만 어찌하랴. 오늘 집을 짓기 위하여 언신 등 5명으로 하여금 먼저 행랑채 터를 닦게 하고 단단하게 대들보를 올리고, 또 사랑채 터를 닦게 했다. 안 생원 극인이 안협에서 찾아왔기에 먼저 술과 떡을 대접하고, 다음으로 점심을 대접하여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안 공은 곧 윤겸과 같은 해에 진사가 된 사람인데, 연전에 안협 땅에 피란해 와서 일찍이 함열과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멀리 와서 찾은 것이다. 오늘은 곧 속절이어서 떡을 가지고 신주께 제사를 드렸다.
- 4일. 늦은 후에 비가 뿌려서 다만 떼를 엮게 했을 뿐이다. 비가 내리기 전에 연목을 걸고 오후에 비가 개었으므로 집을 해 이었다. 전풍이 어제 집사람이 현에 들어갈 때 모시고 갔다가 오늘 돌아와서 말하기를 행차가 무사히 일찍 들어갔다고 한다.
- 5일. 지난밤 꿈에 이승시 강중 영공을 만났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았다. 사랑채를 짓는데 다만 기둥을 세웠을 뿐이다. 덕노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집사람의 편지를 보니 무사하다고 했다. 꿩 2마리, 술 1병을 가지고 왔다. 언명의 편지가 역시 서울

에서 전해 왔는데 데려간 사람을 먼저 보내고 저는 6, 7일 사이에 윤해고와 같이 올 것이나 들으니 임매(林姝)가 근일에 서울에 온다고 하기 때문에 만나 본 뒤에 떠나온다고 한다. 다만 들으니 언명의 처의 계모가 별세했다고 한다. 이제 조보를 보니 윤두수가 좌상이 되고 이정구가 승지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처가의 일 가인데 쇠해 가던 문중이 이로 인해서 일어난다면 하례할 일이다.

6일. 언신으로 하여금 나무를 베어 실어 오게 했다. 새로 짓는 집에 다만 대들보만 걸고 연목은 올리지 못했다. 전업이 천어 두어 사발을 가져왔으나 줄 물건이 없으니 한스럽다. 저녁 식사에 탕을 끓여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주니기쁘다. 저녁에 이천이 찾아와서 같이 잤다.

7일. 이천이 현으로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연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담 등으로 하여금 소 3마리를 가지고 가서 베어 오도록, 이른 식사 후에 떠나보냈다. 또 욋가지도 져 오게 했다. 계속해서 연목을 걸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8일. 김귀실이 삼씨 2되, 박문자가 삼씨 3되를 가져왔다. 귀실은 팥 5두도 역시 가져왔는데 필시 까닭이 있는 것이어서 물리치려 했으나 억지로 놓아 두고 돌아갔다. 백창평 유항이 윤겸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아우 중설 영공의 아들을 우리 집에 결혼시키라고 하여 일찍이 의논이 정해져서 궁합을 보았더니 오귀궁합이 몹시 좋지 않다고 해서 혼인을 하지 않으려 했더니 이제 또 사람을 시켜서 와서 묻는데 궁합이 좋지 않다고 답장을 할 수는 없다. 울타리를 둘리고 변소를 지었다. 김억복에게 벌통을 지어 보내어 앞 산봉우리 오른쪽에 앉았노라니 오후에 양쪽 벌이 서로 싸워 물어 죽여서 거의 한 되에 이르렀다고 하니 아깝다. 생각해도 싸움을 말릴 방법이 없어서 해가 저물기를 기다려 각각 제 벌통으로 들어간 뒤에 먼 곳으로 옮겨앉았다. 종류가 같지 않으면 심지어 싸워서 죽이는 것이 이와 같으니 탄식할 일이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와서 편지를 보니 아무 일도 없다고 하고, 꿩 2마리 ·생항어 3마리 및 12일 제사에 쓸 잣 5되 · 개암 3되 · 참기름 5홉을 보내왔기에 즉시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대자리 2장을 역시 만들어 보냈는데 하나는 어머님 방에 깔았다.

9일, 이제 비로소 지붕을 해 이었으니 이미 집 짓는 역사는 끝난 셈이고, 장식하는

것은 농사지은 후에 하려고 한다. 그러나 수 3년 동안 여기에 편안히 살았으니 이역시 다행한 일인데 세상 어지러운 것이 그치지 않고 홍적이 아직 남아 있으니 그역시 어찌 기필하겠는가. 하늘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다. 저녁에 박문재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어제 우리 집 편지를 가지고 예초군을 감해 달라고 간 것이지만 이제 윤겸의 편지를 보니 형세가 이름을 감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어찌하랴. 꿩 1마리를 보내왔다. 김업산의 매는 잃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니 필시 아주 잃은 것이라 그 재주가 아깝다. 또 들으니 자방은 이곳 적산의 농가에 머무르고 있고 상례는 오는 12일 사이에 서울로 가서 머물러 산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집은 가고 머무는 것이 여러 번 변하고 정해지지 않으니 지금도 역시 꼭 그렇게 할지 알 수 없다.

10일. 삼밭을 갈았다. 인아의 말은 지난달에 이 마을 사람이 군량을 실어다가 서울에 바쳤는데, 값으로 포 1필을 받았으나 그 본전도 안 된다고 하면서 삼밭 1마지기를 주므로 오늘 씨를 1두 2되를 뿌리고, 나도 또 관에 바치는 백저 1속 7장과 상지 3속으로 밭 6되지를 빌려서 씨를 뿌렸다. 김억수가 또한 집 앞의 밭을 주기에 씨를 뿌렸으나 삼씨가 부족해서 먼저 7되를 뿌리고 그 나머지 뿌리지 않은 곳은 다시 얻어서 위에 뿌릴 작정이다. 어두운 뒤에 윤해가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언명은일이 끝나지 않는 것이 많아서 뒤에 온다고 한다. 다만 관용의 말을 가지고 간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붕질의 닭이 병아리 11마리를 까서 집에 가두었는데 저녁에 연기를 쏘여서 즉시 2마리가 죽고 그 나머지는 겨우 살아났다고 하니 아깝다. 삼씨 얻은 것은 김명세 4되, 이린 2되, 김애일 1되 5흡, 채억복 1되, 전업 2두, 박귀필 2되요, 김언신이 소금을 가지고 9되를 얻었으며, 윤겸도 역시 1두를 보냈다.

11일. 세만이 연안에서 돌아왔는데, 그 땅에 있는 윤겸의 처가의 전답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모두 죽었고 다만 두 계집종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인아의 처로 하여금 종을 데리고 내일 쓸 제수를 준비하라고 했다.

12일. 새벽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고조의 기일이다. 달리 제사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마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만 삼색탕, 구이, 떡, 면, 밥으

로 제사를 지냈다. 소물(素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또 어육을 겸해서 진설하여 제사 드렸다. 세만이 현에 들어갈 때 춘금이도 같이 보냈는데, 수탉 1마리, 암탉 2마리를 함열 집에 보내서 기르게 했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전하는데 잘 있다고 하고, 큰 가자미 15마리, 알 1항아리를 가져왔다. 이에 즉시 답장을 해 도로 보냈다. 계란 16개는 역시 함열의 집에 보냈다. 어제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13일. 내가 어제저녁부터 감기가 들어 기분이 불편하더니 아침이 되자 머리가 무겁고 골절이 돌리는 것 같으면서 먹는 것이 달지 않다. 까닭에 아침 식사를 낮이되어서야 비로소 조금 먹었으니, 필시 땀을 낸 후에야 좀 나을 것이다. 저녁에 언명이 서울에서 바로 현에 와서 그대로 자고 여기에 왔다. 고대하던 나머지에 기쁘고 위로가 됨을 어찌 다 말하랴. 들으니 영암 임매는 경흠의 장사를 아직 지내지못해서 오지 못했다고 한다. 남매도 역시 종과 말을 보내서 말장을 가져갔다. 윤겸이 또한 밭쌀 5두 · 보리쌀 4두를 보냈으며 언명에게도 역시 밭쌀 5두 · 보리쌀 1두를 보냈다. 이는 곧 언명이 인마를 데리고 왔다가 그대로 오기 때문이다.

14일. 어제부터 종일 기운이 좋지 않아 밤새 뒹굴었는데 인동초를 여러 번 달여 먹은 후에 땀을 냈더니 아침에는 좀 덜한 것 같다. 그러나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깊은 머리가 조금 아프고 몹시 피곤한 것으로 보아 수일 이내에는 속히 차도가 없을까 걱정이다. 박언수가 천어 1사발을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채소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언명이 데리고 온 종 성금이가 돌아갔다.

15일. 오늘은 곧 보름이다. 마땅히 죽은 딸의 제사를 지내야 할 터인데 그 어머니가 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므로 여기에서는 지내지 않았다. 남매의 종 덕룡이 도맡아 가는데, 말장 6두 · 적두 2두 · 비 2자루 · 산삼 30 개를 주어 보냈다. 달리 보낼 것이 없어서 겨우 이것뿐이니 한스럽다. 이 길로 현으로 가면 윤겸이 역시 물건을 주어 보낼 것이다. 전풍이 천어 큰 것 40여 마리를 가져왔다.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내가 편치 않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노루 다리 1개, 갈비 1개를 보냈다. 아침 식사를 아직 들기 전이기 때문에 즉시 구워서 먹었다. 나는 큰 증세는 나아 가고 땀이 그치지 않으므로 바람을 쐬면 안 되겠어서 창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다만 인아가 어제 오후부터 역시 나의 먼저 증세와 같아 먹지 못하고 앓아, 밤새 괴롭게 신음하더니 아침에도 역시 쾌치 않다. 비록 인동초차를 먹어도 땀이 흡족하게 나지 않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최 참봉과 김린이 찾아왔는데 내가 병이 차도가 없어서 나가서 만나지 못하니 몹시 한스럽다. 신주를 만들어 초가집 1칸에 봉안했다. 오전에 이 일을 마치고 바로 채소밭을 갈고 또 우물 속의 더러운 것을 파내고 수리했다. 한 집안의 일이어서 이미 이를 마치고 내일은 마초를 실어 온 뒤에 농사를 시작할 생각이다. 저녁에 윤해의 종 안손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밭쌀 7두, 보리쌀 3두를 보내왔다. 윤해의 집에도 밭쌀 3두 · 보리쌀 3두 · 마태 5두를 보냈다고 한다. 나의 병 증세는 오후에는 평상시와 같기 때문에 때로 우물 수리하는 것을 나가 보았다. 인아도 역시 나아 가니 기쁘다. 관의 둔전에서 난 피 9두 중에서 8두를 김억수가 가져왔다. 연전에 관의 명령이 있어서 이제 비로소 가져온 것이다. 박언방은 10두 중에서 6두를 가져왔다.

16일. 밤중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는 크게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다. 채소밭에 울타리를 만들게 했다. 김억수가 일찍 심은 조 5두, 차조 4두, 적두 1두를 가져왔다.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꿀을 보내왔다. 나는 손수 답장을 써서 돌려보 냈다. 내가 아주 나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북쪽 마을에 사는 박영호가 산나물을 보내왔는데. 줄 물건이 없어서 겨우 소금 몇 되로 갚았다.

17일. 박만동이 천어 40여 마리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곧 빙어로서 크기가 거의 반자가 넘는다. 또 소금으로 갚았다. 다만 막동이란 자는 지난해에 내가 통발을 놓은 곳에 먼저 통발을 놓았으니 몹시 밉지만, 요새 일을 끝낸 후에 나도 또한 그 밑에다가 통발을 놓아 헐어 버릴 작정이다. 전귀실이 산삼 1행담을 가져왔다. 언신으로 하여금 황촌 고개 밑 옛터에 삼씨 5되 반을 뿌리게 하고, 박문자가 준 조밭으로 옮겨 가서 갈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18일. 어제 갈다가 끝내지 못한 밭을 다 갈고 피 6되를 뿌렸다. 그런 후에 고한필의 하루갈이 밭으로 옮겨 가 갈았으나 끝내지 못했다. 인아가 제 형과 같이 가 보고 저녁때 돌아왔다. 최진운이 찾아왔기에 언명과 함께 뒤 정자에 올라가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집에서 기르는 수탉이 몸도 잘생기지 못하고 또 잘 울

지도 못하는데, 마침 사동이 제 집에서 기르던 수탉을 잡아 가지고 그 상전에게 바치려 하므로 이것을 서로 바꿨는데, 우는 소리가 길고 맑으며, 그 몸도 먼저 닭보다 나으니 기쁘다. 고한필의 밭에는 조 7되를 뿌렸다.

19일. 전풍이 천어 50여 마리를 가져왔다. 이는 통발을 놓아서 잡은 것이다. 아무 것도 줄 것이 없어 그대로 보냈으니 한스럽다. 또 언신 등으로 하여금 어제 갈다가 끝내지 못한 밭을 갈게 하고, 또 이인방의 밭으로 옮겨 가서 갈게 했다. 그러나 춘금이가 발을 다쳐서 씨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언명의 계집종 개금을 빌려다가 보냈다. 고한필의 밭에는 이른 조 7되를 뿌렸다. 현의 문안인이 와서 편지를 보니 윤겸은 어사가 불러서 오늘 아침에 이천에 갔는데 윤함도 역시 같이 갔다. 이시직을 보기 위해서다. 산 노루 1마리를 머리와 다리 하나만 메고 전체를 모두 보냈다. 꿩 1마리도 역시 보내왔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20일. 이인방의 밭을 다 간 뒤에 김억수의 밭으로 옮겨 갈았으나 마치지 못했다. 이인방의 밭에는 피 9되를 뿌렸다. 덕노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편지를 보니 모두 무사하다고 했다. 원적사의 중 영원이 짚신 3켤레를 가져왔다. 예로 관에 바치는 신이다. 부석사의 중 법희가 와서 보고 또 짚신 4켤레를 가져왔기에 언명과 인아에게 각각 한 짝씩 나누어 주고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나는 기운이 불편해서 나가보지 않았다. 어제부터 속머리가 좀 아프고 사지가 풀리는 것 같으니 필시 다시 감기에 걸린 것이다.

21일. 내 기운은 나아 가지만 그래도 아직 쾌하지는 못하다. 김담으로 하여금 어제 못다 간 밭을 갈게 하고 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개비는 안질로 가지 않아서 오늘도 역시 다 갈지 못했으니 늙은 소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낮에 윤함이 이천에서 왔는데 제 형은 어사를 따라 현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종일 고대했어도 만나지 못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관인의 사례이니 또 무엇을 한탄하라

22일. 또 김담으로 하여금 어제 못다 간 밭을 갈았는데 오래지 않아 비가 내려서다 끝내지 못하고 거둬 가지고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윤함도 역시 비 때문에 현에들어가지 못했다. 전풍이 천어 17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길로 번 때문에 서울로 갔다. 김언보도 역시 번으로 해서 간다고 작별하고 갔다. 암탉 1마리가 병아리 15마

리를 깠다.

23일. 윤함이 현으로 들어갔다. 민시중이 물고기 20여 마리를 낚아서 가져왔기에 소주를 대접했다. 박언방이 현에서 돌아왔기에 편지를 보니 윤겸은 내일 사이에 그 사마시 동년방(同年榜)들과 안협 정산탄 밑에서 모이고, 그길로 와서 근친한다고 했다. 말린 여항어 3마리·생은어 3마리·소주 4병·꿩 1마리·대구 1마리·가자미알 조금을 보내왔다. 윤겸의 동년은 철원의 윤방, 이천의 윤완, 안협의 유담 및 안협에 피란 와서 사는 안극인과 윤겸이다. 이귀와 이배달은 모두 한 현에 있으나 마침 없어서 약속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다. 김담으로 하여금 어제 못다간 받을 갈게 해서 끝내고 차조 4되 5홉과 피 3되를 뿌렸다. 언명과 산정에 올라가서 받 가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두 아들도 따라왔다.

24일. 윤겸이 전에 보낸 편지에 오늘 와서 근친하겠다고 했으므로 종일 문에 의지하여 고대했으나 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다. 21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신이 자기 밭을 갈았는데, 언신의 소와 짝을 지어 갈기 때문이다. 내일은 마땅히 우리 집 밭을 갈아야 하겠다. 병아리가 매에게 물려 갔으니 아깝지만 어찌하랴.

25일. 박언수가 천어 50마리를 가지고 왔으나 대접할 물건이 없어서 다만 간장 1 사발을 주었다. 김언신, 김담 등이 김광헌의 밭을 가는데 우리 집 늙은 소와 한 짝을 삼고 김담도 갈았으니 모두 두 짝인 셈이다. 그러나 비가 내릴 기미가 있으니 걱정이다. 사흘갈이 밭을 하루에 다 간다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양식과 콩을 보내서 오늘 언신의 집에서 자고 내일 다 간 뒤에 돌아오라고 일러 보냈다. 거리가 5리 밖이니 왕래하는 사이에 일이 반드시 지체되겠기 때문이다. 현의 교생 15명이 각각 술병과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김명세, 최정운도 마침 와서 모임에 참여했고 우리 3부자와 아우 언신도 같이 있다가 저녁때가 되어 각각 헤어졌다. 먼저 소주 1병·청주 1병·닭 1마리·안주 2행담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또콩 7되도 들여보냈다. 권유년, 김충세 두 향소에도 역시 콩 5두·팥 2두를 보냈다. 이는 곧 내가 피란해 와서 식구는 몹시 많고 군색하기 때문이니 한편 미안하다. 저녁에 윤겸이 왔다. 내일 동방들이 정산탄 밑에서 모이기 때문이다. 백미 5두·중미 5두·말린 여

항어 10마리·산 것 7마리·찹쌀 3되·참기름 5홉을 가져왔다. 저녁때 비가 내리더니 밤새 그치지 않는다.

26일. 비가 아침에도 오히려 그치지 않더니 늦은 후에 비로소 그쳤다. 이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했다고 한다. 밤이 3경이나 된 후에 창밖의 뒷간에서 불이 나서 가주 속의 시렁에 있는 빈 섬이 연소되어 불빛이 크게 번지므로 내가 놀라 깨어 창을 열고 보니 불꽃이 거의 집까지 올라갔다. 이에 즉시 손으로 빈 섬을 끌어내려 창밖의 불이 난 곳을 끄고 또 물을 부어서 껐는데, 마침 비가 내려 습기가 있기 때문에 변소 울타리 가까이까지 비록 불꽃이 닿았어도 즉시 연소가 되지 않아서 끌수가 있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거의 구하지 못할 뻔했으니 괴로웠다. 내가 황급히 가서 불을 끌 때 잘못하여 미끄러운 진흙을 밟아서 발이 빠져 자빠져서 왼쪽 다리가 더러워졌는데 불을 끈 후에 비로소 알았으니 우스운 일이다. 부석사 중들이 두부 30모를 만들어 보냈기에 지고 온 중에게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대장장이 춘복이가 가래, 소시랑 등을 만들어 가져왔으니 곧 관의 명령이다. 전일에는 쇠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줄 물건이 없어서 술을 먹이고 대구 1싸리를 주어 그 공에 보답했다. 박막동이 천어 25마리를 가져왔다. 윤겸은 동방 모임에 갔다가 여러 태수들과 같이 자고 돌아오지 않았다.

27일. 윤겸이 돌아왔다. 들으니 철원·이천·안협 세 고을의 태수 및 피란 와서 근처에 사는 안극인, 유표가 와서 모여서 활을 쏘았기 때문에 해가 늦어서 또 관에돌아가지 못했다 한다. 저녁에 세 아들 및 아우와 함께 걸어서 동대에 올라가 하인을 시켜 대 위 및 다니는 길과 그 밑에 낚시터 등을 고치게 했다. 김언신, 김담 등이 소 2짝으로 김광헌의 사흘갈이 밭을 다 갈아 씨를 뿌리고, 그 전풍의 밭으로 옮겨 조금 갈고 조 1두 2되 5홉을 뿌렸다.

28일. 윤겸이 현으로 돌아가는데 인아도 또한 함께 가고, 향비도 따라갔으니, 이는 둘째 딸을 데리고 올 일 때문이다. 언신 등으로 하여금 소 2짝으로 전풍의 나흘갈이 받을 갈게 하여 끝내지 못했다. 내가 식사 후에 가 보았다. 부석사 중 태현이 자리 두 잎을 쳐 가지고 와서 값도 받지 않고 갔다. 비록 마음으로 몹시 미안하나 다음날 마땅히 딴 물건으로 갚을 작정이다. 한 잎은 곧 어머님께 드렸다.

29일. 언신 등으로 하여금 전풍의 밭을 갈아 다 마치고 조 1두 6되 5홉을 뿌리고 아래쪽에는 또 깨 1되 5홉을 뿌렸다. 김귀실이 햇고사리 4단을 가져왔기에 즉시 삶아서 천신하고 또 술을 대접해 보냈다. 현의 방자 춘세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무사히 돌아갔다고 하고, 생전복 30개·가자미알 1항아리·식초 1되를 보내왔다. 내일 최 참봉, 김 주부와 함께 천렵놀이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식초를 얻어온 것이다. 조우 자옥의 편지를 서울에서 전해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내온 것인지 모르겠다. 연전 난리에 필시 면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편지를 보니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그 백 씨 형연 씨와 함께 풍양 선영 밑에 와 있다고 한다.

#### 4월

1일. 비로 인해서 갈고 씨 뿌리지 못하고 또 천렵놀이도 하지 못했다. 밤 꿈에 자미를 보니 완연히 옛날과 같으니 깨고 나자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다. 늦은 후에 날이 개므로 언명이 얻은 김보전의 밭을 갈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최중운이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하고, 또 제사 지낸 떡과 과일을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2일. 최 판관 중운 · 최 참봉 경수와 나 · 아우 및 윤해 · 김 주부 명세 · 김 별감 린 · 경수의 세 아들 · 교생 4, 5인과 함께 냇가 경치 좋은 곳에 모여 물고기도 낚고 고사리도 캐어 점심을 놓고 종일 이야기했다. 다만 술이 적어서 취하도록 마시지 못했으니 이것이 하나의 흠이었다. 여러 사람이 낚은 물고기를 계산해 보니 3백여 마리인데, 회도 치고 혹 탕도 끓여서 상하가 함께 먹었다. 마침 기러기 1마리가 매에게 잡혀 죽지가 부러져서 날지 못하고 물가에 떨어져서 깊은 못에 떠서 헤엄치는 것을 춘금이가 먼저 보고 돌로 때려서 날개를 마치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 잡아서 구워서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다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머님께 드렸다. 오늘 모임은 일찍이 약속을 했던 것인데, 어제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 비로소 행한 것이다. 또 여러 사람들과 다시 뒤에 13일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술은 각각 술을 내어 두 곳에서 빚기로 했는데 이곳은 우리 집에서 빚기로 서로 약속하고 파해 헤어졌다. 김담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갈아

끝내고 조 6두를 뿌렸다. 이는 곧 언명이 얻은 밭인데 씨를 뿌리고 풀을 매어 주었다. 원적사 중이 간장 3석을 가져왔다. 이는 관의 명령이다. 강비가 요새 허리 밑에 종기가 두루 나서 지금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며, 개비도 역시 병을 칭탁하고 누웠으니 비단 능히 조를 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석 밥을 지을 사람도 없어 오늘 저녁에는 동쪽 집 계집종을 빌려다가 지었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병아리가 매에게 물려 갔으니 밉살스럽다.

3일. 목화밭에 인분을 냈다. 내일 갈려고 하기 때문이다. 종일 바람이 크게 불었다. 현의 문안인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청주 6병·생여항어 5마리를 보내왔다. 두 계집종은 오늘도 역시 일어나지 않아서 밭에 씨 뿌릴 사람이 없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중국 군사 10여 명이 황촌 인가에 와서 소요를 부리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거민들을 때리고서 원적사로 돌아갔다고 하니 여기에 올까 두려워서 윤해의 집안식구가 모두 여기에 모여서 문을 닫고 굳게 지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모두 군량을 실어 나르는 일로 나가고 돌아오지 않아서 저 무리를 제어할 수가 없을 것이니 깊이 걱정된다. 만일 원적사에서 고개를 넘어 이천 길로 행한다면 그 다행함을 어찌 다 말하랴.

4일. 김언신, 김담으로 하여금 소 2짝으로 김귀실의 밭을 갈고 깨 3되, 참깨 5홉을 심었으니 곧 하루 반 갈이의 밭이다. 다만 언신이 밭을 갈아 겨우 끝내고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에 들으니 그 아비가 죽었다고 하니 놀라고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뇌통을 얻어 4일 만에 죽었다고 하니 불쌍하다. 줄 물건이 없어서 겨우 상저 1묶음을 주어 보냈다. 근일에 양식이 떨어져서 오늘은 간신히 밥을 지어 먹었다. 그래서 춘금이가 말을 가지고 북면에 갔으니 곧 양식을 실어 오기 위해서이다. 관미(官米)를 일찍이 북면에 쌓아 두었기 때문에 윤겸이 첩지를 보내서 갖다 먹게 한 것이다. 또 들으니 중국 군사는 원적사에서 이천으로 갔다고 하니 기쁜 일이다. 윤해의 온 집안은 그들이 올까 두려워하여 온 집안이 이곳으로 피해 오려다가 오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

**5일.** 김담으로 하여금 목화밭을 갈게 했으나 심을 사람이 없으니 한스럽다. 춘금이가 돌아왔는데 밭쌀 20두를 실어 와서 윤해의 집과 10두씩 나누어 먹게 했다.

김귀실의 처가 햇고사리 5단을 가져왔다.

6일. 박언수를 불러다가 먼저 윤해의 목화밭을 간 뒤에 관의 둔전으로 옮겼으나 끝내지 못했다. 목화 3두 5되를 심고, 또 깨 1되를 심었다. 김담은 휴가를 얻어 가지고 제 밭을 갈고자 이곳 소를 가지고 갔다. 저녁에 눌은비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곧 밭에 씨를 심기 위해서 불러온 것이다. 집사람의 편지를 보니 오는 10일에 온다고 하고, 돼지고기와 노루고기 조금씩을 보내왔다. 모레 속절 차례 때 쓰려 한다. 또 들으니 윤겸의 첩은 지난 2일에 도로 그 집으로 보냈다 한다. 그는 곧 사비이므로 속신하기가 몹시 어려워서 부득이 돌려보낸 것이다. 다만 태기가 있어 만삭이되었는데 만일 아들을 낳아 주지 않으면 후일의 일이 몹시 걱정된다. 제 상전이 좋은 기화로 알고 속신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니 욕을 많이 당할 터라 몹시 불행한 일이다.

7일. 조인손을 얻어서 어제 못다 간 밭을 다 갈았으나 씨는 다 뿌리지 못했다. 윤해가 앞내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 1사발을 얻었는데 내일 차례에 쓰련다. 김언보가 와서 보았다. 지난달에 번 서는 일로 서울에 가서 돈을 주고 대신 세우고 이제 비로소 돌아왔다고 한다. 갈 때 광노에게 패자를 보냈더니 즉시 전해 주었다 한다. 피1두 1되를 뿌렸다. 박언수가 천어 1사발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2마리는 몹시 크다. 8일. 사동을 얻어서 동쪽 가의 관의 둔전을 갈았다. 요새 언신의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을 얻어서 간 것이다. 김담도 역시 소로 갈기를 마쳤으나 씨는 다 뿌리지못했다. 오늘은 곧 속절이다. 떡을 만들어 먼저 아버님께 제사 지내고 다음으로 죽은 딸에게 지냈다. 현에서 사람이 제주 1병과 여항어 5마리를 가져왔다. 양식 어육탕에 어육 구이, 생전복구이로 제사를 지냈다. 사동이 햇고사리와 나물을 가져왔다.

9일,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어제 못 다 뿌린 밭에 피 1두 3되를 심었다. 안협에 사는 부자 연수가 와서 보고 꿩 2마리를 가져왔다. 여러 달 동안 꿩을 보지 못한 지오래이니, 곧 관에 매가 없기 때문이다. 곧 이것을 구워서 어머님께 드리니 몹시 기쁘다. 소주 2잔을 대접해 보냈다. 이같이 산고사리가 한창일 때 꿩고기를 섞어국을 끓여 먹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조인손이 산나물을 가져왔다.

10일. 전풍이 천어 30여 마리를 가져왔다. 이는 곧 앞내에 통발을 친 데서 잡은 것이다. 민시중이 물고기 50여 마리를 낚아 가져왔다. 소주 1잔을 대접하고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 말렸다. 전풍이 가져온 물고기는 소금에 담갔다. 또 춘금이 등으로하여금 그물을 가지고 가서 1백 40여 마리를 잡아다가 역시 소금에 담갔다. 저녁에 집사람이 둘째딸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윤해와 인아가 모시고 왔다. 지난달 3일에 현에 들어가서 38일을 머물다가 비로소 돌아왔다. 백미 5두 · 중미 10두 · 밭쌀 15두 · 꿀 3되 · 잣 1두 · 대구 3마리 · 은어 25마리 · 노루고기 조금을 가져왔다.데리고 온 아노 및 관인 등은 바로 돌려보냈다. 청절병 1행담도 역시 만들어 와서온 집안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11일. 김담으로 하여금 윤해의 집 밭을 갈게 했으나 마치지 못했다. 최 참봉 경수가 와서 보고 그길로 안협으로 가서 태수를 만난다고 한다.

12일. 언신, 김담 등으로 하여금 소 2짝으로 윤해의 집 묵은 밭을 갈게 했으나 마치지 못했다. 경수가 안협에서 돌아왔는데 들으니, 창산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비로소 안협에서 들었다고 한다. 창산은 곧 그의 매부로서 성수익이다. 춘금이로 하여금 안팎 밭에 외를 심게 했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절인 조기 15마리, 가자미 5묶음을 보내왔다. 술은 아직 먹어 보지 못했고 내일 새벽에 바로 모이는 곳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곧 내일은 전일에 약속한 여러 사람들과 역시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술을 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누에를 비로소 쓸어 내렸다.

13일. 윤겸이 술 3병을 보내서, 즉시 점심 쌀을 가지고 언명 및 두 아이와 함께 전일 모였던 냇가로 가는데, 나만 홀로 말을 타고 나머지는 모두 걸어서 갔으니 말이 없기 때문이다. 붕질, 충손도 역시 함께 갔다. 냇가에 이르니 오래지 않아서 최 판관이 오고, 가장 늦게 김명세, 김린 및 허충, 김애일 등이 따라왔는데, 각각 술과 밥쌀을 가져왔고, 김, 허 두 사람은 물고기를 낚아 왔다. 상인 민시중, 박언수, 김 억복 등도 역시 물고기를 낚아 가지고 와서, 회도 치고 혹 탕도 끓여서, 가지고 간술을 다 마셨는데 상하가 모두 마셔서 비록 몹시 취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얼근해서 해가 기운 뒤에 각각 흩어졌다. 다만 최경수 부자는 창산의 부음으로 인해서 모

임에 오지 않았으니 사람의 일이 탄식스럽다. 오늘 언신, 김담 등으로 하여금 소 2 짝으로 윤행의 집 묵은 밭 어제 못다 간 것을 다 갈았다. 집에 와서 들으니 독운어 사 유공진이 안협의 친가로부터 이곳을 지나가다가 와서 만나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물어보았더니 마침 내가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윤겸에게로 갔다고 한다. 전에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윤겸과 서로 알아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필경 한번 만나 보고자 한 것이다.

14일. 또 언신으로 하여금 윤해의 집 밭을 갈게 했다. 소 1필은 전풍이 빌려갔다. 집 쪽 울타리 밖의 산등성이에 풀을 베고 갈아서 밭을 만들고 춘금이로 하여금 밭 두둑을 만들고 구덩이를 판 뒤에 인분을 넣어 수박, 참외를 심으려 하는데 인분이 없어서 넣을 수가 없다.

15일.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근일에 마땅히 함열과 같이 오겠다고 했다. 노루 앞다리, 갈비, 목줄 각각 하나씩을 보냈다. 말린 은어 2묶음도 보내왔기에 답장을 써서 도로 보냈다. 병아리 1마리를 붕아가 키우는 개가 물어 죽였다. 전일에도 1마리를 물어 죽여서 길가에 버렸더니 매가 잡아갔고, 또 1마리를 물었는데 아직 죽기 전에 구해서 죽지 않았었는데 이제 또 이와 같으니 분통함을 이기지못하겠다. 죽이자니 아깝고, 내버려 두자니 필시 다 죽이고야 말 것이므로 잡아매서 아내로 보내어 두고 기르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 스스로 제 죄를 알았는지 멀리 가고 돌아오지 않으니 붙잡을 수가 없어서 더욱 걱정이다.

16일. 아침에 흰 개가 또 병아리를 물었으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붕아로 하여금 목을 매어 때려 주고 그대로 잡아매어 두고 놓아 두지 않고 있다가 현에 들어가는 사람을 기다려 보내려 한다. 식사 후에 무료해서 언명과 함께 걸어가서 두 아이가 앞내에서 낚시질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냇가를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맑은 물에 발을 닦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두 아이가 낚시질로 천어 80여마리를 잡았다. 쪼개서 소금에 절여 말리게 했다.

17일. 새벽에 천둥치고 큰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이르러 그쳤다. 춘금이로 하여금 구덩이 30여 개를 파고 인분을 넣고 수박을 심었다. 언신이 조 심을 여러 밭을 돌아보니 말라서 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다시 두고 보아서 보종을

할 계획이다. 비단 우리 밭뿐이 아니라, 마을 사람의 밭도 역시 모두 이와 같아서 모두 보종하려 한다고 한다. 오후에 안협태수(유담)가 와 보았는데 이는 배 만들 재목 베인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미 윤겸과 여기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윤겸이 도착했는데 해가 이미 저녁이었다. 나무 베는 곳에 가 보지 못하고 윤겸과 같이 자고 내일 가 보기로 약속했다. 윤함도 역시 제 형과 같이 왔다. 윤겸이 올 때 백미 2두, 소금 1석 미역 1동, 은어 50묶음, 가자미 10묶음, 팥 10두, 말린 여항어 4마리, 절인 전복 80개, 송어 1마리, 식초 1되를 가지고 왔다. 꿩 2마리도 역시 가져왔다. 안협이 눌어 1마리, 천어 1사발을 역시 가져와서 저녁 식사에 탕을 끓여서 함께 먹었다. 가자미 1 묶음, 은어 4묶음을 각각 아우의 집 및 윤해의 집에 보내고, 또 노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18일. 언신, 김담 등으로 하여금 소 2마리로 이기수의 콩밭을 다 갈고 씨를 뿌렸다. 곧 7일갈이다. 전일에 관목을 첩지를 써 주어서 얻었다. 식사 후에 윤겸이 안협(유담)과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배 만들 나무 베는 곳을 가 보고 돌아왔다. 함께 동대에 올라가 눌어 5, 6마리가 못 속에서 노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조용히이야기했다. 나도 아우 및 세 아들과 함께 모두 따라가서 점심 식사를 했다. 해가기울어서 안협이 먼저 돌아오자 나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잠시 앉아 구경하고 돌아왔다. 안협은 돌아오는 길에 큰 자라를 얻어 보냈다. 내가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얻어 보낸 것이다. 신보구 하나를 윤겸이 가지고 왔다.

19일. 소 2짝으로 기수의 밭을 갈았으나 끝내지 못했다. 식사 후에 윤겸은 현으로 돌아갔는데 29일 제삿날에 와서 참사한다고 했다. 안협태수에게서 와기를 얻어서 사람을 보내서 도막으로 가져왔다.

20일. 또 소 2짝으로 하여금 어제 못 끝낸 밭을 갈았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인 아가 앞내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 1사발 넘게 잡아다가 쪼개서 말리게 했다. 현에서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무사히 현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 면에서 큰 사슴을 잡아 왔다고 사슴고기를 보내왔다. 오래 고기를 먹지 못하던 나머지에 이 아름다운 음식을 얻으니 즉시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먹었다. 윤함이 그 아우와 함께

절에 올라가려 했으나 아직 중지시켰다. 이는 곧 우리 집에는 편안히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윤해의 종과 말을 빌려 가지고 현에 보냈다. 우태를 얻어 오기 위해서다.

21일. 아침에 비가 내려 받을 다 갈지 못하고 다만 춘금이로 하여금 북쪽 울타리밖에 외 30여 구덩이를 심었다. 이 면의 색장이 현에서 왔는데 사슴의 머리 푹 삶은 것을 가져왔다. 저녁에 이 도사 태수가 찾아왔다. 난리 후에 이제 서로 만나니기쁘고 위로됨을 이길 수가 없다 이는 정로 씨의 아우로서 한 마을에 같이 살아서서로 몹시 가깝게 지내던 자이다. 그와 함께 정로, 응춘 두 집의 화난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슬퍼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렸다. 정로는 곧 이순수 씨요, 응춘 은 이용이니 천로의 매부이다. 이들은 모두 난리에 그 처자들이 혹은 임진의 적에게 해를 당하고 혹은 계사ㆍ갑오의 병에 전염되어 죽었다. 천로는 태수의 자인데, 지금 연천 농사에서 살고 있다. 이 마을 서쪽 집 사동의 처가 그 계집종인데 마침 일이 있어 지나가기 때문에 와서 본 것이다. 이에 저녁밥을 대접해 돌려보내서그 종의 집에서 자게 했다. 지난밤 꿈에 자미와 최경선을 보았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아서 깨고 나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22일. 이천로가 계집종의 집에서 머물다가 식사 후에 와서 보고 조용히 옛이야기 하다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해가 기울어서 자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저녁에 또 와서 보고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김 별감 린이 와서 보고 콩 10두를 가져왔다. 이는 김 주부 명세 등과 수합해서 보낸 것이다. 내가 군색하고 식구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술 큰 사발 하나를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안손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이 콩 25두를 보냈기에 10두는 윤해의 집에 나누어 보냈다. 그 햇콩을 골라서 보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자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묵은 콩도 역시 섞였다니 한스럽다. 김담으로 하여금 소 1마리를 가지고 어제 못다 간 밭을 갈게 했다. 인아가 오후에 가 보고 올 때 여러 조밭을 둘러보았더니 고한필, 박문재의 두 밭은 이른 조를 심어서 드물게 났다고 한다. 보종을 하려 해도 절기가 늦었기 때문에 마땅히 콩과 팥을 싹이 드문 곳에 심는다고 한다. 그러나 널리 노농에게 물어본 후에할 계획이다. 목화밭도 역시 씨가 드물다고 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23일. 이 도사 태수를 청해다가 아침 식사와 점심을 대접했다. 또 소 1짝으로 하여금 어제 못다 간 밭을 끝내고 씨를 심었는데, 콩 14두 · 팥 6두를 심었다. 소 2짝으로 사홀을 갈고 1짝으로 이틀을 갈았으니 곧 닷새를 갈아서 끝낸 것이다. 오는 가을 연사가 좋으면 수확이 필시 많을 것이다. 늦은 후에 친히 밭 간 곳을 가 보고, 소근전으로 올라가서 중금의 밭에 씨를 뿌릴 만한 곳이 있는가 둘러보았으나, 길이 멀어서 경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현복에게 주어 병작하게 했다. 돌아올 때 배만드는 곳에 가 보고 김 주부(김명세), 최 별감과 함께 한참 이야기했다. 두 고을의목도꾼이 많이 모여 치는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하니 이 같은 농시에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24일. 언신, 김담으로 하여금 소 2짝으로 언춘의 밭을 갈고 종콩 2두 8되를 심었다. 일찍 끝내고 언신의 밭으로 옮겨 조금 갈았다. 중금의 밭을 병작하는 사람들 김현복. 염광필이 와서 콩씨를 가져갔다.

25일. 아침 비로 인해서 밭을 갈지 못했더니 늦은 후에 개었다. 세 계집종으로 하여금 적태를 고한필의 밭 싹이 드문 곳에 심게 했더니 7되를 심었다. 해주의 윤함의 처가 종이 말을 가지고 왔다. 윤함을 데려가기 위해서다. 그 처자들은 모두 무사하나 다만 성아가 학질을 앓는데 아직 떼지 못했다 하니 걱정스럽다. 윤함의 장모가 찹쌀 2두, 누룩 2장을 보냈고, 윤함의 처는 백미 2두를 보내왔다. 저녁에 현리가 제물을 가지고 왔기에 편지를 보니 윤겸이 처음에는 제사에 와서 참례하려했으나 와서 근친한 지도 오래지 않은데 이제 또 오면, 이 같은 농사철에 하인들이몹시 괴롭겠으므로 오지 않고 다만 제물만 보낸다고 했다. 제물은 박계 84잎·건시 4곶·잣알 1되·호두알 1되·꿀 3되·법유 1되·석이 8되·밀가루 2되·찹쌀 5되·노루 다리 3쪽·대구 3마리·백미 3두·중미 7두·밭쌀 2두·감장 3두이다.

26일. 소 2짝으로 언신의 밭을 갈게 했으나 오후에 비가 크게 내리더니 종일 그치지 않아서 다 심지 못했다. 함열의 덕수 등이 말을 가지고 왔다. 미역을 가지고 왔다. 미역을 사 가지고 해서로 행하다가 여기에 들렀는데, 비로 인해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잤다. 자방의 편지를 보니 온 집안이 무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요새 쓸데없는 비용이 몹시 많아서 하루에 상하가 먹는 것이 3두에 이른다고 했다. 밭 가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윤해의 집 콩밭 · 팥밭도 역시 갈지 못했는데, 비 내리는 것을 보면 필시 장마인데 수일 안에 만일 개지 않으면 때가 이미 늦을 것이니 몹시 걱정스럽다.

27일. 혹 비도 내리고 혹 개기도 하여 종일 음산해서 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곧 제물과 채소 및 꿩 2마리를 가져왔다. 언신으로 하여금 깨진 호미 및 낫 등을 가지고 배 만드는 곳에 가서 고쳐 만들게 했다.

28일. 언신이 개조한 철물을 가지고 왔는데, 새 호미 3개·헌 호미 3개·도끼 1개 및 함열가의 호미 3개·부엌칼 1자루이다. 이는 곧 관의 명령이다. 내일이 대기이 기 때문에 온 집안 상하가 모두 제찬을 준비하고 종일 재거했다.

29일, 아버님 제삿날이다. 아우 및 세 아들과 함께 밝을 무렵에 제사를 지내고 음 식은 가까운 마을 남녀를 불러서 술과 떡을 대접했다. 윤해의 처남 최정운이 마침 왔기에 큰 잔으로 술 3잔을 대접해 보냈다. 아침 식사 후에 윤함이 현으로 들어갔 는데 요새 마땅히 서쪽으로 가겠으므로 제 형과 누이를 보기 위해서다. 덕노도 역 시 따라갔다. 곧 단오가 가까웠는데, 아우와 아이들이 모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 에 덕노로 하여금 제물을 현에서 얻어 가지고 올라가서 조상의 묘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이다. 남매에게도 글을 써서 보냈다. 또 천어 말린 것 40여 마리 및 당귀 나 물 2묶음을 보냈다. 또 편지를 써서 영암 임매에게 보내서 임정자 현으로 하여금 인편을 찾아 보내게 했다. 민 참판 준 영공에게도 역시 편지를 써서 임현에게 전하 게 했다. 남과 북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임매는 난리를 만난 후에 피차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만, 다만 들어갈지 아닐지를 알 수 없다. 함열 딸에게도 역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자방에게도 또한 답장을 써서 보내 고 또 호미 3자루 · 마철 1벌 개조한 것 · 작도 및 협철 · 채도 등 물건을 보냈다. 딸 이 목미를 얻고자 하기에 피목 1두를 역시 보냈다. 부석사 중 법희가 와서 보고 짚 신 3켤레와 아우와 두 아이에게 각각 2켤레씩을 가져왔다. 술과 밥을 대접해서 보 냈다. 온 집안의 네 노비로 하여금 비로소 이인방의 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 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순찰사 정숙하가 내달 11일에 현에 와서 하루를 머문다는데, 데리고 오는 사람이 몹시 많아서 대접하기가 몹시 어렵겠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함열의 글도 역시 왔는데 모레 마땅히 서울에 갈 것이라했다. 또 조보를 보니 유 제독이 오래지 않아 도착하겠으니 먼저 오는 군사가 도로에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무주에 들어가 점령한 적은 우리 군사가 섬멸시켰다고한다. 또 현리 전거양이 어사를 모시고 삼척에 이르러 보고한 글에 보면, 경상좌도병사가 적세에 대한 회답에 말하기를 울산 성황당, 도산의 굴혈을 내성은 개축하고 밖의 토성은 더 쌓았으며 그 나머지 여러 곳은 전과 같이 점령하고 있는데, 적의 배가 일본으로부터 나와서 그 수를 알 수 없어 혹 우도 양산 호포를 향하여 정박하고 금정산에 군막을 세우려고 날마다 나무를 베어 영채를 만든다고 했다. 병아리 17마리가 둥우리에서 내렸다.

그믐날. 소 2짝으로 하여금 전일에 못다 간 밭을 갈고 또 조연전의 밭으로 옮겼으나 끝내지 못했다. 다만 씨를 심는 계집종이 겨우 2사람이니 필경 다 심지 못할 것이라 한스럽다. 누에치는 것도 몹시 번잡하고 또 뽕 따는 데도 사람을 얻어도 감당할 수가 없으며, 밭 갈고 씨 뿌리는 것도 끝내지 못했는데 일찍 간 것은 풀이 무성한데도 역시 미처 매 주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언신의 밭에는 팥 3두 2되 5흡을 심었는데, 오후에 친히 가서 돌아보고 저물게 언세로 하여금 뽕을 따오게 했다.

## 5월

1일. 언신으로 하여금 참깨밭을 갈게 하고, 김담으로 하여금 어제 못다 간 밭을 갈게 하여 끝마친 후에 김언보의 밭으로 옮겨다 심지 못하고, 조련의 밭에 검은 콩 1두 2되 · 붉은 콩 1두 3되 · 잔 콩 2두 3되를 심었다. 춘금이가 두 계집종을 데리고 뽕을 따 가지고 왔다. 이로부터는 날마다 세 노비를 나누어서 뽕을 따야 한다. 어제 신수함이 가져온 벌통에서 새끼벌을 낳았다.

2일. 춘금이 · 막비로 하여금 어제 못다 심은 콩을 심고, 옮겨서 참깨를 갈았다. 김 담은 두 계집종을 데리고 또 뽕을 따 가지고 왔다. 저녁에 윤함이 현으로부터 와서, 비로소 윤겸이 처가 어제 닭이 울 축시에 생남한 것을 알았으니 기쁨을 이길수가 없다. 이것이 곧 장손으로 능히 조상의 제사를 받들 것이다. 비록 지손이 있

지만 어찌 이 아이보다 더할 수 있으랴. 밤새 기뻐서 자지 못했다. 산부도 별로 딴탈이 없고 아이의 몸도 충실하고 좋다고 하니 더욱 기쁘다. 사조(四條)는 戊戌木 · 丁已土 · 乙酉水 · 丁丑水로서, 5월 절기 4일이기 때문에 4월로 보고 아이의 이름을 승업(承業)이라 지었으니, 조상의 선업을 계승하고, 승승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3일. 윤함이 내일 떠나가려고 행장을 차리는데, 다만 비가 올 조점이 있어서 기필할 수가 없다. 전일에 언신이 갈던 깨밭을 오늘 비로소 다 갈았는데 참깨 1되 7흡을 뿌렸다. 윤함이 올 때 윤겸이 말린 여항어 15마리 · 생여항어 5마리 · 알 1사발반을 보냈기에 동쪽과 서쪽에 각각 1마리씩 주고, 윤함의 집에도 역시 3마리와 꿀 2되를 보냈다. 또 들으니 순찰사의 행차는 6일로 정해서 하루를 머무르고 6일에 철원으로 떠난다고 한다. 그러나 8일은 곧 윤겸의 처제의 혼인이어서 일이 시끄러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4일. 윤함이 비로 인해서 떠나지 못했다. 비록 크게 오지는 않아도 혹 뿌리기도 하고 혹 개기도 해서 떠날 수가 없다. 재인 등이 꿩 2마리를 잡아서 가져왔으나 줄물건도 없고 술도 없어서 다만 백미 2되를 주어 보답했다. 온 집안 노비 5인으로하여금 소와 말을 가지고 가서 뽕을 따서 가득 싣고 돌아왔다. 누에가 아주 번성한데 아직 섬잠도 자지 않아서, 안방 사랑방에 시렁을 매어 층을 만들었는데 아래 위에 모두 가득하다. 비록 날마다 소나 말에 가득히 따 와도 이튿날이면 모자라서 주릴 때가 많으니 장차 이루 때 대지 못하겠다. 또 일찍 간 조밭은 풀이 무성한데도미처 매 주지 못했고 콩밭은 이미 다 갈았지만 팥밭을 아직 다 갈지 못했으니 어느 겨를에 묵은 밭을 일군단 말인가. 절기가 이미 늦어서 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고 헛비용만 많이 들어가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민망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녁에 세만이 들어왔는데 편지를 보니 어린에는 몸이 완전히 충실하고 우는소리도 응대하다고 하니, 반드시 우리 집의 천리구(千里駒)일 것이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팥 1석ㆍ백미 1두ㆍ차좁쌀 1두를 보내왔다. 팥은 묵은 밭에 심을 것이요, 쌀은 내일 속절에 떡을 만들어 쓸 것이다. 신수함의 벌통이 또 새끼벌

1 천리구(千里駒): 나이 어리고 재주가 있는 사람의 비유, 어린애를 칭찬해서 부르는 말.

을 낳아서 서쪽 울타리 밖에 매달고 박언방으로 하여금 받아서 먼저 있던 벌통 밑에 달게 했다. 새끼 벌은 3되가 넘는다.

5일. 절일이기 때문에 술과 떡을 준비하여 신주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웃마을 사람들이 각각 송편을 가져오고, 또 와서 보는 자도 있어서 각각 술과 떡을 대접해보냈다. 오후에 최정운 형제가 찾아왔으므로 역시 술과 떡을 대접했다. 단오인데도 마을 안의 아이들이 하나도 그네를 매고 뛰는 자가 없으니 가위 소박하다 하겠다.

6일. 이른 식사 후에 윤함이 비로소 서쪽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여름을 지내려 했었는데, 사람과 말이 와서 부득이 떠나는 것이다. 작별에 임하니 서운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문에 나가서 우두커니 서서 가는 모양을 멀리 바라보니 흰 옷이 숲사이에 들락날락 하더니 산을 넘은 뒤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눈물을 뿌리고 방으로 돌아오니 하루 종일 허술해서 마치 잃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부자가 같이 살지 못하고 해마다 왔다 가서 길이 이별한 속에 있고, 한번 작별하면 소식을 전할 수 없다가 반드시 만난 후에야 피차의 길흉을 알게 되니, 이것이 시절인가, 운명인가. 슬퍼할 뿐이다. 온 집안 다섯 사람으로 하여금 이인방의 전일 못다 맨 조밭을 다 맨 후에 박문재의 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신수함의 벌통에서 또 새끼벌이 나서 동쪽 울타리 밖의 배나무에 매달고수이로 하여금 받아서 앉히려 했더니 도로 흩어져서 뒷산 1마장이나 되는 곳 숲의나무 밑에 모였으므로 간신히 받아다가 언명의 방 밖에 앉혔다. 거의 잃을 뻔하다가 도로 얻었으니 기쁘다. 수이가 벌을 앉히는 법을 알지 못하고 미끄러운 그릇에 받아서 그랬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도로 도망한다고 한다.

7일. 언신·김담으로 하여금 소 2짝으로 김언보의 밭을 갈고 팥을 심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또 세 계집종으로 하여금 박문재의 조밭을 매어 다 맸다. 식사 후에내가 친히 돌아보았다. 다만 언신 등이 힘을 다해서 갈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갈밭을 소 2짝으로 갈았어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밉살스럽다. 저녁에 이 면의 면장이 현으로부터 감사의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들으니 어제 현에 들어와서 오늘 머물러 있다고 한다. 백미 5두·콩 1석·좁쌀 10두·대구 5마리·은어 20묶음 등 물

건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현의 장무가 또 노루 다리 1짝을 보냈다. 요새 양식과 반찬이 떨어졌을 때 의외의 물건을 얻으니 몹시 기쁘다. 다만 최해성 군 황도 역시 나를 보아 주었다 하는데, 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터라 생각할 이치가 없는데 필시 잘못 들리는 말이라 괴이하다. 어제 잡은 아기벌은 그 집이 불안해서 흩어져 나와 집에 가득하여 혹 방에 들어와 옷을 뚫어서 상하가 많이 벌에 쏘이고, 혹 도로 통 안으로 들어갔다가도 즉시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하다가 날이 저문 후에 이르러서야 모두 들어간다. 이에 벌 기르는 법을 아는 자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도망갈 것이니 그 통구멍을 막아수일 동안 두었다가 도로 빼 주면 거의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기에 즉시 막아주었으나 오래지 않아서 도로 도망쳤다고 한다. 오후에 채억복이 가져온 벌이 새끼벌을 낳았으므로 배나무 위에 매달고 쓸어서 북쪽 울타리 밑에 앉혔다.

8일, 또 언신 등으로 하여금 소 2짝으로 어제 못다 간 받을 갈게 하여 다 갈고, 팥 5두 6되를 심었다. 이 밭은 3일갈이라 하나 2일갈이에 지나지 않는다. 개비 등 세사람이 김억수의 조밭을 맸으나 끝내지 못했다. 들으니 순찰사는 오늘 철원으로 떠났다고 한다. 윤겸의 처제는 역시 오늘 혼인을 지낸다고 하는데 횡성수의 재취이다. 요새 콧부리 아픈 병이 몹시 성해서 상하가 모두 앓아 심지어 언명의 막내딸신아의 계집종 옥춘이 몹시 괴롭게 앓아 이제 5, 6일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덜하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인아의 처는 귓구멍을 앓아서 몹시 괴로워하고 두통도 겸해서 있어, 어제부터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병아리 9마리를 내렸는데, 모두 두 번째이다.

9일. 김담·춘금이 및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소 둘을 가지고 가서 뽕을 따 가지고 왔다. 안팎에 있는 누에가 모두 석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바야흐로 많이 먹는다. 안협·평강 두 고을 근처 사람들이 날마다 뽕을 따는 자가 산에 가득히 뽕나무를 찾기 때문에 가득 실어 오지 못했다. 종일 주리던 누에들이 오늘 밤에 2번 먹은 후 에 내일은 필시 굶을 것이다. 한 집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과다하게 쳐서 온 집안 노비로 하여금 누에치는 데만 전력하고 밭 갈고 김매는 일은 돌아다볼 겨를이 없 게 만들었으니, 농사철이 이미 늦어서 묵은 밭을 일구는 일은 형세가 미치지 못하 고 조밭은 풀이 무성한데도 역시 제때에 매 주지 못하여 장차 쑥밭이 되겠으니 말할 수가 없다. 더구나 또 상하가 모두 병이 나서 누워 앓는 자가 역시 많고, 그중에도 언명의 계집종 개금은 몹시 아파서 종일, 밤새 아프다고 부르짖으니 더욱 몹시 걱정스럽다. 전일 신수함의 벌통에서 세 번째 난 벌이 오늘 도망갔으니 아깝다. 아무리 그 구멍을 막아도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으니 형세가 막을 수가 없다.

10일. 또 말 두 필에 노비 넷으로 하여금 뽕을 따오게 했다. 그러나 이웃 사람 조인 손을 얻어서 뽕을 따오게 보냈더니 그 이웃의 고약한 젊은 놈 한복이라는 자가 인 손이 우리 집 계집종을 시켜서 저희가 딸 뽕을 따가게 했다고 서로 다투다가 낫으 로 얼굴을 찍어 거의 눈이 멀 뻔하다가 요행 면하고 눈썹가가 조금 찢어져서 피가 흘러 낯에 가득하니 몹시 미운 것을 이길 수 없다. 잡아서 현리가 가는데 보낼까 했으나 사삿집에서 잡아 보내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을 중지하고. 돌아가는 현리로 하여금 윤겸에게 고하여 잡아다가 죄로 다스리라고 말했다. 저 녁에 현리 민득곤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순찰사는 무사히 지나갔고. 그 처 제의 혼인도 역시 잘 지냈다 한다. 다만 두 집 손님을 대접하기에 관비(官費)를 많 이 소비했다고 하니 걱정이다. 노루 다리 1짝 · 어린 돼지 1마리 · 위어 9마리 · 청 주 3병을 보내왔다. 오래 먹지 못하던 나머지여서 즉시 아우와 함께 1잔씩 마셨다. 아우의 계집종 개금이 머리와 가슴을 앓아 몹시 괴로워하여 죽과 미음도 전혀 먹 지 못하고 헛소리를 많이 하여 증세가 몹시 위태롭다. 오직 계집종 하나인데 병세 가 이와 같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인아의 처의 귀앓이는 여전하니 더욱 민망스럽 다. 온 집안 안팎에 누에가 방에 가득하여 용슬할 곳도 없다. 아우와 두 아이와 함 께 종일 동대에서 거처했다. 내가 보니 두 아이가 물고기 낚은 것이 거의 1사발이 나 되고, 충아까지도 7마리를 낚았으니 기쁘다.

11일. 인아의 처의 귓병은 저절로 터져서 물이 나오더니 점차 나아 가고, 개금도 역시 차도가 있으니 기쁘다. 종일 아우와 두 아이와 함께 동대 위에서 거처하면서 두 아이로 하여금 혹 낚시질도 하고 혹 그물질도 하여 거의 1사발이나 얻어서 회를 쳐서 먹으려 했으나 딸들이 누에치는데 바빠서 칼을 잡는 자가 없어서 해 먹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오늘 또 세 종으로 하여금 소 2마리를 가지고 뽕을 따서 가득 싣고

왔다. 덕노가 서울에서 현에 돌아왔는데 그대로 여러 날 머무르고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필시 뽕 따는 일을 피하는 것이라 밉살스럽다.

12일. 또 세 종으로 하여금 소 3마리를 가지고 가서 뽕을 따게 했는데, 소 1마리는 오늘 실어 오고 2마리는 내일 따오게 했다. 오늘도 역시 동대에 가서 종일 쉬었다. 덕노가 돌아와서 남매의 편지를 보니 무사히 있다고 했고, 중소 씨도 역시 편지를 하고 겸해서 차 잎새 1봉을 보냈는데, 이는 곧 중국 장수가 준 것이라고 한다. 임정자 현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영암 임매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한다.

13일. 또 언신 · 덕노로 하여금 소 2마리를 가지고 가서 뽕을 따오게 했다. 어제 보낸 김담 등의 두 소는 오후에 뽕을 실어 왔다. 저녁에 윤겸이 와서 근친했는데, 소주 1병을 가지고 왔기에 즉시 언명과 각각 1잔씩을 마셨다. 오래 마시지 못하던 나머지여서 목구멍에 다 내려가기도 전에 가슴이 시원하다. 저녁에 천둥과 비가 크게 일더니 한참 만에 그쳤다. 붕아는 비로 인해서 박 모를 모종했다.

14일. 또 김담·춘금이로 하여금 소 1마리를 가지고 가서 뽕을 따오게 했더니 1바리도 차지 않으니 내일은 반드시 굶게 되었다. 그저께 조인손을 칼로 상하게 한 한복이란 자는 윤겸이 여기에 와서 듣고 즉시 포도장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현으로보내 가두었다가 장차 엄중하게 그 죄를 다스리게 했다. 근일 양식이 떨어졌는데, 윤겸이 첩지를 주어서 배만드는데 남은 밭쌀 10두를 가져다가 윤해의 집에 2두를 나누어 주었다.

15일. 또 언신 · 덕노로 하여금 소 1마리를 가지고 가서 뽕을 따오게 했다. 늦은 후로부터 누에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종일 굶으니 애석하다. 절반은 섶에 올라갔는데 만일 굶기지 않았으면 오늘 거의 다 올라갔을 것이다. 오늘은 곧 증조의 기일이다. 찬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떡 · 면 · 삼색탕 · 구이 및 이색 실과 · 밥 · 국뿐이다. 나는 무릎 위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굴신을 못하기 때문에 능히 친히 지내지 못하고 아우로 하여금 혼자 지내게 했다. 집안 안팎에 누에 똥이 마당과 마루에가득하여 더러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앉을 곳도 없어서 하루 종일 동대에 누워 쉬었다. 채억복의 벌통에서 또 새끼벌이 났으므로 받아 왔으나 아주 달아났으니 아깝다.

**16일.** 기운이 불편해서 종일 신정에 앉았다 누웠다 했다. 누에는 이제 모두 섶에 오르고 남은 것은 겨우 1자리뿐인데, 내일 안으로 다 익는다 한다.

17일. 불편한 기운은 여전하고 왼쪽 무릎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굴신을 하지 못하 겠으니 민망스럽다. 통인 만세가 왔기에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고. 한복은 즉시 매를 때리지 않고 석방해서 이제 만세와 함께 돌아와서 사례하고 갔다. 오극일이 와서 보았는데 일찍이 뜻밖이라 10분이나 기쁘고 위로가 된다. 다만 관례도 하기 전에 만나고 보지 못한 지가 오래여서 처음 보았을 때는 얼굴을 알지 못해서 먼저 성명을 물어본 뒤에 비로소 알았으니 탄식스럽다. 같이 옛이야기와 지금 일을 말 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고 잤다. 종손은 오직 이 한 사람 뿐이어서 종가의 고조 · 증조 이하 신주를 모두 해주 극일의 집에 갖다 모시고 있다. 근일에 국가의 군량이 없어져서 서울 조관의 양료도 주지 못하고. 영남에 있는 중국 군사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 양곡을 보내는 일이 몹시 급하다 한다. 이에 이 현에서 영남의 군량을 운반 하려고 마부를 내보내고 또 서울의 예초군을 풀어내니 민간이 소요스러워 전답을 파는 자가 많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인이 문에 찾아와서 이미 씨 뿌린 밭을 팔겠 다고 하고 포목으로 밥값을 달라고 하나 집에 1자의 포목도 없어서 이를 사지 못했 으나 그 슬퍼하고 간절히 구는 것을 보니 참혹함을 차마 볼 수가 없다. 나라의 일 이 이에 이르렀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누가 이런 줄을 알랴. 어찌할 수가 없 어서 다만 크게 탄식할 뿐이다.

18일. 오극일이 서울로 떠나는데 억지로 만류하려 했으나 이곳 사람이 서울에 가는 자와 같이 간다고 한다. 줄 물건이 없어서 다만 마태 2두 · 부스러기 쌀 5되를 주어 행자에 보태도록 했다. 윤함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남매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냈다. 어두웠을 때, 누에 섶 밑에 쥐 떼가 싸우므로 딸이 등불을 가지고 섶을 들고 보니 큰 쥐 5, 6마리가 달려 나오는데 누에고치를 모두 쪼개 가지고 산 더미처럼 쌓아 놓았고, 누에가 아직 고치를 짓지 않은 것은 역시 씹어 죽여서 썩어서 더러운 것이 방에 가득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즉시 섶을 딴 곳으로 떼어 옮겼지만 이미 훔쳐다가 씹어 찢은 것이 거의 3분의 1은 된다. 올해는 농사를 폐지하고 오로지 잠업에 전력했는데 마침내 나쁜 쥐의 훼방을 받아 도리어 허사가

되었으니 탄식스럽다. 지난봄에 병아리를 키우려 하여 먹이던 고양이를 부석사에 내보냈기 때문에 쥐 떼가 꺼리는 것이 없이 이와 같이 마음대로 하기에 이르렀으니, 가위 1가지 이로운 일이 있으면 1가지 해로운 것이 숨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도 이것을 잡을 길이 없어서 한갓 미움을 더할 뿐이다. 김담으로 하여금 관의 둔전에 팥 2말을 심었으니 이틀같이이다. 또 계집종으로 하여금 전일에 못 끝낸 받을 매게 했으나 역시 끝내지 않았다.

19일. 최 참봉 부자가 와서 보았는데, 그는 곧 백천 그 매부 창산군 성 공의 초상에 가다가 들러서 찾은 것이다. 집에 술 1잔도 없어서 대접해 보내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늦은 후에 아우 및 두 아이와 함께 배 만드는 데에 갔다. 배를 이미 다 만들어서 물속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가 본 것이다. 나는 먼저 돌아 올 때 밭 간 곳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현의 문안인이 들어왔는데 편지를 보니 우계(성혼)가 병이 중하다 하니 놀랍고 걱정스럽다. 백미 5두ㆍ밭쌀 10두ㆍ소금 9두ㆍ대구 2마리ㆍ말린 숭어 1마리ㆍ생선알 1조각ㆍ절인 위어 5마리를 보내왔다. 양식과 찬이 떨어졌는데 때맞추어 왔다.

20일. 덕노 및 춘금이로 하여금 조선소에 가서 나무 부스러기 및 장목을 거둬 실어오게 했다. 고치 찔 때 쓰려는 것이다. 오늘 고치를 다 따서 되어 보니 집사람의 것이 17두, 후임 어미의 것이 13두, 둘째딸의 것 8두로서 도합 38두미다. 쥐 떼에게도둑맞은 것이 거의 3분의 1이니 그렇지 않았으면 50여 두는 땄을 것이다. 밉살스럽다. 김억수가 천어 1사발을 가져왔다. 이는 지난밤에 횃불을 밝히고 쏘아서 잡은 것이라 한다. 곧 식혜를 담가 오는 25일의 어머님 생신에 쓸 계획이다. 몹시 기쁘다. 김담으로 하여금 어제 갈다 남은 밭을 갈게 하고 녹두 4되 5홉과 흑두 2되를심었다. 먼저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전일에 끝내지 못한 밭을 매게 하고, 이것이끝난 후에 이종했다. 요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외모를 모종하지 못한 채 덩굴이 뻗었으니 한스럽다. 오늘은 곧 죽전 숙모의 기일이다.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마침 기운도 편치 않고 무릎 위에 종기가 나서 굴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사하지 못하고 윤해로 하여금 대행하게 했다.

21일. 다섯 노비로 하여금 목화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는데, 이것은 반일갈

이이다. 목화가 씨가 드물고 깨도 역시 드무니 한스럽다. 이렇게 싹이 드문 밭을 다섯 사람이 매도 끝내지 못했으니 이는 곧 힘을 들이지 않은 것이다. 밉살스럽다. 언신으로 하여금 아는 곳에서 종콩을 꾸게 하여 10두를 가져왔다. 내일 씨를 심기위해서다.

22일. 곧 장인의 기일인데 윤씨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겠다. 새벽부터 비가크게 내리더니 아침내 오다가 그쳤다. 이 때문에 밭을 갈지도 매지도 못했다. 아직한 번도 매 주지 못한 밭이 반이 넘는데 풀은 무성하고 싹은 드물어서 열흘 안으로는 다 매 주지 못 하겠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덕노로 하여금 외 모를 모종하게 했는데 3곳이 각각 2줄기씩이다. 어제 윤겸이 마을 사람 오는 편에 편지를 보냈기에보니 관청 일이 지극히 걱정스럽다고 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가 세고 밥맛을 잊게 한다. 저녁에 관인이 또 와서 편지를 보니 심질이 강릉에서 어제 왔는데 오늘은 비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내일 마땅히 오겠다고 한다. 천만 의외의 일이라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어머님 생신에 대서 온 것이라 한다. 윤겸이 방어 1마리·고등어 30마리・알 15쪽·순채 1사발을 구해 보내왔다. 어물은 간성에서얻어 온 것이라 한다. 반찬이 바야흐로 떨어져서 민망하던 때에 의외의 물건을 얻으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23일. 덕노가 윤해의 말을 가지고 안손과 함께 현에 들어갔다. 안변의 윤해 종에게 가서, 물고기를 사 가지고 와서 보리와 바꿀 작정이다. 집사람이 수일 이래로 밤마다 조금 떨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은 저녁도 되기 전에 아프기 시작하여 밤새 고통스러워하고 구토를 그치지 않으니 학질과 같아 깊이 조심이 된다. 나도역시 왼쪽 어깨 위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하얗게 곪은 것이 콩만 하고 둘레가 붉게 부어서 마치 외의 크기만 하고, 손을 내리면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것 때문에 속머리가 조금 아프니 몹시 민망스럽다. 어제저녁 큰비로 인해서 냇물이 좀 불었으므로 안협이 만든 배를 끌어내리므로 나도 또한 병든 몸을 이끌고 동대에 올라가 구경했다. 저녁에 심질이 와서 서로 만나서 10분이나 기쁘고 위로가 된다. 천리 고개 밖에서 어머님 생선을 위하여 와서 서로 어머님 방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했다. 겹저고리 · 버선 · 검은 신을 만들어다가 드리고 또 미역 12동 · 고등어 15마

리·대구 5마리·문어 1마리·북어 1마리·절인 전복 50개를 갖다 드리고, 내 집에는 미역 14동·고등어 15마리·대구 5마리·문어 1마리·절인 전복 백 개·버선 19켤레를 가져왔고, 언명에게는 미역 5동·고등어 10마리를 가져왔고, 윤함에게는 미역 1동을 주었다. 현에 있을 때 함열의 집 및 윤겸에게 각각 미역 3동씩을 주었다 한다. 이 같은 고열에 천 리나 되는 험준한 고갯길을 찾아왔으니 비록 지친이라 해도 정의가 몹시 두텁지 않으면 어찌 여기에 이르겠는가. 깊이 감사한다. 어머님께서는 그가 온 것을 기뻐하시고 그 드린 물건이 많은 것에 감사하신다. 다섯 노비가 관의 문전을 매어 끝냈다.

24일. 아침에 큰비가 내리다가 조금 후에 그쳤다. 늦은 후에 네 노비로 하여금 고한필의 밭을 매게 하여 마쳤다. 오후에 윤겸이 왔는데 내일 어머님 생신을 위하여 물건을 갖추어 가지고 왔다. 백미 2두·중미 5두·떡쌀 1두·찹쌀 3되·좁쌀 1두·면가루 1두·녹두쌀 3되·꿀 2되·참기름 3되·법유 1되·잣알 1 되 5홉·호두알 1되·대구 3마리·문어 반 짝·닭 3마리·생붕어 11개·찐 새끼노루 2개·소주 5병 및 삼색 채소를 가지고 왔다. 새끼노루는 온 집안 식구와 같이 먹고, 소주 1잔을 마셨다.

25일. 어머님 생신이기 때문에 면 · 떡 · 술 · 과일로 잔을 돌리고 나머지는 이웃 마을에서 와 본 자들에게 주었다. 또 새끼노루 2마리를 현으로부터 보내왔다. 나는 왼쪽 손등이 크게 붓고 붉은 빛이 나므로 중상을 두려워하여 이은신을 불러서 침으로 째고 소금물로 2번 씻었더니 별로 쑤시고 아프지는 않았으나 점점 붉게 부어손가락에까지 뻗쳤으니 걱정스럽다. 보리를 베어 실어 왔다. 4바리인데 미처 뚜드리지는 못했다.

26일. 윤겸이 일찍 식사를 마치고 현으로 돌아가는데 이은신도 함께 갔다. 집사람은 지난밤에 기운이 불편해서 밤새 뒤적이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낫지 않고 종일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음식이 달지 않으니 필시 학질일 것이다. 원기가 몹시 약하고 없어졌는데 또 이 병을 얻었으니 걱정이다. 병아리 19마리를 일찍이 둥우리에서 내려 조롱에 가두었으나 어제 부산한 중에 잊어버리고 물과 모이를 주지 않아서 모두 목마르고 주려서 죽었고 다만 3마리만 살아 있는데 그것도 죽지를 느리고

죽어 가니 아깝다. 내 손의 부은 것은 전과 같으나 다만 다시 더 붓지는 않고 붉은 기운도 없어졌다. 언명의 집에서는 고치 8두를 땄는데 오직 계집종 하나만이 뽕을 땄기 때문에 힘을 생각해서 조금 친 것이다. 쥐 때문에 손해나지도 않고 주려서 해를 보지도 않고서 온전히 길렀기 때문에 누에는 적어도 많이 땄고, 우리 집은 치기를 지나치게 많이 해서 날마다 뽕을 따는데 4, 5인이 소와 말을 가지고 3, 4바리씩 가득 실어와도 오히려 주린 날이 많아서 이 때문에 손실된 것이 자못 많았고, 또쥐에게 손실당하고 병아리가 쪼아 먹었으며, 미련한 계집종들이 또한 밟아 죽인 것이 많아서 끝내 소득이 지극히 적은 데다가 또 농사일을 폐하여 첫 번 매는 것을 지금까지 끝내지 못했으니 이는 모두 힘을 가량하지 못한 까닭이라, 한탄한들 무엇하랴. 보리를 두드려 키질을 했더니 35두인데 비로 인해서 다 뚜드리지 못했다. 아우의 집에 4두, 윤해의 집에 5두를 나누어 주었다.

27일. 마을 사람 20여 명을 모아서 여러 사람의 힘으로 풀을 매려 했더니, 아침 식사를 겨우 마치자 큰비가 내려 이로 인해서 모두 흩어졌으니 하늘도 역시 돕지 않는 것인가. 탄식스럽다. 집사람은 비록 아프지 않은 날이라도 능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길이 누워서 피곤해하니 걱정스럽다. 사람을 보내서 최중운의 집에서 가지모를 빌려다가 뒤 채마밭에 심었다. 모두 25포기인데 10포기는 자주가지라고 한다. 이곳에 심은 것은 모두 죽고, 산 것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 온 것이다.

28일. 마을 사람 및 온 집안 노비 등 도합 25명으로 먼저 김광현의 밭을 매고 뒤에 전풍의 밭으로 옮겨 끝냈다. 뒤에 또 관의 둔전을 매어 도합 7일갈이를 모두 다 맸다. 하늘이 비록 음산하나 종일 비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다 맸다. 이는 곧 처음 매는 것이다. 다만 아직 매 주지 못한 것은 깨밭뿐이다. 양식은 4두가 넘게 들었다. 내 손은 점점 나아 가는데 다만 종기 자리가 합창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집사람은 증세가 비록 대단치 않으나 날마다 저물녘에는 기운이 불편하여 밤새 뒤적이고 종일 피곤하여 전혀 식사 생각이 없어 원기가 날로 점점 쇠퇴해 가니 몹시 걱정스럽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생붕어 17마리 순채 2사발을 보내왔다.

**29일.** 죽전 숙부의 기일이다. 면 · 떡 · 밥 · 국으로 제사를 차렸는데, 나는 손과 무릎의 종기가 차도가 없기 때문에 윤해로 하여금 지내게 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

더니 아침이 되어도 그치지 않는다. 어제 만일 풀을 매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뻔했다. 오후에 소나기가 크게 내려 2번이나 계속하다가 조금 후에 그쳤는데 내흐르는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고 건너편에서 풀을 매던 사람들은 마침 배가 있어서 타고 건넜다. 그렇지 않으면 필경 냇가에서 잤을 것이다.

## 6월

- 1일. 집사람의 증세는 전과 같다. 새벽부터 천둥을 치고 비가 한참 내리다가 그치더니 혹비도 내리고 혹개기도 하고 혹 크게 내리기도 하고 혹 뿌리기도 하며, 혹해가 나기도 하고 혹 구름이 끼기도 하니 필시 장마일 것이다. 만일 오래 개지 않는다면 농사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산골짜기 속에 수답은 없고, 다만 전곡만이 있어서 가물어야만 먹고, 만일 오래 비가 오면 좋지 않다고 한다. 우리 집 깨밭은 아직 초벌도 매 주지 않다가 어제 종을 보내서 매게 했더니 풀이 몹시 무성하여 깨싹은 풀들에게 치어서 자라지 못한다고 하니 애석하다. 이 현에서 만드는 배는 전날 끌어내려서 동대 앞에 정박시켰었는데 오늘 늦게 전업이 일이 있어서 김담을 불러다가 물을 건너다가, 배 다루는 법도 모르면서 망령되이 스스로 닻줄을 풀어서 물속으로 흘려 넣어 그대로 앞 여울로 내려갔는데, 거센 물결이 부딪치자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서 배꼬리가 바위에 부딪쳐서 여러 곳이 부서졌다 한다. 이에 전업은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배 만드는 사람을 청해다가 보수하게 했으니 전업의 노망을 알 수가 있다. 뱃속에 있던 사람들은 꼭 죽는 줄 알고 우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으니 한편 우스운 일이다.
- 2일. 혹 비가 내리고 혹 개기도 하여 종일 음산하다. 이 면의 색장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편지를 보니 새끼노루 3마리ㆍ꿩 2마리ㆍ닭 1마리ㆍ석이 5되를 보내왔다. 3일. 집사람의 증세는 좀 덜한 것 같으나 다만 음식이 달지 않아 아주 쾌차하지 못하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제 어머니를 모셔다가 현아에 있게 하여 집안일을 걱정하지 않고 조양하게 하면 병이 쾌차할 수가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요새 장맛비가 계속 내려서 냇물이 넘쳐서 먼 길에 고생이 되고 또 더위가 찌니 몸이 더 상할 근심이 있다고 이런 뜻으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새끼노루

4마리·백지 1묶음·상어 2묶음을 보내왔다. 요새 계속해서 새끼노루를 얻어 쪄서 먹으니, 만일 관의 힘이 아니면 어찌 계속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 어머님께서는 요새 식사가 달지 않으시어 전일보다 아주 감해졌으며, 오늘 아침에는 계속해서 센이나 설사를 하여 기운이 피곤하고 더욱 음식을 싫어하시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온 집안 다섯 노비로 하여금 깨밭을 매게 하여 마쳤다.

4일. 어머님 이질 증세는 이미 차도가 있으나 다만 식사 드시는 것이 달지 않으시다. 집사람은 여전하여 밤마다 앓으니 걱정스럽다. 요새 긴 장마는 그쳐서 비록 흑 깰 때도 있으나 종일 음산해서 밭 매는 것을 폐지한 지 이미 오래여서 풀은 무성하고 싹은 드무니 조심스럽다. 쥐덫을 만들어 날마다 잡는데 오늘 밤에는 2마리가치어 죽었으니 쾌한 일이다. 손해 보아 분한 마음이 조금은 덜해진다.

5일. 비로소 새 외를 보았으므로 즉시 천신했다. 집사람이 병중에 먹고자 하므로 이웃집에서 1개를 얻어 왔다. 우리 집에서 심은 것은, 비록 덩굴은 자라고 꽃이 피었으나 아직 열지 않았다. 집사람의 증세는 여전하다.

6일, 큰비가 하루 종일 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밭의 풀을 뽑지 못했다.

7일. 두 계집종이 어제 품을 팔려고 언신의 집에 갔다가 큰비로 인해서 오지 못했는데, 오늘도 비가 역시 종일 그치지 않아서 앞내가 몹시 부풀어 모랫독이 모두 물에 묻혔으니 수일 이내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비단 저 집의 밭을 매지 못할뿐 아니라, 이곳의 사환도 또한 급하니 민망하다. 요새 물에 막혀 현에서 왕래하는 사람이 끊어져서 오랫동안 피차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이곳에는 양식과 찬이 떨어졌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8일. 이 면의 색장이 현에서 와서 아내의 편지를 전하기에 보니, 윤겸은 이제 부마차원이 되어 영남으로 간다고 한다. 이 같은 장맛비에 7, 8일 길에 기한이 또 박두했는데 만일 기한에 대지 않으면 반드시 욕을 당할 것이니 깊이 걱정스럽다. 밭쌀 8두·새끼노루 2마리·내구를 보내왔다. 두 계집종이 밭 매는 품을 팔려고 언신의 집에 갔다가 비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사흘을 머무르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으니 물에 막힌 때문이다. 마침 관인이 올 때 배로 건너왔기 때문에 함께 올 수 있었다. 집사람의 기운은 오늘은 좀 덜하고 음식도 좀 더 드니 기쁘다. 그러나 병의

진퇴가 무상하니 믿을 수가 없다.

9일. 큰비가 새벽부터 붓듯이 쏟아지다가 오후에 비로소 덜 내린다. 종 천복이가 전일에 도망간 계집종을 찾는 일로 안협에 갔다가 물에 막혀 오래 돌아오지 못하다 오늘 딴 길로 돌아서 비로소 와서, 건너편 가에까지 왔으나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가 인가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간신히 물을 건너왔다고 한다.

10일. 비는 이제 비로소 개어 간다. 그러나 종일 음산하다. 무료해서 아우, 심질과함께 뒤 정자에 올라가 물 구경을 하고, 동대 위를 돌고 또 냇가로 내려가 발을 씻고 돌아왔다. 오늘 비로소 목화밭을 맸는데 곧 두벌이다. 현리가 현으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윤겸이 영남에 가는 것은 어느 날 떠나는지 모르겠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덕노가 안손과 함께 안변에 가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오지 않으니 필시 물에 막힌 것이다. 집사람은 종일 기운이 불편하더니 밤에도 역시 이와 같다가 새벽에 이르러 좀 덜하다.

11일. 쾌히 개었다. 온 집안 상하의 옷을 빨았다. 목화밭을 이제 비로소 다 맸다. 이 면 사람이 현에 들어간다고 하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언신으로 하여금 중금의 밭보리를 거둬 오게 했더니 보리 14두 · 참보리 3두를 나누어 왔다. 오랜 비로 인해서 썩고 모두 떨어졌다고 하는데, 비록 그렇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속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찌하랴.

12일. 윤함으로 하여금 온 집안의 사람과 말을 데리고 가서 참보리 베는 것을 보고 실어다가 두드렸더니 모두 7두이다. 지난가을에 2두를 뿌린 것이 이제 수확이 이 에 이르렀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보리는 전일에 거둔 것이 도합 2석 17두인데, 지 난가을에 9두를 뿌린 것이니 좀 나은 셈이다. 현의 문안리가 와서 편지를 보니 윤 겸은 어제 떠나서 영남으로 갔다고 한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멀리 가는지 몹시 걱정스럽다. 새끼노루 2마리·외 18개·백미 3두를 보내왔다. 심열이 내일 떠나려 하는데 바야흐로 반찬이 떨어져서 즉시 이것을 쪄서 저녁밥을 대접했다.

13일. 심열이 떠나갔는데 현에 들어가서 양식을 얻어 가지고 그길로 서울로 돌아 갈 계획이다. 지난달 23일에 여기에 왔다가 장맛비로 해서 이제 비로소 떠나가니 28일 동안을 머무는 셈이다. 이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각각 딴 변방에 살고 있 으니 이번 작별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어찌 기약하겠는가. 떠나기에 임하여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여 아우 및 두 아들과 함께 걸어서 동대까지 가서 보내고 돌아왔다. 이곳에 가지고 있던 표피 2장을 광노에게 보내서 팔아 보내도록 했다. 전에 신용이 없던 자여서 이제 비로소 보낸 것이다.

14일. 새벽부터 비가 내려 종일 그치지 않는다. 겨우 3일 동안 개었다가 도로 비가 내리니 말할 수 없다. 이 면 사람 채억복이 현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는데 윤겸이 편지를 보냈기에 보니, 오늘 꼭 남쪽으로 가려 했더니 문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바야흐로 행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만일 아침에 도착하면 저녁에 떠나고 저녁에 도착하면 아침에 떠날 계획이라 한다. 심열은 어제 현에 들어갔으니 떠나기 전에 서로 만났을 것이다. 백미 1두 · 목미 1두를 주어 보냈다. 또 들으니 덕노가 안변에서 어제저녁에 돌아왔다 하는데, 어찌해서 어제 즉시 이리로 오지 않고 묵고있는지 밉살스럽다.

15일.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비가 퍼붓고 조금도 쉬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러서도 저녁에 그치지 않아 냇물이 몹시 넘쳐흘러서 농부들은 호미를 버리고 밭을 매지 않은 지가 이제 이미 오래여서 밭곡식이 풀만 무성하고 모가 드무니 장차 흉년이들 것이다. 탄식한들 무엇하랴. 오늘은 유두속절인데 집에 찹쌀이 없어서 윤겸으로 하여금 보내라고 했더니 어제 편지에 내일 보내마고 하더니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필시 비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은 오고자 해도 물이 넘쳐서 날아서 건너오지는 못할 것이다. 마침 찹쌀 두어 되를 얻었기에 냉수로 수단을 만들고 닭을 잡아 쪄서 신주 앞에 차례를 지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전일에 최판관이 찹쌀을 구해 보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오늘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구하는 것을 얻어 보내지 못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16일. 갬. 낮에 현리가 들어왔기에 편지를 보니 어제 떠나오다가 물에 막혀서 이제 비로소 물을 건너왔고, 윤겸은 그저께 떠나갔다고 하고, 심열도 역시 그날 돌아갔다 한다. 그러나 어제 큰비가 내려도 필시 중로에서 머무를 것이다. 중미 3두 · 밭쌀 5두 · 찹쌀 3되 · 호두알 1되 5홉 · 새끼노루 2마리 · 꿩 3마리 · 송어 1마리 · 외단 것 2개 · 중박계 1봉을 보내왔다. 박계는 저의 어머니 병을 위하여 만들어 보낸

것이다. 윤해의 종 안손은 함께 왔으나 덕노는 병을 칭탁하고 오지 않았으니 밉살스럽다. 우계 성혼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그저께 비로소 들었다고 하니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나는 한번 가 뵈려 했으나 떠돌고 곤박한 터여서 가 뵐 겨를이 없어 마침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 지극한 일을 당했으니 더욱 지극히 애통하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또 왔는데 새끼노루 2마리를 가져왔고, 집사람이 먹을익위승양탕 5첩을 지어 왔다. 또 고성 남매의 집 편지가 역시 서울에서 왔는데 바야흐로 초학을 앓는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안악에 사는 계집종 복시의 신공 9승목1필을 남매의 집종이 마침 그곳에 갔다가 받아 왔으니 몹시 기쁘다. 윤함의 편지를역시 남매의 집에 와서 전했는데, 곧 지난달 22일에 쓴 것이다. 고성의 서자 득지가 수공할 일로 옹진에 갔다가 돌아올 때 들러서 받아 보낸 것인데 아무 일도 없으나 다만 성아가 학질을 앓아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이다.

17일. 현리가 돌아갈 때 편지를 써서 아내에 보냈다. 민시중이 도롱이 1개와 팥 1두를 가져왔는데, 무단히 가져왔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온 집안 노비 및 윤해의 집 두 계집종까지 도합 7명을 시켜 억수의 밭을 매고, 다 맨 후에 박문재의 밭으로 옮겨서 또 다 맨 후에 고한필로 옮겨서 맸으나 끝내지 못했다. 늦은 후에 친히가 보고, 그길로 여러 밭을 돌아보니 오래 비가 내린 나머지 곡식 모가 혹 드물게 나고 혹 실하지 못하니 대개 올 농사는 좋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오늘은 초복이다. 동풍이 종일 불고 서늘한 바람이 살에 닿아 마치 8,9월 일기와 같다. 만일 이같이 연일 쉬지 않는다면 농사는 말할 수가 없다. 또 들으니 최 참봉의 집이 근일 몹시 군색하다고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찐 노루 하나와 쌀 4되를 인편에 보내고 또 편지를 써서 물었더니 그는 답장을 하여 사례했다.

18일. 집사람의 병은 아직도 쾌차하지 못하고 별로 아픈 데도 없으면서 날로 더욱 피로하고 또 식사를 들 생각이 없이 뒹굴면서 신음하는데, 학질 같기도 하고 학질 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기가 날로 점점 못해 가니 몹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이웃 할미의 밭이 집 앞 냇가에 있는데 장차 묵겠기로 내가 보리를 갈려고 할미를 불러 물어보니 허락한다. 이에 먼저 포목 반 필을 주고 보리씨 2두를 빌려다가 오늘 한 번 갈고 풀이 썩기를 기다려서 두 번 갈고서 보리를 뿌릴 계획으로 사흘을

갈았으나 다만 밭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밭이 가까이 있는 것을 취한 것이다. 또 네 노비를 시켜 고한필의 밭을 매어 끝마쳤다.

19일. 온 집안 세 노비로 하여금 깨밭을 매게 하여 끝냈다. 또 언신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보리밭을 갈게 했으나 또 끝내지 못했다. 늦은 후에 가 보고 돌아왔다.

20일. 또 언신 및 이웃 사람 박언수 등으로 하여금 소 2마리를 가지고 어제 못다간 받을 갈게 했다. 덕노 및 춘금을 말 2필을 가지고 현으로 보냈는데, 이는 양식을 실어 오기 위해서다. 그러나 장무가 먼저 관인을 시켜 실어 보낸 것을 중로에 길이 어긋나서 만나지 못하고 왔으니, 두 말은 필시 그대로 갔다 돌아올 것이니 한 탄스럽다. 중미 12두, 밭쌀 10두를 실어 오고, 새끼노루 2마리ㆍ꿩 1마리ㆍ참기름 1되도 또한 보냈다. 동쪽과 서쪽 집에 각각 쌀 5되ㆍ밭쌀 5되씩 나누어 보냈다. 이은신에게도 역시 중미 5되를 보냈다. 이은신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21일. 덕노 등이 돌아왔는데 보리씨 1석 및 윤해가 얻은 5두와 도합 20두를 싣고 왔다. 장무가 외 40개도 역시 보내왔다. 덕노가 올 때 길에서 이천을 만났는데 북 도에서 돌아온다면서 건어 2마리를 보내왔다. 자방의 종이 돌아가는데 백미 1두를 얻어 보냈다. 그러나 들으니 자방이 5일에 기운이 몹시 불편하다고 하니 걱정이 다. 또 들으니 윤겸이 올여름에 포폄을 받았는데, 이는 곧 나라의 말이 많이 죽은 까닭이라고 하더니, 뒤에 다시 들으니 헛말이고, 이천태수가 잘못 전한 것이라 한 다.

**22일.** 집사람의 증세는 전에 비하면 조금 나았으나 음식이 달지 않아서 피곤하기가 전과 같다.

23일. 이은신이 현으로부터 와서 보는데, 집사람이 먹을 이공원을 지어 왔다. 또현의 장무가 새끼노루 1마리ㆍ꿩 2마리를 보내왔다. 저녁에 영암 임매의 종 희진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참혹해서 차마 볼 수가 없어 다 보기 전에 슬픈 눈물이 저절로 떨어지니 불쌍하고 불쌍하다. 경흠이 죽음을 당한 이유와 경온이 포로가 된일은 더욱 몹시 슬프고 참혹하다. 아직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오는 가을에 임정자가 내려간 뒤에 장사를 지낸다 한다. 건어 두어 묶음과 어란 두어 쪽을 얻어

보냈고, 어머님께도 역시 이와 같이 보냈다. 또 들으니 경흠이 죽은 후에 그 집 서 족 및 이웃 마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온 집안의 사환과 노비 4명 및 밖에 사는 노비 등 모두 12명은 포로로 잡혀 갔으며, 가재와 우마는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누이는 차고 있던 칼로 목을 찔러 피가 흘러 몸에 가득해서 이로 인해서 면했다고 한다.

24일. 이은신이 현으로 돌아가고, 임매의 종 희진도 역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누이가 기름과 꿀과 실과를 얻고자 했는데 마침 윤겸이 나가고 없기 때문 에 집사람이 장무로 하여금 꿀 1되 · 잣 3되 · 개암 3되를 얻어 보내게 했다. 이곳 에서도 또한 보낼 물건이 없어서 집에 있던 꿀 2되와 잣 3되를 함께 보냈다. 기름 은 관가에도 역시 없어 귀하기가 금과 같기 때문에 얻어 보내지 못했다. 윤해의 종 안손이 말을 가지고 또한 율전까지 보내기 때문에 인아가 입자를 사고자 말장 8두 를 광노에게 실어 보내서 그로 하여금 사 보내게 했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 는데, 장무의 고목을 보니 상화병 1행담 · 소주 3병 · 중박계 23잎을 보내왔다. 그 러나 유겸이 떠나가 뒤에 아직도 일행이 어찌되었는지 듣지 못했다니 걱정스럽다. 안협이 전에 배를 만들고 남은 재목 13개를 동면 군사 6, 70여 명을 내어 빼앗아서 떼를 만들어 물에 띄워 내려보내는데, 이곳 사람들은 불의의 일이어서 마을 사람 들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겨우 10여 인이 이를 금했으나 되지 않으므로 나에게 와 서 고한다. 이에 나는 아우와 함께 동대에 나가 앉아서 보니. 많은 사람을 적은 숫 자로 대적할 수가 없어서 뺏어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을 보고 인아가 몽둥이를 가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2, 3인을 매 때렸더니 모두 흩어져 달아나므로 이곳 사람들 을 시켜 물가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때 공손치 못한 말을 많이 했다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다가 이쪽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를 기다려 비밀히 와서 빼앗아 갔다 하니 더욱 마음 아프다. 듣건대 조정에서 또 네 고읔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했는데. 안협에는 선재가 없기 때문에 틈을 보아 사람을 많이. 내서 빼앗아 간 것인데 만일 도로 왔을 때 서로 억지로 다투었으면 반드시 큰 변이 생기고, 욕을 당할 일이 많을 것이니. 그 미련하고 사나움을 알 수가 있다. 온 집안 세 사람을 시켜 전풍의 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25일. 또 온 집안 네 사람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매어 끝냈다. 현의 문 안인이 왔는데 윤겸이 간 뒤로 아직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새 끼노루 2마리 · 꿩 1마리 · 외 40개를 보내왔다.

26일, 새벽에 개비가 도망갔으니 미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언신으로 하여금 찾아 오도록 엄하게 일렀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요로에 찾아보게 하려 했으나 오 늘은 뒤에서 쫓으면 풀 속에 숨어서 반드시 가지 않고 있을 것이므로 비록 보아도 잡아오지 못하겠기로 보내지 않고 다만 언신으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고, 만일 잡 아오지 못하면 마땅히 그 어미를 가두고 엄하게 감독하도록 일렀다. 평일에 언신 과 사이가 좋아서 반드시 간 곳을 알 것이요.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만일 보면 자 기가 침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반드시 잡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도 로 잡아올 이치가 있겠는가? 이 계집종은 본성이 미련하고 게을러서. 요새 독촉하 여 밭을 매게 하므로 반드시 이것이 싫어서 도망간 것이다. 도망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번이 이미 네 번째이니 더욱 밉살스럽다. 온 집안 세 사람을 시켜서 김광 헌의 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인아를 최경수에게 보내서 도망간 계집종 이 간 곳과 잡아올지 못할지의 여부를 점쳐 보게 했더니, 말하기를, 오늘은 풀 속 에 숨었으나 수 3일 안으로 혹 어떤 사람이 잡아오거나 혹은 저절로 올 것이요. 만 일 그렇지 않으면 9, 10월 사이에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어찌 꼭 그 럴지 알겠는가. 그러나 다음날 맞고 안 맞는 것을 두고 볼 일이다. 찐 노루 1마리 를 보내 주었다.

27일. 중복이다. 아침에 언신이 개비를 잡아 가지고 데리고 왔다. 어제 뒷산에 올라가서 숲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을 언신이 찾아서 데리고 온 것이다. 중한 매를 때리려 했으나, 처음에 언신과 약속하기를 만일 스스로 나타나면 그 죄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신할 수가 없어서 매를 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의심컨대 언신이 필시 그 간 곳을 알고서 엄하게 추궁해서 데리고 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필경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온 집안 5인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광현의 밭을 매어 끝냈다. 일기가 몹시 더워서 사람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또 요새 4,5일 안으로 집사람의 증세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데, 그러나 아주 쾌하지는

못하고 음식이 달지 않다고 한다. 오늘 낮에는 마침 냉수를 마시고 이로 인해서 담이 성하여 구토가 쉬지 않고 심지어 가슴이 막혀 능히 말을 하지 못한다. 이에 겨우 계황과 동변을 얻어 치료한 뒤에 도로 내려가서 좀 덜하다. 그러나 이런 후로 기운이 도리어 편안치 못하다.

28일. 언신·김담으로 하여금 소 2마리로 보리받을 갈게 했는데, 네 사람이 갈아도 끝내지 못했다. 오후에 나는 두 아이와 함께 걸어서 가 보고 돌아올 때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여 묵은 때를 씻어 없애니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 요새 양식과 반찬이 장차 떨어지겠고 동서 두 집도 역시 군색한데, 윤겸은 또한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달리 구할 곳이 없으니 몹시 민망하다. 덕노가 사온 미역을 북쪽 마을에 가서 팔게 했더니 쌀로 바꾸려는 자는 없고, 미역 1동에 팥 1두 5되씩 혹 받아와서 미역 3동에 모두 4두 5되를 받아 왔다. 전일에 역시 안변 땅에서 팔아서 팥 6두를 받아 왔으니 모두 10두 5되인 셈이다. 또 이른 조로 8두를 받아 왔다고 한다. 전풍이 햇 피쌀 3되를 가져왔기에 즉시 천신했다.

29일. 또 소 2마리로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갈게 했다. 네 사람이 갈고 무를 심게 했더니 갈기는 다했으나 씨는 다 뿌리지 못했다. 집사람의 증세는 털하나 다만 더하고 덜한 것이 무상해서 나았다고 꼭 믿을 수가 없다. 승양탕 7첩을 달여 먹은 후에 이공산을 오늘부터 먹기 시작했다. 저녁에 현의 삼공형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 윤겸이 오늘 아침에 현으로 돌아왔는데, 충주에 이르러 부마를 도로 보낸후에 돌아왔고, 가고 오는 길에 무사히 돌아왔으나 다만 치질이 몹시 심해서 즉시와서 근친하지 못한다고 한다. 공형은 안협 사람들이 선재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안협으로 가려고 이곳을 지나던 참이었다. 병아리 5마리ㆍ청주 4병ㆍ가을보리쌀 5되를 가지고 왔다. 이 같은 괴로운 더위에 먼 길에 무사히 갔다 왔으니 몹시 기쁘다.

그믐날. 소 2마리로 윤해의 보리밭을 갈게 하여 아침 전에 끝냈다. 두 계집종을 시켜서 아침 전에 어제 못다 뿌린 씨를 뿌리게 하여 끝냈다. 전후에 보리씨 15두를 뿌린 셈이다. 김귀실이 외 30여 개를 가져왔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 현의 문안인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저녁에 이 고을 공형들이 안협

에서 돌아왔는데, 안협태수의 편지를 보니 자못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뜻이 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다. 앞장서서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땅히 중하게 다스리고, 관노를 능욕한 자는 즉시 장형 30대를 때렸다 한다. 이 고을 사람으로 안협에 사는 자가 전일에 선재를 떠내려 보낼 때 같이 와서 불공한 말을 많이했기 때문에 공형들이 결박해 데리고 갔다. 어두운 뒤에 김억수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편지를 보니 백미 2두, 밭쌀 10두, 오는 3일 제사에 쓸 실과, 석이, 외 30개등을 보내왔다. 또 들으니 중국 군사 2만 8천명이 중국으로부터 새로 서울에 도착했는데 양식이 이미 떨어졌으나 댈 수가 없어서 주상이 재신들과 함께 한갓 울고만 있고, 달리 마련할 길이 없어서 장차 지탱할 수 없겠다고 하니 통읍함을 이길수 없으나 어찌하랴. 여러 곳에 피란 가 있는 사부 및 진사·유생들로 하여금 각각쌀을 거두어 바치라는 문서가 이미 도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 이것으로 햇곡식을 대겠는가? 반드시 흩어질 걱정이 있으니 탄식스럽다. 서울 조정 관원은 올봄이후로 급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먹을 길이 없어서 굶주려 살 수 없는 자가 많다고 하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 7월

1일, 온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삼을 베고 땅을 파게 하여 내일 묻고자 한다.

2일. 아침에 삼을 묻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했다. 그러나 윤해의 집 삼은 연소될 곳에 있으니 걱정이다. 전귀실의 아내가 상화병을 쪄 가지고 왔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또한 왔는데 편지를 보니 윤겸이 돌아온 뒤로 기운이 편안치 못해서 오늘 밤은 새벽까지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니 깊이 걱정스럽다. 상화병 1행담과 병아리 3마리를 보내왔으므로 즉시 상하가 함께 먹었다. 내일이 곧 조모 제사인데, 제사를 위해서 반찬을 마련하는데, 장만할 물건이 없어서 다만 면 ' 법 · 국만으로 지낼 셈이다. 부석사의 주지 법희가 짚신 6켤레를 보냈으나 줄물건이 없으니 한스럽다.

**3일.** 날이 밝을 무렵에 아우, 두 아이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종일 비가 뿌렸다. 삼은 오늘 모두 껍질을 벗겼는데 모두 65묶음이나 쓰지 못할 것이 많다. 한 집안의

힘이 갑절이나 들었는데도 소득이 이것뿐이니 탄식스럽다. 대장장이 춘복이 외 10개 및 낚시를 가져왔기에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부석사의 중 설운 · 원민 등이와 보고, 또 외 20여개와 짚신 3켤레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한집에사는 자가 많아서, 어제 얻은 것 8, 9켤레를 즉시 나누어 주니 1켤레도 남는 것이없다. 저녁에 안협태수가 사람을 시켜 윤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전일 선재를 떠내려보낼 때 서로 싸워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내어 그렇지 않다는 뜻을 말했다. 김억수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전일에 그 아우 경이가 선재를 떠내려보낼 때 불공한 말을 많이 했으므로 이 고을 공형들이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억수가 그 어미와 함께 날마다 애원하기에 이 뜻을 편지에 써서 윤겸에게 보냈더니 즉시 매를 때리지 않고 석방해서 오늘 저녁에 돌아왔다고 와서 사례한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아직 쾌히 소복되지 못했다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 4일. 윤해가 안협태수를 만날 일이 있어서 이른 아침에 갔다가 돌아왔다. 온 집 노비 4명으로 하여금 관의 둔전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두벌 매는 것이다. 저녁에 이 면의 위관과 서원이 와서 보고, 술 1항아리, 꿀 3되를 가져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부채 1자루와 붓 1자루를 주었다.
- 5일. 양식과 반찬이 떨어져서 부득이 덕노로 하여금 말을 가지고 현에 가서 양식을 얻어 오게 했다. 부석사의 중 법희가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늦은 후에 큰비가 내리더니 종일 개지 않아 앞내가 넘쳐흐르는 것이 전일보다 더하다.
- 6일. 비가 밤새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필시 장마인가 보다. 근일에 만일 개지 않으면 콩밭과 팥밭의 김맬 때가 지나니 걱정스럽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양식과 찬이 이미 떨어졌는데 덕노는 물에 막혀 필시 속히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달리 얻어먹을 길이 없어 굶주릴 걱정이 장차 박두했으니 무어라말할 수 없다.
- 7일. 말복이다. 속절이므로 술, 절육, 찐 닭으로 차례를 지냈다. 덕노는 비로 해서 오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져 먹을 수가 없어서, 겨우 저녁밥을 지어 먹고, 아랫것들은 콩죽을 쑤어 먹었으니 한스럽다. 두 종은 어제 삼을 찾을 일로 언신의 집에 갔다가 물에 막혀 오지 못하고 다만 춘금이 · 막비로 하여금 밭을 매게 했더니 끝내

지 못했다. 밤이 초경이나 되어 현에서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물어보니 늦게 떠나서 빙빙 돌아왔기 때문에 이같이 밤이 깊었다 한다. 편지를 보니 윤겸은 지금은 증세가 조금 나았으나 그래도 쾌히 소복은 되지 못했다고 한다. 집돼지 익힌고기 75꽂이, 소주 4병, 참기름 1되, 병아리 4마리 및 갈비 등 물건을 보내왔다.

8일. 비가 내려서 김을 매지 못했다. 답장을 써서 현 사람에게 보냈다. 아침 식사후에 구운 돼지고기를 아우 및 두 아이, 붕질, 충손 등과 함께 먹었다. 소주 각각 2 잔씩을 마셨다. 아침밥을 짓지 못하여 부득이 언신의 집에서 관청에 바치는 밭 세금쌀 1두 6되를 가져다가 썼다. 덕노가 오늘도 만일 오지 않으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오늘은 곧 선고의 생신이다. 상화병 찐 것ㆍ술ㆍ과일 및 윤겸이 보낸 병아리를 혹 굽고 혹 탕을 끓여 차례를 지내고, 뒤에 죽은 딸에게 지내고 나서 함께 먹었다. 낮에 큰비가 내리다가 한참 만에 그쳤다. 앞내가 또 넘쳐서 덕노는 이 때문에역시 오지 못했다.

9일. 덕노가 어제도 오지 않아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들으니 전업이 보리 환상할 것 4두를 아직 관에 바치지 않았다고 하므로 부득이 가져다가 아침을 지어 먹었다. 조인손이 햇 피쌀 3되를 가져왔다. 양식이 떨어진 나머지여서 이 3되의 곡식을 얻으니 3석을 얻은 것과 같다. 즉시 이것으로 아침밥을 지어 먹었다. 늦은 후에 이 면의 위관·서원들이 답심을 마치고 현으로 돌아가다가 들렀기에 불러 보고, 우리 집에서 경작하는 전고를 짐작해 하도록 말했다. 또 위관 등은 짚신 2켤레, 피쌀 2두를 가져왔는데 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도로 주었으나 억지로 받기를 청해서 부득이 받았다. 필시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얻기 어려운 물건을 가져온 것이 미안하다. 이것으로 내일 양식으로 먹게 되었다. 덕노가오늘도 역시 오지 않으니 반드시 물에 막힌 것이라. 걱정스럽기만 하다.

10일. 박문재가 찾아와서 햇피쌀 3두를 가져왔다. 나의 양식 떨어진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소주 1잔을 대접하고 또 미역 1묶음을 주어 그 후한 마음에 보답했다. 밤에 비가 비로소 개더니 아침에는 해가 또 떠서 더위가 심하여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없다. 아우와 함께 걸어서 앞내로 나가 보니 새로운 물 흐름이 맑고 깨끗하다. 온몸을 목욕하여 때를 씻어 내니 심신이 상쾌하여. 가위 몸이 가벼우니 구름 사이

의 봉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쾌하고 쾌하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왔는데 밭쌀 12 두, 베쌀 3두 5되, 팥 3두를 보내왔다. 관인도 또 왔는데, 집돼지 및 병아리 5마리, 소주 4병을 역시 가져왔다. 즉시 온 사람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함께 먹었다. 그러나 들으니 윤겸이 아직도 쾌차하지 않아 모양이 몹시 피로하고 음식도 많이 감해졌다고 한다. 처음은 먼 곳을 갔다 와서 오래 서습에 노상할 것이니 쉬면 오래지 않아 소복될 것이라 했더니 증세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쾌하지 못하여 자리에 누웠다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내가 들어가 보고 싶으나 물이 이와 같아서 가지 못하고 다시 날이 개기를 기다려 가 볼 계획이다. 윤해의 종 안손이 역시 율전에서 돌아오다가 서울에 들러서 남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왔기에 보니, 아무 일도 없다고 했으니 몹시 기쁘다. 광노가 역시 왔는데, 전에 보낸 쌀과 간장 및 파립으로 인아의 초립을 사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은전을 더 주었다 한다. 절인 조기 2마리, 망건 꾸밀 공단도 역시 사 보냈다. 자방은 서울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같이 괴로운 더위에 앓는 몸이 필시 상했을 것이니 걱정스럽다.

11일. 온 집안의 노비 및 품 산 사람과 도합 13명으로 이기수의 콩밭 및 팥밭을 매도록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늦은 후에 걸어 나가서 아우와 보리밭을 돌아보고, 돌아올 때 몹시 더워서 땀이 비오듯 하므로 앞내에 들어가 목욕하고 마을 사람들의 삼 담그는 것을 보고 왔다. 지난밤에 동쪽 마을 채억복의 집에 큰 범이 마구간에들어와서 새끼 말을 물어 가지고 가는 것을 억복이 몽둥이를 들고 등불을 밝혀 가지고 쫓아가서 도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윽고 범이 또 와서 병아리를 물어 갔다니 두려운 일이다. 우리 집 계집중들은 범을 두려워하지 않고 밤마다 문밖에 횃불을 밝히고 둘러앉아서 길쌈을 하고 있어 금해도 듣지 않으니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라. 밉살스러운 일이다.

12일. 또 온 집안 노비 및 품 얻은 사람과 도합 8명으로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매개 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최 참봉의 아들 정운이 와 보기에 소주 1잔을 대접해 보냈다.

**13일.** 또 8명으로 하여금 못 다 맨 밭을 매게 했다. 이는 곧 6일갈이이다. 식사 후에 나는 덕노를 데리고 말을 타고 여러 밭을 돌아본 뒤에 그길로 노비 등이 밭 매

는 곳에 갔더니 오전에 이미 다 매고 겨우 5, 6묘가 남았을 뿐인데, 모두 냇가 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자고 있다. 그 맨 곳을 보니 어제도 넉넉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매양 풀이 무성하다고 말하고 힘을 다하지 않았고, 오늘도 또한 그렇게 말했으니 만일 여러 사람을 일시에 내보내지 않았으면 오늘도 역시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까닭에 품을 서 모두 8명을 보냈더니 누워서 쉬고 매지 않고 이 모양인데 뜻밖에 내가 가서 보는데도 오히려 먼저 습관을 밟고 있어 게으르기가 심하니 통분함을 이길 수가 없다. 즉시 두 계집종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다가 가졌던 채찍으로 종아리 40여 차례를 때린 후에 윤해의 집 팥밭을 매게 했으니, 여기에 소비된 인원이 모두 29명이요, 양식 6, 7두가 들었다. 온 집의 군색한 것은 따지지 않고 매양먹는 것이 적다고만 하여 들에 나가면 놀거나 쉬고 힘을 쓰지 않으니 더욱 몹시 밉살스럽다. 그길로 소근전에 가다가 최 참봉의 집에 이르기 전에 냇가 바위 위에 말에서 내려앉아서 종을 시켜 최 참봉을 청했더니 그 부자가 걸어서 오고, 김린도 역시 뒤따라와서 같이 바위 위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최의 집에서 수제비를 만들어 대접한다. 해가 기운 뒤에 돌아왔다.

14일. 온 집안사람이 김언춘의 콩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최 참봉이 편지를 보내 묻고 꿀을 구하는데, 마침 집에 없어서 응해 주지 못했으니 한탄스럽다. 뒤에 구해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수일 전부터 후임이 비로소 걸음을 배워 발 두어자국을 옮기니 예쁘다.

15일. 아침에 인아가 그 형을 보기 위하여 현에 들어갔다. 오늘은 속절이어서 온집안의 노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논다. 저녁때 김린을 시켜 집 앞 무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윤겸의 증세는 지금은 나아 가지만 아직 쾌하지 못해서 오지 못한다고 했다. 어사가 오늘 현에 들어온다고한다. 함열의 집이 요새 몹시 군색한데 달리 얻어먹을 길이 없어서 부득이 봉산 땅에 사는 종의 집에 가서 얻어먹다가 오는 20일에 떠나간다고 하니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형세가 그러한데 어찌하랴. 관인이 올 때 중미 2두, 당미 1두, 밀가루 1두, 소금 1두, 율무 2되, 꿀 2되, 외 30개를 가지고 왔다. 이제 이 참의 정귀가윤겸에게 편지한 것을 보니, 시사가 날로 어렵고 위태로워져서 양 경리 호가 탄핵

을 받아 이제 장차 돌아갈 터인데, 중국 조정의 의논이 크게 변하여 전쟁을 주장하던 두 각로는 모두 대간의 탄핵을 받았고, 남북의 군사들이 크게 서로 불화해서 이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 조정에서 믿는 바는 오직 여기에 있는데, 장상들이 불화하기가 지극한 데에 이르렀으니 흉한 적의 으르렁거리는 마음이그치지 않아 나라의 일이 필경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놀라고 탄식함을 이길 수없다. 저 하늘이 돕지 않아 백만의 창생으로 하여금 날로 죽음으로 나가게 하면서도 오히려 그 화를 뉘우치지 않으니 더욱 크게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리오. 내가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구나.

16일. 온 집안 4명의 노비로 하여금 그저께 매다가 마치지 못한 밭을 매게 하고, 끝낸 후에 조련의 콩밭으로 옮겨 가서 매게 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전일에 배만들던 장인이 서울에서 돌아와 찾아와 보았다. 또 이 현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다. 17일. 현에서 온 사람이 이제 비로소 답장을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덕노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증세가 지금은 차도가 있어 가므로 가까이 마땅히 와서 근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온 사람에게 들으니 대세는 비록 덜하나 아직도 쾌하지 못하다고 하기에, 비록 와 보고자 해도 마땅히 다시 조리해서 쾌차한 뒤에 와 보도록 말해 보낼 계획이다. 보리쌀 5두 · 밭쌀 3두 · 기름 7홉 · 조기 2 묶음을 보내왔다. 또 들으니 함열의 집 식구는 오는 20일에 떠나서 여기에 들러서 잔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온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콩밭을 매게 하고, 끝낸 뒤에 언신의 팥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18일. 온 집안사람과 윤해의 집 노비, 도합 7인으로 하여금 언신의 못다 맨 밭을 맨 후에 김언보의 팥밭으로 옮겨 매게 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오늘은 곧 언명의 생일이다. 곤궁해서 반찬을 마련해서 대접하지 못하고, 다만 쌀 5되를 주어 송편을 만들어 함께 먹었으니 탄식스럽다

19일. 비가 내려서 밭을 매지 못했다. 내일 함열 1행이 올 터인데 비가 만일 개지 않으면 필시 오지 못할 것이다. 어제 윤겸의 편지에 내일 마땅히 양식을 실어 보낸 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다. 전에 온 양식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동서 두 집에 나누어 주었으며, 날마다 5, 6명씩 밭을 매느라고

써서 남은 것이라곤 내일 아침 식사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만일 미처 쌀을 보내기 전에 함열의 일행이 온다면 어찌할지 말할 수 없다. 이달 초승부터 온 집안 이 점심은 먹지 않고 다만 어머님께만 드렸는데도 오히려 양식과 찬이 자주 떨어 진다. 관가에도 역시 양식이 떨어져서 햇곡식 전에 계속하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 니 더욱 민망스럽다.

20일. 온 집안의 계집종들을 시켜 전일에 끝내지 못한 콩밭을 맨 후에 녹두밭으로 옮겨 매서 끝냈다. 남면에 사는 교생 심사임이 쌀 5되를 보내왔다. 군색할 때에 주어서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하다. 오늘 함열의 1행이 마땅히 올 것인데,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관인도 역시 보낼 터인데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괴상하다. 관의 배는 이제 비로소 떠내려 보내서 서울 강으로 보냈다. 이는 조정의 명령이다.

21일. 처서이다. 요새 밤기운이 생량해서 정신이 점점 소복되어 간다. 윤해의 집에서 심은 이른 조를 산돼지가 반이 넘게 뜯어 먹었다니 밉살스러우나 어찌하랴. 아침 식사 전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백미 3두 · 밭쌀 7두 · 보리쌀 5두 · 꿩 4마리 · 외 30개 · 무와 파 등을 가지고 왔기에 즉시 동서쪽 집 및 계집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만 편지가 오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이 필시 아전 밖에서 물건만 받고 편지는 받지 않고 온 것이다. 그편에 들으니 함열의 일행이어제 현아에 와서 잤다고 하니, 필연 오늘 떠나 올 것이다. 어제저녁 유시 초에 수탉이 두 번이나 길게 울었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중금의 밭을 병작하는 박인종이 기장 1두 5되를 나누어 왔다. 저녁에 민시중이 현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함열 일행은 어제 현아에 와서 자고 그대로 머무르는데, 내일 떠나온다고 한다. 그에게들으니 중국 군사 30여 명이 철원 땅으로부터 삭녕 땅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멀지 않고 겨우 고개 하나를 격해 있는 터로서 가는 곳마다 작난하고 남의 우마와 재물을 빼앗아 가며, 조금만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가를 불태우고 헐고 사람을 때려서 상하게 한다고 하니 넘어올까 몹시 두렵다. 그러나 어제 와서 자고 지금까지 행적이 없으니 필시 안협이나 토산 길로 행한 것이다.

22일. 온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언명의 팥밭을 매고 끝낸 후에 관의 둔전으로 옮겨

매기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오후에 인아가 와서 말하기를, 함열 일행은 오늘 떠나올 것인데, 저는 점심 후에 먼저 왔다고 한다. 함열 일행이 왔으나 이곳에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웃집으로 가서 머물게 하고 다만 진모와 함열만 와서 자도록 했다. 저녁 식사는 이곳에서 차려서 위 대청에서 먹게 하고, 노비들은 가지고 가는 양식을 꺼내서 해 먹었다. 집이 곤궁해서 상하를 모두 해 먹이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23일. 함열 일행은 머물러 있었다. 오후에 윤겸도 역시 와서 근친했다. 오래 앓고 있던 나머지에 이제 비로소 온 것이다. 종일 아우, 함열 및 세 아이들과 이야기했다. 저녁에 이자가 안협으로부터 찾아왔다. 자는 곧 처사촌으로서 이옥여의 형이다. 역시 같이 잤다. 윤겸이 올 때 백미 2두 · 밭쌀 3두 · 세미 3두 · 팥 1두 · 꿩 4마리 · 새끼노루 등 물건을 가져왔다. 전귀실, 채억복 등이 꿀 각각 1되씩 가지고왔다. 온 집안 노비로 하여금 어제 못다 맨 밭을 매게 하여 끝냈다. 오늘로서 풀매는 일은 끝냈다.

24일. 이른 아침에 함열의 일행이 떠나는데, 떠나기에 임하여 진모가 슬퍼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자가 길을 떠나 부모, 형제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어찌 그렇지 않으랴.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언신으로 하여금 소를 가지고 짐을 싣고서 중로까지 보내고 돌아오게 했고, 덕노는 오늘 모시고 가다가 중간쯤 되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이자도 역시 돌아갔다. 함열의 일행은 집안이군색해서 봉산에 사는 종의 집에 가서 얻어먹다가 내년 봄에 돌아온다고 한다. 다만 시사가 몹시 어려운데 만일 싸움이 다시 일어나면 필경 관서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 집도 역시 여기에 있을 것을 보증하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피차의 소식을 얻어듣기 몹시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감히 서로 만나기를 바랄 수 있으랴. 더욱 몹시 슬프고 탄식스럽다. 최 판관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김명세, 김린 등이 와서 요즘을 보았는데, 지린은 병아리 2마리를 가져왔다.

25일. 오늘은 곧 나의 생일이다. 윤겸이 술과 반찬을 마련해 가지고 왔기에 두 최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최 참봉은 치통이 있어 오지 않고, 최 판관만 와서보므로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고 관에서 준 집돼지를 배불리 먹고 파해 흩어졌다.

이웃 마을에서 와서 본 자들에게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아침 식사 전에 목전에 사는 교생 권호덕이 찾아왔는데 소주 1병, 닭 1마리를 가지고 왔다.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부석사의 중 법회가 외 50여 개를 가지고 왔기에 역시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들으니 적병이 이미 영천에 이르렀다고 하니 놀랍고 탄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지난해 이때에도 역시 그러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비록 유·마 두 제독은 동쪽으로 내려가고, 적의 형세는 번져 부푸니 만일 능히 지나가지 못하면 거리에 가득히 찰 근심이 반드시 여기에까지 미칠 것이니 걱정스럽다. 그러나 아직은 올바른 소식인지는 알 수 없다. 덕노는 소를 팔기 위하여오늘 서울로 보내려 했으나 이 소식을 듣고 아직 정지시켰다가 다시 올바른 소식을 들은 후에 보내려 한다.

26일. 이른 아침에 윤겸은 현으로 돌아갔다. 덕노는 소를 가지고 콩을 얻으러 보냈다. 언명의 종 개금도 역시 양식을 얻으려고 함께 갔다. 모두 윤겸과 약속이 있어서이다. 함열의 일행은 이제 신계에 이르렀는데, 언신은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다만 일행의 행색이 어떠한지 몹시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늦은 후에 언명 및 두 아이, 붕질과 함께 직동으로 가서 농사짓는 밭곡식을 돌아보고 그물을 쳐서 천어 1백 20여 마리를 잡아 가지고 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27일. 늦은 후에 홀로 존광 들에 가서 우리 집에서 짓는 조밭을 돌아보고 왔다. 마침 최정운이 와서 보기에 함께 동대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소주 2잔을 대접해 보냈다. 앞내에 그물을 쳤다가 저녁에 거두어서 물고기 50여 마리를 얻었다. 그러나 자라에게 물린 것이 많으니 아깝다. 언신이 함열의 일행을 모시고 신계 땅에 도착했다가 돌아왔는데, 일행은 모두 무사히 돌아갔으나 다만 가지고 갔던 말이 발을 절고 왔으니 걱정이다.

28일. 아우 및 운해 붕질·충손 등과 함께 그물을 가지고 소근전 하류 냇가로 갔더니 마침 최 참봉 부자를 만나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조금 잡은 고기로 탕을 끓여 함께 먹고 소주 2, 3잔을 먹었다. 그러나 유독 최 참봉은 5잔을 마셨다. 여러 아이들 중에 술을 못 먹는 자는 싸 가지고 가 점심을 나눠 먹어 요기하고 해가 기울어 돌아왔다. 충아는 참봉을 따라서 소근전의 외조모 집으로 갔다. 그러나 내를 건널 때

신고 있던 짚신짝을 물속에 잃었으니 아깝다.

29일. 들으니 흉적이 영천에 이르러 군량을 빼앗아 가지고 저희들의 진으로 돌아 갔다 고한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군량이 떨어져 장차 무너져 흩어지게 되어 고급 (告急)의 글이 현에 이르러. 방백이 역시 친히 죽령 밑에 가서 운반을 독려하고 이 현에서도 역시 20여 바리가 떠났고. 예초군도 역시 떠나가서 두 가지 역사가 한꺼 번에 생겨서 먼저 간 자도 돌아온 자가 적어 민간이 시끄러워 황황하고 절박한 모 양이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형세가 그런데 어찌하랴. 이러한 때에 영천의 군량을 또 적에게 빼앗겼으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언신은 자기 집에서 경 작하는 전답이 몹시 많은데 쇄마군과 예초군을 일시에 함께 나오라고 했으니 곤궁 해서 값으로 낼 수도 없어 자신이 영남에 가서 양곡을 운반하겠다고 와서 애원하 므로 부득이 허락해 보냈다. 춘금이는 벌거숭이인데 일기는 점점 추워지고 우리 집에서는 옷을 지어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예초군의 값을 받고 서 울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허락해 보냈다. 우리 한집안의 사환 2명 도 모두 나가서 마땅히 8월 그믐께나 돌아온다고 한다. 가을일이 많은데 겨우 김 담 한 사람이니 혼자 맡길 수도 없는 터라 무엇이라 말할 수가 없다. 춘금이가 받 은 값은 포목 5필이라 하니 만일 다 받았으면 그것으로 겨울 추위는 막을 수 있겠 다. 낮에 덕노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어제 늦게 떠났고 소의 걸음이 느려서 중도에 자고 이제 비로소 왔다고 한다. 콩 10두·밭쌀 10두·중미 5두·찹쌀 1두·꿀 2 되·닭 3마리를 보내왔다. 또 언명의 집 계집종 개금이에게도 겉보리 3두·보리 쌀 2두 · 밭쌀 1두를 역시 보냈다 근일은 이것으로 잘 지내겠다.

그믐날. 조인손을 불러서 인아가 자는 방을 수리하게 했다. 불이 들지 않고 온돌이 차기 때문이다. 저녁에 민시중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편지를 보니 양곡 운반이 늦는다고 방백이 조정에서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마땅히 수령에게 미쳐 와서 운반을 독촉하는 것이 바야흐로 급한데 먼저 간 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또 인부와 말을 내보내라 하여 민간이 시끄러워 모두 도망해 흩어질 마음을 가졌으니, 수령이 비록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나 형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리오. 또 조보를 보니 성주에 머무르고 있는 대군이 양곡이 떨어진 지 이제 이미

3일이어서 장차 물러가 흩어질 계획을 하므로 조정에서 급히 어사를 보내서 양곡 운반을 독촉하게 한다고 했으나 이미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랏일이 이와 같 으니 몹시 근심스럽다.

## 8월

- 1일. 나무로 만든 절구와 절구공이를 배 만드는 장인을 시켜 만들어 왔다. 전일에는 비록 반 되의 쌀이라도 이웃집에 가서 찧었는데 이제 이 물건을 얻었으니, 비록 혼자서라도 역시 집안에서 찧게 되었으니 기쁘다.
- 2일. 고한필의 밭 조를 베어서 펴서 말렸다. 절반은 익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은 베지 않고 37뭇만 실어 왔다. 먼저 뚜드렸더니 5두가 났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후에 가 보고 돌아왔다. 저녁에 관인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전하고, 당미 2두 · 참외 9개 · 가지 50개 · 닭 3마리를 보내왔다.
- 3일. 소를 팔아 말을 사기 위해서 늙은 소를 끌고 덕노가 서울에 갔다. 추석 제물은 윤겸으로 하여금 보내라고 했고, 용인 처부모의 묘제도 우리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제물을 역시 마련해 보내도록 했다. 밥 · 떡 · 과일과 집에 있는 닭 10마리를 잡아 보내서 쌀을 사서 쓰도록 했다. 고성댁(남상문), 임 창봉(임면부)댁에도 각각닭 1마리씩을 보냈다. 달리 보낼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해주 윤함에게는 역시 편지를 써서 광노에게도 보내서 편이 있는 대로 전해 보내도록 했다. 용인 · 장수댁에도 역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집에 보낼 만한 물건이 없어서 다만 빈 편지만 보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용인의 제물은 대구 2마리 · 마른 닭 3마리 · 조기 3마리 · 백미 1두 · 목미 1두 · 꿀 1되 · 꿩 2마리를 보냈다. 이 밖에 보낼 만한 물건이 없으니 한탄스럽다. 앞 여울에 통발을 매고 식사 후에 아우 및 두 아이와 가 보고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지 않아 단단하고 성기지 않으니 반드시 많이 잡힐 것이다.
- 4일. 통발을 놓은 천어는 아침에 가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중에 모두 훔쳐 가서 1마리도 남지 않았으니 반드시 그 이웃 사람의 짓이라, 몹시 밉살스럽다. 종일 네사람을 시켜 삼시 식사를 주며 놓은 것으로서 첫날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많

- 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마침내 모두 도둑맞았으니 더욱 몹시 분한 노릇이다.
- 5일. 이 현에서 말을 가지고 간 사람이 함열의 일행을 모시고 봉산까지 갔다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는데, 함열의 편지와 딸의 편지를 보니 일행 상하가 모두 무사히 9일 만에 비로소 도착했다고 하니 몹시 위로가 되고 기쁘다. 사방으로 시장이 멀지 않아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고, 사는 종도 역시 먹을 것이 넉넉하여 의뢰할 만하여 이곳과 같이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하니 더욱 듣기에 기쁘다. 윤해의 처는 전일에 그 부모가 있는 곳에 갔다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고 윤해도 역시 가 보고 왔다. 고한필의 밭에 퍼 놓은 조를 오늘 뚜드렸는데 17두가 났다. 언명에게 2두를 보내고, 또 계집종들에게 각각 1두씩 주었다.
- 6일. 박문재의 밭의 피를 베어 퍼 말렸다. 오후에 비가 내려 종일 내린다. 오래 가문 나머지 비를 얻었으니 콩이 거의 다 영글지 못하던 것이 소생될 것 같다. 저녁에 아노 개질지가 양식을 싣고 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윤겸이 어제 우계의 회장(會葬)으로 파산에 갔다고 한다. 중미 5두 · 밭쌀 10두 · 꿩 2마리 · 수박 1개를 가져왔다.
- 7일. 지난밤에 금린어 1마리가 통발에 잡혔는데, 거의 1자가 넘어 크기가 노어만 하여 잡아서 잘랐더니 소반에 가득하다. 아침 식사에 탕을 만들어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빙어 1마리와 무린어 1마리도 역시 잡혔는데, 그 크기가 역시 반 자나 된다. 필시 어제저녁에 비가 내린 까닭일 게다. 다행한 일이다. 향노의 목 종기는 거의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곪지 않으니 몹시 상한 것인가 두렵다. 오늘 개질지가갈 때 함께 현으로 가서 이은신을 보고 약을 물어보아 치료할 작정이다.
- 8일. 윤해가 오늘 추석 성묘차 오늘 떠나는데, 다만 종 하나에 파리한 말을 가지고 험한 길에 어떻게 갔는지 몹시 걱정스럽다. 통발에서 잡은 앞내의 천어는 겨우 1첩 인데, 윤해의 집에 보내서 탕을 만들어 먹여 보내게 했다. 또 들으니 목전에 사는 채 좌수 인원이 색마가 있는데, 매양 종자마로 빼앗길 걱정이 있어 소와 바꾸려 한 다 하므로 인아가 제 소와 바꾸려 하여 오늘 김담을 보내서 꼭 바꿀 것인지의 여부 를 물어볼 작정이다. 현의 장무가 사람을 시켜 외 15개·가지 9개·수박·참외 등

물건 및 꿩 2마리를 보냈다. 곧 모레 고조의 기일에 쓰기 위해서다.

9일. 통발에서 잡힌 천어가 큰 것이 10여 마리·중질 자라 1마리·중질 금린어 1마리는 반자 넘는 것이다. 내일 제사 음식으로 쓸 작정이다. 김현복이 와서 보고 수박·참외 각 1개씩을 가져왔기에 소주를 대접해 보냈다. 이는 중금의 밭을 병작하는 사람이다. 저녁에 이 찰방 빈 씨가 이천 집에서 찾아왔다. 김담이 돌아왔는데 소로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10일. 곧 고조의 기일이다. 아우 및 인아와 새벽에 제사를 지냈다. 이 찰방이 아침 식사 후에 현에 들어갔는데 윤겸을 만나 보고 추석 제수를 얻으려 한다고 한다. 늦은 후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어제 파산에서 돌아왔는데, 우계의 장례는 오늘 18일로 물려서 지낸다고 한다. 향노의 목 종기는 이은신이 침으로 따고 나쁜 물을 빼낸 후에 점차 나아 간다 하니 기쁜 일이다. 어제저녁 및 오늘새벽에 통발에 잡힌 천어는 어떤 사람이 전부 훔쳐 가고 1마리도 남아 있지 않다고하니 몹시 서운하다. 필시 근처 사람의 소위일 것이다. 숨어 있다가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으니 더욱 서운하다.

11일. 현의 사람이 도망간 관비들을 안협 땅에서 잡아 가지고 돌아올 때 편지를 이은신에게 보내면서 찰기장 1두를 보내게 했다. 전에 그 편지를 보니 추석 제사에 쓸 물건을 갖추지 못해서 몹시 민망하다고 했는데 달리 보낼 물건이 없어서 겨우 이것으로 일조가 되기를 바라 보낸 것이다.

12일. 통발에 잡힌 천어가 5, 6마리인데, 중질 자라 1마리도 역시 얻어 왔기에 아침 식사에 탕을 만들어 아우와 함께 먹었다. 인아는 먹지 않는다. 전일에 펴서 말린 박춘재의 짚 반 동을 오늘 뚜드렸더니 전부 2석이다. 반일갈이이다. 짚은 되지 않았다.

13일. 전일 고한필 밭의 조가 아직 덜 익은 것을 오늘 두드렸더니 5두 5되가 났다. 전일 수확한 것과 합치면 모두 1석 7두 5되가 난 것이다. 하루갈이인데 당초에 모가 드물기 때문이다. 내가 친히 가 보고 호두를 따게 해 가지고 돌아왔다. 배 만드는 목공이 술통을 만들어 보냈다. 전일 벤 나무 받은 것을 보내서 만들게 했기 때문이다.

14일. 현에서 사람이 추석 차례에 쓸 햅쌀 1두 · 당미 1두 · 닭 2마리 · 대구 3마리 · 가지 15개 · 참외 6개 · 잣 1두 · 개암 1되를 가지고 왔다. 어두운 뒤에 전업이일이 있어 현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윤겸이 또한 햅쌀 1두 5되 · 소주 1병을 보냈다. 어둘 무렵 박언수를 불러서 어미 벌 2통을 꺾게 했더니 꿀 9되 · 밀 6량 2되가 났다.

15일. 어젯밤 통발에 잡힌 천어를 차례에 쓰려고 했더니 모두 훔쳐 가고 남은 것이 없으니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술 · 떡 · 실과 · 포 · 구이로 차례를 지낸 후에 온 집 안이 같이 먹었다. 속절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모두 차례 지내고 남은 떡을 가져왔다.

16일,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통발에 잡힌 천어는 지난밤에도 모두 훔쳐 가고 1마 리도 남지 않았다. 날마다 이와 같으니 더욱 분한 일이나 어찌하랴. 늦은 후에 김 언신의 어미가 머리를 풀고 달려와서 울면서 호소하기를 지난달에 관에 바칠 곡식 을 바치지 못한 일로 색장이 엄하게 독촉하여 머리를 끌고 난타하여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지난달의 일인데, 물에 막혀서 사람이 현과 통행이 되지 않 아 이틀 동안 양식이 떨어져서 상하가 겨우 죽으로만 지내던 중 어느 날 아침꺼리 가 전혀 없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마침 들으니 언신의 집에서 받은 쌀을 아직 관에 바치지 않았다고 하기에 부득이 가져다가 먹고 즉시 윤겸에게 편지했으며. 또 근친 왔을 때도 만나서 감해 주도록 말하고 그 이름까지 써서 주었으며. 그래 도 잊을까 두려워서 그 후에 또 윤해로 하여금 그 이름을 써서 보내게 한 지가 이 제 한 달이 넘었는데 별로 독촉하는 명령이 없기에 이미 감해 주었거니 생각했었 다. 그런데 수일 전에 언신의 어미가 와서 말하기를, 그 쌀 바치는 일로 색장이 독 촉하니 어찌하랴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다시 편지를 써서 말할 것이나 이후에도 만일 다시 독촉하면 내가 마땅히 마련해서 바칠 터이니 의심치 말라고 했다. 그날. 날이 어둘 때 마침 현에 가는 사람이 있기에 이 뜻을 편지로 말했더니 답장이 오기 를, 마땅히 말씀대로 감해 줄 것이나 다만 일이 공변되지 못해서 마음에 몹시 미안 하다고 했기에 나도 또한 바야흐로 불안하게 여겼더니 이제 과연 이와 같이 되었 으니 부끄러워 볼 낯이 없음을 어찌 다 말하랴. 만일 그때 안 된다고 말했으면 마 땅히 현에서 보낸 양식으로 바쳤을 터인데 끝내 안 된다는 뜻을 말하지 않고 그대 로 있은 지 이미 오래여서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한탄한들 무엇하랴. 대 개 여기에 머문 지 수년 동안에 이 지방 인심을 살피건대. 윤겸이 바야흐로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자못 미련하고 사나운 일이 있어 때로 욕하고 헐뜯는 말이 들 리지만 그렇다고 만일 하루아침에 내 놓고 가면 반드시 욕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 겠기로 내년 봄 벼슬이 바뀌기 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마땅히 딴 곳으로 옮길 작정이다. 그러나 시사가 이와 같으니 기필할 수 없는 일이다. 윤겸은 본래 성질이 지나치게 너그럽고 느리며 또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록 하리에게 일러도 하리는 본래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을 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생긴 것이다. 나는 이미 그런 폐단을 알면서도 하루아침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억지로 안 될 일을 감해 달라고 해서 끝내 늙은 할미에게 실신해서 욕을 당한 것이 몹시 많으니 뉘우치고 한탄한들 무엇하랴. 이제부터는 거의 경계할 바를 알았으니 구차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계집종 옥춘이 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신이 바치지 않은 쌀 1두 6되를 마련해 보내서 관에 바치게 하여 아주 후환을 없이 했다. 옥추은 그 딸 향비의 종기가 더하다는 말을 듣고 가 보고자 하기 때문에 김담으로 하여금 소 를 태워 보냈다.

17일. 저녁에 김담이 돌아왔는데 편지를 보니, 그 수납미는 이미 감해 주었고, 더 낼 쌀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독촉한 것이라 하여, 여기에서 보낸 쌀은 돌려보냈고, 거기에 밭쌀 5두를 더 보내오고 1두는 언명의 집에 보냈다고 한다. 가을보리 1석, 참보리 5두를 역시 보냈으니 곧 종자로 쓸 것이다. 또 들으니 향비의 종기는 고름이 그치지 않고 딴 곳까지 부어 증세가 가볍지 않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또들으니 이 지사 첩의 딸을 어제 비로소 데려왔는데 우계(성혼)의 장례를 19일로 물렸기 때문에 아직 서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들으니 소근전의 콩을 많이 훔쳐꺾어간다고 하니, 필시 근처 사람들의 소위일 것이라 몹시 밉살스럽다.

18일. 효립의 생일이어서 윤해의 처자가 술과 떡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장난감을 효립의 앞에 벌여 놓고 그 먼저 짚는 물건을 보았다. 최충운(최응진)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19일.** 요새 반찬이 없어서 조석으로 다만 무나물만을 어머님께 드리니 민망스럽기만 하다.

20일. 언신·언방 등이 군량을 싣고 영남에 갔다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왔고, 병아리 2마리를 보내왔다. 어제부터 혹 비가 뿌리다가 혹 개기도 하여 연일 그치지 않는다. 저물 때 윤해가 들어왔는데, 내가 불편하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덕노를 데리고 왔다. 덕노가 가지고 간 소를 팔아서 은 7량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말을 사려고 역시 7량을 주었다 한다. 그 말을 보니 나이는 8, 9세로 잘 걷는다. 다만 뒷발에 병이 있으나 중하지는 않으니 만일 잘 먹이고잘 부리면 4, 5년은 지탱하겠다. 남고성의 편지 및 누이의 편지를 보니 모두 잘 있다고 했다. 윤해는 어깨의 종기 때문에 죽산에 가서 성묘하지 못했다고 한다. 광노의 집에 있는 표피 1장은 은 2량 3전을 받았고, 1장은 아직 팔지 않았다 한다.

21일. 김언춘이 동과 1개를 가져왔고, 경이도 역시 1개 및 차좁쌀 1두를 가져왔다. 곧 김억수의 아우이다. 통발에 잡힌 천어는 지난밤에 또 모두 훔쳐가고 또 엮은 발도 찢어 놓아 다시 잡지 못하게 했으니, 필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소위일 것이다. 몹시 미우나 어찌하랴.

22일. 덕노가 말을 가지고 현에 들어가서 그길로 어미와 향비를 데리고 서울로 가서 향비의 병을 치료하게 했다. 들으니 광주 묘하에 사는 문억이 종기를 잘 치료하는데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고 한다. 덕노가 추석 묘제 때 내 말로 말했더니 대답하기를 만일 속히 보내면 마땅히 진력해서 치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꿀 2되와 포목 1곳을 보내서 약 사는데 쓰도록 했다. 그러나 들으니 향비의 증세가 위중하다 하니, 서울을 가지 못할까 두렵다.

23일. 이틀 밤을 계속해서 찬 이슬이 내리고 아침 기운이 몹시 찬데 상하가 모두 옷이 얇아서 겨울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혹은 말하기를 밝은 서리가 내렸는데 만일 이로 인해서 찬 서리가 계속해 내리면 보리가 익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밤에 잠이 안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가슴을 메우더니 갑자기 죽은 딸을 생각하여 평일에 놀던 일의 행동이 눈에 삼삼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일어나 앉아서 남몰래 울다가 닭이 세 번 운 뒤에야 그쳤다. 또 한 번 희미

한 꿈속에서라도 보려고 했으나 역시 되지 않으니 더욱 몹시 슬프다.

24일. 새 방에 온돌을 고쳤는데 끝내지 못했다. 저녁에 아노 세만이 양식을 싣고 왔는데 백미 1두·중미 5두·밭쌀 10두·보리쌀 3두·대구 5마리·꿩 2마리를 보 내왔다. 함열이 어제 서울에서 돌아와서 역시 편지를 했는데, 근일에 서쪽으로 돌 아갈 때 마땅히 들러 보겠다고 했다. 신상례도 역시 편지를 보내 물었으니 깊이 감 사하다.

25일. 늦은 후에 무료해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들로 걸어 나가 보리를 살펴보니 계속 서리를 맞았는데도 상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아랫대가 모두 실하다. 쌈 끝이 혹 아직 영글지 않은 곳이 있지만 만일 5, 6일만 있으면 여러 곡식이미처 영글지 못하는 걱정은 없을 것이다.

**26일.** 들으니 윤겸이 모레 사이에 와서 근친한다고 한다. 오늘 새 방을 수리하려 했더니 목공이 오지 않으니 한스럽다.

27일. 박번의 밭을 갈고 가을보리 4두를 뿌렸다. 반일 갈이이다. 조인손의 밭으로 옮겨 갈고 보리 10두를 뿌렸다. 아침 식사 후에 아우 및 두 아이와 함께 보리 가는 곳에 가 보고 그물을 쳐서 20마리를 잡고, 윤해도 역시 낚시질을 하여 9마리를 잡았다. 저녁에 함열이 현에서 왔는데, 봉산에 가는 길에 여기 들러서 자는 것이다. 이여실도 역시 같이 와서 서로 중당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고 잤다. 또 윤겸의 편지를 보니 오늘 함열과 같이 오려고 했더니 어제저녁에 순사도가 군사를 내어 전령해서 현에 도착하는 즉시 패지를 발부하여 군사를 모아 모레쯤 친히 거느리고 원주의 순찰사가 머무는 곳으로 가서 교부한 뒤에 돌아올 것이므로 사세가 촉박하여 기일에 대어 가야겠으니 와서 근친하지 못한다 한다. 전일에 들으니 두 대장은 영남으로부터 서울로 와서 형군문의 명령을 받은 후에 즉시도로 내려갔다고 하니 생각건대 필시 흉적을 토벌하기 위한 것일 게다. 한 나라의성패가 이 한 번 싸움에 달렸는데, 하늘도 반드시 화를 뉘우쳐서 우리의 생령을 구워할 것이다

28일. 함열은 일찍 떠나서 봉산으로 향했다. 하루 더 머물도록 억지로 붙들었으나 집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바빠서 머물 수 없다고 한다. 행색이 하도 총총하여 비

록 만나 보기는 했어도 만나지 못한 것만 같다. 한탄한들 무엇하랴. 편지를 써서 딸에게 전하게 했다. 이여실도 역시 같이 함열과 함께 이천으로 가겠다는 것을 억 지로 만류해서 막힌 회포를 풀련다. 어제가 후임의 생일이다.

29일. 여실은 역시 머물렀다. 또 들으니 윤겸은 새벽에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갔다한다. 늦은 후에 여실 및 아우 두 아이와 함께 걸어서 앞내 깊은 못에 가서 한동안 구경하다가 돌아올 때 보리밭을 보았더니 모두 영글었으니 이제는 비록 서리가 내려도 다시 걱정할 것이 없겠다.

### 9월

- 1일. 이른 아침에 여실이 이천으로 돌아갔다. 집에 물건이 없어서 아무것도 주어 보내지 못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목공이 새 방을 다 수리한 뒤에 또 베틀을 만 들었다. 김억수가 기르는 매를 지금 한창 길들이는 중인데, 영남의 군량을 운반하 는 일로 부득이 팔아서 비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가져갔으니 애석하다.
- 2일. 춘금이는 지난달 초승에 예초군을 대신 세울 일로 서울에 갔다가 일이 끝난후에 이제 비로소 돌아왔다. 올 때 현에 들러 양식을 싣고 왔는데 중미 5두, 밭쌀10두, 소주 2병, 송어 1마리, 대구 1마리 및 오는 8일 기제에 쓸 햅쌀1두, 꿀1되, 기름 5홉, 잣1두, 개암2되, 석이5되, 보리쌀1두를 가져왔다. 김언보의 밭을 갈고 참보리 4두를 뿌렸다.
- 3일. 지난밤 꿈에 최목천 경선을 보았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다. 깨고 나서 슬프고 불쌍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인방의 밭 및 김억수 밭의 조를 베어서 펴 말렸다. 오후에 아우 및 두 아이와 걸어서 가 보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돌아왔다.
- 4일. 관에서 만든 배를 흘러내리는 일로 여러 절의 승군들이 끌어내리는데 물은 떨어지고 여울이 얕아서 조금씩 끌어내려 사흘 만에 비로소 동대 밑에 이르렀는데, 이 아래는 험한 여울이 많아서 만일 억지로 끌어내리면 배 밑이 반드시 뚫어질 것이어서 몹시 걱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방백의 영이 몹시 급해서 형세가 중지할 수 없다고 한다. 부석사의 중 법희와 장고사의 중 의현이 와서 보기에 점심밥을 대접

해 보냈다. 이들은 곧 배 끌어내리는 일로 여기에 온 것이다. 김언보가 빙어 12마리를 가져왔는데 큰 것은 거의 반 자가 넘는다. 소주 2잔을 주어 보냈다. 근일에 찬이 없어 어머님 드릴 것이 걱정이더니 이런 큰 물고기를 얻었으니 수일 동안은 드릴 수 있을 것이라 몹시 기쁘다.

5일 인아가 앞내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 백여 마리를 얻었으므로 저녁 식사에 탕을 끓여서 여럿이 같이 먹고 큰 것 20여 마리는 골라 쪼개서 말렸다. 이 면의 색장이 왔는데 올 때 장무가 쌀 1두·꿀 1되·기름 5홉 등을 보냈다.

6일. 전해 들으니 윤겸이 이번에 운량차사원이 되었기 때문에 즉시 관으로 돌아오지 않고 춘천부에 머물러 양곡 운반하는 군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뒤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20일 후에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부석사의 중이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이는 곧 전일에 콩을 보냈기 때문이다. 내일 장모의 기제를 마땅히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할 것이니 그때 쓸 것이다. 초여름에 병아리를 키우느라고 고양이를 부석사 뒤에 보냈더니 집안에 쥐가 들끓어서 집에 있는 물건이 완전한 것이 없으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이에 위아래 방에 함정을 파 놓았더니 날마다 떨어지는 것이 혹 4마리 혹 3마리 혹 2마리씩인데 그 수를 계산해 보니 56마리이고, 요새는 떨어지지 않으니 필시 다 죽고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민시중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아내에서 게젓과 쇠고기 포를 보냈다.

7일. 현의 장무가 닭 1마리 · 꿩 1마리 · 중질 붕어 8마리를 보냈다. 또 모레 제사에 쓸 약과 4되 및 반찬거리도 보냈다. 요새 틈이 없어서 전일 베어 말린 조를 지금까지 가져오지 못했는데 비 올 조짐이 있으니 걱정이다.

8일. 새벽에 제사를 지냈는데 나는 두 다리에 종기가 나서 굴신을 못하고 인아는 또한 마침 곽란 증세가 있어 밤새 구토를 했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윤해가 홀로 둘째 딸과 지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 조를 다발 짓지 못하고 널어 놓았으니 걱정스러우나 어찌하랴. 후임은 왼쪽 어깨 가운데 마디에 종기의 크기가 계란만 하고 빛이 붉어서 여러 날 아파하더니 오늘 밤에는 밤새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 제 어미가 안고 업고 하면서 밤을 새웠는데 아침에 화침

을 맞더니 조금 덜하다. 그러나 흰 물이 아직도 다 나오지 않았다.

9일, 가절이다. 술과 떡을 갖추고 닭 2마리를 잡아 반찬을 만들어 신주께 제사를 드리고 또 죽은 딸에게도 지냈다. 늦은 후에 장무가 술 6병 · 떡쌀 1두 5되 · 찹쌀 가루 2되 · 꿩 1마리 · 꿀 1되 · 기름 5홉을 보내서 관노 및 두 관비가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주고 즉시 돌아갔다. 저녁에 덕노가 왔는데 들으니 향비의 병세는 여 전하다고 한다. 서울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즉시 광주 토당의 산소 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사는 문억이 종기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침으로 종기 를 따고 약을 먹이게 했다. 갈 때 포목 1필 반, 꿀 2되를 보내서 약값으로 쓰게 했 다. 윤경이 어제저녁에 비를 맞고 관으로 돌아왔는데 편지를 보니 이제 또 운량원 이 되어 곧 풍기로 가야 하는데, 만일 4, 5일만 늦출 수 있으면 와서 근친한 뒤에 떠날 것이나 그 후에 가기를 재촉한다면 형세가 올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방백 의 차역이 고르지 못해서 안협(유담) · 평강(오윤겸) 두 현은 두 번이나 보내고. 이 천·철원은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이들은 곧 재상의 자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 독 잘 대우한단 말인가, 몹시 한스럽다. 또 들으니 덕노의 말은 중국 군사에게 잡 혀 짐을 싣고 양지현에 이르렀다가 밤중에 몰래 도망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다 한 다. 김담·춘금이로 하여금 매 그물을 두 곳에 쳐서 닭을 가두게 했다. 후임의 어 깨 종기는 나아 가니 기쁘다. 또 들으니 윤겸이 저번에 지평의 망에 올랐다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오래지 않아 옮겨질 것이니 우리 집 일이 몹시 걱정 스럽다.

10일. 온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직동 깨를 베어 뚜드리게 했더니 10두가 된다. 오후에 친히 가 보았다. 김억수가 매를 가지고 돌아왔다. 윤겸을 중로에서 만났는데 짐 1바리를 감해 주어 돌려보내고 이 매를 날려서 어머님을 봉양하도록 한 것이다.

11일. 온 집안 노비 5명으로 하여금 전풍의 조를 베어서 널어 말리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늦은 후에 내가 친히 가서 베는 것을 감독했다. 조인손 · 박언수가 산포도를 따서 각각 1광주리씩을 가져왔다.

12일. 지난밤에 큰 범이 개를 물어 가려고 와서 은개의 방 밖의 문을 혹 밀기도 하고 혹 물어뜯기도 하므로 은개가 범이 온 것을 알고 소리를 내어 쫓았더니 달아나

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그러나 여러 개들은 모두 집안으로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 가지 못했다. 필시 매일 밤 와서 엿보는 것이다. 온 집안 노비들로 하여금 먼저 전일에 베어 놓은 조를 거둬 묶고, 뒤에 어제 못다 한 조를 거두게 했다. 이인방의 밭에서 2백 20뭇, 김억수의 밭에서 차조 5백 13뭇 반, 피 80뭇이 났다. 말지의 밭의 깨를 베어 털었더니 4두 3되가 났기에 1두는 언명의 집에 보냈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내일 와서 근친한 뒤에 영남으로 간다고 했다. 백미 2두ㆍ중미 3두ㆍ밭쌀 10두ㆍ꿀 3되ㆍ잣 1두ㆍ찹쌀 1두ㆍ소금 2두ㆍ누룩 3장을 실어 왔다. 직동 밭의 깨를 다시 뚜드렸더니 3두가 났고, 말지의 깨는 1두가 났다.

13일. 온 집안 노비로 하여금 김광헌의 밭 조를 베어 깔게 하고 인아로 하여금 가보게 했다. 저녁에 윤겸이 왔다. 못 본 지가 이미 두어 달이나 되었으니 이는 모두 관청 일 때문이다. 이제 비록 만났으나 내일 관으로 돌아갔다가 즉시 영남으로 간다니 섭섭하고 한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소주 4병·백미 1두·꿩 2마리·포도과자 1항아리를 가지고 왔다.

14일 윤겸은 아침 식사 후에 관으로 돌아갔다. 최 판관이 와서 보기에 아침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김명세·김린이 와서 보기에 소주를 대접해 보냈다. 온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관의 둔전 2곳의 조를 베어 널게 했다. 저녁에는 흐리고 비를 뿌렸다. 15일. 새벽부터 천둥과 비가 크게 일더니 아침에 이르러 비로소 개었다. 전일에 베어서 눕혀 놓은 조를 거두기 전에 비를 만났으니 걱정이다. 조인손 등으로 하여금 물고기 집 여섯 곳을 묻었다.

16일. 온 집안 노비로 하여금 보리를 베어 깔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오후에 아우와 함께 걸어서 가 보았다. 저녁에 권 생원 학이 토산으로부터 찾아왔다. 내가 난을 피해서 임천에 가 있을 때 권도 역시 거기에 있어서 수년 동안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매양 서로 찾아서 서로 가깝기가 가장 간절했었는데 지난해 가을에 다시 난리를 만나 토산으로 왔었더니 이제 갑자기 만나 보니 기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어찌 다 말하랴. 같이 막혔던 회포를 풀다가 밤이 깊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만 집에 술과 안주가 없어서 위로할 수가 없으니 한스럽다. 춘기가 와서 윤겸의 편

지를 보니 오늘 비로소 떠나서 영남으로 간다고 한다.

17일. 어제 끝내지 못한 보리를 베어 널었다. 권경명은 일로 인해서 머물러 있었다. 식사 후에 아우 및 두 아이와 같이 권을 청해서 함께 동대로 가서 한참 동안 앉아서 구경하다 돌아왔다. 권은 좋다고 칭찬하기를 마지않는다. 윤해의 양모가 저녁밥을 지어 권에게 대접을 했다. 곧 그의 사촌 오라비이다. 언신이 적두 3두를 가져왔다. 나의 곤궁함을 들은 때문이다.

18일. 권경명이 역시 머물렀다. 포목 3필을 가지고 꿀을 사서 과동할 준비를 하려고 종을 북면에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김광헌 및 전풍의 밭 조를 거두었더니 광헌의 밭은 2백 65속이요, 전풍의 밭은 3백 78속이다. 오후에 가 보고 돌아왔다. 저녁 식사는 윤해의 양모가 또 지어서 권을 대접했다.

19일. 권경명은 토산으로 돌아갔다. 어두울 때 밀 3통을 떴으니 곧 올해 생산된 것이다. 꿀 1두 8되인데 모두 덕노에게 주어 목화를 사게 했다. 존광 들에 관의 둔전두 곳을 뚜드렸더니 한 곳에서는 피가 1석 12두요, 한 곳은 피가 14두이다. 언명의집에 8두. 유해의집에 2두를 주었다.

20일. 덕노가 목화를 바꾸는 일로 떠나서 충청도로 간다고 한다. 꿀 1두 7되, 포목 반 필을 주어 밑천을 하라고 했다. 다만 여의치 않을 것이니 수이와 상의해서 하라고 했다. 집사람은 20일 이후로 기운이 점점 불편해서 비록 크게 아프지는 않아도 밤이면 뒤척이면서 신음하고 식욕이 아주 감한 지가 이제 14일이 되도록 아직도 쾌하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21일. 어제 팥을 거두다가 끝내지 못했는데 오늘도 비가 뿌리기 때문에 다 거두지 못했다. 언신·김담이 모두 휴가를 얻어 가지고 갔는데 가을일은 날로 급해 가고 집에 부릴 만한 장정 종이 없어서 일이 지체되는 것이 많다. 전일에 펴 놓은 보리는 아직도 거두지 못했는데 이제 또 비를 만났으니 수일 이내로는 형편이 다 거두지 못할 것이라 한심스럽다. 울타리 나무를 아직 베어 오지 못했는데 일기가 점점 차가워지니 더욱 걱정스럽다.

22일. 참서리가 비로소 내렸다. 지붕의 기와가 모두 희고 뜰의 물이 얼어서 찬 기운이 맵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백미 조두, 피살 조두,

병 1석, 고등어 30마리를 싣고 왔다. 고등어는 여름을 지나서 썩고 버러지가 났지만 먹어본 지가 오래여서 구워서 먹었더니 달기가 고기와 같아 그 맛이 변한 것을 알지 못하겠으니 탄식스럽다. 온 집안 노비들로 하여금 보언의 밭과 언신의 밭 팥을 거두게 하여 뚜드리지 못하고 밭에 쌓아 두었다.

23일. 현리 김인기가 왔다. 중금의 밭을 감수할 일로 불러서 밭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또 윤해로 하여금 언신을 데리고 친히 가서 밭의 대소와 곡식의 여물고 여물지 않은 것을 살펴본 뒤에 인기로 하여금 감독해 뚜드리게 했다. 전일에 펴 놓은 보리를 이제 비로소 거두어서 밭 가운데 여섯 곳에 쌓아 놓은 후에 관의 둔전의 팥으로 옮겼지만 끝내지 못했다.

24일. 김언보의 밭 및 언신의 밭을 거두어 두드렸더니 적두가 3석 4두이다. 식사후에 아우 및 두 아이와 함께 친히 가서 뚜드리는 것을 감독했다. 현에서 온 사람이 소금 2두를 가지고 왔다. 장을 담글 것이다.

25일.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말을 타고 울면서 이 집을 지나가는데, 내가 마침 목화 밭에 갔다가 보니 총각 사나이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소인은 곧 고 민 참판 기문의 서손이온데 아비 민달이 지난해에 죽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피란해서 삼척 땅으로 들어가 살다가 이제 해서로 가는 길인데 양식과 반찬이 이미 떨어져서 길에서 걸 식한다고 한다. 듣고 나니 불쌍함을 이길 수 없어서 쌀·간장을 주어 보냈다. 윤해 의 팥밭을 거두어 두드렸더니 2석 6두가 났고, 언명의 밭에서는 겨우 6두가 났다고 하니 한스럽다.

26일. 며느리가 와서 근친하고자 하나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른 아침에 인아가 현에 들어갔다. 나무를 베어다가 앞 울타리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하지 못했다.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풍이 종일 부니 필시 비가 올 징조이다. 콩밭과 팥밭을 수확하지 못한 것이 많고 전일에 쌓아 놓은 이인방의 밭 조는 평평한 곳에 쌓아 놓았는데 비가 새어들어 썩어서 싹이 나서 내일 두드리려 했더니 만일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어 장차 버린 물건이 될 터이니 몹시 한탄스럽다.

**27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으나 흐리고 바람이 불어서일을 할 수가 없다. 매그물 친 곳에 닭이 잡혔는데 누가 훔쳐 갔으니 아깝다. 어두

운 뒤에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며느리는 비로 인해서 떠나지 못하고 내일 온다고한다. 백미 5두 · 국수와 떡 각각 1행담 · 대구 2마리 · 꿩 2마리 · 석이 3두 · 참기름 1되 · 잣 1되 · 청주 10병을 먼저 보냈다. 억수의 매를 오늘 비로소 날려서 꿩 2마리를 잡았다.

28일. 온 집안 3인으로 하여금 이인방의 밭조를 뚜드렸더니 조가 3석 1두가 나왔다. 늦은 후에 언명과 같이 걸어서 가 보았더니 곧 박문재의 집 앞이다. 문재가 닭을 잡고 밥을 지어 대접하므로 어두울 때 돌아왔다. 며느리가 세 자녀를 데리고 왔다. 승업을 보니 웅장하고 살이 쪄서 돌이 지난 아이와 같고, 눈이 맞으면 소리를 내어 웃으니 몹시 예쁘다. 밭쌀 1석을 가지고 왔으니 양식에 쓰라는 것이다.

29일. 며느리가 데리고 온 한인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며느리는 마땅히 5, 6일 머무르겠기 때문이다. 전인기가 중금의 밭에서 난 피 13두·조 2두·차조 2두 3되·녹두 7두 5되를 먼저 실어 왔다. 다만 김현복의 밭 조는 3백여 뭇이니 모두들 3석은 날 것이라고 하더니 겨우 1석을 보냈으니 나머지를 만일 자기가 쓰지 않았으면 반드시 많이 도둑맞은 것이니 밉샄스럽다.

그믐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비로소 개었다. 그러나 흐리고 바람이 불때 일기가 몹시 화창하기 때문에 새 집의 벽을 바르게 하고 또 방바닥도 발랐다. 기러기 1마리가 날다가 앞내에 떨어져서 헤엄치고 놀면서 가지 않으므로 인아가 쏘아 맞혀서 사로잡았으니 다행한 일이다. 억수의 매가 꿩 2마리를 잡았기에 1마리는 도로 주었다.

#### 10월

**1일.** 온 집안 6인으로 하여금 언춘의 밭 콩 및 조련의 밭 콩을 거두게 했으나 미처 동은 짓지 못했다.

2일. 온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어제 거둔 콩을 동 지어서 밭 가운데에 쌓아 두었다가 후일을 기다려 실어 오게 하고, 오후에 친히 가 보았다. 또 둔전의 팥을 거두게하여 끝냈다

3일. 11인으로 하여금 이기수의 밭콩과 팥을 거두게 했으나 날이 저물어서 미처 동

을 짓지 못했다. 내가 친히 가서 감독해 받았다. 억수의 매가 꿩 2마리를 잡아 가져왔다.

- 4일. 현에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밀가루 1두·잣 1되·호두 1되·꿀 3되·대구 2마리·망어 1마리·생파 3묶음을 가져왔다. 언신 등으로 하여금 어제 거둔 콩으로 7동을 만들어 먼저 3동을 실어 오게 했다. 내일이 조고 기일이어서 반찬을 만들었다.
- 5일. 밝을 무렵에 아우 및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윤해는 무릎 위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굴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사하지 못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내일 며느리가 돌아가려 하는데 비가 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웃 사람 박언방이 군량을 지고 영남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그에게 들으니 윤겸이 제천 땅에 이르러 중로에서 서로 만났는데, 일행 상하가 무사히 가더라고 한다. 억수가 꿩 1마리를 잡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잡은 것이라 한다. 늦은후에 비록 개었으나 서풍이 종일 크게 불어 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 억수의때가 꿩 2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는 가져오고 1마리는 매에게 주었다. 저녁에 아노 개질지가 인마를 거느리고 왔는데, 내일 며느리를 모시고 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이다. 콩 10두 백미 3두, 소금 5두, 방어 1마리, 전어 10마리, 은어 7마리, 생전복 50개, 대구알 등 물건을 싣고 왔다. 어물은 영동에서 얻어 온 것이라 한다.
- 6일. 바람 불고 비를 뿌린다. 식사 후에 개므로 며느리는 떠나서 돌아가는데 인아가 모시고 가다가 중도에서 돌아왔다. 도망한 군사를 전풍이 집에 숨겨둔 일로 해서 현리가 새벽에 와서 전풍의 집을 포위했으나 군사들은 미리 알고 다 달아났기 때문에 그 작은아버지 전귀실만 잡아갔다고 한다. 한 사람이 도망하면 한집 부모처자가 모두 보존하지 못하는데, 이 같은 심한 추위에 타향에서 흩어져 숲 사이에 숨어 엎드렸을 것이니 몹시 불쌍하다. 평일에 서로 알고 가까이 지내던 자들이라 더욱 탄식스럽다. 그 아비는 군량을 지고 영남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 7일. 이기수의 밭 팥을 뚜드리는데 마침 날씨가 바람 불고 추워서 다 뚜드리지 못하고 겨우 1석 10두를 수확하고, 그 나머지는 마당 가운데에 쌓아 두고 돌아왔다. 내가 가서 보았다. 또 길에서 최진운을 만났더니 이르기를 이제 채 좌수 세번을 만

났다 하는데 그 아들 언준이 이제 환시 승전색이 되었단다. 그가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했는데, 유 제독이 중국 군사 2만과 우리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순천의 적을들어가 쳐서 지금 한창 성을 포위하고 있으며, 동 도독은 진주의 적을 쳐서 멸하여우리나라 사람 백여 명을 살려 냈다고 한다. 또 마 제독은 지금 바야흐로 울산 · 도산의 적을 포위했으며, 수군도 장차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쳐서 네 길로 함께 진격한다고 한다. 그 성패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하늘이 만일 화를 뉘우친다면반드시 승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밤낮으로 하늘에 빌 뿐이다. 이 말은 전전해서들은 말이 아니니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인아가 현에서 돌아왔다.

8일. 앞뜰에 있는 관의 둔전 팥을 두드렸더니 1석 2두가 났기에 2두는 언명의 집에 주었다. 언명은 춘금이를 데리고 아침에 황촌으로 가서 둔전 곡식 뚜드리는 것을 감독했다. 지난 9월 9일로부터 매그물을 쳐 놓았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잡지 못했더니 이제 두 곳에 걸린 닭이 모두 죽었다. 요새 일이 많아서 3일째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필시 굶어 죽은 것이리라. 닭 5마리만 잃고 한갓 수고롭기만 했으니 탄식스럽다. 오늘에 비로소 그물을 걷어 오게 했다.

9일. 언명이 돌아왔는데 콩 3석 7두를 실어 왔다. 5두는 언명에게 주었다. 이것은 곧 학전에서 난 것인데 나로 하여금 받아 쓰도록 했기 때문이다. 춘금이 등으로 하여금 풀을 엮어 물고기집 한 곳을 막게 했으니, 이는 많이 들어간 곳을 가려서 들어온 곳을 막게 한 것이다. 박문재가 현에서 돌아왔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어제저녁에 현으로 돌아왔는데 무사히 갔다 왔으며, 모레 와서 근친한다고 했으니 몹시기쁘다.

10일. 소를 얻고 집의 소와 합쳐서 모두 4마리로 이기수 밭의 콩을 실어 오고, 또전일 미처 뚜드리지 못한 콩을 두드렸더니 모두 1석 5두가 났으니, 먼저 두드린 것과 합치면 모두 3석이다. 처음 생각으로는 7, 8석은 날 것이라고 했더니 모래밭이라 팰 때 가물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탄식한들 무엇하랴. 올 팥 소출은 겨우 7석으로 세전에 쓸 것에 지나지 않으니 내년 봄 일이 몹시 걱정스럽다. 만일 이때 얻어 저축하지 않으면 좋자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11일. 이른 아침에 현에서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편지를 보니 오늘 마땅히

접을 데리고 와서 근친하겠다고 했다. 백미 10두 · 밭쌀 10두 · 소금 5두 · 대구 5 마리 · 방어 1마리를 보내왔다. 각각 동서 집에 조금씩 나누어 보냈다. 역노 중금의 밭을 병작하는 장풍년이 피 13두 5되 · 보리 13두 5되 · 김린이 적두 12두 8되를 가져왔다. 저녁에 윤겸이 첩을 데리고 왔다. 윤겸의 첩을 보니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행동과 말하는 것을 보니 반드시 어리석고 용렬하지는 않겠으니 위로가 된다. 백미 3두, 밭쌀 5두를 가지고 왔다. 그 첩은 큰 문어 1마리 · 방어 1마리 · 생전복 · 전어 · 감당 등 물건을 가져왔다. 어물은 그 아버지 이 지사가 지금 간성에 있기 때문에 전일에 얻어 온 것이라 한다. 김 주부 명세가 꿩 1마리 · 수박 1개 · 계란 15개를 가지고 왔다. 함열의 종 춘억이 봉산에서 왔는데 자방의 편지 및 딸의 편지를 보니 아무 일도 없으나 다만 자방의 누이 민 주부댁이 세상을 떠냈다고 한다. 진아는 학질을 앓아 몹시 괴로운 지 이제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떼지 못했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딸이 목화 5근 · 진어 2마리 · 조기 1묶음을 보냈다.

12일. 윤겸의 생일이다. 술과 반찬을 차려 가지고 왔다. 관인이 왔는데 과일·국수· 떡 등을 가져왔다. 각각 술을 마시다가 파했다. 이은신도 역시 참석했다. 인아의 처가 귀를 앓아 몹시 괴로워하는데 여러 날이 되어도 차도가 없으니 몹시 근심된다. 토옥을 묻고, 또 김치를 묻었다. 오늘은 원근에서 와서 보는 자가 많은데 집에 항아리가 없어서 술을 빚지 못해서 대접해 보내지 못하니 몹시 한탄스럽다. 13일. 윤겸은 그대로 머물렀다. 늦은 후에 최 판관(최응진)·김 주부(김명세)가 와서 보기에 수제비를 만들어 대접하고 또 술도 주었다. 최진운 형제도 역시 와 보고 갔는데, 중운이 소금을 구하고자 하기로 4되를 주어 보냈다. 저녁에 남쪽으로 내려갔던 군사 중에 이 고을 황촌에 사는 사람 박춘이 돌아와 말하기를 마 제독이 여러 군사를 거느리고 울산의 진을 공격했으나 성이 견고해서 쉽게 칠 수가 없어 끝내들어가지 못하고 필경 우리 군사가 먼저 무너져, 흩어져 각각 돌아왔기 때문에자기도 역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군사는 아직도 물러나 흩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말의 허실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만일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소탕할 수 없을 것이니, 크게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새 온돌을 발랐다.

**14일.** 윤겸은 비로 인해서 그대로 머물렀다. 염광필이 병작한 흰 콩 1석 1두 · 상태 8두 · 팥 5두 9되를 가져왔다.

15일. 윤겸이 첩을 데리고 현으로 돌아갔다. 사흘을 머물고 간 것이다. 김사동의 밭 녹두를 뚜드렸더니 7두가 났다. 언명의 집에 피 14두를 주었다. 어두운 뒤에 덕노가 와서 남매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한다. 고성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들으니 남쪽으로 정벌해 간 여러 장수가 퇴진했다고 한다. 그 사이의 곡절은 비록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만일 물러났다면 필연 공격이 어려운 형세가 있어서였을 것이니, 하늘의 마음이 아직 돌아서지 않은 것인가. 탄식스러운 일이다. 억수의 매가 꿩을 쫓아 고개를 넘어갔는데 간 방향을 알기 전에 마침 날이 저물어서 찾아오지못했다.

16일. 곧 증조모의 기일이다. 아우가 인아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 나는 마침 허리에 세 곳이나 조그만 종기가 나서 스치면 찌르고 아프기 때문에 참사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김언보가 와서 보고 적두 2두를 가져왔기에 술과 떡을 대접하고 또 아침 식사를 먹여 보냈다. 또 덕노에게서 들으니 향비의 목 종기는 아직도 합창하지 않고 고름이 끊이지 않으며, 또 딴 곳에 종기 2개가 생겼다고 하니, 증세가가볍지 않아 구원하지 못할 것 같다. 덕노가 바꾼 목화를 가져왔는데, 양은 45근이다. 가지고 간 꿀이 1두 7되인데 아산 관청에 제역하고 바쳤더니 관청의 되가 커서 1두 7되의 꿀이 1두 1되로 되어 받고, 제역한 사람의 곳에는 꿀 1되에 쌀 3두씩받았고, 온양 시장에서 목화를 바꿨더니 각각 쌀 1두에 목화 1근 반씩을 받았다고한다. 어머님께 5근을 드리고, 언명에게도 역시 5근을 주고, 인아의 처에게 5근, 윤해의 집에 3근을 또한 주고 보니 도합 18근이 나가서 남은 것은 27근이다. 광노의 집에 있는 은 1량 2돈으로 중목 3필을 보내오고 1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포목에 보태서 소를 바꿀 작정이다. 억수의 매를 어제 잃었기에 춘금이 나당이 등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찾도록 했으나 종일 찾지 못했으니 아깝다. 오늘 보리를 뚜드리려 했더니 이 때문에 하지 못했으니 더욱 한스럽다.

17일. 아침부터 비가 내려 비록 크게 오지는 않아도 종일 개지 않아 추녀 물이 그 치지 않아서 이 때문에 매를 찾지 못했다. 저녁에 윤해의 종 안손이 현에서 돌아 왔는데, 윤겸은 무사히 현으로 돌아갔다면서 노루고기 및 표주박 2개를 보내왔다. 어머님께 꿀 2되, 표주박 1개를 보내드렸더니 어머님은 이것을 얻고 몹시 기뻐하 신다. 위로가 된다.

18일, 비가 밤에도 그치지 않으니 아침에도 오히려 여전히 내린다. 매는 다시 찾을 곳이 없으니 아주 잃은 것이 분명하다. 아깝다. 물고기 집은 몹시 춥기를 기다려 서 잡으려 했으나 춥지 않고 비가 이처럼 내리니 반드시 물이 넘쳐서 고기집이 물 에 묻혀서 물고기가 집으로 들어간 것도 모두 흘러 흩어진다고 한다. 비단 이것만 이 아니라, 남쪽을 정벌하는 사졸들이 이 찬 비를 맞다가 계속해서 몹시 추워서 언 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늘의 돕지 않음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니 한 탄한들 무엇하랴. 늦은 후에 비가 비로소 개었다. 저녁에 김업산이 현에서 매를 가 지고 왔는데 곧 윤겸이 보낸 것으로서 업산으로 하여금 잡역을 그만두고 매를 날 려서 꿩을 잡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 매를 보니 몸은 적어 겨우 7치이나 모양이. 준일하니 필시 양재일 것이다. 매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기에 닭을 잡아서 주었다. 19일, 비가 온 뒤에도 춥지 않고 마치 2월 절기와 같다. 다만 물이 몹시 부풀어 오 늘 아침에야 비로소 흘러내려 다리가 거의 묻혔다고 한다. 신함열의 집 종이 편지 를 가지고 이제 비로소 돌아갔는데 제수는 윤겸이 얻어서 보냈다. 곧 오는 27일이 소상인 것이다. 이곳에서는 포도정과 · 생산삼 11개 · 깨 4두 및 사소한 물건을 모 두 한 주머니에 넣어서 봉해 보냈다. 병아리 2마리는 역시 진아에게 보냈다. 들으 니 진아가 학질을 앓아 먹지 못하는데 상가에서 고기를 얻어먹지 못한다 하기에 처음에는 꿩을 얻어 보내려 했으나 매를 잃은 후로 꿩을 얻기가 몹시 어려워서 닭 으로 대신 보낸 것이다.

20일. 전일에 억수가 잃은 매는 우연히 이웃 사람 박금성의 매 그물에 걸린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가 날이 저문 뒤에 비로소 잡아 왔다. 그러나 꼬리털이 모두 부러지고 두 날개는 그물에 상해서 장차 버릴 물건이 되었으니 몹시 아깝다. 매가 먹을 닭 1마리를 잡아 주었으나 매를 날려 꿩을 잡을 시기는 아직 멀고, 두 매가 먹을 것은 모두 우리 집에서 주어야 하니 기르던 닭을 장차 다먹을 것이라, 탄식스럽다.

**21일.** 언신 등으로 하여금 나무를 베어다가 동쪽 울타리를 만들게 했다. 저녁에 비를 뿌리더니 밤에 이르러서는 크게 내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다.

**22일.** 보리를 뚜드렸으나 끝내지 못했다. 나는 아침부터 기운이 불편한데 필시 범한일 게다.

23일. 나는 어제부터 기운이 불편해서 밤새 뒤척이는데 속머리가 조금 아프고 사지가 풀리는 것 같으면서 음식이 달지 않아 종일 방에 누웠노라니 혹은 땀이 조금 나다가 또 많이 나기도 하여 감한한 것이 필경 더해지는 것 같으니 걱정스럽다. 보리를 뚜드려 끝냈는데 모두 5석이 났다. 중금의 밭을 병작하는 사람 옥동역자 이상이 피 1석, 콩 7두를 실어 왔다. 김업산의 매 먹일 것으로 닭 1마리를 잡아 주었다. 늦은 후에 비가 종일 내리다가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는다. 보리 5두를 아우에게 보냈다.

24일. 밤새 땀을 냈더니 저녁에는 차도가 있다. 덕노로 하여금 김치광을 만들게 했다.

25일. 현에서 사람이 양식을 싣고 왔다. 백미 5두 · 밭쌀 10두 · 꿀 4되 · 기름 1 되 · 소주 4병 · 방어 2마리 · 생망어 1마리 · 송어 1마리 · 광어 1마리를 가져왔다. 산돼지 머리 삶은 것도 역시 보냈다. 이는 곧 이은신이 북면에 갔다 올 때 사나운 범이 잡아먹는 것을 마침 빼앗아 왔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오래 되어 맛이 변했다 한다. 그러나 즉시 베어서 먹고 또 소주 1잔도 마셨다. 오래 못 먹던 나머지여서 맛이 변한 것을 모르겠다.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박춘이 절병 1행 담을 만들어 가지고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김언신 · 김담 등이 휴가를 얻어 영남에 가서 양곡을 운반했다. 언명이 경작하는 밭 조를 뚜드렸더니 모두 1석이 나고, 전일에는 팥 6두가 났다. 올 소출이 겨우 이것이니 한탄스럽다.

26일. 윤해의 처자가 전에 집에 갔다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다. 식사 후에 무료해서 아우와 뒤 정자에 올라가서 관망하다가 돌아왔다. 근일 날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아 매양 흐리고 비가 뿌리기 때문에 콩을 뚜드리지 못하고 밭가에 쌓아둔 지가 이미 오래되어 닭과 쥐에게 손실되는 것이 몹시 많다. 또 빗물에 젖어서 썩은 곳도역시 많으니 한스럽다.

27일. 김담이 현에서 돌아왔다. 전일에 휴가를 얻어 품값을 받고 영남의 운량국으로 가려 했더니 모두 이미 떠난 뒤여서 근대로 돌아온 것이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어사와 도사가 온다는 공문이 1시에 현에 도착했는데, 하인도 부족하고 맞아서 대접하는 것이 미흡한 점이 많겠으니 민망스럽다. 백미 1두를 보냈다. 매 그물 친곳에 닭이 걸린 것을 여우와 살쾡이가 머리를 잘라 갔으니 한스럽다.

28일. 비 내린 후에 바람이 크게 불어 내 새 방의 이엉을 말렸으니 한스럽다. 억수의 매는 먹지 않은 지가 오래여서 오늘 숲으로 날려 보냈으니 아깝다.

29일. 콩떡을 만들어 농사짓는 온 집안 노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밤새 큰 바람이불고 날씨가 몹시 차기에 물고기집을 꺼내서 고기를 잡게 했더니 두 곳에서 겨우 4, 5마리밖에 잡지 못했다. 필시 먼저 들어간 고기들은 빗물로 해서 모두 흩어져나간 것이리라.

### 11월

1일. 어제저녁에 현리가 문안차 왔는데 편지를 보니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매를 구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3, 4명이 넘는데 여기에 응할 수가 없어서 몹시 민망하다고 했다. 꿩 2마리를 보내왔다. 나는 어제 아침부터 기운이 불편하고 음식이 달지 않아 종일 방에 누워 있고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 걱정스럽다. 지난밤에 발이 흰 개가 저절로 죽었으니 불쌍하다. 지난 병신년에 임천에 있을 때 이웃 개의 새끼를 가져다가 기른 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 뜻밖에 죽었다. 다만 허리 밑을 움직이지 못했으니 반드시 남에게 맞아서 허리가 부러졌던 것이다. 애석한 일이다. 오늘은 곧 민시중의 회갑이다. 떡과 술을 가지고 왔는데 줄 물건이 없어 다만 대구 1마리를 주었다. 요새 바람이 몹시 매운데 나무가 없어서 방이 차니 걱정이다. 온집안 세 종으로 하여금 각각 소와 말을 가지고 지붕 해 일 풀을 베어 오게 했다. 새 집이 전일 미친바람 때문에 모두 건혔기 때문에 엮어서 덮으려는 것이다.

2일. 앞내의 물고기집은 인아가 친히 가서 보니 크고 작은 물고기 떼가 무리를 지어 가득히 들어갔으므로 오늘 아침에 잡으려 했더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모두 말하기를, 물가에 얼음이 얼어서 물고기가 모두 도로 나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혹은 의심하기를 지난밤에 사람들이 반드시 물고기 구멍에 그물을 치고 몰아내서 잡아갔다고 하니 몹시 아깝다. 윤겸이 가느다란 국수를 만들어 행담에 가득히 담아 사람을 시켜 지워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3일. 김담과 조인손과 손을 바꾸어 현에 들어갔는데, 이 때문에 인손은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떼를 엮어 집을 해 이었다. 곧 전일에 광풍에 말렸기 때문이다. 4일. 덕노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이 돼지 포 1쪽을 보냈다.

**5일.** 이기수의 밭 콩을 뚜드렸으나 끝내지 못했다. 먼저 6석 2두가 났는데 1석은 윤해의 집에 주어 말먹이로 쓰도록 했다.

6일. 어제 뚜드리다 끝내지 못한 콩을 다 두드렸더니 2석 10두가 났다. 어제 난 것과 합치면 모두 8석 12두인데 3두는 아우의 집에 주고, 또 온 집안 노비들에게 각각 2, 3되씩 나누어 주었다. 수일 이래로 찬바람이 몹시 맵고 서북풍이 또 크게 불어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데, 나무가 또 떨어졌으나 베어 올 새가 없이 방이 몹시 차가우니 걱정스럽다.

7일. 학수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이 산 여항어 10마리를 보냈기에 저녁 식사에 탕을 끓여 모두 함께 먹었다. 오래 먹지 못하던 나머지여서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인아가 소근전에 가서 중금의 밭콩 뚜드리는 것을 감독하고 수일 동안 머무르다가 올 것이다.

8일. 날씨가 몹시 맵고 서풍이 크게 부니 요새 추위가 지금 이르러 갑절이나 심하다.

9일. 현에서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며느리가 학질을 앓아 몹시 괴로워한다니 몹시 걱정스럽다. 생은어 3두름, 말린 여항어 15마리, 절인 전복 30개, 청주4병, 대구알 4개를 보내왔다. 즉시 술을 데우게 하여 아우와 함께 마시니 가슴이화평해져서 모진 추위를 막아 준다. 인아가 돌아왔는데 중금의 밭을 두드렸더니박은종의 것이 모두 콩 2석, 팥 6두로, 김현복의 것은 콩 중질 3두요, 염광필의 것은 콩 13두가 났다고 한다. 5두는 최 참봉의 집에 보내게 했다.

10일. 앞들에 관의 둔전 피를 뚜드렸더니 14두가 났기에 6두는 동쪽 집에 보냈다. 동쪽 집에 요새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끝내지 못한 피단 1바리는 남겨 두었다고 한다. 이 면에 사는 백성 전의형이란 자가 와서 보고 버섯 1꾀미와 꿀 두어 되를 가져왔다. 청할 일이 있어서이다. 이에 버섯만 받고 꿀은 물리쳤다. 처음엔 다 물리치려 했으나 받기를 간절히 청하므로 부득이 한 가지만 받아서 그 인정에 보답했다.

11일. 윤해의 종 춘기가 현에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집사람이 이달 초승부터 날마다 조금 아파서 학질인 것 같은데 비록 몹시 아프지는 않으나 날마다 식사 후에는 누워 앓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좀 덜하다. 이 때문에 음식이 달지 않아파리하고 피로한 것이 날로 심해가니 걱정스럽다. 저녁에 남매(남상문)의 집 종 덕룡이 안손과 함께 왔는데 말을 가지고 구제의 물건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다. 고성(남상문)의 편지를 보니 온 집안이 모두 무사하다고 했고, 또 송아지 1마리와 파리한 말 1필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키워서 보내라 했다. 그 집에는 우마는 많은데 콩도 없고 꼴도 없어서 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집에도 역시 소 2마리와 말이 1마리 있는데 여기에 또 두 소와 말을 더하면 역시 기르기 어렵겠다. 그러나 누이의 청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받아 기를 작정이다. 그에게 향비의 종기를 물었더니 아직 합창이 되지 않았고 나쁜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리며, 또종기 하나가 생겨 크기가 계란만 하고 빛이 붉으면서 쑤시고 아프면서 아직 곪지도 않아 증세가 가볍지 않다고 하니 걱정이다.

12일. 아침 식사 후에 앞내의 얼음 밑 물고기 떼가 얼음 밖의 얼지 않은 곳에 모여 있기에 먼저 그물 2개를 치고 얼음을 깨치고 몰았더니 물고기 떼가 놀라 달아나다가 그물에 걸려 2백여 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에서 빠져나간 것도 반이나 된다. 이 것은 곧 이웃에 사는 박언수가 지시한 바이다. 저녁때 탕을 만들어 같이 먹고, 또 쪼개서 절여 말려서 남매의 집에 보낼 작정이다. 40마리는 또 윤해의 집에 주었다.

13일.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며느리의 학질은 떨어졌다고 하니 기쁘다. 이달 양식을 실어 보냈는데 조미 5두 · 밭쌀 10두 · 피 2두 8되 · 벼 10두 · 꿩 2 마리를 보냈다. 다만 들으니 관의 창고도 다 비어졌다는데 다달이 양식 보내는 것이 이같이 많으니 반드시 남들의 말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에 더러운 이름이 남

게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집으로 해서 생길까 몹시 걱정이다. 그러나 달리 얻어먹을 길이 없어서 매양 여기에 이르니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한탄한들 무엇하라. 또 조보를 보니 조정에서는 풍랑이 또 일어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 서로 공격해서 흉적은 아직도 변방을 점령하고 있고, 중국 군사는 바야흐로 마주 보고 싸우기를 그치지 않아 민생이 몹시 괴롭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생각지 않고 가운데에서 또 고요하지 못한 흔단이 일어나고 있으니 때가 그런 것인가, 운명이 그런 것인가, 크게 탄식되는 것이 끝이 없다.

14일. 남매의 종 덕룡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이 콩 5두 · 잣 1두 · 석이 1두 · 말장 3두 · 꿀 2되를 보냈다. 관의 창고가 비어서 넉넉히 보내지 못한다고 한다. 아직 날릴 매가 없어서 꿩을 얻어 보내지 못한다고 하니 한스러우나 어찌하랴.

15일. 현의 문안인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전하는데, 오늘 도사가 옥동에 와서 자게되어 마땅히 모시고 와야겠어서 그길로 와서 근친한다고 한다. 남매의 종이 내일돌아간다 하므로 황태 5두 · 녹두 1두 · 목미 1두 5되 · 누룩 1장 · 감장 4사발 · 천어 50마리를 보냈다. 덕노가 현에 들어갔다가 그길로 통천에 가서 어물을 사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정목 1필 반을 주어 보내 이것으로 어물을 사게 했다. 저녁에 현의문안인이 왔는데 중계박 30알을 만들어 보내왔다. 제 어머니 병에 먹게 하기 위해서다.

16일. 무료해서 아우 및 두 아이와 함께 걸어서 대장간 쇠 녹이는 곳에 가서 구경한 뒤에 나는 홀로 먼저 돌아왔다. 채억복이 두부를 만들어 가져왔다. 밥을 대접해보냈다.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도사는 오늘 떠나갔고, 어사(유공진)는 내일 도착한다고 한다. 하여 와서 근친하지 못한다고 한다. 쇠고기 두어 덩이,양,부하 각각 조금씩 보내왔다. 제 어머니가 요새 한열이 왕래하는 증세를 앓아서음식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철원 촌집의 소 잡는 곳에서 얻어 보낸 것이다. 오래 먹지 못하던 나머지에 즉시 두 곳을 구워서 먹고 또 어머님께 드렸다.

17일. 소 2마리로 김억수의 밭 차조를 실어다가 뚜드렸더니 모두 1석 16두가 났다. 3두는 윤해의 집으로 보내고, 1두 5되는 아우의 집에 보냈다. 또 피 12두가 났다. 두 밭에서 난 것이 겨우 이것이니 한스럽다. 김업산이 매를 가지고 와서 보았는데

내일 마땅히 날려보겠다고 하므로 닭을 잡아 주었다.

18일. 춘금이가 휴가를 얻어 가지고 갔다. 어사 유공진이 이곳을 지나다가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묻고 날이 저물어서 찾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바로 평강으로 가는 데 길이 멀기 때문이다. 김업산의 매를 오늘 비로소 날렸는데 꿩을 잡지 못했다고 하니 한스럽다. 김언신 등이 전일에 경상도에 갔다가 오늘 저녁에 비로소 돌아왔다. 양곡 운반하는 일 때문이다.

**19일.** 업산의 매는 오늘 또 날려서 꿩 1마리를 잡았는데 이것도 매가 잡은 것이 아니요. 개가 물어서 잡은 것이라 한다.

20일. 업산의 매는 오늘 또 날려서 꿩 1마리를 잡아다가 바친다. 저녁에 현의 문안 인이 왔는데 약밥을 만들어 보냈다. 제 어머니 병중에 먹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편에 들으니 도사가 이천 북면으로부터 그 일가 전 면천태수 이원을 찾아 본 뒤에이 현으로 온다고 한다. 근일에 사신들이 겹쳐 오니, 피차에 분주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윤겸은 이 때문에 즉시 와서 근친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 들으니 관에서 기르던 매 2마리를 하루에 모두 잃었다고하니 아깝다. 이는 모두 하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길들이고 익히는 일을 삼가하지 않아서 매양 잃는 것이니, 비록 잃거나 죽어도 별로 책망이나 벌이 없기 때문이니 한스럽다.

21일. 집사람은 지난달 그믐께로부터 기운이 불편하여 처음에는 학질과 같더니 사실은 학질이 아니고, 날마다 미한이 나고 점점 아픈데, 비록 크게 아픈 것은 아니고 원기가 없어 피로해서 식욕이 전혀 없으니, 만일 딴 병이 생긴다면 말할 수가 없으니 걱정스럽다.

22일. 수일 이래로 추위가 극도로 심하여 방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옷이 얇은 계집종들이 조석으로 밥을 짓기에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니 차마 볼 수가 없다. 윤겸이 와서 근친했다. 오래 못 보던 나머지에 온 집안이 방 안에 둘러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백미 5두·중미 1두·꿀 5되·청주 1병 및 그 어머니가 먹을 중박계·잣떡·모주 등을 가지고 왔다. 업산의 매가 꿩 1마리를 잡아 왔다.

23일. 윤겸이 머물러 있었다. 김명세·김린 등이 와 보았다. 이웃에 사는 박언수가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 큰 놈 1마리, 작은 놈 7, 8마리를 잡아 왔다. 큰 놈은 거의 1자가 넘는데 집사람의 병중에 즉시 탕을 끓여 먹게 했다. 동촌에 사는 사람 현의형이 참버섯 1꼬치를 가져왔는데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제사 때 쓰련다. 몹시 기쁘다. 춘금이가 휴가를 얻어 가지고 갔다가 비로소 돌아왔다. 날씨가 몹시 추워서 매를 날리지 못했다.

24일. 윤겸이 현으로 돌아갔다. 일기가 몹시 찬데 어떻게 가는지 걱정스럽다. 안협에 사는 사노 중석이란 자가 전에 박언수가 쳐 놓은 매 그물에 1자가 되는 매가 걸린 것을 먼저 보고 훔쳐갔으므로 언수가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서 날더러 받아쓰라고 하므로 윤겸으로 하여금 안협태수에게 편지를 하여 찾아 보내라고 했더니 어제 8치가 되는 작은 매를 가져왔다. 그 큰 매는 이미 팔았다는 것이다. 까닭에 처음에는 물리치려 했으나 이것도 역시 공것이어서 그대로 받아서 언수에게 주어서 길들여 꿩을 잡아 나누자고 했다. 그저께 밤에 최 참봉(최형록)이 있는 집에불이 나서 겨우 끄기는 했으나 반이나 타고 다만 자는 방에까지만 연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괴로운 추위에 또 이 같은 걱정을 당했는데, 최 참봉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으니 그 집의 간구한 것을 어찌 다 말하라. 윤해가 아우와 함께 걸어가서 찾아보고 백미 5되, 간장 1사발을 보냈다. 우리 집도 역시 군색하여 일일이급한 일을 돕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라. 전일에 콩 5두도 또한 보냈었다. 업산의 매는 꿩을 잡지 못한다. 내일이 동지 차례인데 찬으로 쓸 것이 없으니 몹시 한스럽다.

25일. 동지이다. 팥죽ㆍ저민 고기ㆍ생선구이ㆍ막걸리로 차례를 지냈다. 덕노가 만일 왔으면 오늘 시사를 지내려 했었는데 지내지 못하니 한스럽다. 덕노로 하여금 어물을 사 가지고 오게 했기 때문이다. 김담이 휴가를 얻어 가지고 갔다. 김현복이 병작한 콩을 실어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15두이다.

26일. 이른 아침에 인아가 우연히 냇가에 나갔다가 마침 수달이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물을 치고 불을 놓았더니 나온 것을 몽둥이로 때려잡았으니다행하다. 김억수가 현에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 주어서 매를 받아 가지고 오게 했다. 김언신이 남매의 집 말을 가지고 적의 군량을 싣고 고성에 가서 말 값을 받아

가지고 어물을 사 가지고 돌아왔다. 직동에 사는 백성이 그 매로 잡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최 참봉이 어제저녁에 돌아와서 먼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서 문안했기에 즉시 답장을 해서 사례했다.

27일. 김업산의 매가 어제 잡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요새 날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가져왔다고 한다. 집사람이 수일 이래로부터 증세가 좀 덜하고 음식도 더 드니 기쁘다. 14일부터 익위승양탕 4첩을 연복해 왔다.

28일. 수일 이래로 내가 또한 거듭 풍한에 걸려, 지금은 콧물이 흘러 끊어지지 않고 속머리가 또 아프고 기침까지도 그치지 않으니 민망스럽다. 저녁에 억수가 매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매를 보니 깃과 꼬리가 절반이나 부러져서 형체는 비록 9치이나 만족하지 못한 곳이 많으니 오래지 않아 병이 날까 두렵다. 그러나 아직 길들여 보라고 했다. 조기 4묶음, 생문어 6조각을 보내왔다. 시사에 쓰련다. 29일. 업산의 매가 잡은 꿩 1마리를 가져왔는데 다리 하나를 떼어서 매에게 먹였다한다. 저녁에 덕노가 비로소 돌아왔는데, 사온 어물이 뜻에 만족치 못하다. 포목 1필 반으로 말린 은어 4동을 바꿨는데 통천에서는 마침 나지 않기 때문에 고성에서 샀다고 한다. 통천태수가 보낸 생문어 3조각·생대구 1마리・말린 대구 2마리・말린 문어 1마리・건은어 20묶음・생전복 60개・식힌 전복 10개를 가져왔는데 이는 윤겸이 편지를 해서 얻은 것으로서, 어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겨우 이것뿐이라

그믐날. 윤해의 처남 최정운이 와서 보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남쪽 시골에서 비로소 돌아와서 자세히 남쪽 지방의 일을 말하는데 역력히 들을 만하니 의심컨대사실이 아닌 것 같다.

#### 12월

하다

2일. 이시증이 어제 들어와서 서로 만나니 온 집안의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라. 함경도의 노비에게서 추심할 일로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온다고 한다. 서로 회포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업산의 매가 꿩 11마리를 잡아 왔는데 시사 때 쓰련다.

3일, 시증은 그대로 머물렀다. 조인손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벼 16두·소금 1두· 정포 1필을 보내왔다. 또 저녁에 현리가 들어왔는데 내일 시제에 쓸 삼색 실과 · 가 는 국수 1행담 · 꿀 4되 · 맑은 기름 11되 · 말린 항어 3마리 · 육촉 1쌍 · 큰 노루 1 마리를, 털은 벗기고 전체를 보내왔다. 내일 시제에 쓸 것이니 기쁘다. 온 집안 상 하가 제물을 준비했다. 다만 눈이 내린 뒤에 일기가 몹시 찬데 옷이 얇은 계집종들 이 추위를 참고 일을 하고 있으니 불쌍하다. 또 들으니 이장성(이귀)이 첩을 데리 고 현에 와서 그 첩을 윤겸의 첩이 거처하는 곳에 같이 있게 했다 한다. 그의 첩과 아주 가까운 친족 사이이기 때문이다. 옥여(이귀)는 그길로 회양으로 가면서 돌아 올 때 들러 찾겠노라고 편지를 보내왔다. 또 들으니 청나라 적이 그들의 소굴을 불 태우고 온 군사가 바다를 건너가서 마 제독이 그 굴에 들어가 거처하고. 임금이 백 관을 거느리고 군문에게 칭하했다고 한다. 순천의 적(고니시 유키나가)도 또한 나 갈 때 진 유격이 우리 수군과 힘을 합해 싸워서 크게 이겨 적은 돌아서 바다를 건 너갔다고 한다. 그 중간의 곡절은 비록 자세히 들을 수가 없으나 조보에 난 것이니 필시 헛말은 아닐 것이다. 한 나라의 경사가 어떠하다 하랴. 다만 흉적의 간사한 꾀를 헤아리기 어려운데 무단히 갔다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다음 날 에 어찌 꼭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으랴. 다만 들으니 이순신이 탄 환을 맞고 죽었다 하니 국가의 불행함을 어찌 다 말하랴.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4일. 닭이 세 번 울었을 때 아우 및 인아와 제사를 지냈다. 먼저 아버님께 지내고. 다음으로 죽전 숙부 내외분께 지내고, 끝으로 죽은 딸에게 지냈다. 추운 기운이 몹시 매워서 간신히 지냈다. 사색 육탕 · 오색 고기와 생선구이 · 포 · 식혜 · 면 · 떡ㆍ반상 여러 가지로 지냈다. 제사 후에 최 참봉 부자를 청해서 남은 음식을 대접 하고, 또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과 떡을 대접했다. 늦은 후에 눈이 내 려 거의 3, 4치나 쌓였다. 언신은 필시 눈이 추령을 막아서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 이니 몹시 걱정스럽다. 시증은 2일을 머무르다가 오늘 아침에 현으로 돌아갔는데 그길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줄 물건이 없어서 콩 2두 · 목미 2두 · 꿩 1마리를 형수 께 나누어 보내고, 또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와 생선구이 10여 곶을 싸 주었다. 6일. 현의 문안인이 와서 편지를 보니 흉적들은 이미 모두 바다를 건너갔기 때문 에 임금이 칭하하고 종묘에 고하고 대사했다 한다. 또 심양덕 열이 매를 얻을 일로 사람을 보냈기에 온 편지를 보니 온 집안이 잘 있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방어 1마리, 생문어 1마리, 생전복 50개를 보내고 어머님께도 역시 방어 1마리를 보냈다. 다만 1마리는 중로에서 잃었다 하여 마른 문어 1마리로 대신 보냈기 때문에 어머님께 보낸 방어를 반을 나누어 쓰고 생전복도 역시 드리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수가 없다. 양덕의 종은 병을 칭탁하고 현에 머물러 오지 않고 현의 사람에게 보냈으니 밉살스럽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윤겸도 역시 생눌어 1마리・절인연어 반 마리・참새 5마리・잣떡 조금을 보냈다. 다만 양덕이 구하는 매는 구해보내지 못하고 온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냈다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언명 및 윤해의 집에도 역시 방어 1마리를 보내어 나누어 먹도록 했다.

7일. 김업산이 꿩 1마리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작은 매가 어제는 먹지 않더니 오늘은 또 먹는 것이 더디니 필시 무슨 중세가 있는 것이란다. 수 3일 동안 패에 앉아 있으니 그 중세가 어떠한지 보아야겠다고 한다. 윤겸은 오늘 와서 근친한다고 하더니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윤함이 연일 아이들의 꿈에 뵌다고 하니 필시 근일에 올 것인가. 전해에 와서 근친한 것도 역시 6일이었다고 온 집 안이 고대한다. 억수의 매는 오늘 비로소 날렸는데 성질이 몹시 불순해서 거의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도로 잡았다니 탄식스럽다. 이제부터는 홰에 앉아 있게 하여살이 찌기를 기다려 파는 것이 양책이라 한다. 저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도록 말해보냈다. 집에 매를 길들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남의 힘을 빌려서 하자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매양 이와 같으니 참으로 탄식스럽다.

8일. 최진운 형제가 와 보았는데 마침 대접할 것이 없어 그대로 보냈으니 한스럽다.

9일. 덕노가 서울에 가는데 말린 은어 4동을 싣고 가서 서울 근처 장에 팔아가지고 세전에 돌아오도록 했다. 남매의 집에 편지를 보내고 또 꿩 1마리를 보내고, 광노에게도 역시 황태 1두름을 보냈다. 전일에 큰 눈이 내려 반드시 추령이 막혀서 언신은 필시 속히 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오고 가는 것이 늦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남매의 집 말을 가지고 가서 그것 때문에 깊이 걱정스럽다. 중금의 밭을 병작한 박

인종이 콩 2석을 실어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1석 3두이다. 관에 바칠 둔전의 조 5 두, 피 5두도 가져왔다. 이는 곧 관의 명령이다. 김업산의 매를 오늘 처음 날려서 꿩 1마리를 잡아 왔다. 저녁에 윤해의 종 안손이 왔는데 전일 수공의 일로 안변에 갔다가 아제 비로소 돌아온 것이다. 갈 때 쌀 1두를 보냈더니 말린 은어 10마리를 사 가지고 왔다.

**10일.** 최 참봉이 사람을 보내서 청하기에 식사 후에 윤해와 같이 갔더니 곧 그 부인의 생일이어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웃에 사는 한가한 잡인들이 모두 모여서취하고 배불러서 돌아갔다.

11일. 이토산 경운이 편지를 보내서 문안하고 또 말하기를, 그 집 종이 이 현에 사는 자가 갇혔다고 답장을 달라고 했으므로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이는 안협 땅에 가 있다.

12일. 김언신이 군량을 운반하러 고성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포목 3 곳을 가지고 말린 은어 2동, 미역 4동을 사 가지고 왔다. 어물이 몹시 귀해서 많이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말린 대구 2마리를 더 받아 가지고 왔다. 처음 생각에는 7, 8동은 받을 것이라 했더니 물건이 귀하다는 핑계로 바꾼 것이 이에 이르니 그 간의 일은 비록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대체로 우리 집일이 매양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전일 덕노의 일도 역시 여전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라. 그러나 이것으로 팔을 바꾸어 쓸 작정이다. 어머님께 은어 3묶음, 미역 1꼭지를 올렸다. 아우의 집에도 역시 이 수대로 주었다. 저녁에 윤겸이 왔는데 이장성이현에 오래 머무는 까닭에 와서 근친하지 못하다가 어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온 것이라 한다. 백미 3두, 중미 3두, 참기름 1되, 꿩 2마리, 쇠고기 및 내장여러 가지를 조금씩 가져왔다. 오래 먹지 못하다가 즉시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와 같이 먹었다. 다만 집사람은 근일에 도로 먼저 증세를 얻어 음식을 전혀들지 못하고 종일 신유하니 걱정스럽다.

13일. 윤겸은 머물러 있었다. 저녁에 오충일 형제가 왔다. 일찍이 뜻밖이니 위로되고 기쁜 것을 어찌 다 말하랴.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양구 땅에 있는데 어제 현에 왔다가 그길로 와서 보는 것이라고 한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줄지 걱

정이다.

14일. 윤겸이 오늘 현으로 돌아가려 했더니 어제저녁에 뜻밖에 사람이 쫓아와서 안협태수가 파직되어 봉고차원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일찍 식사를 마친 뒤에 안 협으로 달려가서 봉고한 뒤에 돌아오니 밤이 이미 깊어서 횃불을 밝혀가지고 왔 다. 오충일 형제는 그대로 머물렀다.

15일. 윤겸이 현으로 돌아가는데 충일도 역시 따라갔다. 집에 줄 물건이 없어서 겨우 황태 1두 삼 6묶음을 그 어머니께 보냈다. 생각하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줄 알았을 것이니 필시 분노했을 것이나 형세가 이러한 것을 어찌하랴. 탄식할 뿐이다.

16일. 윤해의 종 안손이 현에서 돌아왔기에 조보를 보니 흉적은 이미 다 바다를 건너갔는데, 중국 수군과 우리 수군이 뒤쫓아 가서 쳐서 많은 수를 베었다 한다. 그러나 통제사 이순신은 탄환에 맞아 죽었고, 수령 및 첨사·만호 죽은 자가 10여 명에 이르렀으니 군졸이 죽은 자는 반드시 많을 것이다. 탄식할 일이다. 중국 장수등 총병 자룡도 역시 탄환을 맞고 죽었다 한다. 이순신은 우의정에 증직되었다. 난이 일어난 처음부터 호남의 보장이 되었는데 이제 적의 탄환에 죽었으니 애석하다. 흥적이 와서 소굴을 이룬 지 7년 만에 이제 비로소 돌아가는데 장수 1명도 베지 못하고 우리 장사가 죽은 자는 전후에 그 수를 알 수가 없으니 그 통분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조정에서는 바야흐로 적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고묘하고 진하하여 하지 않는 일이 없으나 남조(南朝)의 사람이 없는 탄식은 유독 송나라에서만 본 것이 아니다. 세자가 원자를 탄생시켰다 하니 한 나라의 경사가 어떠하겠는가. 역시 고묘하고 대사한다고 한다.

17일. 이 면의 백성이 현에 들어갔다가 올 때 윤겸이 이달 양식으로 쌀 1석을 실어보냈다. 조련의 밭 콩을 두드렸더니 적태 1석·수정태 9두·소태 3두 5되가 났다. 그중에서 5두는 아우의 집에 주었다. 전일 그 집 콩으로 소를 먹였기 때문에 이제비로소 갚는 것이다. 김업산이 꿩 1마리를 잡아 가져왔다. 즉시 윤해의 집에 주었다. 모레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다.

18일. 옥동 역자 이상이 녹두 2두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하고 또 미역 조금을 주

었다. 철원에 사는 전 권관 박성주가 와서 보았는데, 마침 일이 있어 김억수의 집에 갔다가 와서 본 것이다.

19일. 직동에 사는 사람들이 곰을 잡아먹고서 가죽과 쓸개를 가져왔다. 관가에서 알면 벌을 받고 값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기와 기름 조금도 역시 가져왔다. 집에 술이 없어 대접하지 못하고, 다만 밥쌀 2되와 새로 만든 화살 4개를 주어 보냈다. 밥을 지어 주려 했으나 바쁘다고 사양하기 때문에 쌀을 주고 화살을 상으로준 것이다. 또 조련의 밭 팥을 두드렸더니 2석 3두가 났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왔는데 편지를 보니 이천에 와 있는 이 찰방 빈이 상처를 해서 내일 사람과 말을보내서 상수를 구해 간다고 한다. 빈의 부인은 여러 해 오래된 병으로 인사를 차리지 못한 지가 오래이니 이제 간 것은 괴상할 것이 없다. 다만 그 자제들이 곤궁하던 나머지에 또 큰 변을 당해서 분주하면서 운다고 하니 몹시 슬프고 불쌍하다. 윤경이 마침 방어 1마리 · 대구알 · 송어알 조금 및 쇠머리 삶은 것 반 짝을 얻어 보냈는데 술 1병도 역시 보내왔다. 즉시 아우와 함께 고기를 베어 먹고 또 술 1잔을 마시니 쾌하다.

20일. 어젯밤 꿈에 임경흡을 보니 완연히 평일과 같다. 깨고 나니 면목이 의연하니 비창한 회포를 금할 수가 없다. 처자들에게 말하고 나서 저절로 눈물을 흘리니 슬프다. 전에 심열의 편지로 인해서 들으니 임현이 내 누이를 데리러 영암으로 간다고 하더니 생각건대 이미 떠난 것인가. 다만 흉적이 이미 모두 바다를 건넜다 하니 3년 안에는 반드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김언신이 내일 서울에 가기 때문에 와서 인사하기에 곰의 가죽을 광노에게 보내서 팔아 보내도록 했다. 또 은어 1동을 역시 보내서 포목으로 바꿔 오도록 했다. 인아가 얻은 수달의 가죽도 역시 광노에게 보내서 팔아 보내도록 일렀다. 또 패자도 만들어 보냈다.

21일. 전에 이 마을 사람들 10여 명이 뒷산에서 돼지를 잡는다고 내 활과 화살을 빌려가더니 큰 돼지를 잡아서 남몰래 나누어 먹고 1점도 가져오지 않으며, 심지어 김담까지도 같이 가서 나누어 먹으면서 숨기기를 몹시 비밀히 하니 몹시 밉살스럽다. 그러나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저들이 내가 아는 것을 먼저 알고 변명의 말을 많이 하니 가소롭다. 어제 곰 가죽에 붙은 기름을 칼로 긁어서 달

았더니 거의 4, 5되나 된다.

22일. 어젯밤에 비가 내리더니 새벽까지 그치지 않아 쌓였던 눈이 다 녹고 따뜻하기가 2, 3월과 같다. 그러나 만일 이대로 눈이 내리지 않고 언다면 보리가 모두 말라 죽을 것이니 걱정스럽다. 김억수가 가진 매를 철원의 품관이 사 가고자 하므로오송포 2필과 포목 1필을 받고 주어 보냈다. 날리지도 않고 홰에 앉혀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비록 많이 받지는 못했어도 그대로 팔도록 했다. 다만 포목은 거칠고 짧으니 한스럽다. 윤해가 글을 읽으러 부석사로 올라갔다. 나도 내일 역시 올라가려고 일찍이 최 참봉ㆍ김명세와 두부를 해먹기로 약속을 했다. 윤해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서 그 말이 발을 전다고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23일, 눈이 내린다. 이미 두 최(崔) · 두 김과 부석사에 모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우와 함께 눈을 무릅쓰고 갔다. 다만 윤해는 말이 절어서 같이 오지 못했으니 탄 식스럽다. 언명은 이 길로 서울에 가는데. 제물은 관에서 마련해 보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각색 좌반 주금과 은어, 식혜를 가지고 갔다. 바람과 눈이 종일 그치지 않는다. 갈 때 최 참봉 및 두 김을 부르고, 나는 먼저 부석사로 올라가려니 꼬불꼬불한 눈길에 간신히 가서 앉았노라니 조금 있다가 최 참봉이 그 두 아들 및 두 김과 함께 뒤따라와서 서로 큰 방에 모여 앉아 있었다. 절에서 중이 막걸리를 내왔는데, 이는 곧 전일에 두 김을 보내서 미리 절에 빚어 두도록 한 것이다. 각각 두어 잔씩 마시고 파했다. 윤겸이 내가 절에 와서 논다는 말을 듣고 또한 꿩 1마리 와 생전복 20개를 보냈다. 또 아중으로 하여금 안주 2행담을 준비해 보냈는데, 하 나는 삶은 소의 내장이요. 하나는 각색 썬 고기이다. 윤겸의 첩도 또한 썬 고기 1 행담을 마련해 보냈다. 생전복은 언명에게 주어 제사에 쓰게 했다. 관에 술이 없어 보내지 못하고, 다만 안주만 준비해 보냈다 한다. 또 사람을 이천태수에게 보내어 편지로 술을 얻었는데 내일 마땅히 올 것이라 한다. 저녁에 중이 두부를 만들어 내 왔는데 두부 맛이 시고 단단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배가 몹시 고파서 20여 곶을 먹고 함께 동상실에서 잤다.

24일. 이른 아침에 절의 중이 국수를 만들어 먼저 내놓고 늦은 후에 두부를 만들어 내왔는데, 이번에는 연하고 맛이 좋아서 26곶을 먹었다. 중이 또 탁주도 내왔

는데, 전일에 이천태수가 사람을 보내어 술 2병을 보내 온 것이다. 먼 길에 사람을 보내면서 겨우 이것을 보냈으니 이천태수의 손이 적은 것을 가히 알겠다. 각각 1 잔씩 마시고 병이 바닥이 났으니 가소롭다. 게젓 20개를 역시 보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가지고 가서 어머님께 드릴 작정이다. 언명은 먼저 떠나가고 최경수와 김명세는 바둑을 두다가 한참 만에 파했다. 중이 또 탁주와 두부를 내와서 취하고 배부른 후에 헤어져서 고삐를 나란히 하여 돌아왔다. 최와 두 김은 먼저 그 집으로 들어가고 나는 다만 종 하나만 데리고 달려오니 해가 이미 어두웠다. 올 때 먼저 보냈던 고양이를 안고 왔다. 집안에 고양이가 없어서 낮쥐가 곡식을 먹기 때문이다. 지난봄에 닭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고양이를 부석사에 보냈다가 이제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25일. 집사람은 그저께부터 기운이 도로 불편하니 걱정이다. 김언신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서울로 가다가 연천 땅에 이르러 눈으로 인하여 길이 험해서 소가 가지 못해서 서울로 가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중로에서 마침 서울 상인을 만나서 가지고 가던 곰의 가죽을 중목 4필을 받고 팔았다 한다. 필시 이렇지는 않을 것인데 이 역시 공으로 얻은 물건이니, 비록 광노로 하여금 팔게 했어도 반드시 값을 다 받아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가지고 간 은어는 팔지 않고 도로 가져왔다. 세후가되어 필시 값이 적어 팔 수가 없을 것이다. 가까운 고을에서 일찍이 어사의 군량으로 샀던 은어가 많이 민간에 흩어졌기 때문에 역시 이곳에서는 팔 수 없어 형세가장차 그대로 버리게 되었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26일. 찬 기운이 갑절이나 더하다. 저녁에 집사람의 기운이 몹시 불편하더니 밤에 이르자 더욱 심하여 양쪽 귀 밑이 쑤시고 아프며 오른쪽 갈빗대도 역시 아파서 호흡할 때 문득 서로 결려서 참을 수가 없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구토가 그치지 않아 등불을 밝히고 밤을 새다가 날이 밝을 무렵에야 좀 덜하나 깔고 앉아 눈을 감고 음식을 전혀 들지 못한다. 어찌할 바를 몰라 사람을 시켜 현에 보내어 윤겸에게 알려 달려오도록 했다. 겨울 초로부터 원기가 크게 없어져서 혹 눕기도 하고 혹 일어나기도 하더니 어제저녁에 이르러 위태롭고 괴로워하여 이에 이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27일. 집사람의 증세는 아침에는 좀 소복되어 머리 아프고 겨드랑이 아픈 것은 비록 어젯밤과 같지는 않으나 아직도 쾌히 차도가 없고 기운이 없는 것이 갑절이나 심하여 종일 눈을 감고 뜨지 않으며 음식을 몹시 싫어하여 종일 마신 것이 겨우 죽물 반 그릇 뿐이니 걱정스럽다.

28일. 집사람의 증세는 지난밤에는 전날과 같더니 아침에는 나은 것 같다. 그러나음식을 싫어하는 것은 여전하다. 김업산이 꿩 1마리를 가져왔다. 못 잡는다고 핑계 대고 20여 일 만에 이제 비로소 꿩 1마리를 가져왔으니 밉살스럽지만 어찌하랴. 지난밤 꿈에 임경흠이 보인다. 한 달 안에 두 번이나 꿈에 보이니 슬프다. 오후에 윤겸이 달려 왔다. 제 어머니가 병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들으니언명은 지난 26일에 떠나갔으며 제물은 일일이 준비해 보냈다고 한다. 김언신은일수에서 제명하여 관안을 정했다고 차첩을 가지고 왔으니 기쁘다. 여러 해 동안사환으로 부려서 정의가 두텁기 때문에 비록 사세가 몹시 어려워도 억지로 청해서제명하게 한 것이다. 윤겸이올 때 중미 20두 · 밭쌀 5두 · 잣 3두 · 개암 1두 · 법유3되 · 참기름 2되 · 누룩 2장 · 꿩 7마리 · 꿀 5되 · 술 1병을 가지고 왔다.

29일. 집사람의 증세는 점점 차도가 있으니 몹시 기쁘다. 현으로부터 국수와 떡을 만들고 마른 문어 1마리, 대구알 2쪽을 가져왔다. 세모가 이미 박두했는데 병으로 인해서 정조의 아침 제구를 준비할 수 없겠으므로 윤겸이 시켜서 준비해 가져온 것이다.

그믐날. 집사람의 증세는 더욱 차도가 있어 죽과 미음을 계속해 마시고, 기운이 나른한 것도 역시 감했으나 다만 아직도 평상시와는 같지 못하다. 현으로부터 꿩 4 마리, 말린 은어 20두름을 가져왔다. 내일이 설날인데 집사람의 병으로 인하여 상하가 아무 마음도 없더니 지금은 증세가 소복되어 가니 이 때문에 온 집안의 기쁨을 말할 수 없다. 최 판관이 글을 보내 물었다. 윤해의 종 춘기가 서울에서 어제왔기에 덕노가 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광노의 집에서 들으니 덕노가 처음 서울에 갈 때 가지고 가던 은어를 중국 군사에게 많이 빼앗겼고, 또 서울 시장에서 팔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경기 지방 시장으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덕노의 일은 매양 이와 같으니 비록 탄식하나 무엇하랴. 집에 사환

이 없어 겨우 이 종만을 부렸는데, 누구의 허물인가. 금년에 중금의 밭에서 난 것은 기장 · 피 · 조 합쳐서 모두 2석 16두 4되 · 녹두 7두 5되 · 보리 13두 5되 · 팥 1석 9두 1되 · 콩 6석 4두 5되로서 도합 상하 11석 11두이다. 콩은 17석 11두 · 팥 9석 9두 · 보리 5석 · 팥 8두 · 깨 18두 · 차조 1석 16두 · 피 8석 8두 5되 · 조 11석 1두로서 도합 52석 12두 5되이다. 금년에 우리 집에서 경작한 것과 중금의 밭 소출을 합치면 모두 60석 2두 5되이다. 이자미의 첩은 전일에 들으니 비록 난리를 만났는데도 절개를 지키고 시집가지 않았으니 몹시 갸륵하다. 그 뒤에 서울에 와서들으니 옛 마을 근처에 살고 있다기에 향비를 보내서 물었더니 저도 역시 와서 보기에 몸이 종신토록 그 뜻을 변치 않으려니 했다. 그러나 그 뒤 수년 전에 잘못 광노에게 시집갔는데 그 수일 후에 광노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 집에서도 역시이를 알고 광노로 하여금 즉시 내보내게 했었다. 그 뒤에 광노는 또 딴 사람을 얻었더니 그는 친히 집에 찾아와서 질투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사람의 부끄러움 없는 것이 이에 이르는가. 만일 그때에 문득 죽었으면 그 종말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란 반드시 끝을 보아야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드디어 끊고 왕래하지 않으니 또한 개가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 서해문(誓海文)

이 〈서해문〉은 곧 황사숙(황신(黃愼))이 사신으로 일본에 갈 때 배로 나고야(名古屋)에 이르렀을 때 바람을 만나 거의 뒤집힐 때 글을 지어 바다에 던진 것이다.

표범과 범이 있는 숲 속에서 이미 2년의 절개를 지켰고, 교룡과 용이 있는 굴 위에서 또 8월의 배를 탔다. 몸을 버리는 이 날에 머리를 조아려 스스로 맹세한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난리가 나는 때를 만나서 나라를 위해 달려가노라니 비록 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일찍이 맛보았다. 그러나 고을의 오랑캐를 내버려둘 수 있는가. 붉은 충성이 투철하지 못한 것을 머리 조아리니, 하늘에 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4천 리 가는 길에 어찌 감히 터럭만큼이라도 수고로움을 꺼릴 것이며, 30년 동안의 공부가 마땅히 오늘날 힘을 얻었다. 돌이켜보건대 왕사를 위한 일이니, 또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한 신하로서의 직책에 당연한 일이다. 바로 바람에 돛을 걸고 멀리 일본 땅을 가리 킨다. 진실로 사직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또 사양하 지 않을 것이요, 만일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고 몸을 잃는 일이라면 살아서 또한 무엇이 유익하리오. 엎드려 바라건대 신령스러운 성인께서는 조그만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시옵소서. 하늘이 아심이 있거든 혹 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신께서는 이 몸을 죄주시옵소서.

하늘은 나를 덮어주고 땅은 나를 실어 주었으니, 천지가 나를 낳은 것이 뜻이 있는 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끊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패를 울리면서 황제의 서울에 놀리. 어찌 귀하지도 못하고 다시 가지도 못하고서, 부질없이 파리한 한 장부가 되었는가. -이필(李泌)

신축년에 비변사의 환상곡 쌀 1석을 세 집이 나누어 먹은 것을 아직 갚지 못했는데, 그 후에이 책을 상고해 보니 모두 3두 5되를 더 보탰고, 기장은 홀로 남택에서 나왔으니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수찬 오윤겸 이름으로 소미 8두 4되 5홉. 전 군수 남상문 이름으로 소미 8두 4되 5홉, 기장 11두. 유학(幼學) 오희철 소미 8두 4되 5홉, 콩 5 두 5되. 당초에 내 아우의 이름으로 받아다가 세 집이 각각 5두씩 나누어 쓴 것인데, 윤겸이 전혀 말하지 않았으니, 다음날 만일 바치라고 독촉하면 이로써 바치면 된다.



### 기해일록 | 己亥日錄

## 정월

- 1일. 밝을 녘에 차례를 지냈다. 다만 집사람이 지난밤에 다시 먼저 증세를 앓아 새 벽까지 신음하는데 혼미한 것이 전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눈도 뜨지 못하고 죽과 미음도 마시지 못하니 몹시 민망하다. 수일 전에는 점차 차도가 있어서 온 집안이 기뻐했더니 오늘은 또 이와 같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이 때문에 이웃 마을에서 보러 온 사람들을 자연 도로 보내어 술도 대접하지 못했다. 올 태세는 곧 기해이니나의 환갑이다. 인생이 얼마나 사는가. 앞길이 멀지 않으니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물며 또 집사람의 병세가 위태로워 생사를 알 수 없으니 40여년 동안 같이 늙은 내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더욱 몹시 슬프고 탄식스러운 일이다. 안협 사람 연수가 와서 보고 배 10개를 가져왔다.
- 2일. 집사람의 증세는 새벽부터 비로소 소복되어 가서 아침에는 눈을 뜨고 말도 하고 죽물도 거의 반 그릇이나 마시니 기쁘기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병의 왕래가 무상하니 이것이 민망스럽다. 이로 인해 윤겸은 이른 아침에 현으로 돌아가서 관청일을 처리하고 위에 글을 올린 뒤에 모레 돌아와서 오래 있을 계획이다. 또 이은신을 서울에 보내어 병의 증세를 물어보고 약재를 사 가지고 오게 할 계획이다. 김 명세, 김린, 김애일이 와 보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최진운 4형제가 역시찾아와서 병을 묻고 돌아갔다. 부석사의 중 법희 등 4인이 찾아왔기에 역시 술을 대접해 보냈다.
- 3일. 집사람의 증세는 별로 가감이 없이 어제와 같다. 다만 병의 진퇴가 일정치 않으니 어찌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라. 윤겸이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또 먹을 것을 보냈다. 오늘 관청 일을 처리하고 모레 오겠다고 한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아침에 이 찰방 빈이 이천에서 찾아와서 유숙했다.
- 4일. 지난밤에 눈이 두어 치나 내렸다. 집사람의 증세는 새벽부터 도로 불편해서 구역질을 자주 하여 미음도 가끔 들어 원기가 날로 없어지니 끝내 어찌될 것인지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윤겸은 한낮이 되지 못하여 달려왔다. 관청 일을 처리하고

병장을 올린 후에 왔다고 한다. 백미 5두·중미 5두·찹쌀 2두·밀가루 2두·누룩 1동·대구 5마리·문어 1마리·생전복 50개·꿀 5되·법유 3되·해삼 3되·절인 연어 1마리 등을 가져왔다. 어물은 곧 통천태수가 보낸 것이다.

5일. 곧 집사람의 생일이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 윤겸으로 하여금 반찬을 준비해 오지 말라고 했다. 증세는 별로 가감이 없으나 다만 구역의 증세가 감하지 않아음식을 싫어하니 민망스럽다. 김언신을 해주 윤함의 집으로 보내어 대구 2마리ㆍ꿀 2되ㆍ잣 1두ㆍ은어 5묶음ㆍ포도 정과 조금을 보냈다. 정과는 윤함이 먹고자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가을부터 두고 기다리다가 이제 가는 사람 편에 보낸 것이다. 이빈이 이천으로 돌아가는데 줄 물건이 없어 집사람이 잣 3되ㆍ감장 2사발ㆍ목미 3되를 주었고, 윤겸이 또한 찹쌀ㆍ콩ㆍ감장 등 물건을 주도록 종을 시켜 현에서 받아 가게 했다. 어두운 뒤에 언명이 돌아왔다. 중로에 집사람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묘제는 무사히 지냈다고 한다. 덕노도 오늘 같이 왔는데, 정목 1필 반을 먼저 가져왔고, 또 쌀을 사서 광노의 집에 두었고 후일 서울에가서 역시 2필 반을 가져오겠다고 한다. 당초에 갈 때 6필로 약속한 것이 이제 와서는 4필이라 말하니, 후일에 그나마도 다 가져올지 역시 기약할 수가 없다. 이 종의 일은 매양 이와 같으니 몹시 밉살스럽다.

6일. 집사람의 증세는 비록 아주 차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별로 더 아픈 곳은 없다. 다만 좀 나른한 기운이 있어서 전의 평상시와는 같지 않다고 한다. 어제부터 밥을 지어 먹는데 세 숟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현의 시임향소 권주, 최수영이 와보고 돌아갔다. 언명에게 들으니 향비의 종기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또 딴 곳에나서 고름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데, 종기를 고치는 의원은 돈이 적다고 힘을 다하지 않고 또 약을 바르지도 않아서, 그 모자는 간신히 먹어서 주림이 날로 박두한다고 한다.

7일. 지난밤에 집사람은 나른한 기운이 또 생겨서 밤새 눈을 감고 말을 하지 못했으나 그다지 몹시 중하지는 않더니 새벽부터 좀 덜하다가 늦은 후에는 나았다. 그 증세를 보건대 학질과 같은데 혹 5, 6일에 한 번씩 생겨서 고르지가 않으니 그 아픔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다만 원기가 몹시 약해지고 음식이 달지 않으니 민망스

럽고 걱정된다. 이토산 경담이 들러 찾았는데 스스로 싸 가지고 온 점심을 와서 먹었다. 최 판관을 만나 보고 가기 위해서다.

8일,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와 같아 밤새 편안히 잤다. 그러나 발작하는 것이 무상하니 이것이 걱정이다. 윤겸은 현으로 돌아갔다. 관문이 거듭 오고, 중국 장수의 잔치에 쓸 물건을 다수 분정했기 때문에 이 까닭에 현으로 돌아가서 마련하여 서울로 실어 보내야 해서 그 어머니가 좀 나아 가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 관의 매가 꿩 2마리를 잡았다.

9일. 김업산의 매가 꿩 1마리를 잡아 왔다. 관의 매도 또한 꿩 2마리를 잡아 보냈다. 아침 식사 후에 최 판관, 이토산이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와서 보고, 토산은 바로 돌아가고 판관은 한동안 이야기하는데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와 같고 별로 다시 아픈 곳은 없으나 다만 일어나 앉지 못하고 음식이 달지 않다고 한다. 만일 이대로 가면 쾌할 것이나 다만 진퇴가 한결같지 않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좋은 술 8병을 보내왔기에 즉시 아우와 각각 1대접씩을 마셨다. 어두운 뒤에 종 막산이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수은 및 사탕 1봉을 가지고 왔다. 집사람이 병이 난 후로 오랫동안 머리를 빗지 않아서 이가 들끓어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기에수은을 사 오게 했는데, 밤에 수은을 발랐더니 이가 모두 떨어져 죽는다. 갔다 오기에 겨우 5일이 걸렸으니 가위 걸음을 잘 걷는다 하겠다.

10일.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와 같고 음식도 좀 더 먹으며 때로 한참씩 일어나 앉으니 기쁘다. 청어 3마리를 어제 막산이 가지고 왔는데 종들이 잘 간수하지 못해서 개가 물어다가 다 먹었으니 몹시 밉다. 병인을 위해서 사 왔으므로 아침에 천신하려다가 그도 그만두었으니 더욱 몹시 마음 상한다. 언춘의 밭 콩을 실어다가 뚜드렸더니 1석 10두가 났다. 5두는 아우의 집에 주고, 2두는 윤해의 집에 주었다. 김억수에게 준 매가 꿩 2마리를 잡아 왔다. 이 매는 곧 현의 북면 사람이 안협 땅으로 도망가서 잡아서 날렸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빼앗아다가 억수에게 주어 길들여서 날리게 한 것이다. 몸이 겨우 8치이지만 나이를 먹은 매이다.

11일.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만 못하여 잠시 나른한 기운이 있다. 현의 문안인이 왔기에 즉시 답장을 보냈다. 덕노가 서울에 가는데 윤해의 종 춘기와 같이 갔다. 우

리 집 닭 24마리와 아우의 집 닭 20마리를 모두 실어 보내서 이것을 팔고 또 필목 3필을 주어서 이것을 모두 삼승포로 바꿔 오도록 했다. 개질지도 역시 서울에 가기에 힘을 합해서 팔고 사도록 일러 보냈지만 다만 이 종이 용렬하고 미련해서 반드시 뜻과 같지 못할 것이다. 어제 마침 날이 따뜻하여 벌떼가 나와 노는데 한 통의 벌은 하나도 출입을 하지 않는다. 이에 통을 열고 보니 이미 모두 굶어 죽어서통 사이에 쌓여 있다. 지난가을에 꿀을 딸 때 통속의 다리 나무가 떨어져서 벌집도 역시 모두 떨어져 내렸는데 이 때문에 먹을 것을 다 먹고 굶어 죽은 것이니 애석하다. 밀을 따보니 5량 5돈이다. 5통 벌에서 1통이 모두 죽었으니 다만 4통이남았다. 어두운 뒤에 이은신이 서울에서 약을 사 가지고 돌아왔다. 내의원 고지기에게서 사 왔는데 약 이름은 내의마다 서로 다르므로 부득이 전일에 먹던 승양탕으로 정했다고 한다. 내의는 허준(許俊), 이공기(李公器)라고 한다. 청어 3마리를사 왔기에 즉시 천신했다. 소머리 삶은 것도 또한 사 오고, 삼승포 장의 감 2필도또한 사 왔으니 이는 모두 윤겸이 시킨 것이다.

12일. 집사람은 어제 오후에 피곤한 증세가 여전하여 밤새 불편하더니 아침이 되어서도 오히려 쾌하지 않고 음식도 또한 전과 같지 않으니 민망스런 일이다. 이은 신이 현으로 돌아갔다. 약은 뒤에 지어 보낸다고 한다. 김업산의 매를 팔아 왔는데 정목 2필을 받았다. 두어도 유익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판 것이다. 최 참봉이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들으니 오는 25일경에 도로 간다고 한다. 찜 1마리를 주어 보냈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윤겸은 내일 와서 근친한다고 한다. 가는 국수 1행담을 보내왔다.

13일. 집사람의 증세는 나아 간다. 증세를 보니 지난달 26일에 앓았고, 이달 초 1일에 앓았고, 초 6일에 또 앓았고, 11일에 또 앓아서, 매양 5일마다 앓았으니 학질 같으면서도 실은 학질이 아니다. 그러나 아픈 증세는 전보다 좀 감해졌다. 다만 원기가 아주 없어지고 음식이 달지 않아서 이것이 걱정이다. 억수에게 준 매가 어젯밤에 죽었다. 여기에 온 지 겨우 5, 6일 만에 불의에 죽었으니 필시 매의 주인이빼앗긴 것이 분해서 상하게 해서 죽게 한 것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온 지오래지 않고 겨우 하루 날렸으나 꿩도 잡지 못하고 수일 안에 죽다니 어찌 그리 갑

자기 생긴 일인가. 몹시 밉지만 어찌하랴. 김 주부 명세가 와 보았다. 현리 전성기가 연천태수(김제남)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생율 4되를 보내왔다. 전일에 윤겸이 사람을 보내서 구했더니 오늘 비로소 돌아온 것이다. 저녁에 윤겸이 근친 왔다. 눌어 큰 것 1마리, 산돼지 다리 하나를 가지고 왔다. 생선은 이천태수(윤완)가 보낸 것이요, 돼지 다리는 목전에 사는 무인 김일환이 잡아온 것이라 한다. 나는 수일 전부터 추위에 상해서 기운이 불편하다.

14일. 집사람의 증세는 여전하고, 오후부터 오른쪽 어깨가 쑤시고 아픈데 곧 전일 아프던 곳으로서 항상 토수를 끼다가 근일에 벗어 놓았기 때문에 촉냉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나도 또한 비록 땀을 냈으나 거듭 풍한에 걸려서 기침이 그치지 않고 음식이 달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옥동역자 진귀선, 이상 등이 와서 보고 각각 꿩 1마리씩을 가져왔다. 그들은 청하는 것이 있으나 해 주지 못하고, 또 술이 없어서 그대로 보내니 한스럽다. 오늘은 죽은 딸의 제사여서 떡을 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인아의 생일이어서 제사 지낸 후에 같이 먹었다.

15일. 집사람은 어제부터 어깨가 아파서 밤새 그치지 않더니 아침이 되어도 오히려 차도가 없다. 이 때문에 기운이 역시 불편하고 음식도 또 감해졌으니 몹시 민망하다. 이 때문에 윤겸이 현으로 돌아가려다가 떠날 무렵에 도로 멈추었다. 나도 또한 아직 쾌하지 않아, 비록 여러 번 땀을 냈는데도 도로 풍한을 범해서 오래되어도 차도가 없으니 역시 민망하다. 오늘은 곧 속절이다. 약밥을 조금 만들고 저민 고기 · 탕 · 구이 등으로 차례를 지내고 또 죽은 딸에게도 지냈다. 또 차조밥을 지어서 노비들에게 먹였다.

16일. 집사람은 원 증세는 감한 것 같으나 어깨 아픈 것이 더욱 심하여 밤새 아프 다고 소리치며 이 때문에 음식을 몹시 싫어하니 걱정스럽다. 나도 역시 종일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아 아직 쾌하지 않으며, 윤겸도 역시 감기에 걸려 아직 땀을 내지 못하고 음식을 반으로 감했으며, 인아의 처는 유종으로 쑤시고 아파 오랫동안 차도가 없어 온 집안의 병이 이와 같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현의 장무가 백미 5두 · 간장 2되 · 식초 2되 · 닭 1마리를 내 왔다. 곧 관의 명령이다. 어두운 뒤에 윤함이 해주의 처가로부터 제 어머니의 병을 듣고 주야로 달려서 나흘 만에 비로소 도착

했는데 온 집 처자가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강 참봉이 찹쌀 2두를 보내왔고, 그곳에 사는 친가의 노비들에게서 수공한 정목 3필을 받아 왔기에 즉시 어머님께 드렸다.

17일. 집사람의 어깨 아픈 것은 전과 같으니 몹시 걱정이다. 나도 역시 아직 차도가 없고, 윤겸도 역시 땀을 내지 못했으니 걱정이다. 어제 관문을 보니 윤겸으로한 도의 중국 군사에 대한 쇄마차사원을 삼았다 했는데 기한이 이미 지나서 형세가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필연 큰일이 생길 것이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그어머니 병세가 위중하고, 제 감기도 역시 아직 쾌차하지 않으니 비록 중한 벌을 받는대도 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다시 사장을 올리려고 달려 보냈는데, 만일 바뀌지 않으면 파면당하고 말 것이니 중한 죄를 입을까 두려우니 몹시 걱정이다. 어제 남면에 사는 교생 심사임이 와서 보고 백미 2두, 생율 두어 되를 가져왔기에 밥을 대접해 사례했다. 집사람에게 들으니 병중에 생율을 먹고 싶어 한 까닭이다.

18일. 집사람의 증세는 별로 다시 아픈 곳은 없으나 다만 어깨 아픈 것이 전과 같아서 아직 쾌치 못하니 걱정이다. 윤겸은 일찍 식사를 하고 현으로 돌아갔다. 이곳은 음식이 편치 못하고 또 오래 땀을 내지 못하기에 억지로 권해 보내서 조리하도록 한 것이다. 저녁에 큰 눈이 반 자 넘게 내렸다. 올 겨울 눈은 오늘만 한 날이 없었다.

**19일.** 집사람의 어깨 아픈 것은 여전하다. 큰 눈이 내린 뒤여서 나무를 베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나의 감기 증세는 지난밤에 땀을 낸 뒤에 좀 전보다 덜하나 아직 쾌치는 못하다.

20일. 집사람의 어깨 아픈 것은 좀 덜해서 때로 일어나 앉고 음식도 역시 전과 같으니 기쁘다. 그러나 오히려 쾌히 낫지는 못한다. 나도 좀 덜하다. 다만 눈이 내린 뒤에 추위가 몹시 심한데 옷이 얇은 아랫것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땔 나무도 역시 떨어져서 방도 역시 차니 민망스럽다. 아노 개아지가 서울에서 그저께현에 도착했다가 이제 비로소 왔는데, 곧 전일 덕노와 같이 서울에 갈 때 목필과닭 등을 가지고 가서 삼승포를 바꿔 온 것이다. 정목 3필·아청 삼승 2필·닭 23마리·아청 삼승 1필로 반청 삼승 2필을 바꿔 왔고, 인아가 잡은 수달의 가죽으로

는 또한 반청 삼승 1필을 바꿔 왔다. 보낸 물건의 값을 계산한다면 많이 부족하고, 바꿔 온 삼승포도 역시 몹시 좋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윤겸이 숭어 1마리를 얻어 보냈다. 서울에서 사다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절병 1행담도 역시 만들어 보냈고 닭 1마리, 등유 2되도 또한 보내왔다. 윤함이 데리고 온 종과 말을 돌려보내는데 미역 1꼭지, 말린 문어 1마리, 잣 5되를 보냈다. 윤겸도 역시 잣 1두, 석이 1두를 보냈다. 또 들으니 윤함의 처가 태기가 있어 새달에 해산한다는데 미역을 먹고 싶어 한다고 하나 집에 마침 떨어져서 보낸 것이 몹시 적으니 한탄스러우나 어찌하랴.

21일. 찬 기운이 몹시 사납다. 또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와 같고 별로 가감이 없으니 민망하다. 이로부터 아주 쾌했으면 좋겠다. 개아지가 현으로 돌아갔다.

22일. 집사람의 어깨 아픈 것은 가감이 없으나 점차 쾌차해 가고 음식도 더 먹으니기쁘다. 큰 눈이 내린 나머지에 오늘 또 큰 눈이 거의 1자나 내려 추위의 위엄이 몹시 사납다

23일.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와 같다. 현에서 문안이 왔는데 꿩 2마리, 돼지포 20 조각을 보내왔다. 반찬이 떨어져서 이제 민망해 하던 차에 이제 이 물건을 얻으니수일 동안의 반찬은 하겠다. 고성에서 군량을 운반한 값으로 적두 12두를 언신이받아 왔는데, 곧 포 1필 값이다. 전일에 미처 거두지 못했던 것을 이제 비로소 가져온 것이다.

**26일.** 윤해가 공부하러 부석사에 올라가는데 윤함도 역시 함께 가려고 했으나 말이 없어 가지 못하고, 이 말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일 올라갈 계획이다. 들으니

정시가 내달 21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아우와 함께 절에 올라가서 옛 공부를 수습하려는 것이다.

**27일.** 윤함은 감기에 걸려 절에 올라가지 못했다. 집사람은 본래의 증세는 이미 회복이 되었고, 어깨 아픈 것도 비록 쾌하지는 못해도 대개 나아 가는 편이다.

28일. 윤함이 절에 올라갔다. 원적사의 중이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전일에 콩 3두를 보냈더니 절반은 그때 가져왔고 절반은 남겨 두었다가 오늘 보내 온 것인데 내일 죽은 딸 대상에 쓰려고 해서이다. 저녁에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차원은 이미 바꿨다 한다. 다만 방백이 윤겸은 직무에 부지런하지 않다고 말하더니,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하리를 세 번이나 잡아다가 중한 매를 때려서 거의 죽게되었다고 한다. 생각건대 이는 필시 평일에 마음에 불쾌하던 차에 또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다음 날에 반드시 욕을 당할 근심이 있어 미리 취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다시 사장을 내어 기어이 내놓으려 하는데 다만 우리 온 집안이 낭패여서 이것이 걱정된다고 하니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그러나 모름지기 한 집 일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일의 일을 생각하여 속히 거취의 일을 결정하라고답장을 써서 보냈다. 백미 5두ㆍ중미 5두ㆍ밭쌀 5두ㆍ석이 1두ㆍ노루 반 짝ㆍ삼색실과ㆍ꿩 1마리ㆍ중계 35잎을 보내왔다. 1일이 죽은 딸 대상인데 제수로 고기반찬을 할 작정이다.

29일. 내일이 곧 죽은 딸 대상이다. 제물을 준비하려는데 소물을 얻지 못하여 꿩 · 노루고기로 탕과 구이를 만들어 쓰게 했다. 최 판관이 편지를 보내 묻고, 또 대구알 3쪽과 다시마 4조각을 보냈기에 답장을 써서 보냈다.

## 2월

1일. 곧 죽은 딸의 대상이다. 밝을 무렵에 인아와 제사를 지냈다. 세월이 머물지 않아 대상이 이미 지났으니 애통한 마음이 더욱 심하다. 평일의 일과 병들어 눕던 날과 죽을 때의 말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집사람과 마주 보고 통곡하니 정에 지나친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내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매양 이날이면 비록 먹던 밥을 가지고라도 제사를 지낼 것이나 만일 죽은 후에는 부탁할 곳이 없으니 생각

이 이에 미치면 비통함이 더욱 지극하다. 슬프다. 최 참봉이 글을 보내 묻고, 청어 2마리, 굴 1그릇을 보냈기에 답장을 써서 사례했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술 3병, 절병 1행담을 보내왔다. 떡은 제 어머니가 탕을 만들어 먹고자 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낸 것이다.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또 들으니 윤겸은 또 사장을 바쳤다고 한다.

4일. 집사람의 증세는 수일 내에 죽은 딸의 대상으로 전의 생각을 하고 비통해 해 서 이로 인해 병이 더하더니 어제부터는 소복되어 간다. 다만 음식이 전일보다 감 해진 것 같다. 어깨 아픈 것은 비록 쾌히 낫지 않으나 대세는 이미 덜해져서 때로 는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니 이로부터 아주 쾌차할 것이다. 이제 중춘을 당하여 추 위가 겨울보다 더하여 눈이 온 산에 가득한 채 아직 녹아내리지 않고 바람도 몹시 매워 출입할 수가 없다. 오늘 김명세 등이 최 참봉을 전별하려고 어제 편지를 보내 나를 청했는데 집에 술과 안주가 없어 졸지에 준비할 수 없어서 가지 못했고 내일 마땅히 관에 사람을 보내어 술을 얻어 온 뒤에 최 판관과 같이 가서 전별할 작정이 다. 최 참봉이 오는 10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윤해의 종 춘기가 서울에서 돌아왔기에 덕노의 일을 물었더니 부평으로 간 뒤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 다고 한다. 올 기일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 다. 중국 군사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도성 안에 가득 차 있어 왕래하는 자가 거리를 메워 끊이지 않아 길가에 사는 사람이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 도망해 흩어져서 들 에 가 있으며 서울 길 네거리에서는 말을 빼앗아 사람이 통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덕노가 가진 말도 혹시 그들에게 빼앗겨 속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지 또 저는 말 이 중상을 해서 행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몹시 밉살스럽다. 아노 세영이 문안하 러 왔는데 편지를 보니. 방백은 이미 김화에 이르렀다가 철원으로 들어갔다 하므 로 사장을 바쳤더니 또 휴가를 주었다 한다. 소 양과 천엽, 염통 각각 조금과 꿩 3 마리, 모주 등 물건을 보내왔다.

5일. 세노가 현으로 돌아가는데 김담도 같이 보냈다. 술과 안주를 얻어다가 최 참 봉을 전별하려 한다. 저녁에 함열이 봉산에서 집사람의 병을 묻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는데, 편지를 보니 그 온 집안은 모두 잘 있다고 하고, 온 집이 위로 올라가 아 직 선영 밑에 가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 한다. 소식을 듣지 못한 지가 이제 장차 반년이 되는데 이제 갑자기 안부를 들으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또 들으니 자방이 세전에 평양에 갔을 때 죽은 종 막정의 전답을 그 일가 사람에게 팔고 소 1필과 필목 20필을 받았는데 필목은 거칠고 나빠서 퇴해 주고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 한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서 받아 와야 할 것이지만 집에 믿을 만한 사환이 없으니 민망한 일이다. 또 들으니 함열의 온 집은 큰길에서 멀지 않아 서쪽에서 내려오는 중국 군사가 길을 가득 메워서 모두 소요를 입기 때문에 아직 신천 땅으로 옮겼다가 그길로 서울로 가겠다 한다고 온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6일.** 봉산에서 온 사람을 현으로 보냈다. 윤해의 처자는 소근전으로 돌아갔다. 그 부모가 오는 열흘 사이에 떠나기 때문이다.

7일. 아침 식사 후에 아우와 술병을 차고 최 참봉의 집에 가서 전별하는데, 마침 최 판관도 그 자리에 왔다. 최 참봉의 두 아들도 역시 참석했고, 인아도 역시 술과 안 주를 가지고 와서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운 뒤에 돌아왔다. 저녁에 현에서 문안인이 왔기에 편지를 보니 윤겸은 그저께 방백이 철원에 도착해서 그 겸 관으로 가서 맞고 어제 관으로 돌아왔다 한다. 다만 업아의 담증이 몹시 중하다고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돼지 다리 1개, 술 5병, 꿩 1마리를 보내왔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8일. 인아의 처가 유종으로 여러 날 쑤시고 아프더니 이제는 이미 곪았으므로 침으로 딴 뒤에 고름이 많이 나와서 차츰 나아 간다 하니 기쁘다. 직동의 마조창이나무 촛대 1쌍과 향합 2개를 만들어 보냈는데 다만 몹시 서투르니 한스럽다.

9일. 이 마을 사람들이 양곡을 운반하여 서울 창고에 가져가고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중국 군사가 성안에 가득하여 우리나라 사람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장삿길이 끊어져서 도성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또 들으니 덕노는 지난달에 이미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으니 밉살스럽다. 10일. 함열에게서 온 사람이 어제저녁에 현에서 돌아와서 오늘 일찍 떠나가기에 답장을 써 보내고, 꿩 1마리를 상례에게 보내고 산돼지고기 1덩이 및 석이. 송이

각각 조금과 잣 4되를 진의 어미에게 보냈는데 고기는 진을 주라고 했다. 먼 길에

소식이 오래 끊어져서 바야흐로 걱정했더니 이제 사람을 시켜 묻는 것이니 몹시 기쁘다. 방백이 지나간 뒤에 관인을 보내서 막정의 밭 판 값을 받아 올 계획이다. 12일. 요새 찬 기운이 깊은 겨울보다 더한데 옷이 얇은 아랫것들이 일하기에 괴로

우니 민망하다. 남면에 사는 상인 전 만호 김언보가 와 보고 돌아갔다. 들으니 방백이 내일 현에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김억수가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하여 들어가는데 편지를 써서 윤겸에게 보냈다. 최 참봉의 온 집이 떠나갔다. 윤해 처자가 돌아왔다. 같이 협중에 가 있은 지 3년인데 모두 건강하다.

13일. 소를 빌려서 모두 5마리로 말지의 두 밭의 조를 실어 오는데 두 번에 10바리로 끝내지 못하고 이튿날 3바리로 다 실어 왔다. 낮에 윤겸이 근친 왔다. 어제 부석사에 와서 그 두 아우와 같이 자고 왔는데, 두 아이도 역시 내려왔다. 윤겸은 내일 방백이 현에 도착하는데 옥동역에 낮에 멈춘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려 가는길이다. 술 1병, 꿩 2마리를 가져왔다.

14일. 아침 식사 전에 윤겸은 옥동역으로 달려갔다. 방백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다. 방백이 데리고 온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왔으므로 찬으로 쓴 나머지 꿩 1마리, 마른 대구 1마리, 생대구 반 짝, 생가자미 2마리, 돼지포 4조각을 사람을 시켜 먼저 보냈다. 여기에 찬이 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김풍의 밭 조를 뚜드렸더니 1백 55뭇에 모두 2석 3두가 났기에 15두는 아우의 집에 주고 5두는 윤해의 집에 주었다.

15일. 오는 21일이 곧 정시(廷試)에 윤해, 윤함이 내일 떠날 작정인데 들으니 중국 군사가 성안에 가득하다 하니 생각건대 필시 물려서 행할 것이다. 제 형으로 하여 금 방백이 가는 것을 알아서 오늘 통지하라고 했기에 기다리는데 종일 아무 소식 도 없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혹 잊은 것인가 염려된다.

16일. 아침에 윤해가 제 아우 윤함과 함께 현에 들어갔다. 정시를 만일 물려서 행하지 않는다면 내일 양식을 얻어 가지고 서울에 갈 작정이다. 다만 지난밤에 큰 눈이 거의 반 자나 내리고 또 큰 바람이 일어서 길이 필시 험할 터인데 행색이 초라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중로에서 만일 물려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돌아온다고한다. 저녁에 김억수가 돌아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방백은 오늘 떠나갔다고 한

다. 정시는 혹은 물려서 행한다고 하나 아직 확실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윤겸은 쇄마차원으로 내일 사이에 마땅히 서울에 갈 것인데 여러 고을 쇄마가 일 제히 모이지는 못할 것이니 큰일이라 몹시 걱정된다. 평산정이 매를 얻을 일로 그저께 현에 왔는데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이곳으로 와 본다고 한다. 다만 관가에 매가 없어 형세가 응해 주지 못할 것이니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생대구 2마리, 생가자미 10마리, 방어 반 짝, 생홍합 1사발, 노루다리 11짝, 청주 7병을 보내왔다. 어머님께 드릴 반찬이 바야흐로 떨어져서 몹시 민망하던 차에 의외의 물건을 얻으니 기쁘다.

17일. 어제 들으니 평산정은 오늘 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종일 기다렸으나 오지 않으니 필시 현에서 바로 돌아간 것이다. 10년 동안 소식이 막혀 한 번 보려고 생각했고, 또 할 말도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18일. 김담이 군량을 운반할 일로 휴가를 얻어 현으로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윤겸은 오늘 이미 서울로 떠났는지 알지 못하겠다. 저녁에 평산정이 왔다. 만나지 않고 돌아갔나 생각했더니 이제 갑자기 만나 보니 기쁘고 위로가 된다. 그에게 들으니 교하의 우리 집 종의 전답과 살집이 몹시 좋아서 옮겨 가 살 만하다고한다. 까닭에 가을에 꼭 이사할 계획이다. 같이 자고 상하의 조석밥을 대접했다. 또 들으니 윤해는 그 아우와 함께 어제 서울로 떠나서 철원 땅에 이르러 정시를 물려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돌아와서 오늘 부석사에 도착하여 거기에 머무르면서 공부한다고한다. 윤겸은 오늘 낮에 떠나서 서울로 갔다고한다. 평산정이 기어이 매를 얻고자하기 때문에 관가에 다만 매 2마리가 있는 것을 부득이 1마리를주어 보냈더니 그도 역시 매 얻은 것을 기뻐하고 나도 역시 그의 소망을 들어준 것이 기쁘다. 전 토산 이경담이 전인해서 편지하기를, 오는 20일 후에 그 딸의 혼수를 윤겸에게서 얻어 보내달라고 했으나 윤겸은 마침 서울에 가서 없고, 관의 형편이 여기에 응할 수 없으니 한단한들 무엇하랴.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19일. 평산정이 이른 아침에 교하로 돌아갔다. 집에 한 가지 물건도 없어 주지 못하고, 집사람이 다만 잣 4되, 석이 조금을 그 소가에 보냈다. 전일에 가장 서로 친했기 때문이다. 지난가을부터 친구들이 매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얻어 보낸 것은

전혀 없고, 봄이 되면서 겨우 2마리 매를 길렀는데 이것이 없으면 어머님께 찬을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평산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이 때문에 멀리 깊은 산골에 왔고, 또 평일에 그 아버지 광천이 후하게 우리 집을 돌봐 주어 친 부자 사이와 다를 것이 없어 그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이를 저버릴 수가 없다. 이에 내놓을 수 없는 물건을 준 것이다. 춘금이가 현에서 어제 부석사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왔는데 윤해의 편지를 보니 요새 공부를 하다가 정시 때가 되면 내려오겠다고 했다. 소금 2두, 꿩 1마리를 현에서 춘금이 오는 편에 보냈다.

20일. 윤겸이 서울에 갈 때 관의 매를 여기에 와서 날려서 꿩을 잡아다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중로에 오다가 잃어서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하니 필시 아주 잃은 것이라 아깝다. 겨우 매 1마리밖에 없고 게다가 좋은 재주가 있었는데 만일 이 것을 얻지 못하면 어머님께 드릴 것을 얻을 길이 없으니 더욱 민망하다. 집사람은 어제 비로소 머리를 가리고 방밖에 나가서 어머님을 뵈었다.

21일. 현리가 왔는데 들으니 내일 문안인이 서울 가는 자가 있다고 하기에 편지를 써서 윤겸에게 보냈다. 다만 들으니 독운어사가 그저께 현에 와서 윤겸이 자기를 보지 않고 서울에 갔다는 까닭으로 화를 내어 좌수 권주와 별감 최수영, 호방, 이방을 잡아다가 각각 장형 1차씩 때렸다고 한다. 조정의 쇄마의 급한 것은 생각지않고, 관에 있지 않아 맞지 못한 한 가지 조그만 일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중장을 때리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데리고 온 서리와 소유(속리) 등이 먼저 사람들을 책망하고 많은 물건을 받아 갔다고 한다. 어사의 성은 문(文)이요, 이름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만일 소유를 데리고 왔다면 반드시 대간을 겸하여 여러 고을을 순행하면서 독려하는 것일 게다. 하인들을 단속하지 못하여가는 곳마다 사람을 책망하니 이는 먼저 자기 스스로 풍헌의 소임을 떨어뜨리는 것이니, 어느 겨를에 남의 일을 책망한단 말인가. 그 성이 문이라면 이름은 필시홍도(弘道)일 것이다.

22일. 서부에 사는 전업이 온 집이 도망가고자 하여 먼저 그 아들 전풍 및 사위 박 언수 등으로 하여금 비밀히 가산을 옮기고 먼저 처가만 데리고 달아나고, 홀로 전업과 그 아내만이 아직 남아 있으나 오래지 않아 따라갈 것이라 한다. 비단 그들뿐

만 아니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옮겨 가려는 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 한 집만이 홀로 깊은 산골에 있어 형세가 몹시 불안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들으니 전에 잃은 관의 매를 그저께 도로 찾아다 하니 기쁘다.

23일. 언명의 종 춘희가 영암에서 와서 뜻밖에 임매의 편지를 보니 종이에 가득한 것이 모두 비통한 말이라, 슬퍼하고 탄식한들 무엇하랴. 또 들으니 전일에 적에게 잡혀간 계집종 수비가 지난해 섣달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경온이 지난해 4월에 병을 얻어서 적에게 죽었다고 하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그러나 살아서 일본에 들어가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 땅에서 죽은 것이 한편 다행하다. 임진사(임극신)의 누이 이 서방댁이 그 아들 귀생과 함께 포로로 잡혀 이미 바다를 건너갔다 하니 불쌍하다. 다만 임매는 진사의 서사촌 임극성의 침해를 받아 살아갈 수가 없다니 답답한 일이다.

**24일.** 늦은 후에 비와 눈이 섞어 내려 종일 개지 않아 길이 질어서 물 길어오기도 역시 어렵다 한다.

26일. 눈이 내린 후에 연일 바람 불고 추워서 깊은 겨울보다 심하여 사람이 견딜수가 없다. 현리 득문이 왔는데 평양에 보내고자 하는 자이다. 요새 들으니 서쪽으로 내려온 중국 군사가 길에 가득하여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여 못하는 짓이 없다고 하니 가고 올 때 필시 그 걱정을 당하겠으므로 아직 정지시켰다가 다시 다 돌아간 것을 들은 후에 보내려고 즉시 돌아가게 했다. 다만 윤겸이 서울에 간 후에 소식을 듣지 못하니 걱정이 적지 않다. 이에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서울에 가는 사람에게 전하게 했다. 늦은 후에 집사람의 기운이 도로 편안치 않아 어두울 때까지이르므로 한질인가 걱정하여 인동초를 달여 먹이고 두껍게 이불을 덮고 땀을 내게했더니 비록 땀이 조금 났어도 기운이 몹시 답답하고 가슴 위에 탄환만 한 것이 막혀 있어서 이 때문에 답답하고 호흡이 급하다고 한다. 이에 또 계란 노른자를 먹였더니 오래지 않아 구역질이 나면서 도로 구토가 나다가 기운이 좀 안정되었다. 그러나 밤새 뒤적이다가 새벽에 이르러서야 잠이 들고, 아침 후에 좀 나아서 죽을 마셨다. 그러나 아직도 쾌차하지 않다.

27일. 집사람의 병으로 말을 윤해에게 보내서 불러왔더니 늦은 후에는 차도가 있

다. 그러나 음식이 달지 않은데 크게 아픈 나머지에 입에 맞는 음식이 없으니 걱정이다. 저녁에 윤해가 그 어머니가 편치 않다는 말을 듣고 절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윤함은 말이 없어서 같이 오지 못했다. 하지만 증세가 나아 가니 다시 후일에 보아서 말을 보내서 불러올 계획이다.

28일. 집사람의 증세는 별로 더 아픈 데는 없고 점점 차도가 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양곡 운반하는 일로 모두 서울에 갔기 때문에 윤해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윤겸에게 전하라고 했다.

29일. 전풍의 밭 조를 뚜드렸더니 모두 2석 15두이니, 전일에 먼저 뚜드린 것까지 합치면 도합 4석 18두이다. 짚은 아직 뚜드리지 않았다. 저녁에 이비가 찾아왔다. 이천 집에서 그 형수의 영구를 모시고 철원 경계까지 보내고 나서 그길로 찾아온 것이라 한다.

## 3월

1일. 이비가 도로 이천으로 가는데 조 2두, 보리 1두를 주어 보냈다. 연전에 이 찰 방 빈이 와 볼 때 고기 그물을 만들어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물을 뜰 실을 가져갔었는데 이번 이비가 오는 편에 떠서 보냈으니 깊이 기쁘다. 김원헌의 밭 조를 두드 렸더니 모두 2석 15두이다. 집에서 기르는 암고양이가 봄이 되면서부터 수컷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분주히 이웃을 도는데 사방 이웃에도 역시 수고양이가 없어서 이때문에 수일 동안 부르기를 그치지 않더니 그저께부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니 필시 범에게 물려간 것이라, 아깝다. 이 고양이가 돌아온 후로 집안의 쥐 떼가 조용하고 어지러운 걱정이 없더니 이제 고양이가 없으니 필시 쥐 떼가 서로 치하하면서 곡식을 축낼 것이다.

2일 현에서 사람이 왔는데 꿩 2마리 · 법유 1되 · 중계 20알을 보냈다. 다만 윤겸이 서울에 간 뒤에 아직 돌아온 자가 없는데 전해 들으니 무사히 서울에 가기는 했으나 중국 군사가 시끄러워서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 용산 근처로 피해 가 있다고 한다. 새로 다릴 간장 콩 20두를 개비에게 주었다.

3일. 삼삼가절(三三佳節)인데 다만 술·떡·꿩구이와 또 대구로 안주를 해서 신주

께 드렸다. 달리 준비할 물건이 없으니 탄식스럽다. 저녁에 현에서 방자가 왔는데 절일이라서 절병 1행담을 만들어 지위 보냈다. 또 윤겸의 편지를 보니 지난 25일에 쓴 것인데 중국 군사가 정에 가득하여 여러 가지로 침해하여 가진 물건을 다 빼앗겼고 하인들은 많이 맞아 상했으며, 윤겸도 역시 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밀히 숨어 있고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필경 어찌될지 걱정이 그지없다. 함열의 종춘억이 어제 현에 도착하여 자방의 편지 및 딸의 편지를 보니 상하가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 다만 중국 군사를 피하여 봉산으로부터 지난달 초승에 신천군으로 옮겼는데 또 불편한 일이 많아서 또 딴 곳으로 옮겨서 기다리다가 중국 군사가 다 간뒤에 도로 봉산 옛 집으로 돌아가서 여름을 지낸 후에 서울로 갈 계획이라 한다. 진아는 글자 50여 자를 배웠다고 하는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4일. 강비가 간장 콩 20두를 받아서 삶았다. 한식절이 이미 가까운데 윤겸은 서울에 가서 돌아오지 않아 제물을 준비해 보내지 못한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중국 군사가 성안에 가득하여 아직 다 돌아가지 않았고, 산소는 바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이라 걱정이 된다. 형세가 찬을 만들어 가지고 산소에 갈 수 없기때문에 이곳에서 멀리 바라보고 제사 지낼 작정이나 제수를 한 가지도 준비할 길이 없으니 몹시 민망하다. 할 수 없으면 비록 나물만으로라도 정성을 표할 뿐이다. 시사가 이 지극한 데에 이르렀으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랴.

5일. 현의 장무가 관의 명령을 받아 양식을 실어 보냈는데, 백미 5두 · 중미 10두 · 밭쌀 5두를 가져왔다. 꿩 1마리도 역시 보내왔다. 윤겸의 편지가 서울로부터 어제 현에 온 것을 지금 비로소 보니 중국 군사에게 침해를 받아 형세가 장차 지탱하지 못하겠어서 한 달 안에는 일을 마치지 못하겠으므로 돌아올 시기도 아직 정할 수 없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또 들으니 덕노가 가진 말은 중국 군사에게 빼앗기고 또 맞아 상해서 거의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한다. 만일 중국 군사에게 빼앗 겼으면 마땅히 뒤에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니, 원근 간에 발을 저는 말을 반드시 버리고 갈 것이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시 소금을 팔 때 발을 절다가 죽은 것을 가지고 중국 군사에게 빼앗겼다고 핑계 대고, 또 즉시 윤겸에게 와서 보지도 않고 그 어미 집에 누워 있으니 몹시 밉기가 이럴 수가 없다. 지난해에 말 1필도

그의 손에서 잃어서, 겨우 소를 팔아 은 7량을 바꾸어 이것을 다 주고 이 저는 말을 샀던 것인데 이제 또 잃었으니 터럭만큼도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생각하니 사환이 없어서 다만 이 종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매양 이와 같이 손해 보는 것이 몹시 많으니 더욱 몹시 밉살스럽다. 후회한들 무엇하랴. 아직도 와서 나타나지 않으니 장차 이로부터 아주 달아나고 오지 않을 것인가.

6일. 윤해의 종 안손이 현에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서울 가는 사람에게 전하여 윤겸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전일에도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며느리로 하여금 전해 보내라고 했는데, 이제 윤겸의 편지를 보니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필시 잊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 편지는 윤겸의 첩에게 보내서 잊지 말고 보내도록 했다. 패자가 이루어져서 현의 장리에게 보내어 한식에 쓸 제물을 전례에 의하여 준비하여 오는 초 8일 안으로 보내면 여기에서 제사를 지낼 계획이다. 그러나 관가에도 역시 찬이 없다고 하므로 두부콩을 부석사에 보내서 두부를 만들게 하여 갖다가 소물 제사를 지내련다.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눌은비가 간장 콩 20두를 갖다가 삶았다. 세 종이 가져간 것이 도합 3석이다. 이 도의 독운어사 유후 공진이 안협을 떠나서 장차 평강으로 향하게 되는데, 지나가다가 찾아왔다. 곧 자식과 깊이 사귄 친구이다. 깊이 감사하다.

7일. 이 고을에 사는 군사 전업이 번을 서는 일로 해서 서울에 갔다가 비로소 돌아왔는데 와서 보고 말하기를, 지난 초 2일에 윤겸에게 가 보았더니 말하기를, 나도 또한 수 3일 뒤에는 마땅히 관으로 돌아갈 것이어서, 아침에 이미 먼저 돌아가는 자에게 편지를 보냈기로 지금 다시 하지 않는 것이니 이 말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한다. 근일에 조보 두어 장을 보내왔으니 생각건대 이미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것이다. 다만 진 어사가 서울에서 죽었다 하는데 이 때문에 중국 장수들이 더 머물러있고 아직 떠나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하겠다.

8일. 지난밤 꿈에 죽은 딸을 보았다. 내가 마침 알지 못하는 집에 있어서 손에 약과를 들고 여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을 때 죽은 딸이 마루 아래 서 있는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 곱게 빗질하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서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

마를 입고서 얼굴을 들고 손을 들어 먹을 것을 요구하므로 나는 이르기를, 너도 역 시 여기에 있었느냐 하고 즉시 대계 1잎을 주었더니 즉시 받아서 구워 먹는 것이었 다. 갑자기 꿈에서 깨고 나니 말소리와 형용이 완연히 평일과 같아 면복이 눈에 보 이니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둘째 딸과 두 며느리가 등 불을 밝히고 바느질을 하고 아직 자리에 들지 않았는데 집사람도 역시 일어나 앉 았고 자지 않기에 꿈 이야기를 하고 집사람과 마주 보면서 눈물 흘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죽은 지 이제 이미 2년이 되도록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기에 한 번 꿈에 서라도 보았으면 싶었으나 보지 못했더니 오늘 밤에 내 꿈에 보여 나로 하여금 옛 날의 놀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창자를 뒤집어 괴롭고 슬프게 하여 스스로 그치지 못하게 한다. 대상 전에 매양 한 번 그 무덤을 보고자 했으나 종과 말이 없어서 가 지 못했더니, 떠돌던 영혼이 나에게 다가와서 꿈에 보인 것인가. 아아! 슬프고 슬 프다. 저녁에 현의 장무가 한식에 쓸 준비를 해 보냈다. 밥떡쌀 3두 · 목미 1두 · 찹 쌀 3도·꿀 1도·참기름 5홉·말린 꿩 2마리·대구 3마리·닭 2마리·삼색 실과 각각 1되 5홉을 모두 껍질을 벗기고, 석이 1두·간장 3되·청주 5되·각색 나물을 실어 보냈다. 관에서 매도 또한 가져왔는데, 이곳에서 날려서 꿩을 잡아서 쓸 계 획이다. 또 들으니 윤겸이 돌아올 때 중로에서 사신을 만났더니 뒤따라 보내서 사 람과 말을 돌려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 올라갔다고 하니 깊이 걱정스럽 다. 그러나 아직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다. 김담. 춘금이로 하여금 그물을 가 지고 앞내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여 백여 마리를 얻었으니, 이것을 구워서 제사에 쓸 수 있겠다. 기쁘다.

10일. 매가 꿩 3마리를 잡아 왔다. 찬을 만드느라고 온 집안이 종일 시끄러워 여가가 없었다. 저녁에 현의 통인 만세가 서울에서부터 윤겸을 모시고 돌아왔는데, 윤겸은 큰 나룻가에 이르러 편지를 써서 먼저 보냈다. 편지를 보니 오늘 현으로 가서수일 동안 머무른 뒤에 근친 오겠기에 먼저 사람을 시켜 문안하는 것이라 했다. 우심 하나를 얻어 보냈다. 내일 제사에 이것을 구워서 쓰면 되겠으니 기쁘다.

11일. 한식이다. 첫닭이 울 때 제사를 지내는데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 올리고, 다음으로 아버님께 올리고, 다음으로 죽전 숙주 양위분께 올리고, 뒤에 죽은 딸에 게 지냈다. 그런 후에 기구를 거두어 가지고 동쪽 집으로 가서 차례를 올리는데 찬이 없어서 다만 면 · 떡 · 반갱 · 삼색 실과 · 두어탕 · 소탕 · 삼색 어육구이와 채소로 지냈다. 내일은 곧 고조의 기일이어서 우리 형제가 제사를 지내야 하겠기 때문에 소복을 입었다. 아침 식사 후에 윤함이 현에 들어갔다. 들으니 정시가 오는 17일로 결정되었다 하기 때문에 먼저 현에 들어가 제 형에게 말을 얻어 가지고 올라가려 하나 사람을 얻기가 몹시 어려우니 기필할 수가 없다. 윤해는 내일 따라 들어갈 계획이다. 윤겸은 어제 무사히 현에 도착해서 사람을 시켜 문안했는데 편지를 보니 덕노는 실지로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을 빼앗기고 평산까지 따라갔다가 밤에 훔쳐 가지고 나왔으나 도로 잡혀서 몹시 구타를 당하여 거의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그가 즉시 돌아오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어서 끝내 이러한 걱정이 생겼으니 이 누구의 허물인가. 다만 다시 말을 사기란 몹시 어려우니 우리 집 일이 걱정이지만 어찌하랴. 또 들으니 광노 집에 둔 호피로 정목 7필을 바꿨다고 하니 여기에 더 보태서 살 작정이다. 제사를 지낸 후에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술과 떡을 대접했다. 피목을 어떤 사람이 와서 팔기로 조 1두 2되로 주고 바꾸어서 방에 깔았다. 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12일. 날이 밝을 무렵에 아우 및 인아, 붕질과 함께 고조의 제사를 지냈다. 면 · 떡 · 반갱 · 삼색 실과 · 삼색탕 · 삼색 구이로 지냈다. 윤해는 아침 식사 후에 현으로 들어갔다. 정시의 소식을 듣고 구경하려고 제 형에게 양식을 얻어 가지고 서울에 갈 계획이다. 다만 말이 절어서 가지 못할까 걱정이다. 언명의 종 춘희가 오늘비로소 떠나서 영암에 간다고 현에 들어가서 양식을 얻어 가지고 가려는 것이다. 임매에게 보낼 물건이 없어서 다만 육촉 1쌍을 보내고 또 답장을 써서 전하게 했다. 어머님께서 역시 잣 1두, 꿀 1되를 보냈다. 또 들으니 윤겸이 서울에 있을 때한식제를 비록 묘소에서 지내지는 못해도 포 1필과 대구 1마리를 얻어서 산지기에게 보내서 술과 안주를 사서 다만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게 했을 뿐이다. 사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부득이 이곳에서 지내게 했지만 묘소 앞에서도 그대로 지나칠수가 없기 때문이다.

13일, 전풍이 꿩 1마리를 가져왔다. 망일에 사는 사람 전업석이 꿩 1마리 · 무 2

말·참버섯 등을 가지고 왔는데 이는 곧 청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마땅히 윤겸이 근친 올 때를 기다려 말할 계획이다. 참무 2백 뿌리와 큰 무 25뿌리를 심었으니 이는 씨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이웃 사람의 말을 빌려 타고 최 판관의 집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그집에서 나에게 수반을 대접해서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언신이 소를 끌고 북면으로 갔다. 적두를 실어 오기 위해서다. 전달에 포목 1필을 가지고 생선을 바꾸어 북촌 인가에 1두 맡겨 두었다.

15일. 윤해의 종 춘기가 지난달 중순에 생선을 사러 영동에 갔다가 어제 현에 도착하여 이제 비로소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요새 어사가 온다는 기별이 현에 와 있어서 근친 오지 못한다고 한다. 또 들으니 경기도 방백이 중국 군사에게 맞아서 인사를 차리지 못하고, 도사는 피해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전일에 쇄마는 모두 교부했는데도 교부할 때 내주지 않아서 병조에서는 교부하기를 독촉하여 경리를 잡아 가두어 장차 큰일이 날 것 같다고 한다. 문 어사(문흥도)도 역시 전일에 보지 않고 서울에 간 일을 가지고 크게 노하여 가는 곳마다 헐뜯으니 또한 필시 무슨 처치가 있으리라 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꿩 3마리ㆍ가자미 3묶음ㆍ대구 3마리를 가져왔다. 이 물건은 곧 통천의 향리 박세업이 춘기가 올 때 보낸 것이다. 박세업은 윤겸과 서로 알기 때문에 전에도 편이 있으면 계속 보내 주었으니가위 후하다 하겠다. 윤해와 그 아우 윤함은 지난 3일에 말을 얻어 가지고 서울로 갔다고 하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 오늘은 서울에 도착했을 것이다. 다만 중국 군사가 아직 다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16일. 김억수가 환상곡을 받아 올 일로 현에 들어가기에 답장을 써 보냈다. 어두운 뒤에 덕노가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길가에서 윤해 형제가 데리고 양주 고을까지 갔다가 타고 가는 말을 중국 군사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도로 덕노에게 주어 보내고 걸어서 서울로 갔다고 한다. 덕노는 당초에 중국 군사가 말을 빼앗을 때에 중하게 매를 맞아서 병이 나서 그 어미에게서 누워 있다가 이제 비로소 온 것이라 한다. 바꾼 포목 2필 반을 가져왔다.

17일, 있는 집 서북쪽 가에 소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해가 아

직 이르기 때문에 또 뒷내에 통발을 쳤다. 이는 곧 지난해에 쳤던 곳이다. 저녁에 현리 민득문이 함열의 종 춘억과 같이 왔는데 이는 곧 평양에 보내고자 하는 자이다. 득문이 말하기를 먼 길에 혼자 갈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덕노와 함께 보내려했는데 덕노는 어제 와서 병을 핑계 대고 일어나지 않으니 다시 머물러 두고 수일 동안 조리시켜 가지고 오는 20일 후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득문은 도로 보냈다가 21일에 오도록 했다. 이러한 뜻으로 윤겸에게도 답장을 보냈다. 들으니 문 어사는 어제 현에 왔는데 마땅히 3일 동안 머무른다고 한다.

18일. 춘억이 봉산으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북쪽 배나무에 까치가 집을 지었기로 그 가지를 꺾어서 헐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북쪽의 까치집은 집에 해롭다고 하기 때문이다. 어제 통발을 친 곳에 천어 25마리가 잡혔고, 또 삭영의 향리로서 부역을 피해서 서쪽 이웃에 와 있는 자가 물고기 40여 마리를 잡아 왔으므로 간장 1사발을 주었다. 전일에 한 번 가져왔을 때는 쌀 1되로서 갚았기 때문에 또 이같이 가져왔으니 필시 뜻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밭에 삼씨를 뿌린 것은 집 앞억수의 밭에 4되, 전업의 밭에 5되, □□ 밭에 2되 5홉을 뿌려, 도합 1두 1되 5홉을 뿌렸다. 저녁에 춘기가 현에서 돌아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어사는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어제 맞아들여서 보니 몹시 기뻐하고 후한 뜻을 베풀더라고 한다. 어찌해서 전일에는 심하게 노여워하다가 지금은 서로 즐겁게 대우하는가. 필시 남의말이 있어서일 것이니 가소로운 일이다. 꿩 1마리・천문동・정과 조금을 보내왔다.

19일. 어머님께서 감기에 걸리시어 콧병도 나시고 천담이 몹시 중하신 지 이제 이 미 사흘인데 식사가 아주 감해졌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중금의 밭을 병작하는 사람들이 조종자를 받아 가지고 갔다. 다만 아직 찰방이 금년에도 또 경작을 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씨를 뿌려 두었다가 후일에 허락할지 아닐지를 물어보아 야겠다. 덕노, 김담으로 하여금 채소밭을 갈고 각색 채소 씨를 뿌리게 했다. 또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채소밭 울타리를 하게 했다.

20일. 어머님의 기후는 오늘은 차도가 있으시나 아직 쾌하지는 못하시다. 어제저 녁에 안악에 사는 계집종 복시의 둘째 아들 천수가 와 보고 말하기를, 신홍점의 침

해를 받아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장차 보존할 수가 없어 어머니를 모시고 온집이 그 집으로 돌아가려 하므로 형세가 그 말을 쫓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석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그 어미는 지난해에 병으로 죽었다 한다. 필목 9척, 가자미 1묶음을 어머님께 갖다 드렸다.

21일. 어머님의 기후는 아직도 쾌차하지 않으시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유 어사가 영동에서 사장을 낸 뒤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곳을 지나갈 때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물었다. 또 들으니 문 어사는 홍문관 수찬이 되어 그저께 서울로 돌아갔다 한다. 오후에 비가 내려 밤에 이르기까지 개지 않는다. 보리, 삼밭, 채소밭에 가장마땅하니 기쁘다. 저녁에 춘기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은 내일 근친 온다고 한다. 꿩 1마리 · 여항어 6마리 · 생파 · 묵숙 · 세미 1두 · 뀰 2되 등 물건을 보냈다. 언명의 종 개금이 구제의 물품을 얻기 위하여 역시 현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밭쌀 1두, 보리 2두를 얻어 왔다. 이제 정시의 방을 보니 뽑힌 자 10인인데 윤해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으니 때가 오지 않았는가, 운명이 막힌 것인가. 한탄한들 무엇하라. 다만 윤함은 말이 없이 갔으니 어떻게 온단 말인가. 깊이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재영 · 이안눌 · 이경익 · 이형원 · 목장흠 · 윤양 · 유성 · 임업 · 이선복 · 백대형이 합격되었는데, 이선복은 이경천의 아들이니 몹시 기쁘고 위로가 된다. 경천은 곧 이장수의 처남으로서 한 집안과 같기 때문이다. 그 조부는 나이 80이 지나 관서에 가 있으니 그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이재영은 서출이어서 삭제되었다.

22일. 어머님의 기후는 나아갔으나 오히려 아주 쾌하지 못하시니 민망스럽다. 통발에 잡힌 천어는 수달이 다 먹고 겨우 10여 마리를 얻었다. 생각하기에 밤비로 물이 불어서 필시 많이 잡혔을 것인데, 얻은 것이 이것뿐이니 탄식스럽다. 김언보가천어 30여 마리를 가져왔다. 저녁에 윤겸이 근친 왔다. 못 본 지가 이미 두어 달인데 이제 만나 보니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백미 5두·중미 5두·소금 5두·꿩 2마리를 가져왔다. 소금은 유 어사(유공진)가 우리 집에 준 것인데 1섬에서짐이 무거워 다만 5두만 가지고 왔다 한다. 이것으로 간장을 담글 수 있겠으니 기쁘다

23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으시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이 마을 근처 사람이 서

울에서 왔는데 윤해가 마침 보고서 편지를 보냈기에 보니, 중국 군사가 아직도 도성 안에 가득하여 서울에 하루 머무르기도 몹시 어렵고 괴로워서 돌아오고자 하나 종과 말이 없기 때문에 춘기로 하여금 말을 가지고 가정자에 보냈다고 한다. 전일에 아노 개질지, 세만 등이 말을 가지고 서울에 갔으니 돌아올 때 반드시 타고 올것이다. 이 때문에 춘기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정시의 서제(書題)는 "唐山人李海謝命作蓬萊院表"였는데, 시한이 사시(已時)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하여 성편(成篇)한 자가 많지 못하다고 한다. 윤해, 윤함도 필시 미처 짓지 못한 것이다. 매로 꿩 2마리를 잡아 왔다. 최 판관이 윤겸에게 와 보기로 나도 역시 나가 보고 수반을 대접했다. 김린도 역시 참여했다. 통발 친 곳에 수달이 어제 밤에 또 와서 모두 헐고 잡힌 고기를 다 먹었으니 몹시 밉다. 김담으로 하여금 덫을 놓게 했으니 반드시 잡히고 말 것이다.

24일. 어머님의 기후는 전과 같으시어 음식이 전보다 많이 줄었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근일에 시령(時令)(돌림병)이 성행하여 언명의 두 아이 및 동쪽 집 아이들이밥을 먹지 않고 앓으며, 후임도 또한 앓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윤겸은 현으로 돌아가고 나는 언명 및 인아와 함께 뒤 정자에 올라가 구경하다 냇가로 내려와 발을 씻고서 또 백비암에 올라 한참 동안 멀리 바라보니 시내의 버들은 푸르고 산의 꽃은피기 시작하여 눈에 들어오는 봄빛이 정히 술 마시기에 좋은데 집에 한 방울도 없어서 삼춘(三春)을 그대로 보내게 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현리 민득문 및 덕노를함께 봉산에 보냈는데 이는 그길로 평양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한 것이다. 편지를써서 함열의 집에 보냈는데 아무것도 보낼 것이 없어서 다만 말린 산삼, 도라지 조금을 보냈다.

25일. 어머니 기후는 전과 같고 아직도 쾌차하지 않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통발에 잡힌 천어가 거의 3, 4사발이나 된다. 덫을 놓은 후로 수달이 오지 못하는 때문이다. 언신을 현에 보냈는데 보리씨를 얻어 오기 위해서다. 화전을 부쳐서 천신한 후에 상하가 함께 먹었다. 다만 기름 얻기가 몹시 어려워서 겨우 얻어서 천신했다. 전풍의 밭 조를 뚜드렸더니 9두가 났는데 아직 다 뚜드리지 못했다.

26일. 윤해가 어제 윤함과 함께 현에 이르러 하루를 머무르다가 오늘 비로소 왔는

데, 윤함은 아직도 현아에 머무른다고 한다. 언신은 보리씨 8두를 가지고 왔다. 어머님 기후는 오늘은 차도가 있으시나 다만 아주 쾌하시지는 못하다. 또 윤해에게 들으니 서울에 들어온 중국 군사들이 방자하고 꺼리는 것이 없어, 양반, 상인을 가릴 것 없이 난타하고 욕을 하며 재산을 약탈해서 사람들이 보존할 수 없다고 하니 탄식할 일이다.

27일. 어머님의 기후는 소복되시어 대세는 이미 덜하시고 식사도 차츰 더 드시니이로부터 아주 쾌차하실 것 같다. 몹시 기쁘다. 조인손의 밭을 갈고 보리 3두, 깨 3되를 뿌렸으니 곧 하루갈이이다. 늦은 후에 언명 및 인아와 함께 걸어서 가 보고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28일. 언춘의 밭을 갈았다. 하루갈이이다. 늦조 3되 5홉을 뿌렸다. 통발에서 천어 1사발, 전업이 40여 마리를 잡아 왔다. 삭녕에서 도망해 온 아전이 또한 큰 고기 15마리를 가져왔다.

29일. 조련의 밭을 갈았으나 끝내지 못했다. 식사 후에 아우 및 두 아이와 함께 가보고, 그길로 상암굴에 가서 보니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내가 있어 졸졸흘러나오고, 굴 옆에는 또 고찰의 터가 있는데 혹은 말하기를 이 굴은 이천 땅에서 나왔다고 한다. 오후에 돌아왔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요새 근친 오겠다고 했다. 새 책력 1권, 대구 1마리, 말린 여항어 3마리를 보내왔다.이제 새 책력을 보니 한식은 지난 12일이다. 우리나라 책력을 보지 못하고 전에 모두 11일이라고 해서 11일에 제사를 지낸 것은 잘못이었다. 가소로운 일이다. 다만 중국 책력만 보았는데, 중국 책력에는 한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조보를 보니, 순화군이 강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놀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대론에까지나왔는데, 이는 잔치하고 놀 때의 일이 아니고 연전에 이조의 서리를 때려죽이고서 겨우 매듭을 지었는데 이제 또 사람을 죽였다니 그 두려워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시에 장원한 이재영은 천인 학금의 아들이라고 해서 삭제하고, 심지어 그 아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사관(四館)에서도 역시 논파했다 한다. 무과에 장원한 권승경 역시 서얼이라고 하더니 또 서울에서 온 사람에게 들으니 파방했다고 하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믐날.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갈았으나 씨 뿌리는 것은 끝내지 못했다. 저녁에 내가 가 보았다. 집사람이 딸들을 데리고 비로소 윤해의 집에 갔다가 그길로 동대에 올라 꽃구경을 하다가 돌아왔다. 다만 바람이 무서워서 장의로 머리를 싸매어 겨우 눈만 내놓고 보니 가소롭다. 그러나 오랜 병의 끝에 비로소 출입했으니 역시위로가 된다.

## 4월

1일, 어제 끝내지 못한 밭에 씨를 다 뿌렸는데, 피 1두 5되를 뿌렸다. 이틀갈이이 다. 윤겸이 그 어머니 먹을 팔물원을 지어 보내서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다. 동대 건너편 언덕 위에 깨 심을 만한 곳이 있기에 두 사람을 시켜 나무를 베고 닦아 놓 았다가 다음 날 갈고 씨를 뿌리려 했다. 함열[신응구]의 종들 5명이 말을 가지고 왔으니 곧 영동에 가서 어물을 사기 위해서 여기에 들린 것이다. 자방의 편지를 보 니 재령으로부터 봉산 종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평양 죽은 종의 전답은 이미 팔아서 포목 20필·아청 2필·아청 새 것·새 천익 1개· 황소 1마리를 받았는데, 소는 아직 그곳에 머물러 두어 먹이고, 그 나머지 물건은 지금 온 종에게 보냈으니 몹시 기쁨을 어찌 이루 다 말하랴. 만일 함열이 친히 가 지 않았으면 반드시 남에게 속임을 당했을 터인데 함열이 마침 일이 있어 그곳에 가게 되어 그 계제에 판 것이다. 전답은 모두 그 일가들이 샀다고 한다. 평상시에 는 그 값이 이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관인과 덕노가 이 때문에 갔으나 중 로에 길이 어긋나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소는 필시 끌고 올 것이다. 전답을 판 숫자는 함열이 써서 보냈다. 아차도의 밭 반일 갈이 · 암소 1마리 · 집 앞 의 삼밭 포목 9필 · 피밭 반일 갈이 · 포목 9필 · 밭 하루갈이 · 아청 2필 · 포목 6필 인데, 이 밭은 몹시 나쁘기 때문에 값이 적다고 한다. 논 7두락, 포목 2필, 아청 천 익 새 것은 포목 5필로 계산했다. 또 밭 반일 갈이는 묵어서 살 사람이 없다고 한 다. 또 밭 2자리는 막정이 있을 때 이미 팔았다고 한다. 또 논 2두락은 당초 팔 때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않았는데 마땅히 다시 막정의 형에게 물어보겠다고 한다. 안협에 사는 연수가 꿩 1마리, 파 등을 가지고 왔기에 대구 1마리로 갚았다.

- 2일. 최중운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형제를 청했으므로 늦은 후에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가다가 중로에서 비 뿌리는 것을 만났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 크게 내린다. 최의 집에서는 화전을 부쳐 먼저 대접하고 다음으로 수반을 주어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해가 기운 뒤에도 비가 오히려 개지 않아 우비를 입고 돌아왔다. 윤겸이 아내와 첩을 데리고 이미 먼저 집에 도착해 있는데 비를 맞고 왔다고 한다. 올 때 백미 5두ㆍ중미 10두ㆍ밭쌀 5두ㆍ대구 3마리ㆍ가자미 2묶음ㆍ말린 여항어 4마리ㆍ법유 2되ㆍ잣 5되를 가지고 왔다. 이는 곧 그 처자들이 근일 머물러 있을 양식이다. 소주 5병도 또한 가져왔다.
- 3일. 매 2마리가 꿩 5마리를 잡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품관의 매를 올 때 빌려 가지고 온 것이다. 늦은 후에 집사람이 여러 딸들을 데리고 울방연에 가 보고 한동안 완상하다 돌아왔다. 이 못은 집 앞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꽃이 만발하고 푸른 버들이 늘어졌으며, 맑은 물이 거울처럼 비치고 흰 돌이 가로세로 있어 기절한 곳이다. 그러나 술과 안주가 없이 그대로 갔다 왔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 4일. 집사람이 근일에 또 왼쪽 어깨를 앓아 비록 크게 아프지는 않지만 여러 날 차도가 없으니 걱정스럽다. 통발에 잡힌 천어가 두어 사발이나 되는데 그중에 금린어가 2마리나 섞였고 1마리는 거의 반 자가 넘는다. 늦은 후에 여러 아이와 언명을데리고 직동 동구에 올라가서 최 판관을 맞아다가 매 날리는 것을 구경하다가 꿩 2마리를 잡고, 연한 나물을 따서 탕을 만들고 꿩을 구워서 점심을 지어 같이 먹었다. 해가 기울어서 윤겸과 윤함은 먼저 돌아오고 나는 아우 및 두 아이와 함께 최를 붙들어 머물게 하고 또 매 날리는 것을 보다가 꿩 2마리를 잡아 1마리는 최에게주고 저녁때 돌아왔다. 관의 둔전을 갈고 피 2되 9홉을 뿌렸다.
- 5일. 윤겸은 안협 저전에 가서 유 어사를 찾아보고 돌아왔다. 박언수의 냇가 밭을 갈고 피와 깨를 뿌렸다. 다시 사동의 밭으로 옮겨 갈았으나 끝내지 못했다. 하루갈이다. 오후에 내가 가 보고 돌아왔다. 계집종 옥춘이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그 딸향비의 종기는 아직 차도가 없고 오래 토당 묘하에 있어서 얻어먹기가 어려워서 양식을 얻으려고 윤해의 종 안손과 같이 왔다. 전에 들은 파방 이야기는 헛소문이었다.

6일. 윤겸이 제 아내와 첩을 데리고 현으로 돌아가는데 인아가 모시고 갔다. 전귀실이 햇고사리 5묶음, 김업산이 당귀초 3묶음을 가져왔다. 햇것이기 때문이다. 대접할 물건이 없어서 각각 쌀 1되씩을 주어 보답했다. 윤겸이 중간쯤 가다가 매를 날려 꿩 2마리를 잡아 보냈다.

**7일.**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제사에 쓸 중계를 만들어 보냈다. 녹두가루 2되도 역시 보내왔다. 내일은 곧 절일이요, 또 죽은 딸의 담사이기 때문에 찬을 준비하여 제사 지내려 한다.

8일. 날이 밝을 때 윤해가 윤함과 제사를 지냈다. 3년이 이미 지나고 담사도 역시 마쳤으니 이로부터는 삭망도 비로소 그치게 되었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더욱 몹시 비통하여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슬프다. 지난 밤에 통발에 걸린 천어를 새벽에 어떤 사람이 모두 훔쳐갔으니 필시 이웃 사람의 짓이라, 몹시 밉지만 어찌하랴. 전일에 원적사의 중이 간장 2석을 가져왔다. 관의 명령이다. 7두는 아우의 집에 주었다. 우리 집 종들이 담그는 간장은 아직 다 되지 않았다.

9일. 지난밤 꿈에 이자미를 보았는데 완연히 평시와 같았다. 깨고 나서 옛 일을 생각하니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언신이 아침에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모레쯤 영동에 간다고 했다. 가자미 10묶음 · 알 2사발 · 생문어 반 짝을 보내왔다. 종자콩 1석은 받아서 두고 왔다고 한다. 전일에 다 갈지 못한 사동의 밭을 다 갈고 차조 4되를 뿌렸다. 속담에 말하는 염주 차조이다. 오후에 언명과 가 보고 돌아왔다. 누에를 비로소 쓸어 내렸다.

10일. 집사람의 어깨 아픈 것은 아직 쾌하지 않아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말할 수 없다. 사동의 묵은 밭을 다 갈고 조 2되 5흡을 뿌렸다. 하루갈이이다. 오후에 내가가 보았다. 현리 민득문이 덕노와 평양에 갔는데 돌아올 때 중로에 말이 병이 나서 같이 오지 못하고 이제 비로소 왔기에 편지를 써서 현에 보냈다. 신수함이 준 어미 벌이 아기벌을 낳아서 동쪽 울타리 옆 배나무 위에 붙었기에 억수를 시켜 받게 했더니 다 들어가지 않고 놀라서 흩어져 달아나 동대 옆 늙은 나무 등걸에 붙은 것을 겨우 받아서 앉혔다. 거의 잃을 뻔하다가 도로 얻었으니 기쁘다. 분량의 수는 거의

5, 6되나 된다고 한다. 망일에 사는 전업석이 목두채 및 고비나물을 가져오고, 김 업산 및 덕복의 처가 햇고사리와 당귀를 역시 가져왔다. 저녁 식사에 국을 끓이고 구워서 함께 먹었다.

11일. 모래땅 오래 묵은 곳을 갈고 참깨 및 찰기장을 뿌리는데 끝내지 못했다. 늦은 때 가 보았다. 김 주부 명세가 와서 보았다. 무용위로 서울에 가서 번을 서다가 그 저께 내려왔다고 한다. 함열의 종 몽숭이 봉산에서 왔는데 자방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다. 상례가 또 편지를 보내 묻고 또 백필 1자루를 보냈다. 마침 얻으려할 때에 보내 주었으니 깊이 감사하다.

12일. 남쪽 울타리 밖의 밭을 갈고 토란 및 상추를 갈았다. 병아리 30마리를 내렸다. 김언희가 천어 아주 큰 것 15마리를 가져왔다. 미역 1꽂이로 보답했다. 삭녕에서 도망 온 아전이 서쪽 이웃에 와서 사는데, 그 집에 제사를 지냈다고 남은 술과떡 및 반찬을 소반에 갖추어 가져왔기에 황태 6되로 보답했다. 이 아전은 지난해부터 일을 피하여 와서 사는 자이다. 윤겸이 미역 5동, 대구 2마리, 생전복 60개를보냈다. 저녁에 인아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들으니 제 형은 오늘 떠나서 영동으로향했다고 한다. 일찍이 염분의 책임을 맡았으므로 그길로 풍악(금강산)을 보고자해서이다. 통천으로부터 강릉으로 돌아서 온다고 한다. 심양덕이 역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13일.** 지난해에 수확한 것을 거의 다 먹고 다만 피 두어 섬만 남았는데, 이 밖에는 다시 얻을 길이 없으니 많은 식구에 앞날의 일을 말할 수가 없다.

14일. 전에 갈다가 끝내지 못한 묵은 밭을 갈고 외꽃조, 찰기장 및 참깨 등 각각 조금씩을 심었다. 이는 모두 하루갈이이다. 오래 묵은 모래밭에는 기장, 조, 깨 등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하기에 갈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깊이 갈지 않았으니 필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힘을 버리는 셈 치고 시험해 본 것이다. 현의 장무가보리쌀 2두, 꿩 3마리를 보냈다.

15일. 집 앞 언방의 밭을 갈고 참깨 1되 5홉을 뿌렸다. 곧 반일갈이이다. 인아가 물고기 54마리를 낚아 왔기에 쪼개서 말리게 했다. 저녁에 함열의 종 등이 어물을 사 가지고 와서 자고 내일 봉산에 간다고 하기에 편지를 보냈다. 채억복이 당귀 나

물과 고사리 등 채소를 가져왔는데 함열 종이 떠나기 전에 대지 못해서 한스럽다. 언방의 밭 사이에는 청태 3되를 심고, 찰사탕도 역시 심었다.

17일. 윤함이 어제 새벽부터 곽란을 만나 종일 밤새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그치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나도 또한 감기가 들어 비록 누워 앓지는 않아도 기운이 자못 불편하다. 덕노를 시켜 암소를 끌고 현에 보내어 씨콩을 실어 오게 했다. 윤함이 앓고 난 뒤에 입이 써서 배를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 한 집안 세 노비를 시켜 조인손의 보리밭에 청태 2두 9되를 심도록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뒷날에 상태 6되를 심었다.

18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다. 이로 인해 밭을 갈지 못하고 소를 놀렸다. 신수함의 벌통에서 또 벌 1통이 나서 김업산으로 하여금 받게 했더니 절반 이상이 흩어졌다가 도로 와서 이를 받아 윤해의 집에 주어 기르게 했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왔는데 콩 씨 및 장무가 보내는 꿩 1마리와 나물 등을 가져왔다. 근일에 시령(돌림병)이 몹시 성행해서 윤해의 처자 및 이곳 식구들도 모두 아프고 나도 역시 편치 않아 아직도 쾌하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19일. 윤해가 우리 집 소를 빌려다가 그 못다 간 밭을 갈았는데, 또한 하루갈이의 밭이 있으나 힘이 부족해서 갈지 못하고 날더러 갈라고 하기 때문에 내일 갈 작정이다. 박번의 보리밭에 황태 1두 4되를 심었다.

20일. 집사람의 어깨 아픈 것은 아직도 쾌차하지 않아 지난밤에는 새벽까지 아프 다고 하고, 음식이 전혀 감해지고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근심되고 민망함을 어찌 다 말하랴. 소의원을 불러다가 소의 발 저는 곳을 고치는데, 송진과 밀을 섞어서 호미자루로 구멍 난 곳을 지졌다. 윤해의 갈지 않은 언방의 밭을 갈았으나 끝내지 못했다. 먼저 이른 기장 2되, 늦은 기장 1되를 뿌렸다. 신수함의 벌통에서 또 새끼 벌이 나서 전에 붙었던 배나무 위에 붙었기에 박언방을 시켜서 받아다가 앉혔는데 겨우 3되 남짓하다. 이것이 세 번째 난 것이다.

21일. 어제 끝내지 못한 언방의 밭을 갈고, 늦은 피 8되를 뿌렸다. 곧 하루반 갈이이다. 다만 흰 모래땅이어서 만일 늦가뭄을 만나면 반드시 좋지 않을 것이니,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을까 걱정이다. 저녁에 김담이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남매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다. 다만 영암 임매의 부음을 들으니 놀라고 슬픔을 이기 지 못하겠다. 지난달에 춘희가 왔을 때 누이의 편지를 보니 말하기를, 이제 상기 가 되는 증세를 얻어 밤이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호흡이 짧고 촉박하니 꿀 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기에, 내 생각으로는 변을 당한 후에 심려를 많이 해서 이 병이 생긴 것이라고 했더니 어찌 두어 달도 지나지 못해서 이런 지극한 일에 이를 줄 뜻했으랴. 길이 몹시 멀고 집에 말 한 필 종 하나도 없어서 달려가서 곡도 하지 못하니 애통해한들 무엇하랴. 그곳에는 역시 동생이나 친척이 없이 다만 노복들이 곁에 모실 뿐이니 누가 능히 염습해서 묻는단 말인가. 더욱 몹시 통곡스러운 일이 다. 우리 동복 7남매에 둘째는 아우요. 다음은 심매(沈妹)인데 모두 나이 30도 되 기 전에 일찍 죽었고, 김매(金妹)는 난리 후 갑오년에 병으로 죽더니 이제 임매가 또 천 리 밖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형제와 남매가 있을 뿐이다. 늙은 어머님 께서 살아 계신데 먼저 죽은 자가 반이 넘고. 더구나 내가 가장 어른으로 나이 이 미 60이 지나 앞길이 멀지 않았으니.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보면 앞으로 몇 해나 되 겠는가, 매양 늙으신 어머님으로 해서 걱정이다. 어머님께서 만일 임매의 초상을 들으시면 반드시 애통해 식사를 폐하고 몸을 상하시겠기에 숨기고 말씀드리지 않 았다. 이달 7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을 시켜 임정자(林正字) 현에게 부고를 하 여 곧 내려와 일을 보아달라고 했다 한다. 남북이 멀리 떨어져 있어 병에는 약을 써 보지도 못하고 죽어서는 친히 염습도 하지 못하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애통함 이 더욱 지극하다.

**22일.** 암소 및 저는 소로 시험 삼아 김담으로 하여금 그 밭을 갈아보게 했다.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한 것인데 비록 많이는 못 갈아도 단단치 않은 땅은 갈 만하다고 한다

23일. 현에서 사람이 와서 관아의 소식을 전하고 꿩 1마리, 조기 3마리를 가져왔다. 윤겸이 간 후에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집에서 기르는 닭 3마리를 일시에 함께 잃었는데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괴기한 일이다.

**24일.** 임매의 부음을 들은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이른 아침에 아우 및 세 아들을 데리고 윤해의 집에 모여서 곡을 했다. 우리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어머님께 들릴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25일. 인아가 또 김언보의 밭을 갈았으나 씨 뿌리는 것은 마치지 못했다. 신수함의 벌통에서 또 새끼벌이 나서 배나무 위에 붙었기에 잡아서 앉혔다. 네 번째 난 벌로서 분량은 3되가 된다. 지난밤에 김담 및 이웃 사람 4, 5명이 횃불을 밝혀 가지고 앞내에 가서 물고기를 쏘아 잡아 혹은 1사발, 혹은 1접시를 가져왔기에 그대로 도로 주었다. 물고기 잡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은 불을 들고 여러 사람이 횃불을 끼고 가면서 나무 활과 나무 화살로 쏘아서 잘 쏘는 자가 많이 잡는다. 그러나 물고기가 혹 허리도 꺾이고 혹 몸이 상해서 전체로 있는 것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

**26일.** 어제 못다 간 밭을 갈고 또 늦은 피 2되 5홉을 뿌렸으니 하루갈이이다. 또 지난해에 심었던 깨밭으로 옮겨 갈고 늦은 조 2되를 뿌렸으니 이틀갈이이다.

27일. 이웃사람 경이의 장인이 석이 1두를 가져왔다. 모레 기제에 쓸 작정이니 몹 시 기쁘다. 다만 줄 물건이 없으니 한스럽다. 홍 참봉 매가 종과 말을 보내서 콩과 팥을 바꿔 갔다. 홍이 편지를 해서 물었기로 역시 답장을 해 사례하고 또 잣 3되 를 보냈다. 온 종은 곧 그 아버지 참판 영공이 앞에 부리던 사환으로 이제 그를 보 고 옛 일을 생각하니 슬픈 회포를 견디기 어렵다. 이웃사람 박언방이 서울에 갔다 가 돌아왔는데 남매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한다. 중국 장수는 이미 다 서쪽으 로 내려갔고, 홀로 만 경리만이 진에 머물러 있을 뿐, 여러 군사들도 역시 모두 돌 아가고 서울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또 임정자 현의 편지를 보니 영암 임매는 이달 초 5일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초상과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마땅히 그믐께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 도 예로 의당 장례에 가야 할 것이나 집에 말 한 필도 없으니 반달이나 걸리는 거 리에 형편이 가지 못하겠으니 이 사이의 비통한 회포를 말할 수가 없다. 처음 들었 을 때는 7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니 이제 현의 편지를 보니 곧 5일로서 먼저 들 은 것은 잘못이었다. 현에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 장무의 기록을 보니 백미 1두 5되·찹쌀 3되·목미 1두·가루로 만든 것·잣 1되·호도 1되·개암 4홉·꿀 2되·참기름 5홉·대구 2마리·말린 꿩 1마리·산 꿩 2마리·가자미 1묶음·감장 1두·간장 2되·미역 3묶음·다시마 4조각·석이 1두·각색 채소·중박계 86알 을 보내왔다. 언신이 그 어미와 함께 당귀초 각각 2묶음 · 김언보가 1묶음 · 김업산이 고사리 2묶음을 가져왔다. 두부 콩 1두 5되를 원적사에 보내서 두부를 만들어왔다. 곧 모레 제사에 쓸 것이다.

28일. 딸들이 여러 계집종들을 데리고 제사에 쓸 찬을 준비했다. 현의 장무가 여항 어 10마리, 말린 것 6마리를 보냈다. 곧 내일 제사에 쓸 것이다. 이은신이 와서 보 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전일에 청했기 때문이다. 조 좌랑 익이 명령을 받들고 함경도에 갔다가 돌아올 때 현에 들려서 윤겸을 만나려 했으나 윤겸이 마침 없어 서 무료하므로 편지를 보내 물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사례했다. 조는 곧 이 찰방 빈의 사위로서 윤겸이 사마시에 장원할 때 일찍이 서로 알아 교분이 두터운 사이. 이다. 김언보가 천어를 잡아 가져왔는데 거의 3, 4사발은 되겠다. 제사에 쓰련다. 29일. 밝을 무렵에 아우와 세 아들 및 붕질을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 삼색 실과 · 이색 떡 및 어육구이 · 포혜 · 양색 정과 · 오색 소탕 · 양색 어육탕 · 삼색 어육구 이 · 반상 제구 · 반갱으로 지내고 남은 음식은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 과 떡을 주어서 보냈다. 또 떡과 어육구이를 최 판관의 집에 보냈다. 늦은 후에 이 은신이 현으로 돌아가기에 말장 1두를 주어 보냈다. 윤해가 옥동역에 갔으니 조 좌 랑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들으니 조는 이천 길로 향했다고 한다. 유해가 저녁에 조 를 만나 보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조는 그 장인 이 찰방 빈이 이미 떠나간 것을 알 지 못하고 만나 보려고 왔던 것인데 이제 있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로 윤겸에 게로 가서 잔 뒤에 내일 철원으로 갔다가 그길로 서울로 간다고 한다. 요새 가뭄이 몹시 심해서 보리가 여물지 않고 먼저 심은 곡식은 모두 싹이 나지 않고. 콩은 비 가 내린 후에 심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심지 않았다. 만일 초승에 도 비가 오지 않으면 보리는 누렇게 말라서 모두 버리고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한 다. 우리 집은 박번의 밭에 먼저 심은 콩은 꿩과 비둘기가 다 쪼아 먹어서 하나도 없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 윤4월

1일. 김언보의 밭을 갈고 적두를 심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오후에 내가 친히 가서

보고 돌아올 때 이미 심은 밭을 돌아보았더니 혹은 이미 싹이 나기도 했고 혹은 나지 않은 곳도 있다. 다만 조인손의 밭에 심은 콩은 꿩과 비둘기가 절반이나 쪼아먹어서 보충해 심은 후에야 수확을 잃지 않을 것이다.

- 2일. 어제 못다 간 언보의 밭을 갈았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개비로 하여금 조인 손의 밭에 콩 11되를 보충해 심었다. 최 판관이 와서 보기에 수반을 대접하고 조용 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 돌아갔다.
- 3일. 언보의 밭을 갈아 오전에 끝내고 팥 9두 4되를 뿌렸다. 오후에 내가 가 보고 돌아왔다. 다만 가뭄으로 인해 갈지 않은 콩밭도 있었으니, 비록 먼저 간 팥밭이라도 반드시 싹이 나지는 않았고, 비록 난 것이라도 반드시 드물게 나서 영글지 않는 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비록 이미 이삭이 난 것이라도 누르게 말라 영글지 않았으니 탄식스럽다. 윤겸이 간 지 이제 20여 일에 이르렀는데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걱정스럽다. 요새 양식과 반찬이 모두 떨어 져서 콩과 팥으로 보용하고 있는데 앞의 일을 말할 수가 없다.
- 4일. 현에서 사람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간성에 이르러서 지난 20일에 써 보 낸 것으로서 아직 무사히 돌아와서 아마 이달 열흘께 현에 돌아올 것이나 그때 풍 악을 구경한다고 했다.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깨밭을 매게 했다. 다만 가뭄이 너 무 심하여 밤에는 춥고 낮이면 서남풍이 종일 그치지 않고 불어서 누른 티끌이 해 를 가리니 산골짜기 속 밭곡식은 오히려 비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의 논에도 필 시 아직 심지 못하고 때를 넘긴 것이 많을 것이니 올 농사도 또한 영글지 못할 것 을 알 수 있으니 민생이 극도로 걱정스럽다.
- 5일. 새벽에 비가 뿌리더니 늦은 후에는 도로 개고 바람만 계속 불어 가뭄의 해가 몹시 내리쬐니 농사가 몹시 걱정스럽다. 집사람이 누에치는 것은 이미 석잠이 지 났고, 딸들의 누에는 바야흐로 석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로부터 날마다 뽕을 따기에 사람과 소가 여가가 없을 것이다. 조밭은 아직도 풀을 매 주지 못했고, 콩밭은 전혀 씨를 뿌리지 않았으며, 다만 팥밭 2일 갈이는 역시 다 갈지 못했는데 양식이 이미 다되었으니 말할 수가 없다.
- 6일, 존광 등이 채억복의 밭을 갈고 팥을 심다가 끝내지 못했다. 두 종이 소를 가

지고 이른 식사 후에 점심을 싸 가지고 멀리 가서 뽕을 따 가지고 실어 왔다.

7일. 어제 못다 간 채의 밭을 다 갈고 팥 4두를 심었으니 2일 갈이이다. 전일에 들으니 안협 땅에 조그만 암자를 산허리 바위 밑에 지었는데 맑고 깨끗하여 볼 만하다고 하므로 간절히 가 보고자 했더니 그 밑에 사는 부자 연수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두부를 해 놓고 나를 청하므로 아우 및 인아를 데리고 같이 가고자 했으나 마침 말이 없어서 나는 홀로 소를 타고 아우와 인아는 걸어서 갔다. 여기에서 거리가 겨우 5리여서 멀지 않기 때문이다. 암자 앞에 이르니 소나무가 누워 바위를 덮었는데 그 밑에 앉을 만하기에 앉아서 다리를 쉬면서 잠시 둘러앉아 있으려니 늙은 중 3명이 와서 맞는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모든 산들이둘러 구부리고 있고 땅에 가득한 민가들은 역력히 셀 수가 있다. 그 바위는 높이가백 길이나 되는데 나는 마음에 두려워서 가까이도 가지 못하겠다. 연수도 역시 나와 맞아서 절로 들어갔더니 밥을 짓고 두부를 차려 내왔는데 연하고 좋아 먹을 만하다. 나는 34곳을 먹고 몹시 배가 불러서 그만두었다. 나와서 소나무 아래 앉았노라니 중들이 또 10여 곳을 구워 내오고, 또 짚신 1켤레를 주는데 역시 정하고 좋아서 신을 만하다. 이에 여러 사람들과 걸어 평지로 내려와서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8일. 세 사람으로 하여금 소 2필을 가지고 가서 뽕을 따서 싣고 오게 했다. 이제 누에가 석 잠을 자고 나면서부터 1바리의 뽕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바리를 보낸 것이다. 비로소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풀을 매게 했다. 근일에 양식이 떨어져 콩, 팥, 밀가루를 섞어서 아랫것들 에게 주니 탄식스럽다. 아침부터 비를 뿌리더니 이내 볕이 쬔다. 삼과 보리가 마르고 누르니 올 농사가 걱정이다.

9일. 또 세 사람으로 하여금 소 2필을 가지고 이른 식사 후에 점심을 싸 가지고 가서 뽕을 따서 싣고 왔다. 집사람이 치는 누에는 한 칸치가 오늘 비로소 섶에 올랐다. 또 두 계집중을 시켜서 풀을 맸다. 오후에 현리가 왔는데, 사슴의 앞다리 1짝, 갈비 1짝을 가져왔다. 이는 곧 장무가 보낸 것이다. 즉시 갈비 반 짝을 갈라서 최판관의 집에 보내고 겸해서 편지를 해서 문안했다. 다만 윤겸은 아직 돌아온다는 소식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갔다 오는 거리를 따져 보니 사흘을 벗어나지 않겠

다. 윤해가 제 아우와 함께 물고기를 낚아 40여 마리를 얻어 왔기에 즉시 쪼개서 소금에 절여 말렸다.

10일. 어제 오후부터 혹 비도 내리고 혹 개기도 하여 밤새 그치지 않더니 오늘 아침에 이르러서는 때로 크게 내리다가 오후에 비로소 갰다.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오래 가문 나머지 비를 얻으니 전곡이 거의 소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종과두 계집종을 보내서 뿡 1바리를 따 왔다. 비로 인해서 많이 따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집사람의 누에는 이제 다 올랐다. 현의 문안인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어제 무사히 관에 돌아왔는데, 통천으로부터 여러 고을을 돌다가 강릉에 도착하고지나는 경치 좋은 곳을 돌아보고, 돌아올 때는 금강 내외산에 들어가서 구경하고돌아왔다고 한다. 강릉에 있을 때 심열을 만났기 때문에 열도 또한 편지를 하고, 겸해서 대구 3마리・생전복 40개를 보냈다. 윤겸도 또한 대구 15마리・생전복 1백개・미역 3동・잔미역 3동・대도어 20마리・절인 황어 10마리・송어 3마리・말린 문어 3마리・방어 반 짝・말린 홍어 1마리 및 중미 5두・밥쌀 5두・소금 1두를 실어 보냈다. 오래 먹지 못하던 나머지에 온 집안과 함께 저녁 식사에 함께 구워 먹었다.

11일. 세 종이 두 소를 가지고 오늘도 또 뽕을 따러 갔다. 계집종 옥춘이 현에 들어 갔다. 서울에 갈 양식을 얻기 위해서이다. 편지를 써서 보냈다. 박언수의 밭을 갈고 콩을 심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곧 사흘갈이이다.

12일.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갈았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오늘도 역시 소 2마리를 가지고 두 사람이 뽕을 따러 갔는데, 가득 싣지 않았으니 몹시 밉살스럽다. 행랑에 사는 두 계집종들도 역시 누에를 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반을 나누어서 사사로이 차지했다니 더욱 밉다. 옥춘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말하기를, 영동에는 생선과 미역이 몹시 귀해서 사온대도 필시 남는 것이 없고 도리어손해를 볼 것이니 할 일이 아니라고 하므로 그 계획을 중지하려 한다. 남매의 암소가 저녁에 수송아지를 낳았다.

13일. 현리가 이천에서 돌아올 때 이천태수가 보낸 눌어 1마리, 금린어 1마리를 보냈다. 이는 곧 윤겸이 편지를 보내 얻은 것이다. 금린어도 도로 아내로 보냈다. 어

제 끝내지 못한 밭을 다 갈고 황태 4두와 소태 8두를 다 심었다. 저녁에 이훤이 와서 보았는데, 이는 곧 처사촌 원성군의 손자로 봉림수의 아들로서 이 현에 사는 좌수 권수의 데릴사위로 와 있는 자이다. 훤은 곧 종실의 내외거족이지만 지금은 지극히 미천한 사람의 사위가 되었으니 그 인물됨을 알 수가 있다. 산골 속에 원래양반이 없지만 수는 여기에 사는 품관보다도 더 용렬한 자라고 하니 탄식스러운일이다. 여기에서 유숙하는데 집사람이 안으로 맞아다가 만나 보았다. 김담이 길에서 큰 거북을 만나 잡아다 주기에 아침 식사에 탕을 끓여 아우, 두 아이와 같이 먹었다.

14일. 이훤이 아침 식사 후에 돌아갔다. 늦은 후에 신수함의 벌통에서 작년에 난 아기벌이 비로소 한 통이 나 동쪽 울타리 밑에 붙었기에 김담을 시켜 받아다가 북쪽 울타리 밑에 앉혔다. 거의 5, 6되나 된다. 인아의 계집중 막비가 뽕을 따러 산에 올라갔다가 뱀에게 물려 발을 상해 가지고 실려 왔으므로 즉시 침으로 째게 했다. 다만 발등이 몹시 부어 능히 걷지를 못한다. 요새 일이 많을 때에 시키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15일. 집사람이 치는 누에는 오늘 다 올랐고, 딸들의 누에는 오늘 비로소 오르기 시작했으니 수일 안으로 다 익을 것이다. 다만 온 집안 상하가 누에에 매달려 아직 벌이 난 것도 모르고 있어서 이미 날라서 동쪽 울타리 밖을 넘어 멀리 갔다. 이것을 인아 형제가 쫓아갔으나 미치지 못했으니 탄식스럽고 아깝다. 그러나 또한 어느 벌통에서 난 것인지 모르겠다. 언신이 소를 가지고 현에 들어갔다. 팥씨를 얻어오기 위해서이다. 저녁에 어제 난 벌통에 벌의 출입이 드물기에 벌통을 떼 내고 보니 아침에 도망간 벌이 곧 이 벌이니 아깝다. 윤해와 인아가 앞내에서 물고기를 낚아 백여 마리를 잡아 왔기에 식혜를 담갔다. 막비가 역시 침을 맞아 독한 물을 흘려냈다.

16일. 누에가 어제부터 섶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미 다 올라서 어제 뿡을 따서 가득 싣고 온 것은 쓸 데가 없다. 이에 덕노의 처 및 은개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들도 역시 누에를 치는데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해와 인아가 물고기를 낚아 또 백여 마리를 잡았기에 식혜를 담갔다.

17일. 언신이 돌아와서 편지를 보니 오늘 근친 온다고 한다. 콩 10두, 팥 16두를 실어 왔다. 아우의 집에 콩과 팥 각각 1두씩 주었다. 언신도 역시 콩 2두를 받아 갔으니 이는 곧 환상곡이다. 채억복에게 밭 값으로 콩 2두를 주었다. 언신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1사발 넘게 가져왔기에 저녁에 탕을 끓여서 함께 먹었다. 윤겸이 근친 왔다. 영동에 갔기 때문에 못 본지 이미 두어 달이나 된다. 여러 아이들과방 안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다가 영동의 기이한 경치와 풍악의 맑은 정취를 이야기하여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노라니 밤이 이미 깊었다. 중미 5두 · 밭쌀 4두 · 녹포 1첩을 가지고 왔다.

18일. 윤겸은 그대로 머물렀다. 존광들의 채억복의 밭을 갈고 팥 2두 8되를 심었다. 이는 곧 하루갈이인데 전일에 못다 갈은 곳을 간 것이다. 철원태수(윤방)가 백미 5두를 보냈다. 전일 약속했기 때문에 윤겸이 사람을 보내서 가져온 것이다. 최참봉의 아들 정운이 와 보기에 아침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김명세, 김린도 또한와 보았다. 전원희가 천어 10여 마리를 가져왔다. 김린이 중금의 밭에 심을 팥 1두5되를 받아 갔다. 반일갈이인데 전일 최 참봉이 있을 때 갈던 보리밭이다. 박번의보리밭에는 전일에 콩을 심었으나 비둘기와 꿩이 다 쪼아 먹었기 때문에 또 잡태 1두를 심었지만 가뭄이 이와 같으니 또 필시 나지 않을 것이다.

19일. 윤겸이 현으로 돌아가는데 인아도 역시 따라갔다. 전풍의 밭을 갈고 상태 2 두 3되를 심어 끝냈다. 그 뒤에 관의 둔전을 갈고 콩 1두를 심었다. 전풍의 밭은 하루갈이이고, 둔전은 반일갈이이다. 늦은 후에 친히 가 보고, 박번의 보리밭 꼬리의 갈지 않은 곳을 갈게 하고 팥 4되를 심었다. 올에 누에를 쳐서 딴 고치는 집사람은 13두요, 후임의 어미는 16두요, 딸은 5두 5되요, 정임은 2두 남짓하다. 나도 또한 고기그물을 뜨려고 길러서 고치를 땄더니 겨우 2두여서 도합 38두 5되이다. 아우의 아내도 또한 4두를 땄고 윤해의 집에서 딴 것은 윤해의 양모가 7두, 몽임이 3두, 충모 8두여서 모두 18두이니, 동서 두 집 및 온 집안이 딴 고치가 60두가 된다. 딴 민가에서 누에를 치는 자들은 이제 바야흐로 한참 먹는데 뽕이 없어서 따지 못하기 때문에 자못 굶어서 버린 자도 있다고 한다. 이는 곧 뽕나무가 들불로 해서 모두 탔기 때문이다. 우리 한 집은 다행한 셈이다.

20일. 집종 5인을 시켜 조련의 피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늦은 후에 나는 아우와 함께 걸어서 가 보았는데 소나기를 만나 나무 그늘로 달려 들어가 피했다. 윤해가 물고기를 낚아 60여 마리를 얻어 왔기에 쪼개서 소금에 절여 말렸다. 저녁에 안손이 현에서 돌아와 임정자의 편지를 서울에 와서 전했다기에 보니, 죽은 누이의 장례는 내달 초 7일로 정해서 저도 또한 모레 내려간다고 하면서 우리 형제중에 같이 가서 회장하겠느냐고 했다. 자기가 어찌 이곳 사정을 알 수 있으랴. 집에 말 한 필 종 하나도 없이 이같이 먼 길에 어떻게 떠나간단 말인가. 비록 정례로는 가지 않을 수 없지만 사세가 이와 같으니 비통해 한들 무엇하리.

21일. 새벽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 후에는 도로 개어, 겨우 싹의 뿌리를 적시고 그쳤다. 그러나 오래 가물던 나머지에 이제 이 비를 얻었으니 콩과 팥은 쉽게 날 것이다. 박 및 외 모종을 했으나 오래지 않아서 해가 났으니 자라지 못하고 마를 것이다.

22일. 현의 문안인이 와서 편지를 보니 남정지 백형의 아들이 상수(喪需)를 얻으려고 현에 왔으나 관에서 줄 물건이 없어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고 한다. 남은 윤겸과 사귀던 자로서 지난해 죽었으니 몹시 슬프고 불쌍하다. 그러나 관의 저축이 하나도 없다니 어찌 대응한단 말인가. 역시 걱정스럽다. 말린 여항어 20마리와 알 1 사발을 보내왔기에 윤해의 집과 아우의 집에 나누어 주어 아침 식사에 반찬으로하게 했다. 집안 종 4인으로 하여금 조련의 못다 맨 밭을 매고 뒤에 사동의 차조밭으로 옮겨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23일. 3인으로 하여금 사동의 끝내지 못한 밭을 매게 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늦은 후에 언명과 함께 가 보고, 그길로 여러 밭을 돌아보았더니 풀은 무성하고 싹이 드물어 매 주지 못하겠으니 민망스러운 일이다.

24일. 인아가 빌린 김언보의 밭을 갈고서 콩과 팥을 심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하루 갈이이다. 인아가 물고기를 낚아 40여 마리를 얻었는데 큰 것은 8, 9마리를 얻었다. 윤해도 역시 이만큼 얻었다. 근일에 양식이 떨어져서 어머님과 우리 형제 이외에는 자녀들과 비복들은 날마다 저녁에는 콩죽을 쑤어 먹어도 오히려 계속하기 어려우니 몹시 민망스럽다. 비단 우리 집뿐이 아니라, 동서쪽 집도 역시 몹시 군색하

여 필목을 팔아서 쓰려 해도 팔리지 않는다니 더욱 민망하다.

**25일.**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갈고 황태 2두, 적두 1두 8되를 심었다. 오후에는 언명이 빌린 언보의 밭을 갈고 팥 6되 반을 심었다. 반일갈이이다.

26일. 이인방의 밭을 갈고 팥 2두를 심었다. 김현복이란 자가 중금의 밭에 심을 녹두 7되를 받아 갔다. 콩씨는 집에 없어서 주어 보내지 못했다. 오늘 김 주부, 명세등과 냇가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물고기도 잡기로 약속했으나 마침 내가 떠나는 것이 모레여서 일이 많기 때문에 가서 참여하지 못했더니, 저들은 고기를 잡았는데눌어 제일 큰 것은 거의 한 자 반이나 되는 것과 빙어 큰 것 15 마리를 보내왔으니깊이 감사하다. 저녁 식사에 탕을 끓여 같이 먹었다. 빙어는 소금에 절였다가 제사에 쓰련다. 윤해 형제가 또 낚시질을 하여 백여 마리를 잡아 왔다. 현리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쌀가루 1두ㆍ잣 1두ㆍ녹포 10쪽ㆍ말린 여항어 10마리ㆍ백미 2두ㆍ중미 2두ㆍ석이 1두를 가져왔다. 소금 1두도 역시 가져왔는데 이것은 집에서 쓸 것이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새 그물도 역시 보내어 그물에 장식을 달아가지고 가져오도록 납 1백 81개를 주어 보냈다.

27일. 4명으로 하여금 사동의 차조밭을 매게 하여 다 맨 후에 묵은 조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28일. 네 사람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매어 마친 후에 언춘의 밭으로 옮겨 맸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남매의 종 덕룡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말장 7두ㆍ콩 3두ㆍ잣 5되ㆍ석이 1두ㆍ백지 1묶음ㆍ상지 2묶음을 덕룡이 가는 편에 보낸다고 했다. 근일에 친구들이 구걸하는 편지가 구름처럼 모여들건만 여기에 응할 수가 없어 모두 그대로 보내서 반드시 노여워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 몹시 민망하다고 했다. 또 나라의 말 3필을 잃어서 비록 백성들의 말을 거두어 보내기는 했지만 예에 의하여 파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 파면을 기다린다고 했다. 만일 파면되면 우리 집 식구가 반드시 굶주려서 오래지 않아 쓰러질 것이니 걱정한들 무엇하랴. 그러나 관의 저축이 아주 말라서 아무런 방책이 없어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있으니 차라리 한번 파면당하여 걱정이 없는 것이 낫겠다. 내일 마땅히 서울에 가야겠기에 행장을 차리지만 다만 발을 저는 소가 중로에 필

시 자빠질까 걱정이다. 말장 30두를 소 2필에 나누어 싣고 가서 된장을 담갔다가 오는 가을에 서울에 갈 때 쓸 계획이다. 필목 16필도 또한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말을 살 계획이다.

29일. 일찍 떠나서 삭녕 땅에 이르러 밀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또 철원 땅 적랑촌에 이르러 잤다. 주인집은 곧 평강 사람으로 난리 후에 와서 사는 자이다. 올 때 길에서 윤해의 종 춘기가 돌아오는 것을 만나 말을 일러 보냈다. 그에게 들으니 최정운이 아내를 데리고 시골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길을 막고 난을 부려서 간신히 피해 갔다고 한다.

# 5월

1일. 날이 밝을 때 떠나서 연천현 앞 냇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또 떠나서 큰 여울가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가정자에 이르러 들으니 홍참봉 매는 나가고 없다하여 자지 않고 또 익담촌 홍언규의 집으로 갔더니 마침 언규가 집에 있어서 그대로 자는데 홍의 집에서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하고 조용히 옛이야기를 했다. 언규는 본래 백자정동에 살아서 서로 가깝게 알고 지내는데 우연히 만나니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대대로 내려오던 옛 집은 모두 불에타서 재가 되었고 전답도 역시 모두 거칠어서 다스리지 못했는데, 언규는 피란해서 관서에 가서 살다가 올봄에 비로소 돌아왔다고 한다. 오늘 길에서 평강 사람을 만났는데 내려가는 자가 많았다.

2일. 새벽부터 천둥을 치고 비 올 기미가 있으나 아침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에 일찍 밥을 먹고 천천촌에 도착했다. 곧 길가에 샘이 솟아나와 내가 되었는데 몹시 차고 맑기 때문에 이 마을 이름이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샘가에서 조반을 먹고 또 떠나서 누원 앞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마초를 베어 실었다. 다만 춘금이는 배가 아파서 행보를 하지 못하므로 잔 집에 버려두고 조리한 뒤에 오도록 했더니 점심 먹는 곳으로 따라왔으나 아직도 쾌하지 못하다. 해가 기울어서 나는 먼저 성안으로 들어가 남매(남상문)의 집에 도착하여 만나 보니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조용히 옛 회포를 펴다가 저녁밥을 먹은 후에 광노의 집

에 이르러 잤다. 다만 덕노는 뒤따라오다가 중국 군사를 만나 도룡이를 빼앗겼다 니 한스럽다.

3일. 신함열이 성묘할 일로 봉산으로부터 서울에 와서 지나갈 때 찾아들어왔다. 그편에 딸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된다. 대구 2마리 · 여항어 1마리 · 마른 생선 40마리 · 꿀 1되 · 목미 5되를 남매에게 보냈고, 말린 천어 50마리는 기성군에게 보내고, 말린 천어 20 · 대구 1마리 · 잣 1되는 남 첨사의 수씨의 집에 보내고 대구 1마리 · 잣 1되 · 여항어 1마리는 광노에게 주었다. 계집종 옥춘은 제물을 받들고 춘금이와 함께 소에 싣고 먼저 산소로 갔다. 종일 광노의 집에 있었다. 소를 팔려고 하나 값이 적고 말을 사려고 하나 값이 비싸서 모두 매매하지 못하니 한스럽다. 최진운도 역시 말을 사려고 여기에 왔는데 마침 서로 만나게 되어이야기하다가 저녁밥을 나누어 먹었다. 저녁에 남매에게 가 보고 돌아왔다. 누룩 5장으로 은 7돈을 받고, 꿀 2되로 은 2돈을 받고, 문어 2마리로 은 2돈 반을 받아모두 1량 1돈 반인데 이것으로 용돈을 쓰려 한다. 이 물건들은 지금 들으니 값이비싸다고 하는데 이제 판 것은 여기에 이르렀으니 모두 계산에 맞지 않는다. 탄식스럽다.

4일. 토당 산소에 가다가 남매의 집에 들렀더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바야흐로 양을 잡아 안주를 만드는 것이 술을 마실 계획인 것 같다. 또 기성군을 찾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기성이 억지로 들어 점심을 지어 나에게 대접하는데 날이 이미한낮이 지났다. 올 때 또 임 참봉의 집에 들어갔더니 경륭의 어머니가 마침 임백천의 집에 갔다고 하기에 가 보았더니 백천은 성묘하러 나갔고 그 아들 경원이 집에 있다가 맞아들여 옛이야기를 하다가 해가 기울어서 달려와 강을 건너 먼저 산소 앞에 이르러 절을 하고 또 죽은 딸의 묘를 보니 애통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겠다. 통곡하고 돌아왔다. 옥춘 및 묘지기 등은 제물을 만들고 있다. 복룡의 집에서 잤다.

5일. 아침 식사 전에 산소로 나가 먼저 조고비께 제사를 올리고, 다음으로 아버님께 올리고, 다음으로 죽전 숙부 양위분께 올리고, 다음으로 죽은 아우에게 올리고, 그런 뒤에 죽은 딸에게 지냈다. 제물은 면 · 떡 · 삼색 실과 · 삼색 어육탕 · 삼색 어

육 구이 · 포 · 헤 · 반갱 등으로 지냈다. 백미 2두로 떡을 하고, 백미 5되로 밥을 짓고, 밀가루 8되로 국수를 만들어 썼다. 다섯 번 제사를 지내고 나니 날은 따뜻하고 기운이 몹시 피로하여 땀이 흘러 등을 적신다. 다 지낸 뒤에 종들이 거처하는 뒤 정자로 와서 한참 동안 누웠다가 아침밥을 먹고 또 술과 떡을 먹었다. 마침 허찬 및 덕린이 와서 모였는데, 해가 기울어 떠나서 도로 한강을 건너 남매의 집에들어갔더니 마침 화영도정 및 최 생원 기남이 여기에 왔다. 우연히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됨을 어찌 다 말하랴.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다만 중국 사람 20여 명이 여기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장난하니 하나의 기관인데 이 집이 좋기 때문에 이같이 와서 모이는 자들이 빈 날이 없다고 한다. 누이의 집에서 내게 저녁밥을 주워먹고 저물녘에 광노의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 마땅히 춘금이를 평강에 보내야 하겠기에 촛불을 밝히고 편지를 썼다. 여기에 와서 들으니 함열이 여기에 들렀었는데 마침 내가 미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 보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또 들으니발 저는 소를 어제 팔아서 은 7량을 받았다 한다. 어제 기성 집에 있을 때 정목을보니 김자정이 예조좌량이 되었다.

6일. 이른 아침에 춘금이로 하여금 암소를 끌고 내려가게 했다. 봉산에서 온 물건 및 내가 가지고 온 빈 그릇도 모두 보냈다. 들으니 함열은 기운이 불편해서 오늘 떠나지 못한다고 한다. 일찍 식사를 마친 후에 용산창 동문 밖에 있는 종의 집으로 찾아가 보았다. 민 주부(민우경)도 역시 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또 임정자 현이 거처하는 서문 밖 집으로 가서 영암 임매의 상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정자(正字)는 지난달 27일에 장사지내러 내려갔다 하고, 정자의 어머니만 있다. 민 참봉 우안이 마침 이웃집에 와서 살다가 나를 청해 만나 보고 서로 옛이야기를 했다. 참판의 아들이 오늘 이사를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또 같이 앉았을 데가 없어서 서로 만나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정자의 어머니가 나에게 수반을 대접했다. 또 이 판관 귀는 집으로 가서 찾았으나 판관은 집에 없다. 이에 들어가서 그 첩을 만나 보고 함열의 집으로 돌아와서 함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함열이 나에게 수반을 대접한다. 해가 기울어서 작별하고 나오는데 문밖에서 김 봉사 백온을 만나서 도로 들어가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저녁때 돌아왔다. 또 남 첨사 수씨 모녀에게 들러 만나 보고 돌아왔

다. 오늘 갔다 올 때 중국 사람의 시장을 뚫고 가다가 중국 장수의 외출하는 것을 보니 앞뒤에서 옹위하고 가는 것이었다. 또 용산 길 높은 언덕에 올라 노들강변을 바라보니 중국 군사들이 진 치는 것을 훈련받다가 파하고 돌아가는데 각각 병기를 가지고 길을 막고 온다. 이것이 10여 리를 연해 있으니 또한 하나의 장관이다. 옥 춘을 신 직장의 집에 보내서 집사람이 보낸 물건 및 편지를 주고, 또 간장독을 빌리자고 했더니 없다고 한다. 조수 남상문이 나에게 황필 1자루를 준다.

7일. 사람을 서강에 보내서 소금과 간장독을 사 가지고 왔다. 중목 1필로 독 2개, 거친 필목 2필로 소금 17두를 받았는데 다시 되어 보니 13두이다. 또 광노로 하여금 딸의 은반지 2개를 만들게 했는데, 하나는 구슬 3돈을 물리고, 하나는 민짜 2돈으로 하여 모두 5돈이 들었는데 연마할 때 5푼이 줄었다. 값은 절인 방어 1마리· 짚신 5켤레·은 5푼을 주었다 한다. 또 딸들의 작은 거울 2개를 샀는데 값은 은자 8푼을 주었다. 나는 남매의 집으로 가서 종일 송월헌에 누워서 쉬다가 조수와 바둑 두어 판을 두었다. 또 동산에 올라 훈련원의 중국 군사 연습하는 것을 보니 또한 하나의 장관이다. 그러나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또. 중의 도총섭 의엄이 와서 조수에게 뵈기에 나도 역시 만나 보았다.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인데 이제만나 보니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이와 같다. 이제 가선에 올라 금관자를 달고 있다. 그는 점심 후에 먼저 돌아가고, 누이의 집에서 나에게 저녁밥을 주어 어두울때에야 돌아왔다. 《삼국지(三國志》》 12권을 빌려 가지고 왔다.

8일. 이른 아침에 남이상 및 광노를 데리고 남대문 밖 관왕묘에 가서 구경했다. 이는 중국 장수가 지은 것으로서 푸른 기와를 입히고 단청이 휘황하며, 좌우에는 협실이 있는데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다. 묘문으로 들어가서 소상을 우리러 쳐다 보니 금관에 홍포를 입었는데 얼굴은 붉고 수염은 길어서 헛 날려 배 아래까지 늘어져 있는데 영웅의 풍모가 늠름하여 만고가 어제와 같다. 청룡언월도는 탁자 밑에 꽂혀 있다. 묘문 밖에 나오니 좌우에 시립한 자가 각각 두 사람인데 혹은 긴 칼을 가졌고 혹은 긴 창을 가지고 있어 엄연히 살아 있는 것과 같으니, 곧 관평·관흥·주창 등이라 한다. 오색 반당에 각각 성명과 월일을 써서 수실을 달아 아래로 늘였고 좌우 탁자 위에는 항불이 끓어지지 않는다. 또 목통·죽주·죽편 4개가 있으

니, 곧 중국 사람이 죽편을 던져 점치는 도구로 삼고 있다. 오른쪽 다리가 높은 상 위에는 점책 및 벼루를 놓아 두었으며 또 목패 5. 6개에는 혹 칠언시구도 쓰고 혹 넉 자로 된 시구도 쓰여 있는데 이는 모두 관왕을 찬영한 것이나 모두 잊고 기억하 지 못한다. 우연히 있는데. "만고의 영웅스런 풍도는 중국을 밝게 했고, 새로 사당 을 세워 번방을 진압했네(萬古英風昭上國, 新開廟貌 鎭藩邦)" 했으니, 이는 모두 중국 사람이 써서 새긴 것이다. 또 문액으로 명을 만들어 붙였으니 전자이다. 또 큰 글씨로 "孤忠大節"이란 네 글자를 써서 붙였다. 중국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절 하는 자가 왕래하여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돌아올 때는 김백온의 집에 들렀더 니 마침 출타하고 집에 없다. 또 남대문 안 동쪽으로 들어왔더니 중국 사람이 운명 을 점치는 곳이 있기에 처음에는 물어보려 했으나 줄 돈이 없어서 그만두었다. 시 중을 뚫고 들어오노라니 좌우의 전방이 눈이 어지러워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없 다. 양관을 하나 사려 했으나 적어서 내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 역시 그만두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이미 높다랗다. 간독 2개를 샀는데, 하나는 간장 15두에 소금 5두 2되가 들어가겠고, 하나는 간장 12두 5되에 소금 4두가 들어가겠다. 다만 가 득 차지 않아 2, 3두는 더 들겠다고 한다. 후일에 더 보내서 담그도록 소금 1두 5 되를 광노 처에게 주고 일렀다. 오후에 관동에 가서 먼저 홍 사평 우를 만나서 이 야기하고, 또 홍 참의 인헌의 아들 집에 가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공조에서 공사로 와서 의논할 일이 있어 정랑 최광강이 와 앉았기 때문에 이로해서 조용하지가 못 했다. 또 이 동지 정귀의 집에 갔더니 마침 김 생원 명남, 신 도사 종원이 와 있어 서 서로 함께 옛이야기를 했다. 다만 해가 저물어 돌아오기에 바빠서 느긋하게 이 야기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그 집에서 나에게 이화주를 대접한다. 어두워서 돌 아왔다. 또 이자미의 집 향나무를 보았더니 다 베어 가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수 백 년 된 집 뜰의 보배스러운 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으니 아깝다. 이 동지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라나라 사람 및 중국 사람이 날마다 베어가서 가지와 줄기가 거의 없어지더니 오래지 않아 다 베어가겠기에 나도 부득이 베어 와서 쓰려고 한 다고 했다.

9일, 식사 후에 묵사동에 가서 신 직장 순일을 찾았으나 마침 집에 없고 그 부인이

나를 맞아 들어가서 기다렸으나 직장이 오래 되어도 오지 않기 때문에 도학동으로 돌아와서 임 참봉댁을 찾고, 또 임백천 태를 찾아 조용히 이야기했다. 또 남매의 집으로 와서 종일 누워서 쉬다가 조수와 바둑을 두었다. 또 기성군을 찾은 뒤에 도 로 남매의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돌아왔다. 윤겸이 버린 첩 진옥이 딸 을 안고 와서 뵙는데 그 아이를 보니 이미 걷고 말도 하는데 모양이 단아하여 몹시 사랑스럽고 귀엽다. 소주와 안주를 가지고 왔는데. 마침 이은신이 왔기에 함께 먹 었다. 줄 물건이 없어서 겨우 필목 반 필을 주어 보냈다. 들으니 진옥은 개부했다 고 하나 그것이 사실인지는 자세치 않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처음 생각에는 다만 그 딸만 보고자 했고 진옥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딸을 안고 와서 보면서 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 마음의 진위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정 리가 또한 불쌍하다. 어두운 뒤에 세만을 시켜 말에 태워서 보냈다. 오늘 나갔을 때 가지고 나갔던 부채를 중국 사람에게 빼앗겨서 이 같은 염천에 다시 가지고 부 칠 것이 없어 민망한 기성군이 마침 이 말을 듣고 중국 부채 1자루를 주고, 조수도 역시 쇄금선(부채) 1자루를 주었다. 진옥의 딸은 지난해 4월 28일에 났고 이름은 애임(愛任)이라고 했다고 한다. 근일에 조정이 조용하지 않아, 영상 이원익이 의논 이 맞지 않는다 하여 14차례나 사표를 올려 말하기를. "시류와 모가 나서 그대로 수상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옥당(홍문관)에서는 차자를 올려 이원 익과 유성룡이 서로 비호한다 해서 이들을 헐뜯고. 이목의 관원은 앞을 보고 뒤를 돌아다보아 잠자코 있고 말을 하지 않아서, 이 때문에 양사가 바야흐로 사피하고 있는데 바뀐 후에는 마땅히 먼저 성룡에게 죄를 주고 다음으로 원익에게 미친다고 한다. 우상 이항복도 역시 성룡과 말이 같고 다르지 않아 사퇴하는 차자를 올렸다 고 한다. 삼공이 이와 같으니 나랏일을 알 수가 있다. 한탄한들 무엇하랴. 큰 수저 3, 작은 수저 2벌을 값을 주고 만들어 왔다. 장인이 토당리에 살기 때문에 어제 덕 노를 보내어 가져왔다.

10일. 늦은 후에 떠나서 고양 땅 큰 냇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교하촌 평산정의 집에 도착했으니 곧 죽은 노비가 살던 곳으로서 나도 또한 오는 가을에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일찍이 평산정과 약속했다가 이제 비로소 와 보는 것이다. 다만 죽은 종

의 전답 및 가대는 근처 사람들이 모두 샀다고 하여 옛날부터 경작해 먹은 자가 많다고 하니 필시 다투다가 형세가 꺾인 것이니 탄식스럽다. 마침 운림수 및 임경연이 먼저 와서 딴 소년들과 종정도를 놀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처오촌이라, 만나보니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평산정과 같이 잤다.

11일. 평산이 만류해서 머무르는데 또 죽림수를 청해 오고, 운림수, 경연도 또한 와서 모였다. 두 사람은 모두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늦은 후에 비가 뿌려 그치지 않는다. 오래 가문 뒤에 이 좋은 비를 얻으니 몹시 기쁘다. 그러나 나는 우비를 중국사람에게 뺏겼는데 이제 중로에 있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12일. 비는 혹 크게 내리고 동풍이 크게 부니 필시 큰비가 내릴 조짐인가 보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조금 개기를 기다려, 떠나는데, 평산이 내게 쌀 5되를 준다. 중로에 비로 인해서 체류할까 걱정해서이다. 오다가 광산수 형제가 사는 곳을 지나다가 처음에 그 집을 오지 못했다가 지나온 뒤에 비로소 알았으나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묻고, 연고가 있어 왔다는 것을 말했다. 파주를 지나다가 우계의 집을 지나게 되어 우계의 아들 성 진사를 찾았더니 전에는 만나 보지 못했으나 들은 지는 오래여서 서로 만나니 옛 친구와 같다. 들어가 우계의 신위 앞에 절했다. 평생 흠앙하다가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하고 이에 이르니 오늘 온 것이 비창함을 이길 수 없다. 성 공이 억지로 유숙하게 했으나 해가 아직 높기 때문에 작별하고 와서 적성현 앞 사노 미금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나 종일 비가뿌리고 바람이 불어서 세만의 찢어진 도롱이를 입었더니 비가 새서 모두 젖었으니한스럽다. 지난밤에 주인집의 주린 이의 침입을 받아 밤새 가려워서 편안히 자지 못했다.

13일. 날이 밝자 떠나서 현 앞의 신직포 얕은 여울을 건너서 장단 땅 백련역 앞 인가에 이르러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떠나서 달려와 삭녕군 앞 뱃나루 얕은 여울에 이르렀는데 오래 가물어서 물이 얕기 때문에 두 강의 물이 겨우 무릎을 지날 뿐이다. 군 앞의 10여 리를 지나서 한윤필의 집에서 잤다. 오늘도 역시 비가 뿌리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비록 크게 내리지는 않아도 종일 그치지 않으니, 그 비의 형세를 보건대 필시 장맛비인 것 같다.

14일. 아침에는 비가 아직 개지 않기 때문에 잔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비가 걷히고 바람이 잔 뒤에 떠나서 3, 4개 험한 고개를 넘어서 안협 땅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집과의 거리가 겨우 반식(半息)의 길이다. 나무 그늘 밑에 누워 쉬다가 해가 기운 뒤에 떠나서 집에 이르니 해가 아직 이르다. 온 집 안 상하가 기꺼이 맞는데, 먼저 어머님께 뵌 후에 아우 및 아이들과 이야기했다. 내일은 곧 증조의 기일이어서 온 집안이 제사에 쓸 음식을 준비했다.

15일. 날이 밝을 때 아우가 윤해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나는 먼 길을 와서 피곤하 고 기운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때로 크게 내렸다. 집에 이르러 들으니 보리 수확한 수는 조인손의 밭이 3석 10두요, 박번의 밭이 1석 10두여서 모두 5석이다. 기장과 조밭은 이미 다 초벌은 매 주었다. 다만 곡식된 것 을 보니 오래 가문 나머지여서 논농사는 좋지 않으나 밭곡식은 곳곳이 모두 무성 하더니 여기에 와 보니 잘 되지 않아서 기장과 조는 겨우 2. 3치요. 이 드문 곳이 많으니 한스러우나 어찌하리오. 해주 윤함의 처가의 종이 말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집에서 종과 말을 보내서 청해 가는 것이다. 들으니 유함의 처는 무사히 해산했 는데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기쁜 일이다. 그러나 윤함은 일찍이 현에 들 어가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금이 어제 이미 현으로 갔다고 한다. 세만이 홀로 현 으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저녁에 윤함이 현에서 돌아왔다. 윤겸은 모 레 사이에 근친 온다고 한다. 백미 3두, 소금 2두, 벼 19두를 실어 보냈다. 벼는 곧 함열의 물건이다. 연전에 환상곡을 쓰고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산 종의 집에 두 었던 것을 이제 비로소 가져다가 실어 보낸 것이다. 윤함의 장인 강덕윤이 조기 6 묶음 · 말린 민어 1마리 · 홍어 1마리 · 소어 2묶음 · 절인 조기 3묶음을 보내왔다. 윤겸에게도 역시 조기 5묶음 · 민어 1마리 · 소어 2묶음을 보냈다.

16일. 네 노비를 시켜서 조련의 밭을 맸다. 두 벌 매는 것인데 끝내지 못했다. 저녁에 윤겸이 근친을 왔다. 소주 4병, 찐 노루 새끼 5마리를 가지고 왔기에 즉시 함께 먹었다. 백미 1두 · 찹쌀 5되 · 미나리 및 외 30여 개도 역시 가지고 왔다. 서울에는 외가 이미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처음 보기 때문에 즉시 천신했다. 우리 집에 심은 외는 가뭄에 마르다가 이제 비로소 덩굴이 뻗고, 박과 동과도 역시 이와 같은데

요새 비가 와서 비로소 무성하다.

17일. 요새 장맛비가 그치지 않아 비록 혹 개일 때도 있으나 또 크게 올 때도 있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제물 및 소주, 찐 노루 새끼 등 물건을 가지고 왔다. 술과 고 기는 즉시 같이 먹고, 아우 및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자리에 들 었다.

18일. 윤겸은 그대로 머물렀다. 그러나 비가 크게 내려 앞내가 넘치니 수일 안으로 는 형세가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윤함도 역시 떠나지 못한다.

19일. 늦은 후에 비가 잠시 멎고 물도 역시 줄어서 윤겸은 역시 부득이한 일로 현으로 돌아가야겠으므로 물이 얕은 곳에는 교자를 타고 건너기로 하고 오후에 떠나서 부석사에서 자고 내일 현으로 들어갈 계획이라 한다. 윤함은 역시 떠나지 못했다.

20일. 곧 죽전 숙모의 기일이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피로해서 윤해. 인아로 하여금 지내게 했다. 요새 비로 인해서 풀을 매 주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참보리를 베어서 밭가에 쌓아 두게 했다. 마침 비가 멎어서 베었는데, 오래 비가 오면 베지 못하고 썩히게 되겠다.

21일. 비는 비록 멎었으나 음산하여 자못 큰비가 내릴 조짐이 있으므로 먼 길을 경솔히 떠날 수가 없어서 윤함은 역시 떠나지 못했다. 세 노비로 하여금 전일에 끝내지 못한 피밭을 매어 끝냈다.

22일. 윤함이 해주로 돌아갔다. 비로 인해서 해주에서 온 종과 말이 오래 머무르다가 이제 비로소 떠나갔다. 마침 어제부터 비가 개인 까닭이다. 이번 작별한 후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은 겨울이나 봄이 될 것이다. 작별에 임하여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으니 형편이 그런데 어찌하랴. 우리 집이 궁해서 그 처자를 데리고 같이 살지 못하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오는 가을 감시의 명저를 보내지 못했기에 필목 1필을 주어서 사서 쓰도록 했다. 어제 참보리를 뚜드렸더니 15두가 났기에 동서 두 집에 각각 1두씩 보냈다.

23일.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꿩 및 찐 새끼 사슴을 보내왔다. 오늘이 초복이다. 24일. 윤겪이 돌아갈 때 말하기를, 내일 마땅히 사람을 보내서 제 어머니를 모시고 현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집일을 미처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해의 <del>종을</del> 빌려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기별했다.

25일. 곧 어머님 생신이다. 윤해의 양모가 송편을 만들어 먼저 보내고, 우리 집에 서도 역시 떡을 만들어 먼저 신주에게 차례를 지낸 후에 같이 먹었다. 마침 최 판관이 쇠 양 1조각을 얻어 보냈기에 차례에 쓰고 편지를 하여 사례했다. 오후에 현에서 사람이 또한 왔는데 윤겸이 역시 상화병을 만들고 찐 노루새끼 2마리ㆍ꿩 5마리ㆍ양색 실과를 보냈다. 포목 1필을 역시 보냈기에 어머님께 드렸더니 어머님께서도 역시 몹시 기뻐하시면서 홋옷을 만드신다고 한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내고, 보낸 물건을 역시 모두 함께 먹었다. 덕노는 어제 휴가를 얻어 수이와 동반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 윤함은 오늘쯤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26일. 윤해는 그 장인의 온 집안이 근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현에 들어갔다가 그길로 남촌으로 가려 하기에 나도 또한 편지를 써서 최 참봉에게 보냈다. 이곳은 곤궁해서 행자도 주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28일. 김린이 와 보았다. 전귀실의 처가 상화병 1행담을 만들어 보내고, 동서쪽 두집에도 역시 조그만 행담에 담아 보냈으나 줄 물건이 없어 다만 밥을 지어 대접해보냈다.

29일. 곧 죽전 숙부의 기일이다.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마침 기운이 불편해서 인 아를 시켜 지내게 했다. 오후에 언명과 걸어서 존광 들에 가서 콩밭 팥밭을 돌아보 고 돌아왔다.

그믐날. 윤해가 그 장인의 집안 식구를 본 뒤에 현아에 와서 자고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새끼노루 2마리 꿩 5마리를 역시 가지고 왔다. 다만 근일에 양식이 떨어져서, 아우의 집이 더욱 군색한데도 서로 구원하지 못하니 민망함을 어찌 다 말하랴. 이 때문에 춘금이를 현으로 보낸 것이다. 들으니 적산에 곡식 두어 섬이 남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윤겸으로 하여금 내일 말이 올 때 실어 보내게 했다.

#### 6월

1일. 춘금이가 돌아왔는데 백미 1두. 밭 쌀 3두를 보내왔다. 저녁에 큰비가 쏟아지

다가 잠시 후에 그치더니 밤새도록 혹 내리다 혹 그치다 한다. 만일 비가 그치지 않으면 냇물이 불어서 내일 인마를 필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저번에 내가 서울에서 돌아올 때 머리빗을 잊고 평산정의 집에 버렸는데, 평산이 만일 친히 보지 않았으면 아랫것들이 가졌을 것이니 영영 아주 잃은 것이다. 여러 해 주머니 속에 간직하고 조석으로 머리를 빗던 물건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아깝다. 마침 서울에 가는 사람이 있기에 광노로 하여금 사 보내라 했더니 나무 빗 하나를 사 보냈는데 곧 중국 빗으로서 좀 커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찌하랴.

- 2일. 윤겸이 인마를 보냈는데, 곧 내일 제 어머니를 모시고 현으로 간다고 한다. 벼 19두·보리 1석·쌀 3두·소주 4병·삶은 돼지 머리 1개를 보냈다. 보리는 5두를 털어서 동서쪽 두 집에 나누어 보냈다. 어두운 뒤에 비가 크게 내리다가 한참 후에 그쳤다. 만일 이같이 개지 않는다면 내일 갈 일은 기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새끼노루 1마리도 역시 보내왔다.
- 3일. 집사람이 임아 및 충손을 데리고 늦은 후에 떠나갔는데 윤해가 모시고 갔다. 비록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자못 큰비가 내릴 기미가 있으니 필시 중로에 비를 만날 것이다. 저녁에 비가 크게 내리는 데 거리를 따져 보니 미처 5, 6리도 가지 못해서 비를 만났을 것이다. 교자를 타고 더디게 가기 때문인 것이다.
- 4일. 어제저녁에 큰비가 내리더니 종일 밤새 그치지 않아 냇물이 몹시 넘치니 집사람이 어제 가지 않았으면 끝내 현에 가지 못했을 것이니 다행하다. 집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요새 궁핍해서 큰 병을 치른 나머지에 겨우 조석밥 두어 홉을 먹는 외에는 종일 주림을 참아야 하고, 또 잡안일 처리하기에 심려를 많이 써서 반드시 딴병이 나겠기에 윤겸을 시켜 모시고 현으로 들어가서 두어 달 동안 머물러 조리하라고 억지로 권해서 보낸 것이다. 충아도 역시 가고자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다.
- **5일.** 큰비가 종일 그치지 않아서 앞내 두 언덕이 모두 묻혀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한다.
- **6일.** 혹 비도 뿌리고 혹 개기도 하여 종일 음산하다. 현리가 일이 있어 여기에 왔다가 마땅히 길을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다만 오래 풀을 매지

않고 또 씨도 뿌리지 않아, 보리 심을 절기가 이미 늦었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귀 보리를 뚜드렸더니 22두가 났다.

7일. 지난밤에 새벽까지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리밭을 갈지 못했다.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다. 근일에 주림이 몹시 심하여 때 로 두 눈이 어지러워 때로는 눈을 감고 한참 있어야 안정된다. 이는 곧 양식을 계 속 할 방법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콩을 삶아서 요기를 하려 했으 나 1되의 콩을 삶아도 많은 식구에 일시에 다 없어지니 혼자 날마다 삶아 먹을 수 도 없고, 콩도 역시 다 없어져가서 날마다 저녁에 가루로 만들어 죽을 쑤어서 상하 가 나누어 먹는 것도 계속하기가 어려우니 이 역시 민망한 일이다. 이 때문에 집사 람을 권해서 현으로 들어가 머물면서 조리하게 한 것이다. 60의 나이에 앞길이 얼 마나 남았는가, 오래 주림 속에 있으니 이 인생이 아깝도다. 어머님께서도 아우의 집이 궁핍해서 드리는 밥을 매양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드리는 음식이 지 극히 적어서 생각건대 시장하실 때가 많을 것이다. 3시 조석 외에 다시 드릴 물건 이 없으니 더욱 민망하고 탄식스럽다. 그저께 이웃 사람이 마침 새끼노루를 붙잡 아서 뒷다리와 내장을 가져왔기에 수일 동안 탕을 끓여서 어머님께 드렸으니 기쁘 다. 저녁부터는 드릴 맛있는 물건이 없어 집안이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고, 채소도 또한 얻어 쓸 수가 없으니 하물며 어육이 있겠는가. 소금과 간장도 역시 떨어졌으 니 더욱 민망스럽다.

8일. 윤해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겨우 물을 건너서 왔다고 한다. 말린 방어 반 짝·가자미 5묶음·새끼노루 1마리·꿩 1마리를 보내왔다. 온 집안 다섯 사람으로 하여금 김언보의 팥밭을 맸으나 끝내지 못했다.

9일. 김현복이 보리씨 3두를 받아 갔다.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매어 끝냈다.

10일. 언신이 병을 칭탁하고 일어나지 않아서 이 때문에 보리밭을 갈지 못했다. 비단 절기가 늦었을 뿐 아니라, 허비되는 것이 적지 않으니 탄식스럽다. 만일 일찍 병으로 누운 것을 알았으면 김담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소를 빌려서 재를 실어 보낸 후에야 비로소 병으로 오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니 먼 곳에 왕래하는 사이에 하는 한낮이 되었는데 소를 가지고 오는 자가 없어 갈지 못하니 몹시 밉살스럽

다. 부득이 온 집안사람이 채억복의 팥밭을 맸으나 끝내지 못했다.

11일. 보리밭을 갈았으나 끝내지 못했다. 관판 11장을 배 만드는 곳으로 실어 보냈다. 이 현에서 배를 만들어 이제 비로소 흘러내리기 때문에 관판을 실어 보내는 것이다. 백자판 6장, 송목판 5장이요, 또 농기도 보냈으며, 언명은 또 간장 10두를 보냈다. 언신은 또한 그 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지키고 도착해서는 광노로 하여금차 값을 주고 실어다가 그 집에 두려고 했다.

12일. 오늘도 역시 어제 끝내지 못한 받을 갈았다. 그러나 억수의 소가 성질이 순하지 못해서 소끼리 서로 싸워서 이 때문에 갈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연일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다만 전일 끝내지 못한 팥밭을 매게했다. 언신 등은 오늘 비로소 배를 출발시켜 곧바로 내려갔는데 공리 박언홍이 거느리고 갔다. 최진운이 와서 그 누이를 보기에 나도 또한 가서 보고 한참 동안 동대 위에 둘러앉아 이야기했다. 저녁밥은 우리 집에서 대접했다. 근일에 양식이 떨어져서 내일 밭갈 때 먹을 양식도 달리 구할 길이 없어 부득이 익지 않은 기장을 베어서 1말을 솥에 말려서 구워 쪄 가지고 내일 쓰려 한다.

13일. 전일 끝내지 못한 밭을 갈고 보리 7두 9되를 뿌렸다. 저녁에 안손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보리쌀 5두 · 콩 5두 · 꿩 4마리 · 돼지고기 2근 · 외 26개 · 소금 1두 · 간장 1두를 보내왔다. 콩은 각각 1두를 아우의 집에 보냈다. 관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후로는 다시 계속해 보낼 길이 없다고 한다.

14일, 관의 둔전을 갈고 보리 2두를 뿌렸다. 저녁에 현에서 방자가 내일 차례에 쓸물건과 얼음덩이를 가지고 왔다. 밀가루 1두 5되·찹쌀 5되·팥 2두·밭쌀 3두·참보리 1두·꿩 7마리·새끼노루 반 짝·꿀 1되·소주 5되를 보내왔다. 또 개질지가 좋은 말을 사 가지고 서울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래지 않아 불의에 죽었다니아깝다. 당초에 살 때도 크고 작은 것 도합 셋을 주고 샀는데 한 달도 지나기 전에죽었다.

15일. 늦은 후에 전병·수단·꿩구이·노루고기탕으로 차례를 지내고 다음으로 죽은 딸에게도 지냈다. 춘금이와 김담 등은 휴가를 얻어 가지고 나가서 다만 집의 두 계집종을 시켜 풀을 맸다. 16일. 마을 사람이 현에 들어가기에 글을 써서 보냈다. 저녁에 계집종 옥춘과 윤해의 종 춘기가 서울로부터 와서 남매의 편지를 보니 아직 잘 있다고 했다. 다만 광노가 암말을 사서 보냈는데 비단 행보가 더디고 둔할 뿐이 아니라, 허리 아래에 병이 있어 산에 오르고 내릴 때 허리를 끌고 가서 짐을 싣지 못한다고 한다. 이처럼 병든 말을 어찌 사서 보낸단 말인가. 필시 값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은 4량 3포반을 주었는데, 이는 곧 남매의 집 말이라고 하니 후일에 도로 보낼 계획이다.

18일. 마을 사람들이 삼을 담그기에 나도 역시 먼저 전업의 삼을 베어서 묻었는데 곧 8묶음으로서 해가 저물어 미처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온 집안 사환이 모두 나 갔고, 덕노는 무릎 위에 종기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사서 시켰으나 미흡한 일이 많으니 탄식스럽다.

20일. 춘금이와 담이 등이 돌아왔다. 이에 삼을 베게 했다. 우리 한 집 상하가 벤 것을 따로 한 곳에 묻을 생각이다. 어제 묻은 삼을 벗기니 3단 반인데 모두 길고 커서 절반은 베 짜는데 쓰지 못하겠다. 저녁에 현에서 문안인이 왔는데 꿩 7마리·붕어 13마리·외 30개를 보내왔다. 그러나 윤겸의 편지를 보니 종 세만 및 그첩의 집 두 계집종이 모두 개질지의 죽은 말고기를 먹고 중독되어 위태롭게 괴로워하여 형세가 구원할 수 없다니 불쌍하다. 상인의 심정이라, 비록 그 독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한 때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문득 먹고 독이 생겨 죽은 자가자주 있으니 사람의 욕심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이러한 것으로 알 수가 있다. 만일이 이치를 미루어 본다면, 명리의 욕심은 비록 사군자라 할지라도 이를 초탈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기에 빠져서 수레바퀴를 뒤집는 자가 계속해 있으면서도 이를 스스로 중지할 줄을 알지 못하니, 그 욕심의 크고 적은 것은 같지 않아도 죽는 것은마찬가지이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이제 조보를 보니 조정에 한 차례 풍랑이 또 일어나서 스스로 서로 공격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또한 알 수가 있다.

**22일.** 묻었던 삼을 벗겼더니 박번의 밭의 삼 2단 4묶음이요, 억수의 밭의 삼은 3단 3묶음인데, 1단은 어머님께 드리고, 아우에게 4묶음을 주고, 또 윤해의 처에게 5묶음을 주었다.

23일, 수일 전에 언신의 의자(義子)가 밤에 집안에서 자다가 범에게 물려 다쳐서

오른쪽 다리가 부었으나 죽기에 이르지는 않겠다고 한다. 마침 사람이 일찍 발각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쫓았기 때문에 버리고 갔다 한다. 두려운 일이다.

24일. 전귀실이 외 30여 개, 송수만이 외 15개, 언신의 처도 역시 20여 개를 가져왔으나 줄 물건이 없어서 그 정성에 보답하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요새 더위가 몹시 심해서 사람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나는 친히 냇가에 가서 목욕을 하여 땀의 더러움을 씻으니 심신이 서늘하고 상쾌하다. 그러나 물에서 나오면 도로 더워지니 원컨대 높고 서늘한 정자에 올라가서 잠시라도 더위를 식히고 싶다. 저녁에 충아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중미 5두 · 밭쌀 3두 · 노루새끼 1마리 · 꿩 4마리 · 외 20개 · 가지 10개를 보내왔다. 양식과 찬이 이미 떨어졌는데 마침 보내왔으니 기쁘다. 그편에 들으니 세만은 거의 살 길이 있으나 어린 종이 또 독이 생겼다고 한다.

25일. 최 판관이 편지를 보내 문안하고, 또 가지 8개, 새우젓 조금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사례했다. 오후에 나는 홀로 말을 타고 여러 밭의 기장과 조 및 콩, 팥을 돌아보았더니 겨우 버리지 않을 정도뿐이다. 콩과 팥은 지난해보다 좀 나으나 다만 사동의 밭 조는 이미 됐는데 산돼지가 그 이삭 큰 놈만을 골라서 반이나 먹었으니 탄식스럽다. 보리밭은 비록 싹이 났으나 드물다. 지난해에는 너무 많이 뿌렸고 올해는 너무 드물다. 이는 모두 온 집안이 똑똑치 못하여 농사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또 힘을 다하지 않은 때문이니 밉살스럽지만 어찌하랴.

**26일.** 억수는 삼을 묻기 때문에 덕노를 보내서 소근전의 장풍년이 심은 삼을 베어오게 했더니 모두 2단이어서 함께 묻게 했다. 그러나 모두 길고 커서 베 짜는 데는 합당치 못하다고 한다. 거죽을 벗겼더니 12묶음이다.

27일. 이웃 사람 박문재가 어제 현에 들어갔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왔는데 집사람의 편지를 보내왔기에 보니, 아내는 모두 잘 있고, 세만 등도 역시 모두 차도가 있다고 했다. 콩 3두·소금 1두·꿩 2마리·새끼노루 다리 1짝을 보내왔다. 김담이휴가를 얻어 가지고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다.

28일. 춘금이가 역시 휴가를 얻어 가지고 현에 들어갔다. 언신이 서울에 갔다가 이 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남고성의 편지 및 누이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했다. 또

광노의 편지를 보니 언신이 가지고 간 관판 11장 및 농기는 모두 받아서 그 집에 두었으나 실어갈 때의 값으로 필목 반 필, 쌀 5되를 주었다고 한다. 억수네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어 갔으니 분하다. 오후에 아우와 함께 걸어서 울방연 가에 가 보았더니 이른 조가 이미 누르러 익어 가는데 새 떼가 절반이나 까먹고 꺾었으니 분통한들 어찌하랴. 뒷마루 밑에서 뱀이 나와 달아나다가 창 밖에 앉아 있는 것을 거의 놓칠 뻔하다가 겨우 때려죽였다.

29일. 이 면의 위관들이 와서 보고 밭쌀 4두를 주는데, 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재삼 거절했으나 억지로 두고 돌아갔다. 1두는 즉시 아우의 집에 주었다. 그들에게 미 안하지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 의외의 물건을 얻었으니 근일의 목숨은 연장시킬 수 있겠다.

그믐날. 현의 문안인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보리쌀 5두 · 콩 5두 · 팥 3두 · 벼 5 두 · 꿩 3마리 · 소주 5되 · 토란대 3단 · 무 3묶음을 보내왔다. 보리쌀과 콩 각각 5 되를 두 계집종에게 나누어 주었다. 새달의 급료는 형편에 따라 더 줄 계획이다. 동쪽 집에 벼 1두, 아우의 집에 콩 5되를 또한 보냈다. 저녁에 인아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새 그물을 가지고 왔다. 이는 전일 현리에게 보내서 추를 달아 보내게 한 것이다.

# 7월

1일. 모레 쓸 제물을 얻기 위하여 이른 아침 식사 후에 편지를 써서 김담을 현에 보냈다. 늦은 후에 나는 홀로 말을 타고 기장과 조·콩·팥밭을 돌아보고 돌아왔는데, 이른 조는 이제 이미 반은 익었으니 열흘 안에는 거의 수확해서 쓰겠고, 늦은 곡식도 역시 이미 다 패었다. 현리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밀가루 1두·쌀가루 5 되·백미 5되·간장 1두·가지 15개·외 30개 등을 보내왔다. 윤겸은 이곳에 보낼 사람이 없을까 걱정하여 관인을 시켜 먼저 보냈기 때문에 김담은 저녁에 그대로 돌아왔다. 잣과 석이는 전일에 이미 보내왔다. 오늘부터 풀을 매어 이미 끝냈다.

2일. 딸들로 하여금 제사에 쓸 찬을 준비하게 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살 곳도

없어서 초라하게 갖추었으니 한스럽다.

- 3일. 곧 조모의 제사이다. 새벽에 아우로 하여금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나는 마침 감기가 들어 밤새 머리가 아프고, 또 윗입술이 부었으니 필시 중한 중세여서 제사에 참사하지 못했다. 무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 4일. 윤해는 현에 들어갔다가 그길로 서울에 가서 별시를 보려 한다. 계집종 옥춘도 역시 함께 갔다. 전일에 광노가 사 보낸 말은 처음에는 짐을 싣지 못하겠으므로이제 도로 보내서 무르려 했더니 근일에 잘 먹여서 처음 올 때보다는 나아졌다. 오늘 아침에 흙 8두를 담아서 싣고 고개를 오르내리게 하고 또 내를 건너게 했더니별로 자빠질 걱정이 없고, 아우와 인아가 또한 타고 고개를 넘었으나 또 자빠지는일이 없다. 비록 힘이 센 말은 아니어서 많이 실리지는 못하지만 7두쯤은 오히려실릴 수가 있다고 한다. 까닭에 시일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도로 무른다는 것도 역시 옳지 못하므로 아직 머물러 두었다가 살이 찌기를 기다려 내달쯤 올려 보내서도로 팔 계획이다.
- 5일. 채억복이 와서 보고 참외 큰 것 3개를 가져왔는데 8일 차례에 쓰려 하니 기쁘다. 집에는 보답할 물건이 없어서 겨우 추로 1잔을 대접하고, 벌통 위에 딴 그릇을 이미 올려놓게 했다. 대체로 벌통은 통 위에 으레 딴 그릇을 이어 주어야 꿀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있게 한 것이다. 7통에서 3통이 올에 난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 그 나머지 옛 벌 4통은 뚜껑을 열고 보니 꿀이 모두 가득하고, 다만 신수함이 가져온 벌통만은 차지 않았으니 이는 곧 금년에 많이 낳은 아기벌인 까닭이다. 이 것은 조그만 나무 그릇으로 덮었다.
- 6일. 덕노가 말을 가지고 현에 들어갔는데 모레 지낼 차례 제물을 얻어 오기 위해 서이다. 수일 이래로 가을 기운이 몹시 높아서 겹옷을 입어도 오히려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겠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집에 수족이 없고 보니 어찌할 수가 없다. 밤에 이 일을 생각하면 백 가지 생각이 가슴을 메워 경경(耿耿)히 잠을 이루지 못하니 인생이 탄식스럽다. 이는 모두 사람이 졸해서 그런 것이지만 늙으신 어머니와 처자들이 이 한 몸만 믿고 있는데, 올 가을에는 비록 떠나지 못해도 내년 봄 농사철 전에는 형세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니, 가을과 겨울의 일을 예비해

야만 내년의 일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앉아서 시일만 보낼 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다만 때만 기다리고 기한에 맡겨 두고 있으니 더욱 한탄스럽다.

7일. 곧 가절이다. 술과 과일로 차례를 지냈다. 저녁에 종 춘금이가 돌아왔는데 집사람의 편지를 보니 아무 일 없고, 윤해는 어제 이미 서울로 떠났다 한다. 벼 10 두·콩 5두·보리쌀 3두·꿩 8머리·노루 반 짝·수박 2개·참외 7개를 보내왔다. 동대 앞 언방의 밭에서 기장을 뚜드렸더니 전후 모두 12두가 났다. 울방연 가의 오이꽃조도 거두었는데, 묵은 곳도 있었으니 이는 지난봄에 간 것이다.

8일. 곧 아버님 생신이다. 찐 고기·상화병·탕·구이·실과 등으로 차례를 지냈다.

9일. 비로소 개비로 하여금 먼저 익은 참깨를 베게 했더니 낫 머리에 떨어진 것이 3되 5홉이다.

10일. 동풍이 계속 불어 차갑기가 깊은 가을과 같아 비록 겹옷을 입어도 오히려 더운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다만 효립이 수일 이래로 무수히 설사를 하여 음식을 전혀 폐하고, 심지어 오늘은 젖도 먹지 않고 마시면 문득 토하며, 눈을 감고 누워서 피곤해 하고 일어나지 않는데, 유아의 병이라 약도 쓸 수 없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언명의 종 개금이 지난밤 꿈에, 윤해가 책을 끼고 동쪽 집에서 여기에 오는데 중로에 썼던 갓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가 잡으려 해도 잡지 못했다 하니, 이는 갓을 버리고 모자를 쓰는 조짐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할 것이니 하례할 일이다. 정유년 봄에 그 형이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볼 때 내가 꿈에 갓을 벗고 와서 뵙는 것을 보았더니 마침내 그 효험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어리석은 계집종의 꿈이 이와 같았으니 반드시 그 효숭이 있을 것이라 기쁘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사람마다모두 길몽을 말하고 또 인사가 이미 다했으니 반드시 헛말이 아닐 것이다. 모레가 초시 날이니 윤함도 역시 반드시 서울에 왔을 것이다.

11일.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집사람은 소복되어 간다니 기쁘다. 꿩 4 마리·수박 3개·토란대 3단을 보내왔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효립의 증세는 설사는 좀 감했으나 위험하고 피곤한 형세는 여전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저녁에는 비가 왔다.

- 12일. 효아가 오늘은 좀 차도가 있어 젖을 먹고 토하지 않고 또 꿩고기도 먹고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으니 몹시 기쁘다. 오늘은 곧 별시 입장하는 날이다. 두 아이가 과거를 볼 터인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종일 흐리기만 하고 비는 내리지 않는데 서울에도 역시 이러한 지 모르겠다. 생각만 하고 잊을 수가 없다.
- 13일. 아노 개질지가 말을 가지고 왔다. 내가 내일 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깨를 베어 밭 가운데 묶어서 쌓았는데, 낫 머리에서 거둔 것이 5두 7홉이요, 전일 베어서 쌓았던 것을 털었더니 1두 2되이다. 개질지가 올 때 햇쌀 3되, 꿩 2마리를 보내왔다. 쌀은 천신했다.
- 14일. 이른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해가 저녁이 못 되어서 현에 도착했다. 여러 아이들을 보고 또 업아를 보니 전일과 같지 않고 살찌고 기이하니 우리 집 천리구와, 다음 날에 원대한 기약을 점칠 수가 있으니 기쁘고 위로가 됨을 이길 수가 없다. 관에서 다담을 내왔으나 다만 관의 저축이 텅 비어서 다시 손을 댈 방법이 없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 15일. 관아에 머물렀다. 곧 속절이라, 관에서 과일과 술과 떡을 내와서 종일 여러 아이들과 이 저녁에 방자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윤해의 편지를 보니, 초장은 윤함과 무사히 출입했으나 세 장소가 두 곳으로 합쳐져서 저는 첫 번에는 성균관으로 가고 두 번째는 사삿집으로 갔다고 한다.
- **16일.** 관아에 머물렀다. 윤해는 과거에 참여할 수는 있었으나 전시의 명지는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백지첩을 내일 마땅히 윤해에게 보낼 것이다.
- 17일. 늦은 후에 떠나서 소근전에 이르니 김 주부 명세 및 김린, 허충, 권호고 등이 각각 술병과 과일을 가지고 집 앞 송정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서 한참 이야 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올 때 중미 1두 · 벼 4두 · 새끼노루 반 짝 · 꿩 3마리를 보내왔고, 쌀 5되 · 벼 1두 · 소주 4병 · 꿩 1마리 · 집돼지 삶은 것 다리 1짝은 아우의 집에 보냈다. 내일이 아우의 생일이기 때문에 윤겸이 얻어 보낸 것이다. 관아에 있을 때 들으니 윤겸의 처와 첩이 모두 태기가 있다고 한다.
- **18일.** 아노 세만이 현으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찰기장을 베어 뚜드렸더니 5두가 났다.

**19일.** 사동의 밭 조를 뚜드렸더니 17두가 났기에 아우의 집에 2두, 윤해의 집에 1두를 보냈다.

20일. 인아가 온 집안사람 4명을 데리고 소근전에 가서 염광필이 병작한 중금의 밭 피를 뚜드려서 1석 4두를 가져왔기에 7두는 즉시 아우의 집에 보내서 방아를 찧어 서울 갈 때 양식으로 쓰게 하고, 또 두 계집종의 이달 급료(給料) 1두 반씩을 주었다.

21일. 현의 문안인이 와서 들으니 남초가 많이 부족해서 명주에 염색하는 것이 절반도 모자라므로 이곳 인가에 있는 것을 구했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갔으니 한스럽다.

22일. 윤해와 윤함 두 아이의 초시에 합격되고 되지 않은 것을 아직도 얻어듣지 못했는데, 오늘이 곧 양시일(兩試日)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제 통발을 뒷내 상류에 놓았더니 어젯밤에 잡힌 것이 겨우 20여마리이다

23일. 근일에 오랫동안 비는 오지 않고 서늘한 바람은 계속 불며, 이슬도 역시 많이 내리지 않아 늦은 곡식은 아직 결실이 되지 않는 것이 많고 더구나 보리와 채소받에 해롭다고 하니 한스럽다.

24일. 아침에 이 면에 사는 사람이 현에서 돌아오는데 윤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윤해가 서울에서 보낸 편지도 역시 왔기에 보니, 두 장소의 유생이 거의 4, 5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아직 과거를 보지 못하고 지난 21일 사이에 방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20일에 현리가 내려가는 편에 부친다고 했다. 두 장소의 책제 및 제가 지은 책문 및 입(立)·논(論) 등의 글을 보냈기에 보니, 뜻이 분명해서 합격될 만하니 다만 그 장중에서의 득실은 기필할 수가 없다. 전시는 26일로 물려 정했다고한다. 윤함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오래 서울에 머물러 고생이 막심할 테니 걱정스럽다. 또 들으니 왜적은 우리나라 사람 10여 명을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전일에 보낸다던 청화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지 않았으니 너의 나라에서 만일 보내지 않으면 내년 2월에 군사를 일으켜 다시 오겠다고 한단다. 돌아온 사람에게 들으니 수길(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이 그 자리를 계승했는

데 나이 겨우 8세여서 수길과 동성(同姓)인 자가 섭정을 하여 위엄과 권세가 나라 안에 진동하여 청정(淸正) 이하가 모두 부복하고 명령을 듣는다고 한다. 또 그 군 사는 비록 이미 바다를 건너갔으나 아직 해산시키지 않고 날마다 연습하고 있으니 내년 11월에 대거 침입해 온다는 계획이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전일에 강화사를 저희 나라에서 중국 조정에 보냈더니 중국 조정에서 다 죽였다고 한다. 또 들으니 식년 과거는 명년 봄으로 물렸으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물려 행한다면 윤함은 이곳에 와서 본 뒤에 해서로 돌아간다고 한다. 저녁에 윤겸이 근친 왔다. 내일은 곧 내 생일이다. 이 때문에 소주 6병ㆍ청주 2병ㆍ수박 4개ㆍ참외 6개ㆍ가지 30개ㆍ백미 1두ㆍ중미 3두ㆍ목미 1두ㆍ찹쌀 5되ㆍ노루 1마리ㆍ꿩 7마리ㆍ잣 1두ㆍ적두 2두를 가져왔다.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어머님 행차는 새달 초9일로 정했다. 만일 다행히 윤해가 급제했으면 마땅히 이곳에서 경연을 열 것이니 물려 행할 수가 없다.

25일. 딸들을 시켜 차례 지낼 음식을 차리게 했는데, 삼색 떡ㆍ탕ㆍ구이ㆍ및 실과 등으로 먼저 신주에 제사 지내고 다음으로 죽은 딸에게 지냈다. 이웃 마을에서 와보는 자들에게 각각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또 최 판관을 맞아다가 안주를 갖추어 각각 두어 순배를 돌리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저녁 때 돌아갔다. 안협의 노인 연수가 와 보고 좋은 배 및 수박을 가져왔으므로 소주 2잔과 떡ㆍ구이를 대접해 보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나의 생일이란 말을 듣고, 박문재는 떡 1행담을 만들고, 김언보, 전업이 각각 찰기장쌀 1두, 김억수가 꿀 1되를 가져왔고, 그 나머지는 혹산 실과, 혹황이 등 물건을 각각 가져왔기에 모두 술과 떡을 주어 사례했다. 저녁에 현리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윤해 형제가 모두 초시에 합격했다고, 마침 이은신의 집 종이 듣고 와서 전하더라고 하며, 금명간 황금이가 올때 방목 및 윤해의 편지도 전해 줄 것이라고 한다. 전시는 26일로 물려 정했는데 윤함도 또한 참여한다고 하니 더욱 몹시 기쁘고 위로가 된다. 그러나 아직 방 및 윤해의 편지를 보지 못했으니 그것이 허보일까 걱정이다.

**26일.** 윤겸은 일찍 식사를 하고 현으로 돌아갔다. 다만 멀리 가지 않아서 비를 뿌렸는데 그러나 크게 내리지는 않았으니 필시 옷은 젖지 않았을 것이다.

27일. 춘기가 현에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목화를 바꿔 가지고 올 일로 그길로 안변으로 갈 것이다. 나는 말이 없어서 함께 보내지 못하니 금년 목화는 필시 얻어 쓰지 못해서 상하가 장차 얼 것이니 탄식한들 어찌하랴.

28일. 저녁 내내 현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으니 풍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인가. 두 아이가 합격했으면 좋지만 아직 들어 알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오후에 내가 홀로 말을 타고 경작한 여러 밭의 조와 피를 둘러보니 남의 곡식만 못하고 또 간 것도 몹시 간략해서 겨울을 지나기가 몹시 어렵겠으니 걱정스러우나 어찌하랴

**29일.** 이른 아침에 전업이 술과 떡 및 실과 등 물건을 가지고 왔다. 이는 곧 그 집에 제사를 지내고 남은 물건이라고 한다.

# 8월

1일. 현의 문안인이 와서 편지를 보니 윤함이 어제저녁에 왔는데 전시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떠나왔고, 윤해는 전시 날 저녁때 비가 내려서 미처 다 쓰지 못했는데 군사에게 뺏겨서 바치지 못했다고 한다. 온 집안 상하의 희망이 모두 헛것이 되고 말았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때가 오지 않은 것인가. 윤함은 써 냈다고 하지만, 다만 행문은 그의 장기가 아니니 어찌 바랄 수 있으랴. 전책의 제목은 "用人"이요 상시관(上試官)은 이산해(李山海)라고 한다. 초시에서는 윤해가 논(論)으로 차하(次下)요, 윤함은 부(賦)로 차하(次下)를 얻었다고 한다. 책(策)은 장중 사람들이모두 실지(失志)해서 합격한 사람이 적었다 한다. 논(論)의 제목은 "楊亀山應蔡京薦"이요, 부(賦)의 제목은 "八功出儒生乃虞文采石捷金亮事"라고 한다. 또 둘째 장소의 논의 제목은 "宋高喜讀春秋"요, 부의 제목은 "草堂擧賢"으로서 곧 등우가 초당에 있을 때 광무제가 찾은 일과 우임금이 엄광을 천거한 일이라고 한다. 첫째 장소의 시관(試官)은 이정귀요, 둘째 장소의 시관은 이충원이라고 한다. 또 오늘은 곧 석전이다. 집돼지 앞다리 1짝 및 중미 2두를 보내왔다. 오는 9일로 어머님 행차가 이미 정해져서 사람과 말 3필을 이미 뽑아 보냈고, 집사람은 또한 6일에 돌아온다고 한다. 윤함은 이로부터 해서로 돌아간다고 한다. 들으니 윤겸의 첩이 낙태

했다고 하니 애석하다. 현의 사람에게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심열의 편지가 또한 왔기에 보니 과거를 본 뒤에 즉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길에 돌아와서 어머님을 뵐 것이기에 지금은 가을일이 바빠서 돌아간다고 했다. 윤해는 이 길로 인천에 가서 그 정숙모(鄭叔母)를 뵌 뒤에 율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2일. 아침에 춘금이 휴가를 얻어 가지고 현으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아침 식사 때 어제 보내 온 돼지 다리로 국을 끓였더니 여러 아이들이 오랫동안 먹어 보지 못하던 나머지에 몰려들어 다투어 먹으면서 혹은 울고 혹은 웃어 온 방 안이 시끄러우니 한편 가소롭다. 다만 어머님은 본래 돼지고기를 드시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으니 한스럽다. 저녁에 이 면의 색장이 현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9일의 어머님 행차에 쓸 차비는 이미 다 준비시켰으나 다만 양식과 찬이 몹시 어려워서 부득이 군량 1석을 먼저 꾸어서 쓸 계획이라 했다. 집돼지 머리 삶은 것과 다리 반짝을 보내왔다. 처음에 인아로 하여금 사람을 데리고 풀을 베고서때 그물을 치게 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 인무일(前寅戊日)에 풀을 베고 후인무일에 그물을 쳐야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곧 인일(寅日)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시켜 터를 잡았으니 올해는 기어코 잡아서 말 살 밑천을 삼아야 하겠다.

3일. 아침 식사 전에 어제 보내 온 돼지 머리 삶은 고기를 베어서 온 집안이 모두 모여 나누어 먹었다. 저녁에 현리가 왔기에 편지를 보니 집사람이 수일 동안 기운이 불편해서 수일 동안 조리해 가지고 6일에 떠나온다고 했다. 삶은 돼지고기를 또 보냈다. 백미 1두도 또한 보내왔다. 다만 어머님께서는 본래 돼지고기를 드시지 않으시고, 요새 반찬이 모두 떨어져서 그간 채소만을 드리니 늙은 어머님 입에어찌 맞겠는가. 이 때문에 식사가 아주 감해지셨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4일. 광주 묘하에 사는 종 성김이 왔는데 곧 9일에 갈 때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오늘 불러 온 것이다. 다만 제 소를 가지고 오지 않고 판다고 하니 밉살스럽다. 인아가 가서 김현복이 병작하는 중금의 밭의 조를 뚜드려 왔는데 모두 1석 8두가 났고 짚은 뚜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우의 집에 4두를 보내어 서울 갈 때 양식으로 쓰도록 했다

5일, 집사람이 내일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덕노를 현으로 보냈고, 언명도 역시 그

종을 함께 보냈다.

- **6일.** 저녁에 집사람이 왔는데 윤함이 모시고 왔고, 인아는 중로까지 가서 역시 맞아 모시고 돌아왔다. 9일에 어머님께서 가실 때 양식과 찬으로 쓰도록 윤겸이 백미 4두 · 밭쌀 5두 · 콩 3두 · 노루포 15조각 · 미역 3곶 · 마른 생선 2마리 · 꿩 3마리 · 감장 1두 · 간장 2되를 보내고, 언명의 집에도 중미 3두 · 밭쌀 5두 · 감장 1두 · 나무소반 3개 · 솥 1개 · 백지 1묶음 · 상지 1묶음을 역시 보냈다.
- 7일. 강비가 그저께부터 두통으로 몹시 괴로워하더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덜하지 않고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니 근심스럽다. 전업과 박언방이 서울에 가기에 편지를 써서 남매의 집에 보내어 어머님께서 올라가신다는 뜻을 말하게 했다. 김언보가 와서 보고 꿀 2되를 가져오고, 민시중도 역시 꿩 1마리를 가져왔다.
- 8일. 김명세 · 김린 · 김애일 등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전별한다. 곧 우리 형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내일 서울에 가기 때문이다. 남촌에 사는 최억수가 햅쌀 3두를 가져왔기에 술 3잔을 주어 보냈다. 윤겸이 왔는데 소주 5병 · 청주 1항아리 · 차조쌀 3되 · 수박 3개 · 꿀 2되 · 약과 90덩이 · 중박계 80알 · 제사에 쓸 개암 5되 · 생율 5되 · 대구 2마리 · 말린 꿩 4마리 · 산 꿩 5마리 · 닭 5마리 · 여항어 2마리 등을 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도 역시 차조떡을 만들어 행로의 비용으로 쓰게했다. 철원에 사는 사람이 늙은 숫말을 끌고 와서 우리 집 암말과 바꿔 가지고 갔다. 우리 집 말은 걸음이 몹시 더디고 또 짐을 싣지 못하여 바야흐로 민망히 여겨만 말로 바꾸려 한 지가 오래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와서 바꿔 갔으니 몹시 기쁘다.
- 9일. 어머님을 모시고 일찍 식사를 한 뒤에 떠나서 말지산 밑에 이르러 어머님은 교자를 타고 고개를 넘었다. 고갯길이 좁고 험해서 사람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도 또한 걸어서 고개를 넘어 산 밑 배나무 정자 밑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은 후에 떠나서 철원 땅 마산촌에 이르렀다. 평강 백성이 난리 후에 이곳으로 옮겨와 살고 있기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잤다. 집주인의 이름은 거을후미로서나이가 늙었는데 본관(本官)의 요역(搖役)을 할 때 관주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에 약과와 떡 등을 대접하고 소주 1잔을 주었다. 그 집에

서 상하가 편안히 잤다.

10일. 날이 밝기 전에 흰죽을 쑤어 어머님께 드리고, 우리들은 소주를 마시는데 집 주인이 또한 닭을 삶고 술을 내왔기에 역시 소주를 주어 보답했다. 해가 돋기 전에 떠나서 철원 땅 권화원 앞 냇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었다. 길에서 한 생원 효중을 만나 말을 세워 놓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작별했다. 한에게 들으니 별시에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은 곧 조탁이요, 급제한 자는 16명이라 한다. 한도 역시 함경도로들어가 처자를 데리고 돌아오고자 오늘 평강현에서 잔다고 하기에 우리 일행이 무사히 가더라고 윤겸에게 말하도록 일렀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 전에 최 판관 응진이 역시 평강으로부터 양주 땅으로 향해 가는데 성묘하기 위해서다. 의외에 서로만났으므로 냇가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다가 먼저 떠나서 양주 땅에 이르러 고 판서 김첩경의 종 수이의 집에서 잤다.

11일. 날이 밝기 전에 흰죽을 쑤어서 어머님께 드리고 떠나서 가정자 인가에 아침 밥을 지었다. 홍 참봉 매, 김 내금 순결이 와 보았다. 그들은 여기에 임시로 와 있는 자들이다. 홍 공이 밥을 지어 나에게 대접한다. 떠나서 천천촌 2, 3리 못 미쳐서 천둥과 비가 크게 일어 북쪽으로부터 몰려오는데, 어머님은 겨우 도롱이를 덮어서 옷이 젖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상하는 모두 옷이 젖었고, 신아(新芽)들은 옷이 다 젖어서 이를 떨고 우니 한편 우습다. 달래서 천천촌에 이르러 고 병사 신각의 종 세동의 집에서 잤다. 세동이는 전부터 왕래할 때면 언명과 윤겸이 그 집에서 잤기 때문에 대접하기를 몹시 후하게 한다. 나도 역시 술과 떡을 주어 보답했다. 다만 소나기가 오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젖은 옷을 즉시 널어서 말렸다.

12일. 날이 밝기 전에 어머님께 흰죽을 드리고 일찍 밥을 먹은 후에 떠나서 장수원 냇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었다. 그러나 지난밤에 자던 주인집에서 이떼가 몰려들어 편안히 자지 못하고 가려움을 견디지 못했기에 아침밥을 먹는 곳에서 이불을 펴 놓고 이불 속에 있는 이를 잡았다. 처음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남고성의 집으로 갈까 했더니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어머님이 쓰실 방을 이미 수리해놓았더니 중국 군사가 빼앗아 들었다고 하므로 부득이 토당으로 바로 가려고 했더니, 누이가 또 문밖으로 사람을 보내서 성안으로 들어와서 자고 내일 가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가 누이의 집에서 잤다. 김 도사 자정(김지남)이 어머님께서 서울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저녁에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소주 2잔을 마시고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우리 형제는 행랑방에서 잤다.

13일. 일찍 식사를 마치고 언명이 어머님을 모시고 처자를 거느리고 먼저 토당으로 가고, 나는 일이 있어 머물러 있었다. 제물을 사 가지고 내일 갈 계획이다. 남매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광노의 집으로 왔는데, 오후에 김자정이 와 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갔다. 아침에 들어온 중국 군사가 내 말을 빼앗아 타고 간 것을 덕노가 뒤따라가서 찾아왔다. 이 때문에 말 1마리로는 실어갈 수가 없어서 선아는 역시 여기 머물러 있다가 내일 내가 갈 때 데리고 갈 계획이다. 내 말을 팔려고 했으나 요새 말 값이 도로 떨어져서 팔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면 다시 수일만 머무르다가 팔 계획이다.

14일. 데리고 온 인마는 문 열기를 기다려 도로 내려 보내고, 다만 말 1필만 남겨 두었다가 내가 갈 때 타고 갈 계획이다. 이 때문에 먼저 돌아간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양식 쌀 5되씩을 내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도록 했다. 아침 식사 후에 남 매가 와서 보았다. 중태 씨의 만류로 인해서 바둑 두어 판을 둔 뒤에 신아를 데리고 토당의 어머님 계신 곳으로 왔다. 이곳은 곧 삼촌의 종 근복의 집인데 겨우 용슬할 만하여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언명으로 하여금 속히 집을 짓게 했다. 윤해도 역시 제사를 지내려고 율전에서 들어왔다. 언명의 처씨는 묘지기 계집종을 데리고 제찬을 준비했다. 나는 아우 및 윤해와 함께 이웃집에서 잤다.

15일. 새벽부터 풍우가 크게 일어 도저히 산소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더니 늦은 아침 후에 비로소 개므로 산소로 올라가 제사를 지냈다. 먼저 조고비에게 지내고 다음으로 아버님께 지내고, 다음은 죽전 숙주 양위분께 지내고, 다음은 죽은 아우에게 지낸 뒤에 또 죽은 딸에게 지냈다. 그리고 또 향매, 영손, 지질에게 지내고 나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산소 앞에 둘러앉아서 음복했다. 오덕일과 허찬도 역시와서 제사에 참여했는데 끝낸 후에 집 짓는 데에 와 보았다. 광진, 복롱에게도 역시술과 안주를 주고, 나도 역시 두어 잔을 마시고 어머님 계신 곳으로 와서 역시어제 자던 집에서 잤다. 정귀원 부자가 와서 보고 생율 두어 되를 가져왔다.

16일. 식사 후에 어머님을 작별하고 윤해와 함께 떠나서 사평원에 이르렀는데, 마침 중국 장수가 낭중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만나서 말에서 내려 길가에 서 있는데 접반사 한 첨지 술(述)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역시 말에서 내려 잠시 서서 이야기하다가 성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임 참봉댁을 찾고, 또 임백천 부자를 보고 광노의 집에 도착하니 윤겸의 처자도 역시 도착해 있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서촌 온집안도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다만 강비의 병세가 위중해서 구원할 수가 없다고하니 불쌍하다. 이 계집중은 비록 용렬하지만 어려서부터 이 집안에서 생장하면서 오로지 밥 짓는 책임을 맡아서 했는데 이제 만일 타향에서 죽는다면 비단 제 몸이가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집안이 더욱 일을 할 수가 없을 테니 몹시 근심스럽고 민망하다. 저녁 식사 후에 남매가 보니, 고성이 그저께부터 기운이 불편하여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김 도사 자정을 찾아보고 같이 잤다. 먼저 약속이 있었다. 마침 자정의 형 영남 및 질녀의 남편최영률이 역시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자리에 들었다.

17일. 아침 식사 전에 자정과 작별하고 기성군을 찾아갔더니 기성군은 풍병으로 사장을 내고 집에 있어서 서로 옛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 늦은 후에 남매를 가서 보니 중소 씨(남상문)은 아직도 쾌하지 않아 바야흐로 곤히자고 있기 때문에 만나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오후에 윤겸의 처자는 떠나서 토당에 가서 자고 그길로 어머님께 가 뵙겠다고 한다. 광노로 하여금 좋은 필목 1필을 가지고 목화 14근을 바꿔 오게 했는데 다시 달아 보니 15근 반이다. 윤해의 양모는 중목 1필로 12근을 받아 왔는데 다시 달아 보니 12근 10량이다. 김자정이 경영고에서 왔다. 윤 진사 민헌이 또한 와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 흩어져 갔다. 저녁에 계집종 옥춘이 토당에서 와 어머님 편지를 보니 서로 떨어지는 것을 탄식을 하셨으니 슬픈 눈물을 이길 수가 없다.

18일. 어제 며느리의 행차에 계집종 등이 잘못하여 우리 주머니에 든 양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문을 열기를 기다려 덕노로 하여금 토당에 가서 찾아오게 했다. 늦게 식사를 한 뒤에 윤해와 함께 떠나서 양주현 양진역 앞 냇가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고 판서 의중의 종의 집에서 잤다.

19일. 날이 밝을 무렵에 가정자에 이르러 아침을 먹는데, 김수희, 김순걸이 와서 보는데, 순걸은 나에게 생율 3되를 준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떠나서 연천현 앞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밥을 먹은 후에 철원 땅 양태항촌에 와서 교생 이 인준의 집에서 잤다. 오후에 길에서 홍 참봉 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나서 말을 세우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어제부터 비로소 서리가 내렸다.

20일. 날이 밝기 전에 떠나서 삭녕 동면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집에 이르러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떠나서 세 번 험한 고개를 넘고 두 번 큰 내를 건너는데 산길이 꾸불꾸불해서 파리한 말이 자주 자빠져서 겨우 집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떨어졌다. 마침 신함열의 종 춘억이 봉산으로부터 왔기에 자방의 편지 및 딸의 편지를 보니, 저번에 자방은 감기를 앓고 진아는 이질을 앓고서 이제 겨우 소복되었다고 하여, 오는 10월 그믐 전에 온 집안이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다만 들으니 그 집은 올해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자못 곤궁한 근심이 있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인아 황촌의 학전에 가서 수확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피 3석 7두를 나누어 왔다. 짚은 뚜드리지 않았는데 역시 10여 두는 나겠다고 한다. 올 때 길가의 농사를 보았더니 여러 곡식들을 바야흐로 수확할 때이나 늦은 콩과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는데 연 3일 서리가 내려서 모두 말랐다니 아깝다. 일찍 심은 콩과 팥은 많이 여물었다 한다. 서울에 있을 때 들으니 강비의 병세가 위중하다고 하여 필경 죽었을 것이라고 했더니 지금 와서 보니 어제부터 비로소 일어나니 곧 이틀걸이 학질이라고 한다.

21일. 춘억이 현에 가기에 편지 써서 윤겸에게 보냈다. 어제 올 때 윤겸의 첩의 종 풍금이는 잔 곳에서 바로 현아로 돌아갔다. 저녁에 춘금이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보리씨 29두·참보리씨 3두·꿩 2마리를 가지고 왔다. 또 아내에서 찰떡 1행담, 세미 1두를 역시 보내왔다. 올해 동과는 딴 것이 크고 작은 것 모두 30여 개요, 가지도 또한 많으나 외는 열지 않았다.

22일. 윤겸이 보리씨를 실어 보냈다. 전일 춘금이가 올 때 짐이 무거워서 못다 가져왔기 때문이다. 백미 1두도 역시 보냈다. 오후에 무료해 걸어서 앞뒤 들의 내가 경작하는 콩·팥밭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콩과 팥은 일찍 심었기 때문에 서리가

오기 전에 이미 여물었으니 이제 비록 서리를 만나도 쓰지 못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23일. 지난밤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니 새벽에 이르러 비로소 개었다. 언신으로 하여금 김언보의 밭을 빌려서 가을보리를 갈게 했다. 내년에 비록 온 집이 떠나더라도 만일 여기에 보리를 심으면 거둬 쓸 수가 있을 것이요, 시사가 어려운 일이 많으니 떠날 시기도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써 먼 계획을 하는 것이다. 채억복이 눌어 큰 것 1마리를 가져왔기에 쌀 1되를 주었다.

24일. 어제 못다 간 보리받을 갈고 보리씨 27두를 뿌렸다. 김언보가 금린어 1마리를 가져왔는데 반 자가 넘는다. 저녁에 윤겸이 근친왔기에 이 물고기를 구워서 주었다. 백미 2두, 세미 3두를 가지고 왔다. 꿩 1마리, 소주 1병도 역시 가져왔기에 즉시 1잔을 마셨다. 다만 언명이 있지 않아서 잔을 잡으니 갑자기 함께 마시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니 슬프고 탄식한들 어찌하랴. 이제 꿩고기를 얻었는데 또한 어머님께 드리지 못하니 밥상을 대해도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사세가 절박해서 늙으신 어머니, 한 아우와 같이 있지 못하고 먼저 군색한 곳으로 보냈으니, 거처와음식이 반드시 뜻과 같지 못한 걱정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고 민망해 한들 어찌하랴.

25일. 늦은 후에 윤겸이 현으로 돌아갔다. 깨를 거두어 두드렸더니 10두가 났는데 아직 다 뚜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입과 계산하면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광노가 그 집 인마로 하여금 소금 40여 두를 사서 이곳으로 보내 곡식으로 바꾸게 하여 내년에 갖다 쓸 계획을 한다고 했다. 절인 황어 2마리를 가져왔다.

26일. 안손을 보내어 현에 보내서 마태를 가져오게 했다. 매그물을 두 곳에 치고물고기집을 여섯 곳에 담갔다. 또 조련의 밭 피 3백 70묶음을 거둬 밭 가운데에 쌓아 두게 했다. 이는 곧 전일에 비어 깔았던 것이다. 내가 걸어서 가 보고 어두울 때돌아왔다.

27일. 옥동역 계집종 중금의 밭보리 뚜드리는 일로 인아와 덕노가 이른 아침에 갔다. 늦은 후에 윤해와 함께 걸어서 말지 뒷산에 가서 계집종들이 보리 거둬 묶는

것과 인아의 밭 조 거두는 것을 바라보고 머리를 돌이켜 사방을 바라보니 가을 산이 참으로 좋아 금수를 이루어 술 마시기에 꼭 좋은데 이웃에 이야기할 만한 친구도 없고 또 한 방울 술도 없으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랴. 그러나 높은데 오르니 정신이 상쾌하여 역시 족히 회포를 씻을 만하니 역시 족히 한번 쾌하다 하겠다. 저녁에 안손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백미 2두ㆍ마태 5두ㆍ꿀 5되ㆍ법유 3되ㆍ염초(染草) 4묶음을 보내왔기에 꿀과 기름 각각 1되씩은 윤해의 집에 주고 꿀 1되는 인아의 처에게 주었다. 광노의 집사람이 서울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 주어 토당 어머님께 전하게 하고 말린 꿩 4마리도 역시 싸보냈다.

28일. 아노 개질지가 왔기에 윤겸의 편지를 보니 만 경리 차관이 현에 왔는데 인삼 백 근을 배정했으나 구해낼 길이 없어서 반드시 후환이 있겠다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비단 이 현 뿐이 아니라, 여러 고을이 모두 이와 같아서 독촉이 몹시 급하니, 이는 필시 만 경리가 사사로운 인정으로 중국 조정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 성천자(聖天子)께서는 우리 동쪽 백성을 돌봐 주는 마음이 지극하신데, 경리는 천자의 근심을 나누는 책임을 맡아 가지고 외로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음이 여기에 이르니 몹시 미우나 어찌하랴. 어제 후임의 생일이어서 윤겸이 유병 1행담을 만들어보냈다.

29일. 개질지가 현으로 돌아가기에 답장을 써 보냈다. 지난밤에 매 그물에 토끼가 걸려 그물을 물어뜯고 거의 도망가게 된 것을 마침 사람들이 잡아 왔기에 구워 먹었더니 그 맛이 마치 꿩고기와 같다. 이른바 물고기 그물에 기러기가 걸린 격이 되었다. 저녁에 춘금이 그물 친 곳에 가 보았더니 닭이 맨 끈을 끊고 간 곳이 없더라니 만일 도망가지 않았으면 반드시 누가 훔쳐 간 것이니 밉살스럽다. 인아가 돌아왔는데 이상이 병작한 중금의 밭에서 보리 2석 5두·조 10두·콩 1석 8두가 났다고 한다.

그믐날. 오후에 걸어서 조를 베어 깐 밭에 가 보았더니 이른 조는 오래도록 베지 않아서 절반이나 떨어졌고, 깨도 역시 모두 떨어져서 빈 깍지가 많으니 필시 인력이 부족한 까닭일 것이다. 한탄한들 무엇하라.

### 9월

- **1일.** 전일에 잃은 닭을 오늘 산속에서 찾았으니 사람이 훔쳐 간 것이 아니라 끈을 끊고 도망한 것이다. 수일 밤을 지내는 중에 여우나 살쾡이에게 물려가지 않고 이제 도로 얻어 왔으니 가위 다행한 일이다.
- 2일. 온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세 곳의 조를 거둬 묶게 한 뒤에 조인손의 밭 콩을 거두었다. 늦은 후에 소를 타고 가 보았다. 그러나 인삼을 미처 거둬 바치지 못한 일로 해서 민간이 시끄럽고 심지어 처자들을 잡아가서 갇힌 사람이 옥에 가득한 데도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으니 필시 저 사람이 욕을 당할 것이라, 몹시 걱정스럽다. 윤겸이 김언보가 돌아오는 편에 편지를 보내고, 꿩 2마리, 백미 1두를 보내왔다. 저녁에 부석사의 중 법희가 짚신 2켤레를 가져왔기에 저녁을 대접해서 재웠다. 전일 만든 삼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이다.
- 3일. 조인손의 밭 콩을 거두고, 뒤에 언수의 밭 콩으로 옮겼으나 다 거두어 쌓지 못했다. 지난밤 비가 내린 뒤에 일기가 몹시 차고 바람이 불어서 저녁때가 되자 일 꾼들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힘을 다하지 못했다.
- 4일. 덕노가 휴가를 얻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자기의 물건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어머님께 편지를 보내고 꿩 1마리, 목미 1두도 보냈다. 남매에게 포도정과 1 항아리를 만들어 보내면서 어머님께 나누어 보내게 했다. 거기에 꿀 2되도 보냈다. 며느리가 데리고 갔던 종 세만이 현으로 왔는데, 상하가 모두 일 없이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세만이 올 때 토당 어머님 계신 곳에 가서 편지를 드리고 뵈었더니 아무 병환도 없더라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라. 다만 집 짓는 일은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근복의 집에서 겨울을 지낸 이후에 내년 봄 해가 길 때 지으려 한다고한다. 이는 모두 양식이 떨어져서 사람을 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머님 양식과찬도 역시 떨어졌다고 하니 민망스럽고 걱정되기 끝이 없다. 평산정이 사람과 말을 보냈다. 이는 곧 지난봄에 명주와 꿀을 바꿀 일로 필목 4필을 여기에 두면서 나로 하여금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명주는 금년에 서울 상인에게 바꾸려 했으나 그 값이 몹시 비싸서 아직껏 바꾸지 못했으니 형세가 장차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몹시 한스럽다. 온 집안 노비들로 하여

금 전풍의 집 <del>콩을</del> 거두게 했더니 마침 큰 바람이 불고 추워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떨어 간신히 다 거두었다.

5일. 평산정의 종은 꿀 2두를 얻어 주었으니 이는 곧 필목 2필로 바꾼 것이다. 1필은 두었다가 후일 사서 보내련다. 담을 그릇이 없어서 관인이 그릇을 얻어다가 담아 보냈는데 역시 후일 올 때 가지고 오게 했다. 저녁에 철원 마산촌에 사는 김거을이 와서 보고 꿩 2마리를 준다. 이는 곧 전일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에 갈 때 집주인으로서 윤경에게 역속되었던 자이다. 그 아들 유정이 지금 신안역의 예초군으로 있기 때문에 감해 달라고 청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녁밥을 대접하고 재워 보냈다. 매 그물에 걸린 닭을 또 잃었다.

6일. 평산정의 종이 오늘 비로소 돌아갔다. 집에 줄 물건이 없어서 석이 5되, 꿩 1 마리를 주어 보내고, 양식 4되, 마태 5되도 또한 주었다. 인아는 중금의 밭 수확할 일로 소근전에 갔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와서 편지를 전하기에 보니 도사는 어제 이미 지나갔고, 중국 관원은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인삼은 70근을 마련해 주었으나 그 나머지는 준비하지 못한 수를 아직도 재촉하니 몹시 민망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오는 9일에 지내려 하던 시사(時祀)에 모든 물건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려서 지내자고 말했다. 백미 5두를 우선 보내왔다.

**7일.** 친히 온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김언보의 밭 적두를 뚜드렸더니 4석 2두가 났다. 곧 이틀갈이이다. 만일 잘되었으면 7, 8석은 날 것인데 올해는 몹시 잘되지 않아서 이와 같으니 탄식할 일이다.

8일. 저녁에 문안인이 와서 편지를 보니 중국 관원은 어제 이미 떠나갔는데 부족한 인삼은 뒤에 그가 가 있는 곳으로 보낼 계획이나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 만나서 감해 받겠다고 했다. 백미 5두 · 밭쌀 7두 · 꿀 5되 · 홍시 40여 개를 보내왔으니 곧 결성에서 온 물건이다. 꿩과 닭 각각 2마리 · 밤 1두 · 청주 5병을 보내왔다. 또 들으니 개질지가 근일 서울에 간다고 하기에 편지를 써 주어 토당에 전하게 했다. 시사는 15일에 지내기로 통지했다. 인아는 중금의 밭 콩, 팥 뚜드리는 것을 가 보았는데 콩은 13두, 팥은 1석이 났다고 한다. 아직 실어 오지 않고 병작한 사람 장풍년의 집에 두었다.

9일. 곧 가절이다. 술과 떡·포·과일·탕·구이로 차례를 지냈다. 마침 김 별감 린이 술 1쟁반·닭 1마리·국수 1행담을 가지고 왔기에 술과 떡을 대접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김이 병작한 중금의 밭에서 난 팥 10두도 역시 가지고 왔다. 윤해는 학질을 세 번 앓고 오늘 비로소 떨어졌으니 기쁘다. 절일이기 때문에 노비들이 밭일은 나가지 않았다.

10일. 이인방의 밭 팥을 뚜드렸더니 1석 9두가 났다. 곧 하루갈이이다. 내가 친히가 보았더니 박문재의 집 앞에 있기 때문에 문재가 나를 위하여 닭을 잡고 점심을 지어 주었다. 저녁에 아노 세만과 함열(신응구)의 종 춘억이 와서 윤겸의 편지를보니, 오는 13일 사이에 근친 온다고 한다. 영동에서 사온 어물 방어 2마리ㆍ절인은구어 30마리ㆍ생전복 백 개ㆍ말린 망어 1마리ㆍ대구 4마리를 보내왔다. 시사에 쓰기 위한 것이다. 세만은 이 길로 연안 농장에 수공하러 가고, 춘억은 지난봄에 나누어 준 곡식을 수납한 뒤에 이제 비로소 봉산으로 돌아갔다. 윤겸이 목미 2두ㆍ꿀 5되ㆍ포도정과 5되ㆍ개암과 잣 각 1두ㆍ황납 1덩이ㆍ석이 1두를 보내왔다. 상례(신발)에게도 역시 꿀 2되ㆍ방어 반 짝을 보냈다 한다. 수학의 누이가 말린 꿩 1마리, 대구 1마리를 역시 딸에게 보냈다 한다.

11일. 춘억과 세만이 새벽에 떠나갔다. 함열의 집에서 이곳에 보낸 물건을 적두 2 두 · 포도정과 2되 · 밤과 무 각 1두 · 참버섯, 말린 밤 조금씩을 주머니에 넣고, 또 장의를 만들어 딸에게 보내고, 닭 1마리는 또 진아에게 보내도록 모두 춘억에게 주어 보냈다. 안협에 사는 노인 연수가 와서 보고 수박 1개, 배 10개를 가지고 왔다. 시사에 쓰고자 하니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술 3잔을 대접하고 또 방어 1쪽을 주어 보냈다. 채억복의 밭 적두를 뚜드렸더니 12석 7두가 났다. 곧 이틀같이로서 씨 6두를 뿌린 것인데 일찍 같아 많이 열었기 때문에 많이 난 것이다. 이것으로 겨울을 지내고 내년 봄까지 쓰겠으니 기쁘다. 다만 날은 차고 사람이 적어서 간신히다 뚜드려서 섬에 넣고 나니 밤이 이미 깊었다.

12일. 안손이 현에서 돌아와 편지를 보니 황장목 경차관이 모레 현에 오기 때문에 근친 오지 못한다고 한다. 저녁에 전귀실을 불러 꿀을 따는데, 7통의 벌을 모두 손으로 따니 혹은 차기도 하고 혹은 차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꿀 5두 6되요. 밀은 1

근 13량이다. 다 끝내고 나니 밤이 이미 반이 지났다. 그때 비로소 자리에 들어 아직 잠이 들기 전에 종들이 추워서 방에 나무를 때다가 방 뒤에 난 구멍으로 불이나가서 방에 불이 나 팥을 넣어둔 섬을 만일 일찍 서두르지 않았으면 거의 구원하지 못할 뻔했다. 내가 달려들어 가서 옷소매로 두드려 끄노라니 잠시 동안에 온집안이 놀란 마음을 어찌 다 말하랴. 밉살스럽다. 또 들으니 개질지가 내일 서울에가겠으므로 윤겸이 백미 2두, 방어 반 마리, 꿩 1마리를 어머님께 보냈다고 한다. 덕노는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철원에 사는 노인 김거을이 또 와 보고 벼 2두, 닭 1마리를 주는데, 받기가 미안해서 재삼 물리쳤으나 끝내버리고 가 버렸다. 이는 곧 예초군을 감해 달라는 일인데, 전일에 윤겸에게 기별했더니 이미 감했다고 한다. 매 그물에 두어둔 닭을 지난밤에 여우와 살쾡이가 다 먹었으니 아깝다. 듣건대 최 판관은 큰 매를 잡았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닭만 잃고 겨우 토끼 1마리를 얻은 외에는 거의 20여 일이나 되어도 얻지 못했다. 이는 비록 인력이 부지런하지 못한 탓이라 하지만, 곧 나의 생각이 부족한 까닭이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정하게 술과 찬을 차려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얻는다고하므로 춘금 등으로 하여금 지내게 했다. 전업이 수박 1개를 가지고 왔다.

13일. 이른 아침에 춘금 등으로 하여금 산신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술 1병 · 떡 1행담 · 삶은 닭 1마리를 마련해 주었다. 현에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백미 5두 · 밭쌀 3두 · 피쌀 2두 · 잣 1두 · 개암 5되 · 찹쌀 4되 · 감장 1두 · 간장 2되 · 참기름 1되 · 꿩 2마리 · 말린 여항어 3마리 · 산 것 6마리 · 닭 2마리 · 수박 2개 · 토란 1두를 보내왔다. 윤겸은 황장목 경차관이 내일 사이에 현에 온다고 해서 오지 못한다. 14일. 인아가 춘금 등을 데리고 물고기집에서 백여 마리를 잡았는데, 제사에 쓰겠으니 기쁘다. 딸이 계집종들을 데리고 제찬을 만드는데, 사색 어육탕 · 삼색 어육구이 · 사색 실과 및 면 · 떡 · 자반 · 반상 제구이다. 다만 식혜는 얻을 수가 없어서 갖추지 못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매 그물 친 곳에 있는 닭을 범이 물어 가고 그물도 찢어 놓았으니 한스럽다.

**15일.** 새벽에 두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 또 죽전 숙부에게도 지낸 뒤에 다음으로 죽은 딸에게 지냈다. 다만 아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먼저 갔기 때문에 같이

지내지 못하고 제사 음식을 비록 벌여 놓았어도 어머님께 드릴 수가 없고 잔을 들고서도 아우와 같이 마시지 못하니, 생각하던 나머지에 차마 목에 넘어가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이웃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둔전의 조를 뚜드렸더니 모두 2석이 났다.

16일. 어제 전언희가 매를 잡고, 오늘 억수가 또 매를 얻었다. 비록 큰 매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얻는데 나는 그물을 친 지 거의 한 달이 넘는데 한갓 닭을 잃었을 뿐이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언신도 수일 전에 역시 큰 매를 얻어서 팔았다. 17일. 박언수의 밭 콩을 뚜드렸더니 6석 12두가 났다. 내가 친히 가 보았다. 덕노가서울에서 돌아와 어머님 편지 및 아우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온 집안이 모두 무사하다니 기쁘다. 임 참봉의 종이 말을 가지고 왔는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이다.

**18일.** 임 참봉의 좋은 그대로 머물렀다. 어제 끝내지 못한 콩을 뚜드렸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19일. 현리 무손 등이 목화 두어 동을 가져왔다. 전일 필목을 주었더니 이제 비로소 바꿔 온 것이다. 달아 보니 64근인데, 현에서 10근을 먼저 내썼다고 하니 그렇다면 도합 74근이다. 닭 2마리를 보내왔기에 즉시 회답을 써 주어 보냈다. 임 참봉의 종 함석이 현에 들어왔는데 이 길로 서울로 간다고 한다. 황태 3두·소태 2두·팥 2두·꿩 1마리·꿀 1되를 보냈다. 날마다 박언수의 밭을 뚜드렸더니 소태 15석 1두가 났는데, 전일 뚜드린 황태까지 합치면 모두 21석 13두로서 사흘갈이이다. 씨는 황태 4두, 소태 8두를 뿌린 것인데 올 농사의 소출이 이 밭보다 나은 곳이 없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는데 편지를 보니 북촌에서 사냥하던 사람이 곰을 잡아 곰의 발바닥 3개를 삶아서 청주 5병과 함께 보냈다. 그러나 나는 콩 뚜드릴 때가 보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발등을 몹시 상하여 많이 부어서 행보할 수가 없어 간신히 집에 돌아왔는데 형세가 속히 나을 것 같지 않으니 몹시 민망하다.

20일. 상한 다리가 몹시 붓고 때로는 시고 아프니 필경 침으로 짼 후에야 차도가 있을 것 같다. 이에 현에서 온 사람이 돌아가는 편에 편지를 하여 이은신을 청해다가 침을 맞으려 한다. 아침 식사 전에 곰의 발바닥을 구워서 두 아이와 같이 먹으니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과연 이름이 헛되지 않다. 발바닥 하나는 두었다가 자

정이 오기를 기다리려 한다. 관의 둔전에서 난 콩 1석 5두는 윤해의 집에 주어서 말을 먹이게 했다. 남매의 종 덕룡이 말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 현으로 가다가 여기에 왔기에 누이의 편지를 보니 정목 4필을 보내서 콩과 팥으로 바꾸도록 여기에 두었다가 내년 봄에 쓴다고 한다. 또 1필은 꿀을 바꾸려 하나 절기가 이미 늦어서 필시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벌이 있는 곳에 구해 보도록 했다.

21일. 다듬잇돌 만드는 집에서 돌절구를 고치게 했다. 날마다 이웃집에 가서 조를 찧기 때문에 부득이 고치는 것이다. 심 생원 완이 찾아왔다. 삭녕 땅에 피란 와 있는데 여기에서 거리가 멀지 않다. 완은 곧 고 심예산 인식의 큰아들이요, 심풍덕순의 손자로서 나의 6촌 손자뻘이 되는데 선세로부터 서로 몹시 친하게 지내던 터여서, 만나 보니 몹시 기쁘고 위로가 된다. 두 아이와 함께 방 안에 둘러앉아 선세의 일을 이야기하노라니 밤이 이미 깊었다. 꿩고기를 구워 대접하고 여기에서 자게 했다.

22일. 심완은 이른 식사 후에 돌아갔다. 이은신이 왔는데, 곧 나의 상한 발을 침으로 고치는 일 때문이다. 윤겸은 내일 근친 온다고 한다. 꿩 2마리를 보내왔다. 이로 하여금 상처에 침 두 곳을 놓고 발가락 사이에 네 곳을 놓고서 즉시 돌아갔다. 점심과 술 3그릇을 대접해 보냈다. 부석사에 가서 자고 돌아간다고 한다. 무 25두를 두 곳에 나누어 묻었다. 또 참무 7두를 묻었다가 내년 봄에 쓰려 한다. 나는 일찍 임당에 나가서 손이 오기를 기다리자니 감상이 일고 기분이 자못 편치 못하다. 만일 땀을 내면 차도가 있을 것 같다. 개질지가 서울에서 현으로 돌아올 때 어머님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모두 평안하다고 했으니 몹시 기쁘다. 아우는 죽산에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23일. 나의 기운은 지난밤에 땀을 냈더니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으나 아직 쾌하지는 못하다. 상한 발도 역시 점점 차도가 있다. 인아가 김언보의 밭을 빌려서 간 적두를 거두어 두드렸더니 16두가 났다. 오후에 비가 내렸으니 필시 이제부터 얼고 추울 모양이다. 상하가 옷이 얇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저녁에 윤겸이 첩을 데리고 비를 무릅쓰고 왔다. 중로에 비를 만났는데 우비가 없어서 옷이 모두 젖었다. 방 안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노라니 밤이 이미 반이 지났다. 백미 5두ㆍ중미 5두ㆍ밭쌀

10두 · 방어 1마리 반 · 망어 1마리 · 감장 · 간장 등 물건을 가지고 왔다. 윤겸의 첩은 중박계, 감당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곰의 포 3첩도 역시 가져왔다.

24일, 관의 매가 잡은 꿩 3마리를 가져왔다.

25일. 토옥을 묻었다. 이훤이 와서 보았는데 술병을 가지고 와서 안방으로 청해다가 같이 먹다가 저녁밥을 대접했다. 이 현의 품관들이 여기에 모였다가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술잔을 전하므로 나와 윤해가 나갔다가 밤이 깊어 헤어졌다. 채인원·김린·권유년·권주·김충서 등 및 교생 7인이 모두 모였는데, 이훤과 나도가서 참여했더니 앉을 자리가 비좁아서 교생들은 참여하지 못했다. 윤겸이 장무로하여금 가는 국수 1행담을 가져오고, 꿀 5되, 석이 1두도 역시 보내왔다. 관의 매가 잡은 꿩 3마리를 가져왔다. 북촌 사람이 매를 가져왔는데 6치 반이나 된다.

26일. 녹두를 뚜드려 거두었다. 관의 둔전에서 보리 18두가 났다. 콩 3두를 부석사에 보내어 두부를 만들어 오게 하여 저녁때 온 집안이 같이 먹었다. 저녁에 이 판관 잠(岑)이 찾아왔다. 안변 땅에 피란 와 살고 있는데 곧 집사람의 동성(同姓) 얼친인데 지금 관상감 판관이다. 상하 식사를 대접하고 머물러 자게 했다. 관의 매가잡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또 이잠은 배 30개를 가지고 왔다.

27일. 남매의 종 덕룡이 돌아가기에 콩 2두, 꿩 1마리, 곰의 발바닥 1개를 보냈다. 어머님에게는 목미 1두 · 배 50개 · 꿩 1마리 · 방어 반 짝 · 적두 1두를 역시 보내드렸다. 덕룡이 바꾼 팥 44두 · 콩 18두 · 꿀 9되는 여기에 두고, 팥 6두 · 콩 5두는 가지고 갔다. 이는 모두 필목 5필을 팔아서 산 물건이다. 한 필에 혹 17두, 혹 18두씩 받고, 콩은 26두를 받았다고 한다. 편지를 써서 보냈다. 관의 매가 잡은 꿩 2마리를 가져왔고, 억수의 매도 역시 1마리를 잡아 왔다. 억수가 떡 1행담을 만들어가져왔다. 우리 집에서도 역시 산삼과 유병을 지져서 함께 먹는데, 이잠도 머물러 있어 역시 참여했다. 저녁에 이시윤이 와서 서로 만나니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서로 방 안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잤다. 이수도 역시 모두 잘 있다고하니 위로가 된다. 전풍의 밭보리를 뚜드렸더니 모두 4석 1두가 났다.

**28일.** 인아가 중금의 밭 뚜드리는데 가 보았더니 피 1석 9두가 났다. 염광필이 병 작한 것이다. 저녁에 윤겸에게서 인마가 왔는데 내일 돌아가겠다고 한다. 백미 5 두·중미 5두·밭쌀 5두를 가져왔다. 이는 곧 관의 명령이다. 관의 매가 잡은 꿩 4 마리를 가져왔다. 이잠이 떠나서 토산으로 갔는데 노비들에게 받아 가지고 안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29일. 윤겸이 현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5일 동안 머무른 것이다. 인아가 또 중금의 밭 뚜드리는데 가 보았더니 차조 16두가 났다. 김현복이 병작한 것이다. 매 그물에 있던 닭을 또 여우와 살쾡이가 물어 갔으니 아까우나 어찌하랴. 관의 매가 잡은 꿩 2마리를 가져왔기에 모두 3마리를 말렸다.

그믐날. 이른 아침에 두 곳에 그물을 쳐서 1백 30여 마리를 잡았다. 날이 따뜻해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잡은 것이 몹시 적으니 한스럽다. 이천에 사는 고봉명이 기성군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매를 구하는 일을 말하기에 저녁밥을 대접하고 편지를 써서 윤겸에게로 보냈다. 지난달에 내가 서울에 갔을 때 만나서 약속한 일이다. 봉명은 곧 기성군의 첩의 동생 남편이라 한다. 동대 앞의 박언방의 밭 조를 뚜드렸더니 1석 4두가 났다. 곧 하루갈이이다.

#### 10월

1일. 어떤 양반이 와서 이곳의 매를 사겠다고 목화 55근을 주는데 충청도 공주에 산다고 한다. 즉시 인아의 처에게 21근을 주었다. 인아가 중금의 밭 뚜드리는 것을 가 보았는데, 보리 1석 1두, 녹두 2두를 싣고 왔다. 김현복이 병작한 것이다. 박 언방이 서울에서 돌아와 남매의 편지를 보니 아직 잘 있고, 보낸 꿀과 꿩은 그대로 받아서 어머님께 전했다고 했다.

2일. 김억수가 현에서 돌아와 윤겸의 편지를 보니 기성군의 매 구하는 편지는 어제 현에 도착했으나 마침 없어서 응해 주지 못했다고 한다. 들으니 김 도사 자정이 동생의 아내 초상을 당했으나 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노루 1마리에서 다리 하나만 떼고 보내왔기에 즉시 내장을 구워서 먹었다.

**3일.** 채억복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밭쌀 6두를 보내왔다. 저녁에 제물이 또 왔는데, 백미 3두·밥쌀 5두·참기름 7홉·법유 2되·석이 2두·참버섯 2되·잣 3되·개 암 3되·감장 1두·간장 2되·청주 6병·토란 6되를 보내왔기에 편지를 써서 돌 려보냈다. 모레가 곧 조고의 기일인데 여기에서 마땅히 제사를 지냈겠기 때문이다.

- 4일. 딸이 제찬을 준비하는데 사색 실과·사색 소(素) 구이 및 소탕(素湯)·꿩과 노루 구이·곰의 포·말린 꿩과 면·떡·반상 등이다.
- 5일. 나는 비단 상한 발이 차도가 없을 뿐 아니라, 감기로 기운이 불편해서 제사에 참사하지 못하고, 윤해, 인아로 하여금 지내게 하고,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술과 떡을 대접했다. 현의 목공 박원이 왔기에 장밀목각을 만들게 했다. 이는 곧 관의 명령을 받고 온 것으로서 버드나무를 베어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 용량이 3두 반은 넣을 만하다.
- **6일.** 목공 박원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에 황태 2두를 주어 보냈다. 김 주부 명세가 와서 보기에 술 큰 잔으로 하나를 대접해 보냈다. 전일 상번으로 갔다가 이제비로소 돌아온 것이다.
- 7일. 시윤의 종 석수가 현에 들어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간장 콩 10두를 삶게 했다. 상용의 간장이 장차 떨어지겠기에 이것을 삶아서 쓰려는 것이다. 어제 안협에 사는 이방의 암말을 우리 늙은 말과 바꾸고 아청 새 천익(天益)을 더 주었다. 이는 곧 죽은 종 막정의 평양 전답을 판 것이다. 이 말은 비록 암말이라고 하지만 짐을 가득 싣고 멀리 갈 수가 있어 노쇠하지 않았기에 더 주고 바꾼 것이다. 12, 13일사이에 덕노, 김언신 등으로 하여금 꿀을 싣고 함흥부로 보낼 계획이다.
- 8일. 들으니 최 판관이 아우를 데리고 모레 평양으로 간다고 하기에 식사 후에 가보고 작별했다. 평양서윤이 곧 최의 조카 원욱이다. 최의 집에서 나에게 점심을 대접해서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근일에 날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으니 이렇게춥기 전에 콩과 조를 뚜드려 들여야 하겠는데 김담, 춘금 등은 모두 휴가를 얻어가지고 가서 집에 없고 사람이 없어 이를 하지 못하니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서겨울 전에 뚜드리지 못할까 몹시 두렵다. 김억수의 아우 경이가 목미 1두를 가져왔다.
- 9일. 새벽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는 비록 개었으나 흐리고 먼 산이 모두 희고 높은 산에는 눈이 내린다. 일기가 몹시 차지는 않지만 필시 오래지 않아서 다시 풍설

이 일 것 같다. 김담이 휴가로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다.

10일. 윤해의 종이 현에서 돌아왔기에 편지를 보니 내일 사이에 오겠다고 한다. 백미 1두 5되ㆍ꿩 1마리ㆍ은구어 6마리ㆍ결성에서 온 홍시 13개ㆍ배 5개ㆍ세면 1행 담을 보내왔다. 또 들으니 개질지가 서울에 갈 때 어머님께 백미 1두ㆍ목미 1두ㆍ 명 1마리를 보냈다고 하니 기쁘다. 윤해의 종 춘기가 목화를 바꿔 가지고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언명의 죽산 논에서 난 13석을 받아 왔으니 이는 곧 김 도사의 힘이다. 또 최 참봉의 편지를 춘기가 가지고 왔다.

11일. 김치 독을 묻고, 또 콩 3동을 실어 왔다. 저녁에 윤겸이 먼저 밭쌀 10두 · 떡 만들 백미 1두 · 찹쌀 15되 · 참기름 1되 반 · 법유 2되 · 꿀 1병 · 수박 1개 · 배 8 개 · 꿩 3마리 · 닭 2마리 · 삼색 실과 · 감장 · 간장 · 채소를 보내고, 관인이 여기 올 때 떡을 만들어 가져왔다. 곧 내일이 윤겸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관청 일로 인해서 새벽에 떠나서 온다고 한다.

12일. 윤겸이 식사 전에 왔는데 닭이 울 때 횃불을 들려 가지고 떠났다고 한다. 백 미 15두 · 집돼지 익힌 것 1마리 · 꿩 2마리를 가지고 왔기에, 즉시 온 집안이 베어서 먹으니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곧 따로 길렀기 때문이다. 세면도 역시 가져왔고, 떡은 밖에서 만들어 가져왔다. 신주 앞에 차례를 지낸 후에 온 집안 상하와 함께 먹었다. 가까운 이웃에서 와서 보는 자들에게 모두 술과 떡을 대접했다. 김 주부 명세가 역시 술 · 과일을 가지고 와서 보기에 역시 술과 밥을 대접해 보냈다. 소세 마리를 빌려다가 전풍의 밭 콩 6동을 실어 왔다. 김억수가 꿩 1마리 가져왔다. 평산정이 종과 말을 보냈다. 곧 전일에 두어둔 필목으로 꿀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13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종일 개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겸은 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14일.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때로 비도 뿌린다. 윤겸은 관의 일로 인해서 비를 맞고 갔는데 시윤은 비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 홍 생원 범(範)이 종에게 편지를 보내서 씨 벌을 구하므로 즉시 답장을 써 보내고 또 벌 1통을 주어 지고 가게 했다. 일찍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은 본래 몽동에 살아 서로 아는 친분이 있기에 지난여름 서울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잤는데 곧 양주 익담촌이다.

15일. 밤새 큰 바람이 불고 일기가 몹시 춥다. 시윤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억지로 만류해 머물게 했다. 내일이 곧 증조 기일이어서 딸이 계집종들을 데리고 제찬을 준비했다. 안협에 사는 노인 연수가 빙어 아주 큰 것 2마리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그러나 집에 술이 없어서 다만 떡을 주어 보냈다. 그는 청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이다. 춘기가 현에서 돌아왔기에 함흥통판(정효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마철 2개를 가져왔다.

16일. 윤해와 인아가 제사를 지내고, 나는 감기로 해서 참사하지 못했다. 이시윤이 일찍 식사를 한 뒤에 현으로 들어가서 그길로 서울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 군색한 것은 서글프나 줄 물건이 없어서 다만 내가 항상 입고 있는 명주 두루마기를 벗어서 주고, 그 어머니에게 황태 3두·적두 2두·목미 2두·퓡 1마리·집돼지 다리 1개를 보냈다. 경여의 부인에게도 역시 꿩 1마리 목미 1두를 보냈고, 윤해도 역시목화 6근, 버선 1켤레를 주었고, 둘째딸은 겹저고리를 벗어서 시윤의 둘째딸에게 보냈다. 이 나머지는 윤겸이 마땅히 준비해 줄 것이다. 토당의 어머님께 편지를 써서 시윤이 가다가 전하도록 꿩 1마리 및 제사 지내고 남은 실과 조금과 말린 꿩 3마리를 역시 보냈다.

17일. 덕노가 꿀을 싣고 언신과 함께 함흥통판 정효성에게 보냈는데, 윤겸도 편지를 보내서 사서 가져오도록 예에 의하여 핌목을 골라 보냈다. 전에 들으니 함흥부에 바친 꿀 1되에 정포 1필을 주었다기에 집에서 기른 꿀 6두를 실어 보내고, 황랍 1근도 역시 보내서 직령(直領)(무간복의 일부) 만들 세포를 사 오게 했다. 그러나 우리 집의 모든 일은 매양 계산과 맞지 않으니 필시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계산대로 가지고 오면 이것으로 명년 봄 생활의 계획을 삼을 것이다.

18일. 흐리고 눈이 뿌린다. 춘금이 현에서 돌아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시윤은 그 대로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시윤도 역시 편지를 보내 문안하고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다. 청주 6병·생여항어 15마리·말린 것 20마리·꿩 2마리·생율 2백개를 져 보냈다. 삭녕에 사는 정광신이 근처로 피란해 와서 산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탁주 1쟁반, 세면 1행담을 가지고 내외가 함께 왔기에 술을 대접하고 말린 여항어 1마리를 주었다.

19일. 지난밤에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는 산천이 모두 희고 찬 기운이 몹시 맵다. 현의 문안인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시윤은 오늘 떠나 돌아갔다고 한다. 이 같이 몹시 추운 날씨에 어찌 가는지 걱정을 잊을 수가 없다. 노루 앞다리와 갈비 1 짝을 보내왔다.

20일. 추위의 위엄이 몹시 엄해서 사람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다. 김언보는 내일 상번이어서, 와서 인사하기에 편지를 써 주고 광노의 집에 전해서 토당 어머님께 보내게 했다. 목미 1두, 말린 여항어 2마리도 역시 보냈다. 김억수가 꿩 2마리를 가져왔다

21일. 흐리고 눈이 내린다. 집사람은 요새 감기가 들더니 이제는 더하여 신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음식도 또한 폐하고 있으니 몹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김담이 휴가를 얻어 가지고 서울에 가는데 사기그릇을 팔기 위해서다. 편지를 써서 토당에 보내게 하고 노루고기 1쪽, 절인 천어 30마리도 역시 보내면서 답장을 받아 오게 했다

22일. 눈과 추위가 배나 엄하다. 춘금은 가슴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 나무가 없어 조석 밥 짓는데 옷이 얇은 비복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니 말할 수가 없다. 윤해의 종과 말을 빌려서 현에 보내어 양식을 얻어 오게 했다. 일찍이 인마를 보냈기 때문이다.

23일. 안손이 돌아왔는데 백미 10두 · 밭쌀 10두 · 꿩 2마리 · 생여항어 4마리 · 참 새 6마리 · 노루다리 1짝 · 절병 1행담을 보내왔다. 제 어머니가 병중에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낸 것이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근일에 매를 구하러 편지를 보내는 자가 구름같이 모이는데 응답하기에 몹시 민망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이미 사장을 냈다고 하고, 문안관인도 역시 왔다.

24일. 새벽부터 눈이 내린다. 답장을 써서 관인 돌아가는 편에 보냈다. 집사람은 어제부터 차도가 있어 음식을 좀 더 든다. 그러나 나은 것이 아니니 아주 쾌할 것은 기필하지 못한다. 덕노 등이 떠난 지 이제 이미 8일인데 거리를 따져 보니 금명 간에 함흥에 도착했을 것이나 간 뒤에 날마다 눈이 내렸으니 행로가 어떠한지 걱정스럽다. 지난밤 꿈에 이자미ㆍ홍응권ㆍ최경선을 만나 보았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다. 깨고 나니 슬픈 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 집사람의 아버지도 역시 꿈에 뵈어무슨 징조인가. 지난밤에 언명의 병아리 2마리를 잃었는지 필시 살쾡이나 고양이가 물어 간 것이다. 아깝다.

**26일.** 집사람은 아직도 아주 쾌하지 못하여 때로 신음하고 음식도 보통 때와 같지 않으며, 오른쪽 어깨가 또 아프다니 걱정스럽다. 근일에 날이 찬데 춘금이 병으로 누워서 땔나무가 없으니 민망스럽다.

27일. 나도 역시 어제부터 감기가 들어 불안한 증세가 있으니 민망스럽다. 춘금은 20일 이후로 매양 가슴이 아프다고 칭탁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기에 생각에 심상한 감기인 줄 알았더니 오늘은 갑절이나 머리가 더 아프다니 병세가 가볍지 않은 것이라, 몹시 걱정스럽다.

28일. 춘금이의 병은 여전히 몹시 아파하니 필경 구제하지 못하겠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날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아서 지붕에 있던 눈이 모두 녹아서 추녀물이 종일 끊어지지 않고 길이 질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 비단 서울 소식을 지금까지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아의 소식도 오래 듣지 못하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지난밤에 언명의 병아리가 또 놀라 흩어져서 인아가 즉시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보니 1마리가 홱 밑에 죽어 있더라니 필시 살쾡이가 물어 죽이고서 미처 가져가지못한 것이다. 즉시 그 구멍을 막고 홱 앞에 그물을 치게 했다. 또 죽은 닭은 말려서 언명에게 보내련다. 편지를 써서 이 면 색장에게 보내어 현아에 보내게 했다.

29일. 집사람은 수일 이래로 소복되어 가나 그래도 아직 쾌차하지는 못하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와서 편지를 보니, 향비 모자가 토당으로부터 세만 등과 함께 현아에 왔으나 비와 눈으로 길이 질어서 즉시 오지 못한다고 한다. 아우의 편지와 어머님 편지를 보니 요새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니 말할 수가 없다. 봉산 딸의 편지도역시 서울에서 왔는데 온 집안이 잘 있고, 아직도 봉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어머니에게 저고리감 및 목화 4근을 보내왔다. 또 들으니 최 참봉은 철원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26일에 초례를 지내서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그 딸을 보려 온다고한다. 그래서 그를 맞을 사람들을 뽑아 보낸다고 한다. 꿩 3마리 · 절인 은구어 10마리 · 생은어 30마리 · 알젓 1항아리를 보내왔다.

#### 11월

- 1일. 김언보가 서울에서 돌아왔다. 전일 갈 때 편지를 써서 토당에 보냈더니 이제 답을 받아 가지고 와서 전한다. 아우의 편지를 보니 요새 양식이 떨어져서 그간 죽을 어머님께 드리고 있는데, 고성 남매가 그 소식을 듣고 쌀과 반찬을 조금 보내서 이것으로 날을 보낸다고 하니 놀라고 탄식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또 들으니 어머님께서 노여워하시어 나에게 답장도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 또 들으니 어머님께서 오른쪽 팔이 쑤시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신다고 하니 더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즉시 암소에 콩과 팥을 실어 보내려 했으나 춘금은 병으로 누웠고, 김담은 서울에 가고 돌아오지 않아서 집에 부릴 사람이 없으며, 덕노가 돌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시일이 더디어서 마땅히 이달 보름 뒤에나 올 것이니 몹시 민망스럽다. 두어 달 양식은 전일에 이미 준비했었는데, 필시 아우의 집과 같이 썼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떨어졌을 것이다. 남매의 편지와 임 참봉댁 편지도 역시 받아 가지고 왔다. 현리에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 춘금은 이제 나아 가서 기쁘다.
- 2일 춘금이 도로 아파서 밤새 괴로워하니 걱정스럽다.
- 3일. 새벽부터 눈이 내려 거의 반 자나 쌓였다. 김담이 서울에서 비로소 돌아왔다. 현의 방자 춘세가 왔기에 편지를 보니 근일에 곡식을 실어 토당에 보낼 것인데 마 땅히 나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여 보낼 것이라 한다. 그러나 내가 오는 열흘께 근친 갈 계획이어서 편지는 하지 않았다. 닭 11마리, 상지 2묶음을 역시 가져왔다. 4일. 눈이 내린 뒤에 추운 기운이 갑절이나 맵다. 땔 나무가 역시 떨어졌는데 옷이 얇은 비복들의 괴로움을 말할 수 없다. 곡초도 또한 떨어졌는데, 들으니 중 법희가
- **5일.** 춘세가 현으로 돌아가기에 답장을 써서 보내고, 내일 안으로 서울에 간다는 뜻으로 답장을 하게 했다.

짚을 뚜드려 밭 가운데 쌓아 두었다기에 김담을 시켜 1바리 실어 왔다.

6일. 곧 동지이다. 신주께 차례를 지내고 또 팥죽을 쑤어서 상하가 함께 먹었다. 토당에는 생각건대 필시 팥이 없어서 죽을 쑤어 드리지 못할 것이니 한탄스럽기 끝이 없다. 덕노 등이 간 뒤로 큰 눈이 계속 내려서 고갯길이 막혀서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달 안으로는 형세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나도 또한 열

흘 사이에 근친 갈 계획이지만 집에 사환이 없어서 민망스러운 일이 많아서 침식이 편안치 못하니 더욱 한스럽다. 저녁에 최 참봉 부자가 철원으로부터 현에 들렀다가 여기에 와서 서로 만나 보니 10분이나 기쁘고 위로가 된다.

7일. 최 참봉 부자는 그대로 머물러서 상하 식구의 조석을 우리 집에서 대접했다. 참봉은 어제 과음해서 기운이 편안치 않아 방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조리한다. 마태 3두를 주었다. 향비 모자가 현에서 돌아와 윤겸의 편지를 보니, 날더러 이러한 모진 추위에 서울에 가지 못한다고 억지로 말리고 현리를 보내서 물었다. 그러나 중지할 수 없다고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꿩 2마리, 방어 반 마리를 보내왔다. 어제 절병 1행담을 또 보냈는데, 제 어머니가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중국관원이 준 진건도 또한 보냈다. 바야흐로 얻고 싶어 하던 것이라, 기쁘다.

8일. 최 참봉 부자는 철원으로 떠났는데 그길로 서울로 간단다. 집에 줄 물건이 없어서 다만 꿩으로 작은 정성을 표할 뿐이었으니 탄식스럽다.

9일. 언명의 병아리가 전일에 살쾡이에 물려 죽은 것을 말리느라고 걸어둔 채 잊어버리고 걷어오지 않고서 두 밤을 지내고 보니 마침내 쥐가 다 물어 가고 남기지 않았으니 한스럽다.

10일. 인아가 경작한 콩을 뚜드렸더니 1석 1두이다. 비와 눈에 젖어서 만일 말리지 않으면 섬에 넣을 수가 없겠다. 최 판관은 지난달에 아내를 데리고 평양으로 가다가 수안에 이르러서 서윤이 파면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왔다니 한편 우스운 일이다. 서윤 원욱은 곧 그 처조카인데 그곳에 가서 얻어먹으려다가 끝내 되지 않고 돌아온 것이니 한편 가련하다. 아침에 편지를 보내서 꿩을 구했으나 집에 없어서 응하지 못했으니 한탄한들 무엇하라.

11일. 아침에 현에서 인마가 왔는데 편지를 보니 아노 개질지를 그곳에서 바로 연천에 보내서 내가 가기를 기다리게 했는데, 나는 내일 김담을 데리고 소를 가지고 가다가 개질지의 말에 옮겨 실은 후에 이 소는 돌려보내기로 약속했다. 어머님께 보낼 물건은 개질지가 싣고 갔다. 여기에 보낸 백미 9두 · 밥쌀 10두 · 꿩 5마리 · 건어 5마리 · 감장 1두 · 간장 2되 · 꿀 2되는 곧 나의 행자이다. 춘기, 안손 등으로 하여금 행구를 차리게 했다. 저녁에 윤겸이 아노 풍금을 시켜 청주 8병을 보내고

털요도 또한 만들어 보냈다. 이는 곧 노중에 쓰라는 것이다.

12일. 날이 밝기 전에 식사를 하고 밝은 뒤에 떠나서 말지령을 넘어 철원 땅에 도착하여 고막근의 집에서 말에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마산촌 거을후미의 집에 도착하여 그 집에서 잤다. 그는 곧 평강의 군사로서 이사 와서 사는 자이다. 종일 바람 불고 눈이 추위를 무릅쓰고 들어갔더니 집주인은 즉시 더운 방에 재워 주고 닭을 잡아 반찬을 만들어 나에게 조석 식사를 대접하고 심지어 점심까지 싸준다. 전일에 예초군을 감해 주어서 그 덕에 감동해서 그러는 것이다.

13일. 날이 밝자 떠나서 절반쯤 와서 말에 꼴을 먹이는데 개질지가 따라왔기에 함께 떠나서 이 도사 태수의 집에서 자려 했더니 집에 없다고 하므로 연천현으로 가서 관노 걸이의 집에서 잤다. 태수(김제남)에게 이름을 통했더니 태수가 즉시 나를 아헌으로 맞아다가 이야기했다. 비록 전에 서로 알지 못했지만 곧 나의 8촌 친척이어서 서로 만나니 옛날에 서로 알던 터와 같다. 또 윤겸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고, 윤해와도 역시 친하게 아는 터라, 김씨의 족보를 내다가 파(派)를 가르쳐주는데, 다만 날이 저물고 바빠서 미처 다보지 못했으니 깊이 한탄스럽다. 나의 조석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14일. 해가 뜨자 떠나서 김담으로 하여금 소를 끌고 돌려보내고 소에 실었던 짐은 두 말에 나누어 실었는데 짐이 몹시 무거워서 사람도 역시 무겁게 지고 갔다. 그러나 붕아가 기르던 개를 끌고 왔는데 5리 밖에서 김담을 따라가기에 김담으로 하여금 쫓으라 했더니 그 개가 놀라서 숲 속으로 들어가서 불러도 오지 않아 마침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어 한참 동안 찾아도 잡지 못했으니, 만일 김담을 따라 돌아가지 않았으면 끝내 범에게 먹혔을 것이니 아깝다. 큰 내 건너편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였다. 그러나 종일 큰 바람이 불고 때로 눈을 뿌려서 사람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양주 땅 익담촌 홍 생원 범의 집에서 잤는데, 언규가 나에게 조석 식사를 대접해 준다.

15일. 일찍 떠났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고 큰 눈이 내리며 때로는 비도 내려서 바람과 눈이 품 안으로 들어와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의정부 장석교 가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으나 눈은 내리는데 앉을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 들어가 잠

시 쉬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점심 두어 숟가락을 들었는데 물이 없어 마실 수가 없고 복이 막혀 넘어가지 않는다. 눈을 맞고 또 떠나서 날이 어두운 뒤에 동대문에들어가 나는 먼저 남매에게 가 보았다. 의외에 서로 만나니 기쁨과 위로됨을 어찌다 말하랴. 저녁밥을 먹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광노의 집으로 돌아와서 잤다. 누원 길에 이르렀을 때 아우의 종 춘희와 내 종 한세를 만났는데 평강 토당으로 가서 내가 온다는 것을 고하게 했다. 그들에게 들으니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다 하니 기쁘다. 누이에게 꿩 2마리, 목미 1두를 주었더니 고성이 꿩을 보고 몹시 기뻐하기를 마지않는다.

16일. 아침 식사 전에 남이상이 와서 보았다. 그는 곧 고성의 첩의 아들이다. 아침 식사 후에 걸어서 얼음 위로 한강을 건너서 토당에 도착하니 아우의 팔들이 내가온다는 것을 듣고 문에 나와서 기꺼이 맞는다. 들어가 어머님께 보이니 온 집안 상하가 모두 기뻐하는 것을 어찌 다 말하랴. 각각 정회를 풀고 내가 가지고 간 물건을 모두 되어서 드렸다. 백미 8두 5되ㆍ밭쌀 8두ㆍ팔 9두 4되ㆍ황태 3두 7되ㆍ마태 2두 5되ㆍ꿩 6마리ㆍ말린 여항어 4마리ㆍ말린 꿩 4마리ㆍ노루포 3조각ㆍ절인은구어 5마리ㆍ차조떡 및 산삼 등 물건이다. 목화 6근과 윤해의 양모가 준 5근도역시 드렸다. 개질지는 도로 서울로 가서 내일 평강으로 갈 것이다. 밤이 깊은 뒤에 남매의 종 정손의 집에서 잤다. 네 이웃에 중국 군사 3인이 각각 한 집씩을 점령하고 머물고 있다 한다. 그러나 이 중국 군사들이 와서 있은 뒤로 별로 침해하는 걱정은 없었다 한다. 비록 딴 중국 군사가 온대도 난폭하게 굴지 못하게 한다 하므로 비록 조그만 폐는 있어도 약탈하는 걱정은 없어서 이 때문에 어머님께서 거처하시기도 역시 편안하시니 이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17일. 안손은 율전으로 가고 데리고 온 관의 인마는 그대로 머물러 있게 했다. 이는 곧 내가 돌아갈 때 데리고 가기 위해서이다. 종일 어머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방 안에 둘러앉아 있었다. 일기가 몹시 춥다. 저녁에 이웃집에서 잤다.

18일. 그대로 토당에 머물렀다. 무료해서 아우와 함께 걸어서 정귀원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귀원으로 하여금 중국 군사와 바둑을 두게 하고 구경하고 한참 후에 파하고 돌아왔다. 저녁에는 정노의 집에서 잤다.

19일. 또 토당에 머물렀다. 지난밤에 큰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는 바람이 자고 눈도 개었다. 아우의 집에서 만두를 만들어서 먹었다. 요새 어머님의 기운을 살펴보니 다리 아픈 것은 아주 나으셨고, 허리와 등 사이가 때로 시고 아프시나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고 하신다. 다만 얼굴빛이 파리하시어 자못 옛날과 같지 않으시고 식사도 평강에 계실 때만 못 하시니 몹시 걱정스럽고 민망하다. 나는 세전까지만이라도 머물러 있을까 했으나 비단 잠잘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석 식사도 계속하기가 몹시 어려워서, 이 때문에 내일 서울로 들어갔다가 그길로 돌아가려한다. 종 한세가 어미를 데리고 왔는데 차조떡 1행담을 만들어 가지고 왔기에 밥을 대접해 보내면서 오는 21일에 오라고 했다. 내가 데리고 가려하기 때문이다. 임천에 있을 때 먼저 올라온 뒤로 간 곳을 모른 지 오래였는데 이제 비로소 와서 말하기를, 이제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20일. 아침 식사 후에 어머님을 작별하고 아우의 집 식구와 헤어져서 떠나서 오는데 마침 남풍이 밤새 불어 그치지 않더니 날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아 길에 얼음이모두 녹았다. 얼음 위로 한강을 건너 성안으로 들어가 남매에게 들러 보았더니마침 한 생원 효중이 고성에게와 보고 있다. 의외에서로 만나니 기쁨과 위로됨을어찌 다 말하랴.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한은 먼저 돌아가고, 나는 저녁 식사 후에 기성군을 가서 보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또 김 도사 지남의 집에 들러 보았더니 김의 딸 성원이 나와 보는데, 요새 감기로 해서 몹시 파리하니 보기에 비참한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는 곧 지난달 초승에 호서로부터 온 집안을 이끌고 올라온 것이다. 어두운 뒤에 광노의 집으로 와서 잤다. 여기에 와서 들으니 개질지는 그저께 평강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온 닭은 팔아서 은 3돈을 받았다고 한다. 큰 닭 5마리면 3돈 반은 받았을 것인데 겨우 이것이라고 하니 필시 속이는 것이라, 밉살스럽지만 어찌하랴. 광노의 사위 효남을 중국 군사가 데리고 갔다가 놓아 보냈다고 한다. 고성이 나에게 중국 털관을 주었다.

21일. 광노가 물건을 팔러 강화에 갔기 때문에 그 형 응이를 시켜 초립을 사오라 했더니 값이 비싸서 사지 못했다. 인아의 망건은 은 2돈, 쌀 2되를 더 주었고, 장식하는 공단은 쌀 2되, 홍단은 팥 1두 5되, 딸의 장의 감 자주색 비단은 은 1돈과

바꿨다고 한다. 김 도사 자정이 영고의 일이 끝난 후에 들러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돌아가는데 술 1잔을 대접했다. 윤겸의 경주인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아노 개질 지가 돌아갈 때 누원 앞에서 중국 군사를 만나 가졌던 물건들을 빼앗겼다 한다. 허찬이 마침 서울에 왔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와 보고 같이 잤다. 안손이 오늘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 까닭에 내일 떠나지 못할 것 같다. 저녁에 임 참봉댁에 가서 임백천 부자를 만났다.

22일, 갓을 사려고 해도 다만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맞는 것이 없기 때 문에 사지 못했다. 백미 1두 2되, 좁쌀 2되로 체 1개를 바꾸고, 사발 3개, 접시 4 개, 보시기 2개를 바꾸었다. 새벽에 언명이 토당에서 왔다. 내가 오늘 떠나기 때문 에 와서 보는 것이다. 종 한세도 역시 왔는데 내가 데리고 가려 하기 때문이다. 아 침 식사 후에 아우와 함께 가서 김 참봉 업남을 조상했다. 그는 전일 상배하고 홀 로 살고 있었다. 그길로 김 도사 지남의 집에 가서 찾아보고 또 성원을 보니 지금 은 비록 덜하나 아직도 쾌차하지 않다. 또 관동으로 가서 이 첨지 언우를 찾았는 데 그는 이자미의 장인이요 경천의 아버지이다. 평강에 있을 때 집을 연해서 서로 두터운 친분이 있었는데 난리가 난 처음에 관서로 들어갔다가 이제 비로소 서울로 돌아왔고, 나이가 80이 지났기 때문에 노직당상이 되었으며, 그 큰아들 경천은 지 금 왕자의 사부가 되었다. 그러나 마침 집에 있지 않아서 만나 보지 못했다. 돌아 올 때는 또 홍 참의 인헌 영공을 가서 보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홍매가 마침 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 파하고 돌아왔다. 또 남매의 집에 들어갔더니 언명이 먼저 와 있다. 중소 씨와 바둑 두 판을 두고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광노의 집으로 와서 언명ㆍ허찬 등과 같이 잤다. 저녁에 안손이 와서 말하기를 그 말이 발을 절어서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율전에 버려두었다고 하기에. 즉시 내일 도 로 가서 침으로 다스려 차도가 있은 후에 오도록 하라고 일렀다 들으니 그곳은 마 태가 몹시 귀해서 얻어 먹일 수가 없다고 하므로 가지고 간 콩 5되를 주어 보냈다. 23일, 날이 밝자 식사를 하고 아우와 작별하고 짐을 말에 싣고 춘희, 한세 및 관인 을 데리고 동소문을 나와서 양주 녹양역 앞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성담촌의 올 때 자던 홍언규의 집에 이르렀으나 잘 곳이 없어서 토옥에 들어 가 자는데 온돌이 있어 몹시 따뜻하다. 이때 마침 저녁에 큰 눈이 내리는데 주인집에서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한다. 언규와 토옥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뒤에 파하고 잤다.

24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내려 거의 반 자나 된다. 이 때문에 일찍 떠나지 못하고 늦게 식사를 한 뒤에 떠나서 중로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비록 점심을 싸 주었으나 눈 속에 그릇이 없어 더운 물을 얻을 수 없어 먹지 못하고 떠나서 연천현 전일에 자던 집에 이르렀다. 그러나 들으니 태수(김제남)의 자제들이 피해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딴 집으로 가서 잤다. 사람을 태수에게 보냈더니 상하 식사를 준다. 또 쌀 2되를 얻었으니, 이는 곧 가지고 있던 양식이 여기에 이르러 떨어졌기 때문이다. 들으니 태수의 조카가 수일 전에 관아에 있다가 뜻밖에 죽었기 때문에 태수는 나와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 또 전일에 서울에 갈 때 개가 중로에 달아났기에 아주 잃었다고 생각했더니 이제 와서 들으니 이 개는 아직까지 자던 집에 있어서 집주인이 끌어가라고 하므로 춘희로 하여금 데려오게 했으나 오지 않으므로 그대로 버리고 왔다. 곧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서 달아난 것이다. 집주인이 당침 2개를 주었다.

25일. 해가 뜨자 떠나서 철원 땅에 와서 말에게 꼴을 주고 전일 자던 마산촌 거을 후미의 집에 도착하니 집주인이 대접하기를 몹시 후하게 한다. 그러나 줄 물건이 없어서 당침 4개를 주었다. 어제 길에서 박언방이 서울로 가는 것을 만나서 집 편지를 보았다.

26일. 주인집에서 자기 쌀로 조석 밥을 지어 준다. 밝기 전에 떠나서 말지령 아래고마근의 집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는데 마근이 점심을 대접한다. 이는 곧 전일 서울에 갈 때 말에 꼴을 먹이던 곳으로서 평강과 고개 하나 격해 있기 때문이다. 또 떠나서 고개를 넘는데 눈이 쌓였기 때문에 별로 길에 얼음이 미끄러운 곳이없어서 미끄러질 염려가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저녁때가 되지 않았다. 온 집안 상하가 기꺼이 맞는다. 이번 길에는 비록 심한 추위를 만났으나 상하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하다. 왕래한 남자와 서울에 머무른 것을 계산해 보니 모두 15일이 걸렸다. 집에 와서 들으니 덕노는 지난 보름날 돌아왔는데 가지고

간 꿀을 함흥에 바쳤더니 함흥통판이 감관을 시켜서 되어서 받는데 6두의 꿀이 겨우 5두 3되였다 한다. 값으로 주는 포는 종들로 하여금 스스로 골라서 가져가게 하는데 그러나 그 값도 난리 이후로 3필로 줄어서 1두에 겨우 7필씩 감해 정했기 때문에 받은 포가 모두 37필인데 이것도 모두 삼승포인 데다가 몹시 거칠고 나빠서 쓸 수가 없고, 1필에 3, 4곳씩 끊어진 것을 이었으며 척수가 짧아서 모두 30척도 되지 않으니 이것으로 정목을 바꾸려면 비록 3필을 주어도 1필 반을 살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같이 심한 추위에 비단 인마가 갔다 오느라고 괴로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1년 동안 살아 갈 계획이 헛것이 되어 도리어 여기에서 서울상인들에게 바꾼 것만도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이것으로 명년에 서울에 가서생활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도리어 그 본전까지 잃어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이도 또한 운명이라, 다만 스스로 크게 탄식할 뿐이다. 통판이 다시마 2동·절인은에 10동·생전복 50개를 보냈다. 이번 일은 통판의 허물이 아니라, 곧 내가 말을 잘못 들은 까닭이니, 전일에 들으니 한 되의 꿀에 좋은 포 한 필씩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감해서 정한 후로 상인들이 전혀 사러 오지 않았다 한다.

27일. 데리고 온 관인에게 편지를 써서 현으로 돌려보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와 보기에 혹 술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현의 문안인이 왔다. 소주 5병ㆍ퓡 4마리ㆍ노루고기 등을 보냈다. 집에 와서 들으니 윤겸이백미 1섬ㆍ밭쌀 섬ㆍ꿀 3되를 보냈다. 근일에 사퇴하고 가려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세하는 데 쓰라는 것이다. 윤겸이 사장을 올린 지가 4번에 이르렀으나 바뀌어 지지가 않아서 이제 또 사장을 보냈으니 관가에서 모든 일을 이미 수정했으므로 회보를 기다려 즉시 떠날 계획이라고 한다. 들으니 최 참봉은 차도를 본 뒤에일찍이 이미 서울로 갔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서로 만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28일. 덕노가 말을 가지고 현아로 가게 했다. 들으니 인마를 보낸다고 하기 때문이다.

29일. 덕노가 돌아왔는데, 백미 10두 · 밭쌀 10두 · 법유 2되 · 닭 3마리를 싣고 왔다. 벼슬이 바뀔 때가 되었으므로 간 뒤에 양식을 보낸 것이다. 이로부터 이 현의물건은 아주 끊어진 것이다. 감장 3두도 역시 보내왔다.

**그믐날.** 최 판관이 찾아와서 막혔던 회포를 이야기하는데 수제비를 만들어 대접하고 해가 기운 뒤에 돌아갔다.

# 12월

1일. 덕노가 어물을 사러 내일 고원 땅에 가므로 정목 1필, 차목 1필을 팔아서 사라고 일렀다. 그러나 이 종의 일은 매양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필경 뜻과 같이 되지못할 것이다. 그러나 별로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패간에 아직 시켜보는 것이다. 저녁에 아노 풍금을 가지고 간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절병 1행담, 꿀 4되, 꿩 6마리를 가져왔다. 꿩은 언명의 포목 값을 주어야겠는데, 보낸 꿩의 수가 이미 넉넉하다.

2일, 덕노와 춘이가 떠나갔는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다.

3일. 언명의 종 춘희가 병을 칭탁하고 돌아가지 않는데 그대로 머물면서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떠날 것이라 한다.

4일. 춘금이 · 김담 등이 돌아와서 편지를 보고 사장의 회보에 말하기를, 상량 위에 아뢰겠기로 아직 머물러 둔다고 써 보냈기 때문에 오늘 근친 온다고 했다. 김담은 역시 일수의 이름을 없애고 도로 보인으로 정했다 하니 기쁘다. 꿩 1마리, 노루 1마리를 보내왔다. 저녁에 윤겸이 와서 온 집안이 방 안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잤다.

5일. 윤겸은 그대로 머물렀다. 백미 2두, 참깨 2두를 어제 가지고 왔다. 두 매가 잡은 꿩 6마리를 가져왔기에 4마리를 구워서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윤겸이 갈려간 뒤에는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한 방에 모여서 각각 두 다리씩 먹었다. 춘희는 돌아갔다.

6일. 윤겸은 그대로 머물렀다. 최 판관이 와서 보기에 수제비를 대접했다. 윤겸을 보러 온 것이다. 근처 사람들이 모두 와서 자기들의 뜻을 말하고 하겠다는 일이 많 았지만 그 벼슬이 바뀌겠으므로 공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보냈다. 두 매가 잡 은 꿩 4마리를 가져왔기에 모두 말렸다가 제사 때 쓰려 한다. 박문재가 전병 1행담 을 가져왔다. 들으니 춘희가 말지령을 넘어서 고개 밑에 사는 고막근의 집에 들어 가서 병으로 더 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니, 내일 언신으로 하여금 가서 문병하고 와서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지고 간 필목과 꿩 11마리는 어머님께 드릴 2마리 · 노루다리 1짝과 꿩 2마리 · 남매의 집에 1마리 및 언명의 집에서 기르던 닭 9마리를 가져갔는데 어찌 처리하는지 알 수가 없다. 만일 여러 날 머무른다면 산 닭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 걱정스럽다. 사동의 밭 차조를 뚜드렸더니 모두 1석 10두이다.

7일. 이른 아침에 윤겸이 떠나서 현으로 돌아갔다. 모레 마땅히 철원으로 가서 그 첩은 거기에 머물러 두고 저는 결성으로 간다고 한다. 작별에 임하니 심사 망연하여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이로부터 현의 길이 아주 끊어졌으니 비탄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윤함과 진의 어미는 모두 먼 곳에 있어서 소식이 통하지 않은 지 오래고, 늙은 어머님과 아우 하나도 역시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윤겸을 또 멀리 이별하고, 다만 두 아이와 처자들과 함께 깊은 산골 속에 있으니 이로부터는 소식도 또한전해 듣기 어려울 것이니, 이 사이의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근심과 수심이 괴로워 그치지 않는다. 묵은 매는 여기에 머물러 두고 김업산으로 하여금 길들여 날려서 꿩을 나누어 쓰게 했다. 관의 매는 윤겸이 가져갔다. 언춘의 밭 흰 조를 뚜드렸더니 모두 2석 6두이다. 2두는 윤해의 집에 보냈다.

8일. 금이를 현에 보내서 윤겸이 떠난 것을 본 뒤에 와서 알리게 했다.

9일. 업산의 매가 어제 잡은 꿩 2마리를 가져왔다. 박언방이 현에서 와서 말하기를 윤겸이 오늘 마땅히 철원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반 드시 춘금이가 오는 것을 기다려 보아야 알 것이다. 지난밤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다. 오후로부터 집사람이 기운이 불편하고 또 오른쪽 어깨가 아파 밤새도록 신음하니 민망스럽다.

10일. 집사람은 차츰 차도가 있다. 춘금이가 오늘 돌아왔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듣건대 윤겸은 어제 떠났고 그 첩은 오늘 떠난다고 한다. 목맥 1석을 뭇쥐가다 먹고 남은 것을 되어 보니 겨우 8두로 2두가 없어졌으니 몹시 밉살스러우나 어찌하랴. 이는 고양이가 없는 까닭이므로 즉시 마루 왼쪽으로 옮겼다. 고양이를 구하는 것이 몹시 급한데 이곳에는 고양이를 기르는 집이 드물고 비록 고양이 새끼

가 있어도 반드시 포목을 받으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11일. 김업산의 매가 잡은 꿩 2마리를 가져왔는데, 1마리는 본가에 주었다. 춘금이가 현에서 돌아왔는데 편지를 보니 윤겸은 아직 머물러 있고, 그 첩은 얼굴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부종이 있고 아프다니 반드시 중상한 것이라, 그대로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오늘내일 사이에 보아서 떠난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노루고기 및 대구 절인 것, 생전복 조금을 보내왔다. 그저께 떠났다는 말은 헛말이다.

12일. 윤겸이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으니 생각건대 떠날 때는 반드시 편지를 보내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첩의 얼굴에 종기가 났다고 하니 또한 그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요새 날이 음산하여 해를 보지 못한 지가 오래인데 따뜻하기가 봄과 같고 지붕의 눈이 다 녹아서 추녀물이 비 내리듯 하여 길이 몹시 지니, 윤겸이 이와 같은 진흙길에 어떻게 갈 것인지 알 수 없으니 깊이 걱정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윤해의 종 안손이 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전일에는 말이 절어서 같이 오지 못했던 것이다. 토당의 편지 및 봉산 딸의 편지를 보니모두 무사하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딸의 편지는 지난달 18일에 광노의 집에 보냈던 것을 이제 비로소 와서 전하는 것이다.

13일. 이훤이 그 형 명(明) 및 그 서삼촌 능림령과 함께 와서 찾았는데 명은 곧 원성군의 적손이요, 능림령의 비첩의 아들이다. 마침 일이 있어서 그 아우 훤의 집에 왔다가 그 길에 와서 보는 것이다. 난리 후에 비로소 만났다. 상하 조석 식사를 대접하고 그대로 여기에서 잤다.

14일. 이른 아침에 이명 등이 작별하고 갔다. 현리 김언홍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윤겸은 지난 11일에 철원으로 갔는데, 장계는 5일에 이미 올렸다 한다. 12일에 철원부사 윤방이 와서 봉고했다. 윤겸의 첩은 어제 떠나갔다고 한다. 다만 장계의 내용은 아직 어떠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금명간 반드시 결성으로 향할 것이다. 저녁에 현에서 사람이 와서 철원부사가 보낸 백미 10두 · 밭쌀 10두 · 콩 1석 · 감장 5두 · 꿀 3되를 실어 오고, 장무가 또한 술 3병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윤해가 업산의 매를 빌려서 날려 꿩 2마리를 잡았다.

15일. 풍금이가 철원에서 왔는데, 어제 이천태수가 윤겸이 가는 것을 가 보고, 인

마를 보내서 양식을 갖다가 첩이 먹게 할 계획을 하게 하라고 해서 즉시 명해서 보내고 그길로 여기에 들러 가게 했다. 그편에 들으니 윤겸은 오늘 아침에 떠나서 파산 길로 향했다 하고, 철원부사는 윤겸의 첩이 머무는 곳에 백미 3두, 밭쌀 3두 및 김치와 간장을 보냈다고 한다. 만일 다달이 이렇게 보내면 보태 먹을 만하겠다. 또들으니 평강의 새 태수는 이 좌상 덕형의 아버지 민성이 제수받았다 한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다.

17일. 김억수의 작은 매가 개에게 해를 입었다 하니 아깝다. 어떤 사람이 필목을 가지고 와서 파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놓지 않으니 뜻이 여기에 이르면 가소로 운 일이다.

18일. 풍금이가 이천에서 돌아왔는데 이천태수가 피조 10두·콩 5두·밭쌀 5두· 팥 2두·감장 2두·꿩 2마리를 윤겸의 첩의 집에 보내서 이것으로 보태 쓸 수가 있으니 기쁘다. 이곳에도 역시 꿩 2마리와 닭 2마리를 보내왔다.

20일. 덕노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김억수가 내일 서울에 간다고 하기 때문에 한세를 시켜 제물을 지고 역시 함께 보냈다. 업산으로 하여금 매를 날려 꿩을 잡게 하고 인아가 친히 가 보았는데 겨우 2마리를 잡았다. 민시중이 현에서 돌아와서 방백의 장계의 내용을 갖다 보이는데 그 내용의 대략은 이러하다. "평강현감 오윤겸은 거듭 담증을 얻어 오래 직무를 폐하여 일이 적체된 것이 많사옵기 속히 파면시키도록 재삼 글을 올렸더니, 우연한 병이니 조리해서 행공하도록 써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또 글을 올린 중에 말하기를 병세가 날로 중해지고 담덩이가 뭉쳐서 이것이 종기가 되어 쑤시고 아파서 몹시 괴롭고, 춥고 더운 것이 자주 변하여 역시 종기의 증세가 몹시 급하여 수일 이후로 전혀 일을 보지 못하고 밤새 아파서 등불을 밝히고 밤을 새우고 있으니 이러한 공무가 긴급하고 민역이 번다한 때를 당해서 이대로 오랫동안 두면 폐단이 적지 않사오니 공사를 참작하시어 급속히 파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3 했사오니 그 전후의 실상을 보고 들은 바를 참고하건대 과연 설지의 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일이 많은 때에 오래도록 관청의 일을 비워 두는 것은 몹시 허술하오니, 현감을 파면시키고 자상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특별히 골라서 임명하시옵소서, 수 3일 사이에 급속히 보내 주시도록 장계를 올립

니다." 현감에 이민성·이결·신순일이 망(望)에 올랐는데 이민성이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곧 이덕형의 아버지로서 지금 통진 농장에 있다고 한다.

21일. 한노를 내일 올려 보내려고 제물을 같이 싸는데, 꿩 2마리 · 닭 1마리 · 식혜 3사발 · 대구 1마리 · 말린 여항어 2마리 · 말린 꿩 1마리 · 말린 가자미 4마리 · 목미 1두 · 차좁쌀 5되 · 기름 짤 참깨 3되를 보냈다. 조부모와 아버님 제물인데, 밥쌀 · 떡쌀은 일찍이 토당에 두었다. 죽전 숙부 내외분 및 죽은 딸의 제물은 이 속에들지 않았다. 어머님께는 차조쌀 1두 · 목미 1두 · 꿩 1마리 · 말린 꿩 2마리를 보내드리고, 남매의 집에는 역시 꿩 1마리를 보냈다. 이현 죽은 아우의 묘에는 본가에서 역시 준비해 보냈다. 다만 김억수가 언 길에 소를 끌고 갈 수 없다고 해서 덕노가 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비록 많이 보내고 싶어도 달리 얻을물건이 없고, 또 짐이 무거우니 어찌하랴. 모두 윤겸의 벼슬이 바뀐 때문이다. 덕노가 오지 않으니 필시 바른 길로 서울로 갔나보다.

22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는 크게 내려 종일 그치지 않아 눈이 거의 한자 넘게 쌓였다. 올 눈은 10월 후에는 많지 않더니 오늘 눈은 역시 근일에 없던 눈이다. 윤겸이 떠나간 지 이제 이미 8일이 되었는데 따져 보니 금명간 결성에 도착했겠다.

23일. 덕노가 어두울 때 돌아와서 말하기를, 어물이 몹시 귀해서 사지 못하고 다만 쌀로 바꿔서 실어 왔다고 하는데 그가 한 일을 보니 그 본전을 조금 잃은 것이 오히려 다행하다. 또 발이 얼었다고 핑계 대고 세전에는 서울에 가지 못하겠다고 한다.

24일. 언신이 오늘 서울에 간다고 하기에 날이 밝기 전에 제물을 갖다 보냈다. 전에는 고개의 눈이 막혀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이요, 덕노도 역시 혼자 돌아올 수 없는데 날자가 이미 촉박한데 이곳에는 다시 서울에 가는 자가 없고. 형세가 혼자 갈 수는 없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25일.** 김업산이 꿩 1마리를 잡아 보냈다. 연일 눈이 내려서 날리지 못했다고 핑계한다.

26일. 한세가 오늘 비로소 가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덕노로 하여금 말에

실어 가지고 연천 큰길까지 갖다 주어 거기에서 지고 가게 했다. 짐이 무거워서 차조 1두는 버려두고 갔다가 후일에 덕노가 갈 때 보낼 계획이다. 업산이 꿩 1마리를 가져왔다.

27일. 덕노가 한세를 데리고 도랑촌에 이르러 큰길을 가리켜 보내고 돌아왔다.

28일. 황촌의 피를 수이를 시켜 소를 가지고 실어다가 온 집안 계집종들의 요(料)로 나누어 주니 1두가 줄었다.

**29일.** 김업산이 꿩 2마리를 가져왔다. 매 날개가 젖어서 많이 날릴 수가 없다고 한다.

그믐날. 인아가 매 날리는 곳에 가 보고 꿩 3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는 매가 먹고 2 마리를 가져와서, 그중의 1마리는 윤해의 집에 보내서 제사에 쓰도록 했다. 풍금 이 철원에서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이는 곧 서울에서 돌아오는 사람 편에 보 낸 것이다. 편지 내용을 보니. 지난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이튿날 토당으로 가서 어머님께 뵌 뒤에 떠나갔다고 한다. 새 태수는 곧 이유선인데, 제배할 때 도승지 가 상피라 하여 맛에 올려서 임명된 터로서 물의가 좋지 못했다. 그러나 임금의 특 명으로 부임되었다 한다. 내일은 곧 대명일인데 한세가 제물을 지고 무사히 서울 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이곳에는 찬이 없어서 다만 사소한 물건으로 차례를 지 낼 작정이다. 올해 우리 집에서 경작한 밭에서 난 수는, 콩이 대소 흑적(黑赤)을 합 해서 모두 30석 12두 · 팥 18석 3두 · 녹두 1석 4두 · 목맥 5석 · 기장 · 피 · 조 도합 14석 5두 5되, 참깨 9두, 들깨 13두로서, 이상 콩·팥·녹두·보리·기장·피·조 합계 69석 3두 5되요. 또 참깨ㆍ들깨가 모두 1석 2두이다. 또 역비 중금의 밭에서 난 것은 콩 2석 8두 6되. 팥 1석 10두. 녹두 2두. 보리 3석 6두로서. 기장·피·조 가 도합 18석 11두이니, 두 곳에서 난 것을 모두 합치면 87석 14두 5되요. 현에서 보낸 양식은 이 수에 들지 않았다. 온 집안 상하 식구가 몹시 많기 때문에 경작해 서 난 것이 거의 90석이나 되고 또 그대로 생긴 물건이 있는데도 오히려 모자라는 걱정이 있었으니 이다음 날 윤겸이 바뀌어 간 뒤로는 농작물도 반드시 여의치 못 할 것이요 또 얻는 양식도 없을 것이니 필경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리 집 사 세가 말할 수 없다.



# 경자일록 | 庚子日錄

# 정월

- 1일. 날이 밝을 때 신주께 뵙고, 차례를 지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는 자는 모두 술을 대접해 보냈다. 그러나 향비와 춘이의 처가 서로 질투하기에 잡아다가 매를 때렸다. 일찍이 춘이에게 시집 온 뒤로 서로 떨어져 있은 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춘기의 처가 매양 서로 질투하고 싸웠는데, 춘기는 제 처를 몹시 사랑해서 가소로운 일이 많으나 매양 심상하게 여겼더니 이번에는 향비가 먼저 질투를 시작하여 지나친 일이 많기로 중하게 다스려서 경계한 것이다.
- 2일. 윤겸의 처자의 편지가 현으로부터 전해 왔는데, 곧 현의 사람이 일찍이 결성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온 것으로서 지난달 8일에 써 보낸 편지이다. 윤겸은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굴 1항아리를 보내왔다. 현의 아전들이 꿩 2마리를 역시 보내왔으니 곧 세찬이다.
- 3일. 김 주부 명세 및 김린이 보기에 떡국과 술을 대접했더니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부석사 중 법희가 와서 보기에 큰 잔으로 술 2잔을 대접했다.
- 4일. 들으니 윤겸이 데리고 간 하인이 지난 그믐날 돌아왔으니 편지를 반드시 보냈을 터인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하지 않는다. 현리 전응경 형제가 김억수의 집에 와서 여러 날 머물렀으니 혹 내 집문을 지났을 것인데 한번도 와서 보지 않았으니, 이 현 하리의 미련함을 알 수가 있다. 내일은 곧 집사람의 생일이어서 인아의 처가 유병을 지졌다.
- **5일.** 채억복·박귀필이 와서 보고 꿩 1마리를 가져왔기에 술 큰 잔으로 2잔을 주어 보냈다. 김업산이 이제 비로소 와 보고 매 2마리를 잡아서 가져왔기에 먼저 술 2잔을 주고 뒤에 떡국 1사발을 대접했다.
- 늦은 후에 최 판관에게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최의 집에서 나에게 탕과 술과 떡을 대접한다. 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 **6일.** 윤해와 윤함이 최 판관에게 가 보고 왔다. 저녁에 남매의 종 덕룡이 왔다. 지 난가을에 사 놓은 콩과 팥과 꿀을 실어 가기 위해서이다. 다만 토당 편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그러나 아직 모두 무사하고 덕노도 역시 잘 갔다고 한다.

**7일.** 남매의 종 덕룡이 서울로 가기에 차조 1두, 꿩 1마리를 보내고 마태 5되도 또한 주었다. 토당에 편지는 모레 윤해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덕룡은 저의 댁 콩 18두 · 꿀 5되 · 소반 3개 · 나무 바가지 1개를 실어 갔다. 이는 곧 지난가을에 필목으로 바꾸어 두어둔 물건이다.

8일. 들으니 새 태수(이민성)가 어제 부임했다 한다.

9일. 윤해가 덕노를 데리고 오늘 서울에 가려고 했더니 지난밤에 찬바람이 몹시불어서 길에 얼음이 굳게 얼어서 형세가 고개를 넘기 어렵다고 하므로 아직 정지했다가 수 3일 후에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 떠날 계획이다. 아침에 북쪽 마을에 사는 조광년이 현에서 와서 결성 편지를 전하는데 곧 관인이 모시고 갔던 자가 돌아온 지 이미 오래인데 이제야 비로소 전하니 몹시 밉살스럽지만 어찌하랴. 이제 윤경의 편지를 보니 철원에서 떠난 지 9일 만에 비로소 결성에 도착했는데 상하가모두 무사하다고 했고, 처와 아이도 잘 있다고 하니 기쁘고 위로가 된다. 이는 곧지난 섣달 25일에 써 보낸 편지이다. 업아는 그 아비의 얼굴을 알아보고 즉시와서 안겼다고 하니 예쁘다. 말린 민어 1마리, 굴젓 1항아리, 소금 조금을 보내왔다. 김업산의 매가 잡은 꿩 5마리를 가져왔는데, 곧 지난 2일에 잡은 것이라 한다. 서울에 3마리를 보내고, 본가에 1마리를 보내서 윤해의 노찬으로 쓰게 하고, 또 1마리는 말렸다가 보름 차례에 쓰려 한다. 수학매의 종 풍금이 말을 가지고 왔으니 전일 두어둔 쌀과 팥을 실어 가기 위해서다.

**10일.** 풍금이 돌아갔다. 근일에 길의 얼음이 풀리지 않아서 우마가 다니기 어렵지만 서울에 갈 일이 급해서 부득이 내일 윤해가 떠나가야 하겠어서 돌아가서 행장을 차리게 했다.

11일. 윤해가 덕노 데리고 떠나는데, 덕노의 말에는 바꾼 쌀을 싣고, 암소에게는 적두 15두 및 병아리 11마리를 실어 보내서 삼승포를 바꾸게 했다. 모든 일을 윤해에게 지시하여 광노를 시켜 매매하게 했다. 어머님께는 꿩 3마리·녹두 1말·차좁쌀 1두·차조떡 1행담을 보냈다. 암소는 토당의 종 광진에게서 황소로 바꾸기 위하여

끌어 보냈다.

12일. 업산의 매가 잡은 꿩 1마리를 그 아비가 가지고 왔기에 술 큰 잔으로 2잔을 주어 보냈다. 저녁에 민시중이 현에서 돌아와 그새 태수의 첫 정사를 말하는데 매사를 전대로 해서 아직 별로 아전이나 백성의 근심이 없고, 관아의 지공은 다만 둘뿐으로서, 상처한 뒤에 다만 비첩만을 데리고 있고, 노비는 각각 5명이라고 한다. 충아는 제 아비가 서울에 간 뒤에 비로소 와서 《사략(史略》》 둘째 권을 배운다.

14일. 업산의 매가 잡은 꿩 2마리를 가져왔고, 고한근이 숯 1섬을 가져왔다. 지난 겨울에는 2섬을 가져오고 1섬은 받지 못했는데 신관이 독촉할까 두려워서 가져온 것이다.

15일. 속절이어서 약밥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는데 꿩 2마리로 탕과 구이를 만들어 지냈다. 집에 찹쌀과 실과가 없어서 겨우 조금 얻어서 다만 신주에게 올렸을 뿐이다. 또 차조밥을 지어 한 집안 계집종들에게 나누어 먹였다. 윤해의 가는 길을 따져 보니 어제 이미 서울에 도착했을 것 같다.

16일. 현리 전응경이 돌아갈 때 답장을 써서 이은신에게 보내고 또 녹두 1두를 주어 보냈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녁에 전업이 돌아와서 또 이은신의 답장을 보고, 현리가 또 편지를 전하는데 과거 날짜 정한 것을 보내왔기에 보니 생원진사 초시는 2월 9일이요, 문무과 초시는 3월 6일이요, 생원 진사 복시는 8월 8일이며, 방방(放榜)은 같은 달 24일이다. 문무과 복시는 9월 10일이요, 전시는 같은 달 25일이며, 방방은 10월 3일이다. 이 도의 도회(都會)는 문과는 양구, 무과는 춘천, 감시(監試)는 양양이라고 한다. 감시 날짜가 이미 박두했는데, 윤함이 이미 명저를 얻었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얻을는지 이 때문에 깊이 걱정이 된다.

17일. 홍범이 지나가는 사람 편에 편지를 보내서 문안하고 농기 및 목박을 구하기에 답장을 주어 보냈다.

**18일.** 업산의 매가 잡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그러나 들으니 매가 상처를 입었다하니 걱정이다. 화에 앉혀 놓고 낫기를 기다려 날리라고 일러 보냈다.

**20일.** 언신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번량을 가지고 서울에 간다고 한다. 이에 편지를 써서 토당에 보내고 꿩 1마리를 주어 보내어 전하게 했다. 덕노가 어제나 오늘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김언보가 역시 와 보기에 술 큰 잔으로 1잔을 대접해 보냈다. 연일 음산하고 때로 비도 내리고 눈도 뿌리는데 홀로 산골짜기 속에 있어 서울 소식을 묘연히 알지 못하여 정히 소경이나 귀머거리와 같고, 조석 반찬이 이미 떨어져서 다만 소금과 간장만 먹는데 소금과 간장도 또 장차 떨어지겠는데 어찌할 수가 없다. 매도 또한 몸을 상해서 홰에 앉아 있고 날리지 못하니 탄식할 뿐이다.

21일. 덕노가 돌아와서 윤해의 편지를 보니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고, 토당에 계신어머님의 편지 및 아우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상하가 모두 편하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어머님께서 강정 1행담을 보냈기에 온 집안이 같이 먹었다. 덕노가 가지고간 닭 10마리로 청포 2필을 바꿔 왔다. 그러나 닭 1마리가 없다고 하니 만일 중로에서 도둑맞지 않았으면 덕노가 스스로 쓴 것이니 밉살스럽다. 식기는 값이 비싸서 사지 못했다고 한다. 또 끌고 간 암소는 토당에 사는 종 광진의 황소와 바꿨는데 적두 4두를 더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소는 나이는 비록 6세이나 몸이 작으니 필시 짝지어 가지는 못할 것이다. 또 사람을 다쳐서 아이들은 끌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이 걱정이다. 팥 5두로 소금 6두 5되를 받아 왔는데 다시 되어보니겨우 5두 4되이다. 또 왜국의 소식을 들으니 오는 봄이나 여름 사이에는 기필코와서 침범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미리 피란 갈 차비를 한다고 하니,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몹시 민망하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양호 사이에 토적이 역시 번져서 심지어 백주 시장 안에서도 버젓이 남의 재물을 약탈해도 관에서 금하고 체포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23일. 덕노가 번동목 4필을 가져왔기에 2필은 도로 주어서 다시 번동하게 했다. 다만 바꾼 필목 2필 반은 역시 많고, 가져온 거친 필목 4필은 말 값을 제하니 남는 것이 1필에 지나지 않으니 여기에서 말을 세놓아 쓴 것만도 못하다. 그러나 덕노의 처가 얻어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킨 것이다.

24일. 현의 통인 만세가 마침 일이 있어 여기에 왔다가 새로 온 태수의 정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편에 편지를 써서 이 직장에게 보냈다. 김억수가 현에 들어가

다가 길에서 매가 계속해서 꿩을 잡는 것을 보고 그물을 쳐서 잡아 가지고 왔는데 보니 곧 산진(매)으로서 발목에 가죽이 감겨 있고 방울이 그대로 있으니 필시 잃은 매일 것이다.

**26일.** 현리 전응경이 일이 있어 여기에 왔다가 와서 보았다. 요새 서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니 어머님의 안부가 어떠하신지 몹시 걱정되고 민망스럽다.

27일. 김업산의 아들이 꿩 1마리를 가져왔다. 들으니 업산이 서울에 간 뒤로 매가병이 있어 홰에 앉혀 두었다고 핑계 대고 날마다 비밀히 날린다고 하기 때문에 어제 인아로 하여금 가 보게 했더니 그 아들이 매를 가지고 집에 있지 않고 그 할아비가 말하기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비로소 나가서 날렸다고 하더라니 이는 곧핑계 대는 말이다. 밉살스럽다. 오늘은 매를 가져다가 전풍을 시켜 날려서 꿩 1마리를 얻었는데, 인아가 역시 가 보았다.

28일. 또 전풍으로 하여금 매를 날리게 하여 꿩 2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는 전풍에게 주어 수일 동안 수고한 데 보답했다. 저녁에 윤겸의 첩이 와서 보는데 철원으로부터 온 것인데 오래 머무르게 했다가 보낼 생각이다. 개질지가 모레 결성에 간다고 하기에 편지를 써 보냈다.

29일. 내일은 곧 죽은 딸의 기일이다. 둘째딸이 계집종을 데리고 제찬을 준비한다. 집사람은 어제부터 기운이 불편해서 누워 있고 일어나지 않는다. 또 전풍으로 하여금 매를 날려 꿩 2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는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주었다. 김업산이 서울에서 돌아왔기에 도로 매를 주어 보내서, 앉혀 두고 먹이다가 수일 후에 날리라고 했다.

#### 2월

1일. 죽은 딸의 기일이다. 새벽에 인아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했다. 형용을 추상하니 면목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우리 내외가 서로 마주 보고 슬피 울기를 그치지 못했다. 이는 곧 3년이 지난 후의 첫 번째 제사이니 슬프다. 언신이 전일 서울에 갈 때 토당에 가는 편지를 써 보냈더니 중로에 잊고 도로 가지고 왔으니 몹시 밉살스럽다. 꿩은 광노에게 주고 전해 보내라고 했단다. 은개의 남편 수이가 기남

에서 왔는데 올 때 율전 및 토당에 들러서 자고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와서 어머님 편지와 아우의 편지를 보니 모두 평안하다고 했으니 깊이 위로됨을 어찌 다 말하라. 그러나 윤해의 편지를 보니 말의 발이 아직도 차도가 없어서 출입을 하지 못하는데 수일 안으로는 형세가 아주 쾌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호서에는 토적이 몹시 번진다고 하니 말할 수 없다. 최중운이 와서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술과 국수를 대접해 보냈다. 언신이 어제부터 왼쪽 무릎이 시고 아파서 행보를 못하여 나무할 사람이 없으니 걱정이다.

2일. 풍금이 대구 1마리와 알 1쪽을 가져왔다. 영동에서 사 온 것이다.

3일. 덕노가 서울에 가는데, 필목을 바꾸려고 꿩과 닭을 가지고 갔다. 적두 4두, 마태 3두를 보냈다. 내가 보름 후에 가겠기 때문에 먼저 어미 닭 6마리, 황랍 1근을 먼저 보냈다. 이것은 집사람의 식기를 사기 위한 것이다. 어머님께는 팥 1두, 꿩 1마리, 산삼, 떡 1행담을 역시 보냈다. 한식에 쓸 목미 1두 2되, 두부콩 1두, 누룩 반 장도 역시 먼저 보냈다. 윤해의 종 춘이가 역시 말을 가지고 가기에 편지를 써서 율전에 보냈다.

5일. 여름 나무를 베어야겠는데 언신과 김담이 오지 않으니 몹시 밉살스럽지만 어찌하랴. 이 때문에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종일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올 겨울에 씨 벌 3통이 얼고 굶어서 죽었으니 아깝다.

6일. 네 사람을 시켜서 여름 나무를 베었다. 다만 가까운 곳에는 벨 곳이 없어서 5리 밖에 베어서 쌓았는데 실어 올 때는 하루에 2, 3차에 지나지 못하겠고, 아이종도 형세가 날마다 실어 올 수 없으니 걱정이다.

8일. 들으니 업산이 날리는 매가 콧병이 있다 하니 이는 곧 아끼지 않고 함부로 날린 까닭이라. 끝내는 반드시 버리게 될 것이니 아깝다. 내일은 곧 감시 초장인데 윤함이 어찌하는지 걱정스럽기 끝이 없다.

9일. 인아가 김현복이 병작한 중금의 밭 뚜드리는 것을 가 보았더니 흰 조 19두가 났고, 짚은 뇌지 않았다.

**10일.** 전풍의 밭 콩을 뚜드렸더니 7석이 나서, 수이에게 1두 5되, 언신에게 1두를 주었다.

11일. 오늘이 곧 감시이니 윤해의 과거 보는 날이다. 매의 콧병에 쑥 뜸질을 했다고 한다.

12일. 윤겸의 첩의 어머니의 기일인데 마침 여기 와 있으므로 제사를 차려 지내게 했다. 김 주부 명세가 와 보았다. 눈이 뿌리고 또 바람이 불면서 일기가 몹시 차서 마치 깊은 겨울과도 같다. 덕노는 올 때가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내가 한식에 대어 올라가려 하는데 종과 말이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들으니 이 제독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하나 쇄마에 붙잡히지 않는지 몹시 두렵다.

13일. 안협에 사는 부자 김지학이 묵정을 구하여 수륙재 때 쓴다고 하기로 보통 때 쓰는 먹 조금을 주고, 술을 주었더니 재계하기 때문에 사양하고 마시지 않으니 가소롭다.

14일. 수이로 하여금 조인손의 밭 청태를 뚜드렸더니 1석 13두가 나기에 5두를 덜어서 노비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1두는 윤해의 집에 보내서 삶아서 여러 아이들에게 먹이게 했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왔는데, 갓에 옻칠한 것이 마르지 않아서 수일동안 머무르느라 일찍 돌아오지 못했다 한다. 어머님 편지를 보니 아직 무사히 편안히 계시다고 했고, 언명은 양지 농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지고 간 필목은 당초에 2필이 본전이던 것을 이제 가져온 것도 또한 2필이어서 한자도 남는 것이 없으니 한갓 왕래의 양태만 소비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다시 그를 시켜서 불리한 일은 하지 않으련다. 몹시 분하다. 또 들으니 지난해에 장 담글독 1개가 15두는 드는 것인데 광노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먼저 제 마음대로 팔아서겨우 은자 1량 4돈을 받았다고 하니, 그 필목을 계산해 보면 4, 5필에 지나지 않으니 더욱 몹시 밉다. 갓을 산 값은 은자 4돈, 중목 2필이요, 쓰고 있는 갓은 은 3돈이니 모두 계산하면 은자가 1량 1돈인데 지금 가져온 갓은 좋지 않으니 광노의 하는 짓이 매양 이와 같으니 분하다. 덕노에게 주어 보낸 암탉 6마리는 겨우 은자 3돈을 받았다 한다. 처음 듣기에는 닭이 몹시 귀해서 4돈 반은 넘게 받을 것이라 했는데 또 그 수를 감하니 몹시 밉살스럽다.

15일, 김지학이 이른 피 씨 1두를 보내왔다. 전일에 왔을 때 내가 구했기 때문이다.

**16일.** 네 사람을 얻어서 조련의 밭 피를 뚜드리고 짚을 다 뇌기 전에 비가 내려서 겨우 거두어 가지고 왔는데 모두 3석 7두가 났다. 짚은 다 뇌지 않았어도 1석이 났다.

17일. 내일 서울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행장을 차렸다. 다만 집에 한 가지 물건도 없고 매도 또한 병이 많아 날리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여서 꿩도 잡아 보내지 못하니 서울에 가서 형편에 따라 사서 쓸 예정이고 다만 짐을 실려 보내면서 겨우 행량만 준비해 가지고 가고, 비록 콩과 팥은 있어도 또한 싣고 가지 못하며 달리 팔 물건도 없으니 민망하다.

18일. 새벽에 식사를 하고 밝기 전에 떠나서 삭영 땅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다만 동풍이 크게 불더니 이 때문에 오후에는 비가 내려서 비를 맞고 양태항촌의 철원교생 이인준의 집에 이르러 잤다. 만일 비가 오지 않았으면 그대로 지나갈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19일.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고 비를 뿌리다가 혹 눈도 뿌린다. 부득이 잔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떠나니 해가 이미 늦었다. 가사야에 이르는데 길이 질어서 여러 번 자빠지고 빠지면서 간신히 지나왔다. 큰 여울가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가정자 마을에서 자는데, 마침 김 내금(金內禁) 순걸을 만나서 마초를 빌리고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20일. 날이 밝자 떠나서 천천촌 세동의 집에 이르러 아침 식사를 하고 떠났는데 오래지 않아서 비가 내리더니 종일 바람과 비가 그치지 않는다. 누원 앞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이고 겨우 성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어두웠다. 종들은 도롱이가 없어서 옷이 모두 젖었고 나도 또한 옷이 젖었다. 또 날이 저물어서 남매(南人)의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바로 광노의 집에 도착하니 마침 윤해가 정시 구경을 하러 그저께 서울에 왔다고 한다. 그편에 들으니 자정(김지남)은 오늘 무사히 석방되었다 한다. 어제 정시의 제목은 "惜寸陰歲"인데 합격한 사람은 19인이요 신요가 장원해서바로 전시를 보러 가고 그 나머지 18인은 모두 급분(給分)했다고 한다. 광노는 강화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21일. 지난밤에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더니 새벽까지 그치지 않다가 아침에 이르

자 비와 눈이 섞여 내려 거의 반 자에 이르러 길이 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으니 걱정이다. 쌀 5되로 대구 2마리, 은 1돈으로 쇠고기 한 덩이를 사 왔다. 내일 묘제에 쓸 계획이다. 오후에 윤해와 떠나서 토당에 도착하니 해가 장차 저녁이다. 들어가 어머님께 뵈니 한 집 상하가 모두 전과 같으니 기쁘고 위로됨을 어찌 말하랴. 내일 제사에 쓸 딴 어육이 없어서 다만 삼색탕과 삼색 구이 및 포뿐이다. 아우의 처자들이 제찬을 마련했다. 어제 오는 길에 마침 누원 앞에서 김양봉을 만나서 말을 세워 놓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번에 산음태수에 임명되어서 성묘하러 양주 땅에 간다고 한다.

22일. 곧 한식이다. 아침부터 눈이 내려 산천이 모두 희니 산소에 올라갈 일이 몹시 걱정스럽다. 그러나 늦은 후에 비로소 개어서 산소에 올라 아우 및 윤해와 차례를 지냈다. 허찬도 역시 와서 참여하고 음복한 뒤에 파하고 내려왔다. 수이가 용산에서 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신함열이 서울에 왔다가 그길로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갔다고 한다. 또 들으니 그는 연안 땅으로 옮겨 가서 산다고 하나 아직 그 확실한 것은 자세치 않다. 토당에 머물러 있었다.

23일. 덕노를 부평 인아의 처가집 종에게 보내서 바꾼 소를 끌어오게 했다. 생각에는 신자방에게 가 보려 했더니 말이 마침 발을 절어서 가지 못하고 다만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어 물었다. 운산령이 와서 보기에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어제 제사지낼 때 묘지기와 종들이 모두 중국 장수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따라가고 없어서 사환이 부족했으니 한스러우나 어찌하랴. 토당에 머물렀다.

24일. 서울에 도착해서 들으니 이번 감시(監試)에 참가한 유생이 입문한 것이 고르지 않아 1소에는 1천 3백여 명이요, 2소에는 겨우 3백 명이었기 때문에 진사시는 이튿날 파방했다고 한다. 이번 온 길에 둔전답을 갈려 했으나 일기가 몹시 춥고 얼음도 녹지 않아서 묘노들로 하여금 날이 따뜻하기를 기다려 일을 하도록 일렀다. 토당에 머물러 허찬과 같이 잤다.

25일. 종일 비가 내리고 그치지 않는다. 덕노가 오늘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필시비 때문일 것이다. 어머님께서 필목 반 필을 서울 시장에 보내서 삶은 고기 한 덩어리를 사다가 주시는데 고기 값이 몹시 비싸서 겨우 주먹 하나만 하니 아깝다. 마

침 청계사 중 현정이 일이 있어서 이웃집에 왔기에 불러다가 이야기하니 자못 무료하던 것이 위로된다. 그와 같이 잤다. 토당에 머물렀다. 내일 서울로 갔다가 그길로 돌아가려 하나 비가 이같이 내리니 걱정이다.

26일. 아침에 비가 뿌리고 그치지 않더니 늦은 후에 개었다. 어머님께 작별하고 아우와 여러 조카들과도 작별하고서 서울로 들어와 남매의 집을 찾아 중소 씨와 저녁내 이야기하다가 바둑 두어 판을 두고, 저녁 식사 후에 김자정에게 가 보았더니마침 유 감사 영길 영공이 여기에 왔다. 역시 젊었을 때 서로 알던 사람이어서 한참 동안 옛이야기를 하다가 파하고 돌아간 뒤에 또 자정의 백씨 김 참봉 업남과 이야기하는데 자정이 좋은 술을 준다. 밤이 깊어서 파하고 광노의 집으로 돌아오니이미 인정의 종을 쳤다. 광노도 강화에서 역시 돌아왔다. 신자방이 돌아갈 때 편지를 써서 광노의 집에 보내둔 것을 보니, 이달에 봉산으로부터 연안 박 판관 동렬이있는 집으로 옮겼는데 온 집안 상하가 모두 무사하다고 했다.

27일. 들으니 별시는 새달 27일로 정했고 규구는 6백인데, 초장에는 논(論)·부(賦)요, 종장은 책문(策文)으로서 삼소로 나누어 각각 2백 명씩 뽑는다 한다. 강경은 삼경에서 자원해서 하고 사서에서 추려서 한다고 한다. 아침에 어머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물으시고 그편에 족건포로 방어 2쪽을 바꾸어 우리 집에 보내셨다. 반찬이 없다는 말을 들으시고 사서 보내신 것이다. 덕노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바꾼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는데 작년에 낳은 것은 소 기른 자가 뺏고 주지 않아서 다만 어미와 새끼 1마리만 끌고 왔다. 어머님께서는 새달 초승에 들어오시어 남매의 집에 계시고자 양식 쌀 4두 5되, 붉은 팥 8두, 밭쌀 2두를 준비해서 남매의 집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 저녁에 언명이 토당에서 와서 같이 잤다. 남이상도 역시 와 보았다. 집사람의 식기를 사 왔는데, 본철 1근, 은자 4돈을 더 주었다.

28일. 이른 아침에 박 참판 홍로 영공을 가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그에게 들으니 강원감사 이정형, 도사 조유한이 제배되었고, 전 감사·도사는 함부로 가권을 거느려서 공박을 받았다고 한다. 또 조보를 보니 이 사부 경천이 이제 중한 공박을 받았다고 하니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라. 경천은 이자미의 처남으로서

일찍이 왕자의 사부가 되었었다. 간장병 2개를 팔았는데 각각 1량 4돈씩을 받았으니 도합 2량 8돈이다. 광노를 시켜 포목 12필을 바꿨는데, 1필에 은 2돈 2푼, 혹 2돈 넘게, 은 1돈 5푼으로 백미 2두 2되, 또 1돈 3푼으로 밭쌀 2두 8되를 바꾸어 모두 남매의 집으로 보내어 두었다가 어머님이 오시기를 기다려 양식으로 쓰게 했다. 인아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기가 어렵고, 또 집에 종이 없어서 4, 5필의 우마에게 꼴을 먹이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또한 이를 팔아서 은 2량 6돈을 받아서 단단히 봉해서 광노에게 주어 후일에 내가 시키는 대로 처리하라고 말했다. 광노가방어 1마리를 사다가 준다. 전일에 수이가 소금을 사려고 강서로 가는데 나도 또한쌀 1두를 주어 소금을 사 오게 했더니 3두 5되를 받아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겨우 2두 5되였다. 늦은 후에 대정동으로 가서 이 참판 정귀 영공을 찾고, 또 의성군을 청해다가 조용히 이야기했다. 또 기성군을 찾은 뒤에 남중소 씨의 집으로 돌아오니, 자정 형제 및 언명이 모여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 씨가 술을 사다 주어서 각각 두어 잔씩 마시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녁 무렵에 각각 헤어졌다. 누님이 우리 형제에게 수반을 대접했다. 어둘 때 작별하고 아우와 함께 광노의 집으로 와서 갔다.

29일. 아우와 작별하고 동대문을 나와서 관왕의 주상을 들어가 보니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장인이 바야흐로 연삭을 하고 있으며, 전묘는 겨우 기둥을 세웠을 뿐이다. 그런데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켜서 상처투성이인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달려서 양주 녹양촌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또 익담촌 사노 자근동의 집에 이르러 잤다. 다만 오는 길에 말이 오른쪽 발을 절어서 걷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처음에는 가정자까지는 갈 것이라 생각했더니 이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다.

### 3월

1일. 일찍 떠났으나 말의 발 저는 것이 차도가 없어서 간신히 가다가 혹 질고 험한 곳을 만나면 문득 말에서 내려 걸어서 어렵게 대탄에 이르러 배로 물을 건너서 아침밥을 지어 먹으니 해가 장차 한낮이 되었다. 동풍이 계속 불고 때로 비도 뿌리

는데 겨우 가사야를 지나 혹 걷기도 하고 혹 타기도 하노라니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한다. 겨우 연천현을 지나서 적랑촌으로 들어가려 했으니 큰비가 내리므로 부득이 양태항촌의 올 때 자던 이인준의 집으로 달려들어가 잤다. 비가 그치지 않으니 내일 갈 일이 걱정이다. 미역 1꼭지를 주인집에 주었다.

2일. 바람은 세게 불지 않으나 비가 내리고 사면이 흐리고 어두운데 먼 산을 바라 보니 마치 옥봉이 솟아나온 것과 같다. 필시 지난밤 비에 높은 산에는 눈이 내린 것이다. 비는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으니, 오늘 길은 비가 개기를 기다린다면 집 에 들어갈 수 없겠다. 행자도 겨우 일자를 계산해서 짰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모두 떨어졌고. 말의 발은 여전히 저니 몹시 걱정스럽다. 늦은 후에 구름이 걷히고 안개 도 없어지면서 해가 비로소 나온다. 잔 집에서 아침을 먹고 떠나서 산정수를 건너 말에게 꼴을 먹이고 가사을 고개 밑에 이르니 해가 이미 떨어져서 도저히 고개를 넘을 수 없으므로 정로위 백귀희의 집에서 잤다. 길에서 박안세를 만났는데 그는 곧 피란해서 이 마을 멀지 않은 곳에 와 있다면서 매 사냥을 해 가지고 집으로 돌 아갔다. 우연히 서로 만나서 말을 세워 놓고 옛이야기를 했다. 박 공은 곧 박이상 충원의 손자요, 판서 계현의 아들이며, 황 판서 임의 사위이다. 그의 큰아들 승종 은 전에 승지를 했고, 둘째 아들 승황은 지금 은산태수이다. 주자동 옛 집에서 멀 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낸 지가 오래이다. 백귀희는 곧 이 고을 좌수 권주의 사촌 처남이요. 주의 장인은 갑사 백번좌라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권 주의 미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훤은 곧 원성군의 친손자로서 주의 집 에 사위로 들어갔으니 탄식스럽기 끝이 없다. 훤은 비록 패려해서 아까울 것이 없 으나 자신이 먼저 몸을 천하게 만들었으니 그 무지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3일. 날이 밝자 떠나서 달려서 집에 이르니 해가 이미 높았다. 말 저는 것은 어제 오후부터 좀 덜하고, 오늘은 또 어제보다도 덜해서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니 기쁜 일이다. 온 집안 상하는 모두 전과 같다. 오늘은 곧 가절이라, 떡을 만들어 신주께 차례를 지내는데, 윤해의 집 식구도 역시 와서 모였다. 다만 인아의 동서 조경이지난 정월에 해서 풍천 땅에서 병으로 죽어서 부음이 부평의 덕노가 올 때 이근성에게 전해 알린 뒤에 임모가 이 소식을 듣고 비통해 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슬픈 일

이다. 온 집안이 생선과 고기를 먹지 못한 지 오래인데, 내가 방어를 가지고 와서 쪼개서 구워서 저녁밥에 함께 먹으니 아이들이 다투어 가면서 더 먹으려 하니 가 련하다. 여기 와서 들으니 업산이 바꾼 매가 지금은 아주 나아서 날릴 수가 있으나 병이 도질까 두려워서 다시 10여 일 동안 앉혀두고 기르다가 날릴 계획이다. 다만 매 먹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붕질이 먹이던 개를 버려두고 간 것이 있으므로 이것을 잡아 주어서 먹게 하련다.

4일. 저녁에 윤겸이 결성에서 서울에 와서 하루를 머무르다가 지금 왔는데, 의외에 만나 보니 기쁘고 위로가 됨을 어찌 다 말하랴. 들으니 둘째 딸의 혼사를 이미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곧 죽은 이산태수 김가기의 아들 덕민이다. 김 공은 충청도보은 땅에 사는데 지난 정유 난리에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온 집안이 적의칼날에 죽고 덕민 한 몸이 홀로 온전하다. 김이산과는 서로 알아 친하고 덕민은 또아이들과 가장 친하게 사귀는 터여서 피차의 어진지 아닌지를 물을 것 없이 이미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만 가부만을 묻고 이달 22일로 날짜를 정했다 한다. 다만 날자가 이미 박두했는데 모든 것을 준비할 길이 없으니 몹시 걱정스럽고 민망하다.

- **5일.** 김귀실이 무 두어 말을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밭을 갈고 삼씨를 뿌렸는데 두 곳에 7되를 뿌렸다. 울타리 안에는 각색 차(茶) 종류를 심었다.
- **6일.** 비가 내려 종일 그치지 않는다. 부석사의 중 설운이 와서 보고 짚신 6켤레를 가져왔다. 이는 곧 절 중이 모아서 보낸 것이다. 점심밥을 대접해 보냈다.
- **7일.** 이 직장 언신이 현으로부터 와서 보고 그대로 잤는데, 그편에 윤겸의 온 것을 들었다. 콩 3두로 밀 5두를 바꾸어 씨로 쓰려 한다.
- 8일. 덕노가 윤겸의 말을 가지고 통천군에 갔다. 혼인 때 쓸 어물을 사고 겸해서 군수에게 어물을 얻기 위해서다. 내 말은 발을 절기 때문에 빌려서 보낸 것이다. 이언신은 돌아갔는데 혼인 임시해서 혼사를 와서 보도록 말해 보냈다. 전풍으로 하여금 밀밭을 갈고 씨 5두를 뿌렸다. 이것은 곧 관전이다. 최 판관 중운이 와서,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김명세·김린·김애일 등도 역시 와 보고 갔다. 모두 윤겸이 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혼기는 박두했는데,

모든 물건을 널리 구해도 얻지 못하니 장차 불성모양이 되겠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9일. 자방의 종 춘억 등이 연안에서 와서 자방의 편지 및 딸의 편지를 보니, 지난 달 열흘 후에 봉산에서 옮겨와서 온 집안 상하가 모두 무사하나 다만 곤궁한 것이 날로 더해서 장차 지탱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이곳에 두어둔 곡식으로 포목을 사러 간다고 한다. 우리 집에도 역시 벼 2석, 피 1석을 주고, 윤해의 집에도 벼 1석, 피 1석을 주었다. 백지 1묶음과 먹 1자루도 역시 보내왔다. 김언실·박언방 등이 남하군으로 초정되어 오늘 작별하고 가는데 줄 물건이 없어서 장전 5개를 주고 또 술을 대접해 보냈다.

10일. 개질지를 서울에 보내서 토당에 편지를 하고, 남매에게도 편지를 했다. 곧 혼인 때 쓸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이고, 또 신부의 장비를 얻어 오는 일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가 이미 박두해서 그날 대오지 못할까 걱정이다. 김랑의 사자가 저녁에 왔는데 택일을 알기 위해 먼저 사람을 보낸 것이다. 보니 6일에 그 집을 떠나서 10일 쯤에 서울에 도착했다고 했다.

11일. 김랑의 사자가 오늘 일찍 돌아가는데, 윤겸을 시켜 답장을 써 보내게 했다. 북면에 사는 교생 권호덕 형제가 술을 가지고 윤겸을 찾아와서 마태 4두를 주니가위 후한 일이다. 언신·김담 등이 현으로부터 함열의 집 곡식을 싣고 왔는데 벼 3석, 피 1석이다. 현리 등이 꿩 1마리, 여항어 4마리를 보냈다. 저녁에 세만이 이천에서 돌아왔는데, 이천태수가 말린 꿩과 산 꿩 각각 1마리씩을 보내고, 또 사람과 말을 보내서 윤겸을 청해갔다.

12일. 윤겸이 이천으로 갔다. 오늘은 곧 고조의 기일이어서 새벽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13일.** 전일에 미처 뚜드리지 못했던 피 짚을 뚜드리니 7두가 났다. 윤해의 종 춘기 안손 등이 왔다.

14일. 현의 교생 강백령이 윤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백미 1두, 꿩 1마리, 방어 반짝을 가지고 왔기에 술과 밥을 대접해 보냈다. 윤겸이 이천에서 돌아왔는데, 이천 태수가 준 밀가루 4두 · 꿀 2되 · 참기름 3되 · 잣 2두 · 개암 1두 · 꿩 2마리 · 말린

핑 3마리 · 집돼지 1마리 · 환상미 1석을 가져왔다. 환상미는 이 찰방의 종 부귀의 이름으로 받아 왔는데 오는 가을에 갚을 것이다. 이것으로 혼인 때 보태 쓰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다. 이천의 현리가 또한 꿀 2되와 핑 1마리를 가져왔다. 어제 윤해의 편지를 보니, 율전에서 서울에 왔으나 말이 절어서 오지 못하고 별시를 본 뒤에오겠다고 한다. 또 어머님 편지와 아우의 편지를 보니 모두 무사하고, 어머님께서는 보름 때 서울로 오신다고 했다. 김담이 횃불 1자루를 묶어서 가져왔다. 혼인 때 쓰려고 전일에 시켰기 때문이다.

**15일.** 새벽에 암말이 새끼 암컷을 낳았다. 전 좌상 이덕형이 어제 근친하기 위하여 휴가를 얻어 가지고 현에 왔다고 한다. 혼인 때 쓸 기구를 이 때문에 얻어 오지 못하니 걱정이다.

16일. 비로소 박번의 밭을 갈고 이른 피 2되를 뿌렸다. 반의 반일 갈이이다. 동대에 진달래가 만발해서 집사람이 팔들을 데리고 걸어서 가 보고 그길로 뒷 고개에올라갔는데 쉬지도 않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돌아왔다. 연전에는 기거(起居)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변소에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더니 지금은 걸어서 올라가기도 어렵지 않으니, 자녀들이 모두 기뻐하기를 마지않는다. 저녁에 현의 아전들이 사슴의 뒷다리 1짝・갈비 1짝・벌집 1개・밭쌀 3두・꿩 3마리를 걷어서 해유색 민득곤을 시켜 실어 보냈다. 득곤도 또한 따로 대미 1두, 말린 꿩 2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으로 혼인 때에 쓰겠으니 몹시 기쁘다. 온 아전들에게 술과 밥을 대접해 보냈다. 언신이 산삼・도라지 등을 캐서 가져왔다. 전원회도 도라지를 역시 캐서 가져왔다.

17일. 사람과 말을 철원·이천에 보내서 혼인에 쓸 물건을 얻어 오게 했다. 철원태수는 이미 물건을 내주고 가져가라고 했다. 이 현의 태수가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또 백미 5두·밀가루 2두·콩 5두·꿀 4되·개암과 잣 각 5되·호도 4되·석이 3두·목미 2두를 보냈다. 이는 곧 우리 집에 혼사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태수가 도임한 지 이제 석 달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묻지 않고, 윤겸이 여기에 온 지가 역시 반달이 지났는데도 또한 묻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물건을 보내고 일부러 물으니, 이는 필시 그 아들 이상(李相)(이덕형)이 묻도록 시킨 것

일 게다. 저녁에 덕노가 영동으로부터 기일을 대어 무사히 돌아왔는데, 통천에서 보낸 것은 송어 2마리·문어 생것과 말린 것 각각 1마리·대구 7마리·가자미 10 묶음·은어 20두름·생전복 백 개·해삼 4되·미역 3동·소금 5두·알젓 5되· 복쟁이젓 15개요, 흡곡(款谷)에서 보낸 것은 생전복 50개·가자미 20묶음·대구 2마리·알젓 5되를 가져왔다. 포목 1필로는 대구 17마리, 생문어 1마리를 바꿔왔다. 통천군리 박세업도 역시 송어 1마리·대구 5마리·방어 2마리를 보냈다. 이 물건으로 혼인 때 넉넉히 쓰겠으니 기쁘다. 서울에 사는 정난이 조기 2묶음, 문어 1마리를 가져왔다.

18일. 안손이 서울에 가기에 어머님께 편지를 올리고. 송어 1마리. 알젓 조금을 보 내드렸다. 현의 수리 전운룡 · 민충손 · 전거양 등이 와서 윤겸을 보고, 백미 1두, 꿩 3마리, 알젓 3되를 가져왔으므로 술 1병을 내다가 먹여 보냈다. 이들은 모두 영 리이다. 개질지가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신부의 머리 장식을 얻어 오지 못했으니 걱정이다. 의복 얻어 오는 일은 광노가 곧 강화로 갔다가 바로 이곳으로 온다고 한 다. 유해의 편지를 보니 어머님께서는 아직 서울에 오시지 않았다 했다. 호인에 쓸 물건을 사 왔는데, 자색 비단 머리 덮는 것은 은 5돈, 홑이불감 포 1필은 은 4돈, 분지(分之)는 은 4돈 반, 씨 뺀 목화 2근은 은 2돈, 수저는 은 1돈, 사기그릇 6개는 은 4푼이어서 도합은 1냥 6돈 9푼인데, 이것은 곧 인아의 송아지 판 돈으로 쓴 것 이다. 전복 큰 것 5마리. 중 5마리는 광노가 사서 보냈다. 개질지는 또한 철원에 들어가서 철원백(윤방)이 보내는 물건을 실어 왔는데 백미 3두 · 목미 2두 · 밀가 루 2두·참기름 2되·작은 전복 10개·생율 5되·포 5조각·호도 4되이다. 세만 이 역시 이천에서 돌아왔는데 전일에 받은 환상미 8두와 집돼지 1마리를 잡아 털 을 벗기고 가져왔다. 윤함의 편지는 해주로부터 광노의 집으로 전해 온 것을 보니. 그 집은 비록 아무 일도 없으나. 다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종 논금이가 병으로 죽 고 그 아내의 집에서 기르던 소 2마리와 말 1마리는 불의에 도둑을 맞았으며, 부역 이 너무 번거롭고 가계는 탕패하여 수습할 길이 없어 장차 유리하게 될 것이라 한 다. 이번에 보이는 별시에는 이 집에 인마가 없어 올라오지 못했다 하니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개탄함을 이길 수가 없다. 내 집이 곤궁함이 극하여 타향에 떠돌아 역 시 일정한 거처가 없어서 이 자식으로 하여금 아직도 처가에 머물러 있게 하여 장차 보존할 길이 없으니 근심스럽고 민망한들 무엇하겠는가. 감시에는 부(賦)로 차중(次中)에 합격했으나 끝내 파방이 되었다 하니 탄식스럽다. 잃어버린 소 1마리는 윤함의 물건이라 한다.

19일.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다가 낮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였는데 앞내가 넘쳐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니, 만일 다시 더 온다면 내일 혼인에 쓸 모든 기구를 모으기 가 어려울 것이요, 광노도 신부의 장식을 가지고 역시 미처 대 오지 못할 것이며, 신랑이 오는 길도 역시 필경 어려울 것이니 몹시 걱정스럽다. 이은신도 역시 오지 않으니 필시 물에 막힌 것이다.

20일, 이은신이 숙수를 데리고 아침 식사 전에 왔다. 어제 간신히 물을 건너서 박 문재의 집에 이르렀으나 방이 깊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고 왔다고 한다. 이에 비로 소 조과하게 했다. 현 안에 사는 황응성이 와서 보고 목미 1두를 가져왔다. 차일, 사기그릇, 까는 것 등을 아직 얻지 못했는데, 이천태수와 오늘로 약속했지만 지금 까지 보내지 않으니 필시 잊은 것인지 민망스럽다. 이 때문에 춘기를 안협에 사는 이진선이 와서 보고 목미 2두, 꿩 3마리를 가져왔기에 술 3잔을 대접해 보냈다. 춘 이가 차일을 실어 가지고 왔는데, 면석과 방석은 없다고 한다. 부석사 중이 두부를 만들어 보냈다. 전일에 콩을 보냈었다. 이천 관인이 까는 자리 등을 가지고 왔다. 아침에 사람을 보냈더니 중로에 만나서 함께 온 것이다. 광노가 서울에서 왔는데. 초록 저고리 2벌을 가지고 왔다. 이는 곧 황 참판 신의 집 물건이다. 붉은 치마는 얻어 오지 못했으니 걱정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저고리를 하고 치마는 남색 단을 단 것으로 쓰도록 했다. 외방의 일이란 매양 이와 같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이제 윤해의 편지를 보니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서울에 오시지 않았으니 금명간 오실 것 이라고 했다. 다만 들으니 신마전 홍점이 병으로 봉산에서 죽었다 하니 놀라고 애 통함을 이길 수 없다. 위로 편모가 있고. 그 두 아우가 이미 모두 먼저 죽었고 자기 는 자손이 없이 수가 또 길지 못하여 제사 지내는 일이 아주 끊어졌으니 더욱 몹시 비통하다. 신은 나의 5촌 친척이 되고 평일에 몹시 가까이 지내던 터이다. 전일에 윤겸이 이천에 갔을 때 사람을 빌려서 수안에 보내어 혼인 비용을 요구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밀가루 2두, 꿩 1마리, 돼지포 10조각을 얻어다가 전해 주었다. 광노에게서 들으니 김랑은 어제 철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저녁에 개 질지, 풍금이가 철원에서 신부의 장식 및 까는 물건 등을 가지고 왔다. 기일에 대 지 못할까 두려워서 아침에 덕노를 보냈더니 길이 어긋나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덕노는 바로 철원으로 갔다고 한다. 김랑은 오늘 먼저 와서 말지령 밑 인가에서 자 고, 철원백은 모레 일찍이 김랑이 자는 곳으로 와서 데리고 온다고 한다.

22일, 모든 제구를 겨우 수합해서 진설했는데, 납채를 진 사람이 먼저 왔으므로 삼 과상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철원백과 신랑은 저녁 무렵에 박문재의 집에 이르러 옷을 갈아입고. 또 이 마을 사람 등 7명이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는 데, 철원백 때문에 봉영하는 사람들이 각(角)을 불면서 와서 모두 무사히 예를 행 했는데. 나와 윤겸은 나가서 철원백을 기다렸다. 어제 최 판관(최응진)을 만났더 니 마침 기고가 있어 오지 못한다고 해서 다만 주객 세 사람이 술자리를 마련했으 나 철원백은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예를 행하고 파했다. 오후에 자못 비 가 내릴 기미가 있어 깊이 민망스럽더니 행례하기 전에는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 으니 다행한 일이다. 어두운 뒤에 비가 내리더니 밤새 그치지 않는다. 이제 철원백 을 보니 얼굴이 모나고 이마가 넓어서 순순한 장자여서 다음날 반드시 나라의 그 릇이 될 것이라. 탄복하기를 마지않았다. 당초에 혼인을 정했을 때에는 모든 일이 망연하여 준비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 곳에 빌려서 쓰고 사람들도 또한 도와주어 서, 비록 성사롭게 이루지는 못했으나 끝내 폐단이 없이 행했으니 가위 다행한 일 이다. 이웃 마을 대소 30여 인이 모두 옷 갈아입는 곳으로 모여서 혼행을 맞아 에 위싸고 왔으므로. 이들에게 모두 술과 국수. 양색탕. 썬 고기 및 과일을 대접했다. 다만 술이 적어서 겨우 세 동이를 내다가 먹였으니 서운하다. 철원의 하인 10여 명 에게는 모두 삼과상에 술과 국수를 대접했고. 신랑이 데리고 온 일곱 명에게도 역 시 6. 7가지의 과일과 술과 국수. 삼색탕을 대접하여 몹시 취한 뒤에 파했다. 김랑 [김덕민]은 일찍이 자세히 아는 바여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그 얼굴빛을 보니 제 처를 보고 몹시 기뻐하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들으니 아내를 데리고 남쪽 으로 가려 한다 하므로 우리 내외는 밤새 슬피 울었는데, 비록 강하게 거절하고 허

락 안 해도 만일 고집한다면 형세가 막을 수 없는 일이니 슬프고 탄식스럽다.

23일. 최 판관이 와서 보기에 조그만 행과에 잠시 한잔 술자리를 베풀고 돌아갔다. 약과 조금을 싸서 주었다. 늦은 후에 또 한 자리의 잔치를 열어 온 집안 안팎이 모두 중당에 모여, 김랑을 맞아다가 만나 보았다. 그러나 모두 술을 마시지 못하기때문에 겨우 한 순배를 돌리고 파했다. 저녁 두 아이가 김랑과 함께 동대에 올라가구경하고 돌아왔다. 나도 역시 함께 갔었다. 빌려 온 제구를 점검해 보니 한 가지물건도 잃어버리거나 찢어지고 더러워진 일이 없고, 심지어 사기그릇까지도 1개도 잃지 않았으니 다행한 일이다. 이은신이 현으로 돌아가는데 숙수 해복도 역시 돌아갔다. 줄 물건이 없어서 겨우 버선감 한 벌을 주어 보냈다.

24일, 광노가 서울로 돌아가기에 가져 온 신부의 옷을 보냈다. 이는 곧 황 참판 집 물건이다. 우리 집에 있던 포 16필을 주어 보내서 포목으로 바꾸게 했다. 또 콩 1 두를 주어서 스스로 쓰도록 했다. 토당과 윤해에게 모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어머 님께는 약과 50개와 말린 꿩 4마리를 보내드렸고, 남고성댁에 《삼국지(三國志)》 12권도 역시 주어 보내서 전하도록 했다. 유겸은 첩을 데리고 철원으로 돌아갔다. 가 그길로 결성으로 갈 것이라 하고, 김랑이 가는 것은 오는 7일로 정했는데 윤겸 은 바로 철원으로 갔다가 그길로 용인 진위 땅 경계에 이르러 그 첩은 바로 결성으 로 보내고, 저는 그 누이를 데리고 보은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기로 이미 약속이 되었다. 짐이 무거워서 부득이 암소에 실어 가지고 갔다. 여기 머무른 지 20여 일 만에 돌아가는데, 각각 먹을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자식이 흩어져 있고 한곳 에 합치지 못한 채 길이 이별 속에 있으니 회포가 어떠하겠는가. 슬퍼하고 탄식하 면 무엇하랴. 부석사의 수승 법희가 윤겸을 만나러 왔으나 시간이 미치지 못했다. 짚신 3켤레를 가지고 왔다. 과일과 술을 대접해 보냈다. 좌수 심사임이 윤겸을 만 나러 왔으나 시간에 대지 못하고 중로에서 서로 만나서 말 위에서 잠시 이야기하 다가 그길로 나에게 와 보고 또 찹쌀 1두. 꿩 1마리를 가져왔다. 그는 곧 남촌에 사 는 자이다. 북면에 사는 전 별감 최수영, 교생 한익신이 역시 윤겸을 만나러 왔으 나 미치지 못하고, 다만 나만 보고 또 물건을 가져왔는데 최는 목미 1두, 한은 밭 쌀 1두, 콩 2두이다. 각각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마침 술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갔 으니 탄식스럽다.

25일. 언방의 밭을 갈고 참깨를 심었다. 모레 김랑이 떠나려 하는데 딸이 행장을 차리는 것을 보니 슬퍼서 울기를 그치지 못한다. 딸이 데리고 갈 노비가 신을 짚신을 사오도록 콩 2두를 부석사에 보내어 4켤레와 바꿔왔다.

26일. 들으니 김랑이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므로 집사람이 절병과 감주를 만들어 대접했다.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리고 온 종들에게도 역시 목병과 백주를 만들어 먹었다. 내일 떠나기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암말이 새끼를 낳은 것 이 오래되지 않으나 주어 보내겠다고 말했다. 저녁에 풍금이가 철원에서 전일 가 지고 간 소를 끌고 왔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부백에게서 환상미 1석을 받아냈는데 서울에 가는 양식으로 써야 해서 이곳에는 보내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제가 데리 고 가는 말이 모두 파리하여 짐을 실을 수 없고. 달리 말을 구할 곳이 없어서 부득 이 세마를 구하는데 만일 얻지 못하면 제 누이를 데리고 보은에 갈 수 없다 했으니 탄식한들 어찌하랴. 김업산이 꿩 1마리를 가져왔으니 곧 행찬으로 쓰라는 것이다. 27일. 김랑이 제 처를 데리고 떠나는데, 온 집안 상하가 모두 모여서 비통해 하고 집사람은 소리를 내어 통곡하니 인정에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슬하에 있어서 사 랑하고 귀여워하기를 몹시 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서 멀리 천 리 밖으 로 작별하여 피차의 소식을 역시 얻어듣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 중의 회포를 어 찌 다 말하라.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집사람이 오랫동안 병중에 있어 온 집안일을 모두 맡겨서 이목이 되고 수족이 되었었는데 이제 멀리 이별하니 이 때문에 더욱 몹시 민망한 것이다. 덕노가 말을 가지고 모시고 가고, 계집종 향춘과 눌은개도 역 시 데리고 가는데 눌은개는 길이 데리고 사환으로 쓰고 향춘은 오는 가을에 돌려 보내게 했다. 행량은 백미 2두 5되, 마태 8두, 팥 갈은 것 4두요. 노비들의 양식은 철원부에서 받은 환상미를 가지고 따져서 가지고 갔다. 나도 또한 말을 빌려 타고 길의 절반 거리인 점심 먹는 곳까지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작별할 때 마주 대하여 슬피 우니 눈물이 두 소매를 적신다. 딸이 먼저 말을 타고 떠났는데 나는 한참 동 안 서서 바라보다가 말이 가는 땅끝이 언덕에 막혀서 보이지 않은 뒤에 말머리를 돌려 돌아왔다. 올 때 업산의 집에 들어가서 매를 보고, 또 보리밭을 보니 몹시 좋 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여름을 날 자료가 오로지 이것뿐인데 이러한 지극한 데에 이르렀으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28일. 새벽에 잠에서 깨자 딸이 오히려 여기에 있는가 의심하여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집사람과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세가 이와 같은데 비록 그 옳지 못한 것은 알지만 정애에 빠지니 지나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계집종 옥춘이 그저께 잘 못하여 마루 아래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 붓고 아픈 것이 몹시 심하니 걱정스럽다.

29일. 김담으로 하여금 채억복의 밭을 갈고 피를 심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세 계집 종이 심었다. 혼인 때 쓰고 남은 쇠고기 한 덩이를 얼음에 채웠더니 오래도록 상하지 않았으므로 포 5조각을 만들어 시렁에 걸어서 말렸으나 소리개가 채갔으니 밉살스럽다. 남풍이 종일 불고 자못 비가 내릴 기미가 있으니 내일 밭가는 일은 잘될지 모르겠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종일 개지 않고 밤새 그치지 않는다. 딸의가는 길은 오늘 어디까지 가서 머무는 것인지 깊이 염려된다. 딸이 떠난 후로 집사람은 일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여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밤에 이르러서도 잠만 깨면 반드시 우니, 이 때문에 음식이 전보다 몹시 감해지니 병이 날까 몹시 걱정스럽다. 둘째 딸은 성질이 유순해서 비록 슬하에 오래 있었어도 조금도 노여워하거나 거슬리는 빛이 없고, 막내딸이 죽은 후로는 귀여워하기를 몹시 심하게 하여 집일을 전혀 저에게 맡겼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빼앗아 가지고 갔으니, 그사이의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다. 다만 중도에 지나쳐서 말할 수가 없다.

### 4월

1일. 집사람이 지난밤 꿈에 둘째딸을 보고서 일어나서 슬피 우니 새벽부터 기분이 몹시 불편하여 때때로 두통도 있다. 감기인가 걱정하여 인동차를 마시고 땀을 내게 했으나 차도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 걱정스럽다.

2일. 두통이 좀 덜하더니 아침에는 많이 나았으나 다만 원기가 피로해서 아직도 쾌하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이 전만 못한 데다가, 집에 입에 맞는 것이 없으니 걱정스

럽다. 딸은 철원에 이르러 편지를 써서 보내왔고 윤겸의 편지와 김랑의 편지는 윤 겸이 행장을 차리기 전이어서 하루를 머물러 29일에 비로소 떠나서 서울길로 향해 서 연천에서 자고 이튿날 또 익담촌에서 잔 뒤에 서울로 들어갈 것이라 한다. 그러 나 그저께 비가 내렸으니 필시 떠나지 못했을 것이니. 거리를 따져 보면 오늘쯤 서 울에 도착했을 것이다. 만일 일찍 철원부에 머무는 것을 알았으면 어찌해서 이곳 에 수일동안 머물게 했다가 서울로 바로 보내지 못했을까. 깊이 뉘우쳐짐을 금치 못하겠다. 행량은 환상미 받은 것 중에서 머물러 있을 때 먹을 것을 제거하고 7두 를 가지고 갔고. 그 나머지 5두는 덕노에게 주어서 송옥진의 집에 두게 했다고 한 다. 다만 김랑의 종은 병으로 누워서 데리고 가지 못하고 부득이 주인집에 버려두 고 갔고, 짐 싣는 말도 역시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한다니 이것이 걱정스럽다. 이 편지는 곧 철원백이 말지령 밑에 사는 장인 고막근에게 보내서 이리로 전해 보내 게 한 것이다. 답장을 써 달라고 하기에 그 사람에게 써 보내고 또 점심밥을 대접 해 보냈다. 이웃에 사는 대장장이 춘복이 꿩 1마리를 가져왔다. 집사람이 병을 앓 고 난 뒤에 입이 쓴데 맛있는 음식을 얻지 못해서 바야흐로 민망하던 때에 의외에 이것을 가져오니 몹시 기쁘다. 즉시 검은 콩 1두를 주었더니 그는 받지 않으려 하 는 것을 억지로 주어서 받아 가지고 갔다. 집사람이 즉시 다리 하나를 구워서 먹었 다. 또 들으니 철원백이 힘을 다하여 윤겸을 후대해서 쇄마 1필, 아마 1필을 내주 어 서울에 도착한 뒤에 도로 보내라고 했다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3일. 품 산 사람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갈아서 다 간 뒤에 관의 둔전으로 옮겨 갈았다. 무림수의 종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가까운 마을 사람에게 염전에 판 나무를 이제 비로소 실어 가는 일이다. 이 사람에게 들으니 딸의 일행은 그저께 비로소 대탄을 건너갔으니 마땅히 천천촌에서 잤을 것이고, 어제 비로소 서울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들으니 그저께 내린 비로 내가 넘쳐서 건너기 어려웠을 것이라 하니 이것이 걱정스럽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도로 보내고 수제비를 대접했다. 아기벌이 배나무에 앉았으므로 인아가 잡아 앉혔다.

**4일.** 품 산 사람이 관의 둔전을 다 간 뒤에 문재의 밭으로 옮겨 갈았으나 끝내지 못하고 모두 피를 심었다. 부석사의 중 설운이 와서 보고 짚신 1켤레를 주고, 또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중 태현이 짠 자리 한 입을 가져왔다. 이는 곧 자리 짜는 값으로 팥 2말을 준 것이니 아우의 물건이다. 다만 들으니 그 풀이 썩어 끊어져서 쓰지 못하겠기 때문에 자기 물건으로 짜서 보냈다 한다. 어제 인시에 발 없는 솥이 저절로 울다가 한참 만에 그쳤다.

**5일.** 문재의 밭을 갈고 씨를 다 뿌렸다. 효립이 어제부터 두통을 앓아 차도가 없으니 걱정스럽다.

6일. 김언신이 울방연 가의 묵은 밭을 일구고 차조를 심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7일.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다 갈고 차조 2되를 뿌렸다. 어제저녁에 김담을 불러와서 갈도록 일렀으나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으므로 부득이 늦은 후에 조광년을 불러다가 갈았기 때문에 갈 만한 곳을 다 갈지 못했으니 몹시 밉살스럽다. 일찍이소를 갖다가 간 품이 있는데도 끝내 속이니 더욱 밉고 분하다. 전일에 아기벌이 난 벌통에서 또 한 통이 나서 앞 나무에 앉았기로 잡아다가 앉혔다.

8일. 곧 속절이어서 차례를 지냈다. 윤해의 종 안손이 서울에서 와서 윤해의 편지를 보니 이번 별시에 논(論)으로는 차하(次下), 책(策)으로는 차상(次上)에 합격했다 하니 기쁜 일이다. 오는 11일에 강경하고 17일에는 전시가 있다 하며, 이시윤도역시 합격되었다니 더욱 기쁘다. 다만 들으니 윤함이 오지 않았다 하니 필시 종과말이 없기 때문이라, 한탄한들 무엇하랴. 또 윤겸의 편지 및 김랑의 편지를 보니,일행 상하는 초2일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여 이틀을 머무르고 초5일에 비로소 떠나서 남쪽으로 향했으나 윤겸은 그 누이를 데리고 도로 가지 못했다 하니 한스럽다. 또 어머님 편지를 보니 지난달 28일에 서울로 오시어 남매의 집에 계신데 현재 편안하시다 하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딸과 김랑이 모두 가 뵙고 돌아갔다고 한다. 또 윤 동지 경의 부인은 곧 김랑의 4촌 누이인데 억지로 딸을 청하므로 부득이 가 보았다 한다. 소를 쉬게 하고 갈지 않았다

9일. 오늘은 곧 둘째 딸의 생일이다. 가는 길을 따져 보니 5일에 서울을 떠나서 오늘은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러나 종일 비가 내렸는데 이미 도착했을지 모르겠다. 깊이 걱정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10일. 윤해의 종 안손이 서울에 가기에 단오에 쓸 제물을 보냈다. 그 임시해서 올

라가는 자가 없을까 두려워서 이 종이 가는 데에 마련해 보냈다. 목미 1두 · 대구 4 마리 · 해삼 60개 · 가자미 1묶음 · 말린 꿩 2마리 · 차좁쌀 4되 · 잣 2되 5홉 · 개암 2되 5홉 · 문어 2쪽 · 정목 반 필을 보냈는데, 정목은 제사 임시해서 구이에 쓸 고 기나 생선을 사기 위한 것이요, 또 누룩 1장은 술을 빚게 하기 위해서다. 어머님께는 적두 2두 · 녹두 1두 · 목미 5되 · 밀가루 7되를 보내드리고, 대구 1마리도 또 보냈다. 아우에게 편지를 써서 각처에 보내게 했다.

11일. 소 2마리로 하여금 말지촌 역전을 갈고 피를 뿌렸으나 끝내지 못했다. 3일갈이로서 다섯 사람이 뿌렸다. 절기가 이미 늦어서 처음에는 갈지 않으려 했으나 조를 갈 곳만 빼고 인아의 강권으로 인해서 간 것이다.

12일. 어제 끝내지 못한 곳을 갈고 씨를 뿌려 끝냈다. 조 9되 5홉을 세 사람이 뿌렸다. 벌통에서 또 한 통이 났으니, 곧 세 번 연속해서 난 셈이다. 마침 내가 밭 가는 곳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억수로 하여금 잡아 앉히게 했다. 모두 어미벌 좌우에 앉혔다.

13일. 업산이 와서 매 먹이를 달라고 하므로 부득이 흑태 1두를 주어 보내어 꿩을 사서 먹이게 했다. 지난달에는 집에서 기르는 큰 개를 잡아 주었는데, 이제 또 달라고 하니 만일 이처럼 계속된다면 지탱하지 못하겠다. 꿩을 잡았을 때는 얻은 것의 백분의 1만을 주었고, 심지어 과도히 날려서 이 때문에 콧병이 나서 홰에 앉혀놓은 후에도 매양 와서 먹을 것을 요구해 갔으니 밉살스럽다. 또 듣건대 비밀히 철원 땅에 가서 날려서 첫날 9마리를 잡고 이튿날 12마리를 잡아 이틀 동안에 21마리를 잡았으며, 매일 잡은 것이 56마리에 떨어지지 않는데도 여기 가져오는 것은혹하루 걸러서 1마리,혹 3,4일 만에 1,2마리를 가져올 뿐이다.이 매는 재품이몹시 높기 때문에 놀려두려 하지만 그 먹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콧병이 아직도 아주 쾌하지 못하니 그 생사를 기필할 수가 없다. 윤해의 집의 세 번째 벌이오늘 낮에 도망갔으니 아깝다.

14일. 사동의 밭을 갈았으나 끝내지 못하고 늦기장을 심었다. 식사 후에 내가 친히 가 보고 그길로 최중운의 집에 가서 찾아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노라니 나에게 수반을 대접한다.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저녁에 자방의 종 춘억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오늘 연안으로 간다고 한다. 최중운에게 들으니 철원군수는 당상에 승진했고, 회양·삼척·평해·양구·고성·인제 등 여섯 관원은 모두 파면당했다고한다. 이는 어사의 장계에 의한 것이다.

15일. 어제 갈다가 끝내지 못한 밭을 다 갈고 늦기장 및 찰기장을 심었다. 하루반 같이이다. 인아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 30여 마리를 잡아다가 저녁 식사에 탕을 끓여 먹었다. 오래 먹어 보지 못하던 나머지여서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또 중질 거북을 얻어 왔는데, 이는 곧 언세가 잡은 것이다.

**16일.** 어제 얻은 거북으로 탕을 만들어 인아와 함께 먹었다. 충립은 먹지 않으니 가소롭다. 전풍이 소 2마리를 빌려서 우리 집 기장과 조밭을 갈아 씨 뿌리기를 마치고서 품을 같은 후에 콩과 팥밭을 갈고자 한다.

17일. 두 소를 김언보의 처가 빌려다가 갈았다. 언보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간청하기에 허락했기 때문에 부득이 빌린 것이다. 인아가 낚시질도 하고 혹 그물도 쳐서 물고기 40여 마리를 잡아 왔기에 식혜를 담그게 하여 대기(大忌)에 쓰련다. 자방의 중 춘억이 어제 연안으로 가는데 편지를 써서 보냈다.

18일. 오늘이 곧 전시라 한다. 윤해가 만일 강경에 들어갔으면 전시를 본 뒤에 내려올 것이요, 만일 강경을 하지 않았으면 지난 5, 6일 사이에 왔을 것인데 오지 않았으니 필시 무사히 강경을 한 것이리라. 그러나 안손이 간 뒤에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전귀실이 소를 빌려다가 갈았다.

**19일.** 어제 박근이 꿩 1마리를 가지고 와서, 소를 빌려 밭을 갈겠다고 간청하므로 부득이 허락했다.

20일. 종일 비가 내려서 밭을 갈지 못했다. 저녁에 윤해가 서울로부터 비를 맞고 왔는데, 들으니 강경에는 무사히 합격했고, 지난 17일 전시에 들어 본 뒤에 방이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왔다고 한다. 전시의 책문은 겨우 성편을 했다고 하니 다만 천운을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온 집안에 좋은 꿈이 없었으니 걱정스럽다. 덕노도 역시 보은에서 서울에 갔다가 윤해와 함께 왔는데 팔의 편지 및 김랑의 편지를 보니 일행 상하가 모두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그러나 이후로는 피차에 소식을 얻어듣기가 어렵겠으니 슬프고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또

윤겸의 편지를 결성에서 개질지가 가지고 서울로 와서 윤해가 올 때 보내왔다. 편지를 보니 또한 무사히 집에 들어갔고, 제 처는 지난 3월 7일 묘시에 생남했는데 상모가 대단히 좋다고 하니 몹시 기쁜 일이다. 계속해서 두 아들을 얻었으니 한 집의 경사가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으랴. 기쁨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 그 아이의 이름은 홍업이라고 했다 하니 몹시 합당하다. 다만 남은 곡식이 없어 장차 굶주릴일이 있겠다고 하니 이것이 걱정이다. 오늘 윤해가 와서 결성 · 보은 소식도 역시얻어들으니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또 어머님 편지 및 남매의 편지를보니 모두 평안하다고 하니 더욱 기쁜 일이다. 그러나 안손이 가지고 간 제물은 말이 물속에 드러누워서 모두 젖었고, 심지어 목미 밀가루 등 물건은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걱정스럽다. 또 들으니 삼사가 지금 바야흐로 병판 홍여순의 무리를 논척했으나 아직 윤혀를 받지 못했다 한다. 조정에 풍랑이 또 일어나니 어느 때나 편안히 고요해질는지 모르겠다. 탄식스러운 일이다.

21일. 서쪽 울타리 밑에 앉힌 벌이 비로소 아기벌을 낳았으므로 즉시 잡아서 앉혔다. 오후에 관의 둔전을 갈고 콩을 심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아침에 흐리고 비를뿌리기 때문에 쾌히 개기를 기다려 비로소 일을 시작했다. 윤해가 이전 별시의 강경에 만난 곳은《시전(詩傳》》 정풍(鄭風)역 혜편과 《중용(中庸》》 12장(章)의 "君子之道造端乎 夫婦"인데, 《중용》은 전혀 읽지 않아서 간신히 입격했다고 한다. 만일급제했으면 지금쯤 반드시 기별이 있을 것인데, 종일 서서 기다려도 마침내 허사로 돌아갔으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홍업은 경자년(庚子年)(土) 경진월(庚辰月)(金) 경술일(庚戌日)(金)이요, 시(時)는 기묘(己卯)이다.

22일. 또 전자질금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다 갈고 씨를 뿌렸는데, 콩 4두 4되가 들었으니 곧 하루 반 갈이이다.

23일. 또 자질금으로 하여금 말지촌 김언보의 밭을 갈고 콩 2두 8되를 심었으니 곧 하루갈이이다. 저녁에 남매의 집 종 덕룡이 서울에서 왔는데, 이는 곧 지난가을에 사둔 콩을 실어 가기 위해서다. 어머님 편지 및 누이 편지를 보니 평안하다고하니 몹시 기쁜 것을 어찌 다 말하랴. 다만 이번 별시에 장원한 사람은 이시정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윤해는 해마다 낙방하니 때가 오지 않은 것

인가. 가운이 불행한 것인가. 크게 탄식한들 무엇하랴. 또 아우의 편지를 보니 비록 딴 병은 없으나 양식이 떨어져서 바야흐로 굶주리고 있는 중이라 하니 깊이 걱정스러움이 끝이 없다. 각각 남과 북에 있어서 멀어서 한 가지도 돕지 못 하고 한갓 밤마다 잊지 않을 뿐이다. 다만 기전에는 비가 알맞게 와서 씨 붙이는 것이 이미 끝났고, 혹은 바야흐로 풀을 맨다고 한다. 만일 연사가 풍년들고 사람만 넉넉하면 가을에 우리 집이 비록 그곳으로 간대도 먹을 길은 필시 넉넉하겠으니 깊이 기쁘다.

24일. 덕룡이 서울로 돌아가는데 그 집 팥 21두를 싣고 갔다. 어머님께는 천어로 만든 식혜 1항아리 3사발이 넘게 든 것을 보내 드렸다. 절반은 단오 제사에 쓰고 그 나머지는 조석 반찬으로 쓰시도록 여쭈었다. 또 아우에게는 말장 2두, 팥 1두를 보내고 누이에게는 말장 2두를 보냈다. 남이상에게도 흑태 1두를 역시 보냈다. 또 자질금으로 하여금 집 앞 김언보의 밭을 갈고 백두를 심었으나 끝내지 못했으니 곧 3일같이이다.

25일. 또 자질금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갈게 했으나 역시 갈고 씨 뿌리는 것을 끝내지 못했다.

**26일.** 또 자질금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갈게 했으나 역시 갈고 씨 뿌리는 것을 끝내지 못했다. 자질금은 계속 6일을 갈았는데 곧 품을 갚는 것이다. 별시에 급제한 자는 16인이라 한다.

27일. 자질금이 품으로 소 2마리를 빌려 갔다. 계속해서 2일 동안 간다고 한다. 아침 식사를 겨우 마쳤는데 서쪽 울타리 아래에 앉힌 벌에서 아기벌이 나서 배나무에 앉았으므로 잡아서 앉혔더니 오래지 않아 또 나서 하루에 계속해서 두통이 나서 모두 배나무에 앉았으므로 잡아서 앉혔다. 다만 벌통이 작고 협착해서 벌을 담기가 마땅치 못하나 통을 얻지 못해서 이러한 앉히지 못할 통에 앉히니 오래 가지 못할까 근심스럽다. 두 벌을 합치면 거의 4,5되가 될 것이다. 계집종 은개의 남편 수이가 지난달 그믐에 윤해의 종 춘이와 같이 삼척에 갔다가 인아의 처가의 계집종을 만나 보고 물건을 살 일로 보내서 오늘 저녁에 왔는데,올 때 강릉 심양덕의 집에 들렀더니 심질의 답장을 갖다가 전하기에 보니 온 집안이 모두 무사히 잘

있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미역 2동, 대구 4마리, 말린 조어 4마리를 보내왔다. 인아의 계집종은 젖 떼지 않은 어린애가 있고, 또 걷지 못하는 어린애가 있기 때문에같이 오지 못하고, 다만 신공포 3필을 보내왔다. 충모로 하여금 약과 5되를 만들었다. 모레 제사에 쓰기 위해서다.

28일. 내일은 곧 선군의 생신이다. 두 아이의 처로 하여금 반찬을 마련하게 하고 또 언신으로 하여금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했더니 두어 사발을 얻어 왔으므로 이것으로 탕과 구이를 하려 한다. 생선과 고기를 달리 얻을 곳이 없어서 다만이것으로 음식을 하려 한다. 소물도 역시 시절 채소로 탕과 구이를 만들어 소탕·사색육탕·양색 고기구이·양식 소물 구이·육색어육좌반·포혜·반상 제구를얻는 대로 반찬을 마련했다. 다만 어머님께서 멀리 서울에 계시고 아우도 또한 집에 없으니 이 때문에 한탄스럽다. 자질금을 이틀 계속 빌려서 밭을 갈았는데 이는곧 품이다.

29일. 밝을 녘에 두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고, 아침 식사 후에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아침 식사 전에 그저께 난 벌통에서 또벌이 나서 잡아다가 서쪽 방 창 밖 울타리 밑에 앉혔다. 겨우 3되쯤 되는데 곧 한통에서 네 번 난 것이다. 앉힌 지 오래지 않아 세 번째 난 벌이 도망해서 뒷 고개를 넘어 달아났다. 통이 좋지 못한 때문이다. 아깝다.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으니 역시 운수인가 보다. 어찌하랴. 김업산이 매를 가지고 와 보기에 술과 떡을 먹여 보냈다. 매를 가지고 가서 잘 기르라 하고, 동쪽 집 개를 잡아서 매 먹이로 쓰도록 했다. 만일 잘 먹이면 마땅히 후하게 상을 주리라고 해 보냈다. 오늘 제사 지내고 남은 떡과 과일 및 고기 등 물건을 2행담에 담아서 최 판관에게 보냈더니 고맙다고 답장을 했다.

#### 5월

1일. 오늘 전일에 갈다가 끝내지 못한 밭을 갈려고 어제 언신이 와서 갈기로 약속 했는데 어기고 오지 않으니 밉살스럽다. 부득이 늦은 후에 비로소 풍이를 빌려다가 갈았다. 최 판관이 편지를 보내 묻고, 또 고등어 및 조기 각 1마리를 보냈기에

답장을 하여 사례했다.

2일. 후임 어미가 어제 아침부터 처음에는 배가 조금 아프다고 하더니 밤이 되자 대단히 아파 새벽까지 계속하므로 찬바람을 쏘여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니 날이 밝자 아들을 낳아 미처 자리도 깔기 전에 무사 히 해산하여 또 잘생긴 남아를 얻으니 기쁨을 말할 수 없다. 해가 뜨는 것이 인정 (寅正) 삼각(三刻)인데, 날이 처음 밝자 낳았으니 필시 인시 묘초(寅時卯初)일 것이 다. 경자년(庚子年)(土) 임신월(壬申月)(木) 갑진일(甲辰日)(火)이요, 시(時)는 병인 (丙寅)이다. 내 네 며느리가 모두 태기가 있었는데, 윤함의 처가 지난해에 먼저 남 아를 낳았고. 금년 3월에는 윤겸의 처가 또 남아를 낳았으며. 금년 5월에는 윤함 이 또 남아를 낳았고, 다만 윤해의 처만이 아직 해산하지 않았는데 역시 이달 안에 낳을 것이다. 조광년으로 하여금 전에 끝내지 못한 언보의 밭을 갈게 하여 다 갈 고 씨를 뿌리니. 전후에 뿌린 것이 백세두 4두 3되. 적두 4두 7되로 도합 9되를 뿌 렸으니 곧 3일갈이가 넘는다. 그저께 난 아기벌을 서쪽 방 창 밖에 앉혔더니, 어제 바야흐로 도망하려 하는 것을 일찍 발각하여 즉시 그 구멍을 막았다가 오늘 아침 에 비로소 열어 보니 모두 나와서 서쪽 울타리 복숭아나무에 앉았다. 이것을 또 잡 아다가 전일 도망간 벌통에 앉혔다. 마침 벌통이 없어서 부득이 그대로 앉혔는데 벌의 수가 적어서 겨우 두 되 남짓하기 때문에 달아날 것을 계산하지 않고 앉혔으 니 통이 좋지 않아서 필시 오래지 않아 도로 도망갈 것이다. 언세가 어제 냇가에서 풀을 베다가 중질 자라를 얻어서 가져왔기에 저녁 삭사에 탕을 끓여 두 아이와 같 이 먹으니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3일.** 두 소를 윤해의 집에서 빌려다가 밭을 갈았다. 윤해가 종과 말을 관에 보내서 환상미 1석, 콩 5두를 받아 왔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4일. 새로 난 벌 2통이 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뚜껑을 열고 보니 어제 이미 도망갔으니, 내가 어제저녁에 동대에 갔을 때 필시 도망한 것이다. 한 벌통에서 네 통이 났는데 겨우 한 통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 세 통은 모두 도망갔으니 아깝지만 어찌하랴. 인아가 언신으로 하여금 김언보의 묵은 밭을 갈게 했는데, 오래 묵은 나머지에 소가 또한 피곤하여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갈지 못했다. 인아가 그물을 가

지고 물고기 90여 마리를 잡았는데 내일 차례에 탕과 구이를 만들련다. 계집종이 휴가 중이어서 내가 친히 배를 가르고 씻었다. 올해는 우리 집에 뽕 딸 사람이 없어서 누에를 치지 않고 다만 후임 어미가 두어 자리 치는데, 이제 이미 섶에 올랐다. 계집종 은개 및 덕노의 처는 많이 치는데 역시 거의 섶에 오르게 되었다. 덕노가 보은에서 돌아와서 그 이튿날 뽕 따는 일을 시작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도 그 수고로움을 알지 못한다. 만일 상전의 일이라면 반드시 꺼려하고 원망도 많을 것이다. 근일에 오래 서울집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어머님 안부가 어떠하신지 민망하고 걱정스럽기 끝이 없다. 오늘이 곧 새로 난 아이의 3일이다. 몸을 씻기고 비로소 새 옷을 입히고 이름을 창업(昌業)이라고 지었으니 이는 윤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계승해서 지은 것으로서, 그 선업을 창성하는 뜻이다. 우리 문중이 쇠박하여 선세로부터 동성으로 전하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 형제 중에 내가 네 아들을 두어 모두 각각 아들이 있어 그 수가 또한 8남에 이르렀고, 또 그들 내외가 모두 나이 젊으니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수가 많은 중에 어찌 한 자식이라도 쇠약한 문호를 창성시킬 자가 없겠느냐. 길이 축수한다. 아우 희철은 두 아들이 있으나 모두 어리다.

5일. 곧 단양절이다. 다만 저민 고기·천어로 탕과 구이를 만들어 차례를 지냈다. 산소에 잔을 올릴 것은 전에 제물을 보내고 아우로 하여금 지내게 했다. 다만 아우가 집이 몹시 곤궁하니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 깊이 근심스럽다. 처음에 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숙부들도역시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조종의 세계를 묘연히 들어 알 수가 없었고, 또한 물어볼 곳도 없어서 항상 한스럽게 여겼었다. 그런데 중년에 들으니 선세의 족도(族圖)가 동성인 오안국의 집에 있다 하므로 몸소 찾아갔더니 그것이 과연 있기는 하나 안국 씨는 노병 때문에 나와 보지 않고, 그 아들 빈이 나와 기다리기에 도본을내 보이기를 청했더니, 한 장지가 있는데 크기가 한 칸 벽만 하다. 맨 위에 시조 검교군기감의 성과 휘를 쓰고, 그 밑으로 획을 따라 파를 나누어 내외 자손의 세계·직함·휘가 갖추어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는 곧 동종 공조전서 휘 광정이친히 스스로 만들어 미처 정리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성균직학 휘 선경

이 그 원본에 의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루지 못한 그 아버지의 뜻을 끝냈다. 그 끝에 발문도 역시 있어서 나는 세 번 거듭 받들어 읽어 보니 길이 사모하는 지극함 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선세의 내려온 파를 알게 되어 간절히 빌려 다가 베끼려 했으나 안국 씨는 잃을까 걱정하여 즐겨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일찍 이 남에게 빌려 주었다가 여러 번 잃었다가 간신히 찾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득이 직파만 베끼고 그 나머지 내외 지손은 미처 기록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우와 함께 책 하나를 가지고 다시 가서 베끼려고 생각했더니 오래지 않아 안국 씨가 세상을 떠나고 인사가 일이 많아서 천연하고 행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임진의 변을 당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고 도성이 불타서 잿더미가 된 뒤에 남은 것이 없으니 이 그림이 필경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그때에 베끼지 못한 것을 평생의 큰 한 스러운 일로 여겼다. 그러다가 지난가을에 아우 희철이 토당 선영 밑에 와 있다가 다행히 안국 씨의 아우 헌국 씨의 아들로 수원에 사는 박을 만나서 그 족도의 유무 를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당초에 땅에 묻어서 온전하게 보존하여 꺼내서 집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므로 나는 그 말을 들으니 얻어볼 길이 있어서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했었다. 올봄 이른 때 둘째 아들 윤해가 마침 일이 있어서 광주 농촌에 갔는데 수원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가서 보고 베껴오라고 했더니 과연 사 람을 시켜 족도를 가져다가 일일이 원본대로 베껴 기록했다. 그러나 다만 오랫동 안 땅에 묻었기 때문에 자못 썩고 망가져서 알아보기 어려운 곳이 있어서 간신히 판별해서 썼다고 한다. 이에 다시 윤해로 하여금 널리 고조 진사 이하 자손의 지파 와 내외 세계를 구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 일일이 실어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 다. 또 널리 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내 네 아들로 하여금 각각 1책씩을 쓰게 하여 자손된 자들이 영구히 전해 보도록 했다. 또 현조 호군 이하 분묘가 있는 주 군과 도리의 원근, 석물의 유무, 산 이름, 마을 이름을 모두 그 밑에 기록하여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 묘소가 있는 곳을 알아 다행히 찾아볼 길이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복경 이상의 분묘는 끝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으니 애석함을 어찌 이기랴. 아아! 우리 오씨는 대가 멀어서 어느 대부터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직학의 발문에도 역 시 원세의 내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로 군기감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생각건

대 군기감은 나말여초의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13대조가 된다. 그 후에 내외 자손 이 대마다 큰 벌열을 이루고 대가세족과 연혼했고 혹 왕후비의 따님에게서 나오기 도 했다. 다만 동성이 널리 퍼지지 못하여 여기에 기록된 것이 많지 않고. 아조(我 朝)에 들어와서는 더욱 번창하지 못하여. 현조 호군 이후로 고조 증조 및 조고(祖 考)에 전해 와서는 대마다 문벌이 되었으나 자손이 드물고 혹 무후(無後)하기도 하 여 겨우 종성을 이을 뿐이었으며. 오직 음사로 혹 백리에 태수로 나갔으나 문무로 출신하여 대관이 되어 문업(門業)을 진기시킨 이가 없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증조 제검이 문아(文雅)로써 세상의 칭송을 받았고 계속하여 생원 진사에 장원으로 급 제하여 여러 번 조정에 나갔고 저술한 사부(詞賦)가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었으나 끝내 벼슬에 나가지 못하였으니 어찌 운명이 얕고 수가 기박했던가. 그 밖의 종족 들은 또한 들어서 알지 못했고 비록 혹 들은 바가 있어도 또한 어느 조상에게서 나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 조부 주부(오옥정)께서 다섯 아들을 낳으셨는데 세 분 은 모두 무후하고. 둘째 아드님 현감 휘 경순이 네 아들을 낳았으나 역시 많이 번 성하지 못하다. 우리 종사(宗祀)는 전해서 그 손자 극일에게 있는데 죄로 인해 떠 돌다가 해주 땅에 와 있었는데 지난 정유(丁酉) 알성무과로 출신했다. 우리 아버님 께서 역시 세 아들을 낳으시어 내가 맏이고. 다음 아우는 일찍 죽어 무후하고 끝의 아우 희철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나는 네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윤 겸은 일찍이 비변사의 천거로 평강현감으로 나갔다가 지난 정유년 봄에 늦게 문과 에 급제했으며, 그 아래 세 아들은 모두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아직 벼슬에 나가지 는 못했다. 그러나 각각 아들을 낳아 그 수가 이미 8명에 이르며, 또 나이가 어려 서 필시 이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쇠한 문호(門戶)를 창성하게 떨치는 것은 깊 이 내 자손에게 바라는 바이다. 그 나머지 지파는 모두 족보에 실려 있으므로 다 시 기록하지 않는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시중 연총의 자손이라고 썼는데. 이제 도 본을 보니 시중은 곧 대비원 녹사 휘 승(昇)의 자손이요. 지백주사 효순(孝純)의 아 들로서 무후하고 다만 한 딸 판서 함기가 있을 뿐이라 했다. 또 《여사열전(麗史列 傳》》을 보건대 또한 말하기를, 연총은 해주인으로서 무후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후했다는 말이 반드시 헛되지 않는데. 제검의 묘갈에 연총의 자손이라고 한 말 은 과연 어찌해서 나온 말인가. 묘갈문을 지은 사람은 곧 신기재(申企齋)(신광한)인데, 기재는 일대 문장의 종장으로서 오랫동안 문한(文翰)의 책임을 맡았었으니 필시 여사(麗史)를 자세히 보았을 터인데 그 자손이라고 쓴 것은 몹시 괴상한 일이요, 또 우리 제백부들도 역시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일록에 우연히 도본에 의해서 직파를 베껴 쓰고 계속해서 들은 바를 기록하여 상고에 이바지하는 바이다. 만력 경자(庚子)(1600년) 중하(仲夏) 단양일(端陽日)에 평강 서촌 머무는 집에서 쓴다.

**6일.** 박문재가 탁주 1양푼을 가지고 왔다. 매양 마음 쓰는 것이 이와 같으니 가위 후하다. 술 2잔을 대접했다.

**7일.** 덕노로 하여금 외와 가지 구덩이 두어 곳을 파고 인분을 넣게 했다. 비가 오기를 기다려 모종을 할 계획이다.

**8일.** 어제저녁 비로 인해서 박 모<del>종을</del> 17곳을 옮겨 심었다. 또 외 씨 심은 곳에 북을 주었다.

9일. 김담이 중질 자라를 잡아서 가져왔기에 저녁 식사 때 탕을 끓여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

10일. 덕노를 철원에 보내서 콩 3두를 가지고 가서 소금을 사 오게 했다. 내일이 곧 장날이기 때문이다. 또 황태 1두를 보내서 고등어를 사 오게 했다. 온 집안 종 및 품으로 산 사람 도합 7명으로 하여금 채억복의 밭을 매게 했다. 곧 첫 번째 매는 것이다. 매는 것을 끝냈다. 저녁때 채억복의 벌통에서 아기벌이 났는데 겨우 두 어 되 남짓하다. 잡아서 어미 벌 오른쪽에 앉혔다.

11일. 아침에 최 판관이 편지를 하고 제사 지내고 남은 떡과 과일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내고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수철장이 농기를 이제 비로소 만들어 보냈다. 그야말로 이른바 잔치 끝난 뒤에 장구치는 격이다. 밭 가는 것이 이제 끝 났으니 비록 농기를 얻었으나 쓸 곳이 없다. 필경 내년 볶을 기다려 써야겠다.

12일. 온 집안 계집종 및 품 산 사람 다섯 명이 비로소 관의 둔전을 매어 끝냈다. 덕노가 소금을 바꿔 가지고 돌아왔는데 콩 3두로 겨우 소금 3두를 바꿔왔고, 또 콩 1두로 고등어 3마리를 바꿔왔다. 전일 받은 환상미는 김랑의 종이 병으로 뒤에 떨어졌다가 낳은 후에 돌아갈 때 행량으로 2두 5되 가져갔고, 또 묵고 있을 때 먹었기 때문에 겨우 1두 5되 남은 것을 가지고 왔다.

13일. 온 집안의 계집종 및 품으로 얻은 사람 도합 3명이 박문재의 밭을 매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인아가 어제 제 형과 함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70여 마리를 얻었는데 즉시 소금에 절여서 어머님께 보내련다. 윤해가 잡은 고기는 내일 제사에 쓰련다. 내일은 곧 그 양부의 기일이다.

14일. 윤해의 집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음식을 소반에 갖추어 보냈으므로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아침 식사 후에 지난달 21일에 난 아기벌이 나와서 배나무 위에 앉았는데 겨우 1되 반 남짓하다. 괴상히 여겨 그 통을 보니 절반이나 남아 있다. 이는 필시 불안해서 나누어 둘이 된 것이다. 잡아서 그 왼쪽에 앉혔다. 그러나 필시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후임의 모가 계집종들을 데리고 내일 쓸 제물을 준비했다.

**15일.** 날이 밝을 때 두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 극일은 기억하고 잔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품으로 산 전풍으로 하여금 율동 밭을 갈고 녹두를 뿌리는 데 두 계집종이 심었다. 녹두 7되가 들었다.

16일 · 17일. 어제저녁부터 비가 뿌리더니 오늘은 저녁내 혹 비가 오다가 그쳤다 한다. 그 비오는 것을 보니 필시 장마인가 보다. 내일 덕노를 서울에 보내어 25일 어머님 생신에 대 가게 하려는데 비가 이렇게 내려서 보낼 수가 없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외와 가지 모를 모종했다.

**18일.** 비가 오후에 비로소 개었다. 김언보, 박언방 등이 지난 3월에 남쪽으로 울산 진에 내려갔다가 만 한 달 만에 대신 돌아와서 오늘 와 보기에 술을 주고 위로했다.

19일. 아침에 비가 내리더니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으나 그래도 혹 비가 뿌리고 혹 그늘져서 검은 구름이 북쪽으로 달려가니 필시 아주 개인 것이 아니다. 두 계집종으로 하여금 전일 끝내지 못한 발을 매게 했다. 내일은 곧 죽전 숙모의 기일이다. 후임 어미가 계집종들을 데리고 제찬을 준비했다. 다만 두부를 만들게 했더니 간수가 좋지 않아 끝내 삭아서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형세가 미처 다시 만들 수도 없

고 음식이 갖추어지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동쪽 울타리 밑에 앉힌 벌이 또아기벌을 낳아서 배나무 위에 앉았으므로 잡아다가 어미벌 오른쪽에 앉혔는데 겨우 4,5되가량 되니,이는 곧 두 번째 난 벌이다. 먼저 난 벌은 오래 출입하는 것이보이지 않아 괴이히 여겨 열어보니 이미 달아났으니 아깝다. 셋째 벌이 난 것이 아홉 통인데 달아난 것이 네 통이요,한 통은 나뉘어 둘이 되었으니 있어도 없는 것이나 같다. 또 그 나머지 네 통은 지금은 비록 아직 있으나 그 달아나지 않을 것을 어찌 보장하랴. 내가 창 앞에 앉았노라니 앉은 벌이 몹시 성해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 도로 들어가는데,통이 작아서 용납할 수 없어서 통 문에 엉켜 있는 놈이 많은데 아직도 아기벌이 날지 않으니 괴이하다.

**20일.** 날이 밝자 인아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 어제저녁부터 새벽까지 비가 내리더니 종일 혹 개기도 하고 혹 비가 내린다.

21일. 밤새 비가 조금도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이와 같아서 앞내가 넘쳐흘러 두 언덕이 모두 묻혀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한다. 우리 집 기장과 조 및 깨밭을 미처 매기도 전에 이 장맛비를 만났으니 만일 오래도록 개지 않으면 매줄 수가 없어 장차 버리는 물건이 될 터이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가을보리는 이미 익어서 근일에 베어 거두어야 할 터인데 비가 이같이 내리고 있으니 좋지 못한 보리나마 또한 장차 썩고 꺾어지게 되었다. 우리 집은 오로지 이 보리만 믿고 있는데, 만일 속히 개지 않는다면 몹시 걱정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밭은내 건너에 있어서 비가 비록 갠다 해도 내를 건널 수가 없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밤 꿈에 임매와 경흠이 완연히 평일과 같더니, 깨고 나서도 모습이 뚜렷하니 슬픈 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지난 15일에 병아리 11마리를 내렸다.

22일. 비는 어제와 같다가 오후에 잠시 개었다. 그러나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모여 조금도 갤 기미가 없으니 걱정스럽다. 어둘 무렵에 광노의 아들 및 그 종이 말 2필을 가지고 서울에서 왔는데, 이곳에 작년 가을에 사둔 콩과 팥 및 말장이 있는 것을 실어 가기 위해서다. 자방ㆍ방량 두 집 편지 및 윤함의 편지가 모두 왔는데, 일찍이 오는 사람 편에 광노의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와서 전하는 것이다. 펴보니 세 집이 모두 잘 있다고 하니 몹시 위로가 되고 기쁘다. 다만 어머님의

편지는 가져오지 않았으니 안부를 알 수 없어 몹시 밉살스럽다. 다만 광노의 편지를 보니 회현방댁 아기가 고기를 먹은 것이 독이 나서 죽었다고 했으나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니 놀랍기가 그지없다. 필시 신아나 귀아 중 하나일 것이다. 비단 그부모가 슬퍼할 뿐만 아니라, 생각건대 어머님께서 필연 많이 상심하실 것이니, 이때문에 더욱 몹시 비통하다. 지난 19일에 서울을 떠났으나 중로에 물에 막혀 간신히 산으로 올라가서 왔다고 한다. 다만 결성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24일. 광노의 집사람들이 오늘 떠나기에 어머님께 편지를 보내고 약과 1행담도 역시 보냈다. 이는 곧 지난달 기제 때 쓰고 남은 것을 놓아 두었으나 오랫동안 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야 비로소 보내는 것이다. 결성(오윤겸) · 보은(김덕민) · 연안 [신응구] · 해주(오윤성) 네 자녀들에게도 역시 편지를 써서 보내서, 광노로 하여금 편이 있는 대로 전하게 했다. 광노의 처에게는 녹두 5되를 보냈다.

25일. 오늘은 곧 어머님 생신이다. 처음에는 오늘에 대어 가서 근친하려 했으나 비단 말 한 필에 종 하나 뿐이어서 떠나가지 못할 형편일 뿐만 아니라 왕래의 행량을 마련하기가 몹시 어렵고, 또 이렇게 장맛비가 열흘이나 계속되어 산골짜기의 물이 넘치고 막혀서 건너가기가 역시 어려워 부득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종도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종일 한탄한들 무엇하랴. 오늘 온 집안사람 및 품 산 사람으로 하여금 보리를 거두려 했으나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그치지 않아서 개기를 기다려 늦은 후에 다만 집안 노비 4명을 시켜 베어 가지고 실어 왔는데 오랜 비에 반은 썩고 꺾어졌으니 만일 수일 동안만 더디다면 수습하지 못한다고 하니 아깝다.

26일. 또 온 집안 노비들로 하여금 보리를 베어서 실어 오게 하고 인아가 가 보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모두 적셔 가지고 왔다. 어제 벤 것은 모두 6바리를 실어 왔으나 마당이 젖어서 두드릴 수가 없다.

**27일.** 세 노비로 하여금 기장 밭을 맸으나 끝내지 못했다. 지난밤에 새벽까지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비로소 개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잠시 오다가 그쳤다. 이 때문에 뚜드려 거두지 못했다.

28일. 밤새 비가 내려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도 이러하여 앞내가 전일보다 갑절이

나 불었다. 내일은 죽전동 숙부의 기일이어서 후임 어미가 계집종들을 데리고 반 찬을 마련했다.

29일. 날이 밝을 때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비는 아직도 개지 않아 두 밭은 아직도 초벌도 매 주지 못해서 장차 묵게 되었으니 탄식스럽다. 아침 늦게 윤해의 처가 무사히 해산하여 또 남자를 얻었으니 몹시 기쁘다. 일출이 인정 3각(寅正三刻)인데 진초(辰初)에 출산했다. 그러나 날이 흐려서 해를 볼 수 없으니 혹 묘말(卯末)인 것 같으나 자세치 않다. 경자년(庚子年)계미월(癸未月)신미일(辛未日)임진시(壬辰時)인데, 27일은 6월의 절기이기 때문에 6월을 보는 것이다. 제 아비가 이름을 근립(勤立)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곧 전에 희롱으로 부르던 것을 그대로 이름으로 지은 것이다. 오후에 날이 개기에 지팡이를 짚고 동대에 올라가서 물을 구경하다가 돌아왔다.

#### 6월

1일. 아침 식사 전에 신수함의 벌통에서 비로소 아기벌이 나서 서쪽 울타리 밖 배나무 밑에 앉았기로 잡아서 앉혔는데 벌이 많아서 6, 7되가 넘는다. 오래 비가 내리던 나머지에 오늘 비로소 개었기 때문에 난 것이다. 온 집안 두 계집종 및 품 산사람 세 사람으로 하여금 사동의 기장밭을 오늘 비로소 매게 했더니 풀은 무성하고 기장 싹은 드문데 또 이삭이 핀 것도 있으니 이른 기장이기 때문이다. 간신히 맸다. 오후에 수함의 벌통에서 또 아기벌이 나서 서쪽 울타리 밖 참나무 위에 앉았는데, 인아는 나가고 집에 종이 없어서 바야흐로 민망히 여기는데 마침 수이가 집에 있다가 잡아서 앉혔다. 벌이 거의 6, 7되나 된다. 다만 있는 빈 통이 작고 비에 젖어서 모두 적당하지 못하고 큰 통은 구멍이 많아서 쓸 수 없어 버린 지 오래이던 것을 부득이 갖다 썼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달아날 것이 걱정스럽다. 박언방이 새외 3개를 가져왔다. 비록 늦은 절기이나 처음 보는 물건이라 즉시 천신했다. 우리 집에서 심은 외는 아직 열지 않았다.

2일. 뚜드린 보리는 모두 3석 5두요, 또 1바리는 아직 실어 오지 않고 밭 가운데에 쌓아 두었다. 지난가을에 뿌린 씨가 27두인데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출이 겨우

- 이것뿐이다. 오래 비가 온 나머지여서 썩고 불어져서 거두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했더니 중간에 개인 틈을 타서 이나마 겨우 거두어 두드렸으니 다행한 일이다.
- 3일. 혹 비가 내리다가 혹 개었다. 그러나 종일 흐려서 이 때문에 밭을 매지 못했다. 다만 개비가 다리 위에 종기가 나서 행보를 하지 못하니, 겨우 이 계집종이 밭을 맬 것을 믿었는데 쉽게 났지 않겠으니 걱정이다.
- 4일. 새벽부터 비가 내려 종일 그치지 않는다. 윤해의 종 춘이가 삼척에서 수공해가지고 어제저녁에 돌아왔는데 삼척의 전 태수 김공권이 익힌 전복 5백 개, 말린홍합 1두, 송어 6마리, 전복 1첩을 보냈다. 송어는 썩어서 벌레가 나서 버렸다 한다. 이것은 윤겸의 편지에 의한 것인데, 이 의외의 물건을 얻었으니 제사에 쓰련다. 몹시 기쁘다.
- 5일. 어제 비로 인해서 앞내가 넘쳐서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김을 매지 못한다. 전일에 난 벌 한 통에 벌이 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뚜껑을 열고 보니 이미 달아났다. 벌이 난 것이 11통에 이르는데, 그중에 달아난 것이 6통이요, 다만 5통만이 남았으나 아직 남은 것도 역시 오래갈는지 알 수 없으니 아깝다.
- 6일 · 7일. 밤새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고 때로 크게 내린다. 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20여 일 동안 하루도 갠 날이 없으니 올 전곡은 필시 여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전의 논은 반드시 가망이 없을 것이다. 전일 보리밭에 쌓아둔 보리는 비로 인해서 실어 오지 못했는데, 이제 들으니 산돼지가 모두 터트려 없애고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싹이 나고 썩어서 쓸 수 없다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늦은 후에 큰비가 들어붓듯이 내리더니 앞내가 몹시 넘어서 양쪽 언덕이 모두묻히고 냇가의 전곡이 모두 물속으로 들어가, 우리 집에서 심은 차조 및 참깨밭도역시 물에 잠겼으니 아깝다. 내가 동대에 가서 물 구경을 했더니 가위 가관이다.이곳 고로들이 모두 말하기를, 근고에 없던 일이라고 한다. 집사람도 역시 교자를타고 동쪽 집에 가서 구경하고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비는 조금도 갤 기미가 없고, 남풍은 계속 불고 검은 구름은 북으로 달려가니 이달 안에는 필시 해를 볼 수없을 것이다. 오래 나무를 베지 못해서 조석 밥 짓는 것도 역시 몹시 어려우니 걱정스럽다.

- 8일. 밤새 하루 종일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윤해의 집은 요새 비로 인해서 비록 포목은 있어도 곡식을 바꾸지 못해서 곤궁함이 날로 박두하여 날마다 우리 집에서 갖다 먹는데 우리 집에서 수확한 보리도 역시 장차 떨어지겠으니, 두 집이 장차 오라지 않아 모두 굶겠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 9일. 비가 오늘은 개었으나 금시에 그늘지다가 금시에 볕이 나고 때로 소나기가 크게 내리다가 금시에 그친다. 오늘은 곧 초복이다.
- **10일.** 종일 개었다. 일기가 몹시 덥다. 바람과 구름의 징후를 보건대 아주 갠 징조는 아니다.
- 11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늦은 후에는 붓듯이 종일 크게 내려 잠시도 쉬지 않는다. 앞내도 역시 넘쳤으나 전일과 같이 심하지는 않다. 전일에는 폭우로 내렸고 이번에는 천천히 왔기 때문이다. 우리 집 밭은 모두 건너편에 있는데 비가 이같이 내려 장차 다 매 주지 못하겠으니 걱정스럽다. 보리밭도 역시 건너편에 있어서 역시 장차 버리게 되었으니 아깝다.
- 12일. 개었다. 구름이 북에서 나와 남으로 향하니 근일에는 반드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16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5일 만에 그친 셈이다. 그간의 모든 농사는 모두 비로 인해서 제때에 풀을 매 주지 못했다. 덕노도 또한 돌려보내지 못해서 어머님의 안부도 수개월 동안 듣지 못했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 13일. 일찍 식사를 하고 온 집안 노비로 하여금 양식을 싸 가지고 건너편 밭의 풀을 매게 했다. 그러나 물이 깊어서 건너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 14일. 품 산 사람 및 온 집안 노비 등 9명으로 하여금 말지촌의 조밭을 매게 했다. 또 덕노로 하여금 보리를 실어 오게 했더니 모두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으니 아깝다. 또 밀을 베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오늘은 앞내가 겨우 건널 만하나 그래도 여자는 건너지 못한다.
- 15일. 오늘은 곧 속절이다. 수단을 만들어 신주께 차례를 지냈다. 찹쌀이 없어서 겨우 3되를 얻어서 썼는데, 윤해의 집 식구도 다 여기서 함께 먹었다. 전일에 밭에 쌓아 두었던 보리를 오늘 실어다가 뚜드렸더니 5두가 났는데, 절반이나 썩어서 먹

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았으면 10여 두는 났을 것이다.

**16일.** 품 산 사람 및 온 집안 노비 도합 8명을 시켜서 존광 들 조밭을 매게 했다. 두벌 매는 것이다.

17일 · 18일. 채억복의 조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호미를 쥔 자는 6인이다. 날씨가 몹시 더워서 땀이 흐르는 것이 그치지 않으므로 물에 가서 목욕을 했더니 몹시 상쾌하다. 밀을 뚜드렸더니 2석 2두가 났다.

19일. 중복이다. 덕노가 짚신을 싣고 서울에 갔다. 정목 5필 가지고 부석사에 가서 짚신 4백 85개를 사서 싣고 갔다. 어머님께 차좁쌀 1두 5되·목미 1두·적두 2두·전복 3곶·익힌 전복 백 개·소금에 절인 천어 60개를 보내드렸다. 양미는 덕노로 하여금 포목 2필을 쌀로 바꾸어 갖다드리게 했다. 아우의 집에도 역시 팥 1두를 보냈다. 보은 김 서방의 집에도. 역시 편지를 써서 윤 동지댁에 보내서 전해 주도록 했다.

20일. 온 집안 비자 및 품 산 사람 도합 6명으로 하여금 박문재의 밭을 매게 하고, 끝낸 후에 콩밭으로 옮겨서 조금 맸다. 윤해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1사발 넘게 잡아 와서 탕을 끓여 함께 먹었다. 오래 먹어 보지 못해서 그 맛이 몹시 아름 답다.

21일. 요새 일기가 몹시 더워서 밤에는 자지 못한다. 하루 종일 또는 밤에도 발가 숭이로 있어서 더위를 먹어 머리가 좀 아프더니 지금까지 차도가 없으니 걱정이다. 외가 이제 비로소 맺어서 먼저 30여 개를 땄다.

22일. 덕노는 오늘 거리를 따져 보니 서울에 들어갔겠다. 저녁에 함열 종 덕룡이 연안에서 와서 딸의 편지 및 자방의 편지를 보니 온 집안 상하가 모두 잘 있다고 했으니 몹시 기쁘다. 평량립 10개, 조기 3묶음을 보내왔는데, 평량립은 팔아서 쓰라는 것이다. 덕노는 본래 이 고을 북면에 살고 있다가 지난 4월에 사환으로 부리겠다고 잡아 가더니 이제 휴가를 얻어 가지고 왔다. 근일에 내가 기운이 편치 못하고 오른쪽 이가 조금 아프더니 이 때문에 오른쪽 볼 귀 밑 및 머리 위까지 쑤시고아프니 걱정스럽다.

23일, 목맥 밭을 갈았다. 이는 반일 남짓 갈이이다. 세 계집종이 씨를 심었는데 3

두 7되가 들었다.

24일 · 25일. 말지촌 콩밭을 매어 끝냈다. 윤해가 어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1백 20여 마리를 얻었으므로 식혜를 담아서 3일 제사에 쓰련다. 기운이 오늘은 소복되었다.

26일. 들으니 태수가 욕을 당했다 한다. 필시 세력을 믿고 교만히 굴고 마음대로 하고 꺼림이 없어서 농사철을 돌아보지 않고 크게 토목 공사를 일으켜 자기가 쓸 아실을 크게 짓는데 심지어 대량을 2개나 넣고 앞뒤 행랑을 일시에 다 지어서 백 성들이 그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들으니 그 아들이 근친왔을 때 방백이 달 려와서 보는데도 역시 멸대하는 말이 있었다 한다. 방백은 곧 이정형이다. 또 들으니 태수가 봉변한 뒤에 불안한 마음이 많아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고자 했으나 지금은 관의 곡식을 다 없앴기 때문에 환상곡을 받은 후에 가려고 한다 하지만 어찌 반드시 그렇게 되겠는가. 다만 그 아들 덕형이 바야흐로 대신의 반열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욕을 당했으니 반드시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27일. 덕노 등이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님 편지 및 아우와 누이의 편지를 보니 모두 평안하다고 하니 몹시 위로가 되고 기쁘다. 다만 아우의 편지를 보니 그 아들 귀아가 지난 5월 8일에 고기의 독이 나서 죽었다 하니 비통함을 이길 수 없다. 죽은 딸의 무덤 왼쪽에 묻었다고 한다. 어머님께는 필목 2필로 백미 4두 1되, 전미 3두 5되를 바꿔서 갖다 드렸다 한다. 다만 싣고 간 짚신으로 필묵 10필을 바꿨는데 2필은 어머님 양식을 바꾸고, 그 나머지 8필은 가져왔다. 그러나 그중 3필이 가장좋지 않다. 전일에 바꾼 포목 2필도 역시 가지고 왔다, 은자는 6돈 중에 3돈으로는 명지 3장을 사 왔고 그 나머지 3돈은 광노의 집에 있다고 한다. 어머님께서 쌀1두, 조기 1마리를 보내서 밥을 지어 먹게 했다. 이곳에 쌀이 없는 것을 알고 또 반찬이 없기 때문이다. 광노도 역시 조기 3마리를 보냈다. 보은 딸의 편지도 역시 와서 김랑의 편지 및 딸의 편지를 보니 잘 있다고 한다. 윤겸도 역시 누이를 보려고지난달 보름에 거기에 도착하여 비에 막혀서 10여 일을 유숙하다가 금명간 돌아오려 하는데 다만 장맛비가 그치지 않으니 기필할 수가 없다. 윤겸의 편지도 역시 와서 의외에 보고 또 김랑의 집일을 들으니 편안하고 화락하게 정리되었다 하니 몹

시 위로가 되고 기쁘다. 결성으로 돌아가서 마땅히 세만을 보내어 문안하겠다고 했다.

28일. 한 집안 노비와 품 산 사람 7명으로 하여금 팥밭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사흘갈이이다. 언명이 소장(疏章) 2장을 얻어 보냈기에 보니 유학 정승민 및이해의 소인데, 그들은 홍여순의 당으로서 이산해 부자와 조신(朝臣) 10여 인이 몹시 간사하고 나라를 그르친 일을 혈뜯었다. 이해는 잡혀 갇혀서 형벌을 받고 여러번 취조를 받은 끝에 멀리 귀양 갔는데, 홍의 당 윤홍이 지어 주어서 소를 올리게했기 때문에 홍도 역시 귀양 갔다고 한다. 홍여순의 무리와 이산해 부자의 무리는혹 파면당하고 혹 문밖으로 삭출되었고, 지금 집정한 자는 모두 서인들이라 한다. 조정이 조용하지 않고 풍광이 또 일어난다. 위태한 나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옛 사람의 경계인데, 이때를 당하여는 시골로 돌아가는 것이 진실로 원하는 바이다. 마침 윤겸에게 서명이 내리지 않는 것이 다행한 일이다. 정(鄭)과 이(李)는 모두 기전의 시골 사람인데, 조정의 시비곡절과 인물의 승출, 왕래하는 말들을 어떻게 자세히 안단 말인가. 이는 필시 중간에서 대신 지어 주어 올리게 한 것이다. 또글을 잘 지었으니 유학의 무식한 자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들으니 이해의소는 윤소가 대신 지었고, 정승민의소는 홍여순이 대신 지었다고 한다.

29일. 말복이다. 어제 끝내지 못한 밭을 그믐날 온 집 노비로 하여금 이른 기장을 베게 했다. 미처 실어 오기 전에 산돼지가 밟고 헤쳐서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근일에 곤궁해서 오로지 이 기장만 믿고 있었는데 이와 같고, 달리바랄 물건이 없으니 몹시 민망하다.

## 7월

1일. 어제 벤 이른 기장을 실어다가 뚜드리니 겨우 8두가 났다. 곧 이틀갈이이다. 인력은 갑절이 들고 소출은 이것뿐이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저녁에 김언신이 서울 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지난달 27일에 중전(数仁王后 朴氏)이 승하했다고 한다. 전에 병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에 이르렀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놀랍고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 2일. 내일은 곧 조고의 기일이다. 후임의 어미로 하여금 종들을 데리고 음식을 장만하게 했다. 나는 기운이 불평하니 걱정이다.

3일. 새벽에 윤해가 제사를 지냈다. 나는 더위를 먹어서 이로 인해 이질이 생겨 밤새 머리가 아파서 참사하지 못했다. 인아도 또한 손에 종기가 나서 참사하지 못했다. 용산에 사는 윤 감사 승훈의 종 문계복이 배에 짐을 실어갈 일로 안협현 앞에 배를 대고, 또 이 마을에서 포목으로 팥을 바꾸러 왔기로 불러다가 술과 밥을 대접하고 우리 집 짐을 실어 가도록 말해 보냈다. 우리 집이 갈 때 실어 가지 못한 물건을 먼저 배에 실어 보내고자 한 것이다. 저녁에 윤겸의 종 세만이 결성으로부터왔다. 문안하기 위해서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온 집안 상하가 모두 무사히 잘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되고 기쁘다. 지난달 5일에 보은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곳 농사는 아주 잘 되었는데 만일 결실만 하면 추사(秋事)는 바랄 수 있겠다고 한다. 다만 제 집에서 심은 것이 많지 않다고 하니 한스럽다. 그 첩은 아직 해산을 하지 못했다니 역시 걱정스럽다. 조기 2묶음, 양색 젓갈 조금을 보내왔다. 인아의 암소가 암송아지를 낳았다.

4일. 김업산이 와서 매의 먹이를 요구하므로 전귀실의 개를 빌려서 주었는데 쇠품으로 갚을 것이다. 세만이 현에 들어갔다. 전에 이 현에 있을 때 관비를 사귀어 자식까지 낳았으므로 들어가서 보려는 것이다. 돌아갈 때 답장을 받아 가지고 가겠다 한다. 남매의 종 덕룡이 서울에서 왔다. 지난 가을에 사둔 팥을 실어 가기 위해서다. 어머님 편지를 보니 평안하시다고 하니 깊이 기쁜 것을 어찌 다 말하랴. 다만 서울 사대부들은 모두 백립을 써서 백립 값이 몹시 비싸서 쉽게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 부자가 쓸 것은 생각해도 얻을 곳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아직 가백을 썼다가 서서히 구할 작정이다.

 요, 윤해의 집에서 팥 1두를 주었다. 우리 온 집안은 오는 9월 내에 올라가려 하기 때문에 일용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육로로 보내지 못할 물건을 먼저 보내는 것이다.

7일. 절일이다. 집에 준비한 물건이 없어서 다만 절병과 노루고기 탕으로 잔을 올릴 뿐이었다. 어제 김담이 노루고기 한 덩이를 얻어서 가져왔기로 쓴 것이다. 오늘 덕노로 하여금 말장 40두를 배로 실어 보냈더니 마침 배가 이미 떠나서 간신히 따라가 다시 되어서 배에 실었다. 뱃삯은 10두에 2두씩 주기로 했기 때문에 40두의 값으로 8두를 주었다. 또 마태 20두를 실어 갔다. 함께 배에 실으려 했으나 뱃사람이 무거운 짐을 싣는 것을 어려워해서 마침내 다 싣지 못하고 도로 실어 왔다. 이때 밤이 거의 삼경인데 뱃사람이 또 선가가 부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콩 3두를 더 주었다.

8일. 오늘은 곧 아버님 생신이다. 전병·절육·익힌 전복으로 만든 탕·식혜·가지 등 물건으로 잔을 올렸을 뿐이다. 박문재가 능금을 가져왔는데, 새 물건이기 때문에 천신했다. 어제부터 비로소 백립을 썼다. 쓰고 있는 사립을 백목면으로 싸서썼다가 값이 적어지기를 기다려 서울 가서 새로 만들어 쓸 계획이다. 들으니 서울의 백립 값이 은자 5돈이라고 한다.

9일. 삼을 묻었다. 우리 집 두 밭이 겨우 7묶음이요, 윤해의 집 삼은 3묶음이어서 도합 10묶음을 묻었다. 저녁에 이 면의 위관과 서원이 재앙으로 상한 곳을 조사하러 여기에 왔다가 김억수의 집에서 자게 되어, 그길로 와서 보고 또 탁주 1동이 · 소주 1병 · 닭 2마리를 가져왔다.

10일. 위관과 서원 등을 불러 소주 두어 잔을 대접하고, 또 당선(唐扇) 1자루, 황모 필 1자루, 참먹 1장을 주고 내 집에서 간 결복을 감해 주기를 청했다. 위관은 김신원이요, 서원은 최 판관의 종 어질금이이다. 저녁에 세만이 현에서 돌아와서 편지를 받아 가지고 현으로 돌아갔다가 그길로 영동으로 가서 미역을 사 가지고 바로 결성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까닭에 뒤에 편지를 써서 이 직장의 집으로 보내서 가져가도록 일러 보냈다. 아침에 묻었던 삼을 꺼냈더니 모두 익었으니 기쁘다. 껍질을 벗겼더니 겨우 4단인데, 추하고 나빠서 베를 짜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한다.

11일. 이웃에 사는 전업이 일이 있어 서울에 가기에 편지를 써서 어머님께 보내고, 또 패자를 만들어 광노에게 보내서 배에 실은 물건을 찾아서 그 집으로 실어 가게 했다. 세만이 현에 들어갔다.

12일 · 13일. 덕노가 휴가를 얻어 가지고 안변으로 들어가 감곽 등 물건을 사 온다고 하기에 나도 역시 포목 1필을 주어서 사 오도록 했다. 수이와 세만이 작반해서가기에 또 결성에 편지를 써 보내어 세만에게 전하게 했다. 세만이 이로부터 바로 결성으로 가기 때문이다. 덕노가 나간 후로 집에 사환이 없기 때문에 또 정목 4필을 주어 부석사에 들러서 짚신으로 바꾸어 후일에 가져오도록 서로 약속하고 가게했다.

14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 후에는 크게 내려 종일 그치지 않아 앞내가 몹시 넘쳐 사람이 건너지 못한다.

15일. 개임. 근일에 아들과 손자들이 기침을 해서 밤새 하루 종일 조금도 쉬지 않고, 심지어 강보에 있는 근립·창업까지 역시 이 증세를 앓아서 먹는 것을 모두 토해 버린 지가 이제 장차 한 달이 넘는데 아직도 낫지 않는다. 비단 내 집 뿐이 아니라, 이웃 마을 아이들까지 모두 앓고 있으니 이는 곧 시령이다. 그런데 용렬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무당을 불러 기도만 하니 한편 가소롭다.

16일. 윤해의 종 춘이가 율전의 인마를 거느리고 왔다. 전에 들으니 윤해의 장모의 병세가 몹시 중해서 생전에 모녀가 서로 만나고자 하기 때문에 온 집이 오는 15일에 떠나간다고 한다. 다만 올 때 경가(京家)에 들어가자고 왔다는데, 들어가서 어머님의 안부를 물어보지 않고 왔으니 몹시 밉살스럽다. 윤해의 행량을 준비하지 못해서 포목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쌀과 바꾸게 했으나 미처 가져오지 못했고 우리 집에도 요새 근일에 양식이 떨어져서 계속 죽이나 미음 및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날을 넘기기 때문에 한 되의 쌀도 도와 주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그편에 들으니 국상으로 인해서 기전 백성들의 부역이 몹시 괴로워서 백성들이 감내를 할 수 없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산릉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연안진모의 편지도 역시 광노의 집으로부터 전해 왔는데, 보니 온 집안이 모두 무사하다고 하니 기쁘다.

17일 · 18일. 비가 내렸다. 윤해의 온 집안이 내일 올라간다고 하여 행장을 차린다. 그러나 비가 종일 그치지 않으니 필경 떠나지 못할 것이다. 겨우 행량을 마련했는데, 만일 수일을 지체하면 가지고 갈 것을 다 쓰게 될 터이니 걱정스럽다.

**19일.** 비가 개지 않는다. 앞내가 넘쳐서 건너지 못하므로 윤해의 일행은 이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

**20일.** 비록 비는 개었으나 앞내가 아직도 넘쳐서 사람이 건너지 못하고 또 떠나가 기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윤해가 떠나는 것은 아직 정지했다.

21일. 밤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는 그쳤다. 윤해의 온 집이 늦은 후에 떠났다. 홀로 산골짜기에 머물러 있고 여러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니 심회가 더욱 나쁘다. 홀로 뒤 정자에 올라가서 가는 띠풀을 바라보다가 돌아왔다. 이런 중의 회포를 어떻게 다 말하랴. 충아는 볼기 위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말을 탈 수가 없어 함께가지 못하고 내월 초승에 내가 올라갈 때 데리고 갈 계획이다, 내 소도 역시 주어보냈다. 충아의 어미는 짐을 싣고 말을 타고 갔다. 아침에 김 별감 린이 찾아와서 윤해가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는 양미 및 생마 5묶음, 수박, 참외 등 물건을 가져왔고, 또 우리 집에 수박 1개를 주므로 새 물건이어서 즉시 천신했다. 인아는 윤해의 일행을 모시고 갔다가 말지령 위에서 돌아왔다.

22일. 윤해의 일행은 어제 철원 땅 백악촌에서 잤으며 데리고 간 김담·언방은 돌아왔는데, 윤해의 편지를 보니 일행이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 오늘은 연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자못 비가 올 기미가 있고, 때로 조금씩 뿌리며, 또 전업이 서울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연천 이상에는 큰비가 매일 내려서 냇물이 넘치고 길이 질어서 간신히 집에 돌아왔다고 하니 이것이 걱정이다. 전업은 말하기를, 전에 받은 패자를 즉시 광노에게 전하고 일시에 배에 물건을 실어 갔다고 한다. 다만 광노의 편지를 보지 못했으니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또 어머님의 편지도받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편안하신지 소식을 알 수가 없어 몹시 걱정되고 민망스럽다. 전업은 말하기를, 광노가 편지를 받아다가 두지 않았는데 올 때 동반해서 같이 떠나고 뒤떨어질 수가 없어서 바빠서 받아 오지 못했다 한다.

23일. 어제저녁부터 비가 내려 새벽까지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는 크게 내려 조금

도 개일 기미가 없다. 윤해의 일행은 반드시 중로에 체류할 것이다. 가지고 간 행량은 겨우 서울에 갈 만한 것인데 비가 이같이 내리니 여러 날 비에 막힌다면 상하식구는 많은데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굶주리는 근심을 당할 것이라, 몹시 걱정되고 민망하다.

24일, 오늘은 비록 개었으나 윤해의 일행은 물에 막혀서 반드시 떠나가지 못할 것 이니 어디에서 체류하는지 모르겠다. 가지고 간 양식이 반드시 다 되었을 것이니 어떻게 지내는지 몹시 걱정스럽다. 만일 연천현에 도착했으면 반드시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있을 것이다. 연천태수 신종원은 곧 한 동리에서 서로 알던 사이이니 반 드시 괄세하지 않을 것이다. 늦은 후에 동대에 가서 물 구경을 했더니 전비의 물보 다 한 자 남짓 미치지 못할 뿐이다. 우리 집에도 역시 근일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 었는데 마침 박번의 밭 조가 먼저 익은 곳이 있어서 날마다 꺾어다가 발로 밟아 열 매를 거두었더니 겨우 7. 8두가 된다. 이에 이것으로 조석으로 혹 죽도 쑤고 혹 밥 도 해서 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장차 다되어 가고 이후에는 달리 얻을 계책이 없으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랴. 소금도 역시 떨어져서 있는 집에 가서 빌 려다가 쓰는 판이니, 이 때문에 비록 채소가 있어도 역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 이런 중의 간고함을 말할 수가 없다. 지난 보름 때 충아의 어미가 소주, 찐 닭, 절육 등을 마련해 가져왔으니 내일이 내 생일이기 때문이다. 그전에 온 집이 모두 떠나가기 때문에 우선 갖추어 가져왔다. 버선도 역시 갖추어 가져왔다. 다만 제 집이 몹시 곤궁해서 떠나갔으니 행량도 또한 얻기 어려웠는데 이 물건을 어데 서 갖추어 왔단 말인가. 어버이를 위하는 정성이 비록 간절하지만 내 마음에 어찌 미안하지 않겠는가. 가련하다. 그 소주를 지금까지 두었다가 혹 기분이 불편하고 창자가 비었을 때는 이것으로 요기를 한다. 충아의 볼기에 난 종기는 일찍이 째고 고름을 짰더니 이미 차도가 있다. 후아는 기침이 몹시 심하여 종일 밤새 기침을 그 치지 않아서 식욕이 전혀 없으니 불쌍하다.

25일. 곧 나의 생일이다. 겨우 당말 5되로 떡을 만들고 술과 과일로 차례를 지냈을 뿐이다. 집에 갖출 물건이 없으니 탄식스럽다. 아침에 박문재가 두부와 참외, 가지 등 물건을 가지고 왔기에 소주 2잔을 주어 보냈다. 내 생일이라고 들은 때문이다.

김언보도 역시 와서 보기에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언보의 어린 아들이 지난 정 유년 오늘 그 아버지를 따라 여기에 왔다가 앞내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안다. 문재는 곧 언보의 장인이다.

26일. 김억수가 전일에 현에 들어갔다가 물에 막혀서 오늘에야 비로소 돌아왔는데, 이은신의 답장을 가져다 전한다. 또 올 때 부석사에 들러서 잤는데, 전에 짚신 사려고 보낸 포목 4필을 그 절 중이 억수에게 주어 보냈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듣건대 짚신을 살 상인들이 많이 그 절에 모여 있다고 하니, 필시 싸게 팔려고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덕노가 온 뒤에라야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역시 서울에 갈 때 짚신을 지고 가서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의 양식 및 모든 비용에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이 계획을 잃었으니, 달리 할 수 있는 계책이 없으니 걱정이다.

27일. 윤해 온 집이 서울로 간 뒤에 심회가 더욱 몹시 무료해서 매일 걸어서 뒷봉우리에 올라가서 4방으로 바라보아 내 근심을 풀 뿐이다. 근일 곤궁하기가 심해서 아침에는 조밥을 먹고 저녁에는 콩죽에 목말을 섞어 간신히 날을 보낸다. 윤성과 충아는 자못 싫어하여 때로는 먹지 않으니 탄식한들 어찌하랴. 그러나 이 물건도 장차 떨어지겠으니 반드시 먼저 수확한 곳에서 꾸어 먹은 뒤에라야 굶는 것을 면할 것이다. 덕노도 역시 북쪽으로 갔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필시 물에 막힌 것이다. 저녁에 덕노가 왔는데 물에 막혀서 중로에 체류했었다 한다. 가지고 간 필목으로 다시마 10동을 받아 가지고 왔다 한다. 세만은 바로 올라갔다고 한다.

28일. 김귀실이 피 16두를 가져왔다. 이는 곧 지난봄에 밭을 간 소 값이다. 지난봄에 밭을 갈 때 우리 집 소 2마리가 계속 3일 동안 갈았는데, 그때 약속하기를, 가을에 가서 팥은 15두, 쌀은 10두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우리 집이 몹시 군색하다고들었기 때문에 우선 가져온 것이다. 1두를 찧으면 쌀 4되에 해당하므로 이것으로 서울에 갈 때 행량으로 쓰련다.

29일. 윤해의 일행은 비록 중로에 수 3일 동안 비에 막혔어도 생각건대 오늘은 이미 진위 집에 도착할 것이다. 현리 전인기가 와서 보기에 그 온 일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관의 명령을 받고 옻나무를 베러 왔다고 한다. 이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마침 이웃사람이 술 1병을 가져왔다.

#### 8월

- 1일. 업산이 와서 매 먹이를 요구하므로 은개가 먹이는 개를 잡아 주었다. 전일에 준 것까지 도합 개가 6마리이다. 충아는 볼기의 종기가 또 나서 종일 밤새 쑤시고 아프더니 이제 비로소 흰 고름을 빼내서 나아 간다. 전일에 아주 낫지 않아서 걱정했더니 이 때문에 다시 난 것이다. 후아의 기침은 이제 더욱 심하여 심지어 대소변도 참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여 파리하기가 날로 심해 가고 얼굴이 들떴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제 어미가 무당을 불러다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한편 가소롭다. 창아도 역시 이 증세를 앓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김 주부 명세가 소주 1병, 수박, 참외 각 1개씩을 가지고 왔다. 김애일도 역시 왔기에 즉시 같이 먹으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그들에게 들으니 최 판관의 계집종이 범에게 물려 간신히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전일 말지령 밑에 사는 사람의 집에 범이 개를 쫓아 집으로들어가서 내외가 상처를 입어 거의 죽을 뻔했고, 소근전에 사는 김 별감 린의 집에도 역시들어가서 송아지를 물어 갔으며 개를 문일은 집집마다 있다. 그러나 유독이 마을만 없었는데 그러나 장래에 어찌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으랴. 두려운일이다.
- 2일. 들으니 최 판관의 부인이 몸이 불편한 지 이미 오래라고 하기에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 물었더니 답장을 보내 사례했다.
- 3일. 새벽부터 비가 내려 종일 그치지 않는다. 서울에 갈 날이 이미 가까워 오는데 모든 것을 아직 한 가지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니 민망스럽다. 어제 덕노가 필목을 가지고 안협 백정의 집에 가서 유기를 샀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짚신과 유기 등을 사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팔아서 본전을 떼어두고 이익을 남겨서쓸 계획을 했는데 모두 팔리지 않았으니 걱정스럽다.
- 4일 · 5일. 비가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개었다. 요새 나는 담천식을 앓아 기침이 그치지 않아 이로 인해서 기운이 불편하고 음식도 역시 감해지니 걱정스럽다. 후아의 증세는 조금 나은 것 같으나 밤낮으로 기침을 하고 때로 구토도 하니 말할

수가 없다.

6일. 마을 사람들이 술과 안주를 모아 가지고 냇가에 모여서 무당을 불러다가 북을 치면서 신에게 빌려 범의 걱정을 없애 달라고 한다. 노래하고 춤추면서 놀고 종일 놀이를 하여, 우리 집 계집종들도 역시 가서 참여했다. 술 1동이와 떡 1행담을 가져왔기에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이는 곧 해마다 초가을이면 한 번씩 의례히 하는 일인데, 혹은 말하기를, 갈고 매는 일이 이미 끝났으므로 호미를 씻는 일이라고 한다.

7일. 철원태수가 편지를 보내서 묻고 또 쌀 2두를 보냈으니 그 후의에 몹시 감사한다. 근래에 양식이 떨어져 어렵게 지내어 쌀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겨우 3, 4되로 10일 제사와 추석 절일에 쓰려고 하고, 후아가 기침을 앓아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조금씩 내다가 죽을 쑤어 먹여 달리 얻어 쓸 방책이 없어서 바야흐로 걱정스럽더니, 마침 이런 계제에 이것을 보내 주니 더욱 몹시 감사하다. 안손 등이 지금쯤 올 터인데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최가(최형록)가 화를 당했는지 걱정스럽다.

8일. 지난밤 꿈에 윤함이 보이니, 생각건대 근친 오고자 해도 종과 말이 없어서 오지 못하기 때문인가. 이미 종과 말을 얻어서 떠나오는 것인가. 연전 이때 여기를 떠나서 간 지가 이미 1년이 되니 피차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간절해서 내 꿈에 보이는 것일 게다. 슬퍼하고 탄식하기를 마지않는다. 모레 서울에 가려고 하지만 제구를 아직 수습하지 못했으니 민망스럽다.

9일. 내일이 곧 고조의 기일이어서 후임의 어미가 계집종들을 데리고 반찬을 준비했다. 김언보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어제 소근전에 갔더니 김 주부 명세가 말하기를, 철원 사람에게 들으니 최 참봉이 그 아내와 함께 죽었다더라고 한다. 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최 참봉 부인은 일찍이 이미 병세가 위급해서 반드시 면치 못하리라 했지만, 참봉에 이르러서는 별로 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갑자기 흉보를 들으니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병이 있고 없는 것으로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참봉은 술 마시는 것이 과도해서 수일 안에 먼저 죽었고, 그 부인도 역시 따라서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러나 전해 들은 말을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마땅

히 춘기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겠다. 춘기가 올 때가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 필시 큰 연고가 있는 것이다.

10일. 밝을 녘에 인아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 달리 준비한 물건이 없어서 삼색 산과 · 삼색탕과 구이 · 면 · 떡 · 반상 · 제구만으로 정성을 드렸다. 종손 극일은 그 원조(遠祖)라서 필시 제삿날도 알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제사를 지내겠는가. 이 때문에 난리 이후로는 우리 집에서 홀로 담당해서 지내는데, 다만 빈궁함이 날로 심하니 필경 앞으로 계속하지 못할 것 같다. 춘기와 안손이 돌아와서 윤해의 편지 를 보니, 갈 때 철원에 이르러 2일 동안 비에 막혀 도중에 어려움을 당한 일은 말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 장인 내외의 죽었다는 말은 헛말이 아니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장인은 우연히 복통을 앓다가 그로 인해 혈변을 누더니 14일 만에 죽 었는데 그것이 7월 24일이라고 한다. 또 그 장모는 그전 증세가 더해서 역시 26일 에 세상을 버려서 수일 내에 계속해서 큰 변을 당했으니 그 자녀의 애통함은 말하 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다. 윤해의 처는 이미 양주 누원 앞에까지 갔다가 그 아 버지의 부음을 듣고, 또 진위 장호원 앞에 이르러 또 그 어머니 초상을 들어 모두 미처 보지 못했으니 그 참혹하고 애통함이 어떠했겠는가. 나도 또한 소식을 듣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최 참봉은 비단 연인의 친한 사이일 뿐만 아 니라 젊어서부터 서로 아는 터라 더욱 비통함이 지극하다. 오는 9월 9일에 장사지 낸다고 한다. 또 어머님 편지를 보니 평안하시고 남매와 아우도 역시 모두 잘 있다 고 하니 기쁘고 위로가 됨을 어찌 다 말하랴. 최 참봉 집의 산지는 처음에 선릉 화 소 밖으로 정한다고 하니, 그곳은 토당과 거리가 멀지 않은데 만일 그곳에 쓰면 우 리 선영도 역시 화소 안으로 들어가므로 몹시 걱정스럽고 민망하더니 이제는 포 천 땅에 정해서 이제 바야흐로 역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또 들으니 윤겸이 홍문록 에 뽑혀 들어갔고 김자정도 역시 참여했다고 하니 위로가 된다. 그러나 윤겸은 서 용되지 못했으니 올해는 복직되지 못할 것이다. 신자방이 이제 형조정랑에 임명되 어 연안에서 이제 서울로 갔다고 한다. 진모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진아의 등 위 에 난 종기는 이제 차도가 있다고 한다. 윤해의 집에서 햅쌀 1두 4되, 수박 2개를 보내고, 윤해의 양모도 역시 햅쌀 1두를 보냈다. 추석 제사에 쓰겠으니 기쁘다. 또 들으니 국상으로 인해서 백 가지 제사를 모두 폐하기 때문에 사대부의 집에서도 역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이 때문에 추석의 묘제도 모두 중지한다고 하므로 나 도 역시 여기에서 차례만 지내려 한다.

11일 · 12일. 식사 후 무료한 중에 말을 타고 간 밭을 돌아보니 기장과 피가 가장 좋지 못하고 콩과 팥은 조금 났다. 그길로 김업산의 집에 가서 매를 보니 깃과 털이다 길러졌으니 기쁘다. 돌아올 때 전귀실의 집 앞을 지나는데 귀실이 나와 맞아서그 마루로 들어가 잠시 앉아 이야기하다가 왔다. 올 때 냉천에 발을 닦았더니 이로인해서 밤새 기침을 하고 숨이 차니 걱정스럽다. 덕노가 필목 1필로 염초 40두름을 사 가지고 왔다.

13일. 아침에 큰비가 쏟듯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함께 이는데, 천둥 세 번 소리에 집이 흔들리니 원근에 반드시 벼락 친 곳이 있을 것이다. 다만 모레 서울에 올라가려 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니 물이 불어서 가지 못할까 몹시 두렵다. 충아는 궁둥이 위에 난 조그만 종기가 또 두세 곳이 났고, 먼저 종기도 아직 다 낫지 않았으므로 이번 길에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 걱정스럽다.

14일. 내일 제사 지낼 것을 후임 어미가 계집종들을 데리고 음식을 준비했다. 달리 준비할 물건이 없어서 겨우 닭을 잡아서 반찬을 만들고 나물이 있을 뿐이니, 한탄 한들 무엇하라.

15일. 새벽에 인아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 먼저 조고비께 지내고, 다음으로 아버님께 지내고, 다음으로 죽전 숙부께 지내고, 뒤에 죽은 딸에게 지내고 나니 날이이미 늦었다. 국상으로 인하여 백 가지 제사를 모두 폐해서 사대부의 집에서도 역시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묘소에서 표 나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신주 앞에 잠시 차례를 지냈을 뿐이다. 행장을 차려 가지고 늦은 후에 가사을 고개를 넘어서 삭녕 북면에 사는 김수적의 집에서 자는데 수적이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하고 또 술과 과일을 내오더니 따뜻한 방에 재워준다. 그 이웃에 사는 엄옥강이와서 보고 또 술과 과일을 대접한다. 오늘이 절일이기 때문이다. 옥강(玉江)이란이 면에 여러 해 동안 재상서원(災傷書員)으로 있었으니, 곧 심 생원 완(婉)의 비부로서 일찍이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후의를 베푸는 것이다. 아

침에 김억수가 지난봄에 난 암망아지를 사려고 간절히 말하므로 정목 6필 외에 명주 1필을 받고 팔았다.

16일. 날이 밝자 떠나서 산정 물가에 이르렀는데 물이 깊어서 건널 수가 없다. 상류의 파화정으로 돌아서 여울을 건너 험한 길을 꼬불꼬불 돌아서 위태한 고개를 여러 번 넘어 삭녕 승양촌에 사는 신수담의 집 앞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으니 해가 이미 한낮이다. 수담 형제가 와서 보고 술과 과일을 대접한다. 또 떠나서 경령을 넘어 고개 밑에 사는 백성의 집에 들어가 자려고 했더니 마침 그 집을 다 헐고 개조하느라고 기둥만 세우고 지붕을 해 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곳이 없어서 벽이 없는 방에 자리를 치고 잤다. 우마는 한데서 재우니 몹시 범이 두려워 밤새 자지 못했으니 가위 괴롭다. 이곳은 철원 땅인데 길은 험하고 소는 더디어서 하룻길을 이틀에도 오히려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적량촌은 10여 리밖에 되지 않는다.

17일. 밝기 전에 서북쪽 하늘에 구름이 개면서 천둥이 울려 장차 큰비가 내릴 징조가 있어 바야흐로 민망히 여기는데 잠깐 비가 내리다가 그친다. 만일 오래 내리면이 집은 비가 새서 머무를 수 없을 뻔했다. 해가 뜨자 떠나서 연천현 앞 냇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양주 땅 오음대리에 이르러 잤다.

18일. 일찍 떠나 대탄에 이르러 배로 건너는데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으므로 종들을 시켜 건져내 가지고 새는 곳을 막고 먼저 짐을 실어 건너고 다음으로 우마를 건네서 두 번 왕래하니 해가 이미 높았다. 들으니 이달 초승에 이곳을 건너다가 선주가 실족하여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배로 건너지 않고 배를 가라앉혔는데, 오늘 내가 비로소 배로 건넜고 전에 왕래한 사람은 모두 얕은 여울로 건넜다고 한다. 가정자 앞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밥을 먹는데, 마침 개질지가 평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나서, 그편에 들으니 그저께 풍금이가 결성에서 서울에 왔다가 즉시 내려갔는데 결성 온 집안은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이번 길에 덕노는 밥 해먹는 수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가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 먹을 터이니, 비록 해가 늦었어도 냇가에서 밥을 지어 먹지 못하고, 매일 아침은 오후에 이르러서야 밥을 지어 먹기 때문에 상하가 모두 주리고 피곤했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길가에서 조반을 지어 먹는 사람이 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만나 그

불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그다지 늦지 않았다. 저녁에 천천촌에 이르러 잤다.

19일. 일찍 떠나서 누원 앞 냇가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어제 가정자 앞에서 마침 고 방 판관의 서자를 만나서 우연히 말하던 중에 그 사는 곳을 물었더니 곧 결성 돌항촌이라고 한다. 또 들으니 방의 질녀는 곧 이충의 대수의 자부여서 그 집에 자주 왕래한다고 한다. 이에 윤겸에게 편지를 써 주면서 이자에게 전하여 그로 하여금 윤겸에게 전하도록 아침밥 먹는 곳에서 주었다. 방의 첩은 곧 연천태수 신종원의 서매인데 이제 가 보고 오는 길이라 한다. 방은 역시 관동에 살아서 서로 아는 사람인데, 그 서자는 나이 겨우 15, 6세로서 총각이다. 오늘 밤에 한방에서 같이 잤다. 저녁에 달려서 동대문으로 들어가 먼저 남매의 집으로 가서 어머님께 뵈니 비록 딴 병환은 없으시나 안색이 파리하여 전일과 전혀 다르시니 지극히 근심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아우도 또한 마침 와서 서로 만나니 십분이나 기쁘고 위로가 된다. 고성은 눈이 어둡고 귀가 먹어 역시 전일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누이의 집에서 내게 저녁밥을 주어서 밤이 깊은 뒤에 광노의 집에 와서 잤다. 해주 윤함의 편지, 결성 윤겸의 편지 및 보은 김녀의 편지가 모두 와서 펴 보니 모두 잘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된다. 다만 윤함의 편지를 보니 그 처가가 몹시 곤궁해서 종과 말이 없어서 와서 근친하지 못한다 했으니 슬프고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20일. 춘기 등이 떠나서 율전으로 갔다. 그편에 편지를 써서 생원에게 보냈다. 사람을 신자방에게 보냈더니 자방은 즉시 달려와서 보고, 아우 역시 와서 함께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자방은 그저께 정사에 형조로부터 한성서윤으로 이배되었다한다. 광노의 바깥방을 빌려 사는 호남 사람 나대용이 와서 보는데, 그는 곧 무인으로서 이번에 고성현령에 임명되었으며 본래 나주 땅에 산다고 한다. 어두운 뒤에 신자방에게 가서 보고 마침 들으니 주부 우경이 왔다고 하기에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뒤에 돌아왔다. 오늘은 저자를 보는 일로 해서 종일 틈이 없어서어머님께 가 뵙지 못하겠다. 언명은 오전에 먼저 돌아갔다. 마초를 미쳐 베어 오지못해서 우마가 모두 굶주리므로 겨우 1되 쌀로 풀을 바꾸어 먹였다.

21일. 날이 밝기 전에 어머님께 가 뵈었더니 언명도 역시 거기에서 자고 가지 않았다. 까닭에 조용히 어머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는데, 남매도 역시 와서 앉았고, 나

에게 아침밥을 준다. 저자 볼일로 식사 후에 광노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광노가 집에 없어서 모든 저자의 일을 신임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덕노는 용렬해서 동서를 알지 못하고 다만 광노의 아들 덕기만을 믿는데 아직 아이들이니 반드시 잘하지 못할 것이라,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또 어멈께 드릴 물건이 없어서 다만 황태 1두ㆍ차좁쌀 1두ㆍ꿀 2되를 드렸다. 다래 두어 말을 따왔으나 중로에 골아서 절반은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깝다. 인아의 늙은 황소를 팔았더니 은 7량 3전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말을 사고자 하지만 만일 이것으로 사지 못하겠으면 마땅히 필목을 사서 쌓아 두었다가 값이 헐할 때를 기다려 살 작정이다. 또 싣고 온 염초ㆍ목박ㆍ목반 등 물건은 모두 추박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자에 가서 돈으로 바꿨는데, 1개에 겨우은 2푼을 받았고, 염초는 썩고 검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40두름에 거친 필목 1필과 은 1전 5푼을 받았다. 이는 모두 덕노가 당초에 좋은 것을 골라서 사지 못했기 때문에 잘 팔지 못하게 되었고, 다만 그 본전을 잃지 않았을 뿐이니 탄식스럽다. 염초는 1필에 샀고, 목박 및 반목은 2필에 샀는데, 반은 적은 것 1죽이요, 박은 이가 있는 것 25개이다.

22일. 아침에 임 진사의 종 양이가 와서 보는데, 영암에서 지난봄에 올라왔고, 그 아비 수이는 지난달에 죽었다 하니 가련하다. 양이로 하여금 오늘 말을 사도록 일 렀다. 계집종 복지가 와서 보고 생낙지 1곳을 가져왔다. 늦은 후에 어머님께 가서 뵙고 중소 씨와 바둑 두어 판을 두다가 돌아왔다. 신자방이 와 보고 용산 종의 집으로 간다고 한다. 고성태수 나대용이 오늘 돌아간다고 와서 보았다. 언명이 역시 와서 같이 잤다. 윤겸의 첩의 종 풍금이가 발의 종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와서 보기에 답장을 써서 보냈다.

23일. 날이 밝기 전에 덕노를 용산으로 보내서 소금을 사다가 오늘 장 2독을 담갔는데 콩은 각각 18두씩을 넣고 소금은 각각 6두 3되를 넣었다. 계집종 복지와 잉읍개가 와서 도왔다. 처음 생각에는 장 담그고 남는 것을 언명 및 남매에게 주려했더니 말장을 뱃사람에게 도둑맞은 것이 4두가 넘어서 겨우 독을 채우고 한 되도남지 않아서 뜻대로 못했으니 탄식스럽다. 종 한세가 와서 보고 백미 1두, 조 1되를 가져왔기에 내달 보름 전으로 오도록 일렀다. 언명은 도로 토당으로 갔는데 나

도 역시 내일 새벽에 나가볼 계획이다.

24일. 날이 밝기 전에 토당으로 가서 아우의 처자들을 보고, 또 아우와 함께 밤나무 밑에 앉아서 종일 이야기했다. 또 선영 밑에 가서 헛절을 하고 그길로 우리 집 논에 모심은 곳에 가 보았더니 차츰 열매는 맺었으나 아직 익지 않았다. 도로 넘어 오는데 마침 허찬이 나오고 정귀원도 역시 와 보기에 또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 후에 돌아오다가 한강 가에 이르니 마침 중국 장수들이 선유를 하느라고 강을 거슬러 저도로 올라가서 봉은사로 들어가느라고 건너는 배들을 모두 거느리고 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배가 겨우 두어 척밖에 되지 않는다. 까닭에 간신히 강을 건너서 성문으로 달려 들어오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어머님께 가뵙고 광노의집에 도착하니 밤이 이미 깊었다. 그러나 남매의집을 처음에는 빌려서 들려고 했었는데 중소 씨가 나가서 거처한다는 핑계로 자못 난색을 보이니 민망스럽다. 그러나 누님은 정녕 허락하기를, "남편이 진실로 나가 거처할 이치가 없으니 그 말을듣지 말고 수리해 가지고 들어가 살라"고 한다. 춘기가 율전에서 돌아와 윤해의 편지를 보니 비록 잘 있기는 하나 율전집에 중국 군사가 여러 번 들어와 소란을 떨기 때문에 그 양모를 모시고 양지로 가려고 한다고 한다. 그 장인ㆍ장모의 장사는모든일이 미치지 못해서 물려서 지낸다고 한다.

25일. 이른 아침에 박 대간 홍로에게 가 보았더니 그 형 남양부사 홍수가 이달 초 승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슬픈 일이다.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늦은 후에 임 참봉댁에 가서 보고, 그길로 어머님께 가 뵌 다음 돌아와서 저녁 식사 후에 호조판서 이정귀를 가서 보고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왔다. 은자로 소나 말을 사려고 하나 맡겨서 살 사람이 없으므로 봉해사 광노의 처에게 주었다가 광노가 오기를 기다려 사려고 한다. 은자 7량 3전을 세경으로 봉했다.

26일. 날이 밝기 전에 용산에 가서 신서윤 자방을 보고 이야기하다가 거기에서 조반을 먹고 늦은 후에 돌아올 때 김랑(김덕민)의 종의 집에 들려 보았더니 절대로들어가 살 수가 없다. 도로 광노의 집으로 돌아와 덕노로 하여금 보은 김랑의 집에 가게 하고 그편에 윤 동지댁에 편지를 보냈다. 또 해주 윤함에게 보내고 박 좌랑 여룡이 있는 곳에 편지를 해서 편이 있는 대로 전해 보내게 했다. 오후에 임참

봉댁에 가 보고, 또 어머님께 가 뵙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 후에 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의 양식으로 백미 4두를 은을 가지고 사서 보내고, 계집종 잉읍개의 양식을 마련하도록 필목 반 필을 역시 주어 보냈다. 필목 반 필로 소금과조기 11마리를 사서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반찬을 할 계획이다. 언명도 역시 나에게 게젓 10여 개를 주고, 또 햇조 두어 말도 주었다.

27일. 일찍 식사를 한 뒤에 떠나서 어머님께 들려 뵙고, 그길로 달려서 장수원 앞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은 다음 또 떠나서 익담촌에 이르러 사노자근동의 집에서 잤다.

28일. 날이 밝자 떠나서 대탄 가에 이르렀는데 마침 이천태수 윤완이 길 고치는 차원으로 서울에 가다가 물가에 내려앉았는데, 나도 역시 말에서 내려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일찍이 한번 임 참봉 면부의 집에서 만나 보아서 예부터 서로 아는 터이기 때문에 나를 맞아 보더니 내가 내달 안으로 나간다는 것을 듣고 행량을 주고자하여 배리에게 일러 즉시 잊지 말도록 말한다. 또 서로 작별하고 떠나서 물위로 대탄을 건너서 오음대리 마을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또 철원 땅 적랑촌 이르러 박순복의 집에서 잤다. 그는 곧 평강 사람이다.

29일. 날이 밝기 전에 떠나서 산정 물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은 후에 떠나서 여러 번 험한 고개를 넘어 집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온 집안사람들은 내일을 줄 알았다가 불의에 보니 상하가 기꺼이 맞아준다. 오늘 오는 길에 들으니 지난 23, 24일 사이에 우박이 왔는데, 토산 안협으로부터 철원 땅으로 향하여 큰 바람을 따라 지나가서 큰 것은 주먹만 하고 작은 것은 계란이나 탄환만 하여 지붕의 기와가 모두 깨지고, 기러기 · 오리 · 까치 같은 나는 새들이 맞아 죽었으며, 우박이지나는 곳에 곡식도 역시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이 없다니, 이와 같은 재변은 근고에 없던 일이다. 길에서 삭녕 마을 사람을 만났더니 말하기를, 자기도 역시 들에 나갔다가 간신히 들어왔으나 그 발을 다쳤으며, 그 마을 사람 하나는 이튿날 산에 올라갔다가 죽은 꿩 6마리를 얻었는데 이는 곧 우박에 맞아 죽은 것이요, 그 밖에 조그만 새들은 숲 사이에 죽은 것이 몹시 많았다고 한다. 나도 또한 지나는 길에 우박이지나간 곳을 보니 콩과 팥밭은 마치 수레나 말이 지나간 것 같고, 밭두둑 가운

데에 크고 작은 구멍이 나서 마치 벌집과 같이 되었으니 곧 우박이 떨어진 때문이었다.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그믐날.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본다. 여기에 와서 보니 늦은 곡식은 아직다 익지 않아서 우리 집에서는 아직 수확할 곳이 없어서 간신히 꾸어다 먹고 지나고 있으니 민망스럽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또 게젓·조기 등 물건을 주었더니 아이들은 달게 다 먹었다. 가련하다.

## 9월

- 1일. 요새 양식이 떨어져서 부득이 우리 집에서 지은 밭의 조를 먼저 익은 것을 골라서 베어다가 널고 또 녹두를 빼어다가 밭 한가운데에 쌓아 놓았다.
- 2일. 오후에 우박이 오다가 잠시 후에 그쳐서 곡식이 상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
- 3일. 내일 덕노가 목화 바꾸는 일로 올라간다기에 편지를 쓰고, 또 덕노를 시켜 전일 베어 놓은 차조를 뚜드리게 하고, 또 계집종 개비 등으로 하여금 윤해의 집에서 지은 녹두를 뽑아다가 밭 가운데 쌓아 두게 했다.
- 4일. 덕노가 휴가를 얻어 가지고 올라갔다. 목화 바꾸는 일 때문이다. 나도 또한 다시마 7동을 보내서 목화를 바꾸게 했다. 어머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고 아우에게도 역시 편지를 보냈다. 또 감장 1항아리, 간장 담글 콩 1두를 보냈다. 전일 서울에 갔을 때 간장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보은, 연안 두 딸에게도 각각 편지를 써서 광노에게 보내어 전해 주도록 했다. 진위 윤해의 집에도 역시 편지를 보내 물었다. 덕노가 마땅히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어제 두드린 밭의 차조가 10두가 났는데, 짚은 뇌지 않았다.
- 5일. 이은신이 김언보가 돌아오는 편에 편지를 보내 묻고, 또 감곽 두어 묶음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춘금이 가는 편에 보내고, 또 차조 1두로 갚았다. 들으니 새 산릉은 비단 길이 멀 뿐만 아니라, 불길한 조짐이 많기 때문에 그때에 자리를 잡은 지관이 모두 잡아 갇혔기 때문에 딴 곳을 고쳐 잡았다고 한다. 역사가 이미

절반이나 진행되었는데 오는 20일에 발인해서 27일에 하관한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전공(前功)은 모두 버리게 되니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랴. 다만 광주 토당촌은 우리 선영의 밖의 지산 기슭인데 당초에는 이곳으로 잡았다가 포천 땅으로 고쳐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포천을 쓰지 않는다면 생각건대 반드시 다시 토당에서 찾을 것이니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서울에 갔을 때 토당의 자리 잡았던 곳을 가 보니 곧 하삼도에 왕래하는 큰길가 산기슭 평지로서 비록 지금은 길이 막혀 다니지 못하지만 다음 대에야 누가 감히 금하겠는가. 더구나 강물이 부풀어 넘쳐서 해마다 그 밑에까지 침입하는데, 이는 반드시 자리를 잡은 사람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제왕의 묘를 어찌 이렇게 천하게 드러낸단 말인가. 이는 곧 영남 사람 이몽신이 지리를 잘 안다고 해서 불려 왔는데, 그 사람이홀로 무리의 의논을 배척하고 좋다고 잡은 것을 총호사가 제조 등을 데리고 와서보고 못 쓴다고 해서 중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전해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6일. 최 판관이 찾아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 돌아갔는데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언세로 하여금 사동 밭 팥을 뚜드리게 했더니 8두가 나왔다. 또 두계집종으로 하여금 목맥을 베어서 깔게 했다.

7일. 내일은 곧 장모 기일이다. 마땅히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겠어서 후임의어미로 하여금 계집종들을 데리고 반찬을 준비하게 했다. 약과를 만들려고 먼저꿀 1통을 꺾었더니 꿀이 1두 5되이다. 이는 곧 다 낸 것이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난 것이 이것뿐이라고 한다. 다만 1년 내내 근고해서 집을 짓고 먹이를 마련한 것을 하루아침에 그 먹이를 다 빼앗았으니 오래지 않아 모두 죽을 것이라, 이는 어진자의 차마 할 일이 아닌데, 이것을 감히 하는 것은 형편이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 슬퍼하고 탄식한들 어찌하랴.

8일. 날이 밝을 무렵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낸 뒤에 가까운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온 집안사람과 품 산 사람 도합 5명으로 하여금 두 밭의 조를 베어서 깔았으나 끝내지 못했다.

9일. 곧 가절이다. 술과 떡, 절육, 실과로 차례를 지냈다. 탕과 구이는 얻어 갖출 길이 없어서 다만 이것으로 잔을 올렸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한 집안 계집종으 로 하여금 채억복의 밭 조를 베어서 깔았으나 끝내지 못했다. 양식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일시에 베어 깔지 못하니 한스럽다. 그저께 김업산이 와 보고 매치는 값을 얻으려고 하기에 정목 1필을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게 생각하니 상인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인가. 밉살스럽다. 지난겨울과 올 초봄에 매를 놓아 잡은 것이 날마다 5, 6마리에 떨어지지 않고 많을 때는 8, 9마리, 혹 10마리에 이르렀는데 우리 집에 보낸 것은 혹 수일 동안에 1마리뿐이어서 그 두어 달 동안 가져온 것이 25. 6마리 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은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너무 많이 날 려서 이 때문에 병이 나고 상해서 거의 구원하지 못할 뻔하다가 요행히 면했고, 그 상번 값도 역시 이 매가 잡은 것으로 치렀으니 비록 따로 값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또 초여름부터는 달마다 개를 잡아 주어 7마리에 이 르렀고. 그 중간에 개가 없을 때는 꿩을 사서 주었고. 또 닭을 계속 잡아 주어서 또 꿩과 닭을 계산하면 이미 10여 마리가 넘는데. 그는 다만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 주 고 앉아서 기른 공뿐이니. 1필의 필목이 어찌 부족하단 말인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보건대 비단 미련할 뿐만 아니라 사납기가 이를 데 없다. 그 자식도 역시 매일 먹 이를 요구할 때마다 공손치 못한 말을 많이 하니 더욱 몹시 밉살스럽다. 당초에 내 스스로 실수하여 매를 이 사람에게 주어서 끝내 업신여김을 받은 것이 적지 않으 니 이 누구를 허물하랴. 어두운 뒤에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동쪽 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술 1병, 떡 1그릇, 익힌 닭 1마리를 보내왔다. 오늘이 곧 가절이기 때문이 다.

10일·11일. 관의 둔전의 조를 뚜드렸더니 전후 소출이 17두이다. 아직 짚은 뇌지 않았다. 채억복의 밭 조를 베어서 널었다. 김 별감 린이 와 보았는데 술이 없어 대접하지 못하니 한스럽다.

12일. 온 집안의 계집종과 품 산 사람 7명으로 하여금 역의 밭 조를 베어 깔았다. 벌 1통을 반을 꺼내서 김억수의 벌통으로 옮겼다 하니 괴상한 일이다. 이 고을의 사람으로 산릉의 부역에 갔던 자들이 모두 돌아와서 말하기를, 새 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딴 곳에 고쳐 잡아야 하겠어서 역사를 정지하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역사가 거의 끝나는데 딴 산으로 옮겨 잡아서 먼저 공을 모두 버리니 민생의

괴로움이 더욱 걱정스럽다.

13일. 어제 옮겨간 꿀통을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 그 꿀을 다 먹고 도망가서 남은 것은 겨우 1되 남짓하니 밉살스럽다. 온 집안 계집종과 품 산 사람 도합 5명으로 하여금 집 앞 김언보의 팥을 뽑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14일. 또 4명으로 하여금 어제 끝내지 못한 팥을 뽑게 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또 박문재의 밭에 널어 놓았던 조를 거두어 묶었다.

15일. 어제저녁부터 비가 내리더니 밤새 그치지 않고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비 내린 밭에 펴 놓은 조를 미처 걷어 묶지도 못했는데 비가 이같이 내린다. 콩과 팥도 역시 다 뽑지 못했는데, 집에 어른 종이 없어서 아직 뚜드려 거두지 못하고 떠날 일자는 장차 박두하는데 모든 일이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근심스럽고 민망한 나머지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크게 탄식할 뿐이다. 저녁에 꿀 2통을 꺾었더니 모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1두 9되밖에 되지 않고, 밀은 2근이다. 이것으로 곡식을 사서 과동할 계획을 세웠는데 겨우 이것뿐이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다만 그 벌은 두고 그 먹을 것은 모두 가져왔으니 장차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이다. 이는 어진 사람의 차마 할 바가 아닌데 감히 이런 일을 했으니, 비록 벌치는 사람들의 상사라고는 하지만 나도 또한 상인의 일을 좇아서 감히 차마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의 욕심을 막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다. 한갓 스스로한단할 뿐이다.

16일 · 17일 · 18일. 아침에 노루 1마리가 올무에 걸렸다가 나무를 꺾어 버리고 앞들로 달아나는 것을 우리 집에서 먹이는 흰 개가 물어서 잡았다. 그러나 올무를 놓은 자는 곧 이웃 사람이므로 잡아서 반을 쪼개서 그에게 주고 즉시 구워 먹었더니 오래 먹어 보지 못하던 터라, 그 맛이 몹시 좋다. 가죽은 내가 가졌다. 김언보의 밭 팥을 두드렸더니 1석 13두가 났다. 집에 쓸 것이 없어서 먼저 뚜드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밭 가운데 쌓아 두었다. 또 온 집안 계집종으로 하여금 인아가 지은 밭 팥을 뽑아서 역시 밭 가운데에 쌓아 두었다.

**19일.** 채억복이 병작한 조를 뚜드렸더니 모두 1석 2두가 났다. 짚은 뚜드리지 않았다. 곧 이틀갈이이다.

20일. 말지촌 역 밭의 조를 거두어서 밭 가운데에 묶어 쌓았는데 곧 3백 27못이라고 한다. 인아가 가 보았다. 저녁에 한세가 서울에서 와서 어머님 편지를 보니 한노가 떠나오던 날 토당으로 가셨다 한다. 또 연안 진모의 편지 및 보은 딸의 편지도 와서 전하는데 모두들 잘 있다고 하니 깊이 위로가 된다. 다만 들으니 윤겸은 결성에서 실화해서 다 탔다고 하니 놀라고 걱정됨을 이길 수 없다. 남매가 전해 듣고 하는 말이니 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다. 신자방은 이천부사에 임명되었다 하니몹시 기쁘다. 한노가 백에 1두, 생율 1두를 가져왔다. 이제 김랑의 편지를 보니 그곳은 흉년이 들어 목화 · 대추가 전혀 열지 않아서 생활이 몹시 곤궁하다고 한다. 또 딸의 편지를 보니 슬프고 고초가 많아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제 어머니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슬피울고 있다. 김업산이 매를 가지고 이제 비로소 왔기에 백반을 지어 먹여 보내고, 닭을 잡아서 매에게 먹여 요새 훈련시켜 억수로 하여금 날리게 했다. 이는 곧 매 먹이가 몹시 어렵기 때문이요. 억수도 역시 아침에 훈련시켜 날리고자 했다.

21일. 관의 둔전의 콩을 꺾어서 밭 가운데 쌓아 두었다. 전업이 번으로 올라가기에 편지를 써서 광노에게 보내서 어머님과 윤해의 집에 보내게 했다. 또 약과 30여 개와 노루포 5조각을 조그만 행담에 넣고 보로 싸서 단단히 봉해서 보내서 어머님 께 전해 올리도록 했다.

22일. 집 앞의 김언보의 밭 팥을 거두어 두드렸더니 전후 도합 12석 3두요. 적두는 4석 3두이다. 김업산이 바꿔 온 매는 돌아오던 날부터 즐겨 먹지를 않더니 저녁에 이르러서는 전혀 먹을 것을 돌아다보지 않기에 산 닭을 잡아서 주었으나 역시 달게 먹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매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도 역시 모두 모른다고 한다. 다만 업산이란 자는 본성이 미련하고 사납고 불순해서 전에도 불공한 말이 많았고, 그 자식도 역시 표독해서 그 생각에는 금년에도 역시 매를 날려서 이익을 보려고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빼앗아 왔으니 일부러 상하게 했는가 걱정스럽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이 어찌 이러한 지극한 데에 이르겠는가. 이 매는 본래 먹이를 탐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비단 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닭을 묶어 시령위에 올려놓아도 끝내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 만일 병이 들지 않았으면 어찌 이와

같겠는가? 그 형색을 보건대 전혀 병든 매의 모습은 없으니 더욱 괴상한 일이다. 아직 수일 동안 보다가 만일 참으로 병이 있으면 즉시 업산에게 돌려보낼 작정이다. 또 들으니 업산이란 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떠들기를, 누구든지 이 매를 훈련해서 날린다면 내 마땅히 크게 척이 져서 욕할 것이라고 했다니 이것으로 그가 상하게 했는가 의심하는 것이다. 저녁에 벌 1통을 또 꺾었더니 겨우 5되요. 밀은 12량이다. 금년에 6통을 다 꺾었는데 겨우 5두이니 이는 곧 부실하기 때문이다. 만일차 있었다면 10여 두에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아까운 일이다. 이것으로 올라간 뒤의 과동의 양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계획이 잃어졌으니 한탄한들 무 엇하랴. 덕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북면으로 보내서 3, 4두를 사려고 하는데 다만절기가 늦어서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23일. 인아가 친히 산에 올라가 매 그물을 매어 만일의 희망을 바랐다.

24일 · 25일. 저녁에도 매가 오히려 먹지 않아서 억수를 불러다가 등불을 밝히고 먹여 보게 했으나 그래도 잘 먹지 않는다. 8월 이후로 날마다 두세 번씩 걸어서 뒷 봉우리에 올라가서 추사(秋事)를 바라다보아 무료함을 소견한다.

26일. 온 집안 노비들로 하여금 윤해가 지은 밭의 팥을 뽑아서 밭 가운데에 쌓아놓았다. 안손이 오기를 기다려 뚜드릴 작정이다. 윤해가 비록 친히 오지 않더라도 안손을 반드시 보낼 것인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필시 연고가 있는 것이다. 그 장인 장모의 장례를 물려서 지내기 때문인가. 살 집을 아직도 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날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괴상한 일이다. 가을이 되면서 돌아갈 마음이 날로 재촉되건만 일이 아직 수습되지 못하여 체류하여 지금에 이르렀는데, 일기는 점점 차지고 상하가 옷은 얇아서 행장이 어수선하니 만일 심한 추위를 당하면 형세가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만 가지 생각이 가슴을 메우고 백발이 날로 더하니, 인생이 얼마나 사는 것이기에 길이 우수 속에 있으면서 고초 많은 생애를 살고 있으니 다만 스스로 한탄할 뿐이다. 늙으신 어머님은 서울에 계시고 자녀도 역시 각각 먼 곳에 있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이 홀로 산골짜기 속에 있으면서 길이 조밥과 명아지국만 먹고 있으니 어찌 근심스러운 마음이 없겠는가.

27일. 한노로 하여금 목맥을 두드렸더니 모두 1석 5두가 나왔다. 늦은 후에 인아와 같이 걸어서 가 보았다. 현의 통인 만세가 일이 있어 여기 왔다가 그길로 와서 보기에, 그편에 들으니 해유색 민득곤이 서울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해유가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덕노가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그저께 우리 집 벌통을 가져다가 동쪽 집 윤해의 벌을 꺾지 않은 벌통에 옮겨 넣었더니 두 벌이 서로 싸우다가 한참 만에 안정되었으니 이는 필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기를 구하는 것이니 가련하다. 이곳에 또 하나의 벌통이 있는데 어제 나갔다가 오늘 돌아와서 빈 통 속으로 들어가더니 저녁에 모두도로 나가고 그 나머지 벌들은 서로 빈 통에 모여서 날로 점점 다 없어지니 더욱 참혹하다. 황태를 두드렸더니 5두가 났다.

28일. 아침에 비로 인해서 곡식을 뚜드리지 못했다. 한노로 하여금 꿀 담을 각목을 비어서 실어 오게 했더니 몸뚱이가 작아서 쓰지 못하겠으니 한스럽다. 이곳에 각 (閣)을 만드는 자가 있기에 값을 주어 보내려 했더니 틈이 없다고 핑계 대고 끝내 즐겨 허락지 않으니 이는 곧 높은 값을 달라는 것이니 밉살스럽지만 어찌하랴. 이 매는 이제 들으니 전부터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 것인가. 닭을 잡아 먹인 것이 이제 네 마리에 이르는데, 개는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으니 걱정이다.

29일. 매는 어제 인아가 친히 훈련시켰으니 근일에 날려볼 계획이다.

그믐날. 아침에 억수를 불러 매에게 방울을 달게 하고 이틀 밤을 계속해서 훈련시켰더니 자못 훈련된 기미가 있다. 그러나 집에 매를 날려본 사람이 없으니 한스럽다. 한노 언세 등으로 하여금 박문재의 밭 조를 뚜드리게 했다. 이는 곧 인아가 지은 것으로서, 모두 1석 6두가 났다.

## 10월

**1일.** 한노와 품 산 사람 2명으로 하여금 관의 둔전 콩을 두드렸더니 8석 4두가 났으니 곧 하루 반 갈이이다. 밭이 좀 좋기 때문에 소출이 이와 같으니 기쁘다. 전업이 오늘 돌아와서 말하기를, 안손은 내일 온다고 한다.

2일. 윤해의 종 안손이 진위에서 와서 윤해의 편지와 어머님 편지. 아우와 누이의 편지를 보아 비로소 안부를 알게 되니 몹시 기쁜 것을 어찌 다 말하랴. 윤해의 장 인 장모의 장례는 지난달 16일에 지냈는데, 이 일이 지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렇게 늦었다고 한다. 환상미를 사서 바치기 위해서 소금 10두를 실어 왔다. 언명이 쌀 1두를 보냈고, 진위 진운이 역시 답장을 써서 사례하고, 또 쌀 1두, 조 5두를 보 냈다. 전일에 내가 편지를 써서 위로했을 때는 상중에 있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못 하다가 지금은 장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답장을 써서 사례하는 것이다. 신자방 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말하기를, 이제 이천부사가 되었는데 아직 부임하기 전에 중국 장수를 지공하는 일로 서로에 가 있다고 한다. 이천은 비록 쇠잔한 고을이나 서울에서 멀지 않으니 딸이 그곳으로 오면 거의 만날 길이 있고 또 서로 도울 힘도 있으니 몹시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또 들으니 윤해의 양모는 지난 그믐 사이에 먼저 양지로 들어가서 겨울을 날 계획이고 윤해의 처자는 집을 지은 뒤에 따라 들 어갈 것이라 한다. 다만 들으니 윤겸은 실화한 뒤에 아직 서울에 오지 않았고, 아 우는 또 추수 일로 인해서 죽산 땅으로 내려갔으니 우리 온 집안이 살 곳은 반드시 땅이 얼기 전에 수리한 뒤에 들어가려면 일을 감독할 사람이 없고, 또 인마가 없으 니 즉시 떠나가지 않으면 피차의 사세가 틀리는 일이 많겠으니 몹시 민망하고 걱 정스럽다. 또 보은 딸의 편지는 광노의 집으로부터 전해왔기에 보니 몸은 비록 잘 있으나 다만 올 농사가 잘되지 못하여 수확이 많지 않으니, 그 집일이 크게 패하여 끝내 수습되지 않는다. 또 김랑은 변을 지난 후로 심기가 크게 상하여 희로(喜怒) 가 무상한데, 더구나 내 딸은 성질이 지나치게 화평하고 느긋해서 저 사람과는 성 질이 상반되어 자못 서로 맞지 않는 뜻이 있을 것인데, 이제 딸의 편지를 보니 비 록 나타내 말하지는 않았어도 슬프고 마음 상하는 말이 나타나 있으니 눈물이 흐 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내외는 밤새 자지 못하고 슬프게 탄식하기를 마 지않았다. 이 역시 운명이니 어찌하랴. [세 줄은 없어졌음]

3일. 김억수가 꿀 담을 각 2개를 만들어 가져왔다. 이는 곧 환상곡을 현에 바치기 위하여 소를 빌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수일 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버선 만들 감백목 한 끗을 주어 그 뜻에 보답했다. 김언보가 와서 보고 내가 쓰는 명주 행전을

주었다. 이는 곧 제 밭 세 곳을 경작하여 많이 수확을 하면서도 보답할 길이 없어서 이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아직 그 후한 뜻에 보답했다. 녹두를 뚜드렸더니 7두 5되가 났다.

- 4일. 내일은 곧 선조 휘일이다. 마땅히 예를 행해야겠기에 후임 어미로 하여금 계집종을 데리고 반찬을 장만하게 했다. 김언보의 밭 팥을 두드렸더니 1석 9두가 났다. 이는 곧 인아가 지은 밭이다.
- 5일. 밝을 녘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다만 집에 찬거리가 없고, 또 얻을 길도 없어서 다만 면, 떡, 사색 소탕, 육색 소구이, 양식 실과, 반상 제구로 정성을 표할 뿐이었다. 윤해의 종 안손이 소금과 필목으로 쌀을 사서 겨우 환상미 16두를 실어 왔다. 그러나 소비된 것은 보아 주지 않기 때문에 녹두 2두를 대신 보내고, 편지를 이 직장에게 보내어 태수에게 고하고 날짜를 물리지 말고 바치게 했다. 또 환상곡 콩 5두는 본래 우리 집에 있던 콩 이기로 대두로 6두 7되를 주어 보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환상곡을 싣고 현으로 가므로 안손도 역시 따라서 갔다. 매는 밤낮으로 길들이기 때문에 금명간 날릴 수 있는데 날릴 사람이 없으니 탄식스 럽다. 아침에 제사를 지낸 후에 가까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술을 대접해 보냈다.
- 6일. 안손이 현에 들어가서 환상곡을 아무 폐단 없이 바쳤다. 부족한 것은 태수가 녹두로는 받지 않기 때문에 고지기에게서 녹두로 쌀을 바꿔서 바쳤다 한다. 매는 오늘 비로소 긴 노끈으로 매고 먹였으니 수일 내에 날릴 수 있을 것이다.
- **7일.** 매는 훈련해서 오늘 날리려 했으나 날릴 사람이 없어서 아직 김억수가 돌아오 기를 기다리는데 억수는 어제 이미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안협에 사는 진수가 이 매를 사려고 그 값의 다소를 묻고 갔다.
- 8일. 안손을 철원부사에게 보내서 편지를 하여 환상곡을 대납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두 고을의 환상미는 마련할 길이 없어서 우선 대납할 뜻으로 먼저 철원부사에게 물어야겠는데 덕노를 기다려도 지금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안손을 보낸 것이다. 어두운 뒤에 덕노가 돌아왔다.
- 9일. 한노로 하여금 품 산 사람 4인을 얻어 역전의 피를 뚜드리게 했더니 모두 3석 7두가 났다. 내가 친히 가 보았더니 김언신이 점심을 지어 주고, 김언보도 역시 국

수를 만들고 꿩의 다리를 구워서 준다. 해가 저문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매는 이 미 익히 훈련했기에 오늘 날리려고 했더니 안협에 사는 진수가 매 값을 가지고 와 서 보고 팔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비록 훈련 해서 날린대도 집에 매를 아는 자가 없어 매양 딴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날려 가지 고 꿩을 나눈다면 얻는 것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더구나 이 매는 일찍이 콧병을 앓았으니 만일 날렸다가 먼저 병이 다시 생기는 날이면 다시 구제할 수 없을 것이 며, 또 만일 혹시 잃기라도 한다면 도리어 그 본전도 잃을 것이다. 그 위에 사람들 도 역시 많이 팔기를 권하는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팔았다. 값으로는 필목 6필 과 안팎 새것으로 된 백목 바지와 두루마기 1. 정목 2필을 받고. 또 후일에 꿩 10마 리를 잡아오기로 약속했다. 이 매는 이번에 두 번째 길렀는데, 올에는 몹시 잘 길 러서 전후에 하나의 옛 털이 없고. 그 빛이 은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사고자 했 으나 값이 비싼 것을 혐의하더니. 진수는 그 재주가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간 것이다. 인아가 10여 일 동안 주야로 친히 스스로 잠도 자지 못하고 훈련시켰으므 로 오늘 억수로 하여금 날리기로 약속했는데 꿩 하나도 보지 못하고 보냈으니 마 치 보물을 잃은 것과 같다. 안손이 어제 철원에 갔다가 오늘 낮에 돌아왔는데 철원 부사의 편지를 보니 그 환상곡은 일찍이 딴 곡식으로 충당하고 이미 감해서 문서 를 없애버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쇠 잔한 고을에서 1석의 곡식을 전혀 감해 주었으니 후의가 아니면 능히 이렇게 할 수 가 있으랴. 더욱 감사하고 감사하다. 또 백미 1두를 보내 이천 쌀을 만일 대납할 수 있다면 오늘 뚜드린 조로 서울에 갈 양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시켜서 이천태수에게 물어보고 싶으나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덕노는 어제 왔으나 주어 보낸 바꿀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팔지 못했다고 하니 몹시 밉살 스러운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자기 물건은 모두 목화로 바꾸고, 상전의 물건은 도 로 가져왔으니 더욱 몹시 밉고 분하다. 더구나 또 올 날짜가 지나서 왔기 때문에 내 집 일이 모두 낭패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으므로 중하게 매를 때려 경계하 려 했으나 만일 내가 노한 김에 때리면 반드시 중상을 입힌 뒤에라야 그 태만한 것 을 조금쯤 징계하게 될 것이나, 앞으로 심부름시킬 곳이 많기 때문에 아직 참고 용 서해 주었다. 올 때 진위에 들어가 충모의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윤해는 그 양모를 모시고 이미 양지 농촌으로 갔는데, 다만 들으니 간 뒤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서 생활이 몹시 어렵다고 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이제 들으니 중국 군 사는 모두 돌아가서 길가에 별로 난폭한 걱정이 없어 아직 율전에서 과동할 만 하 므로 윤해의 양모가 가서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낭패를 만났으니 이 누구의 허물 인가. 윤해의 처자는 뒤따라간다고 한다. 또 토당에 계신 어머님 편지를 보니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언명은 이미 양지촌에 가서 타작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다. 다만 우리 온 집안이 가 있을 집은 감독해 수리할 사람이 없고 일기는 점점 추 워지니 만일 몹시 언다면 깨진 벽을 바를 수도 없고. 또 울타리를 하고 토옥을 묻 지도 못할 것이다. 또 들으니 광노의 집에는 대역이 들어서 그 계집종이 바야흐로 누워 앓는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온 집안이 올라간다고 해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민망하고 탄식스럽다.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과동한 뒤에 올라가려고 해도 이곳에는 두어 달 양식도 없고, 또 얻어먹을 방책도 없어 피차의 사세가 이와 같아 서 진퇴름 어찌할 수가 없으니.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만 가지 생각이 가슴을 메 우고 멀쩡하던 머리털이 하룻밤 동안에 모두 희어진다. 인생이 얼마나 사는 것인 가. 다만 스스로 크게 한탄할 뿐이다.

10일. 목전에 사는 전 별감 김충서가 와서 보고 목미 10두, 팥 1두를 준다. 빈궁한 사람이 먼 길을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 주니 가위 후하다 하겠다. 술과 밥을 대접해 보냈다.

11일. 덕노를 북면에 보내서 꿀을 사게 했다. 정목 4필, 전일에 매 값으로 받은 새 옷을 보내고, 또 중목 2필은 명주를 바꾸게 했다. 또 패랭이 7개로 깨, 참버섯, 석이 등 물건을 있는 대로 형세를 보아 사도록 일러 보냈다. 그러나 들으니 그곳에서 는 이미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자가 몹시 적고, 비록 있어도 값이 몹시 비싸서 정목 1필에 6, 7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번에 가서 사 오게 될지 기필할 수가 없다. 이는 모두 덕노가 더디게 온 까닭이라. 몹시 밉살스럽다.

12일. 윤해의 집 팥을 두드렸더니 2석 4두가 났는데 1두는 마철 값으로 주고, 또 2두는 전일 환상곡 부족한 것을 대납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

두 여기에 두었다.

13일. 김언신이 빙어 6마리를 가져왔기에 아침 식사에 탕을 만들어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몹시 좋다. 이는 곧 오래 먹지 못한 나머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진수가 사간 매가 가던 이튿날부터 먹은 것을 토하는 증세가 있기 때문에 날리지 않고 시렁에 앉혀두었다 한다. 이는 필시 핑계 대고 꿩을 가져오지 않기위한 것이다. 없던 매가 하루 사이에 어찌 날리지 않고 상한단 말인가. 그 거짓임을 알 수가 있으니. 마땅히 뒤에 들리는 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14일, 채억복의 밭 짚을 두드렸더니 3두가 넘게 났다.

15일. 내일은 곧 증조의 기일이다. 들으니 해마다 오충일의 집에서 지낸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으려 한다. 충아가 내일 올라가기 때문에 행장을 차렸다. 처음에는 우리 집 식구들이 갈 때 데리고 가려 했더니 비단 종과 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 집이 불행히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오래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터이니 날씨가 몹시 혹독하게 추우면 더구나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손의 말이 갈 때 한노와 함께 데리고 가게 했다. 저녁에 눈이 내려 깊은 밤이 되어서야 그쳤는데 거의 세 치가 넘는다.

16일. 눈이 개고 날씨가 화창하기 때문에 충아를 떠나보내니 마음에 몹시 슬프다. 여러 곳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안손의 말은 그 집 콩 9두 5되, 녹두 1두, 각에 넣은 꿀 1두 1되, 밀 1덩어리 6량 4돈 및 행량과 콩을 싣고서 충아가 타고 가고, 한세는 어머님께 보내는 팔 2두, 차조떡 1행담 및 언명의 집에 가는 팥 5되를 지고 갔다. 창호지 10장을 또한 언명에게 보내서 집 창문을 바르게 하고, 또 한세로 하여금 그믐께 바로 돌아오도록 일렀다. 곧 우리 집이 갈 때 데리고 가기 위해서이다. 한노에게 역시 팥 5되, 목반 1개를 보냈다. 짐이 무거워서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냈다.

17일. 어제는 큰 바람이 불었으나 몹시 춥지는 않더니 오늘은 개어서 화창하다. 충아가 가기에 필시 좋겠으니 위로가 된다. 다만 오랫동안 내 이불 속에서 잤는데 오늘은 없으니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밤새 잊을 수가 없다. 늦은 후에 내가 최 판관에게 가 보았다. 그가 내일 철원으로 가기 때문이다. 나에게 저녁밥

을 주어 날이 이미 어두웠는데, 소를 타고 어린 종을 거느리고 오노라니 나쁜 범이 몹시 두려워서 채찍을 더하여 달려오니 땀이 흘러 등을 적신다. 마침 계집종 은개 의 남편 수이가 중로까지 마중을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비로소 편안했다. 덕노가 돌아왔는데, 가지고 간 포목으로 꿀을 사지 못했으니 이는 곧 절기가 늦어서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요. 비록 혹시 조금 가지고 있어도 값이 몹시 높아서 사지 못하 고. 겨우 가지고 간 새 옷을 포목 2필로 계산하여 꿀 1두 4되를 받았고. 패랭이 1개 로 참버섯 1곳을 바꿔왔다. 덕노가 올 때 현에 들어갔더니 이 직장 은신이 글을 보 내 묻고, 또 대미 5되, 고등어 1마리, 노루고기 1조각을 보냈다. 그도 역시 객지인 데 어디서 얻었는가, 미안하다. 이의 아들 득남은 저번에 예산에 있다가 윤겸의 실 화를 듣고 결성으로 가 보자 윤겸이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득남은 그 편지를 그 아 비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아비가 덕노가 오는 데 보내서 이제 비로소 얻어 보니 곧 지난달 29일에 쓴 편지이다. 불이 난 원인은 계집종 막종이 사사로이 관솔을 저축 해 두고 밤마다 불을 켜고 일을 했는데 마침 잠이 든 자리에 붙어서 타기 시작했 고, 그곳이 상전이 거처하는 방에 가까이 와서 불이 먼저 번졌다는 것이다. 그날 밤에 마침 바람이 크게 불어서 불은 드세고 바람은 사나우므로 그 처자들이 각각 어린애를 안고 알몸으로 불 속에 들어가서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한다. 이리하여 그 노비 등 여섯 집이 일시에 초토가 되었으니 불쌍하다. 다만 상 하가 모두 화상은 면했으며 추곡은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다행한 일이다. 이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우선 세만을 보냈다고 하니 근일에 반드 시 올 것이다. 그러나 의복이 모두 타 버렸으니 어떻게 해 입었는가. 우리 집에도 입은 옷 이외에는 별로 남은 옷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니 더욱 한스럽다. 불이 난 날은 8월 20일인데, 이웃 마을에서 서로 구조하기 때문에 간신히 지낸다고 한다. 또 들으니 이은신이 이제 그 아들이 사람과 말을 보냈기 때문에 마땅히 20일 이후 에 떠나갈 것이나 바빠서 미처 와 보지 못한다고 하니 한스럽다.

18일. 김 찰방 업남이 매를 살 사람 때문에 편지를 보내 물었으니 그는 곧 김 도사 자정의 형으로서, 이번에 경양찰방에 임명되었다 한다. 관인이 현에 들어가기에 답장을 써서 이 직장에게 보내서 사례했다.

- 19일. 충아가 떠난 후에 3일 동안은 온화하더니 오늘은 몹시 차니 몹시 걱정스럽다. 일자를 따져 보니 오늘은 마땅히 서울에 도착하고 모레는 진위에 들어가겠다. 전해 듣건대 새 능은 교하에 자리를 보았으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한다.
- 20일. 연일 몹시 추우니 충아의 일행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어 몹시 근심스럽다. 우리 집이 떠날 날짜는 새달 초승으로 정했는데 날씨가 점점 몹시 매워지고, 집사람의 먼저 아프던 어깨가 추위로 인해서 도로 아프다니 꼭 가게 될지 아직 기필할 수 없어 몹시 민망하다. 모레쯤 덕노를 시켜 먼저 짐을 실려 보내고 돌아온 뒤에 갈 날짜를 정할 것이다.
- 21일. 이은신이 여기 오는 사람 편에 쌀 5되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일 온 집안이 올라간다고 하니 서운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한스러운 것은 한번도 와 보지 않고 가는 것이다. 즉시 답장을 써 보냈다. 후임 어미가 만두를 만들어 가져왔다. 내일이 곧 외조의 기일인데 이를 잊고 잘못 먹었으니 가소롭다.
- **22일.** 종일 두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곧 모레 덕노가 서울에 가기 때문에 해주(오 윤성) · 보은(김덕민) · 이천(신응구) 모두 세 곳에 보내기 위해서다.
- 23일. 저녁에 광노의 집사람 덕실이 말을 가지고 왔으니 곧 우리 집 식구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비단 일기가 몹시 찰 뿐만 아니라, 종 하나 말 하나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다만 그 집으로 하여금 콩과 팥을 실어 가도록 말하고, 우리 집 식구는 아직 머물러 과동할 계획이다.
- 24일. 덕노를 오늘 떠나보내려 했으나 덕실의 짐을 아직 거두어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같이 떠나게 했다. 또 결성에 가는 편지를 써서 개질지에게 보내어 가지고 가게 했다. 3바리로 실어 보낸 물건은 말에는 꿀 5두 5되를 두 목각에 담았고, 또 조그만 각에 7되를 담았는데 이는 곧 서울에 간 뒤에 제사에 쓸 것이요 그 나머지는 곡식으로 바꾸어 내년에 쓸 것이다. 또 소 2마리에는 팥 18두, 콩 18두, 말장 3두 및 그 나머지 봉해서 보내는 물건을 나누어 실어 보냈다. 또 어머님께는 쌀 1두, 꿀 1되, 녹두 5되를 보내드렸다. 결성은 실화로 인해서 다 탔기 때문에 내 고쟁이 새로 만들어 입지 않은 것을 윤겸에게 보내고 집사람이 입었던 저고리를 임모에게 보냈다. 또 보은 딸이 입었던 저고리를 버려두고 갔는데 이제 비로소 보에 싸

서 보냈다. 또 정목 2필로 서울 장에서 명주로 바꿔 보내도록 광노에게 패자를 보냈다. 또 포목 반 필로 소금을 바꿔 오도록 덕노를 시켜 보냈다. 버선감으로 노루 가죽을 또 보은에 보내고, 말장 1두를 또한 아우에게 보냈다. 덕노로 하여금, 부엌과 온돌을 수리하고 재를 쳐내게 했다. 과동할 계획이다. 춘금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이은신은 오늘 올라갔다 한다.

**25일.** 덕노 등을 오늘 떠나보내려 했더니 새벽부터 비가 뿌려서 그대로 있다가 해가 저물어서 떠나지 못했다.

26일. 덕노 등이 우마 3마리에 점을 싣고 광노의 집사람 및 김언신이 일시에 떠나 갔다. 계집종 옥춘도 그 딸 만춘을 데리고 역시 올라갔다.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 계집종을 보내서 모시고 자게 했다. 이는 곧 우리 집 식구들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으니 암소가 고개 밑에 이르러 점이 무거워서 가지 못한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만일 끝내 다 싣고 가지 못하겠으면 마땅히 잔 곳에 짐을 덜어 놓고. 가도록 돌아온 사람에게 말해 보냈다. 큰 바람이 종일 그치지 않으니 걱정이다

27일 · 28일. 종일 눈이 내린다. 만일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거의 반 자가 넘을 것이다.

29일. 덕노 등이 떠난 날을 계산하면 오늘쯤 서울에 도착했을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어제 눈이 내려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바람이 불고 몹시 추워서 어진 종이 나무를 베지 못해서 밥을 지을 때도 간신히 얻어서 쓰니 하물며 방이 덥기를 바라겠느냐. 밤에는 춥고 이불이 얇아서 잠을 자지 못하니 생애가 탄식스럽다.

그믐날. 근일에 추위가 몹시 맵더니 오늘 더욱 혹독하다. 또 곡식 자루가 다 말라서 아침밥, 저녁 죽에 또 반찬도 없이 길이 장만 지지고 무를 담가서 나물에 섞어서 밥을 넘기니 다만 요기할 뿐이라. 감히 배부르기를 기다리랴. 이러는 사이의 고초는 말할 수가 없다.

## 11월

1일 · 3일, 새 능의 일꾼이 떠나도록 관차가 매일 마을에 와서 독촉하므로 백성들

이 모두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달려갔다. 이 같은 괴로운 추위에 몹시 민망스럽고 불쌍하다. 아직 어느 곳에 자리를 정했는지 듣지 못했다.

4일. 아침 식사 전에 김언신이 소 2마리를 끌고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일행이 무사히 서울에 들어갔다고 한다. 마침 윤겸이 결성에서 서울에 왔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기에 보니, 국장이 이미 가까웠으므로 비록 산관이라도 반드시 발인할 때 배곡해야겠으므로 서울에 와서 그길로 와서 근친하려 했으나 들으니 이곳 백성들이 쇠를 녹여서 비를 세운다고 하므로 왕래하기에 혐의스러워서 즉시 근친오지 못했다고 한다. 또 남매의 편지를 보니 어머님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기쁘다. 또 들으니윤겸은 이웃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미 6칸의 초옥을 이루었고, 그 처자들도 모두옷을 지어 입었다고 한다. 찹쌀 2두ㆍ게젓ㆍ굴 식혜 및 전어, 굴을 보내왔다. 대장장이 춘복의 처가 떡 1행담 및 김치 1그릇ㆍ빙어 4마리를 가져왔다. 의외에 이것을 얻어서 즉시 상하가 함께 먹었다. 술을 대접하고 또 버선감 다듬은 필목 2자,쌀 1되를 주어 후의에 보답했다.

**5일.** 오늘은 일기가 온화하여 자못 눈이 내릴 기미가 있다. 박언방이 능군으로 서울에 가기에 편지를 써서 윤겸에게 보냈다.

6일. 눈이 내려 거의 3, 4치나 쌓였다.

7일. 박언방 등이 중로에 이르러 들으니 새 능자리가 광중을 팠더니 물 기운이 있어 쓸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딴 곳을 골라야 하겠으므로 역사를 중지했다고 해서 즉시 돌아와서, 윤겸에게 보낸 편지도 도로 가져왔으니 한스럽다. 덕노는 오늘 오겠는데 오지 않으니 필시 말을 사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눈이 내린 후에 바람과 날씨가 몹시 맵다.

8일 · 9일. 윤겸이 덕노를 데리고 어두울 녘에 왔다. 불의에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됨을 어찌 다 말하랴. 서로 방 안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이 되어 닭이 두 홰를 운 뒤에 자리에 들었다. 인아의 말을 사 왔는데 은자 5량 8돈을 주었다 한다. 어머님 편지 및 아우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모두 평안하다고하니 몹시 기쁘다. 해주 윤함의 편지 두 장을 역시 가져왔는데 곧 10월 13일과 4일에 쓴 것이다. 편지 하나는 곧 자방의 처자가 올 때 보내 온 것이다. 다만 성언, 시언 두 손자

는 적리를 앓아 거의 죽어 가다가 겨우 소생했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진아의어미도 역시 연안에서 서울에 왔다가 하루를 머물러서 이미 이천으로 갔는데 편지를 보내왔고, 또 버선을 지어서 나와 그 어머니에게 보냈다. 그러나 전해 들으니보은 딸은 기운이 편안치 못하다 하니 비록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걱정됨을 이길수가 없다. 윤겸의 서용(敍用) 는 이미 명령이 내렸으나 해유(解由) 가 아직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벼슬에 임명되지 못했다고 하니 한스럽다. 현리 민득곤이란 자가이미 해유색을 받았는데도 힘을 다하지 않아서 아직 내보내지 않았으니 밉살스럽지만 어찌하랴. 어머님께서 대구 1마리를 얻어 보냈다. 이곳에서 고기를 못 얻어먹은 지가 이미 오래라고 들으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10일. 덕노를 철원에 보내서 필목 3곳을 가지고 내일 장에 쌀로 바꿔 오게 했다. 윤겸이 편지를 철원부사에게 하고 또 필목 반 필을 주어 방어를 바꿔 오게 했다. 또 팥 3두를 주어 체를 바꿔 오게 했다. 저녁에 이천이 수공하는 일로 평강현에 사는 노비에게 왔다가 우리 집이 아직 체류해 있고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와 보았다. 일찍이 불의의 일이라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이야기하노라니 밤이 이미 깊었다.

11일. 이천이 일찍 식사를 한 뒤에 이천으로 갔다가 그길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12일. 현리 전거양이 와서 보고 백미 1두, 꿩 2마리를 가져왔다. 또 민득곤·황웅성이 와서 보는데, 득곤은 백미 2두, 꿩 2마리를 가져왔고, 웅성은 생은어 2묶음을 가져왔다. 또 현의 아전들이 백미 2두, 말린 여항어 10마리를 거두어 가져왔다. 각각 밥을 대접해 보냈다. 현의 태수가 윤겸이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백미 5두, 콩 5두, 팥 5두, 잣 1두, 개암 1두, 꿀 3되, 말린 여항어 10마리를 보냈다. 저녁에 덕노가 철원에서 돌아왔는데 필목 2필로는 쌀 각각 6두와 팥 3두, 말린 은어 9묶음을 받았고, 또 필목 반 필로는 방어 큰 것 1마리를 바꿔 왔다. 철원부사가 또 백

<sup>1</sup> 서용(敍用):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관직에 임용하는 것

<sup>2</sup> 해유(解由) : 관원이 교체될 경우 그가 재임하는 동안 출납 보관하던 금품 등의 회계가 정확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 면제를 증명하는 글.

미 3두, 누룩 7장, 꿩 1마리, 은어 6묶음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 물었다. 이는 곧 윤 겸이 온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윤겸이 돌아갈 때 중로에서 만나자고 했다. 김 담이 닭 1마리를 가져왔다.

13일. 관노 최막동이 꿩 1마리를 보냈다. 현리 만생이 와서 보고 또 꿩 2마리를 가져왔다. 윤겸이 왔다는 것을 들은 때문이다. 밥을 대접해 보냈다. 최 판관이 윤겸을 보기 위하여 찾아왔기에 저녁밥을 대접해서 보냈다.

14일. 김 별감 린이 윤겸을 보기 위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기에 약밥과 술을 대접해 보냈다.

15일. 김억수 · 김언보가 각각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안협에 사는 노인 연수 3부자가 와서 보고 각각 꿩 1마리 및 파를 가지고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박 문재가 쌀 1두, 정광신이 꿩 1마리, 김언신이 콩과 팥 각각 1두를 가져왔다. 저녁에 안악에 사는 계집종 복시말의 자식 천귀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지난가을에 신천 태수 이창복이 군사를 내어 그 동생과 처자를 모두 잡아다가 칼을 씌워 그 옥에 단 단히 가두어 장차 모두 죽이려 하므로 그 형제가 간신히 도망해서 서울에 와서 토 당에 계신 어머님께 호소하자 어머님께서 편지를 써서 여기로 보냈다고 한다. 이 에 어머님 편지 및 아우의 편지를 열어 보니 모두 평안하다고 했고. 나로 하여금 이 종의 걱정을 구제해 주라고 하셨으나 내가 세력이 없어 구제할 길이 없다. 그러 나 모른 체할 수가 없어 장차 편지를 써서 해주 윤함에게 보내서 윤함으로 하여금 친히 이 편지를 가지고 신천태수에게 가 보고 말하도록 할 계획이나 들을는지의 여부는 기필할 수가 없다. 필목 1필을 가져왔다. 이창복은 곧 고 신우봉(신홍점) 형의 사위로서, 신 형의 아내가 지금 신천 관아에 있는데, 일찍이 들으니 고 목사 박의의 아들이 신가와 서로 송사를 하다가 신가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일찍이 평강에 있을 때 복시의 남편 은광에게 그 두 아들 을 허락해 주었었는데 신가에게 그 아들 하나를 죽였기 때문에 박 목사의 집에서 송사를 일으켜 이긴 뒤에 또 살인의 죄를 송사에 올렸는데 그 후로 오래되도록 효 험이 없어서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16일, 윤겸이 떠나서 서울로 향했다. 6일 동안 머무르다가 갔으니 비창함을 어찌하

랴. 떠나간 후에 뒤 봉우리에 올라가는 길을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은 후에 돌아왔다. 정목 2필로 외주 1필을 바꾸어 보은 딸에게 보내고, 또 편지를 써서 이천아문에 보냈다. 어머님께는 꿩 2마리, 말린 여항어 3마리를 보냈다. 오늘은 일기가 화창하여 마치 11월 일기와 같으니 윤겸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 이와 같으면 얼고 추울 걱정은 없겠다. 속으로 빌고 빌었다. 덕노도 역시 데리고 가다가 중로에 돌려보냈다. 오늘은 곧 동지이다. 차례 음식을 마련하여 신주께 제사를 지냈다. 마침 윤겸이 와서 꿩 가져온 것이 10여 마리이므로 이것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지냈다.

17일. 집사람이 어제 아침에 윤겸이 나가고 돌아오지 않자 기운이 불평하여 옷과이불을 겹으로 덮고 땀을 내려 하더니 오후에는 기운이 몹시 피곤하고 계속해서열이 나면서 심신이 혼미하고 피곤하여 수습할 수가 없다. 이에 냉수를 조금 마시고 또 눈덩이를 먹더니 두세 차례 구토를 한 뒤에 조금 안정되었다. 그러나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이르러서야 좀 덜하고, 아침에는 대세가 더욱 감했다. 그러나속머리가 조금 아프고 원기가 피곤하며 음식을 몹시 싫어하니 깊이 근심스럽다.이는 필시 수일 동안 계속해서 문을 열어 놓고 일을 보아서 중하게 풍한을 범한 까닭이다.

18일. 집사람의 대세는 모두 나았으나 다만 일어나 앉지 못하고 음식도 역시 감해 지니 걱정스럽다. 어제 아침에 서울 상인 정란이 윤겸을 만나러 왔다가 이미 떠났으므로 가지고 온 쇠고기를 크게 한 덩이 주었다. 밥을 대접해 보냈다. 쇠고기는 얻어먹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여서 집사람은 이것으로 식사를 계속하니 기쁘다. 덕노는 오늘 올 터인데 오지 않으니 필시 데리고 간 것이다. 오늘부터 말장 콩 10 두를 삶았다.

19일.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와 같아 역시 일어나 앉아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또 말장 8두를 삶았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어제 삭영 김수적의 집에서 잤다고 한다, 그저께는 철원 땅 양태항 교생 이인준의 집에 들어갔더니 철원부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같이 한방에서 자면서 밤새 이야기하고, 어제 늦게 식사를 한 뒤에 떠났는데, 철원부사가 백미 4두 · 밭쌀 3두 · 콩 5두 · 감장 5되 · 간장 1되 · 꿩 1마리를 말에 실어서 자는 곳까지 보내왔다. 그러나 윤겸은 늦

게 떠났기 때문에 필시 가정자까지 대지 못했을 터인데 만일 미처 대지 못했다면 오늘 필시 서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덕노는 윤겸을 떠나보낸 후에 삭녕 땅 승양촌에서 자고 이제 비로소 왔다고 한다. 윤겸이 얻은 백미 2두, 감장 5되도 보내 오고, 마철 1벌도 보내왔다. 들으니 새 능은 건원능 안에 잡았으나 아직 발인하고 장례지내는 날짜는 듣지 못했다 한다.

20일. 요새 일기가 몹시 따뜻한데 거리를 계산하니 윤겸은 어제는 서울에 도착했을 것인데 얼고 추운 괴로움은 면했을 것이니 위로가 된다. 집사람은 별로 아픈 곳은 없으나 다만 기운이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 걱정이다.

21일. 종일 비를 뿌렸다.

22일. 크게 바람이 불었다.

23일, 하루 종일 큰 바람이 불어 밤새 그치지 않고 몹시 춥다.

**24일.** 큰 바람은 어제와 같고 추위는 갑절이나 더해서 사람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문을 닫고 화로를 끼고서 나가지 않았다.

25일 · 26일. 늦은 후에 무료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동대에 올라가 앞내를 바라보니 얼음이 단단히 얼어서 비록 우마가 건너도 빠지지 않겠다. 마을 초동들이 얼음 상류로 가서 바위 언덕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 얼음 위에 묶어 쌓고 이것을 밀고 내려오니 공력이 매우 쉬워서 비록 한 사람의 힘으로도 수례 하나의 나무를 끌 만하여 경편하기가 흐르는 것 같다.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왔다.

27 · 28일. 덕노와 수이가 떠나서 영동으로 가서 어물을 사서 곡식을 바꾸기로 했다. 통천태수에게 윤겸이 편지를 하여 양식과 콩을 유구했다. 덕노에게는 정목 3 필을 주어 보내고, 또 양미 2두, 마태 3두를 주었으며, 수이는 인아의 말을 가지고 갔는데, 인아가 정목 2필을 주었으며, 양식과 콩은 역시 절반씩 나누어 주었다.이는 곧 수이와 각각 반씩 싣고 오기 때문이다. 덕노는 역시 저 스스로 필목 1필을 가지고 갔다 한다. 수이는 곧 계집종 은개의 남편이다. 만일 날이 좋고 눈에 막히지 않고 어물을 속히 산다면 반드시 새달 초승쯤에는 돌아올 것이다. 집사람은 수일 이래로 기운이 평상시와 같고, 음식도 보통 때와 같으니 기쁜 일이다.

29일. 윤겸은 올라간 뒤로 잘 갔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니 깊이 걱정된다. 덕노

는 눈에 막혀서 돌아왔다.

## 12월

1일 · 2일. 철원부사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고 감장 1두를 보내왔다. 필시 윤겸에게서 우리 집에 간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깊이 후의에 감사한다. 또 윤겸의 편지를 전해 왔는데, 이는 곧 광노의 집사람 덕실이 있어서 철원에 올 때 부친 것이다. 펴 보니 자방(신응구)의 둘째 딸이 대역을 앓다가 요절했다고 하니 놀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진아 및 작은 딸은 잘 치르고 있다 하나 잘 마칠는지 알 수가 없어 몹시 근심스럽다. 그 딸은 나이 17세로서 바야흐로혼인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다. 일찍이 들으니 모양이 영오하고 단정했다고 하니 더욱 애석하다. 즉시 답장을 써서 철원에서 온 사람에게 주고, 또서울 편지도 써서 보냈다. 철원부사가 오는 5일에 서울에 가므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마땅히 윤겸에게 전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각대도 또한 보내서 윤겸에게 전하도록 하고 온 사람은 밥을 대접해 보냈다. 또 들으니 어머님께서는 평안하다고하니 몹시 기쁘다.

3일 · 4일. 덕노와 수이가 소금을 사러 연안에 가는데 정목 1필을 주어 보냈다. 저 녁에 윤해가 서울에서 왔다. 불의에 서로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서로 방 안에 둘러앉아서 각각 오랜 회포를 펴다가 닭이 세 홰나 운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 들으니 지난달 초승에 그 처자를 데리고 양지 농촌에 들어가 사는데 상하가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윤겸의 편지를 보니 금명간 해유가 나올 것이라 한다. 어머님 편지도 역시 왔는데 평안하시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윤해가 찰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즉시 구워서 같이 먹었다. 백미 3두도 역시 가지고 왔다.

- 5일. 종일 눈이 내려 그치지 않는다.
- 6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눈이 역시 그치지 않는다.
- 7일. 눈이 내려 거의 반 자나 된다. 바람도 또 차다.
- 8일 · 9일 · 10일. 김 주부 명세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다. 윤해가 온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기를, 어젯밤에 범이 김린의 집에 들어가 암소를 물어 죽였

으나 사람들이 쫓아서 물어 가지는 못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 어린 송아지를 물고 가는 것을 쫓아가서 빼앗아 왔다고 한다.

11일. 춘기를 김린에게 보내서 쇠고기 두어 덩이를 사 왔다. 곧 팥 2두 값이다. 다만 적은 것이 한이나 반을 비워서 어머님께 보냈다. 내일 윤해가 가기 때문이다. 김언신이 떡 1행담 및 쇠고기 1쪽을 가져왔다.

12일. 일찍 식사를 하고 윤해가 떠나갔다. 겨우 7일을 머물다가 갔다. 종이가 없어 서 다만 어머님께만 편지를 하고 딴 곳엔 하지 못했다. 또 어제 언신이 가져온 떡 을 어머님께 보냈다. 곧 23주이다. 요새 일기가 몹시 차데 유해가 어떻게 가는지 몹시 걱정스럽다. 그러나 오는 19일 그 양조모 기일에 대 가고자 하므로 만류하지 못했다. 파주 익양군의 묘제는 장모의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자손들이 모두 외지 에 있고 임 참봉댁만이 서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윤해가 올 때 집사람에게 편지 를 해서 모아서 지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윤해가 가는 길에 백미 1두 모미 5 되·닭 1마리·말린 꿩 1마리·쇠고기포 3조각·말린 여항어 3마리·홍합 1되· 꿀 1되 3홈·작 3되를 보내고 이 나머지 물건은 임 참판댁으로 하여금 여러 동생 에게 수합해서 갖추어 보내도록 말했다. 또 들으니 오는 정월 21일 익양군의 기제 도 역시 여기에 와서 지낸다고 하니 이 역시 홀로 지낼 수가 없으니 임시로 수합하 여 지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선조의 기제와 묘제는 지내왔는데, 이제는 형 세가 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응행의 자손들이 돌려가면서 지내도록 윤해로 하여금 윤차기를 써서 오극일·충일 등에게 보내서 정조로부터 시작하여 돌아가면서 지 내게 하도록 했다. 다만 응행의 자손은 모두 외지에 있어 반드시 즐겨 서울에 와서 지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스럽다.

13일. 일기가 몹시 차니 윤해가 가는 길이 몹시 걱정스럽다. 밤에 무엇이 닭을 침입하여 모든 닭들이 놀라서 흩어지고 물어 가는 소리가 나므로 즉시 등불을 켜고보니 모든 닭들을 간 곳이 없더니 아침이 되자 모두 도로 모였으니 필시 쥐, 살쾡이, 고양이의 소행일 것이다. 오늘은 안 시렁에 옮겨 앉히고 앞뒤에 그물을 쳤으니다시 와서 침입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덕노는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괴이하다. 14일. 아침에 덕노의 처가 토옥에서 일이 있어 밖에 나간 잠깐 사이에 불이 나서

그 안을 다 태우고 겨우 불을 껐는데, 짜던 베가 반이나 타버렸으니 이는 평소에 불을 조심하지 않은 까닭이다. 만일 큰 바람이 불었으면 반드시 번져나갈 근심이 있었을 것이니 밉살스럽다. 최 판관이 글을 보내 묻고 또 대구 1마리, 알 1조각을 보냈으므로 답장을 써서 사례했다. 이에 온 사람에게 술을 대접했다. 이 물건들은 그 집 종으로 북쪽 고을에 사는 자가 가져왔다고 한다.

15일. 죽은 종 막정이 죽은 날이다. 밥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평시에 우리 집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후에 인아와 함께 부석사에 올라갔더니 최 판관과 김명세·김린·허충이 먼저 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녁때 두부를 만들어 먹는데, 두 김이 각각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두부를 먹은 후에 밥과 같이 먹었다. 이때 절의 중들이 부처 앞에 재를 올리면서 북을 치고 목탁을 뚜드리며 몸을 흔들고 발을 움직여 법당 가득히 시끄러우므로 제공들과 함께 나가 구경하다가 동상실에서 자면서 서로 발을 얹고 이야기하노라니 밤이 이미 반이 지났다. 일찍이 두 김과 약속하고 최를 맞아다가 이야기한 것이다.

16일. 일찍이 중들이 면을 만들어 주고 또 백주를 내왔다. 또 법당으로 나와서 여러 중들이 모여서 먹는 것을 보니 곧 어제저녁 잿밥이다. 늦은 후에 중이 또 두부를 주고 백주까지 내와서 몹시 배부르게 먹고 파했다. 이에 제공(諸公)들과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절에 있을 때 윤겸의 편지를 보니 곧 서면에 사는 백성이 서울에 갔다가 돌아올 때 써 준 것인데, 그것을 중에게 보내어 우리 집에 전하게 한 것이다. 펴 보니 곧 9일에 보낸 것으로 무사히 서울에 머물고 있고, 해유는 이미 나왔으나 아직 벼슬에 임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편지에 보니 중진의 대역은 이미 차도가 있고, 보은 딸도 잘 있으나 다만 김랑이 손에 종기가 나서 거의 위태롭다가 겨우 차도가 있어서 지금은 밖에 나가서 친구도 찾는다고 하나 그래도 몹시 걱정스럽다. 덕노가 어두운 뒤에돌아와서 말하기를, 연안에는 소금이 없어서 해주 동면에 가서 사 왔다고 한다. 주어 보면 버선감 다듬은 필목으로는 잔새우 4사발을 받아 왔는데 겨우 3사발이다.

17일 · 18일. 그저께 절에 갈 때 보니 마을 어귀에 밭 가운데에 어지러이 풀을 쌓아 두었기에 오늘 세 우마를 보내서 실어 왔다. 이는 곧 절 중의 물건으로 30여 묶음

이나 된다. 요새 마초가 떨어졌는데 얻을 길이 없어서 몹시 민망히 여겼더니 이제의외의 물건을 얻어 10여 일은 먹일 수 있겠으니 기쁘다.

19일. 지난밤 꿈이 몹시 흉하더니 깨고 나자 심혼이 놀라서 끝내 안정이 되지 않고 아침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 토당의 안부가 어떠한지 몹시 걱정스럽다. 사람을 최 판관에게 보내서 암꿩 1마리를 얻어 왔다. 전에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20일. 덕노가 소금을 팔기 위하여 철원에 갔다. 내일이 곧 장이기 때문이다. 또 정목 1필로는 쌀을 바꿔 오게 하고, 팥 3두로는 어물을 사 오게 했다. 설이 이미 가까운데 모든 제사에 쓸 물건과 과세할 물건을 얻을 길이 없고, 나도 또한 세전에 근친을 가야겠는데 어머님께 드릴 물건을 얻을 길이 없으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집사람이 행전을 만들어 백정에게 주고 행담 1개와 중질 그릇 1개를 바꿔 오게 했다.

21일. 현리 무손(武孫)이 와서 보는데, 그편에 들으니 윤겸이 두 번째 지평의 망(望)에 올랐으나 되지 않고 이제 문학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경방자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말한 것이니 필시 헛말은 아닐 것이다. 직동에 사는 고덕필의 집에 지난밤불이 나서 다 탔다고 한다. 최 판관의 매를 어제 잃었다고 한다.

**22일.** 지난밤 꿈에 이자미 · 임경흠이 보이는데 완연히 평시와 같았는데, 깨고 나서 평일에 서로 아끼던 뜻을 생각하니 비참함을 이길 수가 없다.

23일. 덕노가 돌아왔는데 필목으로는 중미 4두 팥 3두를 받고, 은어 7묶음은 팥 2두를 주었고, 방어 1쪽은 팥 1두를 주었으며 대구는 없더라고 한다. 어물이 몹시 귀하니 필시 세초가 임박한 때문일 것이다. 그가 소금 사는 것은 거친 벼 10두, 찰 벼 4두, 거친 쌀 1두를 먼저 주었다. 김억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와서 정조 제사에 쓰겠으니 몹시 기쁘다.

**24일.** 내일 서울에 가야겠기로 행장을 차렸다. 진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꿩 1마리를 얻어 왔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25일. 새벽에 떠나기에 임하여 덕노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핑계가 아니고 실지 병이다. 부득이 도로 중지하니 몹시 민망하다. 만일 수일 이내에 차도가 없으면 비단 세전에 대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조의 제물을 모두 여기에서 준비해 가지고 가는 데에 만일 대 가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이 민망하다. 아침에 남

촌에 사는 전 만호가 와서 보고 찹쌀 8되를 주고, 그 사위 강백령은 또 백미 1두를 보냈으니 후의가 몹시 감사하다. 아침밥을 대접해 보냈다. 김 주부가 역시 김 만호 편에 꿩 1마리를 보냈다. 날이 밝기 전에 후임 어미의 4촌 조카가 도망한 종 수이를 붙잡으려고 왔는데 수이는 뒤울타리를 뚫고 달아났으니 밉살스럽다. 수이는 곧은개의 남편이다. 또 들으니 김 봉사 경이 지난 초승에 세상을 버렸다 하니 애도함을 이길 수 없다. 김은 곧 후임 어미의 3촌 숙모로서 일찍이 서로 알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자라, 더욱 몹시 비통하다. 피란해서 연안 땅에 와 있었다.

26일. 덕노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이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정조가 이미 박두했으니 내일 만일 떠나지 않으면 제물을 보낼 수가 없을 것이니 몹시 민망하다. 부득이 수이의 상전이 가는 편에 나도 또한 언노를 데리고 이불보따리를 싣고 양식과 콩은 또 수이의 말에 싣고서 내일 떠날 작정이다. 계집종 은개도 역시 가게 되었으니 비록 종이 없더라도 이 사람에게 의지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27일. 내가 새벽부터 기운이 불편하니 필시 범한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 가지 못하고, 인아가 대신 가고자 하기 때문에 나의 행구를 모두 주어 보냈다. 다만 날씨가 어제부터 몹시 춥고 또 큰 바람이 종일 그치지 않아 우리 새집 지붕을 말아 사방으로 날려 흩어지고 먼지가 하늘에 가득하니 인아가 어떻게 갔는지 몹시 걱정스럽다. 모든 제물 및 행량 이외에 딴 물건은 가지고 가지 못하고, 어머님께 목미 1두를 겨우 보냈다. 늦은 후에 이웃 사람 조인손이 능군으로 서울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서 윤겸의 편지와 이천 · 보은 두 딸의 편지와 해주 윤함의 편지,네 곳의 편지가 모두 왔는데 보니 모두 잘 있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김랑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우리 집이 이미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하여 일부러 종을 보내서 문안한다고 했다. 이천 진아는 대역을 잘 치르고 지금은 걸어 다닌다고 하니 더욱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들으니 수학의 누이는 지난 19일에 올라갔다고 한다. 다만 들으니 윤겸은 계속해서 제집사가 되어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것이 4일이어서이 때문에 기운이 몹시 불편하고, 또 안질이 몹시 중해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아뢰고 물러가서 조리한다고 한다. 또 지난 14일의 정목을 보니 윤겸은 하루 내에 계속해서 흥문관 수찬의 부망(副堂)과 지평의 수망(首堂)에 올랐으나 되지 못

하고, 끝내 문학의 수의에 참여하여 얻었으니, 어찌 우리 집 자제가 청선(淸選)에 참여할 줄 생각했으랴. 밤새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들으니 윤겸이 남인 과 사귄 자가 많았기 때문에 시의가 임명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하니 막힌 것이 많다 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운명이니 어찌 복이 되지 않을지 알 수 있으랴. 이제 윤 겸의 편지를 보니 지난 21일에 중전의 재궁을 발인하여 능소에 이르렀는데 밤중에 불이 시녀의 방에서 난 것을 즉시 끊지 못하고 마침내 영악전에 연소되어 재궁을 겨우 딴 곳으로 옮겨 모셨다고 하니. 이는 전고에 없었던 대변이다. 이 말을 들으 니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만 모든 의물은 모두 구해냈고, 이튿날 그전 시각에 하관하고 모든 일이 끝내 흠이 없었다고 하니 이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바야흐 로 실화해서 황황할 즈음에 동궁은 다만 내관 몇 사람만 데리고 영악 건너편으로 도망해서 불음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곡하므로 궁료들도 모두 따라갔다 고 하니 이 밤의 놀라고 참혹한 모양을 다 쓸 수가 없다. 또 윤함의 편지를 보니 성 아를 데리고 절에 올라가서 글을 읽는데, 성아는 《천자문》을 다 읽고 지금은 조그 만 분판에 글씨를 쓴다고 한다. 신천태수 이창복의 답장을 역시 받아 가지고 왔는 데 보니, 안악 종 은광의 일이다. 그는 동지에 편지를 가지고 서울에 갈 때 그 장모 가 쫓는 하인들을 많이 풀어 놓아 은광 및 그 자손을 잡아 감옥에 죄수가 가득하여 가두지 못하고 도로 내려오자 즉시 놓아 보냈다. 원래 그 일에 간여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그 장모가 크게 노하여 도보로 서울에 가서 법사에 아뢰려 했다니. 부인 의 성품이 어찌 이렇게 사납단 말인가. 탄식스럽다.

28일. 아침 식사 전에 김언보가 데리고 간 사람이 서울에서 돌아와서 윤겸의 편지 및 보은 · 이천 두 딸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보은 딸의 편지를 보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전인해서 문안했다가 우리 집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대로 돌아갔다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산 꿩 3마리 · 말린 대추 2두 · 모과 정과 1항아리를 보내왔다. 이천에서는 편지지 2묶음을 보냈고, 윤겸은 말린 민어 1마리 · 찹쌀 1두 · 청어 4마리를 보내왔다. 또 말하기를 만일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계속해서 토당으로 보냈다 하고, 이천도 일이 있어 역시 서울에 왔다가 또 쌀과 반찬을 보냈다 한다. 또 들으니 윤겸의 첩의 딸은 초겨울에 죽었다 한다. 난 지 겨

우 4개월에 요절했으니 이와 같은 인생은 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슬픈 일이다. 29일. 덕노의 병은 더욱 더하고 조금도 달하지 않다. 창아도 그저께 저녁부터 또한 아파서 밤새 울고 젖을 먹지 않으니 역질인가 의심스러워 몹시 민망스럽다. 설이 이미 박두했는데 집에 종이 없어서 나무를 베지 못해서 조석 밥 짓는 것도 계속하지 못하니 더욱 민망스럽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니 안아의 가는 길이 어떠한지 알수가 없어 걱정스럽기 끝이 없다. 저녁에 신우봉댁에서 전인해 보냈기에 온 글을펴보니 안악 종의 일을 말했는데 여덟 장에 이르는 종이에 만단의 말이 모두 선세에 알지 못하던 일이다. 알수가 없어서 도외에 두고 모름지기 애써 연구할 것이 없다. 부인의 성품이 이와 같이 포악하여 이 지극한 데에 이르는가. 온 종에게 밥을 대접했다.

그믐날, 우봇댁 종에게 답장을 써 주어 보내고, 그편에 유함에게 편지를 하여 신천 태수로 하여금 해주에 전해 보내도록 했다. 면홍환 50알을 보내어 윤함의 자녀로 하여금 역질을 앓기 전에 먹게 했다. 이 약은 전일에 보은 딸이 얻어 보낸 것인데. 이는 곧 김랑이 전 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딸이 얻어서 쓰고 남은 것 백 50알을 보내서 이곳의 아직 역질 하지 않은 자들이 나누어 먹게 한 것이다. 지난밤에 큰 눈이 내려 거의 반 자가 넘는다. 나무는 떨어지고 날씨 춥기가 이와 같으며 덕노는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니 몹시 민망하다. 마초를 자를 때는 매양 이웃 사람을 빌려 서 했는데 아직 자르지 못하고 있으니 더욱 민망하다. 창아의 아픈 것은 어제와 같 고 얼굴 위에 돋은 것이 보이니 필시 역질인가 보다. 그러나 아직 확실치 않다. 이 까닭에 비록 대명일이라고 모든 반찬 만드는 일을 모두 두고 하지 않았다. 떡 만들 려고 가루를 빻았으나 하지 않아서. 차례의 제구도 이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 창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손을 소매에 넣고 묵묵히 앉아서 비록 술과 꿩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인아는 오늘 토당에 도착했을 것이나 날씨가 이 같이 추우니 잘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금년 작동의 소출은 기장 · 피 · 조 합해서 모 두 7석 18두, 팥 12석 11두, 콩 8석 11두, 녹두 7두 5되로 이상 모두 29석 12두 7되 이다. 지은 것이 지극히 적어서 소출이 겨우 이와 같으니 금년의 간고한 모양을 말 할 수가 없다.



## 신축일록 | 辛丑日錄

# 정월

- 1일. 창아가 새벽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이와 같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그쳤다. 어제 나타난 것은 별로 커지지는 않으나 얼굴에서 몸까지 번지면서 붉은 좁쌀 같은 것이 돋아나니 의심컨대 대반이 아니고 홍역인가 보다. 이 때문에 오늘이 비록 대명일인데도 신주께 차례도 올리지 못하고 온 집안 상하가 또한 반찬도 갖추어 먹지 못하면서 다만 만두 만들려던 밀가루로 수제비만 만들어먹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각각 술과 떡을 가져와서 떡이 한고리에 가득 차 있고, 술도 두어 병이나 된다. 그러나 와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술을 대접하지 않고, 다만 역질이 들었다고만 말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 2일. 창아의 증세를 다시 보니 붉은 좁쌀 같은 것이 몸에 번졌고 먼저 나왔던 것은 없어지니 필시 홍역이 의심이 없다. 이 때문에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그 묘소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비록 역질이 그 집에는 들지 않았더라도 두려워서 감히 향을 피우지 못했으니 한편 가소로운 일이다. 그저께 집에서 기르는 암탉이 저절로 죽었으니 괴상한 일이다.
- 3일. 요새 일기가 몹시 추운데 땔나무가 이미 떨어져서 방이 몹시 차서 집사람이 촉랭하여 가슴이 조금 아프다니 걱정이다. 날씨가 이렇게 찬데 백 가지 물건이 다 떨어졌는데도 손을 맺고 홀로 앉아 있어 백 가지로 생각해도 계책이 없으니 가소 로운 생애를 탄식한들 무엇하랴. 인아는 서울에 간 뒤에 소식을 듣지 못하겠는데, 생각건대 내일쯤 마땅히 떠나 돌아올 것이다.
- 4일. 어젯밤에 꼬리가 흰 개를 범이 물어 갔다. 일찍이 임천에 있을 때 병신년 봄에 강아지를 얻어다가 이리로 끌고 온 것이 이제 6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번범에게 쫓겼어도 간신히 면하더니 이제 면하지 못했으니 아깝다. 이 개는 능히 달리는 노루도 쫓아가서 잡고, 또 성질이 유순해서 조석에 남은 밥을 매양 친히 주었으므로 내가 몹시 사랑했더니 이제 나쁜 짐승이 먹었으니 탄식함을 금할 수 없다.
- 5일. 오늘은 곧 집사람 생일이다. 그러나 집안에 역질이 들어서 적막하게 그대로

보냈으니 탄식스럽다. 창아는 몸에 가득하던 것이 이미 없어지고 또 아픈 빛도 없어 놀고 웃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니 기쁘다. 다만 제 어미가 어제부터 감기에 걸려오래도록 차도가 없으니 걱정스럽다. 범이 개를 물어간 뒤로 밤마다 문밖을 왕래하고 혹 문 앞에 쭈그리고 앉은 흔적이 있으니 필시 외양간에 소가 있는가 엿본 것이다. 비록 문은 단단히 잠궜지만 몹시 두렵다. 김언보가 서울에서 돌아와서 윤겸의 편지를 전하기에 보니 곧 2일에 쓴 것이다. 인아는 지난 그믐날 성 밖에서 바로토당으로 갔기 때문에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하고 다만 은개만 보았다고 한다. 제물이 미처 대 오지 못할까 걱정되어 그곳에서 꿩과 닭, 자반 등 물건을 얻어 보냈고,어머님께서는 평안하시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민어 1마리를 언보가 오는 편에 보내왔다.

6일. 후임의 어미가 3일부터 기운이 불편하여 지금까지 차도가 없으니 걱정스럽다. 김언보가 이제 역시 와 보았는데, 윤겸은 세전에 계속해서 지평·헌납·수찬의 망(望)에 올랐으나 모두 얻지 못했다고 한다. 오늘은 일기가 몹시 화창하여 벌통에서 많은 벌들이 모두 나와서 놀음으로 비로소 얼어 죽지 않은 것을 알겠으니기쁘다.

7일 · 8일. 부석사의 중 법희가 와서 보므로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덕노로 하여금 두부콩 2두를 부석사에 보내서 두부를 만들어 왔다. 집안에 역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을 수가 없다. 부석사 중들이 우리 집에 간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10여 사발을 수합해서 보냈다.

9일.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대접했다. 곧 설 때 와서 본 사람들을 역 질로 인해서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전풍 등이 관역으로 서울에 가기에 여러 곳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보은 · 이 천에도 역시 써 보냈다. 윤합이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다.

11일. 저녁에 윤함이 돌아왔다. 한노가 밖에 나가서 그가 오기를 기다려 떠나느라고 이렇게 오래 서울에 머물렀다고 한다. 두 번 토당에 가 뵈었다고 한다. 또 윤겸의 편지를 보니 이제 도목정(都目政) 에 홍문관 수찬으로 옮겨 임명되었는데. 체찰

1 도목정(都目政): 조선 시대에 이조와 병조에서 벼슬아치의 치적을 심사해 면직하거나 승진시키던 일.

사 이덕형이 그 종사로 계청해서 오는 13일에 장차 영남으로 간다고 하니 놀랍고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비단 제 몸이 멀리 떠날 뿐 아니라 우리 집이 올라갈 때 모든 일을 오로지 그 힘에 의뢰할 것인데 이제 되지 않겠으니 더욱 민망하고 탄식스럽다. 문학(文學)은 5품이요 수찬(修撰)은 6품이기 때문에 받는 녹봉도 역시 1석이 감한다고 하니 가소롭다. 어머님께서 흰 떡 1행담 및 어육 구이, 자반 등 물건을 보내시고, 언명은 독한 술 1병을 또한 보냈다. 이은신이 말린 은어 5묶음을 보냈고, 윤겸은 찹쌀 2두를 보냈다. 또 도목정을 보니 내가 선공감역 부망(副望)에올랐다가 되지 않고, 수의 여순원이 제수받았다 하니 이 역시 운명이다. 어찌하랴. 이제 자식의 힘으로 해서 60에 비로소 벼슬의 망에 올랐으니 비록 되지는 않았어도 또한 하나의 다행한 일이다. 내가 일찍이 음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감역이라도 취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벼슬길이 몹시 좁아 달리 의망을 얻지 못했다 한다. 광노는 꿀을 싣고 이미 강도로 갔다고 하니 만일 이 값을 얻는다면 봄 지날 일을 걱정이 없겠으니 몹시 기쁘다.

12일 · 13일. 관노 춘금이가 가는 길에 여기에 와서 수일 동안 머무르다가 토당으로 들러 간다고 하기에 편지를 써서 주고, 또 꿩을 어머님께 보내드렸다. 이 사람은 전일에 우리 집에서 사환할 때 막비와 살았기 때문이다. 이천 아노 덕수가 왔다. 이는 딸이 전인해서 편지를 보내 물은 것이다. 자방이 백미 5두 · 소주 1병 · 대구 3마리를 보냈고, 진모는 청어 1두름 · 조기 2묶음 · 유병 1행담 · 강정과 실과 1행담 · 기름 1되 · 목화 4근을 얻어 보냈다. 들으니 제 어머니의 옷에 둘 것이 없기때문에 보낸 것이다. 진모는 곧 내 딸이니 사례할 것이 없고, 자방의 후의에 깊이 감사할 뿐이다.

14일. 이천 종 덕수가 북면으로 갔다. 이는 곧 그 댁 종을 잡아가기 위해서다. 갈 때 여기를 들러서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말해 보냈다. 덕노는 그저께부터 도로 아파서 제 처와 함께 몹시 심하게 앓으니 걱정스럽기 끝이 없다. 비단 온 집안이 갈날이 박두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환으로 부릴 사람이 없으니 몹시 민망하다. 어제 마초가 이미 떨어졌기에, 이웃 사람들에게 빌리려 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15일. 어제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계속하여 큰 눈으로 변하여 밤새 개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의 깊이가 거의 한 자가 넘는다. 올 겨울의 눈이 오늘처럼 많이 내린 일이 없다. 두 종은 병으로 누웠고 다만 한 어린 종뿐이어서 능히 눈을 쓸 수 없는데 마침 이웃 사람 언방ㆍ정린이 여기에 왔기에 앞마당을 쓸게 하고 약 밥을 대접했다. 오늘은 속절이어서 차례를 지내려 했으나, 집사람이 역질이 들었을 때는 신이 오지 않는다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만 약밥을 천신했을 뿐이니 탄식스럽다. 윤겸은 그저께 이미 떠나서 영남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슬프고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16일 · 17일. 자방의 종 덕수가 북면에서 돌아왔는데 내일 가려 하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고 편지를 썼다.

18일. 덕수가 돌아가기에 말장 5두를 주어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 또 윤해에 게도 편지를 써서 주어서 진모로 하여금 양지 윤해의 집에 보내게 했다. 거리가 겨우 하룻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말장은 들으니 신상례가 서울에 왔는데 간장이 없어서 얻으려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에 콩을 이미 삶아서 만든 것을 보낸 것이다. 아침에 익담촌에 왕래할 때 자던 집주인 자근동이 마침 일이 있어 이 근처에 왔기 때문에 와서 보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집에 줄 물건이 없어서 다만 1잔 술을 먹여 보냈으니 한스럽다.

19일·20일. 내일 덕노로 하여금 콩과 팥을 싣고 먼저 중로로 보내야겠기에 두량해서 콩과 팥을 묶었다.

21일. 덕노 및 한세·언세 등에게 콩과 팥을 말 2마리와 소 1마리에 싣고 떠나 내서 양태항 이인준의 집에 두게 하고 그편에 편지를 써 보냈다. 또 대구 1마리를 인준에게 보냈다. 두 말에는 각각 팥 23두를 싣고, 소에는 콩 25두를 싣고 갔다. 1바리는 적두이다. 목박 새것 1개, 백반 2개, 족반 2개, 다리 부러진 소반 1개, 깨진 소반 1개도 모두 보냈다. 나막신 2쌍은 모두 콩과 팥섬 속에 넣어서 보냈다. 이는 곧 갖다 쓰기가 서울보다 가까워서 우리들이 올라간 뒤에 즉시 인마를 보내서 실어갈 계획이다. 다만 들으니 진흙길이 얼어서 미끄럽다고 하니 필시 우마의 발이미끄러워 가지 못할 것이다. 안협사람 진수가 꿩 2마리를 가져왔다. 이는 곧 전일

우리 매를 사갈 때 꿩 10마리를 잡아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뒤에 매가 병이 있다고 칭탁하고 날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오늘 비로소 꿩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매의 병이 지금은 회복되어서 길들여 날렸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라 한다. 술을 대접해 보냈다.

22일. 전풍이 어제저녁에 서울에서 돌아와 윤겸의 편지를 가져왔기에 보니, 곧 16일에 쓴 편지이다. 17일에 체찰사(이덕형)가 떠나는데 마땅히 모시고 가야 할 것이나 여러 날 입직했다가 어제저녁에 비로소 집에 돌아와서 모든 행구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으니 슬프고 탄식함을 그칠 수가 없다. 또 정목을 보니 철원부사 윤방이이제 승지에 임명되어 올라갔다 했으니, 우리 집이 가는데 더욱 의뢰할 곳이 없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윤함이 명저를 찾아갈 일로 전인해서 올려 보내는 편에 편지도 역시 왔는데 아직 무사하다고 한다. 다만 역질이 근처에 바야흐로 번져서 아직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걱정이라고 한다. 명저는 일찍이 강남평의종이 내려갈 때 보냈으므로 필시 미처 서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향도회음을 하면서 숨과 안주를 가져와서 즉시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23일. 덕노 등이 밤이 깊어서 왔는데 싣고 간 물건은 이인준의 집에 두었고, 왕래할 때 길이 질고 얼음이 미끄러워서 간신히 왔다고 한다. 철원 새 부사는 곧 박동 언이라 한다. 이는 곧 중전의 조카이다.

24일 · 25일. 전일 큰 눈이 내린 후에 고을 안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노루를 쫓아물어 와서 많은 자는 3, 40마리요, 적어도 10여 마리는 되기 때문에 철원 장에서 필목 1필이면 노루 5마리를 바꾼다 한다. 고을 사람이 쌓아 두고 아직 잡지 않은 것도 많은데, 관노 수남은 3, 4일 동안 잡은 것이 30여 마리에 이르고, 또 어떤 여자는 개를 데리고 노루를 쫓아서 3일 안에 15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까닭에 오늘 전업이 현에 들어가는데 필목 반 필을 주어서 노루를 바꿔 오게 했는데, 만일 2마리를 주거든 바꿔 오라고 말해 보냈다. 김언신이 전일 가지고 간 필목으로 콩을 바꿔 15두를 가져오기로 약속했는데 먼저 13두를 가져왔다. 박언방이 필목 값을 가져오지 않아서 적두 1두 5되를 가져왔다. 곧 쌀 1두 1되가 본전이다.

26일. 윤겸이 떠난 것이 만일 27일로 정해져서 떠났다면 이제 이미 10여 일이 되

었으니 반드시 조령을 넘어 지금쯤 영남의 반쯤에는 이르렀을 것이다. 왕사가 안정되지 않았으니 집을 돌아다볼 수 없지만, 사사로운 정으로 생각한다면 민망하고 절박한 일이 많을 것이니 멀리 생각이 끝이 없다. 식사 후에 최중운에게 가 보았다. 전일에 와서 찾은 것에 답례하는 것이다.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하는데 반찬에 꿩과 노루고기가 있다. 꿩은 그 매가 잡은 것이요, 노루는 고을 안 사람들이 쫓은 것이라 하니 곧 전일 내린 눈에 얻은 것이다. 관가에 바친 것도 7, 80마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관인들이 잡은 것도 몹시 많다고 한다.

27일. 전업이 현에서 돌아왔는데 전에 보낸 필목으로는 노루를 사지 못하고 다만 아전들이 1마리를 얻어 보냈다. 또 병리 이신득이 다리 2개를 역시 얻어 보냈다. 이 필목은 짧고 거칠어서 노루 2마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도로 가지고 왔다 한다. 즉시 노루고기를 구워서 술을 대접해 보냈다.

28일. 아침에 최중운이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 묻고, 그편에 꿩 및 노루뒷다리 1 짝, 감장 1사발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사례했다. 또 말린 대추 2되를 보내 갚았다. 감장은 우리 집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29일. 전에 윤겸이 편지하기를, 일찍이 이천태수를 만났더니 만일 사람을 보내면 마땅히 구제의 물건을 주겠다고 했다기에 오늘 아침에 덕노를 보냈다. 전업이 오늘 또 현에 들어가기에 좋은 필목 반 필을 주어 산 노루를 사 오게 했다. 겸해서 소를 타고 갔다가 싣고 오게 했다. 제가 소를 타고 가기를 원하고 힘을 다해서 사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언신이 전일에 필목을 바꿀 때 받지 않은 콩 2두 및 패랭이 1개로 또 2두를 받아 가져왔다. 또 들으니 최 판관이 사람을 현에 보내서 산 노루 5마리를 실어 왔다고 한다. 그믐날 덕노가 오지 않으니 필시 어제 편지를 바치지 못한 것이다.

### 2월

1일. 곧 죽은 딸 단아의 기일이다. 그러나 집안에 역질이 들었기 때문에 전일에 윤 겸에게 편지를 보내서 계집종 옥춘으로 하여금 묘하에 가서 잔을 올리게 했었는데 마침 윤겸이 바로 가서 미처 지내지 못할까 걱정하더니, 전일에 이천 아노가 돌아

갈 때 진모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정녕히 말해 보냈으니 두 곳에서 필시 그대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지내지 못해서 종일 생각하니 비참한 회포를 금할 수가 없다. 세후로 집사람이 별로 아픈 곳도 없으면서 원기가 불안하여 이불을 끼고 항상 누워 있고 일어나 앉는 것을 별로 없으며, 음식도 전보다 아주 감해지니 걱정스럽다. 덕노가 왔는데 이천에서 보낸 것은 밭쌀 2두·콩3두·간장 1두·꿩과 닭 각 1마리이니 가위 손이 작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으로서울 갈 종의 양식과 마태로 쓰련다. 또 들으니 어제 한 고을의 군사들을 모두 모아서 꿩 7석, 노루 6마리를 받아 오게 했다고 한다. 매월 이와 같이 하여 백성들이몹시 괴로워한다. 1석의 꿩이라면 4,50마리는 들어간다고 한다.

- **2일.** 전업이 산 노루 2마리를 사 왔다. 포를 만들어 제사에 쓰려는 것이다. 진수가 꿩 1마리를 가져왔다.
- 3일. 그저께 비가 내린 후로 얼음과 눈이 모두 녹아서 냇물이 몹시 늘었으니, 모레 덕노를 시켜 짐을 싣고 먼저 서울로 보낼 텐데 길이 질고 내가 넘치니 걱정스럽다. 사온 노루를 포를 만들었더니 크고 적은 것 도합 5첩 7조각이다.
- 4일. 집사람의 증세는 오래도록 낫지 않는데, 떠나갈 날짜는 멀지않으니 그 안에 쉽게 차도가 없을까 걱정스럽다. 대장장이 춘복으로 하여금 도끼를 고쳐 만들게 하고, 또 칼과 낫 등 물건도 벼렸다. 가래는 대감 3개로 바꿨다. 수공으로 팥 1두를 주었다. 홍언규에게 보낸 벌통이 모두 얼어 죽었으니 아깝다.
- **5일.** 집사람은 어제부터 차츰 나아 가니 기쁘다. 그러나 병이 증세가 일정치 않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 6일. 내일 덕노 등이 먼저 짐을 싣고 올려 보내기 때문에 오늘 짐을 묶었다. 덕노의 말에는 두 계집종의 팥 8두, 언세의 팥 1두 6되, 말장의 팥 2두 5되를 실었고, 윤함의 말에는 그 집 팥 22두로 1바리를 만들어 한세가 끌고 가고, 꿀 7되들이 각 및 화로 1개 · 뚜껑 없는 솥 1개 · 뚜껑 1개 · 비 2개 · 노루가죽 3개 · 발 있는 나무상 1개 · 호미 3자루 · 도끼 1개와 그 나머지 소소한 물건들은 싸서 보냈다.
- **7일.** 아침 식사 후에 덕노 등이 떠났는데, 인아는 말이 발을 절기 때문에 부득이 암소에 짐을 감해 실어 보냈다. 팥 4두를 덜어냈다. 우마 3마리와 세 종의 양식과 콩

을 모두 주었다. 콩은 4두 8되로, 죽거리는 가루로 만든 것 3두포, 양식은 밭쌀 2두, 또 마초 값으로 팥 1되를 주었다. 갈 때 4일, 서울에 머무르는 것 1일, 오는데 3일, 도합 8일로 따져 계산했다.

8일. 박언방이 서울에서 와서 학수의 편지와 이천, 보은의 두 딸의 편지도 모두 왔기에 펴 보니 모두 잘 있다고 했으니 깊이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김랑의 편지도역시 왔는데 이는 곧 지난달 10일에 쓴 것이다. 윤겸은 이미 떠나갔는데, 갈 때 자방이 중로에 나와 보았다고 한다. 광노가 싣고 간 꿀과 밀은 이미 강화부에 바쳤는데 값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광노는 이미 서울로 돌아갔다고 한다. 또 들으니 만춘은 이제 이미 대역을 치르고 무사하다고 하니 기쁘다. 다만 들으니 우리 집 식구들이 들어가 살 곳에 있다고 하니, 우리 집이 올라간다면 그들은가서 살 곳이 없을 터이니 이것이 민망스럽다.

9일·10일, 덕노 등의 가는 거리를 따져 보니 오늘쯤 서울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 러나 들으니 길이 질어서 자기가 몹시 어렵다고 하니 무거운 짐을 싣고 가려면 무 사히 서울에 도착했는지 몰라서 몹시 걱정스럽다. 처음에는 씨 벌을 실어 보내 려 했으나 들으니 길이 질고 물이 많아서 필시 중로에 자빠지고 물건이 젖을 걱정 이 있어 보내지 않았다. 지금은 많은 벌들이 출입하면서 놀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 가니 형세가 실어갈 수 없어서 언신에게 바꿔 주어 기르게 하다가 뒤에 실어갈 계 획이다. 윤해의 종 안손이 말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 집 행차를 모시고 가기 위해 서다. 이천 딸 편지도 역시 왔는데 모두 무사하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딸이 쌀 2 두·대구 1마리·방어 2조각·청주 2병을 얻어 보냈고, 학매는 생숭어 1마리를 보 냈다. 토당 아우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어머님 모시고 잘 있다고 하니 몹시 기쁘 다. 방어 1조각 · 생문어 2마리를 얻어 보냈다. 이는 곧 강릉 심열이 보낸 물건이 라고 한다. 우리 집 행차는 오는 15일 및 22일로 택일했다고 하는데. 15일은 급박 하고 또 서울에 간 종과 말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22일로 정해서 갈 계획이 다. 또 들으니 새 태수는 곧 임경원으로서 서경이 이미 끝났다고 한다. 임은 곧 처 사촌 태의 아들인데, 태는 지금 개성도사로 있다. 서로 가까이 지내던 친한 사이여 서 몹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구관은 4일에 떠나갔다고 한다. 또 들으니 윤 해는 제 형이 죽산에 도착하던 날 나가 보고 같이 잤다고 한다. 진수가 꿩 1마리를 오는 사람 편에 보냈다.

11일. 채억복이 적두 12두를 가져왔다. 곧 패랭이 값이다. 또 삶은 상수리알 1부대를 가져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마초가 장차 떨어지겠기에 안손을 연수에게 보내서 7묶음을 얻어서 실어 왔다.

**12일.** 종일 큰 바람이 불고 큰 눈이 내렸다. 덕노 등은 오늘 마땅히 올 것인데 눈이 이처럼 내리니 필시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13일. 밤새 큰 눈이 내리더니 아침이 되어도 그치지 않는다. 지난겨울의 눈도 오늘보다 더하지는 않았다. 요새 일기가 온화해서 진흙길이 말라가더니 이제 눈이 내려서 질기가 필시 전보다 갑절이나 더할 것인데 우리 집 행차가 마침 이때 당했으니 필경 자빠지고 빠지는 걱정을 면치 못할 것이 몹시 걱정스럽다. 또 이천 딸의편지를 보니 지난 1일에 제 아우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기쁘다.

14일·15일. 최 판관이 어제 편지를 보내 청하기에 일찍 식사를 마친 뒤에 갔더니·김명세·김린·김애일이 뒤따라왔다. 오늘은 곧 그 집 대기이다. 제사를 지낸 후에 우리들을 청해서 이야기하다가 먼저 과일과 면과 떡 등 물건을 내오고 각각 술을 몇 소배 돌리고 나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 각각 헤어졌다. 또나에게 떡과 과일 1행담을 주어서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같이 먹었다. 그에게 들으니 전 태수 이민성은 어제 떠나갔다고 하는데 추한 말이 많은데 비록 족히 믿을 수는 없으나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꺼리는 것이 없어서 내가 보고들은 것도 역시 많았으니 능히 의심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현의 백성으로 난리 후에 딴 관청으로 옮겨간 자들을 찾아내어 데리고 돌아오되 오지 않는 자에게는 혹 정목 1필을 받기도 하고 흑명주 반 필을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웃 종족에게까지 미쳐서 중국 군사의면피(面皮)가 부방군의 가포라고 핑계 대고 거두었는데, 둘 곳이 없어서 모두 먼저 아노를 시켜 밤으로 남몰래 실어 갔다고 한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아내에 말 4 필을 세워 두고 다달이 2, 3차례씩 종을 시켜 실어 갔는데, 큰 범이나 작은 표범을 백성들이 우연히 잡아 관에 바친 것은 의당 사도께 바쳐야 할 것인데, 이는 함정에

서 잡은 것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목을 거두어 가죽을 사서 바치게 했다. 이 같은 일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아직 들은 것만을 기록한다. 또 관노 춘금이가 아내의 구종(하인)으로 오래 아구에 있어서 그 일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 했으니 필경 헛소리는 아닐 것이다. 딴 곳으로 옮겨간 백성은 거의 4, 5백이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 명 앞에 필목 1필, 명주 반 필씩이면 적어도 5, 6동은 될 것이다. 또 이 필목으로 목박·목반·유기 등 물건을 많이 사서 실어 갔다고 한다.

16일. 인아의 말이 앞발을 잠시 절어서. 서울 갈 때 가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에 삭 녕 사람 정광신의 말과 바꾸고 지난해 낳은 암송아지를 더 주었다. 이 말의 나이는 12, 3세로 일찍이 힘이 있는 것을 알기에 바꾼 것이다. 어두운 뒤에 덕노가 돌아왔 는데 싣고 간 물건은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고. 어머님께서도 역시 평안하시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다만 박 교리가 서울에 없기 때문에 편지를 받아 오지 못하고 다만 철원의 실내 편지만을 받아 왔다. 신상례도 역시 답장을 하고, 또 대구 1마리 를 보냈다. 또 유격의 편지는 송노가 받아 가지고 왔는데 보니, 순찰하다가 함창에 이르러 쓴 것으로 무사하다고 했다. 송노는 문경현에 있을 때 잡아다가 즉시 올라 가게 했기 때문에 와 보는 것이다. 이 종은 지난 병신년 가을에 임천에 있을 때 도 망가서 문경 가안현 안에 있는 분개 어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 윤겸이 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필목 1필, 건시 8곶, 찹쌀 5되를 가져왔다. 6년 동 안 도망가서 공물을 바치지 않다가 이제 아주 적은 물건을 가져왔으니 몹시 밉지 만 그러나 용서해 참고 아직 내버려 두었다. 마침 서울 가는데 사람이 없는 때여서 이는 기쁜 일이다. 그에게 들으니 막정이 낳은 두 딸은 모두 죽었고, 송노는 장가 를 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윤해의 집 팥·콩·녹두는 새로 되어서 억수의 집에 두었다.

17일. 내일 먼저 안손을 보내기 때문에 말장 13두 및 일용으로 쓰는 물건을 그 댁으로 보내고, 팥 3두, 콩 3두도 함께 보냈다. 또 편지도 써서 보냈다. 또 아우의 편지를 보니 황해·충청 두 도의 올 감시 유생들이 서로 공격하고 난을 부려서 방(榜)을 내지 못했다 한다. 두 곳은 모두 아들과 사위가 본 곳인데 만일 그렇다면 10

년 동안 바라던 것이 모두 헛일이 되었으니 탄식스럽다. 그러나 아직 확실치가 않다.

18일. 안손이 올라가는데 먼저 짐을 실어 보냈다. 또 송노로 하여금 고개 넘는 데 까지 보내 주고 돌아오게 했다. 어제 덕노로 하여금 필목을 가지고 가서 여러 곳에 서 쌀을 사 오게 했으나 팔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으니 민망하다. 마침 수이가 소 금 15두를 사다가 팔지 않고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우선 꾸어서 쌀로 바꾸어 양식 으로 쓰련다. 이제 또 덕노로 하여금 싣고 가서 산참 등지에 팔라고 했다. 들으니 요새 눈이 내려 길이 질어서 소금장사가 촌에 오지 않아서 소금이 없는 탄식이 바 야흐로 심하다고 하기에 실어 보낸 것이다. 최 판관이 서자가 있는데 초례를 행하 려고 하여 목안을 간절히 구하므로 김랑이 가지고 왔던 목안을 보냈다. 저녁에 덕 노가 소금을 팔아서 쌀 6두, 겉조 3두를 받아 왔는데 소금과 쌀을 맞바꿨다 하고, 남은 소금은 다시 안협 땅에 가서 판다고 한다. 철워부사(박동언)가 봉고하는 일로 현에 왔다가 백미 1두, 팥 2두를 보냈다. 아전들의 고목에 새 태수는 오는 21일에 떠나서 24일에 관청에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필경 도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19일. 부석사의 중 법희 · 태현이 와서 보고 짚신을 가져왔다. 전일에 팥을 보내서 사 온 것이다. 밥을 대접해 보냈다. 이웃 사람 억수 · 억지 형제가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또 마태 각 1두를 가져왔다. 전귀실이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또 마 태 1두와 무 두어 말을 가져왔다. 박문재의 처도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민시중은 팥 1두와 김치 1그릇을 가져왔다. 덕노가 소금을 팔아서 쌀 2두, 겉조 6두 5되를 가져왔다. 이것으로 행량은 되겠으나 마태가 부족하니 민망스럽다. 전업의 처가 전병 1행담, 전풍의 처가 김치와 차좁쌀 5되를 가져왔다. 저녁에 개질지ㆍ풍금이 등이 말을 가지고 왔으니 모시고 가기 위해서다. 또 윤겸의 편지를 보니 곧 이달 6 일에 보낸 것으로서 대구부 감사영에서 쓴 것인데. 계본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편지를 보니 일행이 아직 무사하고 그길로 영천 · 경주로 향했다가 또 동래 · 울산 및 연변 여러 진으로 내려가서 여러 고을을 출입하면서 형편을 살 펴보고 나서, 그길로 전라좌도 통제사의 진 친 곳에 들러 수전의 절차를 설치한 뒤 에 성주로 돌아오면 3월 초승이 될 것인데, 그길로 또 호서로 향하여 근친할 계획

이라고 했다. 다만 여러 고을이 분탕을 당한 나머지에 천 리에 인연이 아주 끊어졌는데 변방은 더욱 심하니, 이때를 당해서는 관중·제갈량의 재주로도 역시 용무의 땅이 없다고 하니 진실로 한심한 일이다. 윤해의 편지도 역시 왔는데 시험 보는 일로 서울에 도착하여 이미 초장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언보·박언방이 각각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왔고 박언수는 꿩 1마리를 가져왔다.

20일. 최중운(최응진)이 내가 모레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와서 작별하고 또 간장·감장을 가져다준다. 우리 집에 떨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안협 사람 진선이 와서 보고 꿩 2마리·햇파를 가지고 왔는데, 술이 없어서 다만 전병을 대접해 보냈다. 후아가 보름께로부터 이질을 앓아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혹 많기도 하고 혹 적기도 하여 도수를 알 수가 없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계집종 막비가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다기에 감한으로 알았더니 오후부터는 몹시 심하게 아프단다. 강비도 역시 전에 앓던 학질을 앓으니, 모레 떠나려 하는데 모두 병들이 이와 같으니 몹시 민망하다. 집에서 치는 벌 3통을 지금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에게 나누어 두고 간다. 김억수, 김언신 및 집주인 억지 등에게 주었는데, 억수·언신은 저녁에 모두 옮겨 갔는데, 서로 약속하기를, 오는 여름에 벌이날 때 먼저 나는 것 1통 외에 그 나머지는 비록 2, 3통이라도 모두 제가 차지해 기르고 오는 가을에 꿀을 딸 때 마땅히 사람을 보내서 때 가기로 정녕히 말했다. 다만 이로 인심이 너무 미련해서 속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21일. 막비는 밤새 괴로워하더니 닭이 울 때 좀 나으니 필시 초학 증세이다. 다시오늘 증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김 주부 명세·김 별감 린·권 봉사 흠·교생 김애일이 각각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와 보고 두 김은 역시 마태 각각 2두를 가져다 주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김담이 와 보고 꿩 각각 1마리씩 주므로 술을 대접해 보냈다. 안협 사람 진선은 어제 와 보고 꿩을 주더니 오늘은 또 마태 10두를 보냈으니 몹시 기쁘다. 마태를 얻지 못하여 바야흐로 필목을 팔려고 했는데 마침 이때에 맞춰 주었으니 더욱 기쁘다. 내일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구를 차렸다. 전풍·진수가 각각 꿩 1마리씩을 가져오고, 진수는 마태 2두를 역시 가져왔다. 업수는 익힌 꿩을 가져왔다. 집안에서 쓰는데 상관없는 물건은 모두 이웃 사람

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2일. 늦은 후에 비로소 떠나는데 이웃 마을에서 평일에 친하게 지내던 자들은 모두 모여서 송별했고, 소근전의 향도인 및 이 마을 향도인 중에서 나이 젊고 건장한 사람 10여 명을 뽑아서 교자를 메고 말지령을 넘었다. 이 고개는 길이 좁기 때문에 일찍이 두 향도 행수에게 청해서 집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험한 길에 말을 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개를 넘어 고막근의 집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는데, 막근이 밥을 지어서 점심으로 대접한다. 또 이웃 마을 소를 빌려서 혹 타기도 하고 혹 짐을 싣고 왔다. 김언신은 자기 소에 짐을 싣고서 수 3일 동안 모시고 가겠다고 한다. 그곳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모두 작별하고 돌아갔다. 오후에 떠나서 철원 땅 백악촌에 사는 안희수의 집에 이르러 잤다. 마침 희수는 나와 동갑이고, 그 아내도 역시 집사람과 동갑이다. 떡을 쪄서 내오고 또 탁주를 대접하고 또 참쌀 3되를 주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중국 바늘 및 비단과 명주 두 곳으로 보답했다. 삭녕 사람 김인수가 마침 일이 있어 여기에 왔다가 와서 보고 닭 1마리를 준다. 그는 곧 김억수의 사촌으로 일찍이 서로 알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흐리고 눈이 내렸다.

23일. 눈이 두어 자나 내리고 개었다. 잔 집에서 아침을 먹고 떠났는데 박언방은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절반 거리쯤 와서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이고 나서 또 떠나서 멀리 오지 않았는데 평강의 새 태수 임경원을 만나서 길가에서 말에서 내려 이야기했다. 마침 임면부의 부인도 역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집사람이 비록 만나 보기는 했으나 길이 총총해서 회포를 다 풀지 못하여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고 작별했다. 그는 곧 경원의 삼촌 숙모로서 과거하여 궁해서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시고 가서 봉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멀리 가지못하고 해가 저물어서야 양태항 이인준의 집에 이르러 자는데 인준의 집에 두었다.

24일. 잔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떠나서 가사야에 이르니 길이 질어서 빠지는 곳이 많다. 간신히 자빠지고 빠지는 것을 면하고 대탄 건너편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다만 아침에 떠날 때 계집종 강춘 및 개비 등이 발이 아프다

고 하기 때문에 증파도 길로 향했다가 거의 반식의 거리나 간 뒤에야 간신히 길을 물어서 큰길을 찾아서 왔다. 여기에서 또 길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속아서 또 영평 길로 향하다가 마침 양반의 일행을 만나서 길을 물었더니 이것은 서울로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고 데리고 오다가 가르쳐 주어서 점심 먹는 곳으로 따라오게 되었다. 오늘은 반드시 익담촌에 이르고 내일은 마땅히 서울에 들어갈 것인데 인마가모두 피곤해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자에 이르러 잤다. 이곳에 사는 양반 김수희와 김세정 두 사람이 와서 보기에 마초 두어 묶음을 빌었다.

25일. 날이 밝자 떠나서 천천촌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오늘 서울에 들어가려 했으나 마침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머물러 잤다. 상하 일행이 많은데 행자가 장차 떨어지겠으니 걱정이다. 일정을 계산해서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의외로 체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일도 만일 비가 내리고 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26일.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누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는데, 윤해가 마중을 나왔다. 윤해에게 들으니 이번 동당시에 책(策)으로 차상(次上)에 합격했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또 떠나 서울에 들어오니 해가 이미 저녁이 되었다. 집사람은 광노의 집으로 가고 나는 이웃집에서 잤다. 아우도 역시 마중 나와서 같이 잤다.

27일. 남매가 집사람에게 와 보았다. 마침 남이상이 해서에서 서울로 돌아왔는데 올 때 윤함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와서 주기에 보니 저는 아무 일이 없으나 다만 집안에 역질이 들었는데 네 남녀가 모두 잘 치렀고, 또 제 처가 지난 14일 사시(已時)에 아기를 낳아서 또 남자인데, 7일 안에 또 대역을 치렀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이 뒤로는 종이도 다되어 그만 쓰기로 한다. 또 서울에 도착했으니 유리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지은이 소개 | 오희문 吳希文 (1539~1613)

본관 해주(海州), 호 비연(斐然). 1591년 충청도와 전라도를 여행하다가 이듬해 장수현(長水縣)에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약 3개월 동안 산속에서 난을 피했으며, 겨울에 강원도로 피란하였던 가족들과 만나 홍주(洪州), 임천(林川) 등지를 옮겨 다니며 겪은 일을 일기로 남긴 것이 보물 제1096호인 (쇄미록)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장수·예산·임천 등지에서 살았고, 1596년에는 아들 오윤겸이 수령으로 있는 평안도 평강(平康)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1601년 유랑 생활을 끝내고 서울에 돌아와 살았다. 관직 생활은 하지 못하였으나, 오윤겸이 인조 때 영의정까지 올랐으므로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 옮긴이 소개 | 이민수 李民樹

충남 예산 출생.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집필위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위원, 사서연역회 편집위원 역임. 저서로 (학계 선생 약전) (윤봉길 의사 약전) 등이 있고, 역서로는 (삼국유사) (격몽요결) (징비록) (동의수세보원) (연려실기술) (당의통략) (연암선집) (효경) (순오지) (공자가어) (주역) 외 다수가 있다.

# 쇄미록2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5년 11월 1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